

華城 盤松里 中世遺蹟

15 東灘 宅地開發事業地區內
地 點 發掘調查報告書

2006

韓國文化財研究所
畿甸文化財研究所
附設

學術調查報告 第72冊

華城 盤松里 中世遺蹟

- 東灘 宅地開發事業地區內 15地點 發掘調查報告書 -



學術調查報告 第72冊

華城 盤松里 中世遺蹟

- 東灘 宅地開發事業地區內 15地點 發掘調查報告書 -

2006

京畿文化財團附設
畿甸文化財研究所
韓國土地公社



學術調查報告 第72冊

華城 盤松里 中世遺蹟

- 東灘宅地開發事業地區內 15地點 發掘調查報告書 -

2006

京畿文化財團附設
畿甸文化財研究院
韓國土地公社

◇ 일러두기 ◇

1. 본 보고서는 화성 동탄택지개발사업지구내 유적중 하나인 반송리 15지점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이다. 15지점 유적은 지표조사시 유물산포지 15로 명명되고, 시굴조사시 15지점으로 지칭한 것이다.
2. 도면의 방위는 磁北을 기준으로 하였다.
3. 본문에 삽입된 지도는 국립지리원 발행 지도를 이용하였다.
4. 유구도면의 축소비율은 주거지와 수혈, 미상유구는 1/40, 건물지는 1/50, 분묘는 1/30로 하였으며 구상유구는 축소비율을 달리하여 각 도면에 축척을 표시하였다.
5. 유물도면의 축소비율은 자기류와 도기류는 1/3, 석제품이나 금속류는 1/2, 동전과 소형 유물은 실대크기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대형 도기와 지석 몇점은 축소비율을 달리하였으며, 각 도면에 축척을 표시하였다.
6. 주거지와 건물지의 도면에 망쳐리된 부분은 고래나 아궁이, 소토를 나타내고 분묘에 망쳐리된 부분은 회곽의 회를 나타내며 각 도면에 범례로 표시하였다.



원색사진1. 반송리 중세유적(15지점) 발굴조사 전경(①), 근경(②)



원색사진2. 청동기시대 1호주거지 전경(①), 출토유물(②청동기 시대 1호주거지, ③조선시대 9호주거지, ④·⑤지표수습)



원색사진3. 조선시대 주거지 전경(①1호, ②2호) 및 아궁이 세부(③7호, ④31호, ⑤36호)



①



③



④



②



⑤



⑥



⑦



⑧

원색사진4. 출토유물(①7호 · ②14호 · ③9호 · ④22호 · ⑤34호 · ⑥1호 주거지, ⑧1호건물지, ⑦지표수습)



원색사진5. 출토유물(①~③14호묘, ④조선시대 7호주거지, ⑤·⑥지표수습 명문와)

차 례

I. 머리말	17
II. 遺蹟의 位置와 環境	
1. 自然·地理的 環境	19
2. 考古學的 環境	20
3. 歷史的 背景	22
III. 調査內容	30
1. 青銅器時代	30
1) 住居址	
(1) 1號 住居址	30
(2) 2號 住居址	33
2) 竪穴	
(1) 1號 竪穴	36
2. 朝鮮時代	36
1) 住居址	
(1) 1號 住居址	36
(2) 2號 住居址	41
(3) 3號 住居址	41
(4) 4號 住居址	43
(5) 5號 住居址	46
(6) 6號 住居址	46
(7) 7號 住居址	48
(8) 8號 住居址	49
(9) 9號 住居址	50
(10) 10號 住居址	58
(11) 11號 住居址	61
(12) 12號 住居址	63
(13) 13號 住居址	63
(14) 14號 住居址	66
(15) 15號 住居址	68

(16) 16號 住居址	71
(17) 17號 住居址	73
(18) 18號 住居址	75
(19) 19號 住居址	75
(20) 20號 住居址	78
(21) 21號 住居址	82
(22) 22號 住居址	83
(23) 23號 住居址	85
(24) 24號 住居址	87
(25) 25號 住居址	87
(26) 26號 住居址	89
(27) 27號 住居址	89
(28) 28號 住居址	92
(29) 29號 住居址	94
(30) 30號 住居址	95
(31) 31號 住居址	98
(32) 32號 住居址	98
(33) 33號 住居址	100
(34) 34號 住居址	103
(35) 35號 住居址	107
(36) 36號 住居址	109
(37) 37號 住居址	111
(38) 38號 住居址	115

2) 豎穴

(1) 1號 豎穴	118
(2) 2號 豎穴	118
(3) 3號 豎穴	121
(4) 4號 豎穴	121
(5) 5號 豎穴	121
(6) 6號 豎穴	123
(7) 7號 豎穴	123
(8) 8號 豎穴	123
(9) 9號 豎穴	125

3) 建物址	
(1) 1號 建物址	125
(2) 2號 建物址	132
(3) 地上式 建物址	137
4) 墳墓	
(1) 1號 墓	139
(2) 2號 墓	140
(3) 3號 墓	140
(4) 4號 墓	142
(5) 5號 墓	142
(6) 6號 墓	142
(7) 7號 墓	142
(8) 8號 墓	144
(9) 9號 墓	144
(10) 10號 墓	144
(11) 11號 墓	148
(12) 12號 墓	148
(13) 13號 墓	151
(14) 14號 墓	151
5) 溝狀遺構	
(1) 1號 溝狀遺構	157
(2) 2號 溝狀遺構	161
(3) 3號 溝狀遺構	162
6) 未詳遺構	162
7) 地表收拾遺物	163
Ⅳ. 고찰	178
Ⅴ. 맺음말	183
부록	
1. 화성 동탄 반송리 중세(15지점) 유적에 대한 고고지자기학적 연구	297
2. 화성 동탄 반송리 중세(15지점) 유적 출토 인골분석 보고서	305

도면 차례

도면 1. 盤松里 中世遺蹟(15지점) 位置圖(1:50,000)	25
도면 2. 조사지역 근세지도(『近世韓國五萬分之一 地形圖』朝鮮總督府)	26
도면 3. 조사지역 고지도(大東輿地圖 1861刊)	27
도면 4. 유적 주변지형도(1:5,000)	28
도면 5. 遺構配置圖	29
도면 6. 靑銅器時代 1號住居址 遺構	31
도면 7. 청동기시대 1호주거지 출토유물	32
도면 8. 청동기시대 2호주거지 · 1호수혈 유구	34
도면 9. 청동기시대 2호주거지 출토유물	35
도면 10. 朝鮮時代 1號住居址 遺構	37
도면 11. 2호주거지 유구	39
도면 12. 1호주거지(1~5), 2호주거지(6) 출토유물	40
도면 13. 3호주거지 유구 및 출토유물	42
도면 14. 4호주거지 유구	44
도면 15. 5호주거지 유구 및 출토유물	45
도면 16. 6호주거지 유구 및 출토유물	47
도면 17. 7호주거지 유구 및 출토유물	49
도면 18. 8호주거지 유구	50
도면 19. 9호주거지, 10호주거지 유구	51
도면 20. 9호주거지(1~9), 10호주거지(10~12) 출토유물	53
도면 21. 9호주거지 출토유물	55
도면 22. 9호주거지 출토유물	56
도면 23. 9호주거지 출토유물	57
도면 24. 10호주거지 출토유물	60
도면 25. 11호주거지 유구 및 출토유물	62
도면 26. 12호주거지 유구 및 출토유물	64
도면 27. 13호주거지 유구 및 출토유물	65
도면 28. 14호주거지 유구 및 출토유물	67
도면 29. 15호주거지, 16호주거지 유구	69
도면 30. 15호주거지(1~5), 16호주거지(6~9) 출토유물	72
도면 31. 17호주거지 유구 및 출토유물	74
도면 32. 18호주거지, 19호주거지 유구	76

도면 33. 19호주거지 출토유물	77
도면 34. 20호주거지, 21호주거지 유구	79
도면 35. 20호주거지(1~6), 21호주거지(7~13) 출토유물	81
도면 36. 22호주거지 유구 및 출토유물	84
도면 37. 23호주거지 유구 및 출토유물	86
도면 38. 24호주거지 유구	87
도면 39. 25호주거지 유구 및 출토유물	88
도면 40. 26호주거지 유구 및 출토유물	90
도면 41. 27호주거지 유구 및 출토유물	91
도면 42. 28호주거지 유구 및 출토유물	93
도면 43. 29호주거지 유구 및 출토유물	95
도면 44. 30호주거지, 31호주거지 유구	96
도면 45. 30호주거지 출토유물	97
도면 46. 32호주거지 유구 및 출토유물	99
도면 47. 33호주거지 유구	101
도면 48. 33호주거지 출토유물	103
도면 49. 34호주거지 유구	104
도면 50. 34호주거지 출토유물	106
도면 51. 35호주거지 유구 및 출토유물	108
도면 52. 36호주거지 유구 및 출토유물	110
도면 53. 37호주거지 유구 및 출토유물	112
도면 54. 37호주거지 출토유물	113
도면 55. 37호주거지 출토유물	114
도면 56. 37호주거지 출토유물	116
도면 57. 38호주거지 유구 및 출토유물	117
도면 58. 1호수혈 유구	119
도면 59. 2호수혈 유구	120
도면 60. 3호수혈 유구	120
도면 61. 4호수혈 유구	120
도면 62. 5호수혈 유구	122
도면 63. 6호수혈 유구	122
도면 64. 7호수혈 유구	122
도면 65. 8호수혈 유구	122
도면 66. 9호수혈 유구	124
도면 67. 4호수혈(1~4), 6호수혈(5), 9호수혈(6) 출토유물	124
도면 68. 1호건물지 유구	127

도면 69. 1호건물지 출토유물	129
도면 70. 1호건물지 출토유물	130
도면 71. 2호건물지 유구	133
도면 72. 2호건물지 출토유물	135
도면 73. 2호건물지 출토유물	136
도면 74. 지상식건물지 유구	138
도면 75. 1호묘 유구	138
도면 76. 2호묘 유구	139
도면 77. 3호묘 유구	140
도면 78. 4호묘 유구	141
도면 79. 5호묘 유구	141
도면 80. 6호묘 유구	143
도면 81. 7호묘 유구	145
도면 82. 8호묘 유구	145
도면 83. 9호묘 유구	146
도면 84. 10호묘 유구	146
도면 85. 11호묘 유구	147
도면 86. 12호묘 유구	147
도면 87. 13호묘 유구	148
도면 88. 14호묘 유구	149
도면 89. 14호묘 출토유물	152
도면 90. 14호묘 출토유물	153
도면 91. 14호묘 출토유물	154
도면 92. 1호 구상유구	158
도면 93. 2호 구상유구	159
도면 94. 3호 구상유구	160
도면 95. 1호 구상유구(1~6), 2호 구상유구(7~9) 출토유물	161
도면 96. 미상유구	163
도면 97. 지표수습유물(1)	164
도면 98. 지표수습유물(2)	166
도면 99. 지표수습유물(3)	168
도면 100. 지표수습유물(4)	171
도면 101. 지표수습유물(5)	173
도면 102. 지표수습유물(6)	175
도면 103. 지표수습유물(7)	178

사 진 차 례

사진 1. 盤松里 中世遺蹟(15지점) 발굴조사전 전경, 조사 전경	187
사진 2. 반송리 중세유적(15지점) 조사 근경	188
사진 3. 靑銅器時代 1호주거지 조사전 전경, 내부토층	189
사진 4. 청동기시대 1호주거지 내부노출상태, 조사후 전경	190
사진 5. 청동기시대 1호주거지 유물출토상태, 추정 노지, 주혈	191
사진 6. 청동기시대 1호주거지 출토유물	192
사진 7. 청동기시대 2호주거지 조사전 전경, 내부노출상태, 작업공, 유물출토상태	193
사진 8. 청동기시대 2호주거지 내부 토층, 출토유물, 1호수혈 전경, 유물출토상태, 출토유물	194
사진 9. 朝鮮時代 1호주거지 조사전 전경, 내부토층	195
사진 10. 1호주거지 전경	196
사진 11. 1호주거지 세부	197
사진 12. 1호주거지 유물출토상태, 출토유물	198
사진 13. 2호주거지 전경	199
사진 14. 2호주거지 내부토층, 바닥 세부, 아궁이, 배연부, 출토유물	200
사진 15. 3호주거지 전경	201
사진 16. 3호주거지 아궁이, 배연부, 유물출토상태, 출토유물	202
사진 17. 4호주거지 전경	203
사진 18. 4호주거지 바닥 세부, 아궁이, 배연부	204
사진 19. 5호주거지 전경, 내부토층, 유물출토상태, 출토유물	205
사진 20. 6호주거지 전경, 내부토층, 추정 아궁이, 출토유물	206
사진 21. 7호주거지 전경	207
사진 22. 7호주거지 아궁이 세부, 주혈, 유물출토상태, 출토유물	208
사진 23. 8호주거지 전경, 내부토층	209
사진 24. 9호주거지 조사전 전경, 내부 토층, 노출전경	210
사진 25. 9호주거지 전경, 유물출토상태	211
사진 26. 9호주거지 출토유물	212
사진 27. 9호주거지 출토유물	213
사진 28. 9호주거지 출토유물	214
사진 29. 9호주거지 출토유물	215
사진 30. 10호주거지 전경	216
사진 31. 10호주거지 추정아궁이, 출입구, 주혈, 9호주거지와 중복상태	217
사진 32. 10호주거지 유물출토상태, 출토유물	218
사진 33. 11호주거지 전경, 주혈, 출토유물	219
사진 34. 12호주거지 전경, 주혈, 출토유물	220

사진 35. 13호주거지 전경, 아궁이, 아궁이 토층, 출토유물	221
사진 36. 14호주거지 전경, 아궁이, 주혈, 유물출토상태, 출토유물	222
사진 37. 15호 · 16호 주거지 전경	223
사진 38. 15호 · 16호 주거지 내부토층, 15호주거지 내부수혈 토층, 유물출토상태	224
사진 39. 15호주거지 출토유물	225
사진 40. 17호주거지 전경	226
사진 41. 17호주거지 내부토층, 바닥 세부, 북서 모서리 세부	227
사진 42. 17호주거지 주혈, 유물출토상태, 출토유물	228
사진 43. 18호 · 19호 주거지 전경	229
사진 44. 18호주거지 배연부, 19호주거지 세부, 18호 · 19호주거지 · 3호묘 중복상태	230
사진 45. 19호주거지 출토유물	231
사진 46. 20호 · 21호 주거지 전경	232
사진 47. 20호주거지 아궁이, 21호주거지	233
사진 48. 20호주거지 출토유물	234
사진 49. 21호주거지 출토유물	235
사진 50. 22호 주거지 전경	236
사진 51. 22호주거지 출토유물	237
사진 52. 23호주거지 전경	238
사진 53. 23호주거지 바닥 세부, 배연부, 주혈, 출토유물	239
사진 54. 24호 주거지 전경	240
사진 55. 25호 주거지 전경, 바닥 세부, 출토유물	241
사진 56. 26호 주거지 전경, 주혈, 출토유물	242
사진 57. 27호 주거지 전경, 주혈	243
사진 58. 27호 주거지 바닥 세부, 유물출토상태, 출토유물	244
사진 59. 28호 주거지 전경, 주혈	245
사진 60. 28호 주거지 유물출토상태, 출토유물	246
사진 61. 29호 주거지 전경, 배연부, 바닥세부, 출토유물	247
사진 62. 30호 · 31호 주거지 전경, 내부토층	248
사진 63. 30호 · 31호 주거지 전경, 30호주거지 아궁이, 유물출토상태, 출토유물	249
사진 64. 32호주거지 전경, 출토유물	250
사진 65. 33호주거지 전경	251
사진 66. 33호주거지 배연부 세부 출토유물	252
사진 67. 34호주거지 전경, 바닥 세부	253
사진 68. 34호주거지 유물출토상태, 출토유물	254
사진 69. 35호주거지 전경, 아궁이 세부	255
사진 70. 35호주거지 출토유물	256
사진 71. 36호주거지 전경, 아궁이 세부, 출토유물	257
사진 72. 37호주거지 전경	258

사진 73. 37호주거지 아궁이 세부, 유물출토상태	259
사진 74. 37호주거지 출토유물	260
사진 75. 37호주거지 출토유물	261
사진 76. 38호주거지 전경, 유물출토상태, 출토유물	262
사진 77. 1호 · 2호 수혈 전경, 내부토층	263
사진 78. 3호수혈 전경, 내부토층, 4호수혈 전경, 내부토층, 출토유물	264
사진 79. 5호수혈 전경, 세부, 6호수혈 전경, 유물출토상태, 출토유물	265
사진 80. 7호수혈 전경, 8호수혈 전경, 내부토층, 9호수혈 전경, 내부토층, 출토유물	266
사진 81. 1호건물지 전경	267
사진 82. 1호건물지 노출전경, 고래, 배연부, 추정 담장석렬	268
사진 83. 1호건물지 동남쪽 수혈, 동북쪽 수혈	269
사진 84. 1호건물지 아궁이, 아궁이 남쪽 주혈, 아궁이 남쪽 수혈, 출토유물	270
사진 85. 1호건물지 출토유물	271
사진 86. 2호건물지 전경	272
사진 87. 2호건물지 석렬, 적심, 유물출토상태	273
사진 88. 2호건물지 출토유물	274
사진 89. 2호건물지 출토유물, 지상식건물지 전경	275
사진 90. 1호묘, 2호묘 전경	276
사진 91. 3호묘, 4호묘, 5호묘, 6호묘 전경	277
사진 92. 7호묘, 8호묘 전경	278
사진 93. 9호묘, 10호묘, 11호묘, 12호묘, 13호묘 전경	279
사진 94. 14호묘 전경	280
사진 95. 14호묘 남쪽 토광, 북쪽 토광	281
사진 96. 14호묘 출토유물	282
사진 97. 14호묘 출토유물	283
사진 98. 구상유구, 1호 · 2호 구상유구 전경	284
사진 99. 1호 · 2호 · 3호 구상유구 전경, 내부토층	285
사진 100. 구상유구 출토유물	286
사진 101. 미상유구 전경	287
사진 102. 지표수습유물	288
사진 103. 지표수습유물	289
사진 104. 지표수습유물	290
사진 105. 지표수습유물	291
사진 106. 지표수습유물	292
사진 107. 지표수습유물	293
사진 108. 지표수습유물	294

I. 머리말

盤松里 中世遺蹟(15지점)이 위치하고 있는 화성시 동탄면은 지리적으로 오산시의 북쪽, 수원시의 남쪽, 화성시의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다. 지형적으로는 동쪽으로 신갈저수지에서 발원한 오산천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황구지천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있다. 두 하천사이에는 해발 100m 내외의 저평한 구릉들이 연속되고 하천변에는 비옥한 토양이 분포하고 있어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살기 적합한 환경 조건을 구비하고 있었다. 이러한 자연, 지리적 입지는 근래 팽창하는 수도권 인구의 분산배치를 위해 계획된 신도시개발에 필요한 환경요건에 적합하여, 동탄지역은 선사시대의 조용한 풍광에서 벗어나 신도시개발예정 지역에 편입되어 현대의 최첨단 신도시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한국토지공사에서는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반월리, 능리, 병점리, 동탄면 석우리, 반송리, 금곡리, 오산리, 청계리, 영천리 일원의 9,060,000㎡에 대한 신도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지구내 문화재조사를 우리 연구원에 의뢰하여 음에 따라 2001년 3월 12일부터 동년 5월 31일까지 대상지역에 대해 지표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¹⁾.

지표조사결과, 고고분야 26개 지점에 걸쳐 분묘 및 유물산포지를 확인하였으며 그중 반석산을 중심으로 한 유물산포지 3개소(11~13지점)와 지표조사시 기초치된 1개소(19지점)를 제외한 22개소 대해 문화재청의 허가(제 2002-36호:2002.02.04)를 얻어 우리 연구원에서 2002년 3월 18일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 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금번 대상유적인 화성 동탄 중세유적은 행정구역상 京畿道 華城市 東灘面 盤松里 380番地 일원에 해당한다. 지표조사 당시 유물산포지 15로, 시굴조사 당시 15지점으로 명명하여 조사가 진행된 곳으로 지표조사 당시 연결토기 저부, 회청색 경질토기, 암키와, 백자, 청자 편 등이 확인되어 고려시대 이후의 생활, 분묘유적의 분포가능성이 높았다. 시굴조사 결과, 구릉 능선부에서 청동기시대 방형주거지 1기, 할석유구 1기, 노지 1기, 수혈유구 7기 등 10여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적갈색 무문토기편과 도기, 자기, 기와편 등이 수습되었다.

전체 동탄 시굴조사 대상지역이 광범위하고 연차적으로 제척 및 조사가 진행된 관계로 유적의 분포가능성이 높은 15지점은 문화재청의 허가(제2004-84호: 2004.02.10)를 별도로 얻어 전체시굴조사 완료이전인 2004년 3월 11일부터 2004년 7월 30일까지 140일간에 걸쳐 12,854㎡(약 3,888坪)에 대한 전면 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조사결과, 靑銅器時代 住居址 2基 및 竪穴 1基, 朝鮮時代 住居址 38基, 竪穴 9基, 建物址 3棟, 墳墓 14基, 溝狀遺構 3基, 未詳遺構 1基 등 71基의 遺構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조사를 위한 조사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畿甸文化財研究院·韓國土地公社, 2001, 『華城 東灘地區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조 사 단 장 : 장 경 호(기전문화재연구원장)

지 도 위 원 : 김 동 현(한국전통문화학교 석좌교수, 문화재위원)

조 유 전(동아대학교 초빙교수, 당시 문화재위원)

지 건 길(동아대학교 초빙교수)

이 남 규(한신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책임조사원 : 김 무 중(기전문화재연구원 조사2팀장, 현(재)한국고고환경연구소 연구실장)

조 사 원 : 정 해 득(기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고 재 용(기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허 미 형(기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이 승 연(기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조사보조원 : 이 경 원(기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윤 현 희(기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이 미 란(기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김 태 근(기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채 정 민(기전문화재연구원 사원)

현장조사는 장경호의 책임하에 김무중이 총괄하였으며 이경원이 실무를 담당하였다.

유물정리와 보고서 발간은 조사담당자의 이직으로 인하여 조사2팀의 지원아래 유물정리팀의 김영화가 담당하였다. 유물의 실측은 김유진을 비롯한 유물정리팀의 보조원들이 작성한 것을 김영화가 검토하였고, 유물도면의 제도는 이현경(유물정리팀 보조원)이, 유구도면의 전산작업은 김국환(기전문화재연구원 위촉조사원), 조지원(유물정리팀)이 담당하였다. 유물사진은 오세윤(사진작가)이 촬영하였고, 일부는 남주연(보존과학실 연구원)의 도움을 받았다. 도면과 사진 등 전체의 편집은 김영화가 진행하고 김현미(신라대학교 사학과), 박민희(신라대학교 사학과)가 보조하였다. 금속유물의 정리와 처리는 보존과학팀에서 담당하였다.

본문 기술 중 I 장은 정상석(기전문화재연구원 조사2팀장)이, II ~ V 은 김영화가 담당하였는데, 유구 원고는 조사자료를 토대로 조사실무 담당자인 이경원(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술하였다. 유물 기술 중 기와 부분은 고재용(기전문화재연구원 조사1팀장)이 담당하였다. 보고서의 교열은 김성태(연구실장)가 담당하였다.

유적에 대한 고고지자기 분석은 성형미(동양대학교 문화재학과), 9호묘에서 출토된 인골의 분석은 박순영(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김상인(서울대학교 대학원), 이준정(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선생님께서 맡아 주었고, 조사된 유구 중 조선시대 2호주거지는 지도위원회회의의 결과에 따라 한국민속촌으로 이전 복원이 추진되었는데 이에 대한 전사 이전은 서정호(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학과) 선생님이 담당하였다. 그리고 출토된 자기류에 대한 시기구분은 이종민(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선생님과 장남원(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선생님께서 도움을 받았기에 이에 감사를 드린다.

권지연, 정한나 등 용인대학교 문화재보존학과 학생들과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학생들은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유구조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아낌없는 실무지원으로 우리 조사단의 조사에 도움을 주신 한국토지공사 화성사업단 여러분께도 지면을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린다.

Ⅱ. 遺蹟의 位置와 環境

1. 自然·地理的 環境

華城市는 경기도의 西南部인 동경 126°34~127°10, 북위 37°00~37°22에 위치한다 동쪽은 龍仁市, 서쪽은 黃海에 면하여 있고, 남쪽은 烏山市와 平澤市, 북쪽은 水原市·安山市와 접하고 있다. 화성의 지리적 위치는 우리나라 남북의 중간지대에 해당한다. 따라서 화성 일대에서는 기후, 식생분포, 토지이용, 가옥구조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漸多의 특징이 현저하다.

화성지역의 지형은 강원도 북부에서 남남서로 달리는 광주산맥과 그 남쪽 차령산맥 사이의 서쪽 말단부에 해당하고 있어 100m 이하의 저산성 구릉성 산지가 대부분이다. 동북쪽으로는 光校山(582m), 修理山(474m) 등 비교적 산세가 깊은 산지가, 중앙부는 七寶山(239m)·樓鳳山(243m)·烏頭山(141m)·泰峰山(223m)·太行山(292m) 등과 같은 저산성 구릉성 산지가, 그리고 서남쪽으로는 低平한 평야지대가 나타난다.

경기도에는 始生帶의 지층이 주로 발달되어 있는데, 화성시에 주로 분포된 지층은 그 중 下部連天系이다. 이 지층에는 회색 편마암의 암층이 주로 발달하여 화성 일대는 주로 편마암층의 지배를 받고 있다. 화성시의 토양은 주로 해안지 토양, 내륙 평탄지 및 곡간지 토양, 저구릉지·산록지 토양 등으로 삼분할 수 있다. 해안지 토양은 고도 10m 이하의 해안지대에 분포하며, 논농사지대이나 회색의 충적토양으로 염기성이 강하고 배수성은 좋지 않다. 내륙 평탄지 및 곡간지의 토양은 고도 10~40m 사이의 저평지에 발달한 충적토로 논농사의 최적지이다. 저구릉지·산록지 토양은 적황색의 토양으로 고도 40~150m 지대에 널리 발달하고 있는데 갈색이 많고, 입자가 굵으며 대부분 밭이나 과수원지대로 이용된다.

기후는 한반도의 중서부에 속하여 겨울에는 대륙기단인 시베리아기단의 지배를 받아 한냉건조하며, 여름에는 해양기단인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으로 고온다습한 계절적 특색이 그대로 나타난다. 특히 온난한 남부 지방으로부터 대륙성의 북부 지방으로 옮겨가는 점이지대의 성격이 강하다. 이 기후형은 위도에 따른 기온 변화와 식물분포상의 변화가 현저하고 10℃내외의 연평균기온, -3.5℃ 가량의 1월 평균기온이 특징이다.

화성시의 연평균기온은 10~11℃이며 1월 평균기온은 -4~6℃이다. 강수는 장마철의 강우와 7~9월 사이 태풍에 의한 강우가 대부분이다. 연강수량은 기복이 심한 편이나 대략 1250mm 내외이다.

연강수량의 68%가 6~9월 사이에 집중되는 반면, 12~2월 사이에는 불과 6%에 불과한 전형적인 하계 집중형 강수분포를 보이고 있어 풍수해와 한발이 심각하게 나타난다. 식물분포는 북부기후형 지역과 남부기후형지역과의 점이지대를 이루어 이들 양 지역의 식물이 混生하고 있다.

화성동탄 택지개발지구내 유적의 하나인 盤松里 中世遺蹟(15지점)은 해발 122.3m 盤石山의 남동쪽 가지능선의 끝자락에 해당되는 低平한 구릉성 산지이며 해발 38~48m에 해당한다. 유적의 주변으로는 해발 100m이하의 얇은 구릉들이 북서-남동 방향으로 길게 연결되어 분포하고 있으며, 동쪽에는 烏山川이, 서쪽에는 黃口池川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있다. 오산천과 황구지천 등 풍부한 수자원을 근거리에 둔 낮은 구릉성 산지들이 분포하는 이 지역은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考古學的 環境

화성시는 전체 면적에 비해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최근 크고 작은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유적의 조사가 활발해지고 유적의 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舊石器時代 유적은 발굴조사가 정식으로 실시된 예는 없으나 석기가 수습되거나 구석기유적의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고토양층이 확인되고 있다.

현재는 안산시에 편입되었지만 화성시 반월면 대야미리유적²⁾, 향남면 동오리와 송산면 고포리 어섬유적, 서신면 장외리에서는 석기가 확인³⁾되었으며, 오산시 양산동⁴⁾, 당하리·왕림리에서는 고토양층과 뎡석기가 확인⁵⁾되었다. 태안읍 송산리, 안녕리 유적⁶⁾에서 고토양층이, 화성 기안리 제철유적⁷⁾에서 고토양층과 석기가 확인되었고, 감배산유적⁸⁾에서 고토양층과 함께 타제석기가 출토되었다. 최근 화성 장안리유적⁹⁾과 화성 반월리유적¹⁰⁾에서도 고토양층이 확인되고 있어 구석기유적이 조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新石器時代 유적도 정식으로 조사된 예는 없으나 수원 꽃피유적¹¹⁾과 기흥 상갈리¹²⁾, 제부리패총¹³⁾과 동학산유적¹⁴⁾, 용인 대덕골유적¹⁵⁾에서 즐문토기가 확인되었고, 최근에 조사된 화성 장안리유적¹⁶⁾에서 즐문토기와 보습이 수습되었다.

靑銅器時代 유적은 병점리지석묘군¹⁷⁾, 송산리지석묘¹⁸⁾, 정남면 문학리지석묘¹⁹⁾, 오산시 외삼미동·수청동·금암동 지석묘²⁰⁾, 고금산유적²¹⁾, 화산유적²²⁾이 있다. 또 최근에 발굴조사된 동학산유적²³⁾에서는 청동기시대 전기에서 후기에 걸친 주거지와 환호, 수혈, 구상유구 등 다양한 유구가 확인되었으며, 반송리 18

2) 이용조, 하문식, 1987, 『판교 ~구리·신갈 ~반월간고속도로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

3) 경기도박물관, 1999, 『도서해안지역 종합학술조사 I』 p.42.

4) 한신大學校博物館, 2000, 『水原古邑城』.

5) 崇實大學校博物館·서울大學校博物館·韓國高速鐵道建設公團, 2000, 『華城堂下里 I 遺蹟』.

6) 畿甸文化財研究院, 2003, 『華城 台安(3) 宅地開發豫定地區 文化遺蹟 試掘調査報告書』.

7) 畿甸文化財研究院, 2003, 『華城 旗安里 製鐵遺蹟 發掘調査 略報告書』.

8) 경기대학교박물관, 2004, 『華城 東灘面 풍성주택 新美佳아파트建設敷地 文化遺蹟發掘調査 現場說明會資料』.

9) 水原大學校博物館, 2005, 『화성 장안리유적』 이하-삼계간 도로 확·포장공사구간내 문화유적 발굴조사지도위원회 자료집.

10) 한신대학교박물관, 2006, 『華城 泉川里 靑銅器時代 聚落』 p 20에서 재인용.

11) 水原市·水原大學校博物館, 1997, 『꽃피발굴조사보고서』, 水原大學校博物館著書 第5輯.

12) 명지대학교박물관·한신대학교박물관·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 1998, 『기흥 상갈지구 문화유적 시굴조사 보고서』.

13) 京畿道博物館, 주 3)의 책, pp. 56~61.

14) 한신대학교박물관, 2001, 『華城地方産業團地內 東鶴山遺蹟 試掘調査 報告書』.

15) 畿甸文化財研究院·韓國土地公社, 2003, 『龍仁 竹田宅地開地區內 대덕골유적』.

16) 水原大學校博物館, 주 9)의 자료집.

17) 한신大學校博物館·華城郡, 1995, 『화성군매장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

18) 한신大學校博物館·華城郡, 1995, 주 17)의 책.

19) 명지大學校博物館, 1996, 『화성발안지구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

20) 郡史編纂委員會, 1990, 『華城郡史』.

21) 서울大學校博物館, 2002, 『華城 古琴山遺蹟』.

22) 한신大學校博物館, 2002, 『華山 古墳群』.

23) 畿甸文化財研究院, 2004, 『華城 地方産業團地內 東鶴山遺蹟 發掘調査 略報告書』.

지점유적²⁴⁾, 화성 반월리유적²⁵⁾, 화성 장안리유적²⁶⁾에서도 주거지와 수혈 등이 조사되었다.

原三國 및 三國時代의 유적은 주거지와 저장구덩이가 조사된 고금산유적²⁷⁾, 석곽묘가 확인된 화산유적²⁸⁾, 백곡리고분²⁹⁾과 화성지역 최대규모인 길성리토성³⁰⁾, 생산관련 유구가 확인된 왕림리유적³¹⁾과 가재리유적³²⁾, 안녕리유적³³⁾, 당하리유적³⁴⁾, 목곽묘와 석곽묘가 조사된 마하리고분군³⁵⁾이 있다. 우리 연구원에서 조사한 유적으로는 대규모 취락인 발안리마을유적³⁶⁾, 제철관련 유구가 확인된 기안리유적³⁷⁾, 주거지와 대규모의 수혈이 조사된 석우리 먹실유적³⁸⁾, 오산 가수동 저습지유적³⁹⁾과 가장동유적⁴⁰⁾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 조사된 감배산유적⁴¹⁾에서는 목자형 주거지와 말각방형 주거지가 확인되었고 장안리유적⁴²⁾에서는 제철관련 유구가 확인되었다.

統一新羅時代의 유적은 그다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으나, 최근 이 시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철기 생산관련 시설로 오산 양산동유적⁴³⁾, 관련 유물이 다량 수습된 수원 고읍성⁴⁴⁾이 있다.

高麗時代~朝鮮時代의 유적으로는 동탄택지개발사업지구내 1지점, 25지점, 26지점유적⁴⁵⁾에서는 주거지와 수혈이 조사되었고, 반송리 18지점유적⁴⁶⁾에서 주거지가, 20지점유적⁴⁷⁾에서는 목탄요와 석곽묘·토광묘가, 동학산유적⁴⁸⁾에서는 건물지가 조사되었다. 구문천리유적⁴⁹⁾에서는 숯가마와 주거지, 분묘가 조사되었고, 하가등리⁵⁰⁾유적에서도 목탄요와 분묘가 확인되었다.

24) 한신대학교박물관, 2004, 『盤松里Ⅱ遺蹟(화성동탄지구내18지점) 발굴조사 지도위원회자료』.

25) 한신대학교박물관, 2005, 주 10)의 책.

26) 水原大學校博物館, 2005, 주 9)의 자료집.

27) 서울大學校博物館, 2002, 주 21)의 책.

28) 한신大學校博物館, 2002, 주 22)의 책.

29) 金元龍, 1971, 『華成郡 麻道面 白谷里 百濟古墳과 土器類』, 『白濟研究』제2집, 忠南大學校百濟研究所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4, 『華城百谷里 古墳』.

30) 한신大學校博物館, 20032, 『吉城里土城』.

31) 서울대학교박물관·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1996, 『경부고속철도 서울·경기권 문화유적 지표·시굴조사 보고서』.

32) 한신대학교박물관, 2004, 『화성 팔탄북부 우회도로구간내 가재리유적 지도위원회의 자료』.

33) 畿甸文化財研究院, 2000, 주 6)의 책.

34) 崇實大學校博物館·서울大學校博物館·韓國高速鐵道建設公團, 주 3)의 책.

35) 崇實大學校博物館·서울大學校博物館, 2004, 『馬霞里古墳群』.

36) 畿甸文化財研究院, 2003, 『華城 發安里遺蹟 發掘調査 略報告書』.

37) 畿甸文化財研究院, 2003, 주 7)의 약보고서.

38) 畿甸文化財研究院, 2004, 『石隅里 먹실遺蹟 發掘調査 略報告書』.

39) 畿甸文化財研究院, 2004, 『烏山 佳水洞遺蹟 發掘調査 略報告書』.

40) 畿甸文化財研究院, 2006, 『오산 가장동遺蹟 發掘調査 略報告書』.

41) 경기대학교박물관, 2004, 주 8)의 자료집.

42) 水原大學校博物館, 2005, 주 9)의 자료집.

43) 한신大學校博物館, 1998, 『오산시 양산지구 문화유적 시굴조사 약보고서』.

44) 華城成·한신大學校博物館, 2000, 주 4)의 책.

45) 畿甸文化財研究院, 2006, 『화성 동탄택지개발사업지구내 시굴조사약보고서』.

46) 한신대학교박물관, 2004, 주 24)의 자료.

47) 畿甸文化財研究院, 2004, 『화성 동탄지구 20지점 행정골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48) 畿甸文化財研究院, 2004, 주 23)의 약보고서.

49) 中央文化財研究員·韓國土地公社, 2004, 『華城 求文川里遺蹟』.

50) 中央文化財研究員·韓國土地公社, 2004, 『華城 下加等里遺蹟』.

3. 歷史的背景

1914년 남양군이 수원군에 폐합되고, 1949년에는 수원읍이 시로 승격하면서 시로 편입되지 않은 수원군의 면들로 화성군이 성립되었다. 그러므로 화성시는 남양과 수원 2개 군의 독자적인 연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삼한시대에 화성 일대는 馬韓의 小國이 통치하였다고 한다. 즉 牟水國이 台安, 峰潭, 梅松, 鄉南, 楊甘, 正南, 東灘 일대를, 桑外國이 長安, 雨汀 일대를, 爰襄國이 남양만 일대의 飛鳳, 南陽, 麻道, 宋山, 西新, 八灘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견해가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생각은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닌 추정일 뿐이다.

삼국시대에 화성지역은 그 귀속이 일정하지 않았다. 1세기경 온조왕 때부터는 백제에 속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4세기 말엽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은 즉위하자마자 4만여 군대를 이끌고 백제공략에 나서 오늘날 인천, 한강 유역의 7백여 촌락을 탈취했다고 한다. 이어 장수왕 때에도 고구려의 남진정책은 계속되었다. 백제의 개로왕의 공격으로 피살되고 수도는 남쪽인 웅진으로 옮겨졌다. 이때 아산 만으로부터 차령산맥을 거쳐 죽령까지 연결되는 선이 고구려의 남쪽 국경선이 되었다. 이렇게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점유한 5세기 말엽에 화성 일대는 고구려의 買忽郡과 唐成郡에 통속되었다.

그러나 6세기 중반에 이르러 화성지역은 신라의 영토로 편입되었다. 고구려에 북쪽 영토를 빼앗긴 백제는 성왕 때에 이르러 국도를 泗泚로 천도하고 국호를 南夫餘로 고치는 등 북벌의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였다. 성왕은 551년 동맹국인 신라와 함께 고구려를 물리치고 한강 유역의 6개 군을 탈환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동맹국이었던 신라가 554년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를 격파하고 한강 유역을 장악하게 되었다. 신라는 한강 하류지역을 정복한 직후 이 지역에 新州를 설치하였고, 이에 따라 화성 지역도 신라의 신주에 소속되었다. 화성 내에는 대중국교통의 교두보인 당항성이 있어 고구려, 백제의 연합에 대응하여 중국과의 동맹을 계획하던 신라에게는 어느 지역보다도 요충지적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후 신라에서는 신주와 北潢山州, 南川州를 차례로 이곳에 置廢하였는데, 그때마다 화성도 그 소속에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신라시대에 화성지역은 水城郡이라 불렸다. 이 명칭은 고려초까지 계속 사용되었다.

삼국 통일후, 지방통치체제로 9주 5小京제가 성립되었다. 9주는 새로 정복한 고구려, 백제 주민을 확실하게 복속시키기 위해서 정비한 것으로, 신라, 백제, 고구려의 옛 땅에 각각 3개 주씩을 설치하였다. 그런데 9주 가운데 고구려의 옛 땅에 설치한 潢山州의 규모가 가장 컸다. 당시 한산주는 지금의 황해도, 경기도, 충청도 일부를 포괄하였으며 28개 군, 49개 현이 설치되었다. 이때 화성 일대도 한산주에 소속되었다. 한산주는 통일신라가 757년(경덕왕 16) 행정구역을 개편하였을 때 潢州로 개칭되었는데, 고구려의 매홀군은 潢州의 水成郡이 되었고 당성군은 唐恩郡이 되었다. 당은군은 다시 829년(흥덕왕 4년)에는 唐成鎮이 되었다. 이것은 강화 북쪽의 冗口鎮, 완도의 淸海鎮과 함께 신라 수군의 중요한 근거지가 되었다.

고려 태조가 후백제를 공략하기 위하여 南政 할때 水成의 金七(柒), 崔承珪 등 200여인이 귀순하였다. 그 공으로 934년(태조17) 수성군은 수주로 승격되었다. 고려는 국초 호족연합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성종대까지 지방에 외관이 파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각 지방은 지역의 토착호족들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화성은 국초에 귀순한 수원김씨와 수원 최씨 등의 세력권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시대에 최초로 외관이 파견된 것은 983년(성종 2) 12목을 설치하면서부터이나 수주의 경우에는 995년(성종 14)에 지방제도가 크게 개편되었을 때 도단련사를 두었다. 1005년(목종 8)에 도단련사와 자사가 모두 폐지됨에 따라 수주도단련사도 혁파되었다. 이 무렵 수주는 황남 또는 수성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고려가 지방 호족을 제압하고 지방을 원만하게 장악하게 된 것은 1018년(현종 9) 이후의 일이다. 이때 시행된 지방행정제도는 兩京, 4都護 8牧을 핵심으로 하고 그 예하에 56知州郡事, 28鎭將, 20縣令 두는 것이었다. 水州에는 知水州事를 둬고 동시에 安成, 唐成, 載陽, 安山, 龍城, 貞松, 진위, 陽成들 10개 현을 배속시켰다. 1271년(원종 12) 窄梁을 鎭成하던 몽고병이 대부도에 침입하여 소란을 피우자, 관노비인 崇謙등이 몽고병을 죽이고 항쟁하였다. 이때 水州副使 安悅이 소요를 진압하였다. 그 공로로 수주를 도호부로 승격시키고 이름도 수원으로 개칭하여 水原都護府가 되었다. 수원도호부는 1308년(충렬왕 34) 水州牧으로 승격되었다. 그 뒤 등급은 여러 이유에서 승강을 반복하였으나 이름은 수원으로 계속 내려왔다. 한편 고구려 당성군의 후신인 唐成鎭은 940년(태조 23)에 郡으로서 水州에 배속되었다.

高麗 초기에는 잠시 신라 때의 옛 명칭인 唐恩郡이 되었으며, 1018년(현종 9)에는 수주에, 그 뒤에는 안주에 예속되었다. 1172년(명종 2)에는 감무를 두었고 1290년(충렬왕 16)에는 원나라의 政東行省石叻이 된 洪茶丘의 내항이라 하여 지익주사로 승격되었다. 뒤에 강령도호부를 거쳐 1308년(충렬왕 34) 익주목이 되었다. 1310년(충선왕 2) 모든 목을 철폐할 때 익주목은 남양부로, 수주목은 수원부로 강등되었다. 수원부는 1362년(공민왕 11) 홍건적이 침입하자 고을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항복하여 적의 세력을 강성하게 했다는 이유로 군으로 강등되기도 하였으나, 3년 뒤에는 다시 부로 복구되었다.

조선은 고려의 지방행정체제인 5도 양계 체제를 점차 8도 체제로 정비하여 갔다. 1393년(태조 2) 11월에는 양계를 제외한 각 도의 계수관을 정하였는데 수원은 양광도의 계수관이 되었다. 이후 양광도를 충청도로 개칭하는 등 8도 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양광도에 속하였던 수원은 충청도에 예속되었다.

1394년(태조 3) 조선은 한양으로 천도하였다. 이때 한양의 위치에 맞게 경기도의 범위가 다시 조정되었는데, 수원부, 남양부는 충청도에서 경기좌도로 이속되었다.

1413년(태종 13)에는 각각 수원부와 남양부는 수원도호부가 되었다. 또한 비로소 경기 좌도와 경기우도를 통합하여 경기도로 하고 경기도의 본영을 수원에 두었는데, 경기도의 본영은 세종때 인근 광조로 이전되었다. 1456년(세조 2)에는 수원에 진을 설치하여 경사를 수호하는 4포의 한곳으로 삼았다. 1526년(중종 21)에는 고을사람 노범근이 부모를 죽인 사건이 발생하여 군으로 강등되면서 진도 혁파되었으나, 1535년에 다시 복구되었다. 이후 수원진은 1602년(선조 35) 방어사를 겸하고 1668년(현종 9) 토표사를 겸하더니 1687(숙종 13)에는 총계좌영장을 겸하여 점차 군사요새로서의 기능도 강화하여 갔다.

화성지역이 역사적으로 크게 주목받게 된 것은 조선 후기인 정조 때부터이다. 정조는 생부인 장헌세자(사도세자)를 1789년(정조 13)에 양주 배봉산에서 화산으로 천장, 현릉원으로 하고 이곳에 있던 읍치를 모두 현재의 팔달산 밑으로 옮겼다. 1793년에는 수원부를 화성유수부로 승격시켰다. 수원이 공식적으로 화성이란 이름을 얻게 된 것이다. 정조는 화성으로 명명한 유래를 술회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현릉원 자리는 화산이요, 이 고을은 유천인데, 화인이 성인을 추앙했다는 뜻을 취하여 이 성을 화성이라 이름하였다. 화는 화와 통하니 화성은 화산이라는 뜻이고, 800개나 되는 산봉우리들이 하나의 뿔부리를 둘러싸 보호하는 형상이어서 마치 (화산의) 꽃잎과 같은 형상임을 일컫는다고 하겠다.” 정조의 말처럼 화성이란 명칭은 현릉원을 환봉

한 '화산'에서 비롯된 것이다.

화성유수부에는 정2품의 유수 둘을 두어 하나는 경기관찰사가 겸하고 다른 하나는 전관유수로서 장용유사 및 행궁정리사를 겸임토록 하였다. 유수부로의 승격과 그에 따른 직제 개편에서 정조가 화성에 대단한 관심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유수로 하여금 장요외사를 겸임하게 한 것은 정조의 친위병인 장용유내가를 궁중에 두고 임무를 맡기는 한편 화성으로의 잦은 행차에 대비해 유수로 하여금 장요외사의 임무를 겸무토록 한 것이다. 한편 행궁정리사를 겸하게 한 것은 그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행차시 모든 업무를 맡겨 처리하도록 한 것이다.

나아가 정조는 이곳으로 천도할 계획으로 성곽(수원성)을 3년에 걸쳐 축조하였다. 1794년(정조18)2월 화성이 축조되기 시작하였다. 성곽과 신도시건설을 주관·총괄할 총리에는 초대 유수를 지낸 영증군부사 채재공을 임명하고 수원부사를 거쳐 훈련대장으로 재임하던 조심태를 수원유수 겸 감계당상에 임명하였다. 화성 축조에는 계획 당시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정조를 비롯한 조정의 열정정약용 등에 의해 개발된 중기 등에 힘입어 1796년(정조 20) 2년 7개월만에 종결되었다. 정작 천도는 실제로 행해지지는 못하였지만, 화성에는 정조가 재위기간 중 매년 현릉원에 행차할 때 사용하기 위하여 조영한 대규모의 행궁이 있었을 뿐 아니라 주변에는 경제적으로도 도시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반시설이 조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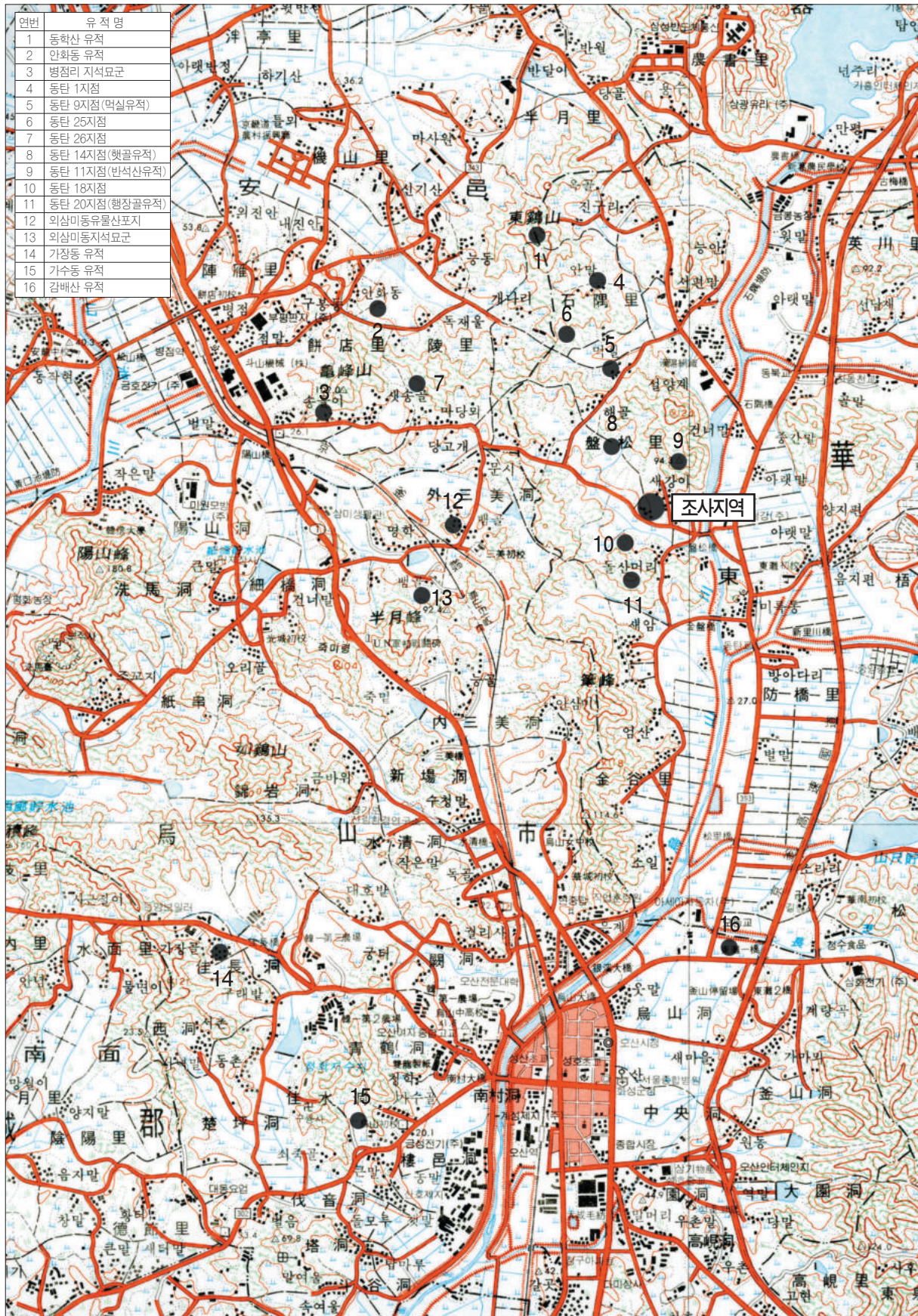
한편 남양은 1413년 도호부가 된 이래 200여년간 변동이 없다가 1644년(인조 22)에 역적인 형의 고향이라 하여 현이 되었으나 1653년(효종 4)에 또다시 도호부로 복구되었고, 1665년(현종 6)에 노비가 주인을 죽인 강상죄가 발생하여 다시 현으로 강등되었다. 그러나 1674년에는 또다시 도호부로 복구되었다.

1895년(고종 32)의 지방관세 개정으로 수원과 남양은 군이 되었으며, 수원은 다음해에 경기도관찰부의 소재지가 되었다. 수원군읍지에 따르면 1899년 당시의 호수는 1만 2,579호, 인구는 4만 9,708인이고, 40개면에 449개 동리가 있었다고 한다. 1913년에는 수원면이 읍으로 승격되었다. 반면 남양은 1896년에 4등군이 되었으나, 1914년에 이르러 영흥면, 대부분이 부평군에 편입되고 나머지는 수원군에 병합됨으로써 남양군은 없어지게 되었다.

1949년 수원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시로 편입되지 않은 나머지 면으로 화성군이 탄생하였다. 1960년 오산면이 읍으로 승격되었고, 1963년에는 일왕면이 시흥군과 수원시에 분할 편입되었다. 이때 태장면 일부가 수원시로 편입되었으며 나머지 태장면 3개 리와 안릉면 5개 리를 묶어 태안면이 신설되었다. 1970년 수원시에 위치했던 군청사를 오산시의 신청사로 이전하였다. 1985년 태안면이 읍으로 승격되었다. 1983년에는 반월면의 2개 리가 시흥군에, 1986년에는 반월면 일부를 관할하던 반월출장소가 안산시로 승격되었다.

1989년에는 오산읍이 시로 승격되어 화성군으로부터 분리되었다. 같은 해에 매송면 금곡리와 호매실리가 수원시로 편입되었다. 1994년에는 태안읍 영통리 일원, 신 망포리 일부, 반월면이 수원시, 안산시, 군포시로 각각 분할 편입되었고, 1995년에도 태안읍 영통리 일원과 신 망포리 일부가 수원시로 편입되었다. 1998년에는 봉담면이 읍으로 승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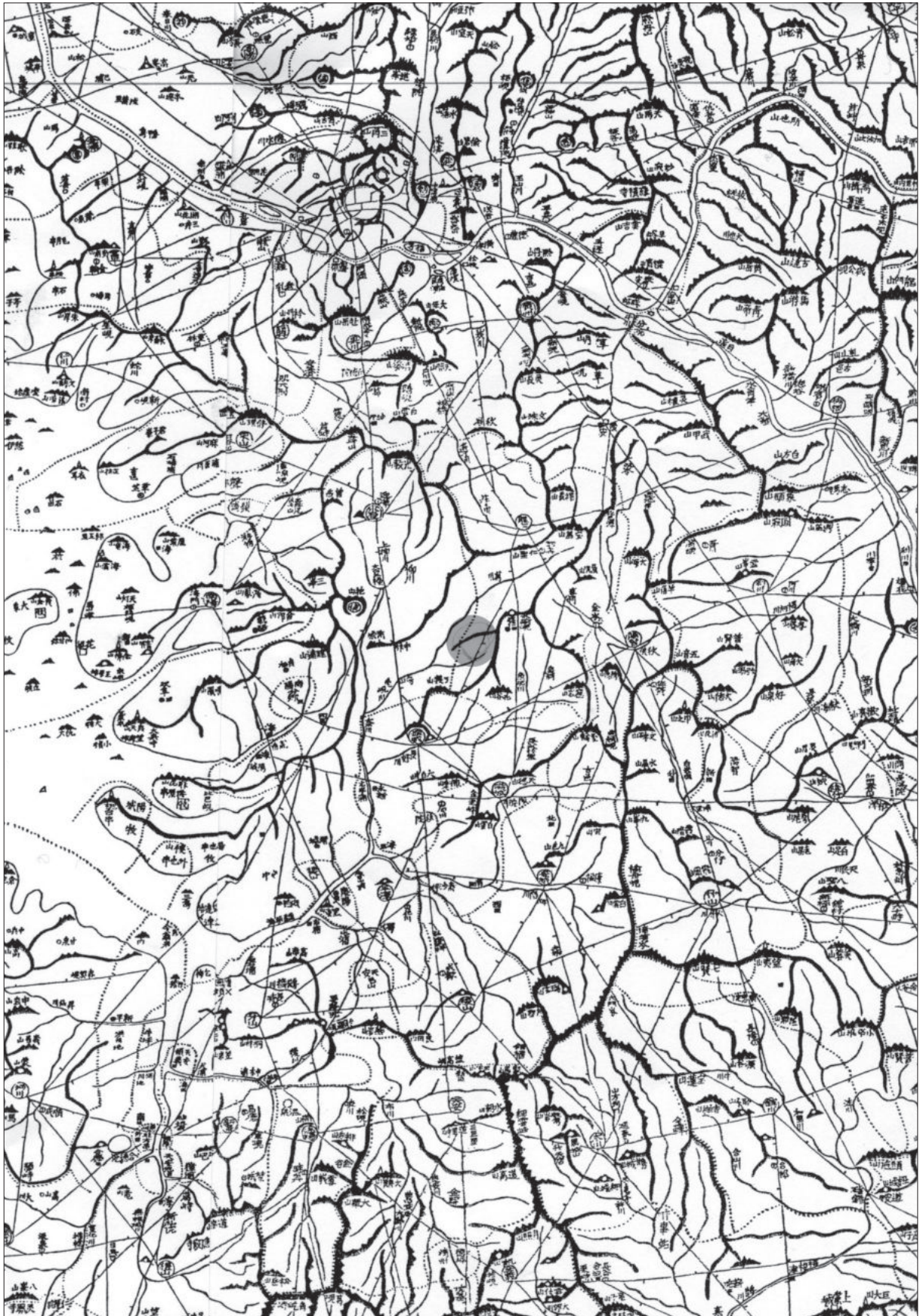
2000년에는 군청사가 오산시에서 남양면으로 이전되었으며, 2001년 3월에는 화성군이 화성시로 승격된 후, 태안읍이 출장소로 승격되는 등의 행정구역상의 변화를 거쳐 현재 1출장소, 1읍 12면의 행정구역을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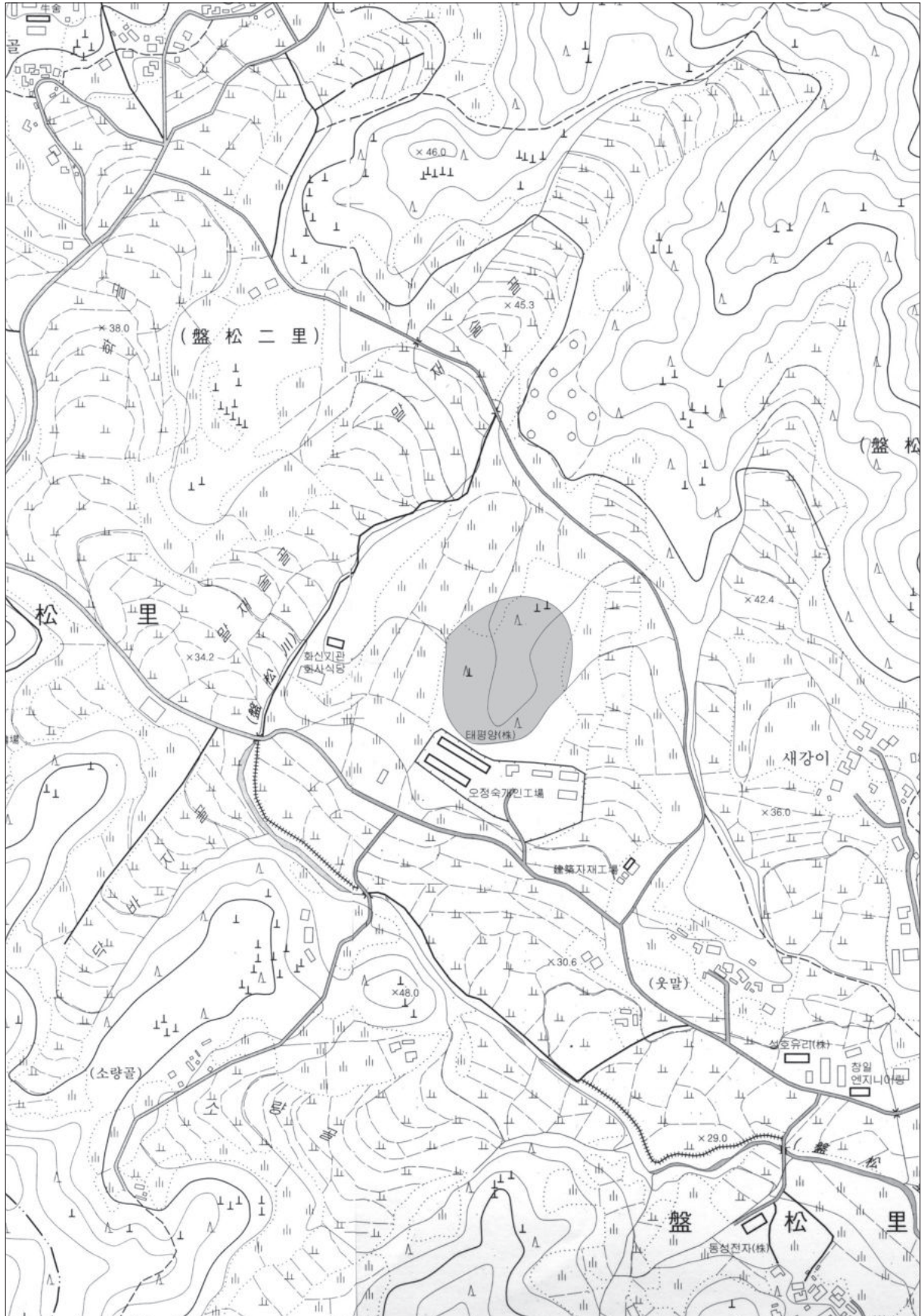
도면 1. 盤松里 中世遺蹟(15지점) 位置圖(1:5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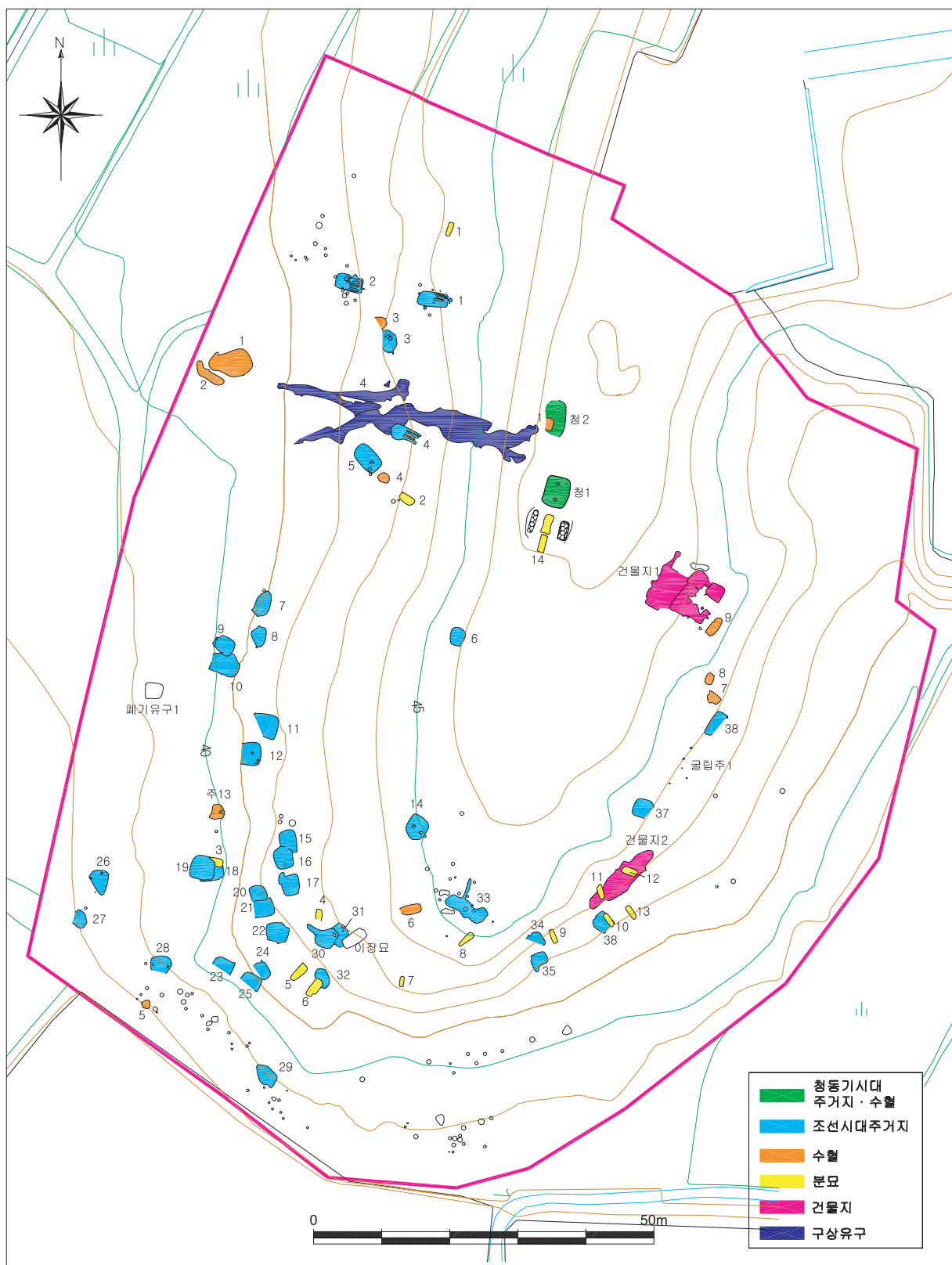
도면 2. 조사지역 근세지도(『近世韓國五萬分之一 地形圖』朝鮮總督府)



도면 3. 조사지역 고지도(大東輿地圖 1861刊)



도면 4. 유적 주변지형도(1:5,000)



도면 5. 遺構配置圖

Ⅲ. 調査内容

盤松里 中世遺蹟(15지점)이 위치하는 곳은 비교적 완만한 사면을 형성하고 있는 低平한 구릉과 주변 저지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적의 북쪽은 반석산과 연결되는 능선부에는 최근 공장을 비롯한 여러 시설물이 들어서면서 상면의 대부분이 削平 또는 교란된 상태였고, 구릉의 북서쪽 사면도 근래에 밭으로 경작하면서 상면을 삭평하여 거의 퇴적토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다.

유적의 전체적인 층위양상을 보면, 조사대상지역의 정상부와 사면의 경우 20cm 내외의 표토만이 남아 있을 뿐 그 바로 아래에서 풍화암반토가 노출되었다. 따라서 시굴 트렌치를 통해 확인된 퇴적양상을 기준으로 상부의 퇴적토를 전면 제토하여 유구를 노출시키면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靑銅器時代 住居址 2基 및 竪穴 1基, 朝鮮時代 住居址 38基, 竪穴 9基, 建物址 3棟, 墳墓 14基, 溝狀遺構 3基, 未詳遺構 1基 등 71基의 遺構를 확인할 수 있었다.

1. 靑銅器時代

1) 住居址

(1) 1號 住居址

가. 遺構(도면 6, 사진 3~5)

조사지역 능선의 정상부에 위치하며, 해발 47m에 설치되어 있다. 생토층을 굴착하여 조성한 수혈식의 구조이다. 평면 형태는 말각장방형이고, 주축 방향은 남-북 방향으로 등고선에 평행한다. 규모는 길이 450cm, 너비 374cm, 최대 깊이 23cm이다.

바닥은 생토면 위에 불다짐 처리하여 전체적으로 암갈색의 얇은 경화면이 형성되어 있다. 바닥중앙에는 길이 115cm, 너비 66cm 범위에 소토와 목탄흔이 얇게 남아있으며 이 범위의 양쪽에서 지름 30cm·42cm, 깊이 40cm·24cm의 주혈이 확인되었고 동쪽에 접하여 지름 65cm, 깊이 18cm의 원형수혈이 확인되었다. 북쪽의 주혈내부에서는 길이 25cm 정도의 할석이 세로로 세워진 상태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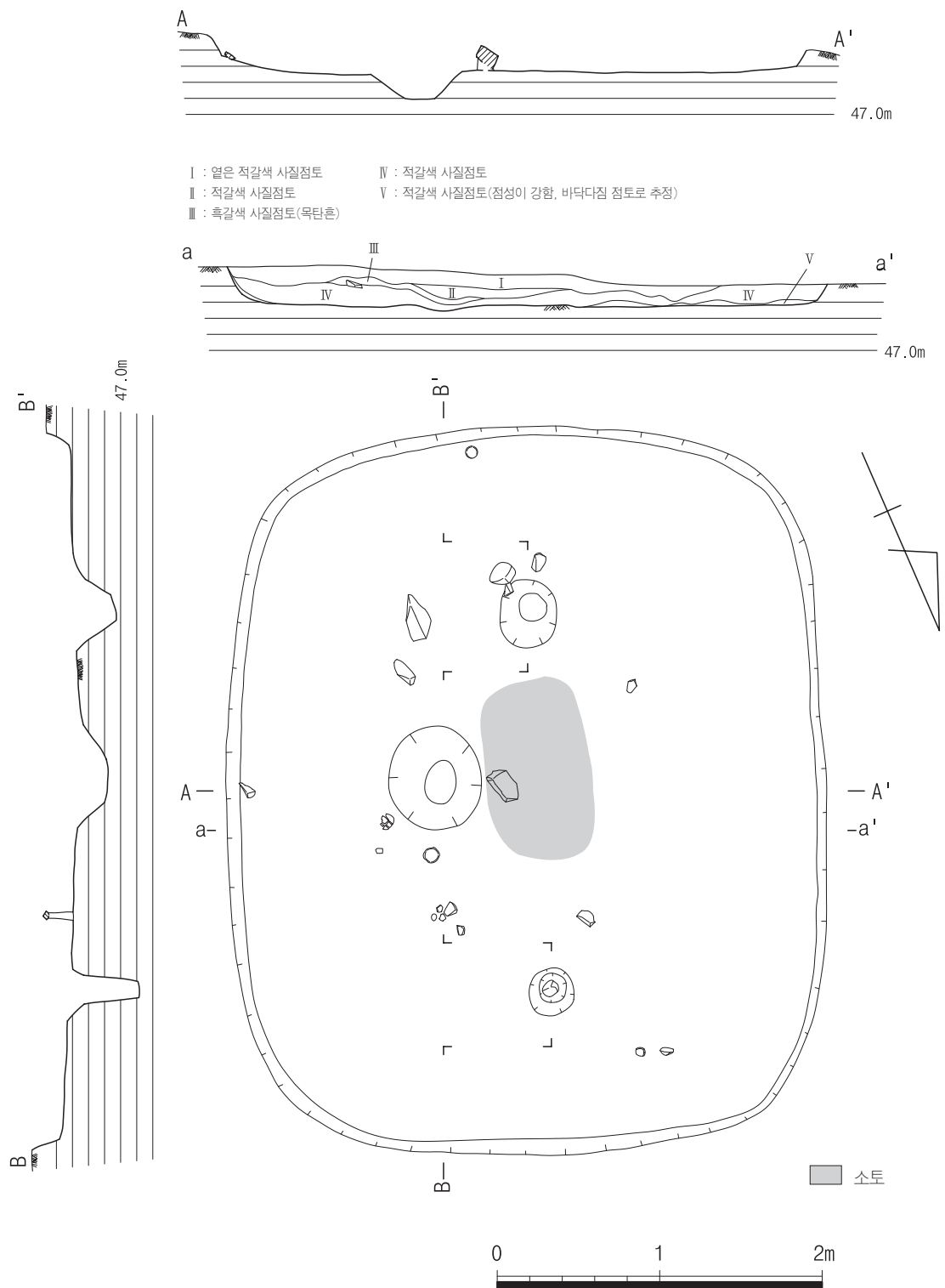
내부토는 적갈색과 흑갈색의 사질점토로 채워져 있었다.

유물은 주거지 내부에서 무문토기 저부와 지석, 석부편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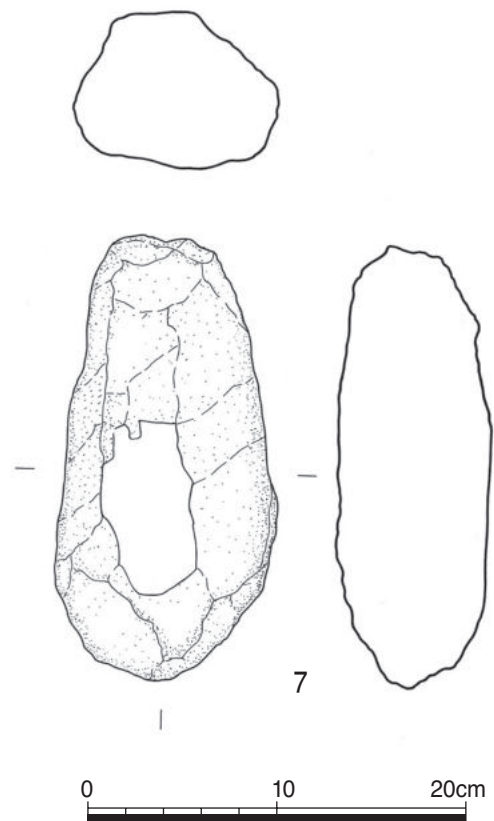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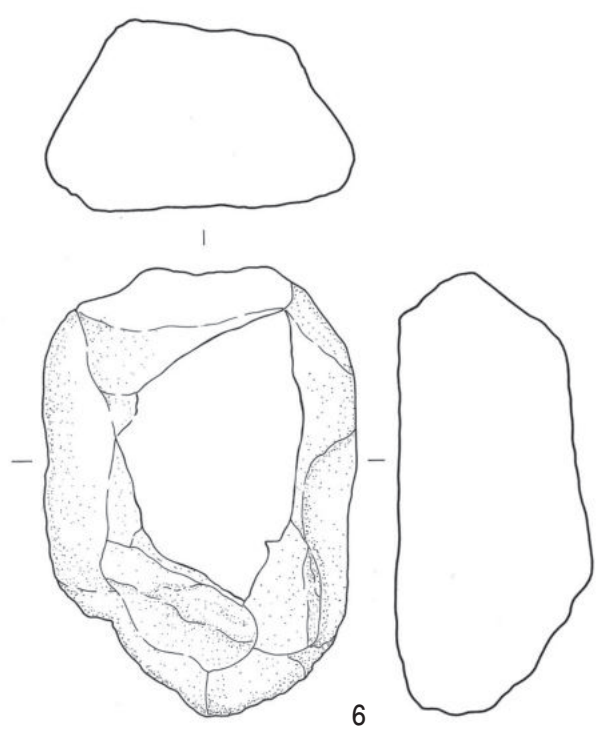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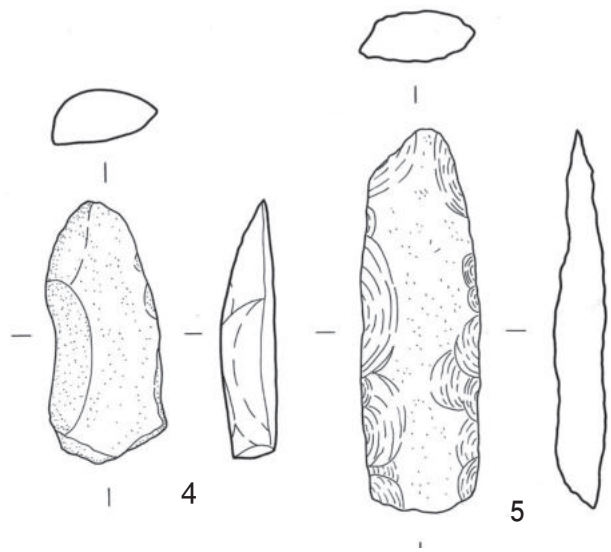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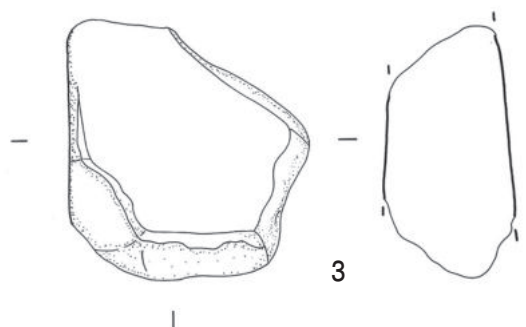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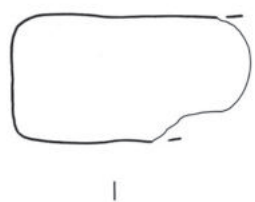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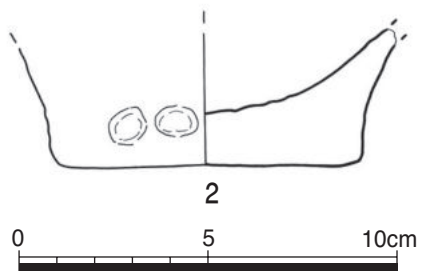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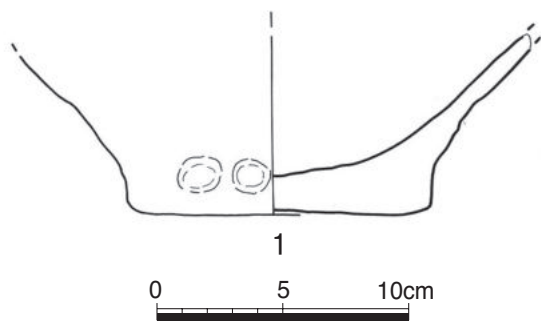
나. 遺物

① 無文土器 底部(도면 7-1, 사진 6-①)

저부와 동하부 일부가 남아 있다. 태토는 크고 작은 석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내외면 모두 황갈색을 띠나 바닥의 내외면은 흑색이다. 표면의 마모가 심하여 제작기법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저부와 동부의 접



도면 6. 청동기시대 1호주거지 유구



도면 7. 청동기시대 1호주거지 출토유물

합 부위에 지두흔이 관찰된다. 현재 높이 4.7cm

② 無文土器 底部(도면 7-2, 사진 6-②)

테토는 크고 작은 석립이 다량으로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여 기면이 거칠다. 내외면 모두 황갈색을 띠나 외면의 일부는 흑갈색을 띤다. 표면의 마모가 심하여 제작기법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저부와 동부의 접합 부위에 지두흔이 관찰된다. 현재 높이 3.2cm

③ 砥石(도면 7-3, 사진 6-⑤)

사암제 지석으로 일부만 남아 있다. 부식이 되었으며 암맥의 결 방향으로 균열이 나 있다. 윗면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길이 6.25×6.7cm, 두께 3.3cm, 무게 167g

④ 砥石(도면 7-6, 사진 6-③)

사암제 지석이다. 단면은 사다리꼴이고 사용면은 윗면으로 일부만 남아 있고 결실되었다. 길이 16.35×22.8cm, 두께 9.6cm, 무게 4938g

⑤ 砥石(도면 7-7, 사진 6-④)

사암제 지석이다. 부식이 되었으며 사용한 면은 윗면으로 일부만 남아 있고 대부분 결실되었다. 길이 23.1×10.9cm, 두께 8.0cm, 무게 2632g

⑥ 有溝石斧片(도면 7-4, 사진 6-⑥)

有溝石斧의 片으로 溝부분만 남아 있다. 편마암제이며 표면이 마연되었다. 구는 반달형으로 뚜렷하다. 2.8×6.4cm, 두께 1.4cm, 무게 40g

⑦ 미완성석기(도면 7-5, 사진 6-⑦)

섬록암제로 일부가 결실되었으며 미완성품이다. 양측면을 타격하여 떼어 낸 후 촘촘히 정리하여 인부를 만들려는 의도가 보인다. 상부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며 마연흔은 관찰되지 않는다. 길이 3.1×10.1cm, 두께 1.35cm, 무게 63g

(2) 2號 住居址

가. 遺構(도면 8, 사진 7·8-①)

조사지역 능선의 정상부에서 약간 북서쪽으로 치우친 경사면 상부에 위치한다. 1호 주거지에서 북쪽으로 5.8m 정도 떨어져 있으며 해발 높이는 47m이다. 생토층을 굴착하여 조성한 수혈식의 구조로 경사면 아래 쪽으로 일부 결실되어 전체적인 평면형태는 알 수 없으나 남아 있는 상태로 보아 1호 주거지와 유사한 말각 장방형으로 판단되며 남아 있는 상태로 볼 때 주축 방향은 남-북방향으로 등고선에 평행한다. 규모는 길이 500cm, 너비 156cm, 최대 깊이 20cm이다.

바닥은 1호 주거지와 마찬가지로 생토면 위에 불다짐 처리하여 얇은 암갈색의 경화면이 형성되어 있다. 중앙부에서 지름 60cm, 깊이 10cm의 원형수혈이 확인되었으며 주변으로 소형의 할석들이 흩어진 상태로 남아 있었다. 내부토는 적갈색과 회갈색의 사질점토로 채워져 있었다.

유물은 내부에서 무문토기 저부와 지석이 출토되었다.

나. 遺物

① 구연부편(도면 9-1, 사진 8-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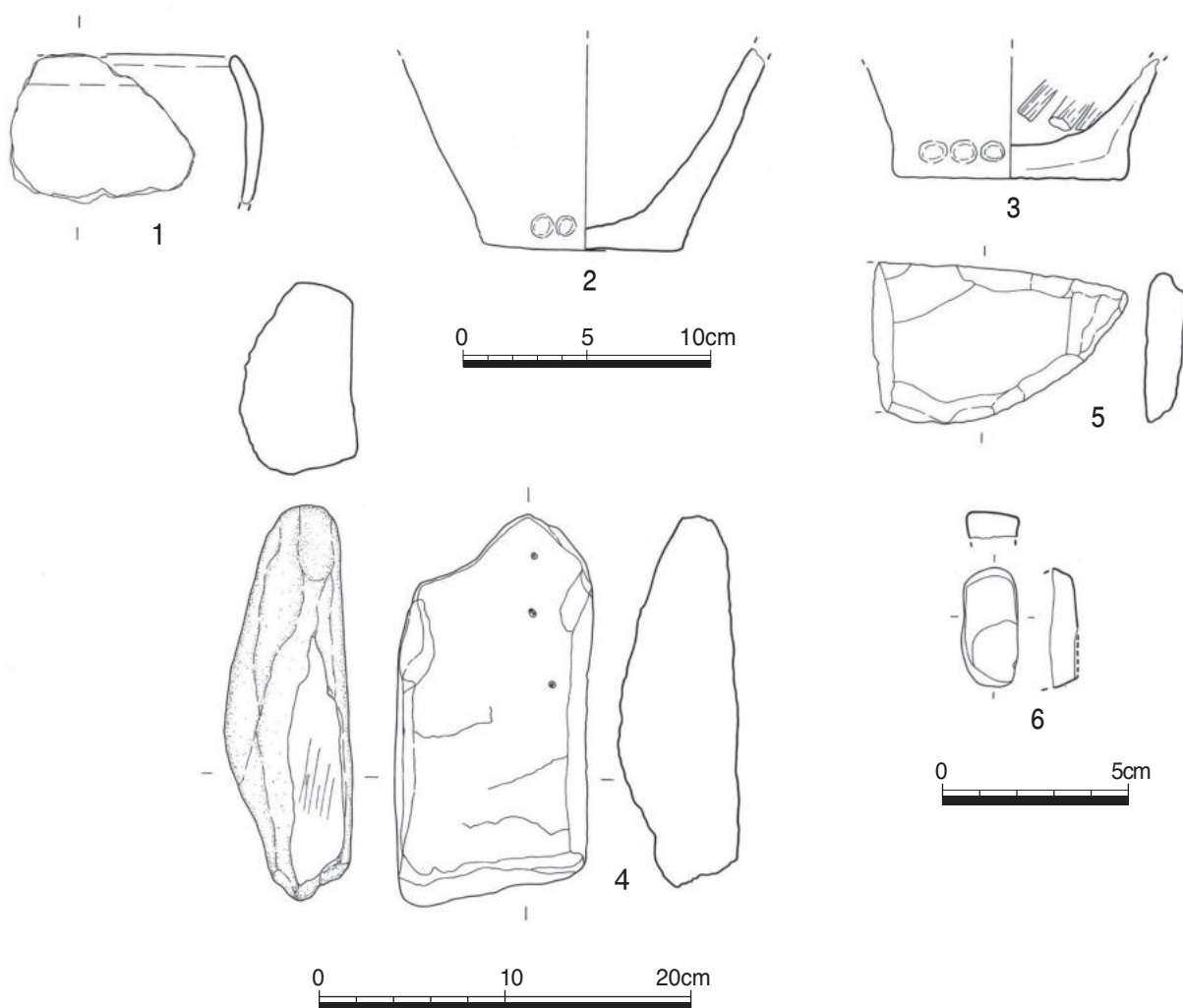
일부만 남아 있으며 표면에 적색 안료가 발렸으나 박리되고 기면이 거칠어 마연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태토는 석영립과 세사립이 함유된 정선된 점토이고 색조는 회황색이다. 현재 높이 6cm

② 무문토기 저부(도면 9-2, 사진 8-④)

저부와 동하부 일부가 남아 있다. 태토는 굵은 석립이 다량으로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여 내외면이 매우 거칠다. 외면은 적갈색, 내면은 황갈색, 속심은 흑갈색을 띤다. 기면이 마모되고 박리가 심하여 제작기법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저부와 동부의 접합 부위에 지두흔이 관찰된다. 현재 높이 8.2cm

③ 무문토기 저부(도면 9-3, 사진 8-⑤)

저부와 동하부 일부가 남아 있다. 태토는 굵은 석립이 다량으로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여 내외면이 매우 거칠다. 기면은 적갈색이나 외면의 바닥은 흑갈색 띤다. 기면이 마모되고 박리가 심하여 제작기법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저부와 동부의 접합 부위 외면에는 지두흔이, 내면에는 지두흔과 목판누르기흔이 관찰된다. 현재 높이 4.9cm



도면 9. 청동기시대 2호주거지 출토유물

④ 지석(도면 9-4, 사진 8-⑥)

사암제 지석이다. 단면은 부정형이며 사용면은 윗면으로 일부만 남아 있고 결실되었다. 상면의 마연흔이 뚜렷하다. 길이 5.25×29.7cm, 두께 9.15cm, 무게 48g

⑤ 지석(도면 9-6, 사진 8-②)

사암제 지석이다. 단면은 장방형이며 아랫면이 결실되었다. 윗면과 양측면이 모두 마연되어 있다. 길이 6.2×10.2cm, 두께 1.5cm, 무게 16g

2) 豎穴

(1) 1號 豎穴

가. 遺構(도면 8, 사진 8-⑦·⑧)

2호주거지의 바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2호주거지의 바닥에서 20cm 더 생토층을 굴착하여 조성되었으며 경사면 아래쪽이 유실되어 전체적인 평면형태는 알 수 없으나 남아 있는 상태로 보아 원형일 가능성이 있다. 규모는 길이 180cm, 현재 너비 123cm, 최대 깊이 21cm이다.

유물은 파손된 반제품의 반월형 석도가 출토되었다.

나. 遺物

① 半月形石刀(도면 9-5, 사진 8-⑨)

수혈의 내부에서 출토되었으며 절반만 남아 있다. 섬록반암제로 가장자리에 타격흔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 가장자리를 타격한 뒤 마연하여 날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는 미완성품이다. 길이 2.15×4.85cm, 두께 1.0cm, 무게 154g

2. 朝鮮時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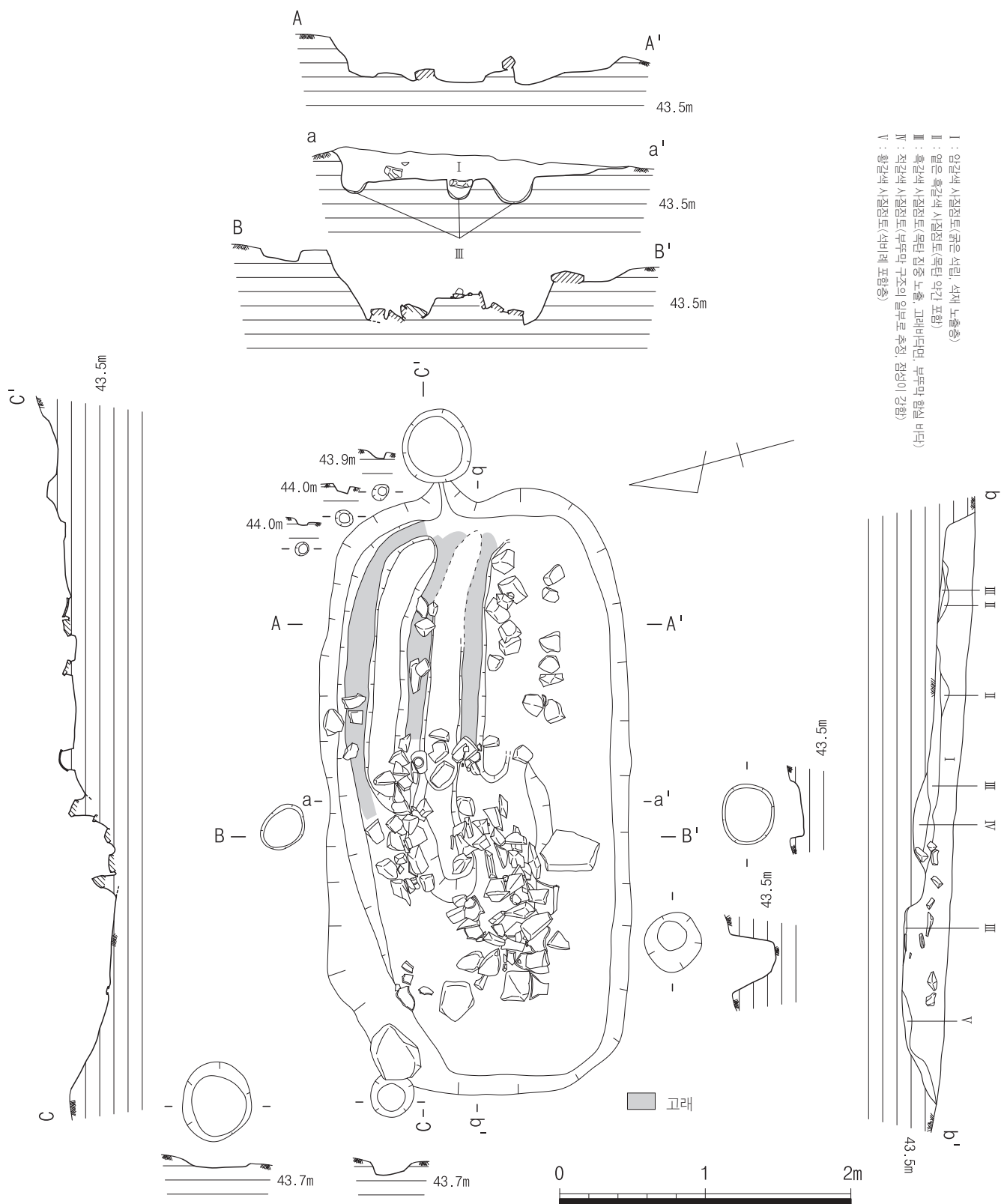
1) 住居址

(1) 1號 住居址

가. 遺構(도면 10, 사진 9~12-①·②)

조사지역의 가장 북쪽에 위치하며, 구릉의 서쪽 사면 중턱의 완만한 경사면(해발 44m)에 설치되어 있다. 생토층을 굴착하여 조성한 수혈식의 구조이다. 평면 형태는 장방형이고, 주축 방향은 동-서방향으로 등고선에 직교한다. 규모는 길이 433cm, 너비 215cm, 최대 깊이 55cm이다.

내부는 암갈색 사질점토와 흑갈색 사질점토로 채워져 있으며 아래로 내려갈수록 목탄과 소토의 비율이 높아 흑갈색을 띤다.



도면 10. 조선시대 1호주거지 유구

유구는 중앙에서 단을 지워 상단부는 온돌시설로 하단부는 아궁이 시설로 구분되고 있다. 상단부에는 동쪽 벽의 중앙에 11cm정도로 배연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온돌 시설의 하부구조인 고래 4줄, 고래등 3줄, 구들 시설인 활석이 확인되었다. 고래시설은 북쪽에는 벽에 붙어서 설치되었으나 남쪽에는 벽에서 60cm 정도 떨어져 있다. 고래시설의 축조상태를 살펴보면 먼저 생토면의 바닥에 폭 20cm내외, 깊이 10cm 내외로 굴토하고 그 위에 활석을 쌓아 고래와 고래등을 설치하였다.

하단부의 아궁이 시설은 터널식으로 2개가 설치되었는데 주거지의 바닥에 타원형으로 수혈을 파고 활석을 이용하여 만들었다. 아궁이 1은 북벽에 붙어서 시설되었고, 아궁이 2는 중앙에 시설되었다. 하나의 아궁이에서 2줄의 고래가 연결되고 있다. 아궁이 내부에는 목탄이 남아 있고 열에 의해 소결되어 바닥이 단단하다.

주거지의 주변에서 직경 30~40cm정도의 주혈이 확인되고 있다.

유물은 아궁이 2에서 동이 1점과 고래에서 백자 잔 1점, 내부 조사과정에서 백자접시와 저부편이 출토되었다

나. 遺物

① 동이(도면 12-1, 사진 12-③)

아궁이 2에서 파손된 채 출토되었다. 저부와 기면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며 색조는 내외면은 모두 흑회색이고 속심은 회황색이다. 연질이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구연부는 내경하다가 밖으로 말아 붙였으며, 동체부의 중위 너비 4.2cm, 두께 0.6cm의 판상파수가 대칭되게 부착되었다. 파수가 부착된 부분은 파수의 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면이 안쪽으로 눌러져 있다. 대각의 파수와 일직선으로 아래쪽에 지름 2cm의 원형 투공이 대칭되게 뚫려 있다. 투공은 밖에서 안으로 뚫었으며 이 때 밀려난 점토는 대각의 안쪽 위아래에 눌러 붙였다. 높이 23.6cm, 구경 34.6cm, 저경 26.5cm

② 저부편(도면 12-2, 사진 12-④)

일부만 남아 있는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석영, 운모, 장석 등의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며 색조는 내외면 모두 암회색이고 속심은 회색이다. 경질이며 소성상태는 보통이다. 바닥은 안쪽이 들린 평지이며 가장자리에 동체부와 접합시 조정한 흔적이 관찰된다. 저부와 동체부를 접합시 보강한 점토흔적이 내면에 남아 있고 외면의 동체하부에는 시계방향으로 깎기흔이 관찰된다. 현재 높이 7.0cm

③ 백자 잔(도면 12- 4, 사진 12-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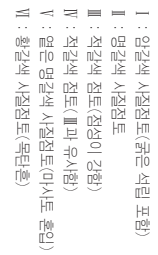
왼쪽에서 세번째 고래에서 출토되었으며 구연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회색의 입자가 치밀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면 전체에는 투명유를 고르게 시유하였다. 구연은 직립하고 굽은 안굽으로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이 일정하지 않고, 내화토와 석립을 섞어 만든 받침이 3군데 남아 있다. 외면의 하부에는 회전깎기로 인하여 단이 형성되어 있다. 높이 6.1cm, 구경 9.25cm, 굽경 4.6cm

④ 백자 접시(도면 12-3, 사진 12-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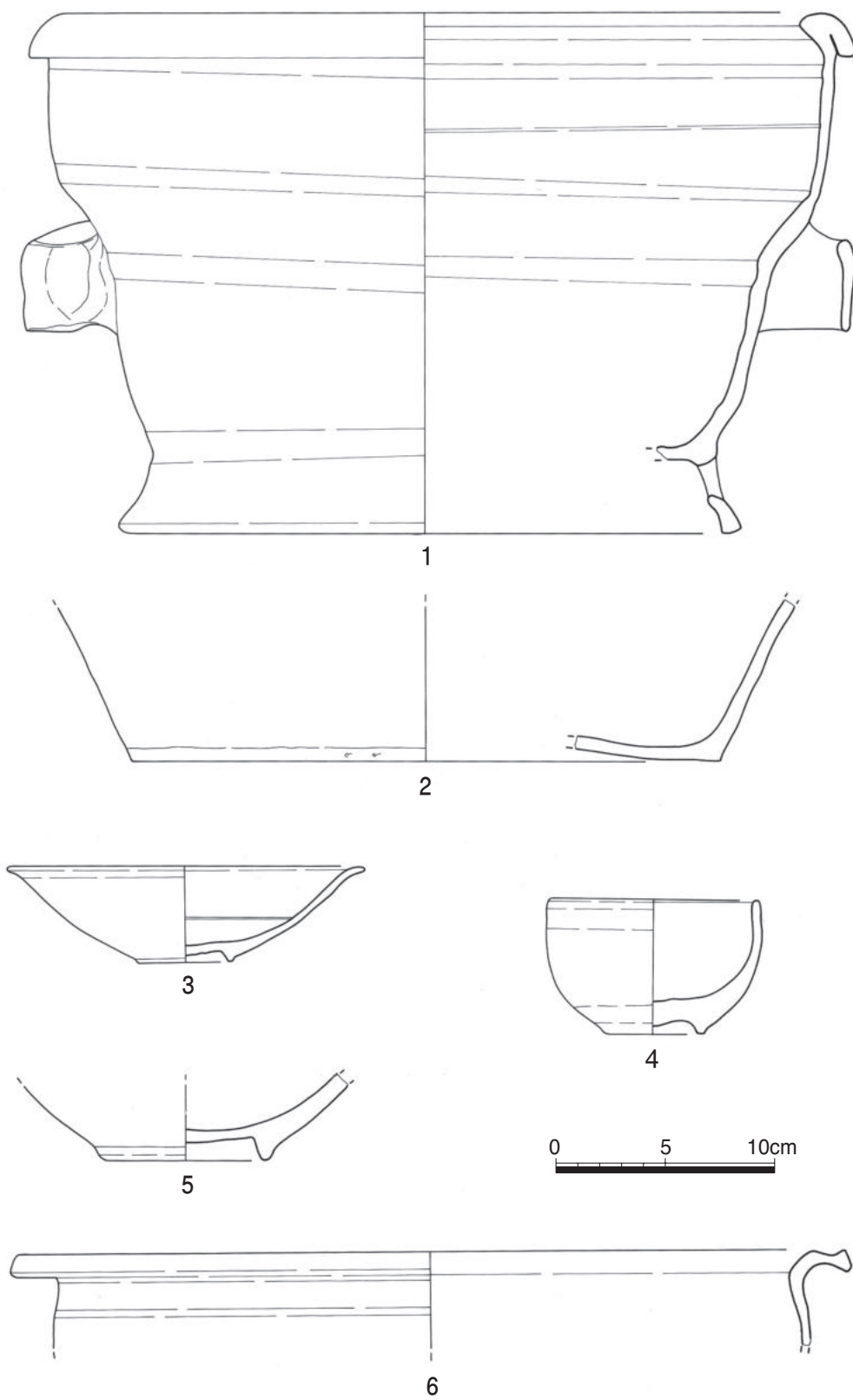
내부토 제거과정에서 수습되었다. 태토는 백색의 점토로 입자가 치밀하지 못하다. 기면 전체에는 황갈유를 시유하였으며 일부는 유약이 산화되었다. 구연은 외반하며 내면의 중앙에 1줄의 침선이 돌아 간다. 굽은 접지면의 폭이 일정하지 않고 안쪽에 시계방향의 나선이 형성되어 있다. 외면의 하부와 내면의 바닥 같은 위치에 사질내화토 받침이 등간격으로 4군데 부착되어 있다. 높이 4.3cm

⑤ 백자 저부(도면 12-5, 사진 12-⑦)

내부토 제거과정에서 수습되었다. 태토는 백색의 입자가 치밀한 점토이며 내외면에 반투명유가 시유되었



39



도면 12. 1호주거지(1-5), 2호주거지(6) 출토유물

다. 굽의 접지면에는 잡물의 받침흔이 전체적으로 돌려져 있다. 현재 높이 3.5cm

(2) 2號 住居址

가. 遺構(도면 11, 사진 13·14-①~④)

1호 주거지 서쪽의 경사면 아래쪽으로 8.2m 떨어진 평탄면(해발 42m)에 위치해 있다. 생토층을 굴착하여 조성한 수혈식의 구조이다. 평면 형태는 장방형이고, 주축 방향은 동-서방향으로 등고선에 직교한다. 규모는 길이 452cm, 너비 275cm, 최대 깊이 40cm이다.

내부는 암갈색 사질점토와 적갈색 사질점토로 채워져 있다.

유구는 1호주거지와 마찬가지로 중앙에서 단을 지워 상단부는 온돌 시설로 하단부는 아궁이 시설로 구분되고 있다. 상단부에는 동쪽 벽의 중앙에 배연부가 설치되어 있고 온돌 시설의 하부 구조인 4줄의 고래와 3줄의 고래등이 설치되었다. 배연부는 길이가 59cm로 주거지의 바닥에서 수혈선의 바깥으로 돌출되도록 굴토하였으며 내부 바닥면은 경사지게 만들었다. 고래는 총 4줄 중 외곽의 2줄이 벽면을 따라 돌아 배연부로 연결되고, 내부의 2줄이 직선으로 설치되어 배연부로 이어진다. 고래시설의 축조방식은 1호 주거지와 마찬가지로 생토 바닥면을 굴토하여 조성하였으나 고래등 위에서 할석은 확인되지 않았다.

하단부의 아궁이 시설은 터널식으로 2개가 설치되었는데 주거지의 바닥에 타원형으로 수혈을 파고 할석을 이용하여 만들었다. 아궁이 1은 북벽에 붙어서 시설되었고, 아궁이 2는 중앙에 시설되었다. 아궁이 1은 북쪽으로 치우쳐 있어 아궁이 2에 비해 고래와의 연결상태가 매끄럽지 못하다. 따라서 주기능을 한 것은 아궁이 2로 추정된다. 아궁이 내부에는 목탄이 남아 있고 열에 의해 바닥이 단단하게 소결되었다.

주거지의 북동쪽 벽면에는 주거지 바닥면보다 10cm 높은 위치에 길이 80cm정도로 반원상의 돌출부가 만들어져 있으며, 주거지의 주변으로 직경 30~40cm, 깊이 20cm내외의 주혈이 4개 정도 확인된다.

유물은 내부에서 구연부편이 출토되었다.

나. 遺物

① 구연부편(도면 12-6, 사진 14-⑤)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며 색조는 내외면은 모두 흑회색, 속심은 회색이다. 연질이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구연부는 외반하여 전을 이루며 전에는 띠면이 형성되었다. 현재 높이 4.3cm

(3) 3號 住居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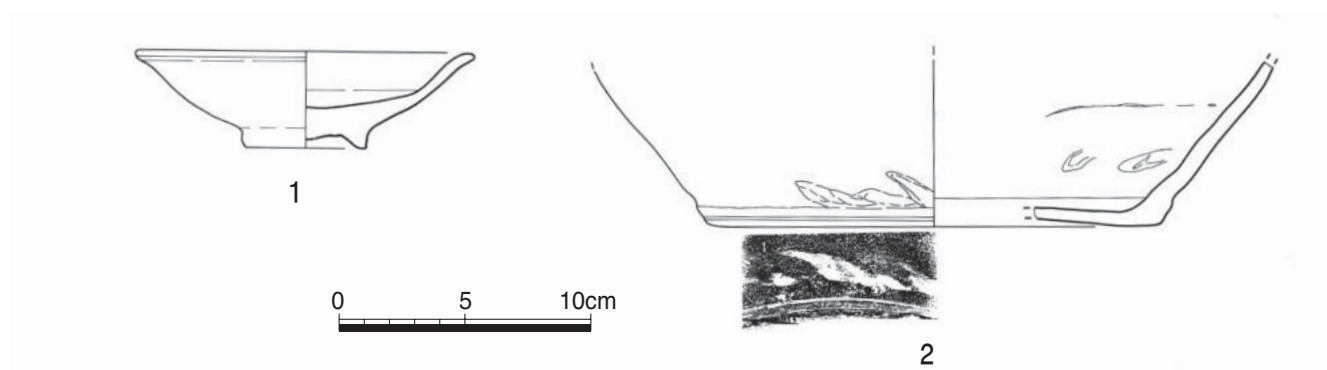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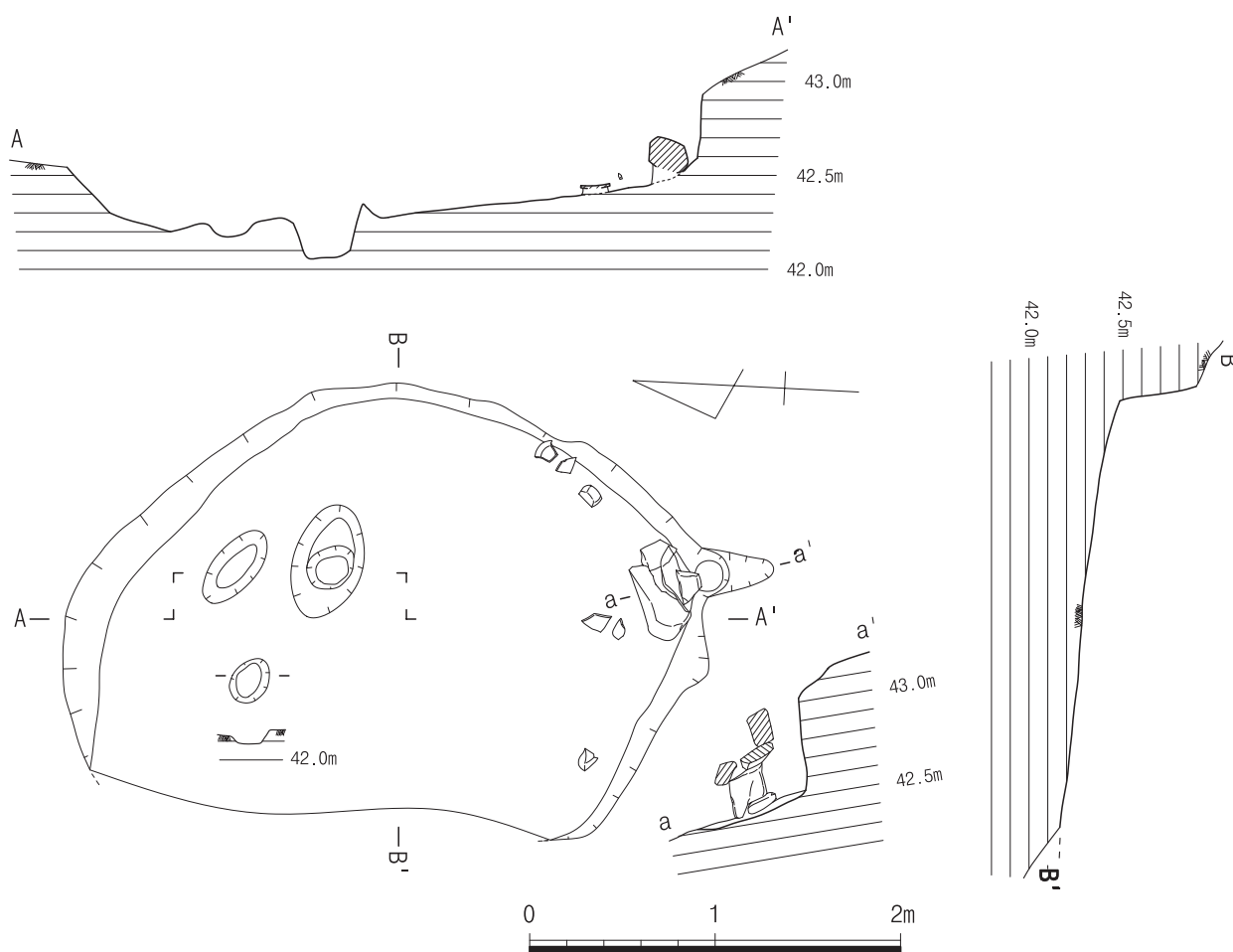
가. 遺構(도면 13, 사진 15·16-①~③)

1호 주거지에서 남쪽으로 약 5.7m 떨어진 완만한 경사면(해발 43m)에 설치되어 있다. 생토층을 굴착하여 조성한 수혈식의 구조이다. 경사면 아래쪽인 서쪽 벽면의 일부가 유실되었으며 남아 있는 평면 형태는 타원형에 가깝다. 주축 방향은 남-북방향으로 등고선에 평행한다. 규모는 길이 346cm, 너비 243cm, 최대 깊이 76cm이다.

내부시설은 경사면의 위쪽인 남벽쪽 중앙에 아궁이와 배연부가 시설되어 있다. 아궁이는 주거지의 바닥면

을 알게 판 뒤 한쪽은 길이 20cm 정도의 판상할석을, 다른 쪽은 흙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넓은 판석의 뚜껑
돌을 얹은 상태이다. 뚜껑돌 위쪽으로 배연부의 벽면까지 판상할석 1매와 부정형 판석 1매를 얹어 연기가 잘
빠져 나가게 하였으며 배연부는 주거지 벽을 따라 수직으로 올라오다가 위쪽에서 밖으로 경사지게 만들었
다. 아궁이의 바닥은 단단하게 소결되었고 목탄이 일부 남아 있었다.

주거지의 바닥은 가운데로 갈수록 오목하게 경사지고, 깊이 25cm의 주혈 1개와 깊이 10cm의 주혈이 2개
가 확인되었다.



도면 13. 3호주거지 유구 및 출토유물

유물은 아궁이와 벽면 가까이에서 백자 접시와 저부편이 출토되었다.

나. 遺物

① 백자 접시(도면 13-1, 사진 16-④)

동쪽 벽면부근에서 출토되었으며 1/3 가량이 결실되었다. 태토는 백색의 입자가 치밀한 점토이고 굽 안쪽을 제외한 전면에 푸른 빛이 도는 투명유를 고르게 시유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빙열이 있다. 구연은 외반하고 굽은 직립하며 접지면은 받침 때문에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 받침은 태토와 같은 점토로 만들어졌으며 내면 바닥과 굽에 각각 4군데씩 흔적이 남아 있다. 높이 3.8cm

② 저부(도면 13-2, 사진 16-⑤)

일부만 남아 있는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석영, 운모, 장석 등의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며 색조는 내외면과 단면 모두 암회색이다. 경질이며 소성상태는 보통이다. 바닥은 동체부보다 두께가 얇고 안쪽이 들린 약간 평저이다. 동체부의 내면에는 점토띠흔이 관찰된다. 동체하부의 내외면에는 저부와 동체부를 접합시 보강한 점토흔적이 관찰되고 접합력을 높이기 위해 도구로 누른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 외면의 경계부에는 시계방향으로 깎기를 하였다. 내면에는 회전물손질과 무질서한 물손질흔적이 관찰된다. 현재 높이 6.45cm

(4) 4號 住居址

가. 遺構(도면 14, 사진 17·18)

3호 주거지에서 남쪽으로 약 10.5m 떨어져 위치하며, 구릉의 서쪽 사면(해발 43m)에 3호 구상유구의 일부를 파괴하고 설치되었다. 생토층을 굴착하여 조성한 수혈식의 구조이다. 노출 당시 주거지의 동쪽부분은 후대의 결실이 심하여 상면의 대부분이 삭평된 상태였다. 특히 동남쪽 벽면은 고래시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조사당시 고래의 바닥면도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평면 형태는 부정형이나 실제 형태는 1호와 2호 주거지와 마찬가지로 장방형에 가까운 형태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축 방향은 동-서방향으로 등고선에 직교한다. 규모는 길이 514cm, 너비 225cm, 최대 깊이 55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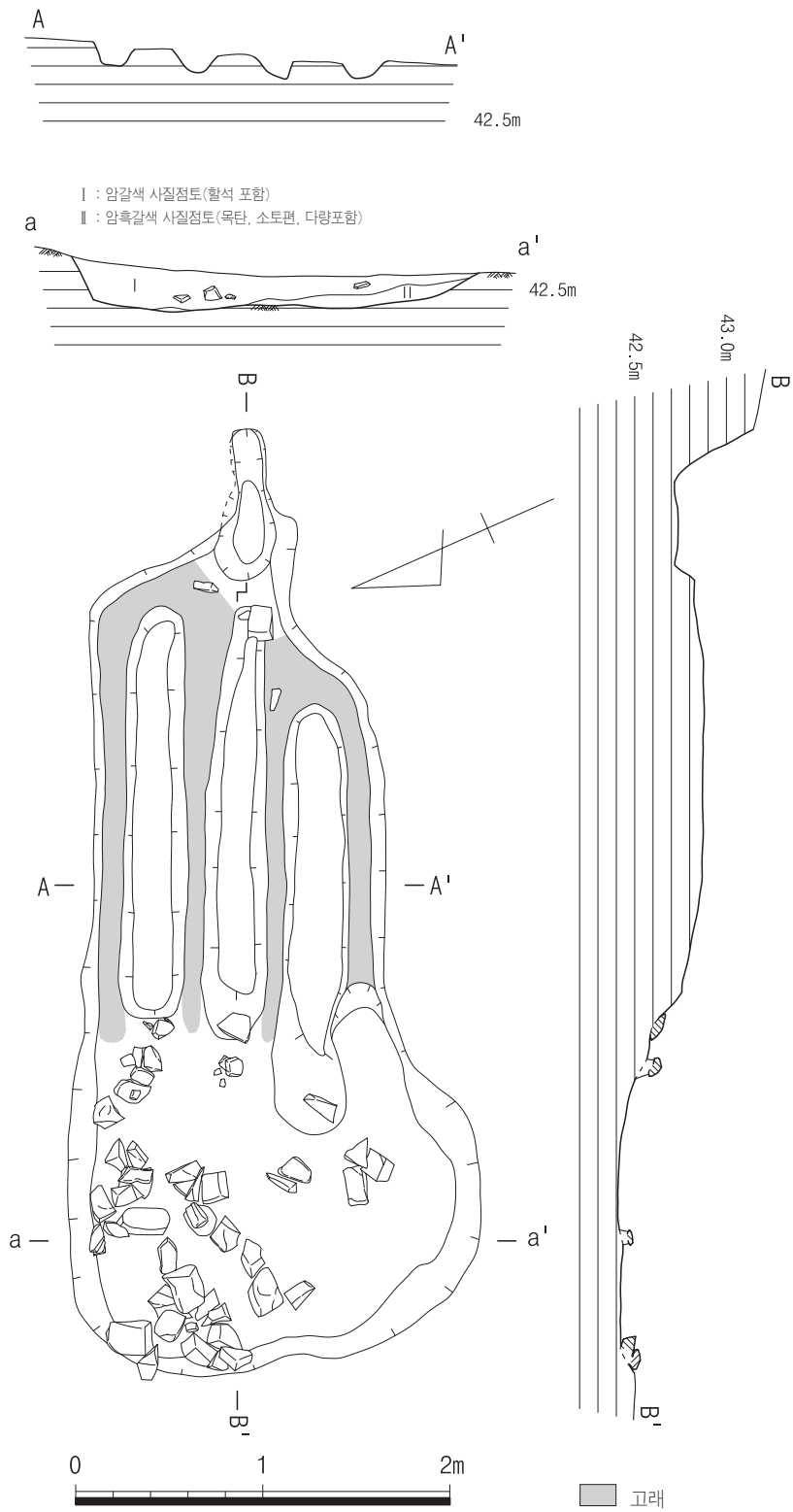
내부는 할석이 포함된 암갈색 사질점토와 목탄·소토편이 다량 포함된 흑갈색의 사질점토로 채워져 있었다.

유구는 1호·2호 주거지와 마찬가지로 중앙에서 단을 지워 동쪽인 상단부는 온돌시설로 서쪽인 하단부는 아궁이시설로 구분되고 있다. 상단부에는 동쪽 벽의 중앙부에 배연부가 설치되어 있고 온돌시설의 하부구조인 4줄의 고래와 3줄의 고래등이 설치되었다. 배연부는 길이가 92cm로 주거지의 동벽 안쪽에 10cm 정도 깊이로 게자리를 파고 배연부를 경사지게 주거지 바깥으로 돌출시켜 조성하였다. 고래는 벽의 가장자리를 따라 2줄이 배연부로 연결되고 나머지 2줄은 바닥면 가운데에서 직선으로 배연부로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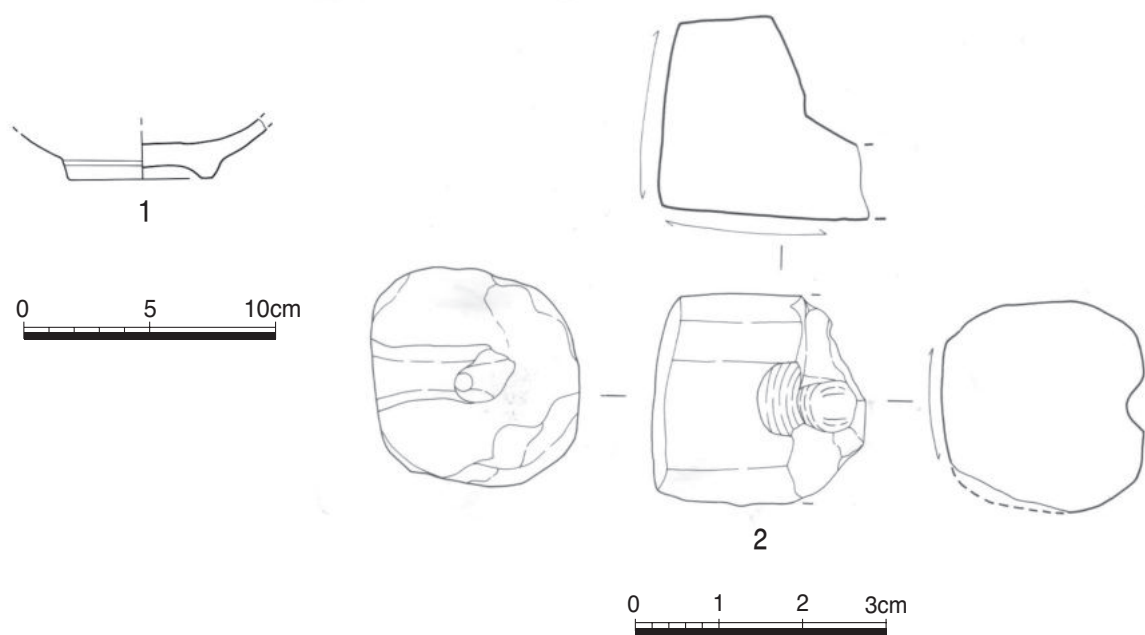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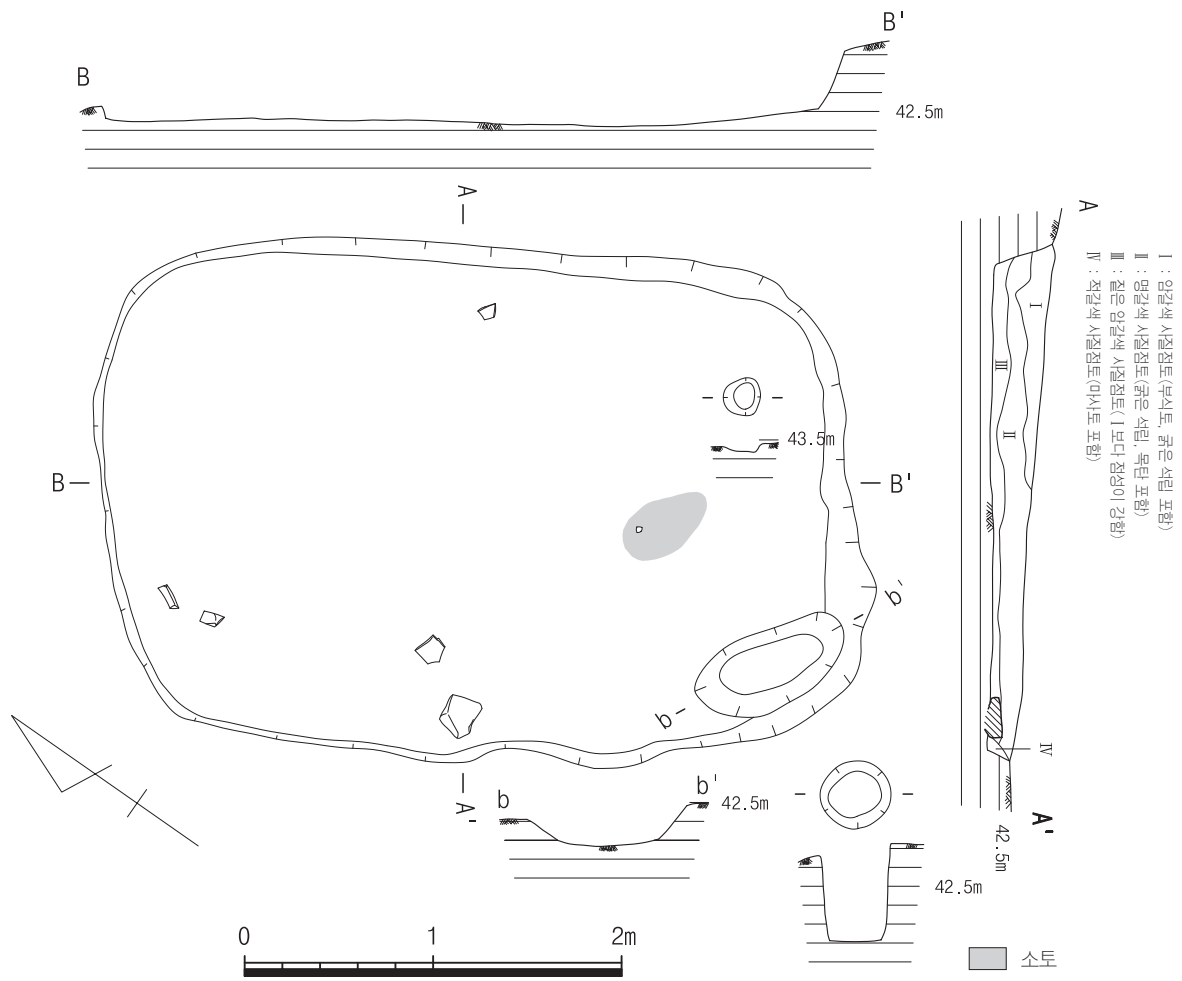
하단부의 아궁이 시설은 중앙부에 1개가 설치되었는데 주거지의 바닥에 타원형으로 수혈을 파고 할석을 이용하여 만들었다. 그러나 조사당시 할석의 대부분이 흩어진 상태로 확인되어 아궁이의 구조는 확인할 수 없었다. 내부의 바닥면에서는 목탄과 소토흔이 남아 있으며 열에 의해 바닥이 단단하게 소결된 상태이다.

주거지의 북서쪽 모서리에는 길이 15cm 내외의 할석들이 불규칙하게 흩어진 상태로 노출되었는데 아궁이 시설의 일부가 무너진 것인지 외부에서 유입된 것인지는 파악할 수 없었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도면 14. 4호주거지 유구



도면 15. 5호주거지 유구 및 출토유물

(5) 5號 住居址

가. 遺構(도면 15, 사진 19-①~⑤)

4호 주거지에서 남서쪽으로 약 3.3m 떨어진 구릉의 서쪽사면 중턱의 평탄부(해발 42m)에 위치한다. 생토층을 굴착하여 조성한 수혈식의 구조이다. 평면 형태는 말각장방형이고, 주축 방향은 북동-남서 방향이다. 규모는 길이 394cm, 너비 274cm, 최대 깊이 38cm이다.

유구는 경사면 위쪽인 남동쪽이 비교적 깊고 북서쪽이 약간 얇게 남아 있다. 바닥면은 조사결과 생토바닥면이 그대로 노출되었으며 특별한 바닥처리는 확인되지 않았다. 내부시설은 남서쪽의 벽 모서리에 접해서 저장시설로 추정되는 길이 80cm, 너비 40cm, 깊이 20cm의 타원형 수혈이 확인되었다. 또 아궁이 시설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남동 단벽쪽으로 치우친 중앙부에 길이 50cm, 폭 30cm 범위에 소토가 노출되었는데 그 안에서 發火石片으로 추정되는 石片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이곳에서 열과 관련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남서쪽 모서리의 외곽에 지름 35cm, 깊이 50cm의 주혈이 1개 확인되었다.

내부에는 석립과 목탄이 포함된 명갈색과 암갈색의 사질점토로 채워져 있었다.

유물은 소토가 노출된 지점에서 발화석으로 추정되는 石片과 백자 저부가 출토되었다.

나. 遺物

① 백자 저부(도면 15-1, 사진 19-⑥)

내부 조사과정에서 수습되었으며 굽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백색의 입자가 치밀한 점토이고 굽 안쪽을 제외한 전면에 푸른 빛이 도는 불투명유를 시유하였다. 굽은 내경하며 접지면의 폭은 일정하지 않고 받침 때문에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 받침은 태토와 같은 점토로 만들어졌으며 내면 바닥과 굽에 각각 3군데씩 흔적이 남아 있다. 현재 높이 1.9cm

② 발화석편(?) (도면 15-2, 사진 19-⑦)

바닥의 소토부위에서 출토되었다. 사암제이며 일부가 파손되었다. 전면이 마연되어 있으며 모서리는 말각으로 처리하였다. 구멍은 상면과 측면 2곳에서 뚫린 것으로 추정되는데 2/3정도까지 뚫렸으며 아래로 갈수록 폭이 좁아져 단면은 逆三角形일 것으로 생각된다. 높이 2.8×2.75cm, 두께 2.65cm, 무게 27g

(6) 6號 住居址

가. 遺構(도면 16, 사진 20-①~④)

조선시대 주거지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며, 구릉의 서쪽 사면(해발 50m)에 설치되어 있다. 생토층을 굴착하여 조성한 수혈식의 구조이다. 경사면의 아래쪽인 서쪽이 유실되었으나 평면 형태는 원형으로 판단된다. 규모는 길이 276cm, 남아 있는 너비 210cm, 최대 깊이 43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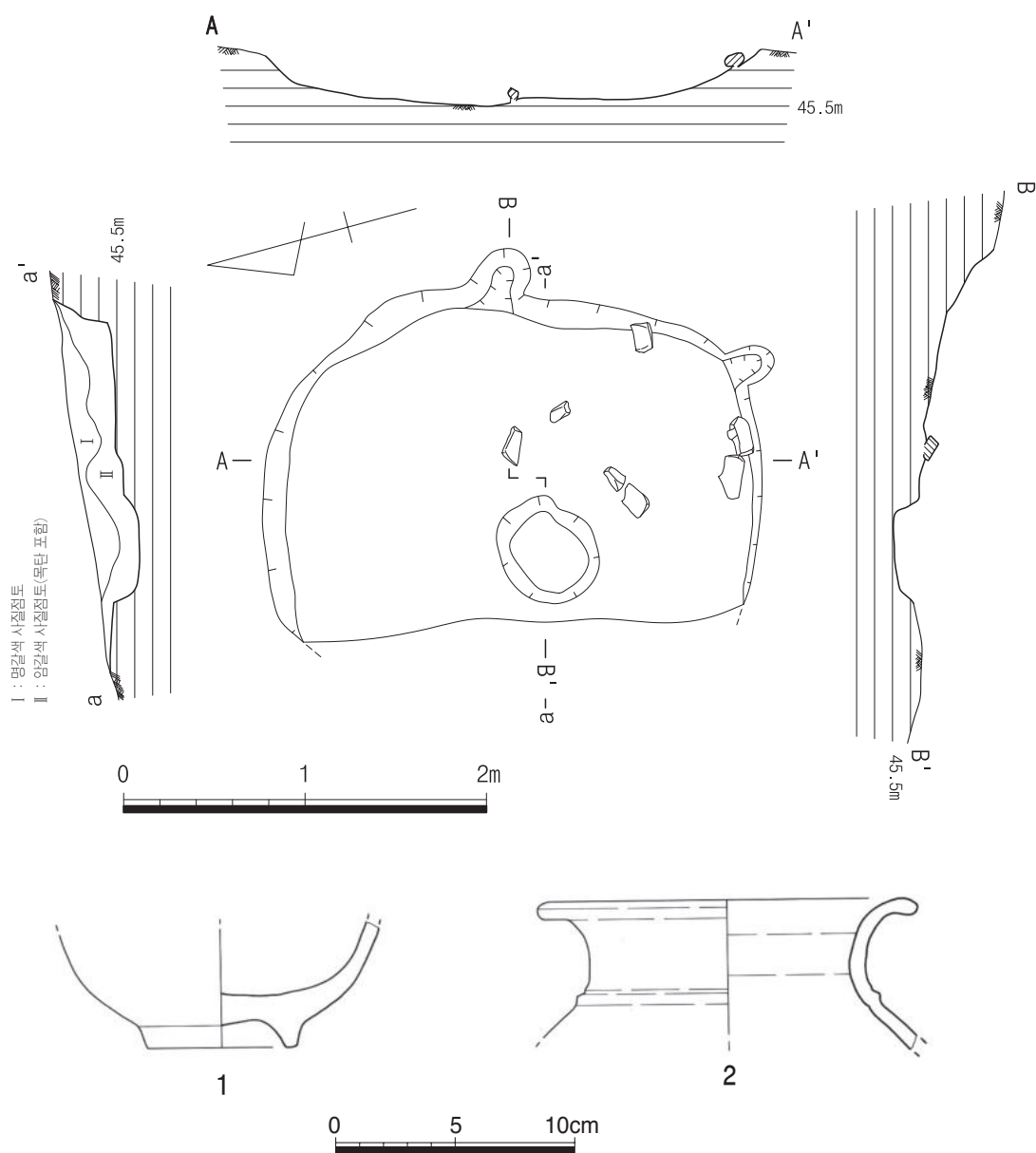
유구는 경사면의 위쪽인 남동쪽이 깊게 남아 있는데 내부토는 명갈색 사질점토와 목탄이 포함된 암갈색의 사질점토로 채워져 있었다. 내부시설은 중앙에 지름 55cm, 깊이 15cm의 원형 수혈이 확인되었다. 배연부는 두 군데에서 확인되는데 하나는 동쪽벽 중앙부에, 또 하나는 동남쪽 모서리에 설치되었으며 동남쪽 모서리 주변에는 아궁이 시설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할석들이 흩어진 상태로 남아 있다.

주거지의 바닥은 중앙부로 갈수록 오목하게 경사지게 만들었다.
유물은 내부에서 백자 저부와 구연부편이 출토되었다.

나. 遺物

① 백자 저부(도면 16-1, 사진 20-⑤)

태토는 회색으로 점토의 입자는 치밀하며 전면에 회백색 유약을 시유하였는데 내외면에 아래쪽으로 유약이 두텁게 흘러 내린 부분도 있다. 굽의 접지면 일부는 떨어져 나갔으며 굽안쪽과 바닥 내면에 굵은 모래가 부착되어 있다. 현재 높이 5.0cm



도면 16. 6호주거지 유구 및 출토유물

② 구연부편(도면 16-2, 사진 20-⑥)

구연과 목, 어깨의 일부가 남아 있는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고 색조는 내외면 모두 회청색, 속심은 암자색이다. 경질이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목과 어깨의 경계부에 한줄의 돌대가 돌려져 있다. 구연부의 내면과 어깨의 내면에 자연유가 부착, 산화되었다.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다. 현재 높이 5.6cm

(7) 7號 住居址

가. 遺構(도면 17, 사진 21·22-①~④)

6호 주거지에서 서쪽으로 약 26.8m 떨어진 구릉의 서쪽사면(해발 41m)에 위치해 있다. 역시 생토층을 굴착하여 조성한 수혈식의 구조이다. 경사면 아래쪽의 서벽은 유실되었으나 평면 형태는 타원형일 것으로 추정되며, 주축 방향은 남-북방향으로 등고선에 평행하다. 규모는 길이 385cm, 남아 있는 너비 181cm, 최대 깊이 33cm이다.

유구는 동쪽의 경사면 상부가 비교적 잘 남아 있다. 내부토는 굵은 석립이 포함된 암황갈색 사질점토와 암갈색의 사질점토로 채워져 있었다.

내부시설은 아궁이시설과 주혈이 있다. 아궁이는 경사면의 위쪽인 남동쪽 벽에 접해서 시설되어 있으며, 주거지의 바닥면을 알게 판 뒤 편평한 할석을 2~3단 정도 양쪽에 쌓고 위에 판상의 할석을 얹어 만들었다. 아궁이의 입구부 폭은 약 23cm 정도이다. 아궁이 내부와 아궁이 앞의 바닥면에는 목탄흔과 소토가 남아 있다. 주거지의 동벽 중앙에서는 부정형의 얇은 수혈이 확인되었는데 내부에서 소토와 목탄이 노출되었다. 그 밖에 주거지의 북서쪽 모서리 안쪽으로 지름 42cm, 깊이 18cm의 주혈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동벽의 중앙부 아궁이에서 철검이, 북벽에 접해서 분청사기 대접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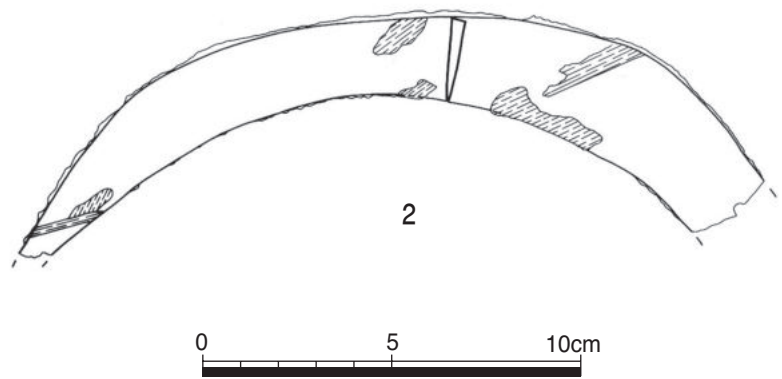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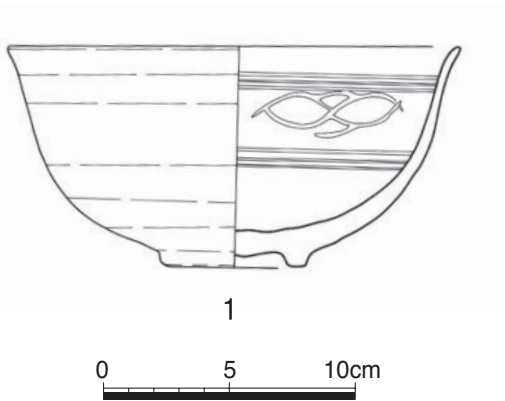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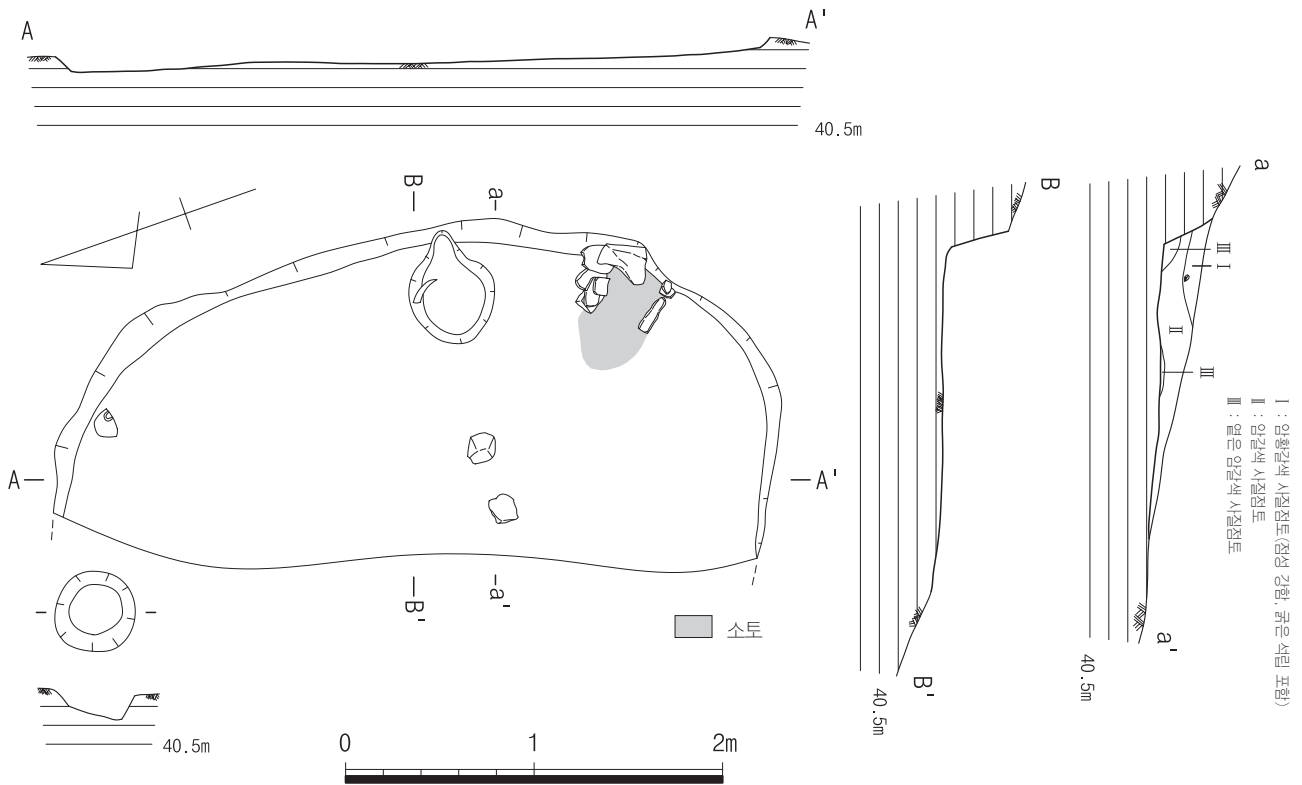
나. 遺物

① 분청사기 대접(도면 17-1, 사진 22-⑤)

북쪽벽에서 출토되었으며 절반만 남아 있다. 태토는 회색이며 입자가 치밀하지는 못하고 단면에 기공이 많이 보인다. 전면에 녹색의 투명유가 시유되었는데 내외면에 기공이 다수 표출되어 기면이 거칠다. 구연부는 외반하고 굽은 직립하는데 접지면의 폭이 일정하지 않다. 굽의 둘레에 모래가 부착되어 있다. 내면에는 상감 기법으로 백토분장을 하였는데 세줄의 홈을 2단 파고 그 안쪽에 문양을 시문하였다. 높이 8.7cm

② 철검(도면 17-2, 사진 22-⑥)

아궁이의 바닥에서 출토되었다. 鍛造製로 基部와 先端部가 결실되었다. 背部와 刃部는 기부에서 선단부까지 曲線으로 연결되어 彎曲한다. 단면은 세장한 역삼각형이다. 표면에 斜方向으로 木質이 일부 銹着되어 있다. 길이 19.4cm, 폭 2.6cm, 무게 63g



도면 17. 7호주거지 유구 및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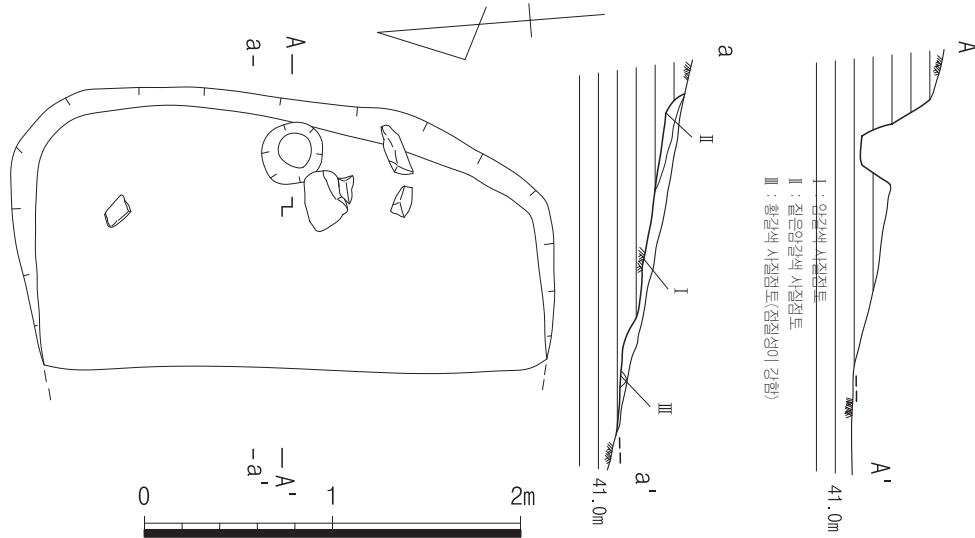
(8) 8號 住居址

가. 遺構(도면 18, 사진 23)

구릉의 서쪽사면 경사면(해발 41m)에 7호 주거지에서 남쪽으로 1.3m 떨어져 나란하게 위치하고 있다. 생토층을 굴착하여 조성한 수혈식의 구조이다. 경사면 아래쪽의 서쪽벽은 대부분 결실되어 전체 평면 형태는 확인할 수 없으나 남아 있는 상태로 보아 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추정된다. 규모는 남북 길이 288cm, 남아 있는 동서 너비 160cm, 최대 깊이 12cm이다.

내부에서는 유구의 동쪽벽에 접하여 지름 32cm, 깊이 18cm의 주혈이 확인되었으며 주변에서 할석들이 흩어진 상태로 노출되었다. 주혈 내부에서 목탄흔과 소토판이 약간 확인되고 토층상에서도 수혈의 상부와 주변 토층에서 목탄흔이 노출되는 것으로 보아 아궁이 시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도면 18. 8호주거지 유구

(9) 9號 住居址

가. 遺構(도면 19, 사진 24·25)

8호 주거지에서 서쪽의 경사면 아래로 약 2.8m 떨어진 구릉의 완만한 사면부(해발 40m)에 위치하며 10호 주거지와 중복되었다. 생토층을 굴착하여 조성한 수혈식 구조이다. 남쪽 모서리가 10호 주거지에 의해 파괴되었으나 평면 형태는 말각방형에 가깝다. 주축 방향은 북서-남동 방향이다. 규모는 길이 328cm, 너비 237cm, 최대 깊이 52cm이다.

경사면의 상부는 비교적 양호하게 남아 있으나 경사면 아래쪽으로는 벽면의 상당부분이 결실되었다. 내부에는 목탄이 포함된 암갈색의 사질점토로 채워져 있었고 20cm 내외의 할석이 불규칙하게 흩어져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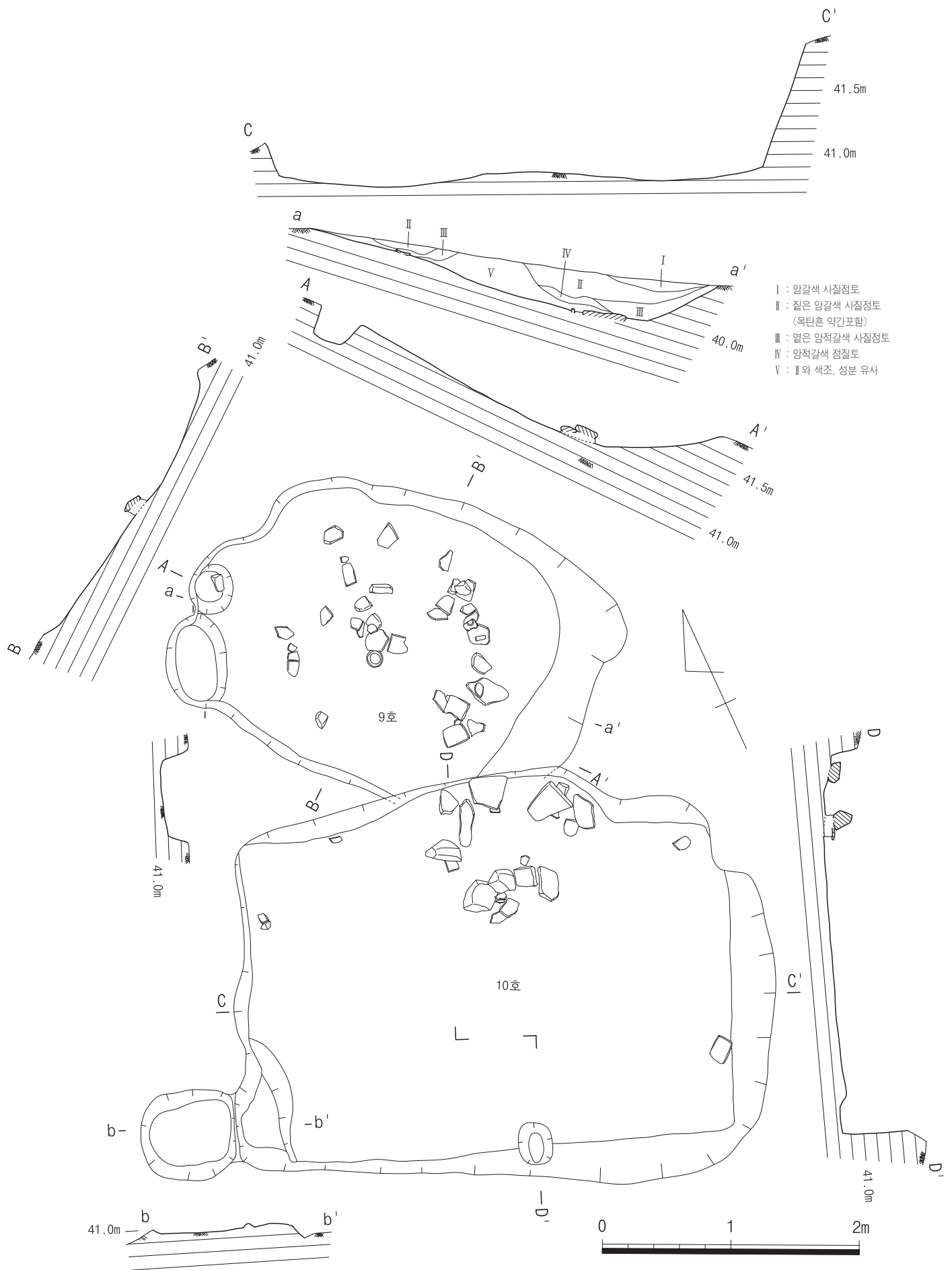
내부시설로는 서쪽모서리에 저장시설로 추정되는 길이 67cm, 너비 46cm, 깊이 20cm의 타원형 수혈이 있고, 이 수혈에 접해서 지름 30cm, 깊이 24cm의 주혈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백자 대접, 접시, 지석, 도기편, 기와 등이 출토되었는데 일부는 바닥면에서, 일부는 바닥면 보다 높은 위치에서 출토되었다.

나. 遺物

① 분청사기 대접(도면 20-1, 사진 26-①)

전체의 1/2 정도만 남아 있다. 태토는 회색으로 입자가 치밀하다. 내외면에 인화기법으로 백토분장후 반



도면 19. 9호주거지, 10호주거지 유구

투명유를 시유하였다. 구연은 외반하고 굽은 직립한다. 내면의 문양은 침선을 돌려 구연에서 바닥까지 내면을 5칸으로 구획하고 각단에 사선문 점열문 마제형문, 소국화문, 대국화문을 시문하였다. 외면의 문양은 구연부와 동체하부에 침선을 돌리고 침선문 사이에 점열문을 시문하였다. 높이 8.0cm

② 백자 대접(도면 20-2, 사진 26-②)

1/2정도가 남아 있다. 태토는 백색이며 입자가 치밀하다. 굽을 제외한 전면에 푸른 빛이 도는 유약을 고르게 시유하였는데 빙열이 있다. 구연은 외반하고 굽은 직립하는데 받침을 붙였던 5군데에 접지면이 떨어져 나갔다. 내면의 바닥에 태토로 빗은 받침 흔적이 5군데 있다. 높이 8.0cm

③ 백자 접시(도면 20-3, 사진 23-③)

구연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회색이며 입자가 치밀하다. 굽과 동하부를 제외한 전면에 푸른 빛이 도는 유약을 고르게 시유하였는데 빙열이 있다. 구연은 외반하고 굽은 직립하는데 받침을 붙였던 4군데에 접지면이 떨어져 나갔다. 내면의 바닥에 태토로 빗은 받침 흔적이 4군데 있다. 외면의 시유되지 않은 동하부에 회전깍기가 확인된다. 높이 3.6cm, 구경 13.0cm, 굽경 4.9cm

④ 백자 접시(도면 20-4, 사진 26-④)

3/4정도가 남아 있다. 태토는 회색이며 입자가 매우 치밀하다. 굽과 외면 일부를 제외한 전면에 회색 빛이 도는 유약을 고르게 시유하였는데 빙열이 있다. 구연은 외반하고 굽은 직립하는데 받침을 붙였던 4군데에 접지면이 떨어져 나갔다. 내면의 바닥에 태토로 빗은 받침 흔적이 4군데 있다. 높이 3.4cm

⑤ 백자 접시(도면 20-5, 사진 26-⑤)

1/4정도가 남아 있다. 태토는 백색이며 입자가 매우 치밀하다. 굽과 외면 일부를 제외한 전면에 푸른 빛이 도는 유약을 시유하였는데 외면의 일부에는 묻쳐져 있고 빙열도 있다. 구연은 외반하고 굽은 내경한다. 내면의 바닥에 태토로 빗은 받침 흔적이 1군데 있다. 높이 3.5cm

⑥ 백자 접시(도면 20-6, 사진 26-⑥)

1/3정도가 남아 있다. 태토는 회색이며 입자가 치밀하나 단면에 기공이 있다. 내외면에 회색 빛이 도는 유약을 시유하였다. 굽은 삼각형이고 주위에 받침으로 사용된 굽은 모래가 점토와 엉켜 부착되어 있다. 내면의 바닥에도 굽은 모래가 부착되어 있다. 높이 3.45cm

⑦ 저부편(도면 20-8, 사진 27-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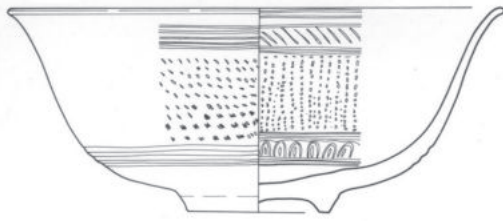
일부만 남아 있는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석영, 운모, 장석 등의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며 색조는 내외면과 단면 모두 암회색이다. 경질이며 소성상태는 보통이다. 바닥은 동체부보다 두께가 얇고 안쪽이 들린 평저이다. 동체부의 내외면에는 저부와 접합시 점토로 보강한 후 정면한 흔적이 관찰되고 접합력을 높이기 하기 위해 도구로 누른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 외면의 경계부에는 시계방향으로 깍기를 하였다. 내면에는 회전물손질 흔적이 관찰된다. 현재 높이 6.0cm

⑧ 파수(도면 20-9, 사진 27-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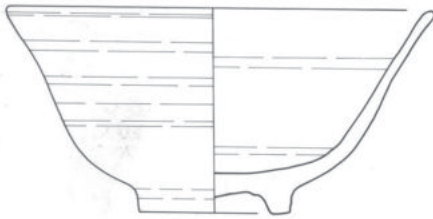
판상으로 만들어 동체에 붙였으며 일부만 남아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이고 내외면 모두 흑색이다. 외면에 손누름흔이 남아 있고 동체부와 접합부에는 무질서한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길이 7.85cm

⑨ 지석(도면 20-7, 사진 27-①)

사암제 지석으로 일부분이 파손되었다. 단면은 逆五角形이고 윗면과 한쪽 측면이 편평하게 마연되었다. 주로 사용된 윗면은 약간 오목하다. 측면에는 길이방향으로 약한 홈이 나 있다. 길이 11.1×15.9cm, 두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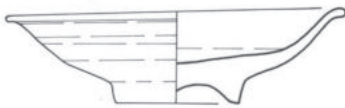
1



2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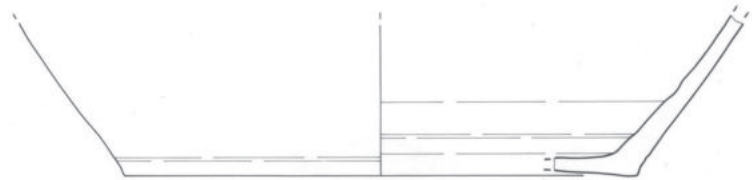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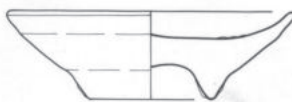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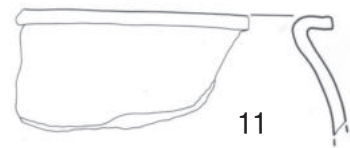
8



6



9



11



10



12

도면 20. 9호주거지(1~9), 10호주거지(10~12) 출토유물

5.4cm, 무게 1432g

⑩ 수키와(도면 21-1, 사진 27-②)

선문의 회청색 경질 수키와편이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완형에 가까운 형태이며 등면 부분의 일부는 소성당시 뒤틀린 것으로 추정된다. 배면에는 물손질처리되어 포목흔이 뚜렷하게 남아있지 않으며 배면중앙에 점토를 덧댄 듯한 흔적이 일부 보이고 있어 점토합흔일 가능성이 있다. 분할면은 약 0.8~1cm의 와도분할선이 확인되고 있다. 현재 길이 35cm, 언강길이 3cm, 현재 너비 15.5cm, 두께 1.5cm

⑪ 수키와(도면 21-2, 사진 27-⑤)

무문 회색 경질 유단식 수키와이다. 태토는 사질점토질이며 비교적 정선되었다. 등면은 부분적인 박리가 심하여 문양의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3cm길이의 언강이 확인된다. 배면은 빗질정면으로 인하여 포목이나 기타특징을 찾기 어렵다. 분할면 또한 멸실되어 와도흔을 발견하지 못했다. 현재 길이 12.5cm, 현재 너비 13cm, 두께 2.5cm

⑫ 수키와(도면 21-3, 사진 27-⑥)

어골문 회백색 연질 수키와편이다. 태토는 사질점토질이며 부분적으로 석립이 포함되었다. 등면은 정면되어 문양이 희미하게 남아 있으며 배면은 포목흔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분할면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분할하였으며 단면 와도흔은 거의 전면에 가깝다. 현재 길이 17.5cm, 현재 너비 13cm, 두께 2.3cm

⑬ 수키와(도면 21-4, 사진 27-⑦)

능형문 회색 경질 수키와편이다. 태토는 정선된 사질점토질이며 등면 문양대는 매우 선명하다. 능형의 마름모 형태를 반복하여 시문한 것과 능형의 마름모 형태안에 분할된 능형을 시문한 것 등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배면은 비교적 성긴 올의 포목흔이 확인되고 있으며 와도흔은 얇은 두께에도 1/3가량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길이 10.4cm, 현재 너비 11cm, 두께 1.7cm

⑭ 암키와(도면 22-1, 사진 28-①)

무문 황갈색 연질 암키와편이다. 태토는 석립이 다수 포함된 사질점토질이며 등면은 정면되어 문양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배면 역시 연질의 성격에 따라 표면이 박리되어 포목흔 등 기타 특징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분할면의 와도흔은 희미하게 확인되는데 단면의 약 1/2가량을 분할하여 내면에서 외면으로 절단하였다. 현재 길이 18cm, 현재 너비 30.2cm, 두께 2.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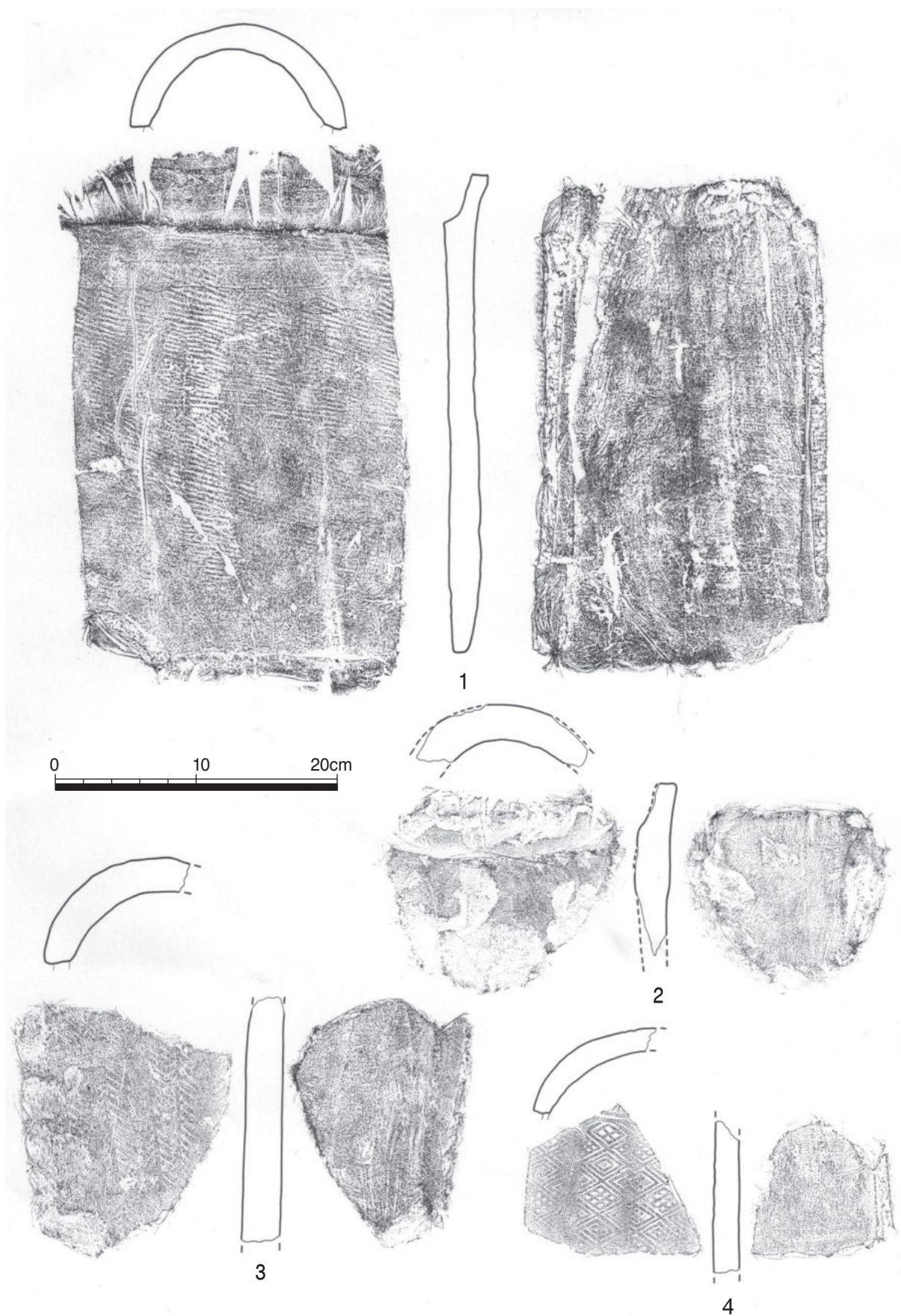
⑮ 암키와(도면 22-2, 사진 28-②)

무문 회백색 연질 암키와편이다. 태토는 정선된 사질점토질이며 세사립이 혼입되었다. 배면에는 빗질정면으로 포목흔은 관찰되지 않으며 부분적으로 박리가 심하다. 겉면은 흑색을 띠고 있으나 속심은 회백색을 띠며 무른 편이다. 분할면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분할되었으며 단면의 1/2가량이 와도로 절단되었다. 현재 길이 29.3cm, 현재 너비 16cm, 두께 1.9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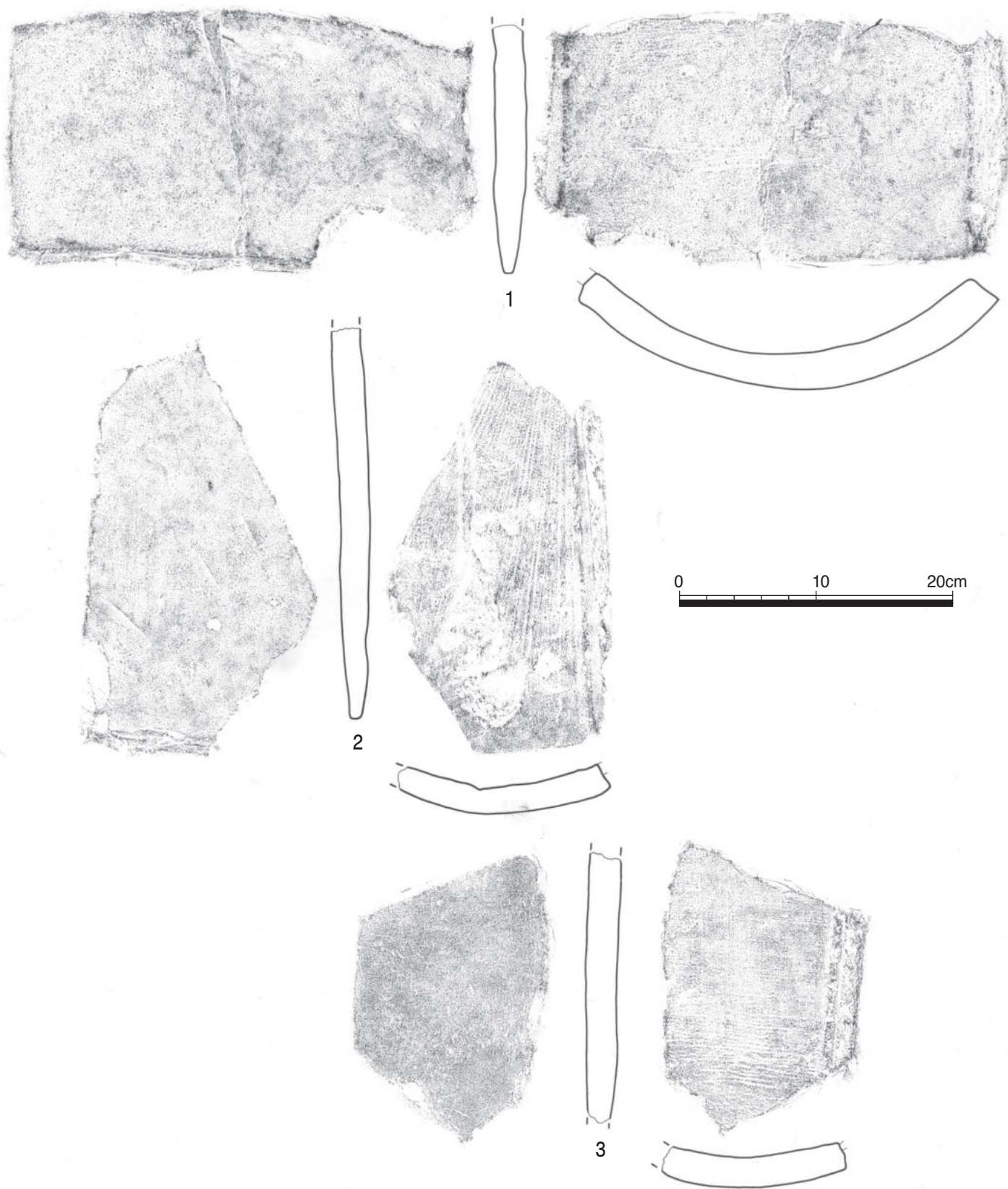
⑯ 암키와(도면 22-3, 사진 28-③)

무문 회청색 경질 암키와편이다. 태토는 사질점토질이며 사립이 소량 혼입되었다. 등면에는 빗질흔이 희미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배면에는 포목흔이 조밀하게 관찰된다. 분할면 인접해서 분할계선을 붙였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으며 와도흔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1/4가량 먼을 내려 그었다. 현재 길이 21cm, 현재 너비 12.9cm, 두께 2.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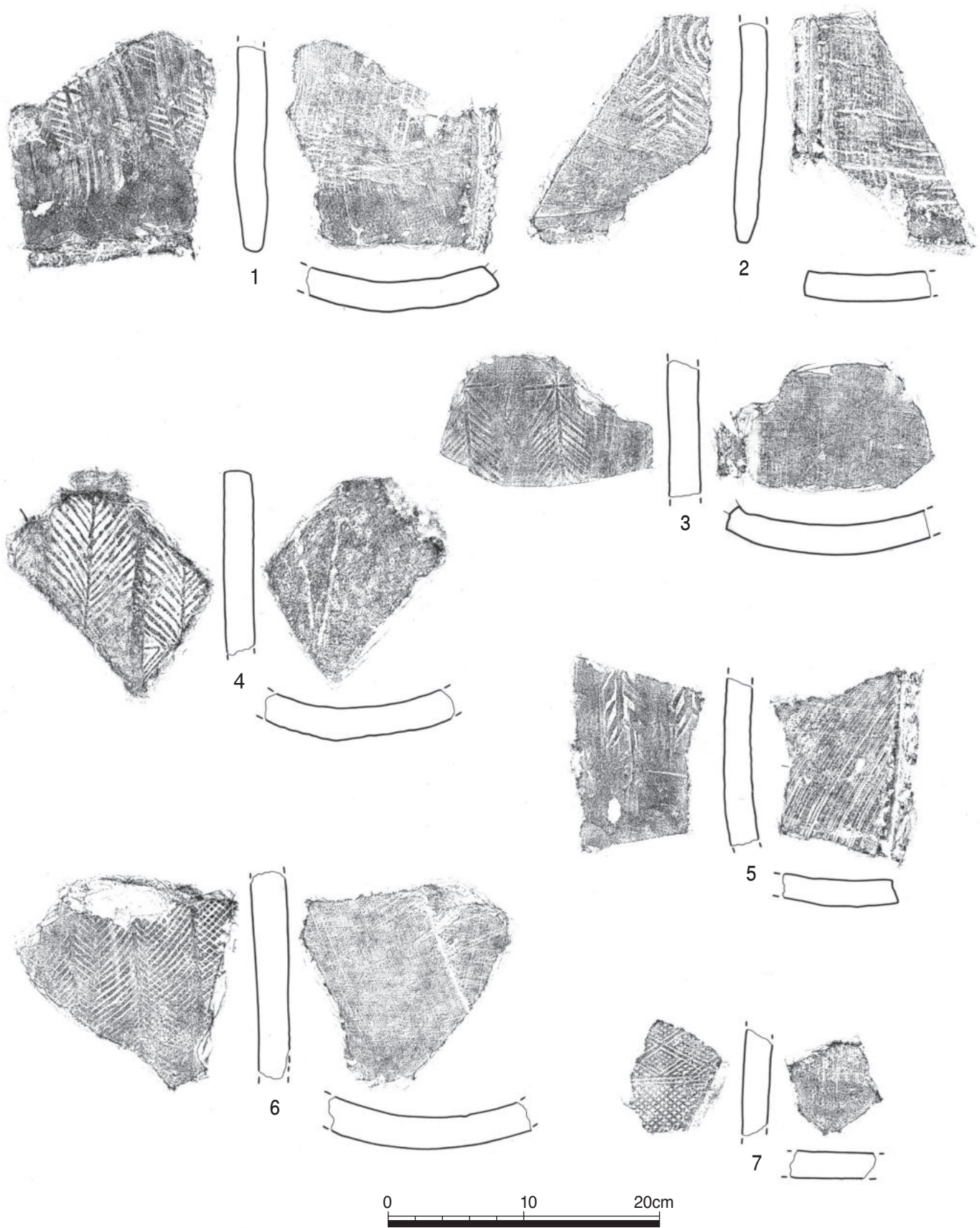
⑰ 암키와(도면 23-1, 사진 28-④)



도면 21. 9호주거지 출토유물



도면 22. 9호주거지 출토유물



도면 23. 9호주거지 출토유물

어골문 회색 경질 암키와편이다. 태토는 정선된 사질점토질이며 배면에는 물손질정면되어 포목은 희미하게 일부에서만 남아 있다. 올수는 비교적 조밀한 편이며 9×9가량으로 추정된다. 분할면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올려 그은 와도흔이 단면의 약1/2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길이 15cm, 현재 너비 13cm, 두께 2.1cm

⑱ 암키와(도면 23-2, 사진 28-⑤)

어골문 회색 경질 암키와편이다. 태토는 정선된 사질점토질이며 배면에는 조밀한 포목흔이 관찰된다. 분할면에 인접해서 분할계선을 붙였던 흔적이 확인되며, 와도흔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분할하였으며 단면1/2가량의 두께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길이 16.5cm, 현재 너비 10cm, 두께 1.7cm

⑲ 암키와(도면 23-3, 사진 29-①)

어골복합문 회색 경질 암키와편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질이며 석립이 일부 혼입되었으나 소량이다. 등면 문양은 선명한 편이며 배면은 물손질로 일부 지워진 부분도 있으나 포목흔이 일정하게 확인된다. 포목흔은 매우 조밀한 편이며 대체로 12×11의 올수를 보여주고 있다. 분할면과 인접하여 우묵한 부분이 일부 확인되는데 분할계선을 설치했던 부분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와도는 내면에서 외면으로 절단하였고 단면의 약 1/2가량을 차지한다. 현재 길이 9.3cm, 현재 너비 14cm, 두께 1.8cm

⑳ 암키와(도면 23-4, 사진 29-②)

어골문 회백색 연질 암키와편이다. 태토는 사립이 포함된 정선된 사질점토이며 등면의 문양은 매우 선명한 편이다. 어골문양은 상하를 대칭되게 배치한 상하대칭 어골문양으로 추정되며 문양판에 의해서 문양과 문양사이에 각이 지게 단을 형성하고 있다. 배면은 연질소성으로 인하여 부분박리되어 포목흔적은 찾을 수 없으며 단면의 와도흔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현재 길이 15.5cm, 현재 너비 14cm, 두께 2cm

㉑ 암키와(도면 23-5, 사진 29-③)

유사어골문 회색 경질 암키와편이다. 태토는 사립이 다수 포함된 사질점토질이며 등면 문양은 선명한 편이다. 배면은 빗질정면으로 인하여 포목흔은 대부분 지워졌으며 분할면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와도를 사용하여 분할하였다. 와도흔은 단면의 1/5가량을 차지하며 5mm가량의 대체로 일정한 폭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길이 13.5cm, 현재 너비 9.6cm, 두께 1.8cm

㉒ 암키와(도면 23-6, 사진 29-④)

유사어골문 회색 경질 암키와편이다. 태토는 사립이 포함된 사질점토질이며 등면 문양은 비교적 선명하다. 배면은 성긴 포목흔이 뚜렷한 형태로 남아 있으며 특히 합철흔이 확인된다. 분할면은 단면부가 결실된 관계로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길이 15cm, 현재 너비 15cm, 두께 2cm

㉓ 암키와(도면 23-7, 사진 29-⑤)

능형격자문 적갈색 연질 암키와편이다.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포함된 사질점토이며 배면은 물손질정면으로 포목흔이 대부분 지워졌다. 분할면은 멸실되어 와도흔은 관찰되지 않는다. 현재 길이 8.4cm, 현재 너비 7.5cm, 두께 1.9cm

(10) 10號 住居址

가. 遺構(도면 19, 사진 30~32-①·②)

구릉의 서쪽 사면(해발 40m)에 9호 주거지와 중복된 상태로 노출되었다. 생토층을 굴착하여 수혈식의 구

조로 9호 주거지의 모서리를 파괴하고 조성되었다. 평면 형태는 장방형에 가까우며, 주축 방향은 9호 주거지와 달리 동-서 방향이다. 규모는 길이 425, 너비 322cm, 최대 깊이 105cm이다.

유구는 경사면 위쪽인 동벽이 비교적 잘 남아있고 서벽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내부는 목탄이 포함된 암갈색의 사질점토로 채워져 있었다. 동단벽, 서단벽, 남장벽 3벽은 비교적 직선상으로 정연하나 9호 주거지와 중복된 북장벽은 9호 주거지쪽으로 약간 돌출되었으며 이 부분에서 크고 작은 할석이 확인되었다.

내부시설은 출입구시설과 주혈이 확인되었다. 출입구시설은 주거지 서단벽의 남쪽 모서리 부분에 밖으로 돌출되게 지름 70cm, 깊이 10내외로 얇게 파서 주거지 안쪽으로 연결되는 단을 이루고 있다. 남장벽의 중앙부 접해서 지름 30cm, 깊이 10cm 내외의 주혈이 노출되었다.

유물은 분청사기 저부, 도기편, 기와 등이 출토되었는데 일부는 바닥면에서, 일부는 바닥면보다 높은 위치에서 출토되었다.

나. 遺物

① 분청사기 저부편(도면 20-10, 사진 32-⑤)

1/2정도만 남아 있다. 태토는 황갈색이며 입자가 치밀하다. 굽을 제외한 기면에 시유를 하였는데 유약이 산화되어 박리되고 있다. 내면의 바닥에 침선문을 돌리고 그 안쪽에 여의두문을 상감기법으로 시문하였다. 현재 높이 2.3cm

② 구연부편(도면 20-11, 사진 32-③)

일부만 남아 있는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세석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고 내외면 모두 적갈색이다. 연질이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구연부는 전의 형태로 외반하며凹면이 형성되어 있다. 현재 높이 4.65cm

③ 저부(도면 20-12, 사진 32-④)

일부만 남아 있는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석영, 운모, 장식 등의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며 색조는 내외면과 단면 모두 흑회색이다. 경질이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바닥은 동체부보다 두께가 얇고 안쪽이 들린 평저이다. 동체부의 외면에는 사방향으로 평행타날흔이 남아 있고, 내면에는 저부와 접합시 점토로 보강한 후 정면한 흔적이 무질서하게 남아 있다. 현재 높이 5.25cm

④ 수키와(도면 24-1, 사진 32-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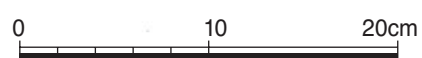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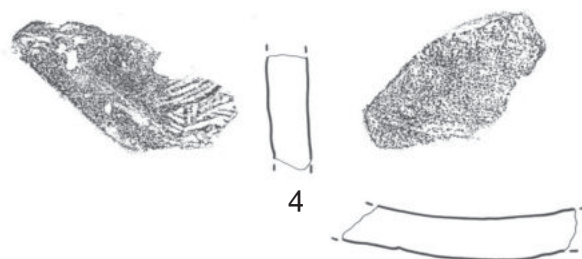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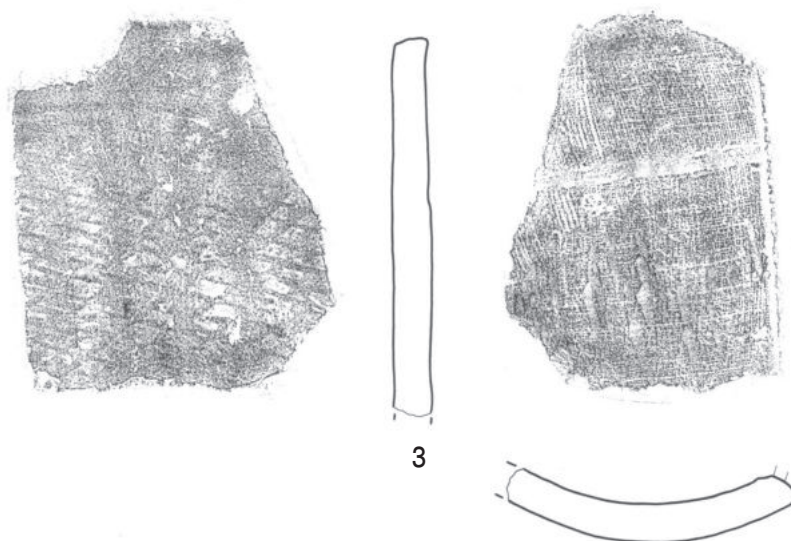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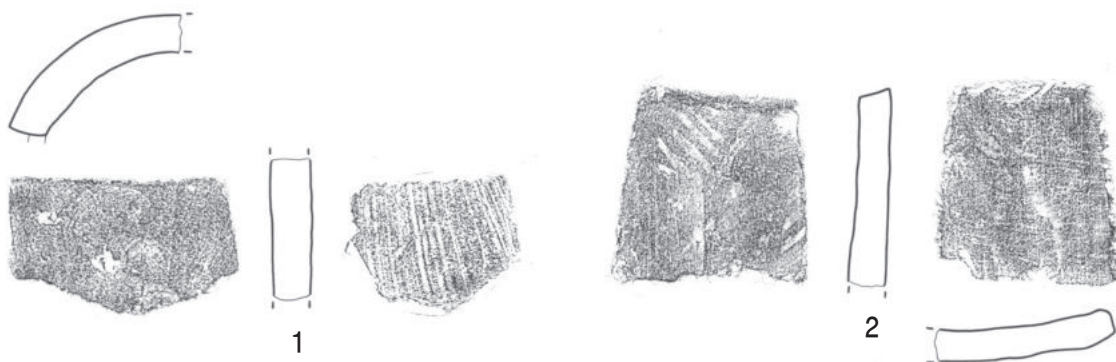
무문 회청색의 경질 수키와편이다. 태토는 정선된 사질점토에 석립이 다수 혼입되어 있으며 특히 등면에 석영으로 보이는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다. 배면은 세로방향으로 빗질흔이 관찰되고 있으며 포흔은 확인되지 않는다. 와도는 내면에서 외면으로 그었으며 단면의 약1/2가량인 9mm의 와도흔이 관찰된다. 현재 길이 7.2cm, 현재 너비 11cm, 두께 2cm

⑤ 암키와(도면 24-2, 사진 32-⑦)

태사선문의 회백색 경질 암키와편이다. 태토는 정선된 사질점토이며 사립이나 석립이 거의 혼입되지 않은 매우 정선된 태토이다. 등면은 정면되어 상단에 희미하게 태사선문이 관찰되고 있으며 배면은 비교적 잘 남아있는 편이나 분할면에 인접해서 조밀한 포흔이 관찰된다. 기와의 분할은 분할계선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와도의 단면은 마모되어 두께가 관찰되지 않는다. 현재 길이 10.5cm, 현재 너비 9.4cm, 두께 1.3cm

⑥ 암키와(도면 24-3, 사진 32-⑧)

사선문의 회황색 경질 암키와이다. 태토는 비교적 정선된 사질점토에 사립 및 석립이 극히 일부만 혼입되



도면 24. 10호주거지 출토유물

어 있다. 등면은 문양이 뚜렷하지 않으나 태사선문 계열의 문양으로 추정되며 배면은 부분적으로 빗질흔이 관찰되나 비교적 잘 남아있는 편이다. 관찰되는 포목흔은 성긴 편이며 1cm당 올수는 7×8이다. 분할면은 분할계선을 사용하였으며 와도는 내면에서 외면으로 그었고 단면의 1/3가량인 약 6mm가량의 와도흔이 관찰된다. 특히 배면에서는 상단부에 포목을 묶은 윤철흔이 1cm가량의 두께로 잘 남아있다. 현재 길이 19.8cm, 현재 너비 15.4cm, 두께 2cm

⑦ 암키와(도면 24-4, 사진 32-⑨)

복합문의 적갈색 경질 암키와 편이다. 태토는 정선된 사질점토에 석립이 소량 포함되어 있으며 배면은 물손질정면으로 포흔이 관찰되지 않는다. 중단 내면만 남아 있어 와도흔은 관찰되지 않는다. 현재 길이 6cm, 현재 너비 12.5cm, 두께 2.2cm

(11) 11號 住居址

가. 遺構(도면 25, 사진 33-①~④)

10호 주거지에서 남동쪽으로 6.2m 떨어진 구릉사면(해발 41m)에 위치해 있다. 생토층을 굴착하여 조성한 수혈식의 구조이다. 경사면 아래쪽인 서벽과 남벽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평면 형태는 남아 있는 상태로 보아 방형으로 추정되며, 주축 방향은 동-서 방향으로 등고선에 직교한다. 규모는 길이 342cm, 너비 334cm, 최대 깊이 49cm이다.

역시 경사면 상부인 동벽이 가장 양호하게 남아 있다. 내부토는 명갈색 사질점토와 굵은 석립이 포함된 암갈색 사질토로 채워져 있었다.

내부시설로는 중앙부에서 노출된 지름 38cm의 수혈과 지름 20cm, 깊이 23cm 내외의 주혈이 3개 확인되었다. 바닥면은 적갈색 사질점토를 이용하여 두께 8cm로 점토다짐을 하였다.

유물은 백자 제기 2점과 저부편이 출토되었다.

나. 遺物

① 백자 제기(도면 25-1, 사진 33-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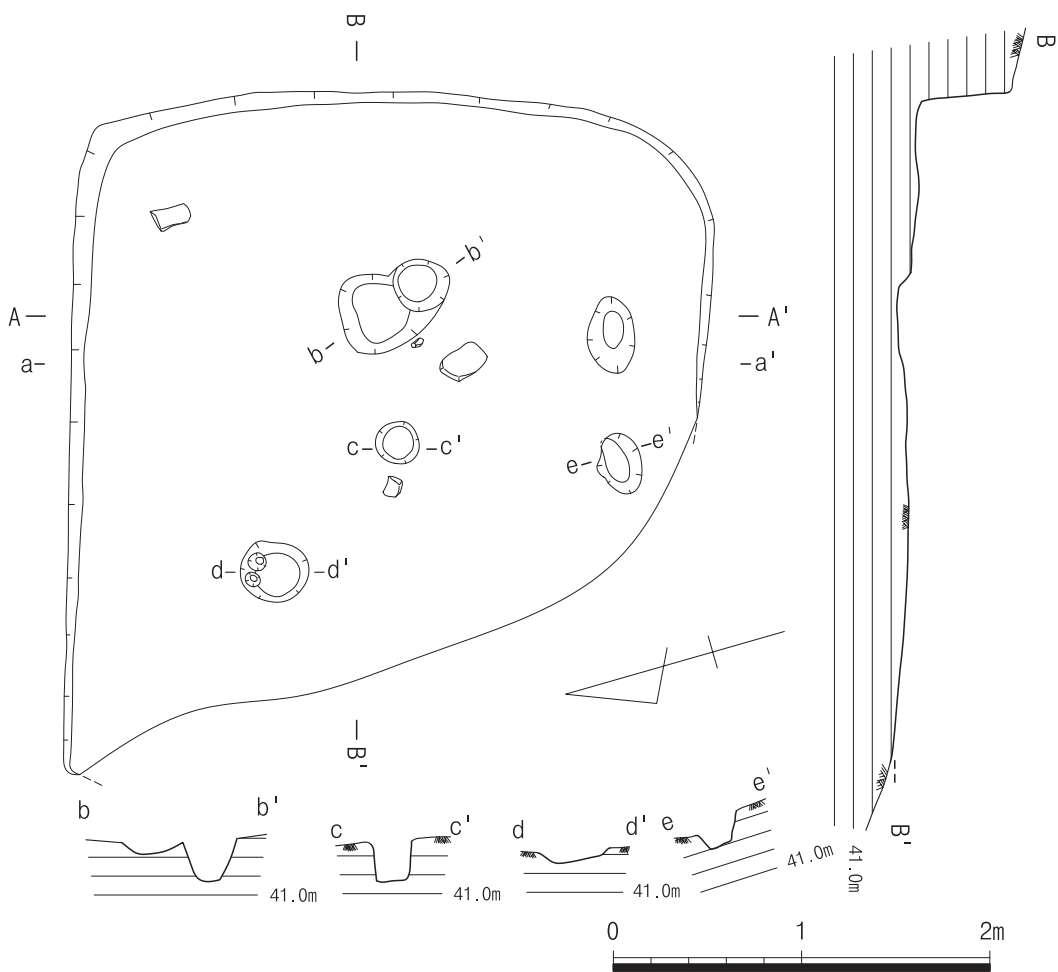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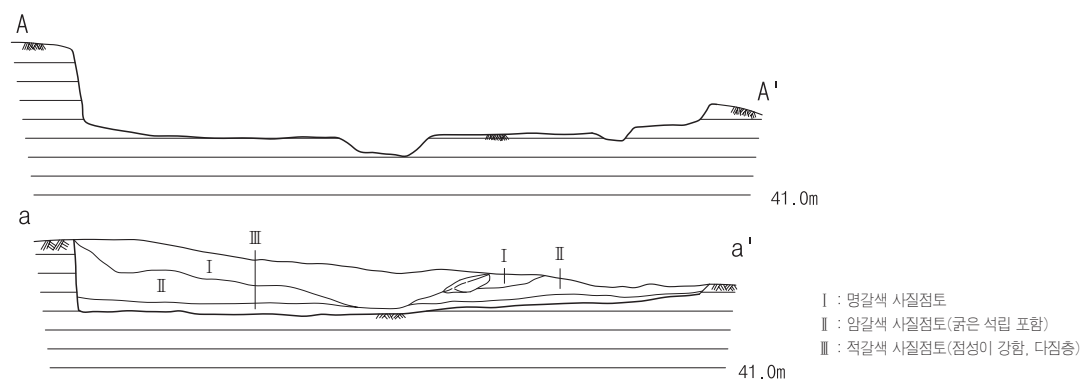
대각과 저부 일부만 남아 있다. 태토는 회백색이며 입자가 치밀하나 단면에 기공이 있다. 굽의 안쪽 바닥면을 제외한 전면에 푸른 빛이 도는 유약을 시유하였으며 크고 작은 빙열이 있다. 대각은 9面인데 원형으로 만들어 도치시킨 상태에서 시계방향으로 위에서 아래로 깎아 면을 만들어 나갔다. 굽의 접지면에는 굵은 모래가 잡물과 같이 부착되어 있다. 현재 높이 4.4cm

② 백자 제기(도면 25-2, 사진 33-⑦)

대각 1/3 정도만 남아 있다. 태토는 회백색이며 입자가 치밀하다. 남아 있는 전면에 푸른 빛이 도는 유약을 시유하였으며 크고 작은 빙열이 있다. 대각은 5面만 확인되며 원형으로 만들어 도치시킨 상태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위에서 아래로 깎아 면을 만들어 나갔다. 굽의 접지면과 내면 바닥에는 굵은 모래가 부착되어 있다. 현재 높이 3.6cm

③ 백자 저부(도면 25-3, 사진 33-⑤)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회색이며 입자가 치밀하다. 내외면에 푸른 빛이 도는 유약을 시



1



2



3

0 5 10cm

도면 25. 11호주거지 유구 및 출토유물

유하였는데 외면은 박리가 심하다. 내면의 바닥 일부는 소성시 터졌다. 현재 높이 4.5cm

(12) 12號 住居址

가. 遺構(도면 26, 사진 34-①~④)

11호 주거지에서 남쪽으로 1.2m 떨어진 구릉사면(해발 41m)에 위치하고 있다. 역시 생토층을 굴착하여 조성한 수혈식의 구조이다. 경사면 아래쪽인 서벽이 결실되었으나 나머지 벽면의 남아있는 상태로 보아 평면 형태는 각이 뚜렷한 방형으로 추정된다. 주축 방향은 동-서 방향으로 등고선에 직교한다. 규모는 남아 있는 길이 297cm, 너비 280cm, 최대 깊이 34cm이다.

유구는 경사면 상부에 위치한 동벽이 비교적 양호하게 남아 있다. 내부토는 암갈색 사질점토로 채워져 있었다.

내부의 중앙부에서 지름 38cm, 깊이 22cm의 주혈과 남동쪽 모서리 부근에서 길이 45cm 내외, 너비 30cm 내외, 깊이 10cm 정도의 부정형 수혈이 확인되었다. 바닥면은 적갈색 사질점토를 이용하여 두께 7cm정도로 점토다짐을 하였다.

유물은 분청사기 대접편과 도기 구연부편이 출토되었다.

나. 遺物

① 대접(도면 26-1, 사진 34-⑤)

동체부 1/4 정도가 남아 있다. 태토는 회색이며 입자가 비교적 치밀하다. 내외면에 푸른 빛이 도는 유약을 시유하였는데 외면은 산화되어 일부가 박리되었다. 현재 높이 19.0cm

② 구연부편(도면 26-2, 사진 34-⑥)

호의 구연부편으로 일부만 남아 있는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세석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고, 색조는 외면은 회흑색, 내면은 회갈색, 속심은 적갈색이다. 경질이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외면에 1줄의 돌대가 돌려져 있다. 현재 높이 11.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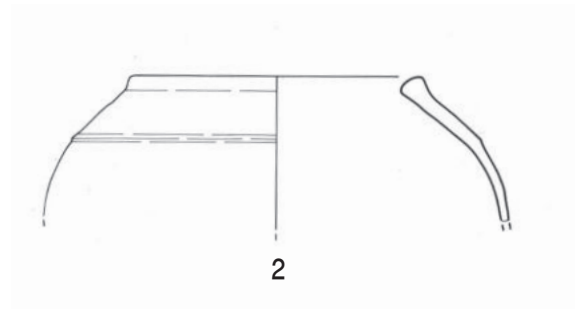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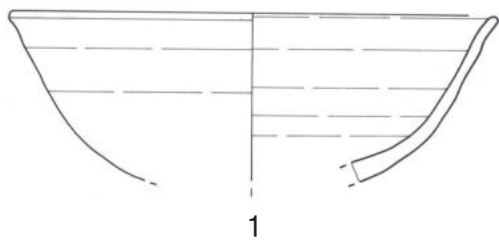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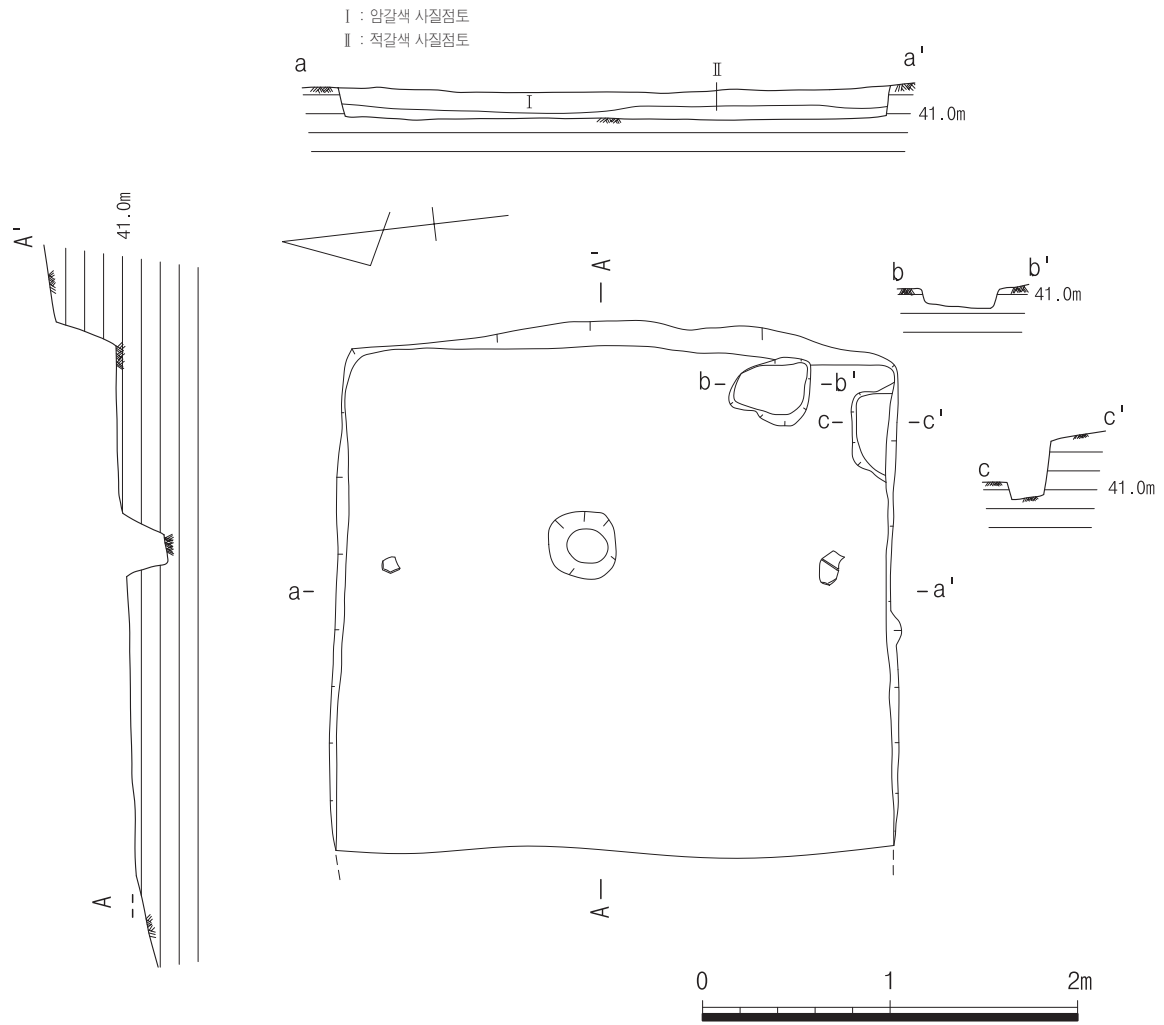
③ 구연부편(도면 26-3, 사진 34-⑦)

일부만 남아 있는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색조는 내외면은 회청색, 속심은 적갈색이다. 경질이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외면에는 격자타날이, 내면에는 회전녹로흔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 현재 높이 7.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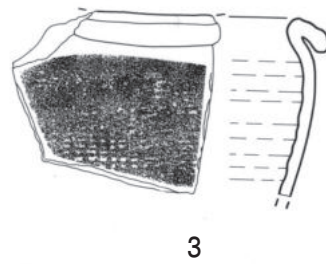
(13) 13號 住居址

가. 遺構(도면 27, 사진 35-①~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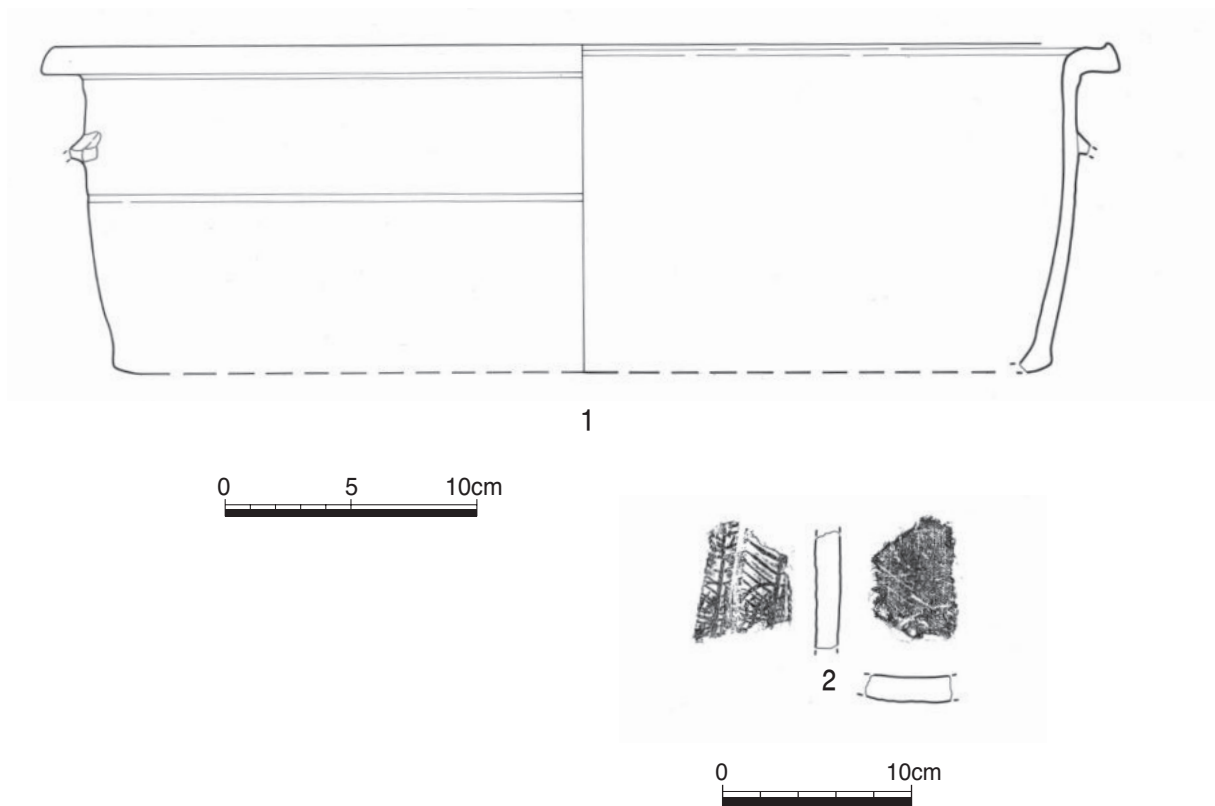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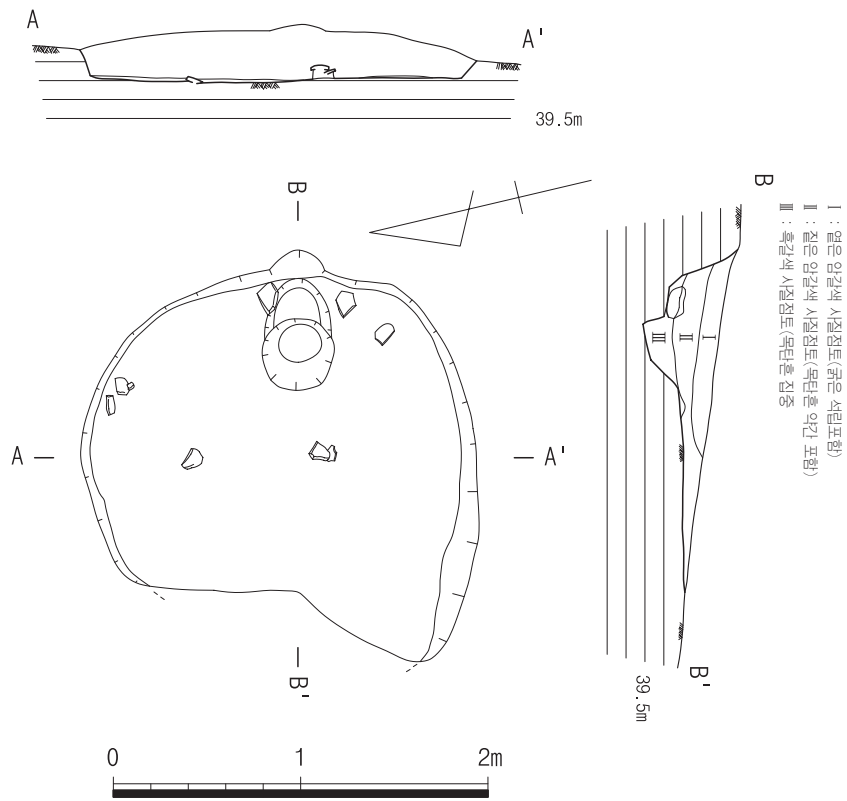
12호 주거지에서 남서쪽으로 6.7m 떨어진 구릉의 서쪽 사면(해발 39m)에 위치해 있다. 생토층을 굴착하여 조성한 수혈식의 구조이다. 경사면 아래쪽에 있는 서벽은 결실되었으나 평면 형태는 타원형일 것으로 추정된다. 주축 방향은 동-서 방향으로 등고선에 직교한다. 규모는 남아 있는 길이 190cm, 너비 198cm, 최대 깊이 30cm이다.



0 5 10cm



도면 26. 12호주거지 유구 및 출토유물



도면 27. 13호주거지 유구 및 출토유물

유구는 경사면의 위쪽인 동쪽이 깊게 남아 있는데 내부토는 암갈색의 사질점토로 채워져 있었다. 경사면의 위쪽인 동쪽 중앙에 아궁이와 배연부가 시설되어 있다.

아궁이는 주거지의 바닥면을 길이 35cm, 너비 30cm, 깊이 15cm정도로 수혈을 판 뒤 할석을 이용하여 만들었는데 앞쪽에는 경사지게 뒤쪽에는 단을 지워 배연부에 연결되게 만들었다. 아궁이의 구조는 뚜렷하게 남아 있지 않으나 수혈 주위에 벽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할석과 뚜껑돌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판석이 확인된다. 아궁이 수혈의 내부는 목탄이 많이 포함된 흑갈색 사질토로 채워져 있었고 바닥면은 소결되어 있었다.

유물은 도기편, 백자편, 기와 등이 출토되었다.

나. 遺物

① 동이(도면 27-1, 사진 35-⑤)

구연부와 동체부, 저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세석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색조는 내외면은 회흑색, 속심은 회색이다. 연질이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외면의 동체 중위에는 한줄의 침선이 돌려져 있고 평행타날흔이 남아 있다. 동하부에는 바닥과 접합시 점토보강후 정면한 흔적이 관찰된다. 현재 높이 13.0cm

② 암키와(도면 27-2, 사진 35-⑥)

어골복합문 계열의 회청색 경질 암키와편이다. 태토는 사질점토에 석립이 다소 혼입되어 있으며 배면은 일부 빗질정면흔도 관찰되나 대체로 포목흔이 잘 남아있다. 포목흔은 비교적 성긴 편이며 7×8의 올수를 보이고 있다. 와도흔은 관찰되지 않아 알 수 없다. 현재 길이 10cm, 현재 너비 7cm, 두께 1.8cm

(14) 14號 住居址

가. 遺構(도면 28, 사진 36-①~⑤)

6호 주거지에서 남쪽으로 25.3m 떨어진 구릉의 남쪽 사면(해발 45m)에 위치해 있다. 생토층을 굴착하여 조성한 수혈식의 구조이다. 경사면 아래쪽에 있는 서벽은 결실이 되어 바닥만 남아 있으며 평면 형태는 원형에 가깝다. 규모는 남아 있는 길이 336cm, 남아 있는 너비 298cm, 최대 깊이 45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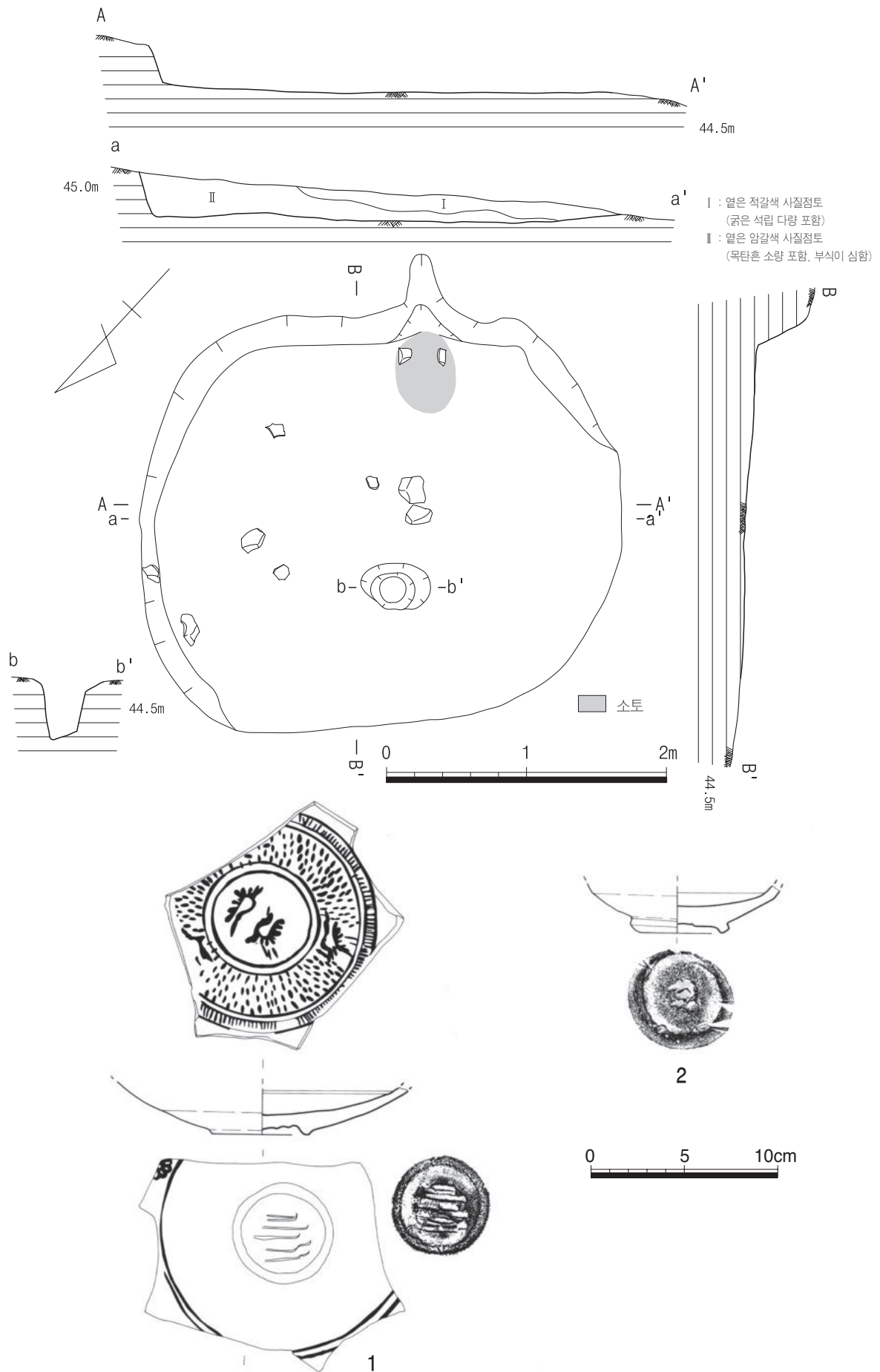
유구는 경사면의 위쪽인 동쪽이 깊게 남아 있는데 내부토는 굵은 석립이 다량 포함된 적갈색 사질점토와 암갈색의 사질점토로 채워져 있었다. 경사면의 위쪽인 동남쪽 중앙에 아궁이와 아궁이 뒤쪽 벽에 접해서 배연부가 시설되어 있다.

아궁이는 수혈을 파지 않고 바닥면 위에 할석을 이용하여 만들었는데 구조는 뚜렷하게 남아 있지 않으나 벽으로 사용된 할석이 대칭되게 남아 있다. 할석 사이의 간격은 20cm이다. 할석의 주변으로 길이 60cm, 너비 42cm 정도의 타원형 범위에서 목탄흔이 노출되었다. 배연부는 길이가 33cm정도이고 바닥면에서 상면으로 비스듬히 연결되게 만들었다. 내부의 중앙에서 서쪽으로 치우쳐 지름 30cm, 깊이 40cm의 주혈이 확인된다.

유물은 내부에서 분청사기 저부가 출토되었다.

나. 遺物

① 분청사기 저부(도면 28-1, 사진 36-⑥)



도면 28. 14호주거지 유구 및 출토유물

구연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회색이며 입자가 치밀하다. 전면에 회청색 불투명유를 시유하였는데 내면의 일부에는 묻혀져 산화되었다. 내외면에 문양이 상감되어 있다. 내면에는 중앙에 1쌍의 학을 배치하고 동심원으로 침선을 두줄 돌린 후 그 점문과 학을 일정간격을 두고 배치한 다음 외곽에 침선문과 선문을 돌렸다. 외면에는 나선으로 침선을 돌리고 문양을 상감하였는데 남아 있는 상태로는 어떤 모양인지 알 수 없다. 굽의 안쪽에는 요철이 뚜렷하게 남아 있고, 접지면에는 모래와 잡물이 부착되어 있다. 현재 높이 2.45cm

② 분청사기 저부(도면 28-2, 사진 36-⑦)

태토는 적갈색이며 입자가 치밀하다. 굽을 제외한 기면에 유약을 시유하였는데 산화되어 황갈색을 띠고 있다. 굽은 접지면이 고르지 않다. 현재 높이 2.4cm

(15) 15號 住居址

가. 遺構(도면 29, 사진 37·38)

14호 주거지에서 서쪽으로 19.6m 떨어져 위치하며 16호 주거지와 중복되었다. 구릉의 남쪽 사면(해발 42m)에 생토층을 굴착하여 조성한 수혈식의 구조이다. 남벽의 일부가 16호 주거지가 조성되면서 파괴되고, 북벽의 일부가 유실되었으나 평면 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된다. 주축 방향은 남-북 방향으로 등고선에 평행한다. 규모는 길이 325cm, 너비 258cm, 최대 깊이 52cm이다.

유구는 16호 주거지의 조성으로 인하여 남단벽과 서장벽의 일부가 파괴되었다. 내부토는 적갈색과 암갈색, 황갈색의 사질점토로 채워져 있었다.

내부시설은 아궁이와 배연부 등이 확인되었다. 아궁이는 동남쪽 모서리 부근에서 확인되는데 대부분 파괴되고 할석 일부와 길이 85cm, 너비 53cm, 깊이 10cm내외의 얇은 수혈만 남아 있다. 아궁이의 수혈에서 소토가 노출되었다. 배연부는 동남쪽 벽면의 모서리에 길이 25cm로 시설되어 있는데 바닥에서 비스듬하게 밖으로 연결된다.

주거지의 북쪽 외곽에 지름 90cm내외의 부정형 수혈이 동-서 방향으로 2개 확인되었다. 수혈의 깊이는 1cm 정도이고 내부에서 할석이 노출되었다. 수혈간의 간격은 102cm이고, 동쪽 수혈이 서쪽 수혈보다 25cm 정도 높다. 주거지와와의 관련성은 파악할 수 없었다.

유물은 내부에서 백자접시와 저부편 지석이 출토되었다.

나. 遺物

① 분청사기 접시(도면 30-1, 사진 39-①)

3/4정도가 남아 있다. 태토는 회색이며 입자가 치밀하다. 유약은 굽을 제외한 전면에서 시유되었는데 외면은 군데군데 두텁게 흘러 내렸다. 내면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유약이 산화되었다. 구연의 외면 가장자리는 대부분 결실되었는데 의도적인 타결로 생각된다. 내면의 바닥에는 태토로 빚은 받침흔이 4군데 있고 굽의 접지면도 받침에 의해 4군데가 떨어져 나갔다. 높이 3.7cm, 구경 14.6cm, 저경 4.7cm

② 백자 접시(도면 30-2, 사진 39-②)

3/4정도가 남아 있으며 기형이 일그러졌다. 태토는 회색이며 입자가 치밀하다. 유약은 회색이며 굽과 동체하부를 제외한 전면에서 시유되었는데 군데군데 박리되고 빙열이 있다. 내면의 바닥에는 태토로 빚은 받침

흔이 4군데 있고 소성시 겹쳐진 다른 자기의 굽흔적이 둥글게 남아 있다. 굽의 접지면에도 받침흔이 4군데 있다. 높이 4.2 cm

③ 백자 저부(도면 30-3, 사진 39-③)

굽과 동하부 절반 정도가 남아 있다. 태토는 회백색이며 입자가 치밀하다. 유약은 회백색으로 굽과 동하부를 제외한 전면에 시유되었다. 내면의 바닥에는 태토로 빚은 받침흔이 2군데 남아 있고 굽의 접지면에는 받침에 의해 박락된 부분이 있다. 현재 높이 4.1cm

④ 백자 저부(도면 30-4, 사진 39-④)

굽과 동하부 일부가 남아 있다. 태토는 회백색이며 입자가 치밀하다. 유약은 회청색으로 굽과 동하부를 제외한 전면에 시유되었다. 내면의 바닥에는 태토로 빚은 받침흔이 5군데 남아 있고 굽의 접지면에도 받침에 의해 박락된 부분이 4군데 있다. 현재 높이 4.2cm

⑤ 지석(도면 30-5, 사진 39-⑦)

사암계 지석으로 일부분이 파손되었다. 단면은 부정형이고 윗면은 편평하게 한쪽 측면은 약간 볼록하게 마연되었다. 마연되지 않은 면은 쪼아서 다듬었다. 현재 길이 10.0×21.1cm, 두께 8.9cm, 무게 1570g

(16) 16號 住居址

가. 遺構(도면 29, 사진 37·38)

15호 주거지와 중복되어 위치하며, 구릉의 남쪽 사면(해발 42m)에 생토층을 굴착하여 조성한 수혈식의 구조이다. 평면 형태는 원형에 가깝다. 규모는 길이 315cm, 277cm, 최대 깊이 34cm이다.

유구는 15호 주거지의 남쪽을 파괴하고 축조하였다. 내부토는 적갈색 사질점토와 목탄과 굵은 석립이 포함된 암갈색의 사질점토로 채워져 있었으며, 크고 작은 할석이 내부에서 확인되었다. 경사면의 위쪽인 동남쪽에 길이 18cm의 배연부가 시설되어 있는데 바닥에서 비스듬하게 밖으로 연결된다. 아궁이 시설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으나 배연부의 앞쪽에 확인되는 길이 53cm, 너비 40cm의 수혈 내부에서 목탄이 포함된 사질토가 차 있고 주변으로 할석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곳이 아궁이일 가능성이 있다. 또 북벽에 접해서 확인된 길이 120cm, 너비 60cm의 수혈 내부에서도 다량의 목탄과 소토가 확인되었는데 이곳에서도 화기와 관련된 시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남벽에 접해서 지름 20cm, 깊이 10cm의 주혈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도기편과 기와, 철촉 등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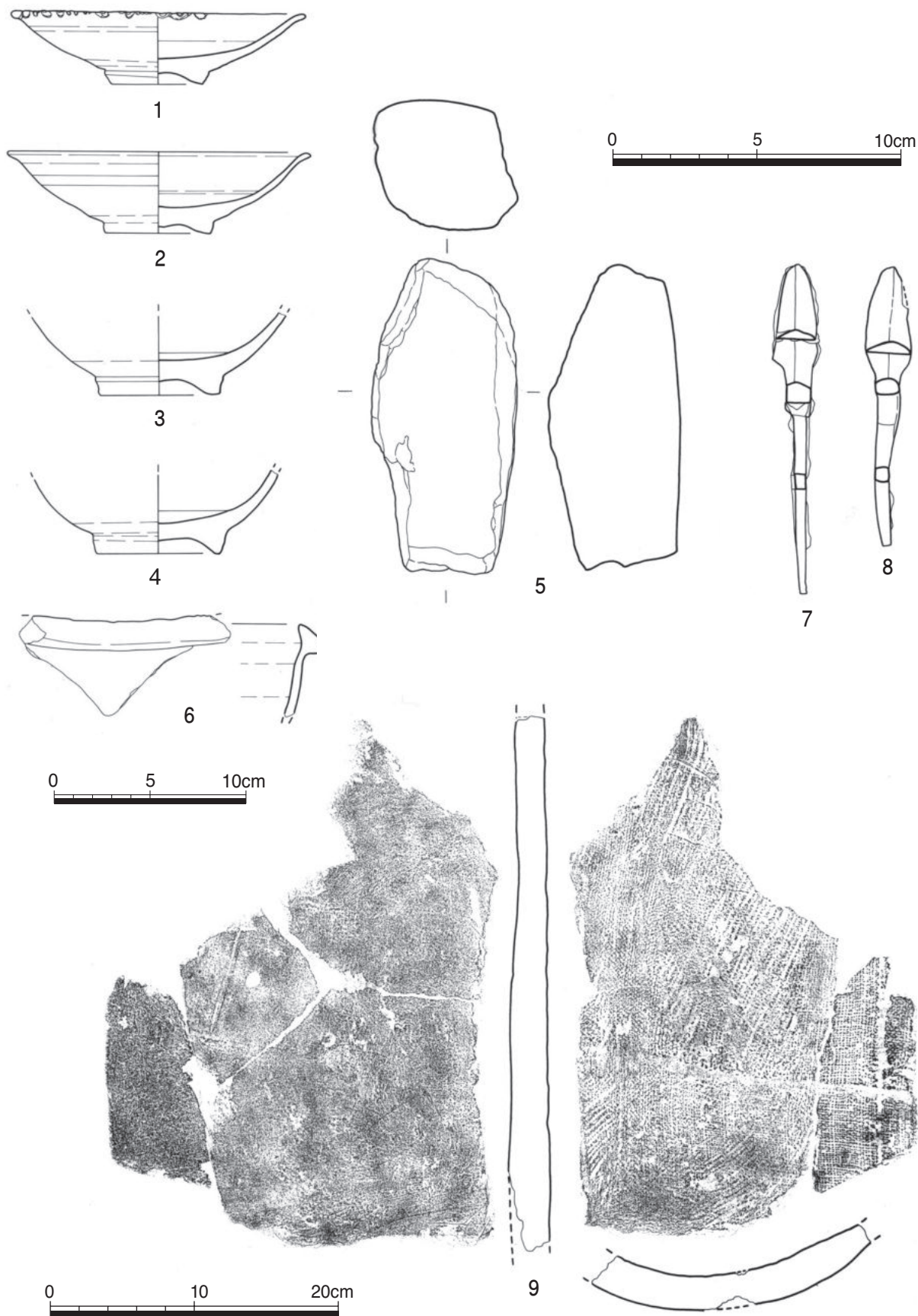
나. 遺物

① 구연부편(도면 30-6, 사진 39-⑤)

일부만 남아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이며 내외면은 회색, 속심은 적갈색이다. 연질이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현재 높이 4.8cm

② 암키와(도면 30-9, 사진 39-⑧)

무문의 회색 경질 암키와이다. 태토는 사질점토에 석립이 혼입되어 있으며, 등면은 물손질 처리되어 문양은 확인되지 않는다. 배면은 부분적으로 빗질정면되었으나 포목흔은 일부에서 관찰되고 있다. 포목은 비교적 성긴 편이며 1cm당 6×7의 올수를 보여주고 있다. 내면 상단부에는 포목을 묶었던 윤철흔이 확인된다. 와



도면 30. 15호주거지(1~5), 16호주거지(6~9) 출토유물

도흔은 멸실되어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내면에 잘못 그은 와도흔이 확인된다. 현재 길이 36cm, 현재 너비 23.5cm, 두께 2.7cm

③ 철촉(도면 30-7·8, 사진 39-⑥)

鍛造製로 수화가 심해 일부가 박리되었다. 身部는 柳葉形이며 경부는 2단경식으로 단부로 갈수록 좁아진다. 신부는 한쪽면에만 稜을 세우고 양측면에 날을 만들었다. 신부의 단면은 편평한 삼각형이고 경부의 단면은 방형이다. 길이 11.4cm · 9.65cm, 폭 0.45~0.75cm · 0.45cm~0.55cm, 무게 13g · 19g

(17) 17號 住居址

가. 遺構(도면 31, 사진 40~42-①~③)

16호 주거지에서 남쪽으로 1m 떨어진 구릉의 남쪽 사면(해발 42m)에 나란하게 위치하고 있다. 생토층을 굴착하여 조성한 수혈식의 구조이며, 평면 형태는 방형에 가까우나 주축 방향은 남-북 방향으로 등고선에 평행하다. 규모는 길이 292cm, 262cm, 최대 깊이 40cm이다.

내부는 명갈색과 암갈색의 사질점토로 채워져 있었는데 위층인 명갈색 사질점토층에서는 크고 작은 할석이 많이 노출되었다.

동벽의 중앙부에서는 지름 30cm 범위로 목탄이 소량 노출되었고, 바닥의 중앙부에는 지름 30cm, 깊이 35cm의 주혈이, 남벽과 북벽에서는 지름 20cm · 30cm, 깊이 22cm · 18cm의 주혈이 각각 확인되었다. 바닥은 중앙으로 갈수록 오목하게 경사진다.

북서벽의 모서리에는 밖으로 돌출된 길이 148cm, 너비 92cm의 부정형 수혈이 확인되는데 17호 주거지의 바닥면보다 약간 낮게 굴토되었으며 길이 25cm내외의 크고 작은 할석이 깔려 있었다. 할석 중 일부는 불에 그을린 흔적도 확인되었다. 남아 있는 상태로 보아 성격은 분명하지 않으나 17호 주거지와는 관련성이 없는 별도의 수혈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유물은 북벽의 주혈 주변에서 백자 접시와 도기편, 동남쪽에 노출된 할석에서 기와편이, 북서쪽 모서리의 수혈에서 지석이 출토되었다.

나. 遺物

① 백자 접시(도면 31-1, 사진 42-⑧)

1/5정도가 남아 있으며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회색이며 입자가 치밀하다. 전면에 암회색의 유약이 고르게 시유되었다. 굽의 안쪽 가장자리에 모래가 부착되어 있다. 높이 3.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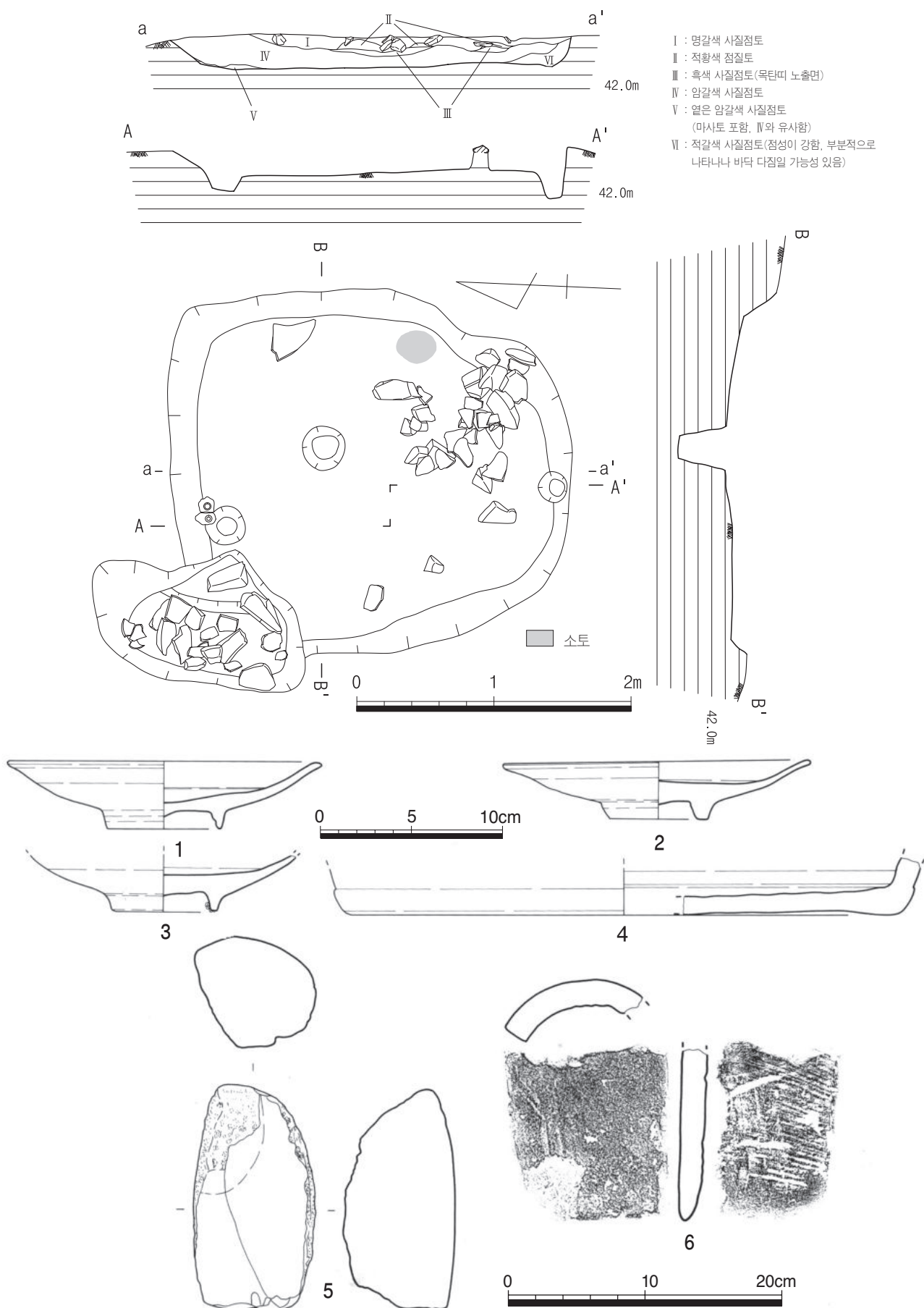
② 백자 접시(도면 31-2, 사진 42-⑦)

구연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회백색이며 입자가 매우 치밀하다. 전면에 청회색의 유약이 고르게 시유되었다. 굽의 접지면에 모래가 등글게 부착되어 있다. 높이 3.1cm

③ 백자 저부(도면 31-3, 사진 42-⑨)

구연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회색이며 입자가 치밀하다. 전면에 암회색의 유약이 고르게 시유되었으며 굽의 내외면에 빙열이 있다. 굽의 접지면에 모래가 등글게 부착되어 있다. 현재 높이 3.1cm

④ 저부편(도면 31-4, 사진 42-⑤)



도면 31. 17호주거지 유구 및 출토유물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이며 외면은 적황색 내면은 회청색이다. 경질이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기벽이 전반적으로 두텁다. 굽과 동체부의 경계부에는 접합시 점토로 보강한 후 무질서하게 정면한 흔적이 관찰된다. 현재 높이 3.1cm

⑤ 지석(도면 31-5, 사진 42-④)

북서쪽 모서리의 수혈 내부에 노출된 할석사이에서 출토되었다. 사암제이며 윗면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깝다. 단면은 부정형이며 사용면은 윗면인데 약한 능을 두고 곡면을 이룬다. 마연면은 정교하다. 마연되지 않은 면은 쪼으기로 다듬었다. 길이 8.9cm×16.3cm, 두께 8.0cm

⑥ 수키와(도면 31-6, 사진 42-⑥)

무문의 회황색 경질 수키와이다. 태토는 정선된 사질점토에 석립이 소량 혼입되어 있다. 등면은 물손질 정면되었으며 배면은 빗질 정면되어 포목흔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와도흔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그었으며 거의 전면에 가까운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길이 12cm, 현재 너비 10.4cm, 두께 1.8cm

(18) 18號 住居址

가. 遺構(도면 32, 사진 43·44)

13호 주거지에서 남쪽으로 5.7m 떨어져 위치하며, 19호 주거지 및 3호 묘와 중복되었다. 구릉의 남쪽 사면(해발 39m)에 생토층을 굴착하여 조성한 수혈식의 구조이다. 19호 주거지와 3호 묘의 조성으로 유구의 대부분이 파괴되었다. 평면형태는 남아 있는 상태로 보아 장방형으로 추정되며, 주축 방향은 동-서 방향으로 등고선에 직교한다. 규모는 길이 256cm, 155cm, 최대 깊이 40cm이다.

남장벽에서 동단벽쪽으로 치우쳐서 길이 25cm의 배연부가 시설되었고 배연부의 앞쪽으로 남아 있는 할석으로 보아 아궁이 시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19) 19號 住居址

가. 遺構(도면 32, 사진 43·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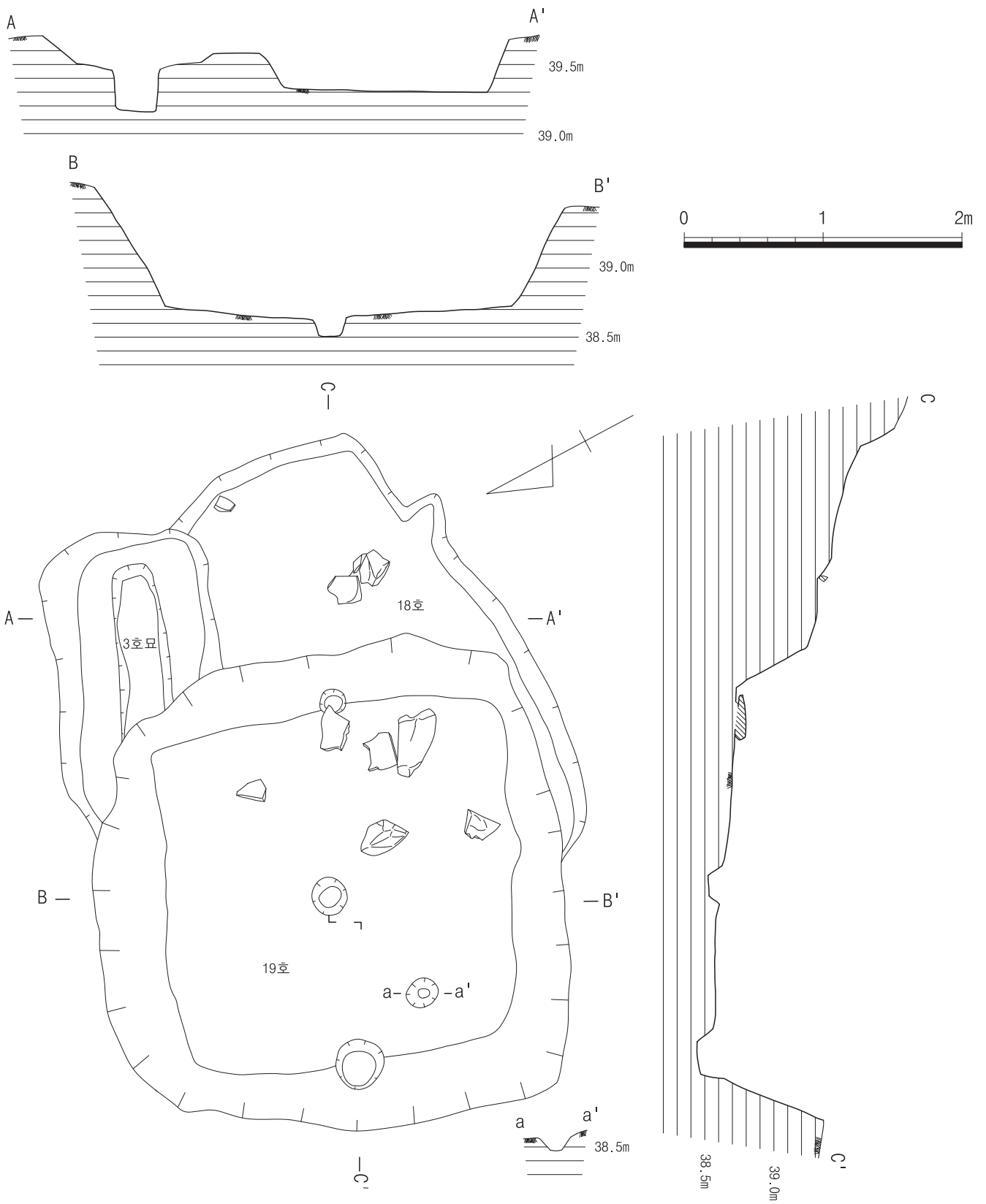
18호 주거지와 3호 묘를 대부분 파괴하고 설치되었다. 구릉의 남쪽 사면(해발 39m)에 생토층을 굴착하여 조성한 수혈식의 구조이며, 평면 형태는 방형이다. 규모는 길이 345cm, 너비 340cm, 최대 깊이 73cm이다.

바닥에서 동서방향으로 동벽아래, 중앙부, 서벽아래로 직선상의 배치를 보이는 주혈이 확인되었다. 주혈의 규모는 동벽아래부터 순서대로 지름 18cm·깊이 8cm, 지름 27cm·깊이 10cm, 지름 35cm·깊이 16cm이다. 그 외 남서쪽 모서리 부근에서 지름 22cm, 깊이 12cm의 주혈 1개가 더 확인되었다. 바닥은 중앙부로 갈수록 오목하게 경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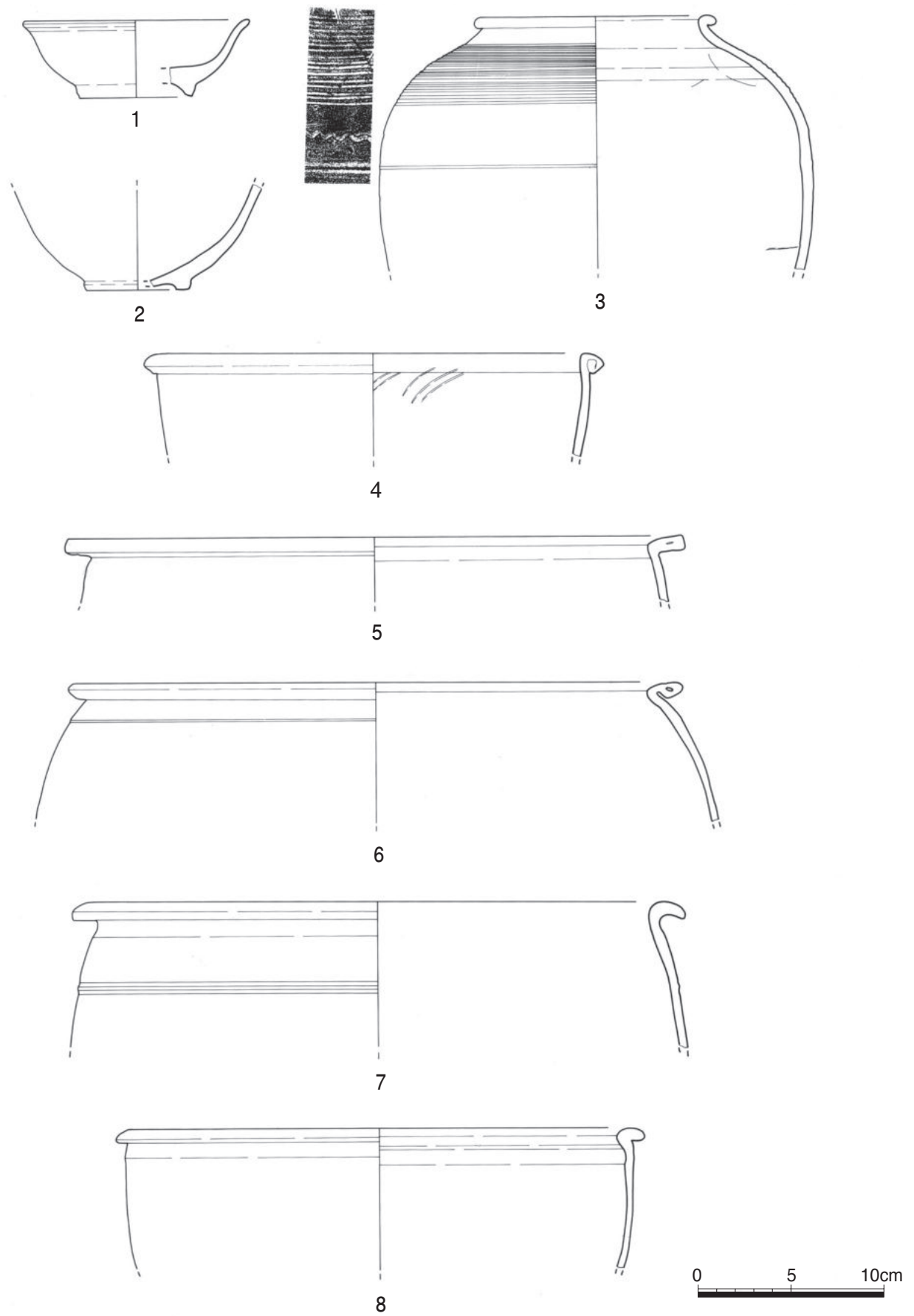
유물은 백자잔과 도기 호, 구연부편이 출토되었다.

나. 遺物

① 백자 잔(도면 33-1, 사진 45-④)



도면 32. 18호주거지, 19호주거지 유구



도면 33. 19호주거지 출토유물

1/5정도만 남아 있다. 태토는 회색이며 입자가 치밀하다. 유약은 회색으로 굽을 제외한 전면에 시유되었으며 빙열이 있다. 높이 4.15cm

② 청자 대접(도면 33-2, 사진 45-①)

저부와 동체부 일부가 남아 있다. 태토는 흑회색이며 입자가 매우 치밀하다. 전면에 암록색의 유약이 시유되었는데 빙열이 심하게 나타난다. 외면의 동하부는 소성시의 받침 때문에 기면의 2군데가 박락되었고, 내면에는 태토로 빚은 받침흔이 2군데 확인된다. 현재 높이 5.6cm

③ 호편(도면 33-3, 사진 45-②)

구연부와 동체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세석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며 내외면은 흑회색, 속심은 적갈색이다. 경질이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구연부와 경부에는 자연유가 부착되어 산화되었다. 경부에는 침선문이 돌려지고 동체부에는 한줄의 파상문이 시문되었다. 내면에는 회전물질흔이 관찰된다. 현재 높이 13.55cm

④ 구연부편(도면 33-4, 사진 45-⑧)

구연부와 동체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세석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며 내외면은 회색, 속심은 회백색이다. 연질이며 소성상태는 보통이다. 구연부는 동체부에서 밖으로 꺾은 뒤 다시 두 번을 더 꺾어 말아 붙여 만들었다. 내면에는 내박자흔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현재 높이 5.5cm

⑤ 구연부편(도면 33-5, 사진 45-⑦)

구연부와 동체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세석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며 내외면은 흑회색, 속심은 적갈색이다. 연질이며 소성상태는 보통이다. 구연부는 동체부에서 판을 밖으로 꺾은 뒤 다시 한번 꺾어 전의 형태로 만들어 붙였다. 내외면의 박락이 심하다. 현재 높이 3.6cm

⑥ 구연부편(도면 33-6, 사진 45-③)

구연부와 동체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세석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며 내외면, 단면 모두 회흑색이다. 연질이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구연부는 동체부에서 밖으로 꺾은 뒤 다시 한번 꺾어 말아 붙였다. 외면에는 횡방향 평향타날흔이 남아 있고, 내면에는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현재 높이 7.4cm

⑦ 구연부편(도면 33-7, 사진 45-⑤)

구연부와 동체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세석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며 내외면은 회색, 속심은 회백색이다. 연질이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구연부는 동체부에서 밖으로 꺾은 뒤 다시 한번 꺾어 말아 붙였다. 내외면에는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현재 높이 7.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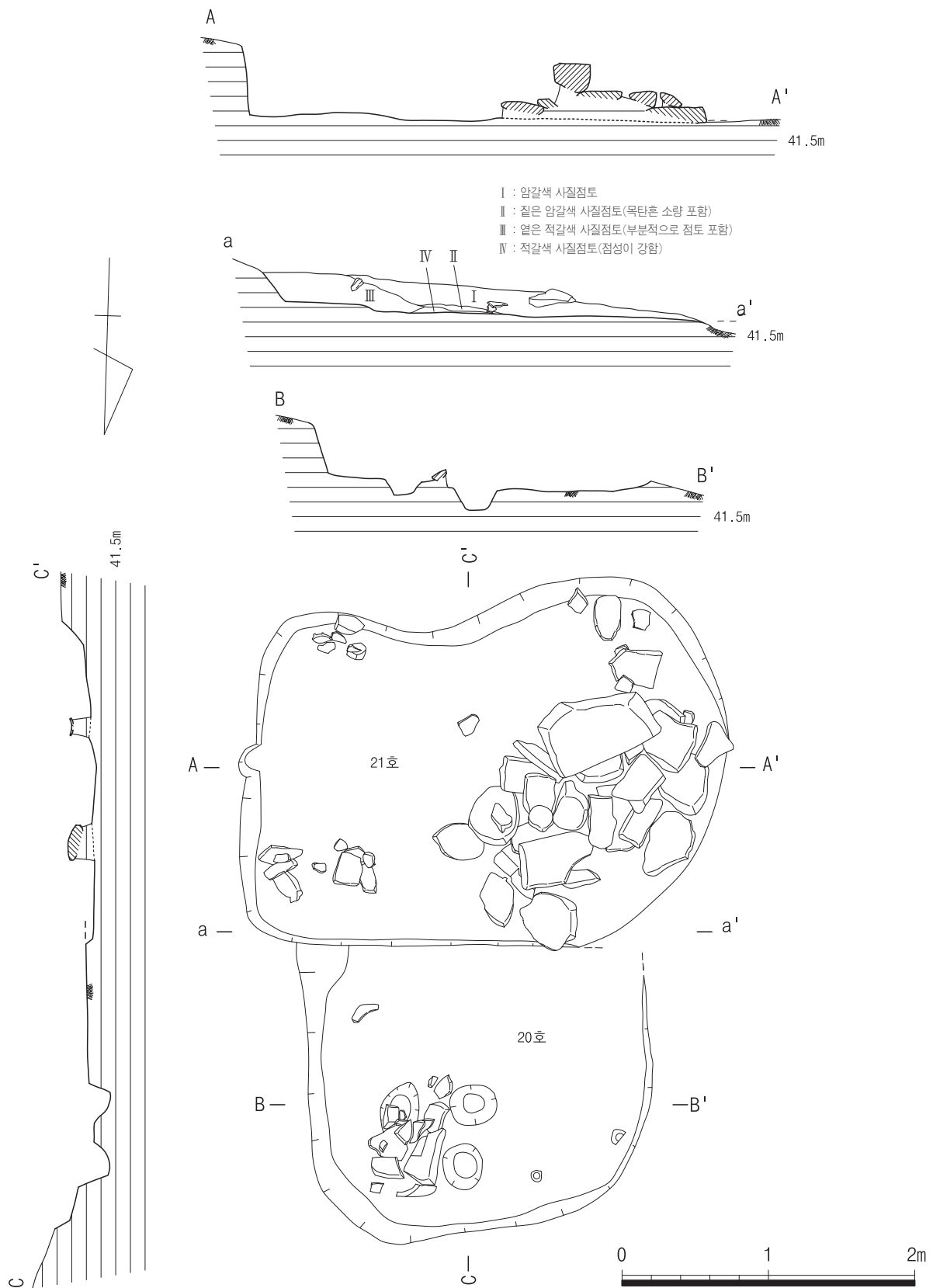
⑧ 구연부편(도면 33-8, 사진 45-⑥)

구연부와 동체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세석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며 내외면, 단면 모두 회청색이다. 연질이며 소성상태는 보통이다. 구연부는 동체부에서 밖으로 꺾은 뒤 다시 한번 꺾어 말아 붙였다. 외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고 내면에는 와문의 내박자흔이 관찰된다. 현재 높이 7.4cm

(20) 20號 住居址

가. 遺構(도면 34, 사진 46·47)

17호 주거지에서 남서쪽으로 2.4m 떨어진 구릉의 남쪽사면 하단의 완만한 경사면(해발 41m)에 위치하



도면 34. 20호주거지, 21호주거지 유구

며 21호 주거지와 중복되었다. 생토층을 굴착하여 조성한 수혈식의 구조이다. 평면 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되며 주축 방향은 남-북 방향으로 등고선에 평행한다. 규모는 남아 있는 길이 233cm, 너비 192cm, 최대 깊이 49cm이다.

유구는 남쪽의 대부분이 21호 주거지에 의해 파괴되고 경사면의 아래쪽인 서쪽은 일부가 유실되었다. 내부는 암갈색 사질점토와 적갈색 사질점토로 채워져 있었다. 후대의 파괴와 자연 유실로 내부 구조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다만 북동쪽 모서리에서 할석이 노출되고 지름 30cm내외, 깊이 18~25cm내외의 주혈이 삼각상으로 확인되었다. 바닥면이 고르지 못하다.

유물은 바닥과 할석 주위에서 백자 접시와 잔, 도기 저부편, 기와가 출토되었다.

나. 遺物

① 백자 접시(도면 35-1, 사진 48-①)

구연부가 일부 결실되었다. 태토는 회색이며 입자가 매우 치밀하다. 굽을 제외한 전면에 회색의 유약이 시유되었는데 굽부분에는 일부가 묻쳐져 있고 내면 바닥에는 녹색으로 남아 있다. 굽의 접지면은 받침으로 인해 4군데가 박락되었다. 높이 4.0cm

② 백자 잔(도면 35-2, 사진 48-②)

구연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백색이며 입자가 매우 치밀하다. 굽을 제외한 전면에 푸른 빛이 도는 유약이 시유되었는데 굽부분에는 일부가 묻쳐져 있고 병열이 있다. 굽의 접지면은 받침으로 인해 4군데가 박락되었다. 현재 높이 3.2cm

③ 백자 저부(도면 35-3, 사진 48-③)

일부 결실되었다. 태토는 백색이며 입자가 매우 치밀하다. 전면에 푸른 빛이 도는 회색의 유약이 고르게 시유되었다. 굽에는 모래가 둥글게 부착되어 있다. 현재 높이 2.4cm

④ 저부편(도면 35-4, 사진 48-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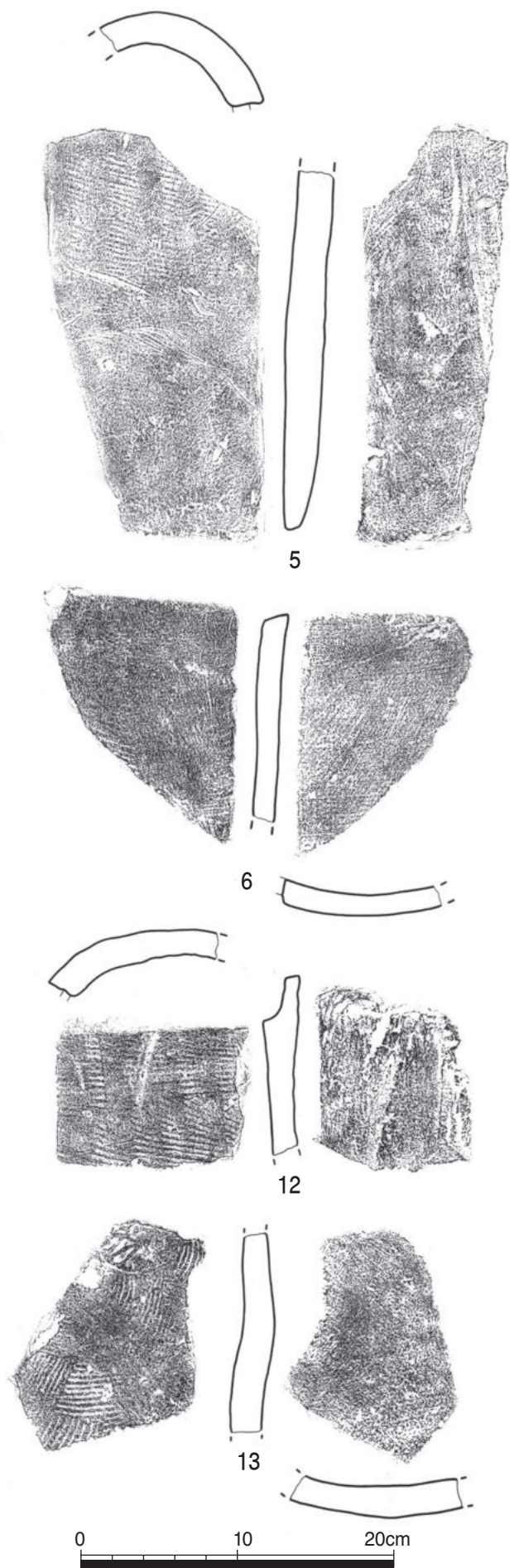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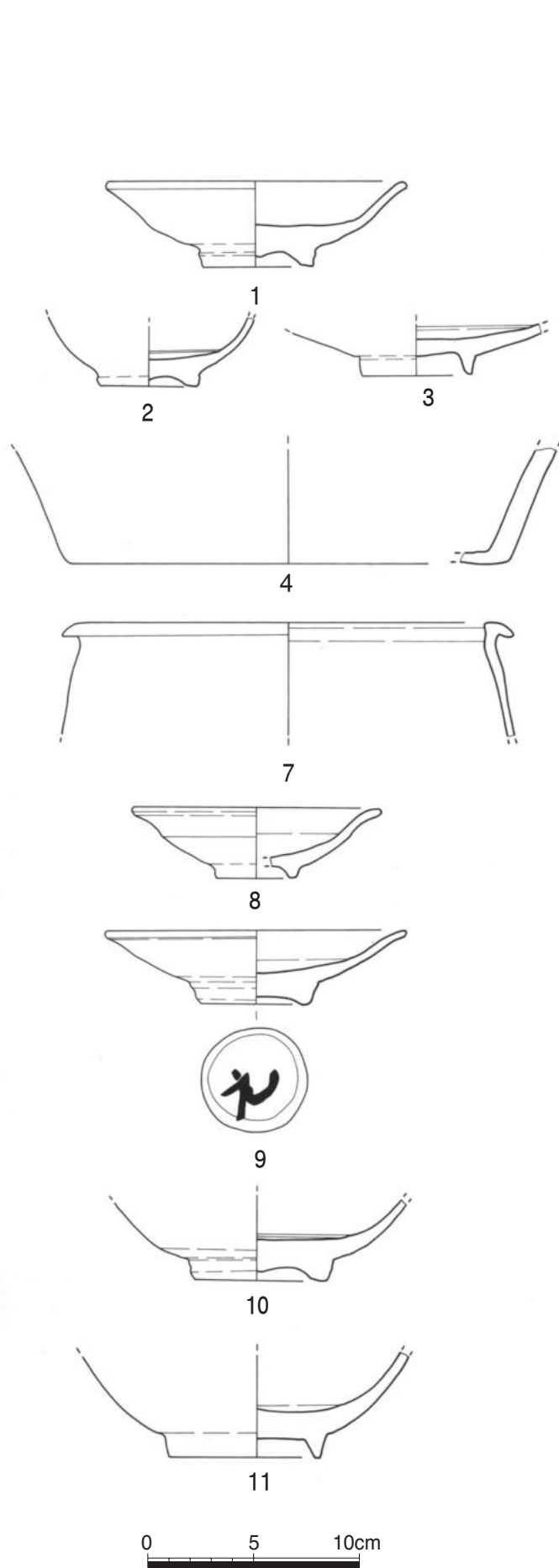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이며 내외면, 단면 모두 회청색이다. 연질이며 소성 상태는 보통이다. 평저이며 기벽이 저부보다 두텁다. 내외면에는 굽과 동체부의 접합시 점토로 보강한 후 무질서하게 정면한 흔적이 관찰된다. 현재 높이 5.35cm

⑤ 수키와(도면 35-5, 사진 48-⑥)

선문의 흑회색 경질 수키와이다. 태토는 정선된 사질점토에 석립이 부분적으로 혼입되었다. 등·배면은 물손질 처리되어 문양이 희미하다. 분할면은 단면의 대부분을 내면에서 외면으로 와도로 분할하였으며 분할 당시 와도에 의해 형성된 석립으로 인한 침선이 단면에 나타나고 있다. 현재 길이 26cm, 현재 너비 11.5cm, 두께 2cm

⑥ 암키와(도면 35-6, 사진 48-⑤)

사선문 회색의 경질 암키와편이다. 태토는 정선된 사질점토에 세사립이 소량 혼입되어 있다. 등면은 사선문이 희미하게 남아 있으며 배면은 조밀한 포목흔이 관찰되나 빗질정면되어 정확한 올수는 확인되지 않는다. 와도흔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절단하였으며 와도의 폭은 불규칙하나 대체로 2mm가량으로 판단된다. 현재 길이 15.5cm, 현재 너비 10.5cm, 두께 1.5cm



도면 35. 20호주거지(1~6), 21호주거지(7~13) 출토유물

(21) 21號 住居址

가. 遺構(도면 34, 사진 46·47)

20호 주거지와 연결해서 위치하며, 구릉의 남쪽 사면(해발 41m)에 생토층을 굴착하여 조성한 수혈식의 구조이다. 경사면의 아래쪽인 서쪽이 유실되었으나 평면 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되며 주축 방향은 20호 주거지와 달리 동-서 방향으로 등고선에 직교한다. 규모는 남아 있는 길이 310cm, 너비 250cm, 최대 깊이 43cm이다. 내부노출 결과 경사면의 위쪽인 동쪽이 깊게 남아 있으며, 내부는 암갈색 사질점토와 적갈색 사질점토로 채워져 있었다.

유구의 북동쪽 모서리에서 가로 2m, 세로 1.3m의 범위에 걸쳐 길이 30~50cm 내외의 판상 할석이 열을 지워 깔려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석열 주변에서 수혈선을 비롯한 시설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고 석열 아래에서 바로 풍화암반토가 노출되었다. 따라서 21호 주거지와 관련된 것인지 또는 중복된 다른 시설인지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으나 실제 시설물로 사용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렇지만 주변의 다른 주거지에서 보이는 아궁이 시설이나 고래 시설에 사용된 석재와 유사하므로 21호 주거지 내부에 다른 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 마련한 용도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유물은 남쪽 장벽 가까이에서 분청사기, 백자편, 기와가 출토되었다.

나. 遺物

① 접시(도면 35-8, 사진 49-①)

1/4정도가 남아 있는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태토의 색은 회색이며 입자가 매우 치밀하다. 유약은 내면과 외면의 1/3정도에만 시유되었는데 일부는 두텁게 흘러 내렸다. 내면에는 태토로 빚은 받침흔이 2군데 남아 있고 굽의 접지면 2군데는 탈락되어 있다. 높이 3.3cm

② 접시(도면 35-9, 사진 49-②)

구연부의 3/4정도가 결실되었다. 태토의 색은 회색이며 입자가 매우 치밀하다. 유약은 굽과 동하부 일부를 제외한 전면에 시유되었는데 청회색에 가깝다. 내면 바닥에는 태토로 빚은 받침이 1군데 부착되어 있고 2군데는 오목하게 탈락되었다. 굽은 접지면의 폭이 일정하지 않고 4군데가 탈락되었다. 굽의 내면에는 ‘元’가 묵서되어 있다. 높이 3.5cm, 굽경 5.0cm

③ 대접(도면 35-10, 사진 49-③)

구연부가 결실되었다. 태토의 색은 회색이며 입자가 매우 치밀하다. 유약은 굽을 제외한 전면에 시유되었는데 청회색에 가깝다. 내면 바닥에는 태토로 빚은 받침흔적이 4군데 남아 있고, 굽의 접지면은 4군데가 탈락되었다. 현재 높이 4.15cm, 굽경 6.15cm

④ 백자 저부(도면 35-11, 사진 49-④)

저부의 1/2정도가 결실되었다. 태토의 색은 백색이며 유약은 전면에 고르게 시유되었다. 현재 높이 5.1cm

⑤ 구연부(도면 35-7, 사진 49-⑤)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세석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며 기면은 회흑색이나 내외면의 마모가 심하여 황갈색을 보인다. 연질이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현재 높이 5.35cm

⑥ 수키와(도면 35-12, 사진 49-⑥)

평행선문의 흑회색 경질 수기와이다. 태토는 사질점토에 석립이 다수 혼입되어 있으며 등면에 물손질정면이 일부 이루어져 문양이 명확하지 않다. 배면은 물손질되어 포흔은 전혀 관찰되지 않는다. 언강부분은 중앙부가 휘어진 것으로 미루어 소성당시 뒤틀린 것으로 추정되며 분할면에서 확인되는 와도흔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그었으며 두께는 9mm가량으로 단면의 약 1/2가량을 차지한다. 현재 길이 11.3cm, 언강길이 2.6cm, 현재 너비 11.5cm, 두께 1.9cm

⑦ 암키와(도면 35-13, 사진 49-⑦)

사선복합문의 적갈색 경질 암키와편이다. 태토는 정선된 사질점토에 석립이 소량 혼입되어 있다. 등면은 정면되어 문양이 희미하나 원형의 화문 혹은 차륜문이 포함된 사선복합문으로 추정되며 배면은 물손질처리되어 포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와도흔은 멸실되어 확인하기 어렵다. 현재 길이 12.7cm, 현재 너비 11cm, 두께 1.7cm

(22) 22號 住居址

가. 遺構(도면 36, 사진 50)

21호 주거지에서 남쪽으로 1m 떨어져 위치하며, 구릉의 남쪽 사면(해발 41m)에 설치되어 있다. 생토층을 굴착하여 조성한 수혈식의 구조이다. 평면 형태는 방형에 가까운 부정형이다. 규모는 길이 324cm, 너비 290cm, 최대 깊이 40cm이다.

유구는 경사면의 위쪽 동쪽이 깊게 남아 있는데 내부토는 굵은 사립과 소토를 포함한 적갈색의 사질점토와 석립이 포함된 암갈색 사질점토로 채워져 있었다. 경사면의 위쪽인 북동쪽 벽에 접해서 길이 40cm의 배연부가 시설되어 있다. 아궁이의 시설은 남아 있지 않았고 배연부의 앞쪽 주거지 바닥에서 목탄이 포함된 소결부위가 확인되는 것으로 그 존재를 추정할 수 있겠다. 주거지의 내부와 외부에서 지름 20cm · 35cm, 깊이 8cm · 20cm 주혈이 각각 1개씩 확인되었다.

유물은 백자병, 대접편, 저부, 도기 구연부편과 동체부편이 출토되었다.

나. 遺物

① 백자 병(도면 36-3, 사진 51-①)

경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회색이며 입자가 치밀하다. 굽의 접지면을 제외한 외면에 유약이 시유되었다. 내면의 남아 있는 경부에는 유약이 확인되나 동체부에는 시유되지 않았다. 동최대경은 아래쪽에 있고 굽은 내경한다. 동하부에는 받침의 흔적이 4군데 있다. 현재 높이 12.15cm, 굽경 6.7cm, 동최대경 11.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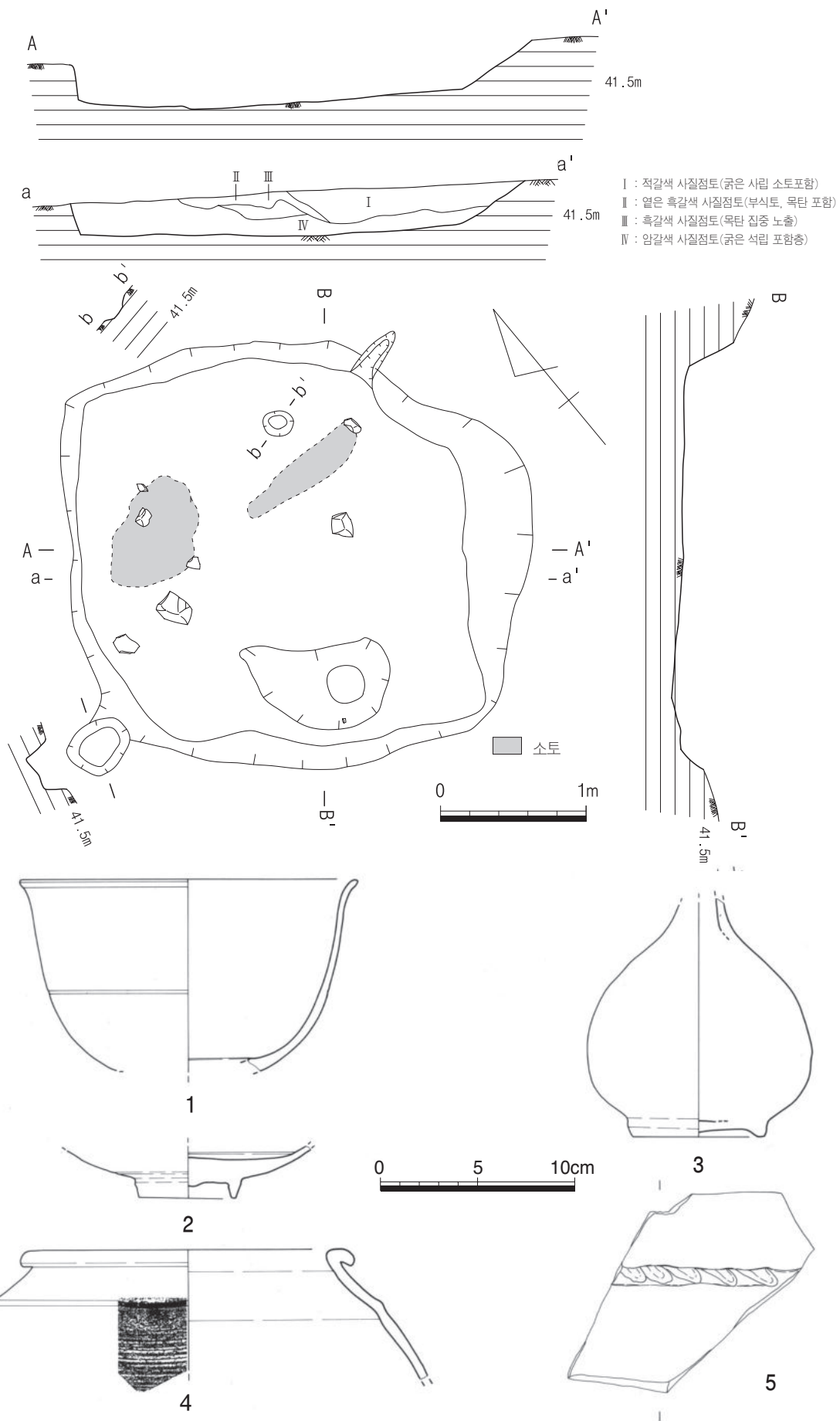
② 대접(도면 36-1, 사진 51-③)

동체부 1/5정도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의 색은 백색이며 입자는 치밀하다. 내외면에 명회청색의 유약이 고르게 시유되었다. 동중위에 한줄의 침선이 돌아간다. 현재 높이 5.41cm

③ 백자 저부(도면 36-2, 사진 51-②)

저부와 바닥만 남아 있다. 태토는 회색이며 입자가 치밀하다. 전면에 회색 유약이 시유되었다. 굽에는 받침에 의해 탈락된 곳이 4군데 있다. 현재 높이 2.25cm

④ 구연부편(도면 36-4, 사진 51-④)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고, 내외면은 회흑색, 속심은 암자색이다. 경질이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외면에는 여러 줄의 침선이 돌려져 있고 전면에 자연유가 부착 산화되고 일부는 박리되었다. 내면에는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뚜렷하다. 현재 높이 6.6cm

⑤ 동체부편(도면 36-5, 사진 51-⑤)

태토는 세사립이 다수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며 외면은 회흑색, 내면과 속심은 황갈색이다. 외면에는 평행 타날흔이 관찰되고 점토띠를 붙인 돌대가 한줄 돌려져 있으며 돌대는 각목처럼 눌러져 있다. 현재 높이 9.15cm

(23) 23號 住居址

가. 遺構(도면 37, 사진 52·53-①~③)

22호 주거지에서 남서쪽으로 5.5m 떨어져 위치하며, 구릉의 남쪽 사면(해발 40m)에 설치되어 있다. 생토층을 굴착하여 조성한 수혈식의 구조이다. 평면 형태는 경사면의 아래쪽이 유실되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으나 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추정된다. 규모는 남아 있는 길이 240cm, 너비 220cm, 최대 깊이 35cm이다.

유구는 경사면의 위쪽인 동쪽이 깊게 남아 있는데 내부에는 적갈색의 사질점토와 목탄이 포함된 흑갈색 사질점토로 채워져 있었다.

경사면의 위쪽인 동쪽 모서리 벽에 접해서 밖으로 돌출된 배연부가 시설되어 있다. 배연부는 길이가 49cm이고 주거지 바닥에서 비스듬히 경사지게 만들었다. 아궁이의 시설은 남아 있지 않았고 배연부의 앞쪽 주거지 바닥에서 길이 55cm, 너비 30cm, 깊이 10cm의 수혈이 확인되는 것으로 그 존재를 추정할 수 있겠다. 내부 중앙부에서 할석이 다량 노출되었고 노출된 할석 범위에 목탄이 집중되어 있었다.

유물은 동이편과 도기편과 백자편이 출토되었다.

나. 遺物

① 동이(도면 37-1, 사진 53-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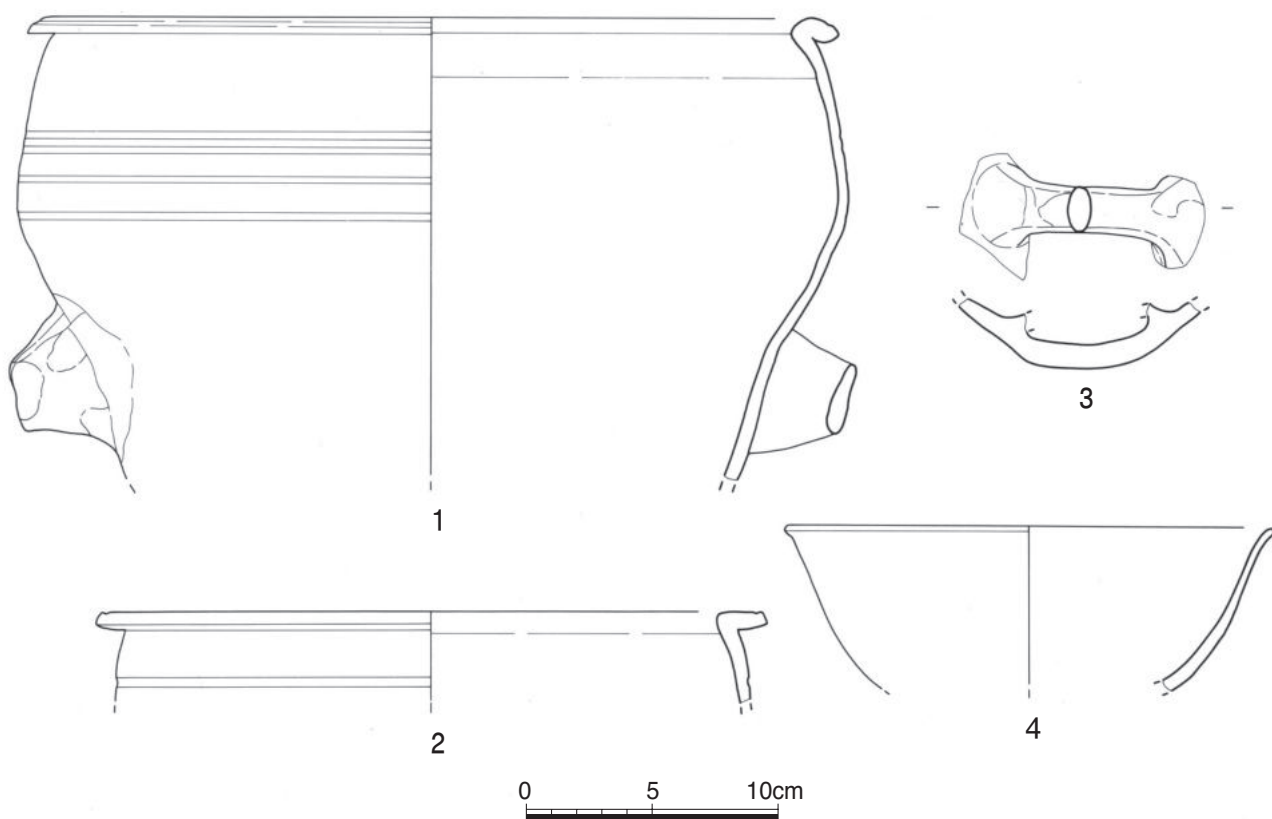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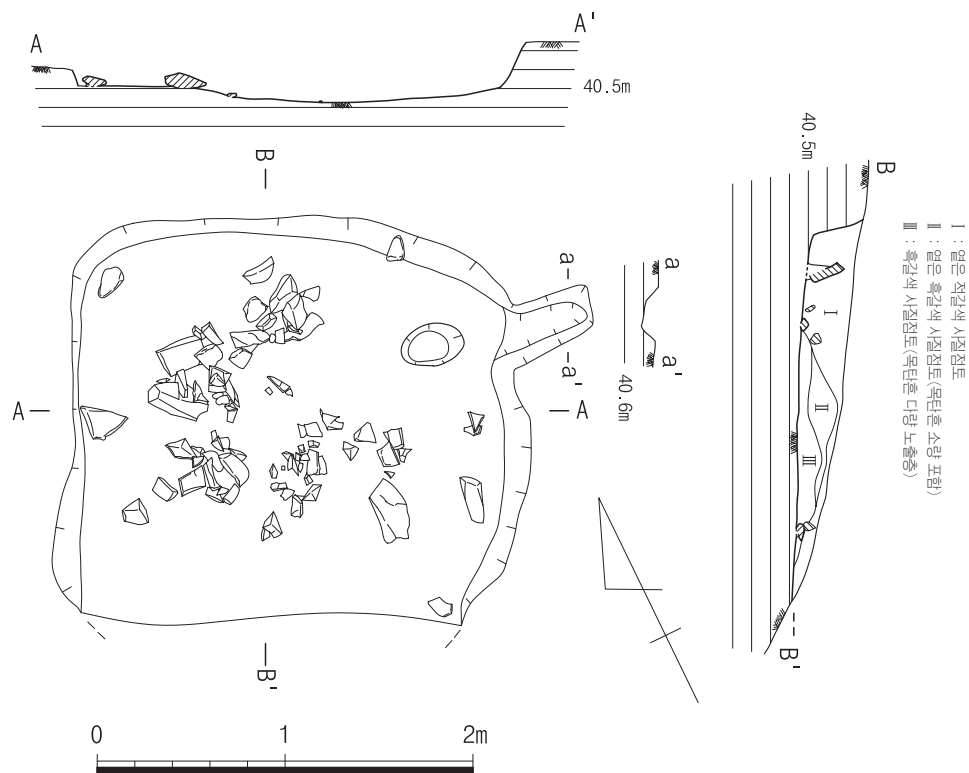
저부가 결실되고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며 내외면은 회청색, 속심은 회색이다. 연질이며 소성상태는 보통이다. 동체부에는 침선문이 돌려져 있고, 너비 11.4cm, 두께 0.85cm의 판상파수가 부착되었다. 파수가 부착된 부분은 파수의 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면이 안쪽으로 눌러져 있고 접합면의 외면에는 무질서한 물손질흔이 있다. 내면은 손으로 눌러서 오목하다. 현재 높이 18.2cm

② 구연부편(도면 37-2, 사진 53-⑦)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며 내외면 모두 회색이다. 연질이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구연부는 밖으로 꺾여 전을 형성하고 있고 단부에는凹면이 있다. 내면에는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현재 높이 3.6cm

③ 파수(도면 37-3, 사진 53-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며 내외면 모두 회색이다. 연질이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동체부에 접합되는 면의 안쪽은 손으로 눌러 오목하다. 길이 9.5cm, 두께 0.95cm



도면 37. 23호주거지 유구 및 출토유물

④ 백자 대접(도면 37-4, 사진 53-④)

동체부 1/5정도만 남아 있다. 태토는 회색이며 입자가 치밀하다. 내외면에 회색 유약이 고르게 시유되었다. 현재 높이 6.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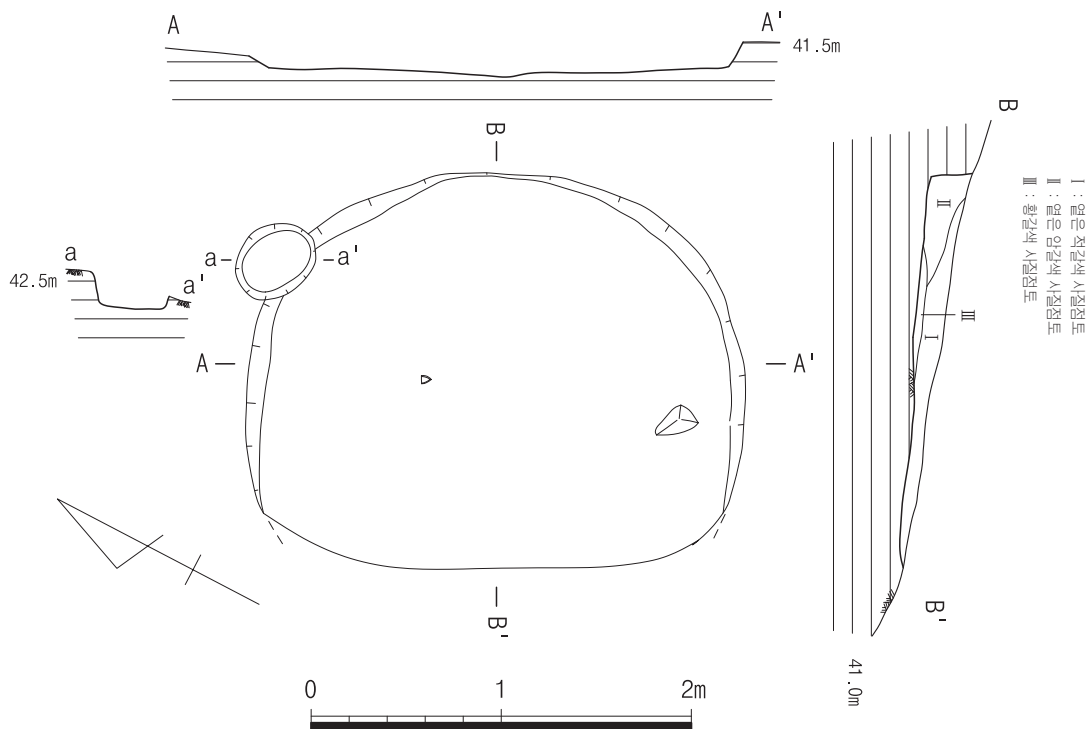
(24) 24號 住居址

가. 遺構(도면 38, 사진 54)

22호 주거지에서 남서쪽으로 3m 떨어져 위치하며, 구릉의 남쪽 사면(해발 41m)에 설치되어 있다. 생토 층을 굴착하여 조성한 수혈식의 구조이다. 경사면의 아래쪽인 남서쪽이 유실되었으나 평면 형태는 원형으로 추정된다. 규모는 남아 있는 길이 230cm, 너비 265cm, 최대 깊이 28cm이다.

유구는 경사면의 위쪽인 동쪽이 깊게 남아 있는데 내부토는 적갈색의 사질점토와 암갈색 사질점토로 채워져 있었다. 유실로 인하여 남아 있는 깊이가 25cm정도 밖에 되지 않아 뚜렷한 시설은 확인할 수 없었고, 북쪽 벽에서 지름 40cm, 깊이 15cm 정도의 원형 주혈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도면 38. 24호주거지 유구

(25) 25號 住居址

가. 遺構(도면 39, 사진 55-①~③)

24호 주거지에서 30cm의 간격을 두고 경사면 아래에 위치하며, 구릉의 남쪽 사면(해발 40m)에 설치되어

있다. 생토층을 굴착하여 조성한 수혈식의 구조이다. 경사면의 아래쪽이 대부분 유실되어 평면 형태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남아 있는 상태로 보아 방형 또는 원형일 것으로 추정된다. 규모는 남아 있는 길이 325cm, 너비 195cm, 최대 깊이 65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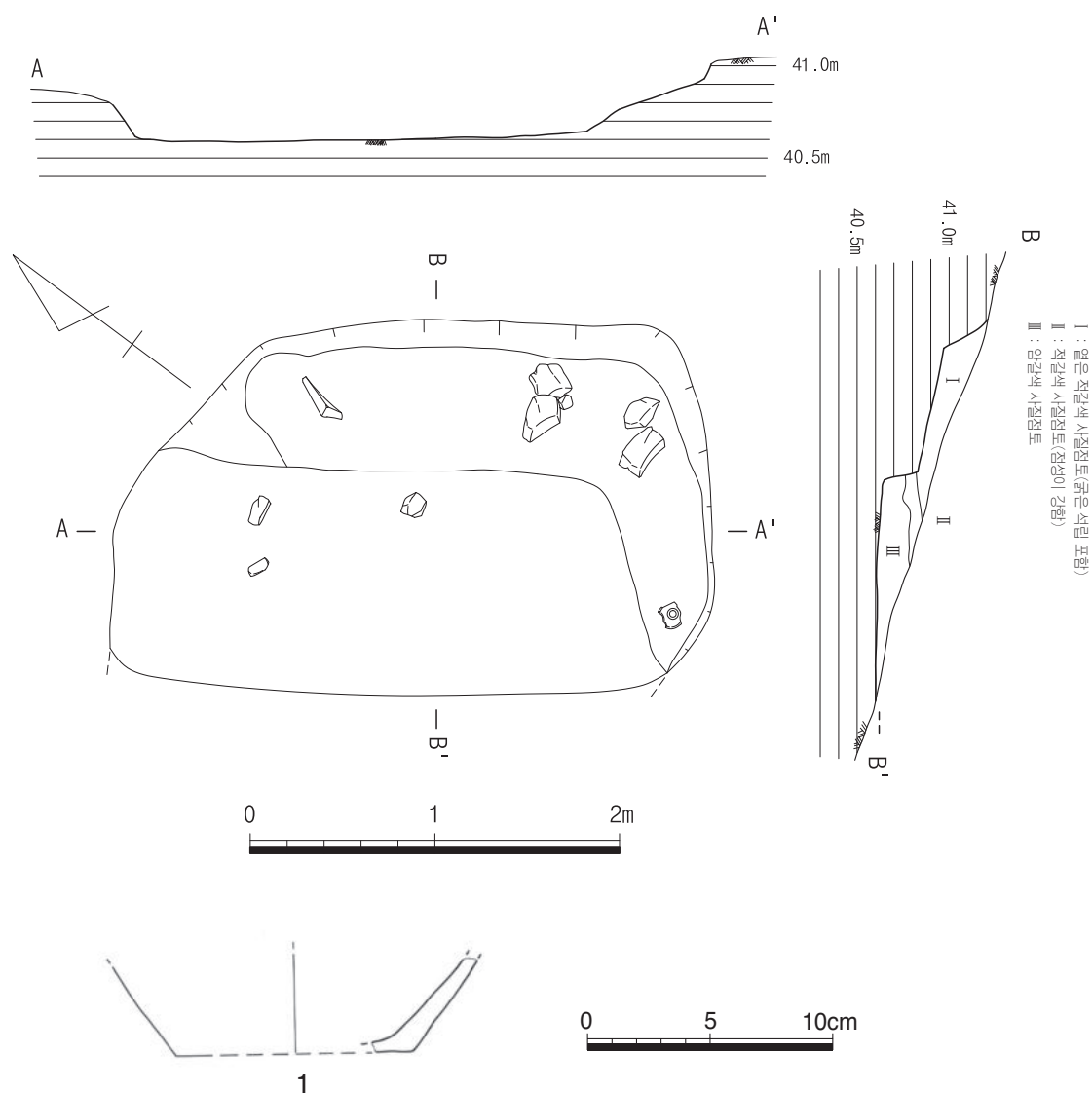
유구는 경사면의 위쪽인 동쪽이 깊게 남아 있는데, 내부토는 굵은 사립을 포함한 적갈색의 사질점토와 암갈색 사질점토로 덮혀 있었다. 바닥은 2단으로 확인되었는데 상단과 하단의 레벨 차이는 20정도이다. 상단 부에서 길이 20cm정도의 할석이 노출되었다. 경사면 아래로 유실이 심하여 내부구조는 파악할 수 없었다.

유물은 내부에서 도기 저부편이 수습되었다.

나. 遺物

① 저부편(도면 39-1, 사진 55-④)

일부만 남아 있다.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며 내외면은 회색, 속심은 흑회색이다. 바



도면 39. 25호주거지 유구 및 출토유물

다익 기벽보다 얇고 기면의 마모가 심하다. 현재 높이 3.75cm

(26) 26號 住居址

가. 遺構(도면 40, 사진 56-①~③)

19호 주거지에서 서쪽으로 11.8m 떨어져 위치하며, 구릉의 남쪽 사면(해발 38m)에 설치되어 있다. 생토층을 굴착하여 조성한 수혈식의 구조이다. 평면 형태는 서벽이 정연하지 않지만 장방형에 가깝다. 규모는 길이 320cm, 너비 306cm, 최대 깊이 38cm이다.

유구는 경사면의 위쪽 동쪽에 깊게 남아 있는데 내부에는 석립이 다량 포함된 암갈색의 사질점토와 적갈색 사질점토로 채워져 있었다. 남쪽 벽의 일부는 교란에 의해 파괴되었다. 바닥면은 중앙부로 갈수록 오목해진다. 내부에서 지름 25cm, 깊이 23cm의 주혈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분청사기편과 도기편, 기와편이 출토되었다.

나. 遺物

① 분청사기 저부(도면 40-1, 사진 56-④)

태토는 암갈색이며 입자가 치밀하다. 굽에는 유약이 시유되지 않았다. 내면의 바닥에는 나선형으로 백토상감이 되어 있다. 현재 높이 2.45cm

② 도기 저부(도면 40-2, 사진 56-⑤)

일부만 남아 있다.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며 내외면은 모두 회청색이다. 바닥이 기벽보다 얇고 기면의 마모가 심하다. 동체 하부에는 바닥과 접합후 깎기정면한 흔적이 관찰된다. 현재 높이 3.3cm

③ 암키와(도면 40-3, 사진 56-⑥)

무문의 황갈색 경질 암키와 편이다. 태토는 정선된 사질점토이며 등면과 배면이 물손질처리되었으나 배면은 빗질정면흔이 일부 관찰된다. 와도는 내면에서 외면으로 그었으며 단면의 약 1/5가량인 5mm의 와도면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길이 12cm, 현재 너비 13.5cm, 두께 2.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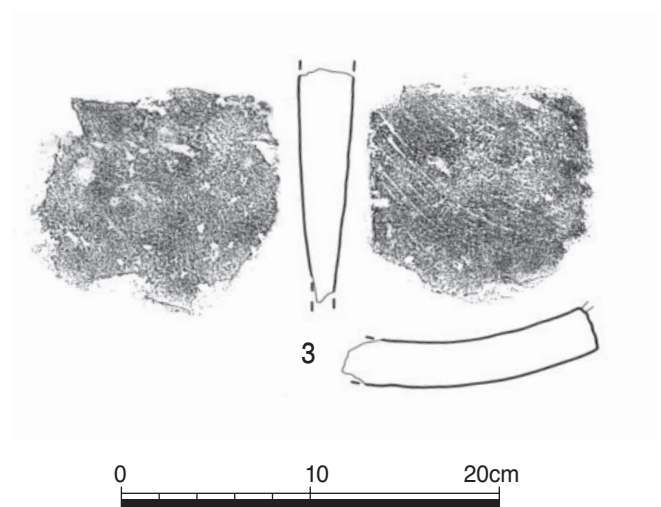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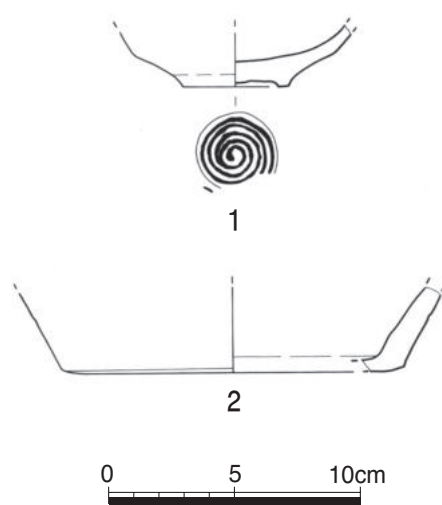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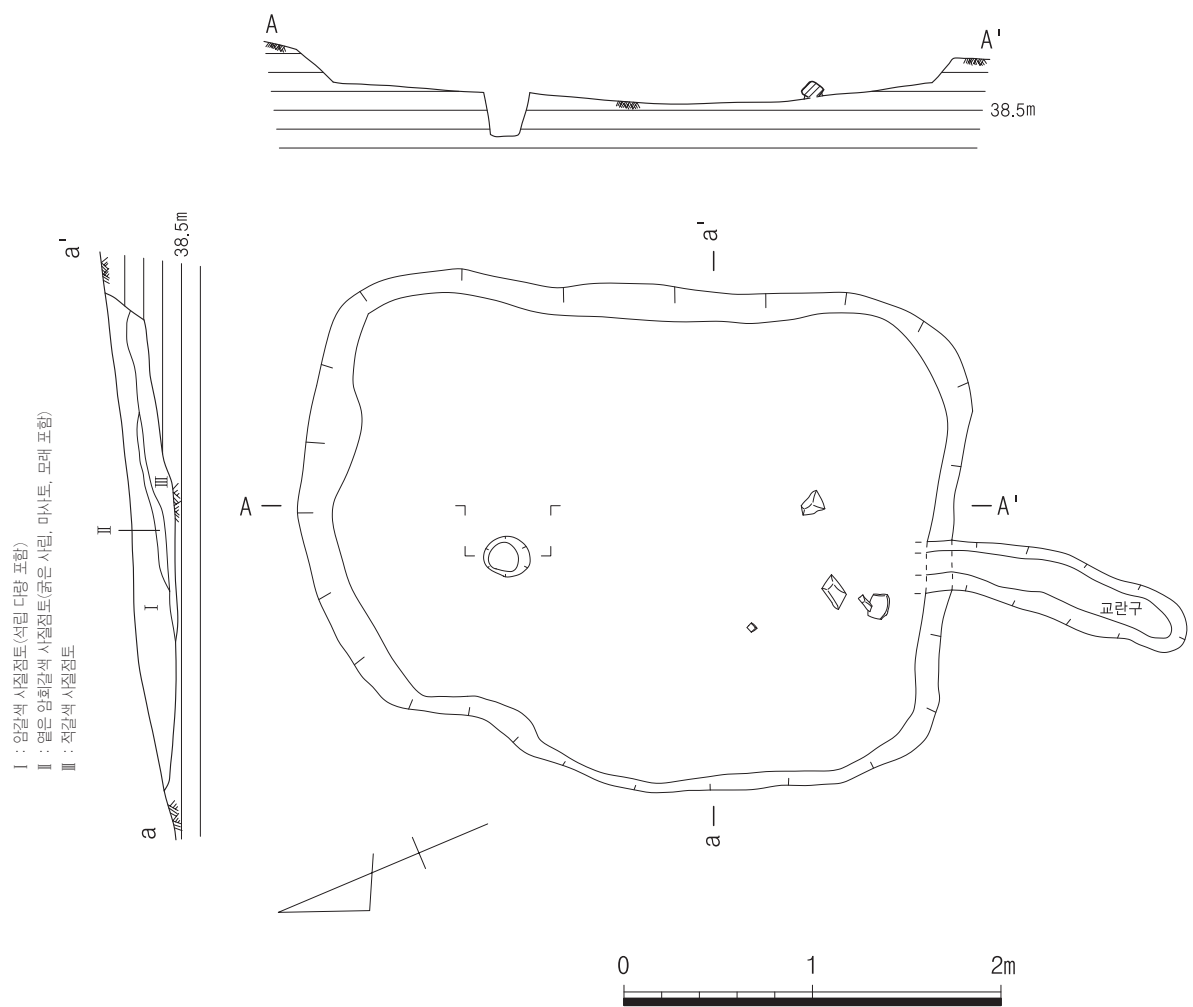
(27) 27號 住居址

가. 遺構(도면 41, 사진 57·58-①·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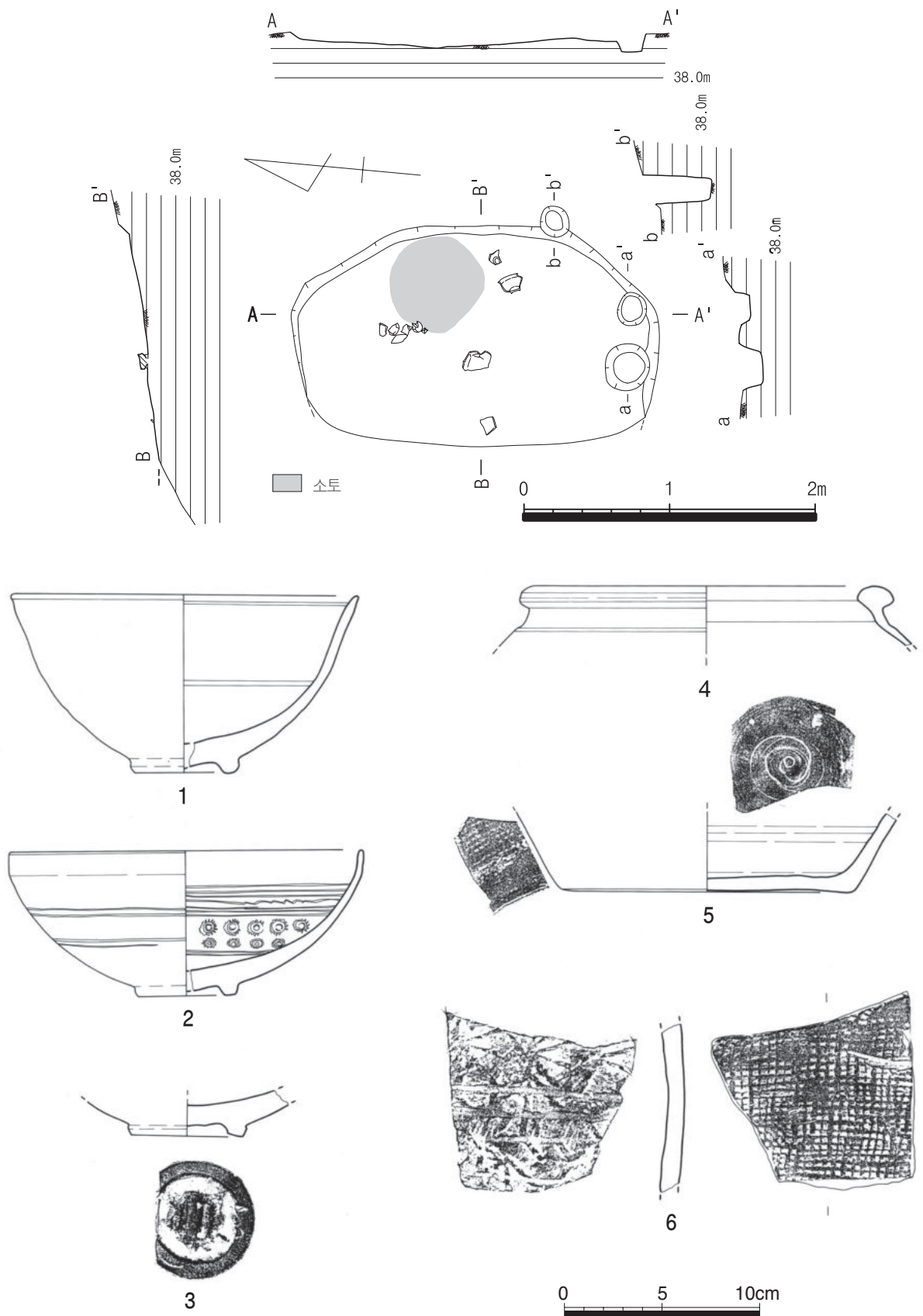
26호 주거지에서 남쪽으로 3.5m 떨어져 이 유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며, 구릉의 남쪽 사면(해발 38m)에 생토층을 굴착하여 조성한 수혈식의 구조이다. 경사면의 아래쪽인 서쪽이 대부분 유실되어 평면 형태는 파악하기가 어렵다. 남아 있는 길이 130cm, 너비 238cm, 최대 깊이 12cm이다.

유구는 동벽쪽의 일부분만 12cm정도 남아 있어 내부구조를 확인할 수 없었다. 동벽의 중앙부 지름 60cm 범위에서 목탄이 확인되었다. 동벽의 외부에 지름 20cm, 깊이 43cm인 주혈 1개와 남벽의 내부에 지름 23cm·30cm, 깊이 12cm·15cm인 주혈 2개가 확인되었다. 바닥면이 고르지 않다.

유물은 청자 발과 백자 저부, 도기편이 출토되었다.



도면 40. 26호주거지 유구 및 출토유물



도면 41. 27호주거지 유구 및 출토유물

나. 遺物

① 청자 발(도면 41-1, 사진 58-⑦)

1/4정도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회색이며 입자가 치밀하다. 내외면에 유약이 고르게 시유되었다. 바닥에는 큰 기포가 생성되었다. 내면에는 구연부와 동체부에 침선이 각각 한줄씩 돌려져 있다. 굽에는 모래와 잡물이 부착되어 있고 접지면과 동하부의 일부는 탈락되어 있다. 현재 높이 9.05cm

② 청자 발(도면 41-2 사진 58-⑥)

1/3정도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회색이며 입자가 매우 치밀하다. 내외면에 회색 유약이 시유되었는데 외면에는 일부가 묻혀져 있다. 내면에는 침선을 돌리고 그 안쪽에 작은 국화문을 2줄로 찍은 후 백토로 상감하였고 외면에는 침선을 돌리고 백토로 상감하였다. 굽에는 모래가 부착되어 있고 내면 바닥에는 태토로 빚은 받침 흔적이 2군데 확인된다. 높이 7.35cm

③ 백자 저부(도면 41-3, 사진 58-⑤)

태토는 회색이며 입자가 매우 치밀하다. 굽의 안쪽과 접지면을 제외한 전면에 유약이 시유되었는데 일부는 산화되었다. 내면 바닥에는 받침에 의해 탈락된 곳이 2군데 확인된다. 현재 높이 2.4cm

④ 구연부(도면 41-4, 사진 58-③)

구연부의 1/3정도가 남아 있다. 태토는 세석립이 다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고 내외면 모두 회청색, 속심은 구연부는 회흑색을 동체부는 회색을 띤다. 연질이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내외면에 회전물손질 흔적이 남아 있다. 현재 높이 2.95cm

⑤ 저부편(도면 41-5, 사진 58-④)

1/4정도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세석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며 내외면은 회흑색, 속심은 암자색이다. 경질이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바닥과 동체부는 접합후 내면은 회전물손질로 외면은 회전깍기로 정면하였다. 동체부 외면에는 격자타날이 남아 있으며 일부가 눌러져 문양이 고르지 않다. 현재 높이 4.05cm

⑥ 동체부편(도면 41-6, 사진 58-⑧)

태토는 소량 세석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고 외면은 회청색, 내면과 속심은 회색이다. 기벽이 비교적 두터우며 외면에는 격자타날이 되었고 내면에는 부채살 모양의 내박자흔이 뚜렷하다. 구연은 회흑색, 동체부는 회색이다. 연질이며 소성상태는 보통이다. 내외면에 회전물손질 흔적이 남아 있다. 현재 높이 8.5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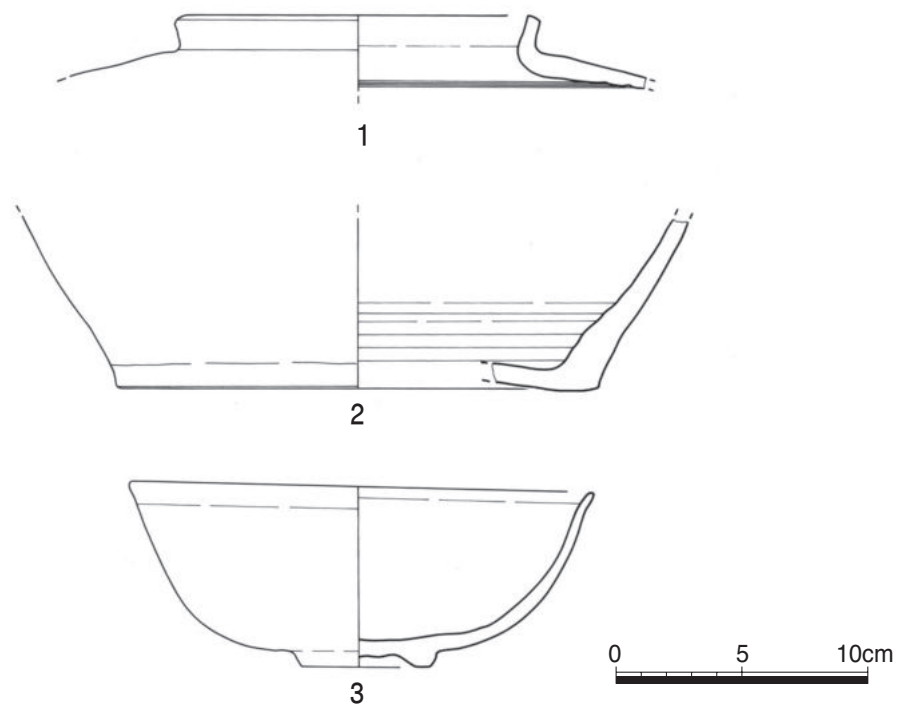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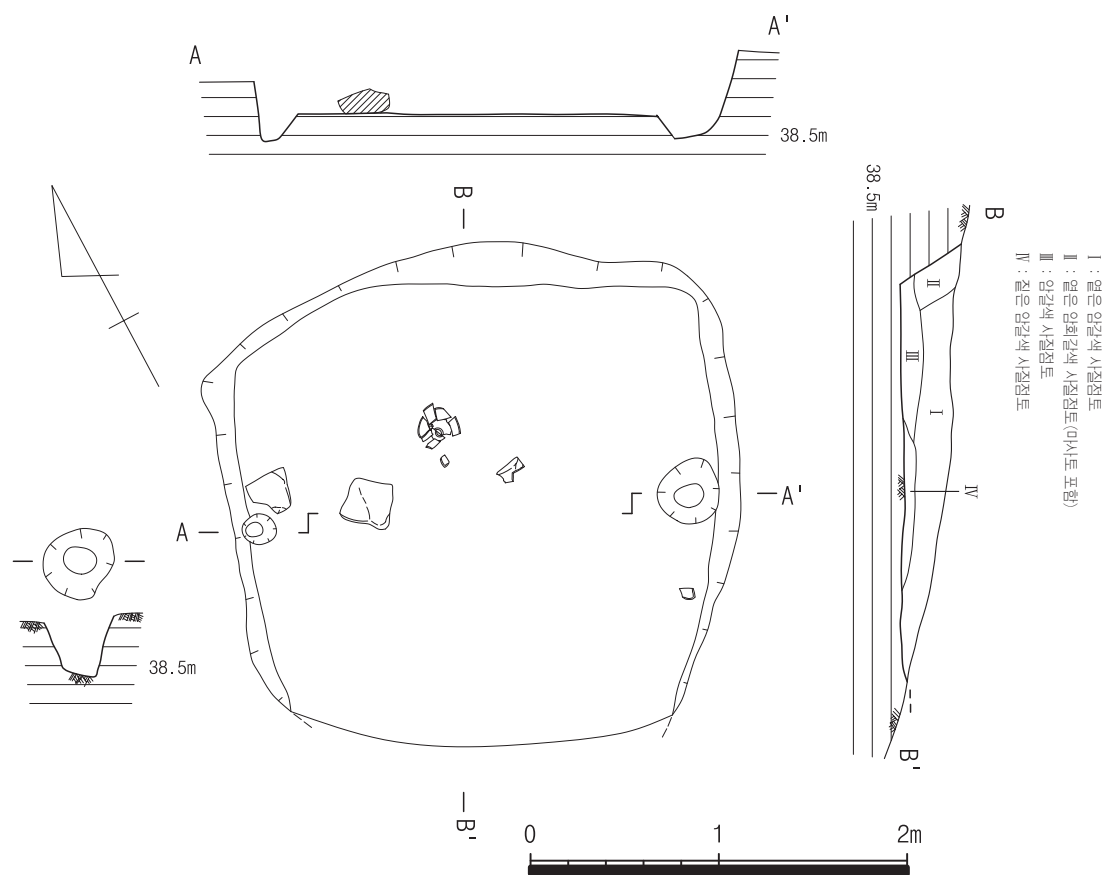
(28) 28號 住居址

가. 遺構(도면 42, 사진 59·60-①·②)

23호 주거지에서 서쪽으로 5.7m 떨어져 위치하며, 구릉의 남쪽 사면(해발 38m)에 설치되어 있다. 생토층을 굴착하여 조성한 수혈식의 구조이다. 평면 형태는 경사면의 아래쪽이 유실되었으나 방형으로 추정된다. 규모는 남아 있는 길이 244cm, 너비 268cm, 최대 깊이 36cm이다.

유구는 경사면의 위쪽인 북쪽이 깊게 남아 있는데 내부에는 암갈색의 사질점토로 채워져 있었다. 내부 구조로는 동벽과 서벽의 중앙부에서 벽에 접하여 지름 24cm·18cm, 깊이 12cm·14cm의 주혈이 대칭되게 확인되었다. 서벽의 외부에서는 지름 37cm, 깊이 33cm의 주혈이 1개 확인되었다.

유물은 도기편과 청자 대접이 출토되었다.



도면 42. 28호주거지 유구 및 출토유물

나. 遺物

① 호편(도면 42-1, 사진 60-③)

호의 구연부와 견부편으로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내외면은 회색이나 마모가 심하여 회색을 띠는 부분이 있다. 연질이며 소성상태는 보통이다. 견부의 외면에는 무문박자흔이 관찰되고 내면에는 내박자흔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내면에는 침선이 돌아간다. 현재 높이 2.85cm

② 저부편(도면 42-2 사진 60-④)

1/5정도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세석립이 다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고 외면은 회색, 내면은 회청색, 속심은 암자색이다. 경질이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바닥과 동체부의 접합부는 기벽이 두터우며 내면은 회전물손질, 외면은 깎기로 정면하였다. 외면에는 격자타날흔이 희미하게 관찰되고 내면에는 내박자흔이 남아 있다. 현재 높이 6.8cm

③ 청자 대접(도면 42-3, 사진 60-⑤)

1/2정도가 남아 있다. 태토는 암자색이며 입자가 비교적 치밀하다. 내외면에 암녹색의 유약이 시유되었다. 내면의 동부에는 나선형으로 침선을 돌리고 백토상감을 하였는데 정연하지 않다. 바닥면에는 손누름흔이 둥글게 관찰된다. 굽의 접지면과 안쪽에는 모래가 부착되어 있다. 높이 7.15cm, 구경 18.3cm, 굽경 5.1cm

(29) 29號 住居址

가. 遺構(도면 43, 사진 61-①~⑤)

25호 주거지에서 남쪽으로 10.8m 떨어져 위치하며, 구릉의 남쪽 사면(해발 38m)에 설치되어 있다. 생토층을 굴착하여 조성한 수혈식의 구조이다. 평면 형태는 경사면의 아래쪽이 유실되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으나 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추정된다. 규모는 남아 있는 길이 187cm, 너비 288cm, 최대 깊이 72cm이다.

유구는 경사면의 위쪽인 동쪽이 깊게 남아 있는데 내부에는 적갈색의 사질점토로 채워져 있었다. 중앙부의 길이 78cm, 너비 45cm, 깊이 20cm인 타원형 수혈과 지름 30cm, 깊이 15cm의 주혈이 확인되었다. 바닥은 단이 저 있다.

유물은 내부에서 도기편이 수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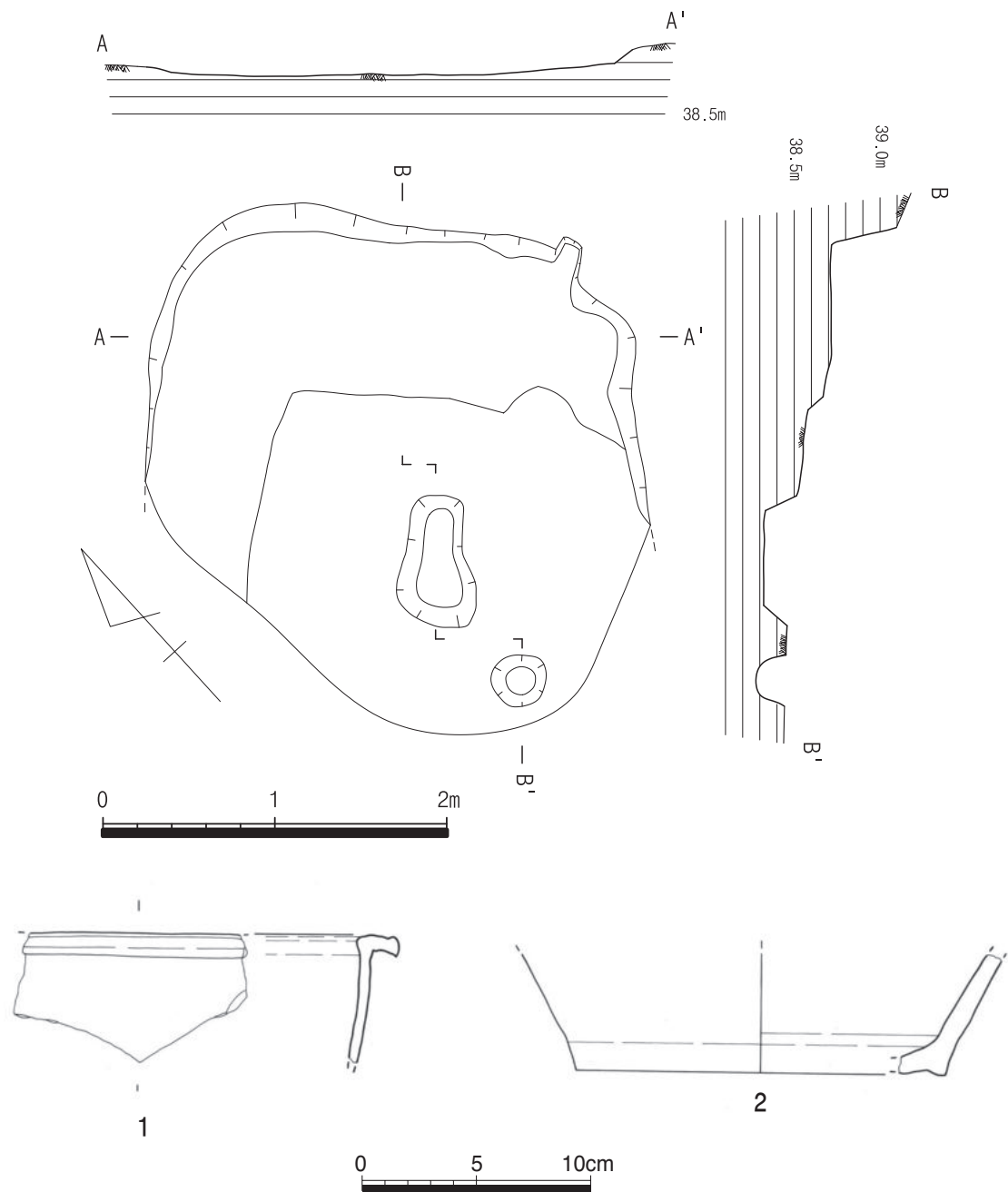
나. 遺物

① 구연부(도면 43-1, 사진 61-⑥)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며 내외면은 회흑색, 속심은 적갈색이다. 연질이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구연부는 밖으로 꺾여 전을 형성하고 있고 단부에는 띠면이 있다. 내면에는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현재 높이 5.6cm

② 저부(도면 43-2 사진 61-⑦)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며 내외면은 회흑색, 속심은 황갈색이다. 연질이며 소성상태는 보통이다. 저부 바닥은 한번 꺾여 단이 진다. 바닥과 동체부의 접합면은 회전물손질과 깎기로 정면하였다. 현재 높이 5.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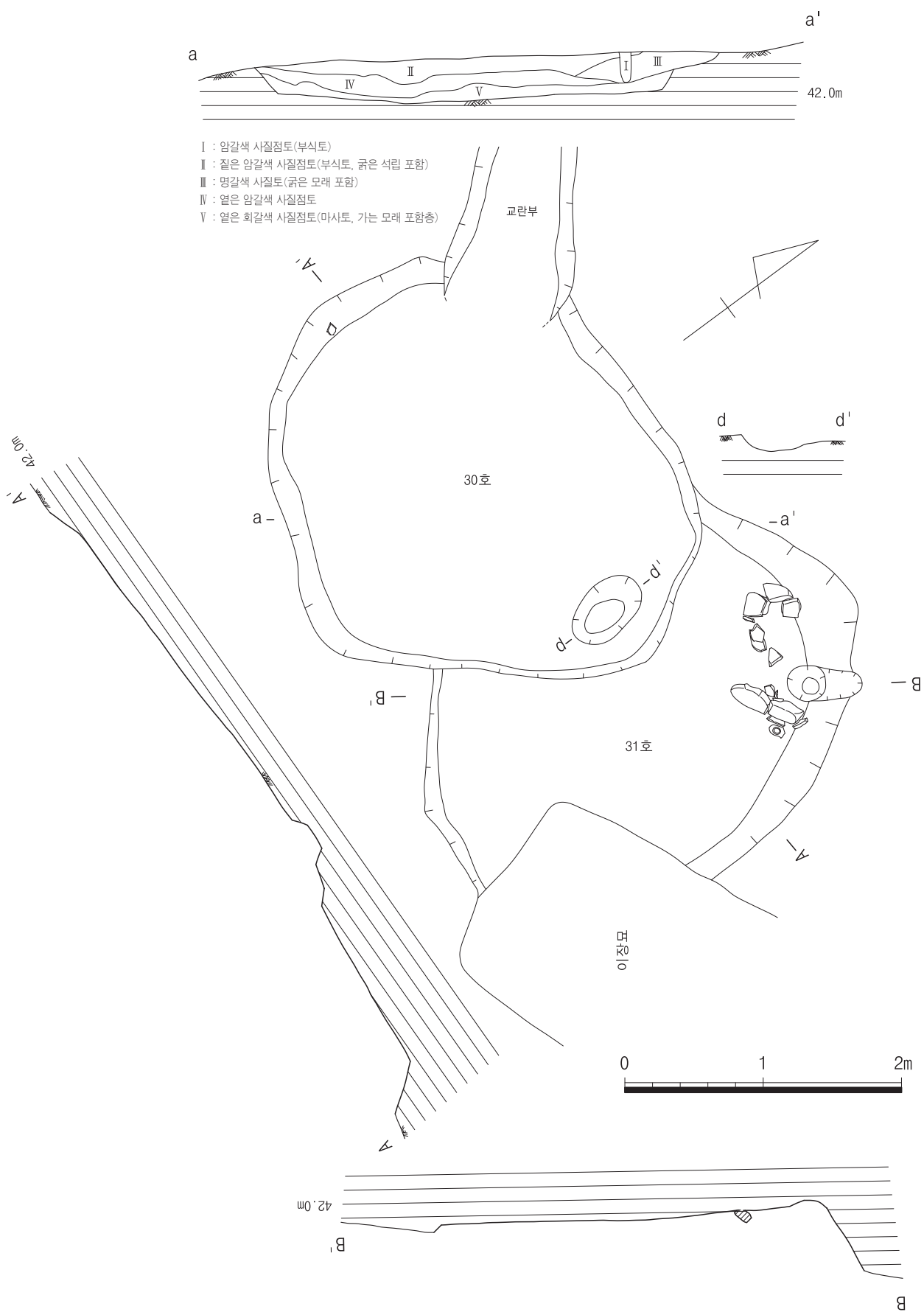


도면 43. 29호주거지 유구 및 출토유물

(30) 30號 住居址

가. 遺構(도면 44, 사진 62·63-①~③)

22호 주거지에서 동쪽으로 4.2m 떨어져 위치하며, 31호 주거지와 중복되었다. 구릉의 남쪽 사면(해발 42m)에 생토층을 굴착하여 조성한 수혈식의 구조이다. 평면 형태는 원형에 가까운 부정형이다. 규모는 남아 있는 길이 339cm, 너비 268cm, 최대 깊이 27cm이다.



도면 44. 30호주거지, 31호주거지 유구

31호 주거지를 파괴하고 만들었으며, 내부는 암갈색 사질점토와 적갈색 사질점토로 채워져 있었다. 북서쪽벽의 일부는 교란에 의해 파괴되었다. 동쪽벽에 접하여 내부에 길이 58cm, 너비 35cm, 깊이 10cm 내외의 수혈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도기편, 자기편, 기와가 출토되었다.

나. 遺物

① 백자 저부(도면 45-1, 사진 63-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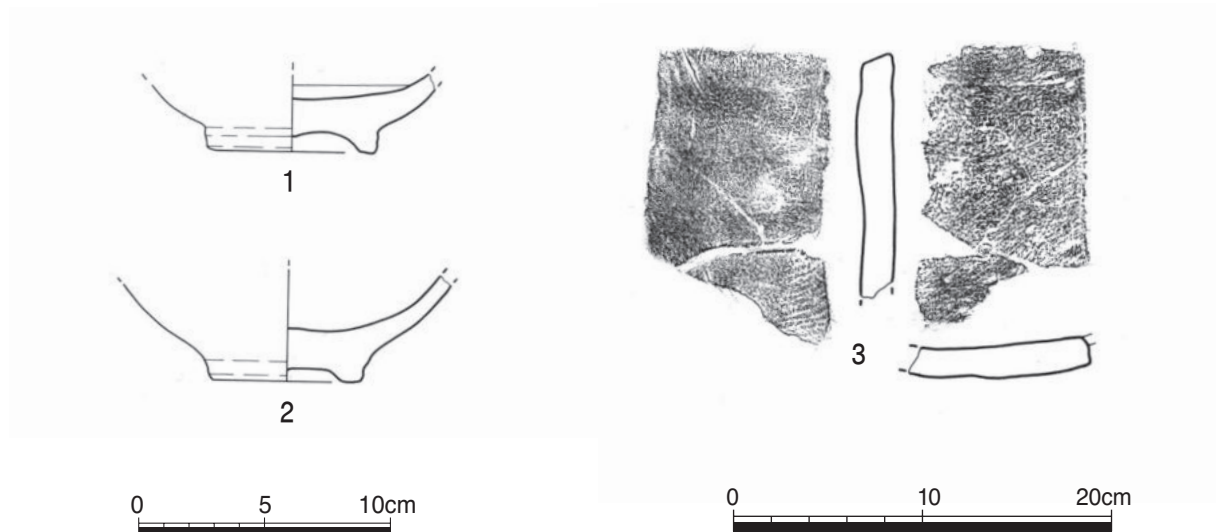
태토는 입자가 치밀하며 속심은 황갈색이다. 굽과 하부를 제외한 전면에 백색 유약이 시유되었다. 내면에는 태토로 빚은 받침흔이 4군데 남아 있고 굽에도 받침흔이 4군데 확인되는데 3군데는 면이 탈락되었다. 현재 높이 3.15cm

② 백자 저부(도면 45-2 사진 63-⑥)

굽과 바닥일부가 남아 있다. 태토는 회색이며 입자가 치밀하다. 내외면에 푸른 빛이 도는 유약을 시유하였다. 내면에는 받침흔이 4군데 확인되고 외면에는 동체하부에 5군데 받침흔이 있는데 기면이 탈락되었다. 현재 높이 4.25cm

③ 암키와(도면 45-3, 사진 63-④)

무문 회흑색의 경질 암키와편이다. 태토는 사질점토에 세사립이 일부 혼입되어 있으며 등면은 물손질 정면되어 문양이 확인되지 않는다. 배면은 빗질 정면후 물손질 처리되어 포흔은 관찰되지 않는다. 와도는 배면에서 등면 방향으로 1/5가량을 하단에서 상단방향으로 그었다. 윤철흔 및 연철흔은 확인되지 않는다. 현재 길이 15cm, 현재 너비 90cm, 두께 1.4cm



도면 45. 30호주거지 출토유물

(31) 31號 住居址

가. 遺構(도면 44, 사진 62·63-①~③)

30호 주거지와 중복되었다. 구릉의 남쪽 사면(해발 42m)에 생토층을 굴착하여 조성한 수혈식의 구조이다. 평면 형태는 30호 주거지와 이장된 묘의 조성으로 파괴가 되었으나 장방형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된다. 규모는 길이 236cm, 남아 있는 너비 152cm, 최대 깊이 45cm이다.

서쪽은 30호 주거지가 조성되면서, 동쪽은 이장된 묘가 조성되면서 파괴되었다. 남장벽에서 동단벽쪽으로 치우쳐서 길이 25cm의 배연부가 시설되었고 배연부의 앞쪽으로 아궁이 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석재들이 흩어진 채 노출되어 아궁이의 구조는 확인할 수가 없었으나 노출된 판석과 할석을 볼 때 바닥을 알게 판 뒤 할석과 판석을 이용해서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32) 32號 住居址

가. 遺構(도면 46, 사진 64-①~③)

30호 주거지에서 남으로 3m 떨어져 위치하며, 6호 묘와 중복되었다. 구릉의 남쪽 사면(해발 41m)에 생토층을 굴착하여 조성한 수혈식의 구조이다. 평면 형태는 타원에 가까운 부정형으로 주축 방향은 남-북 방향이고 등고선에 평행한다. 규모는 길이 275cm, 190cm, 최대 깊이 23cm이다.

유구는 남서쪽 벽의 일부가 6호 묘의 조성으로 파괴되었다. 전반적인 삭평이 심하여 내부구조는 남아 있지 않았고 중앙부에서 할석이 노출되었다.

유물은 바닥에서 백자잔과 저부, 기와가 출토되었다.

나. 遺物

① 백자 잔(도면 46-1, 사진 64-④)

1/2정도가 남아 있다. 태토는 회색이며 입자가 매우 치밀하다. 내외면에 회황색 유약이 고르게 시유되었다. 구연은 외반하고 굽은 약간 내경한다. 굽의 접지면에는 모래가 약간 부착되어 있다. 높이 5.4cm

② 백자 저부(도면 46-2 사진 64-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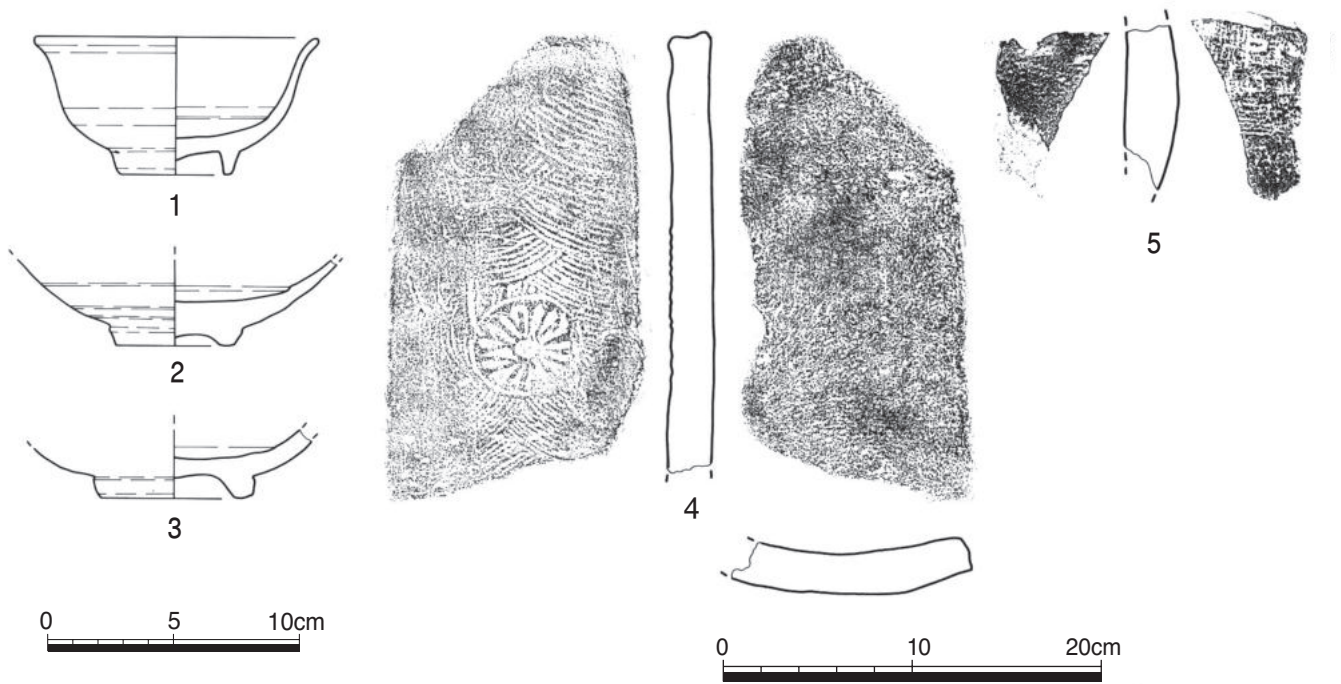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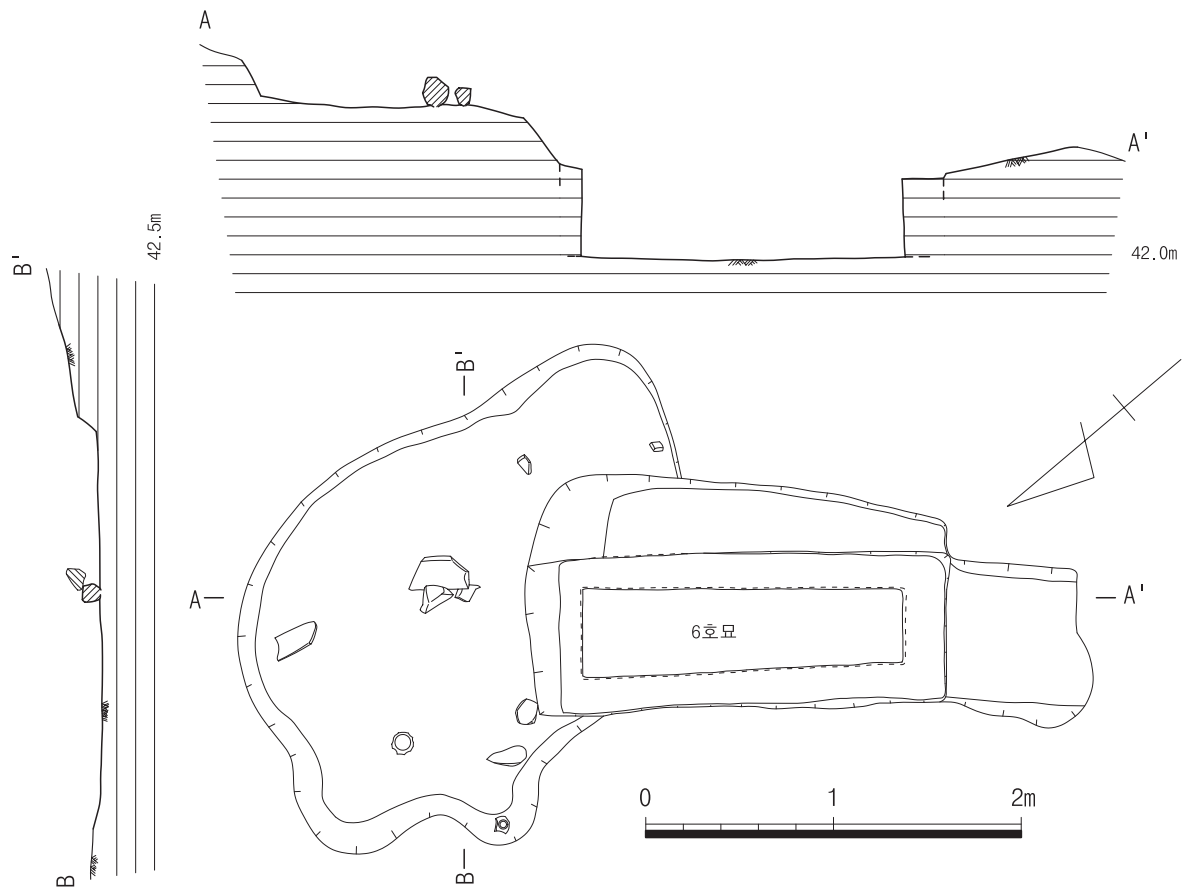
동부와 구연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백색이며 입자가 비교적 치밀하다. 굽을 제외한 전면에 황갈색을 띤 유약이 고르게 시유되지 않아 부분적으로 멍쳐 있다. 내면 바닥에는 태토로 빚은 받침흔이 4군데 남아 있다. 굽의 접지면은 너비가 일정하지 않다. 현재 높이 3.4cm

③ 백자 저부(도면 46-3, 사진 64-⑥)

저부만 남아 있다. 태토는 황갈색이며 입자가 비교적 치밀하다. 굽을 제외한 전면에 푸른 빛이 도는 유약이 시유되었는데 시유상태가 고르지 않다. 내면 바닥에는 태토로 빚은 받침흔이 5군데 남아 있다. 굽은 접지면의 너비가 일정하지 않고 받침흔적이 5군데 확인되며 4군데는 기면이 떨어져 나갔다. 현재 높이 2.7cm

④ 암키와(도면 46-4, 사진 64-⑦)

차륜복합문의 회청색 경질 암키와편이다. 태토는 정선된 사질점토에 석립이 다수 혼입되었다. 등면 문양은



도면 46. 32호주거지 유구 및 출토유물

비교적 선명한 편이며, 배면은 중앙에서 확인되는 연철흔을 제외하고는 특징적인 면이 관찰되지 않는다. 분할면도 멸실 마모되어 와도흔 등의 특징이 확인되지 않는다. 현재 길이 26.2cm, 현재 너비 14cm, 두께 2cm

⑤ 암키와(도면 46-5, 사진 64-⑧)

무문의 회청색 경질 암키와편이다. 태토는 사질점토에 굵은 석립이 소량 혼입되어 있으며, 내면은 물손질 정면으로 인해 포목흔 등 기타 특징들은 확인되지 않는다. 분할면에서 확인되는 와도흔은 단면의 약 1/2가량인 1.2cm이다. 현재 길이 8.5cm, 현재 너비 5.6cm, 두께 2.4cm

(33) 33號 住居址

가. 遺構(도면 47, 사진 65·66-①·②)

14호 주거지에서 남쪽으로 9.3m 떨어져 위치하며, 구릉의 남쪽 사면(해발 45m)에 생토층을 굴착하여 조성한 수혈식의 구조이다. 평면 형태는 부정형으로 길쭉하며 벽선이 정연하지 않다. 주축 방향은 북서-남동 방향이고 등고선에 평행한다. 규모는 길이 642cm, 218cm, 최대 깊이 12cm이다.

유구는 대부분 삭평되어 10cm정도로 얇게 남아 있는데, 중앙부에 아궁이 1개와 북쪽벽에 접하여 배연부가 확인되었다. 아궁이는 얇게 파여진 수혈만 확인되고 배연부는 직선상으로 길게 만들었는데 1/3지점까지 목탄과 할석이 노출되었다.

서쪽벽의 좌우에 길이 193cm·148cm, 너비 65cm·63cm, 깊이 15cm·25cm의 타원형 수혈이 확인되었다. 남쪽의 수혈에서는 유물이 노출되었고, 북쪽의 수혈에서는 할석이 노출되었다. 전반적인 삭평이 심하여 주거지와 관련성은 파악하기 어렵다. 또 주거지의 내부와 주변에서 크고 작은 수혈이 여러개 확인되었다. 수혈은 크기도 일정하지 않고 배치된 상태도 정연하지 않아 주거지와 관계, 수혈간 규칙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유물은 주거지의 남쪽 수혈 내부에서 백자 잔과 접시, 호편, 기와가 출토되었다.

나. 遺物

① 백자 잔(도면 48-1, 사진 66-⑦)

1/2정도가 남아 있다. 태토는 회색이며 입자가 매우 치밀하다. 내외면에 회녹색의 유약이 굽을 제외한 전면에 시유되었고 빙얼이 비교적 크게 생겼다. 구연은 외반하고 굽은 거의 직립한다. 굽의 안쪽에 태토로 빚은 받침흔이 3군데 있다. 높이 4.8cm, 굽경 4.0cm

② 백자 접시(도면 48-2 사진 66-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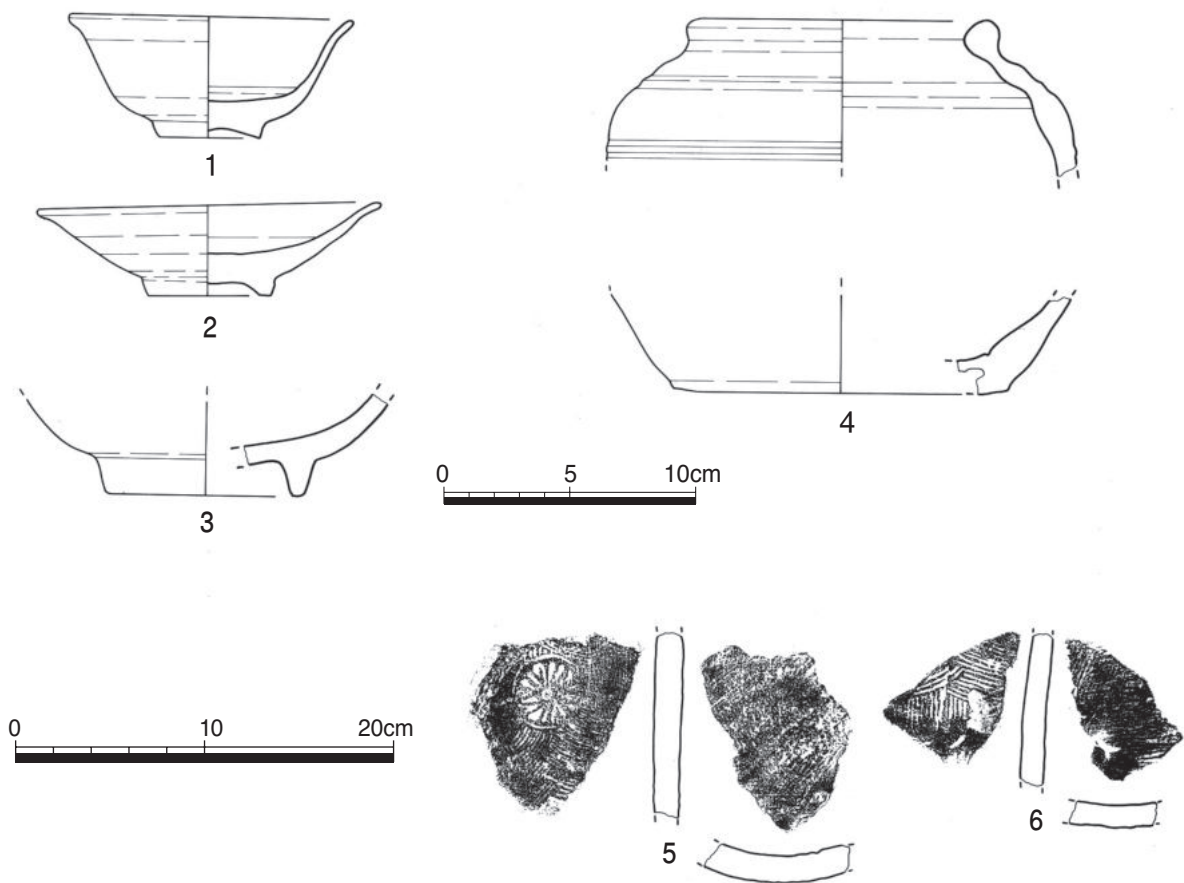
1/2정도가 남아 있다. 태토는 백색이며 입자가 매우 치밀하다. 내외면에 백색의 유약이 굽을 제외한 전면에 시유되었다. 내면에는 태토로 빚은 받침흔이 4군데 확인되고 굽의 접지면과 안쪽은 받침에 의해 4군데가 떨어져 나갔다. 높이 3.6cm, 구경 13.3cm, 굽경 4.9cm

③ 백자 저부(도면 48-3, 사진 66-⑥)

굽의 1/3정도가 남아 있다. 태토는 갈색이며 입자가 매우 치밀하다. 내외면에 갈색의 유약이 시유되었다. 굽의 접지면에는 모래가 부착되어 있다. 높이 3.7cm

④ 호편(도면 48-4, 사진 66-⑤)

저부와 구연부 일부가 남아 있는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내



도면 48. 33호주거지 출토유물

외면은 회청색이고 속심은 암자색이다. 경질이며 소성상태는 불량하다. 기면은 터짐현상이 심하게 발생하였고 단면에 기공이 많이 확인된다. 구연부와 외면은 자연유가 부착, 산화되어 군데군데 백색을 띤다. 내면에는 내박자흔이 뚜렷하다. 현재 높이 13.0cm

⑤ 암키와(도면 48-5, 사진 66-③)

차륜복합문의 회청색 경질암키와 편이다. 태토는 사질점토에 석영 등의 석립이 다소 혼입되어 있다. 등면은 마모되어 문양이 비교적 흐린 편이며, 배면은 빗질정면을 통해 포목흔은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 분할면이 멸실되어 와도흔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현재 길이 15cm, 현재 너비 10.5cm, 두께 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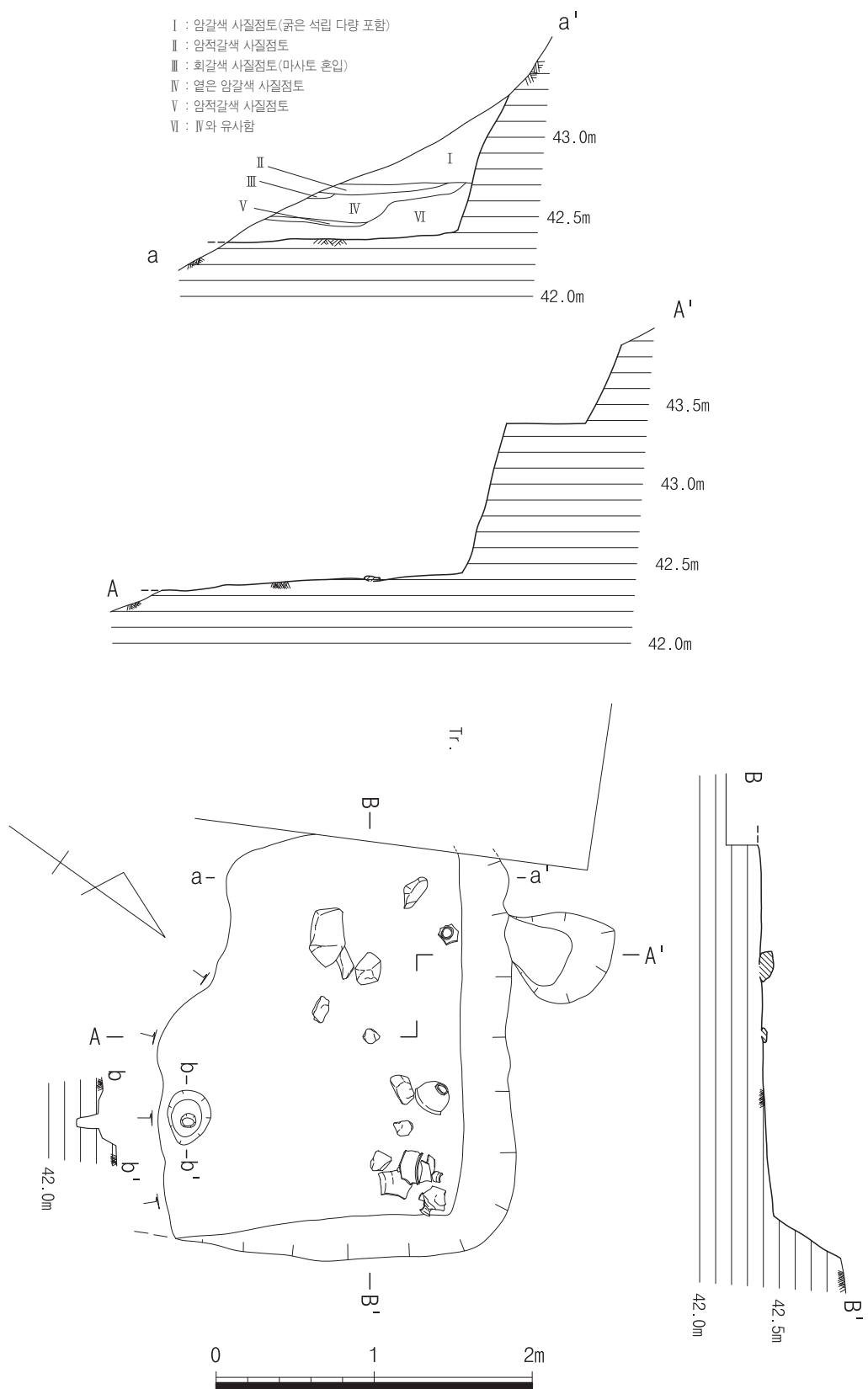
⑥ 암키와(도면 48-6, 사진 66-④)

사선문의 회청색 경질 암키와편이다. 태토는 사질점토에 석립이 혼입된 태토이며, 등면문양은 비교적 선명하다. 배면에서는 포목흔을 비롯한 특징들이 확인되지 않는다. 일부에서 점토합흔이 관찰된다. 측면 분할면은 멸실되어 와도흔 등의 특징적인 면이 관찰되지 않는다. 현재 길이 12cm, 현재 너비 8cm, 두께 1.8cm

(34) 34號 住居址

가. 遺構(도면 49, 사진 67·68-①·②)

33호 주거지에서 동남쪽으로 7.2m 떨어져 위치하며, 구릉의 남쪽 사면(해발 43m)에 생토층을 굴착하여



도면 49. 34호주거지 유구

조성한 수혈식의 구조이다. 경사면의 아래쪽인 남쪽이 유실되고 서쪽은 시굴조사 때의 트렌치 설정으로 파괴되었으나 남아 있는 상태로 볼 때 평면 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된다. 주축 방향은 북동-남서 방향이고 등고선에 평행한다. 남아 있는 규모는 길이 262cm, 217cm, 최대 깊이 77cm이다.

유구는 경사면의 위쪽인 북쪽이 깊게 남아 있는데 이 유적에서 가장 깊게 남아 있는 주거지이다. 내부토는 암갈색과 적갈색의 사질점토로 채워져 있었다.

중앙부에서 할석이 노출되었고 동남쪽 바닥에서 지름 33cm, 깊이 35cm의 주혈이 확인되었다. 북동벽의 일부는 밖으로 돌출되어 있다.

유물은 북쪽 모서리와 벽 주변에서 도기편과 백자 대접이 출토되었는데 바닥보다 40cm정도 높은 위치에서 출토되었다.

나. 遺物

① 백자 발(도면 50-1, 사진 68-③)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회색이며 입자가 매우 치밀하다. 내외면에 회백색의 유약이 전면에서 고르게 시유되었다. 구연부는 외반하고 굽은 거의 직립한다. 굽의 접지면에는 유약이 박락되었다. 높이 12.1cm, 구경 18.4cm, 굽경 7.4cm

② 백자 발(도면 50-2 사진 68-④)

일부만 남아 있는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백색이며 입자가 매우 치밀하다. 내외면에 회색의 유약이 전면에서 고르게 시유되었다. 구연부는 외반하고 굽은 직립한다. 굽의 접지면과 안쪽에는 모래가 부착되어 있다. 높이 9.55cm, 굽경 5.65cm

③ 백자 저부(도면 50-3, 사진 68-⑤)

태토는 회색이며 입자가 매우 치밀하다. 내외면에 청회색의 유약이 전면에서 고르게 시유되었다. 굽은 직립하며 접지면과 안쪽에 등글게 모래가 부착되어 있다. 현재 높이 3.3cm

④ 파수편(도면 50-4, 사진 68-⑥)

동이의 파수편으로 너비 3.1cm, 두께 0.3cm의 판상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이며 내외면은 회흑색이다. 연질이며 소성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 파수가 부착된 부분은 파수의 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동체부의 기면이 안쪽으로 눌러져 있다. 접합면의 외면은 손으로 문질러서 정면한 흔적과 내면은 손으로 눌러 접합한 흔적이 있다. 현재 높이 18.4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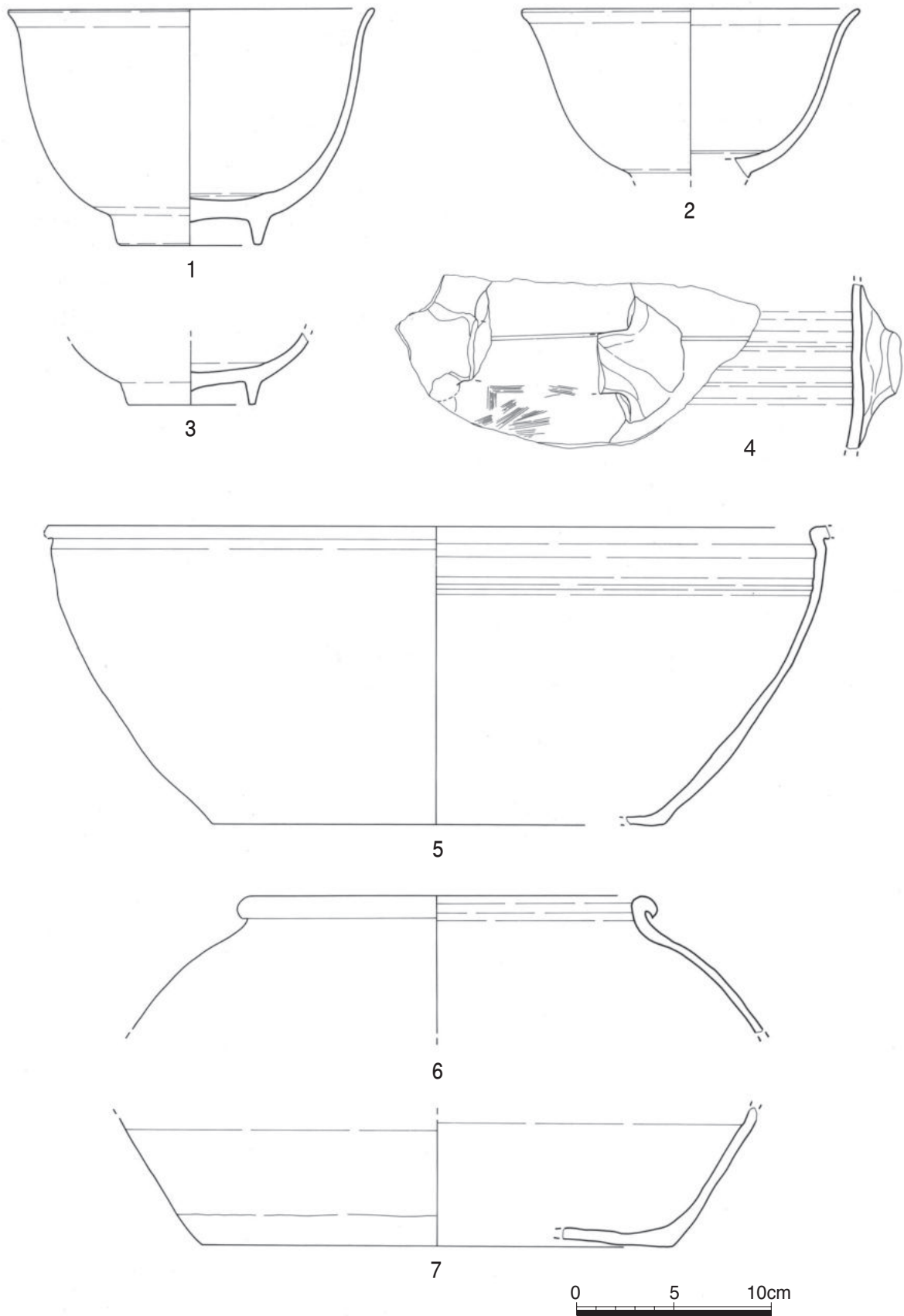
⑤ 동이(도면 50-5, 사진 68-⑦)

일부만 남아 있는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고 외면은 회흑색 내면은 회황색, 속심은 회색이다. 연질이며 소성상태는 보통이다. 내면에는 점토띠의 흔적이 일부 관찰된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고, 외면의 동체 하부는 바닥과 접합후 깎기로 정면하였다. 현재 높이 15.2cm

⑥ 구연부편(도면 50-6, 사진 68-⑧)

일부만 남아 있는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고 외면은 회흑색 내면은 회황색, 속심은 적갈색이다. 연질이며 소성상태는 보통이다. 내면에는 점토띠의 흔적이 일부 관찰된다. 구연부의 내면은 박리되었다. ⑦ 저부편과 같은 개체로 생각된다. 현재 높이 6.9cm

⑦ 저부편(도면 50-7, 사진 68-⑨)



도면 50. 34호주거지 출토유물

일부만 남아 있는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고 외면은 회흑색 내면은 회황색, 속심은 회색이다. 연질이며 소성상태는 보통이다. 외면에는 평행타날흔이 남아 있다. 동체 하부의 외면은 바닥과 접합후 시계방향로 깎아서 정면하였고 내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현재 높이 6.5cm

(35) 35號 住居址)

가. 遺構(도면 51, 사진 69)

34호 주거지에서 남쪽으로 1m 거리를 두고 떨어져 위치하며, 구릉의 남쪽 사면(해발 42m)에 생토층을 굴착하여 조성한 수혈식의 구조이다. 경사면의 아래쪽인 남동쪽이 유실되었으나 남아 있는 상태로 볼 때 평면 형태는 방형 또는 장방형일 것으로 추정된다. 규모는 길이 255cm, 남아 있는 너비 182cm, 최대 깊이 25cm이다.

중앙부에 길이 102cm, 너비 45cm, 깊이 15cm인 타원형 수혈이 확인되는데 수혈 주변에서 대소의 할석이 노출되었다. 서쪽의 벽모서리에 접하여 아궁이와 배연부가 확인되었다. 아궁이는 주거지의 바닥면을 타원형으로 12cm깊이로 파고 판석 2장을 겹치게 얹어서 배연부에 연결되게 만들었다. 아궁이 바닥의 중앙에 백자저부 1점이 거꾸로 놓여진 채 노출되었다. 북쪽 모서리와 서쪽 모서리에서 지름 12cm내외, 깊이 10cm내외의 소형 주혈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중앙의 수혈에서 복합문 기와와 아궁이 바닥에서 백자저부가 출토되었고, 내부에서 도기편이 수습되었다.

나. 遺物

① 백자 잔(도면 51-1, 사진 70-①)

저부와 동체부 일부가 남아 있다. 태토는 적갈색이며 입자가 매우 치밀하다. 굽과 동하부를 제외한 전면에 회녹색의 유약을 시유하였다. 굽의 접지면은 폭이 일정하지 않고 태토로 빚은 받침에 의해 3군데가 탈락되었다. 현재 높이 3.8cm

② 백자 저부(도면 51-2 사진 70-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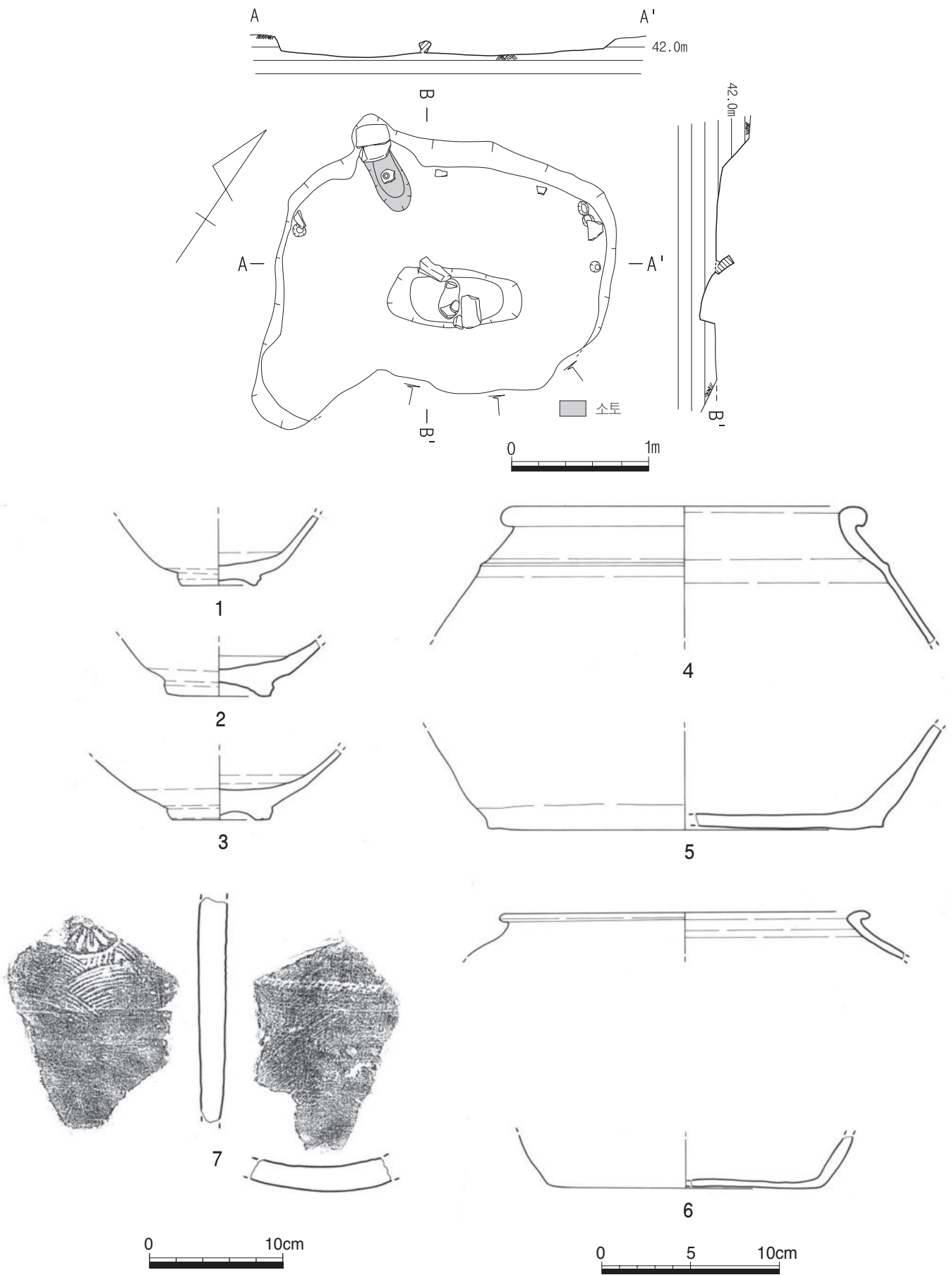
저부와 동체부 일부가 남아 있다. 태토는 회백색이며 입자가 매우 치밀하다. 굽과 동하부를 제외한 전면에 회색의 유약을 시유하였다. 내면의 바닥과 굽의 접지면에는 태토로 빚은 받침흔이 4군데씩 남아 있는데 일부는 기면이 떨어져 나갔다. 현재 높이 3.2cm

③ 백자 저부(도면 51-3, 사진 70-③)

저부와 동체부 일부가 남아 있다. 태토는 적갈색이며 입자가 치밀하다. 굽과 동하부를 제외한 전면에 회백색의 유약을 시유하였는데 일부는 뭉쳐져서 회색을 띤다. 내면의 바닥과 굽의 접지면에는 태토로 빚은 받침흔이 4군데씩 남아 있는데 일부는 기면이 떨어져 나갔다. 현재 높이 3.5cm

④ 구연부편(도면 51-4, 사진 70-④)

일부만 남아 있는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세석립이 다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고 내외면 모두 회흑색이다. 경질이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구연부는 밖으로 꺾어 말아 붙였다. 기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현재 높이 7.6cm



도면 51. 35호주거지 유구 및 출토유물

⑤ 저부편(도면 51-5, 사진 70-⑥)

1/4가 남아 있는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도는 세석립이 다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고 내외면 모두 회색, 속심은 회색이다. 연질이며 소성상태는 보통이다. 내면에는 점토띠흔이 관찰된다. 평저이며 외면의 하부는 바닥과 동체부를 접합한 후 깎기로 정면하였다. 현재 높이 5.7cm

⑥ 호편(도면 51-6, 사진 70-⑤)

일부만 남아 있는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도는 세석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고 내외면은 마모되어 황갈색을 띠고 속심은 흑회색이다. 연질이며 소성상태는 보통이다. 내면에는 점토띠흔이 관찰된다. 외면의 하부는 바닥과 동체부를 접합한 후 깎기로 정면하였다. 현재 높이 18cm

⑦ 암키와(도면 51-7 사진 70-⑦)

차륜복합문의 회청색 경질암키와 편이다. 태도는 사질점토에 굵은 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배면은 빗질정면흔이 관찰되며 조밀한 올의 포목흔이 확인된다. 포목흔의 올수는 10×12이며 중앙부에 포목을 덧대어 연결한 연철흔이 보인다. 와도흔은 분할면이 멸실되어 확인되지 않는다. 현재 길이 17cm, 현재 너비 11.5cm, 두께 1.5cm

(36) 36號 住居址

가. 遺構(도면 52, 사진 36-①~④)

35호 주거지에서 동쪽으로 7.2m 떨어져 위치하며 10호 묘와 중복되었다. 구릉의 남쪽 사면(해발 42m)에 생토층을 굴착하여 조성한 수혈식의 구조이다. 경사면의 아래쪽인 남동쪽이 유실되었으나 평면 형태는 방형이다. 규모는 길이 281cm, 230cm, 최대 깊이 62cm이다.

유구는 10호 묘가 조성되면서 주거지의 동쪽벽과 바닥의 일부가 파괴되었으나 경사면의 위쪽인 북쪽과 서쪽이 비교적 깊게 남아 있어 회갈색, 암갈색, 적갈색의 사질점토로 채워진 내부의 퇴적상태와 아궁이 시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궁이와 배연부는 서쪽의 벽 모서리에서 비교적 양호하게 확인되었다. 아궁이는 주거지의 바닥을 그대로 이용하여 주거지의 바닥보다 10cm정도 높게 점토를 쌓고 그 위 작은 할석을 쌓아서 벽을 만들었는데 서쪽 벽은 어깨선 높이까지 여러단 남아 있으나 동쪽 벽은 1단만 남아 있고 주변에 할석이 흩어져 있다. 할석의 최상단에는 얇은 판석을 1장 얹어 배연부에 연결되게 하였으며, 배연부는 밖으로 급경사를 이루며 짧게 돌출되어 있다. 북서쪽 벽의 중앙에 지름 24cm, 깊이 10cm의 소형 주혈이 1개 확인되었다.

유물은 내부에서 분청사기편과 암키와편이 수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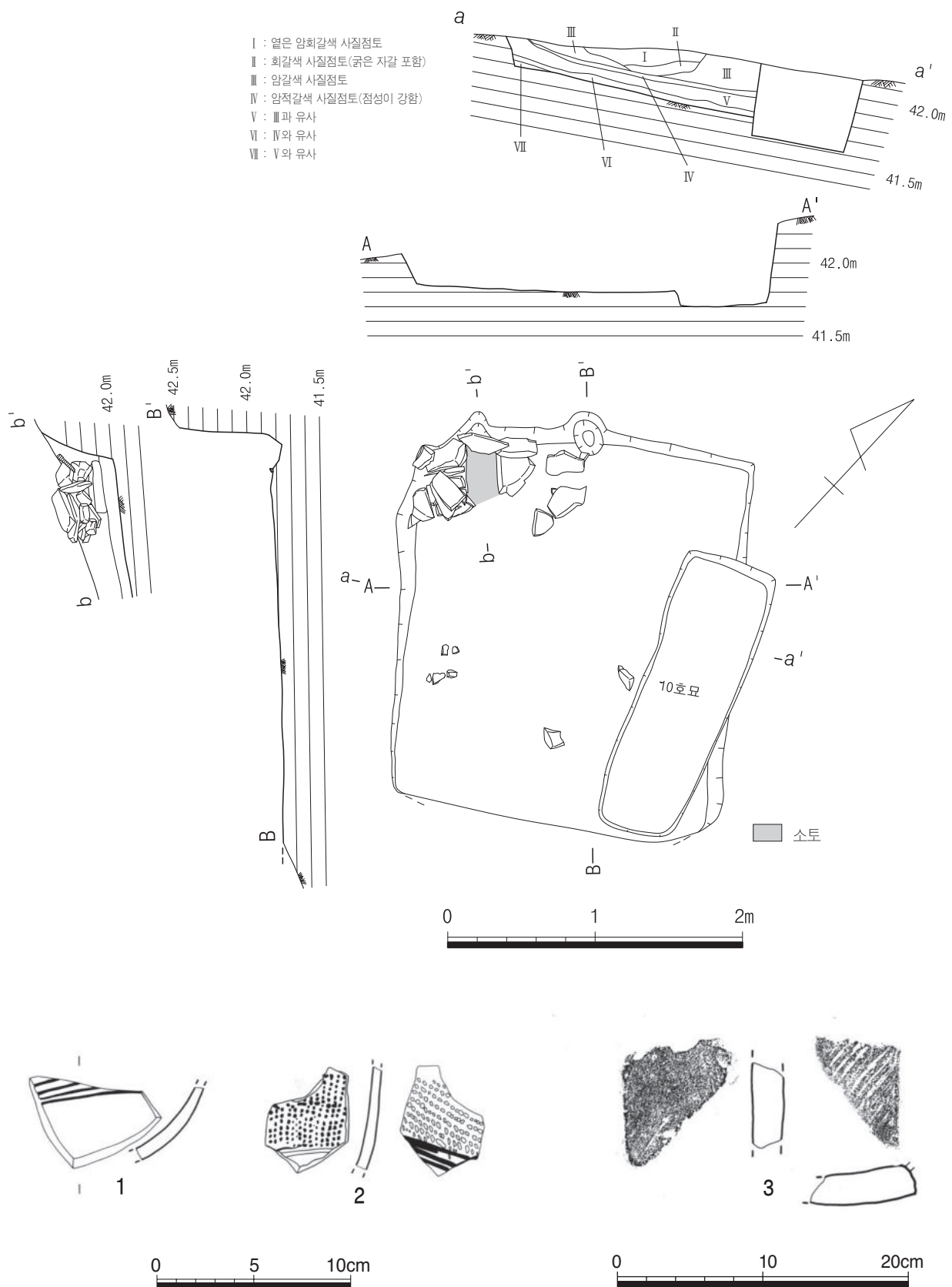
나. 遺物

① 분청사기편(도면 52-1, 사진 71-⑤)

태도는 회색이며 입자가 치밀하다. 내면에 침선을 돌리고 백토상감을 한 다음 유약을 입혔다. 현재 길이 3.7cm

② 분청사기편(도면 52-2 사진 71-⑥)

태도는 회색이며 입자가 치밀하다. 인화기법으로 내외면에 침선문과 점열문을 시문한 다음 백토분장후 유약을 입혔다. 현재 길이 4.0cm



도면 52. 36호주거지 유구 및 출토유물

③ 암키와(도면 52-3, 사진 71-⑦)

사선문의 회백색 연질 암키와편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질에 세사립이 소량 포함되었으나 매우 정선되었다. 등면은 흑색의 소성면이 관찰되나 속심은 회백색에 가까우며 문양은 일부만 확인되어 확실하지 않다. 배면은 빗질정면흔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포목흔은 관찰되지 않는다. 분할면은 4mm가량의 와도흔이 내면에서 외면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길이 7.5cm, 현재 너비 7cm, 두께 2cm

(37) 37號 住居址

가. 遺構(도면 53, 사진 72·73)

36호 주거지에서 북쪽으로 14.6m 떨어져 위치하며, 구릉의 동쪽 사면(해발 44m)에 생토층을 굴착하여 조성한 수혈식의 구조이다. 경사면의 아래쪽인 남동쪽이 유실되었으나 남아 있는 상태로 볼 때 평면 형태는 방형 또는 원형일 것으로 추정된다. 남아 있는 규모는 길이 292cm, 남아 있는 너비 214cm, 최대 깊이 57cm이다.

유구는 경사면의 아래쪽인 동쪽은 삭평되었고 남쪽은 이장묘에 의해 파괴되었다. 경사면의 위쪽인 북쪽과 서쪽이 비교적 깊게 남아 있다. 내부는 암갈색 사질점토로 채워져 있었다.

서쪽 벽에 접하여 길이 98cm, 너비 48cm, 깊이 18cm의 타원형 수혈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바닥에서 다량의 기와와 소량의 도기편이 출토되었다.

나. 遺物

① 구연부편(도면 53-1, 사진 74-①)

일부만 남아 있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고 내외면 모두 회청색이다. 연질이며 소성상태는 보통이다. 구연부는 밖으로 꺾어 말아 붙었다. 내외면 모두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다. 현재 높이 3.3cm

② 저부편(도면 53-2 사진 74-②)

일부만 남아 있다.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고 내외면 모두 회색이다. 연질이며 소성상태는 보통이다. 동하부는 바닥과 접합한 후 외면은 깎기로 내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한 흔적이 관찰된다. 현재 높이 5.7cm

③ 수키와(도면 54-1, 사진 74-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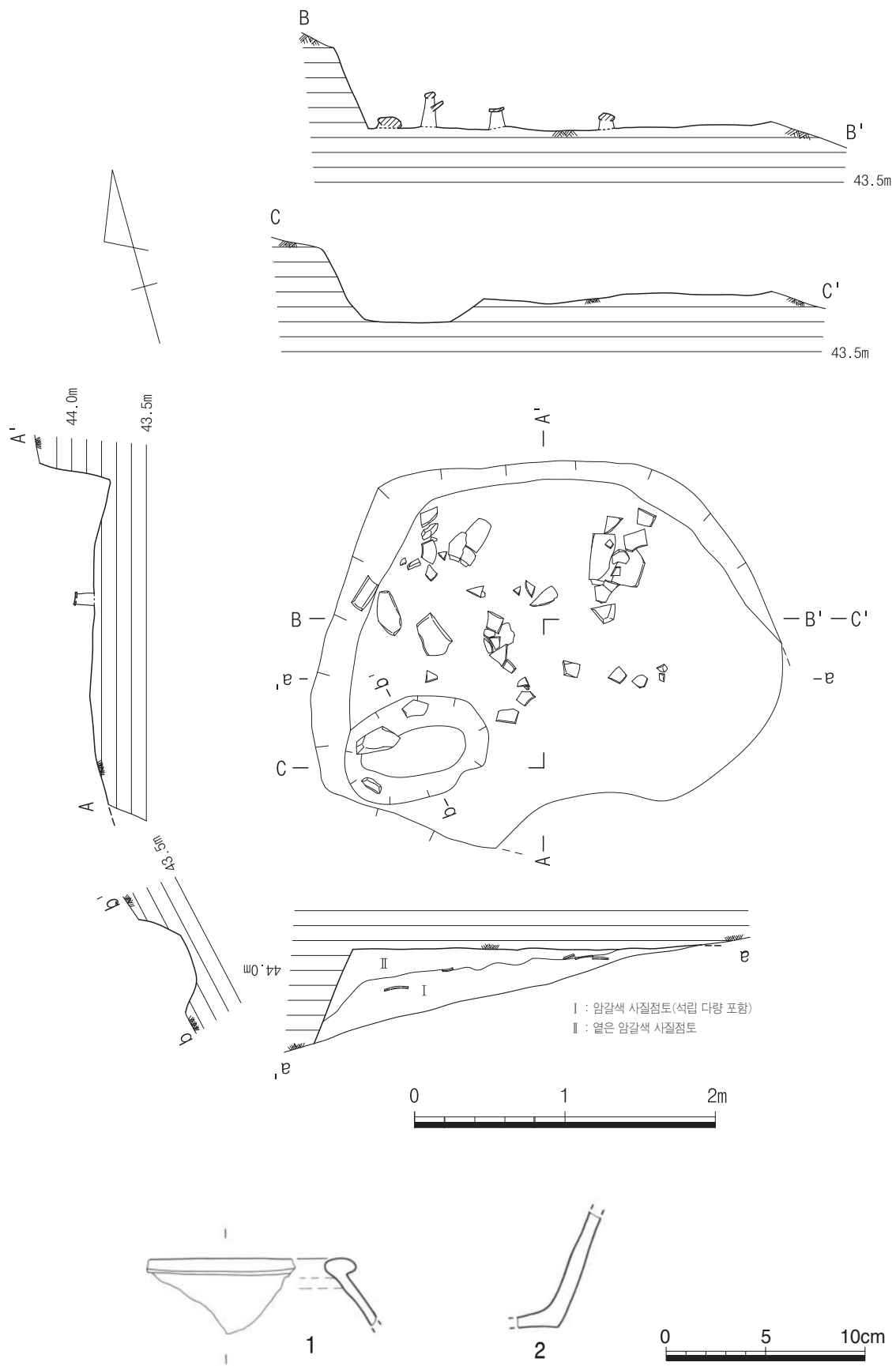
평행선문의 회청색 경질 수키와편이다.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남아 있으며, 태토는 석립이 포함된 사질 점토질이다. 배면에는 물손질정면으로 포목흔이 관찰되지 않는다. 분할면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절단한 1cm 가량의 와도흔이 관찰된다. 현재 길이 35cm, 현재 너비 15cm, 두께 2cm, 언강길이 3.2cm

④ 수키와(도면 54-2, 사진 74-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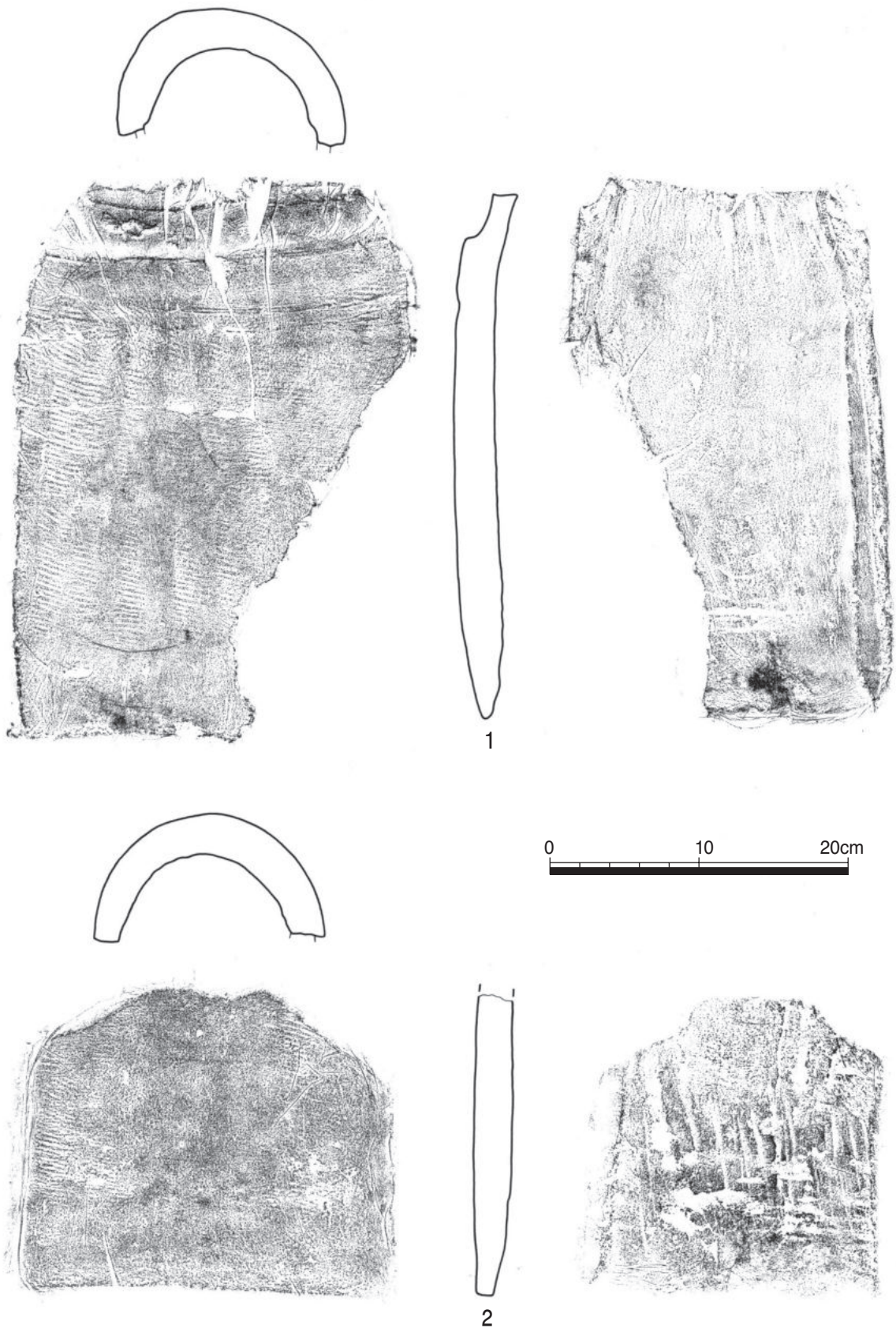
무문의 회청색 경질 수키와편이다. 절반 가량 남아 있으며 태토는 정선된 사질점토질에 세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등면에서 평행선문이 일부 관찰되고 있으나 대부분은 지워지고 보이지 않는다. 배면은 빗질흔을 제외한 특징들은 확인되지 않는다. 분할면에서 확인되는 와도흔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절단하였으며 단면 전면에 이를 정도로 두껍게 절단되었다. 현재 길이 20cm, 현재 너비 15.3cm, 두께 2cm

⑤ 수키와(도면 55-1, 사진 74-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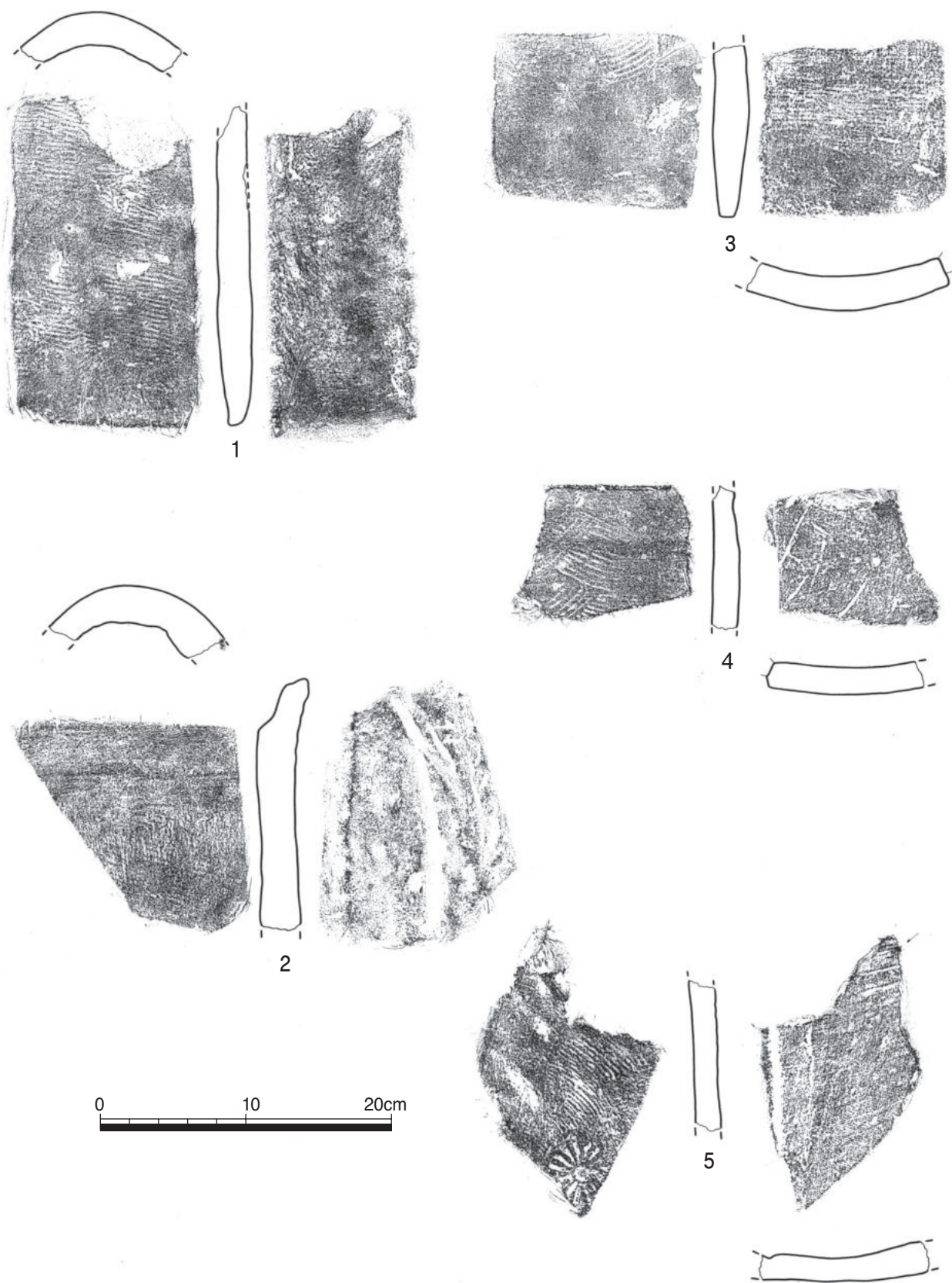
무문의 회청색 경질 수키와편이다. 태토는 석립이 일부 혼입된 사질점토이며 등면은 문양이 시문되었으나



도면 53. 37호주거지 유구 및 출토유물



도면 54. 37호주거지 출토유물



도면 55. 37호주거지 출토유물

물손질되어 문양이 명확하지 않다. 배면은 멸실되어 포흔은 관찰되지 않는다. 분할면은 단면부분이 마모되어 와도흔이 확인되지 않는다. 현재 길이 21cm, 현재 너비 11cm, 두께 1.3cm

⑥ 수키와(도면 55-2, 사진 74-⑥)

무문의 황갈색 연질 수키와 편이다. 표면은 박리되어 문양대는 남아있지 않고 태토는 석립이 다수 혼입된 사질점토질이다. 배면 역시 마모되어 포목흔을 비롯한 각종 특징들이 확인되지 않고 분할면에서는 희미하게 내면에서 외면으로 분할한 흔적이 확인된다. 분할면은 약 1/2가량 되며, 두꺼운 면은 와도흔이 1cm정도이다. 현재 길이 18cm, 언강길이 2.8cm, 현재 너비 12.5cm, 두께 2.2cm

⑦ 암키와(도면 55-3, 사진 75-③)

사선문의 회청색 경질 암키와편이다. 태토는 점토질이며 석립이 소량 혼입되어 있다. 등면문양은 일부만 남아 있으며 배면은 성긴 올의 포목흔이 확인된다. 분할면의 와도흔은 1.2cm가량이며 단면의 4/5를 차지한다. 현재 길이 11.4cm, 현재 너비 12.4cm, 두께 2cm

⑧ 암키와(도면 55-4, 사진 75-④)

화문복합문의 회청색 경질 암키와편이다. 태토는 사질점토이며 석립이 극히 소량 혼입된 매우 정선된 태토이다. 등면 문양은 사선문이 일부 확인되고 있으나 유사한 다른 문양과 비교할 때 화문복합문의 일부로 추정된다. 배면은 멸실 마모로 인하여 포목흔이 전혀 관찰되지 않고 있으며 분할면의 와도흔은 약 1cm가량으로 넓은 편이다. 현재 길이 9.3cm, 현재 너비 11cm, 두께 1.7cm

⑨ 암키와(도면 55-5, 사진 74-⑦)

사선문의 회청색 경질 암키와편이다. 태토는 석립이 다수 혼입된 사질점토질이며 등면은 화문복합문이 일부에서 확인된다. 배면은 비교적 성긴 올의 포목흔을 보여주고 있으며 단면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그은 와도흔적이 나타나고 있으나 분할면이 일치하지 않아서 와도면은 확실하지 않다. 현재 길이 12.5cm, 현재 너비 10.5cm, 두께 1.6cm

⑩ 암키와(도면 56-1, 사진 75-②)

화문복합문의 적갈색 경질 암키와편이다. 태토는 정선된 사질점토질에 석립이 소량 혼입된 태토이다. 등면 문양은 선명하며 배면은 마모 결실되어 특징이 확인되지 않는다. 분할면은 대부분 마모되어 와도흔은 일부만 남아 있으며, 내면에서 외면으로 절단하였고 단면의 1/6인 2mm가량이다. 현재 길이 27.5cm, 현재 너비 20cm, 두께 1.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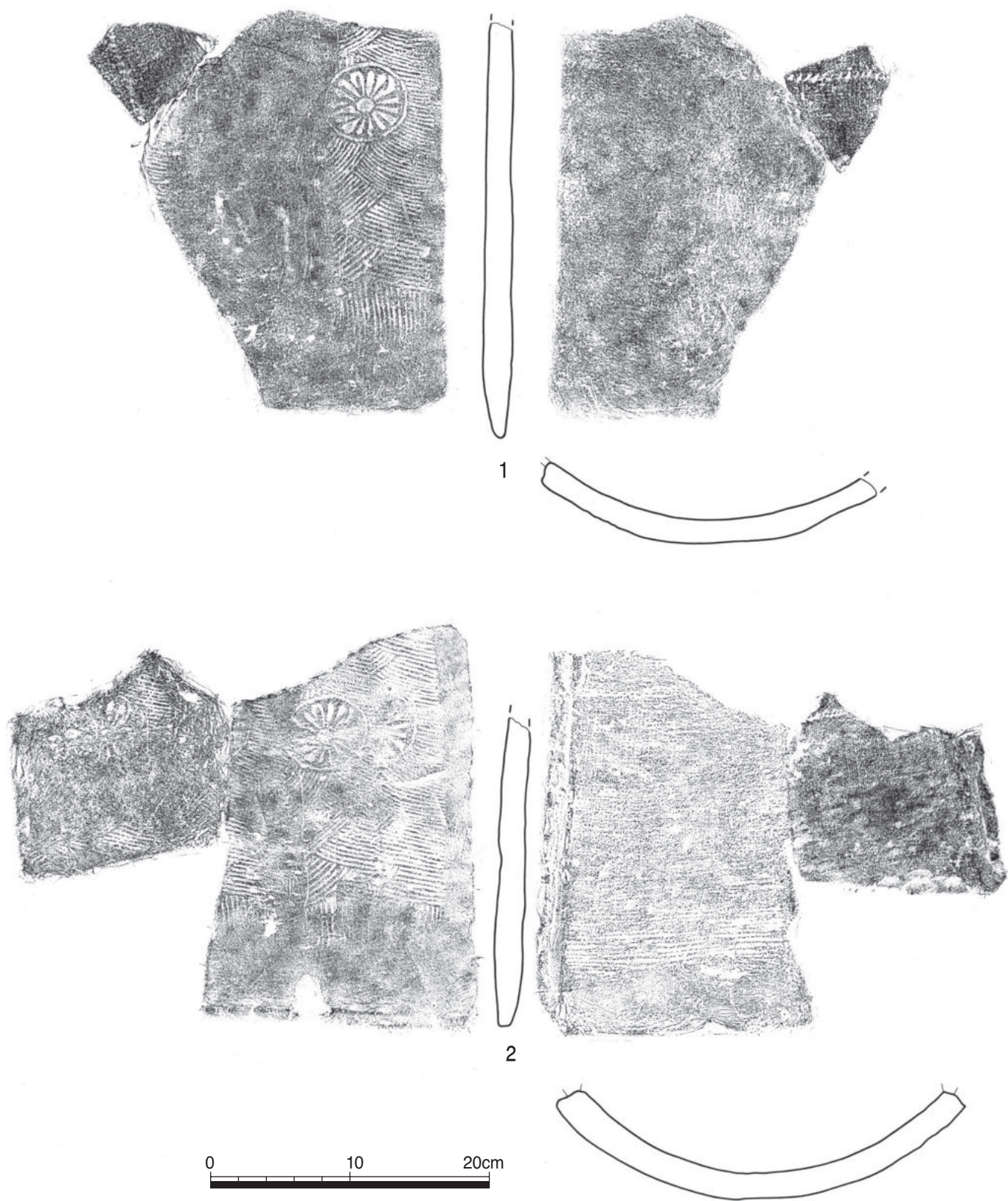
⑪ 암키와(도면 56-2, 사진 75-①)

화문복합문의 적갈색 경질 암키와편이다. 태토는 사질점토질이며 석립이 일부 혼입되어 있다. 등면 문양은 선명한 편이며 배면은 성긴 올의 포목흔이 관찰된다. 1cm당 올수는 8×8이며 하단부에 연철흔이 관찰된다. 분할면은 내면에서 외면으로의 와도면이 2mm에서 1cm가량으로 불규칙하게 확인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점토함흔도 보인다. 현재 길이 28cm, 현재 너비 18cm, 두께 1.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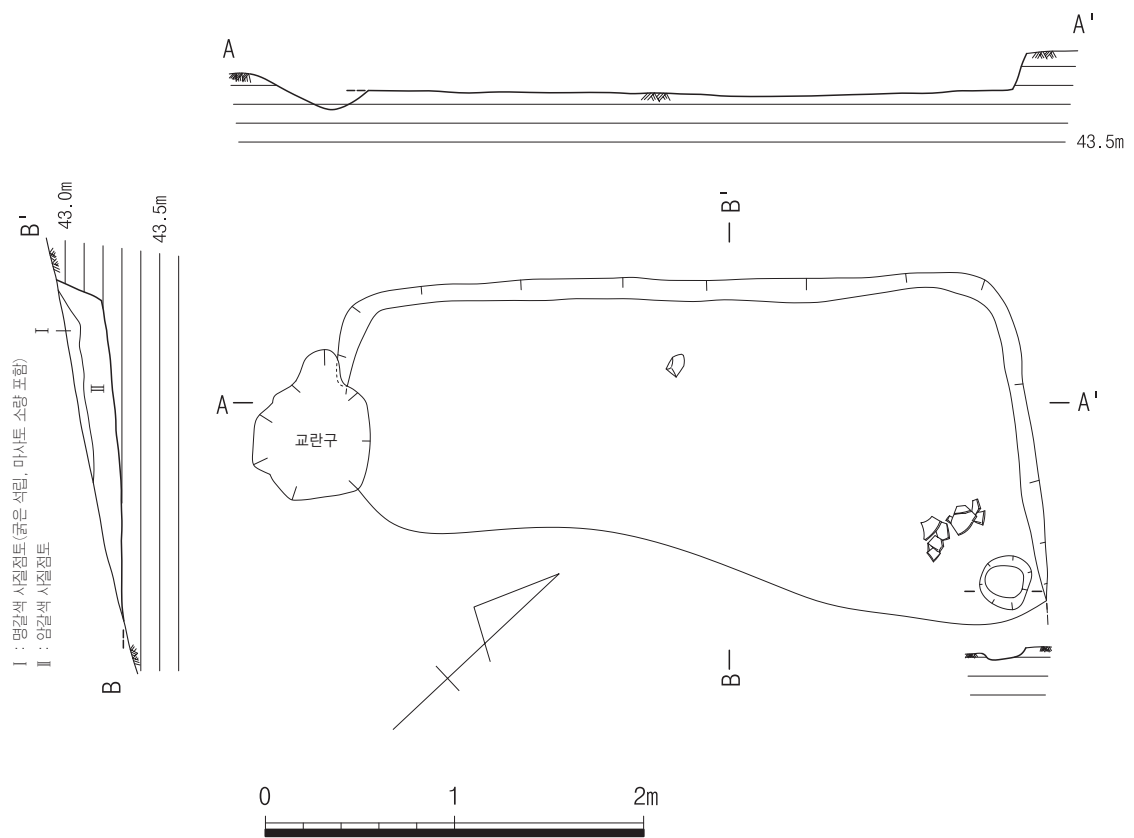
(38) 38號 住居址

가. 遺構(도면 57, 사진 76-①~③)

37호 주거지에서 북동쪽으로 13m 떨어져 위치하며, 구릉의 동쪽 사면(해발 44m)에 생토층을 굴착하여



도면 56. 37호주거지 출토유물



도면 57. 38호주거지 유구 및 출토유물

조성한 수혈식의 구조이다. 경사면의 아래쪽인 남동쪽이 유실되었으나 남아 있는 상태로 볼 때 평면 형태는 방형 또는 장방형일 것으로 추정된다. 규모는 길이 364cm, 남아 있는 너비 170cm, 최대 깊이 28cm이다.

내부는 명갈색 사질점토와 암갈색 사질점토로 채워져 있었다. 삭평이 심하여 내부의 구조는 알 수가 없었다. 동쪽 벽에 접하여 지름 25cm, 깊이 10cm정도의 주혈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내부에서 호편이 수습되었다.

나. 遺物

① 호(도면 57-1, 사진 76-④)

동체부와 저부 일부만 남아 있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고 내외면 은 흑회색, 속심은 암갈색이다. 경질이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외면에는 평행타날후 정면되어 타날흔이 희미하게 관찰되고 내면에는 내박자흔과 물레흔, 점토띠흔, 물손질흔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동하부는 바닥과 접합한 후 정면한 흔적이 관찰된다. 현재 높이 18.3cm

2) 豎穴

(1) 1號 豎穴

가. 遺構(도면 58, 사진 77-①·②)

조사구역의 구릉 서쪽 사면(해발 40m)에 위치하며 3호 주거지에서 서쪽으로 19.2m 떨어져 있다. 생토층을 파고 조성되었으며 평면 형태는 부정형이고 주축 방향은 동-서 방향으로 등고선에 직교한다. 규모는 길이 625cm, 너비 362cm, 최대 깊이 20cm이다.

내부에는 암갈색 사질점토와 회갈색 점토가 채워져 있었고 동쪽 절반부에서는 할석이 포함되어 있었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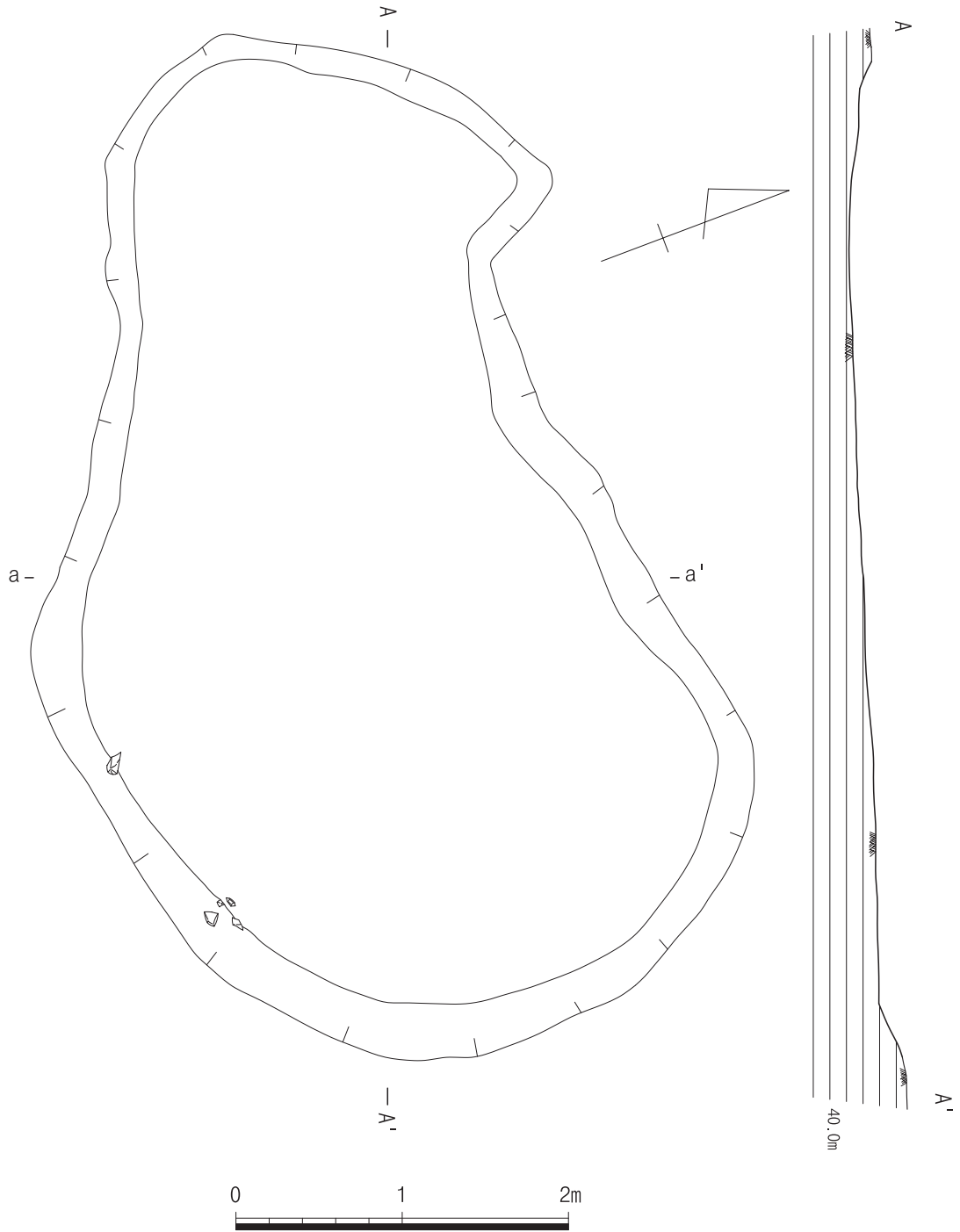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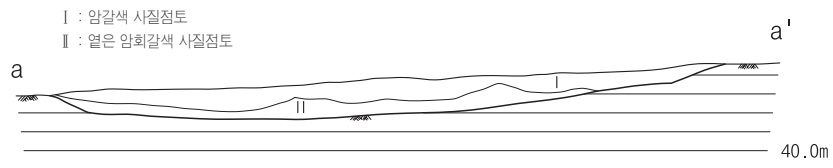
(2) 2號 豎穴

가. 遺構(도면 59, 사진 77-①·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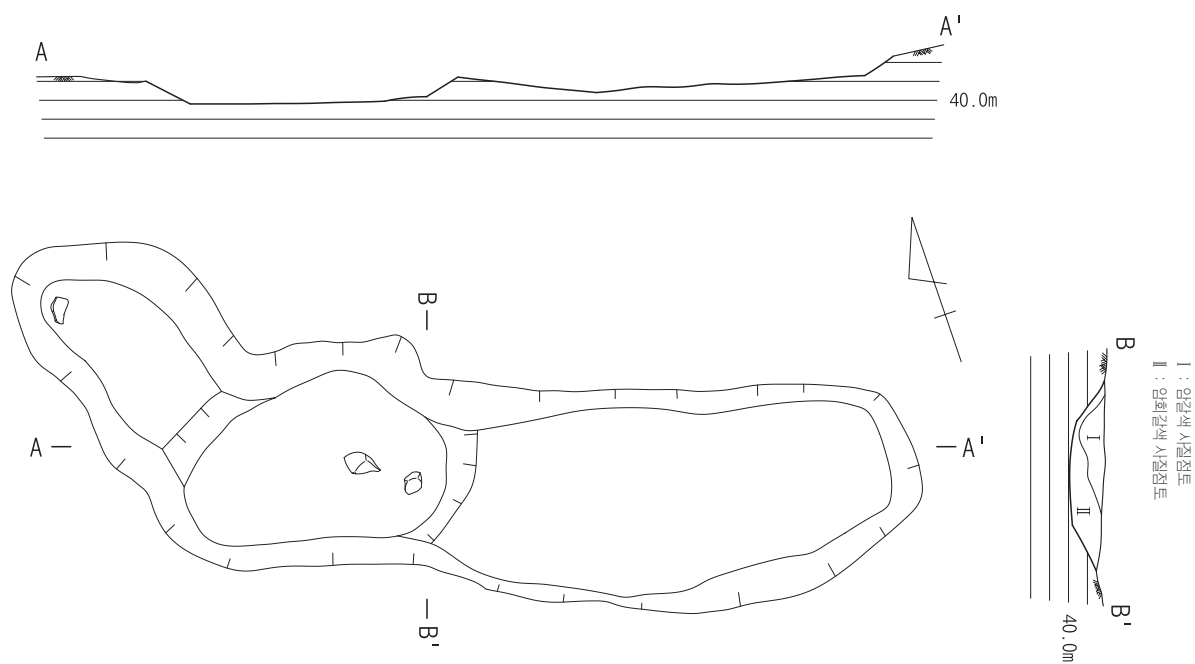
조사구역의 구릉 서쪽 사면(해발 40m)에 위치하며 1호 수혈과 50cm 거리를 두고 인접해 있다. 생토층을 파고 조성되었으며 평면 형태는 부정형이고 주축 방향은 동-서 방향으로 등고선에 직교한다. 규모는 길이 490cm, 너비 104cm, 최대 깊이 20cm이다.

내부에는 암갈색 사질점토와 회갈색 점토가 채워져 있었고 서쪽으로 치우친 곳에 단을 지워 더 깊이 굴착한 곳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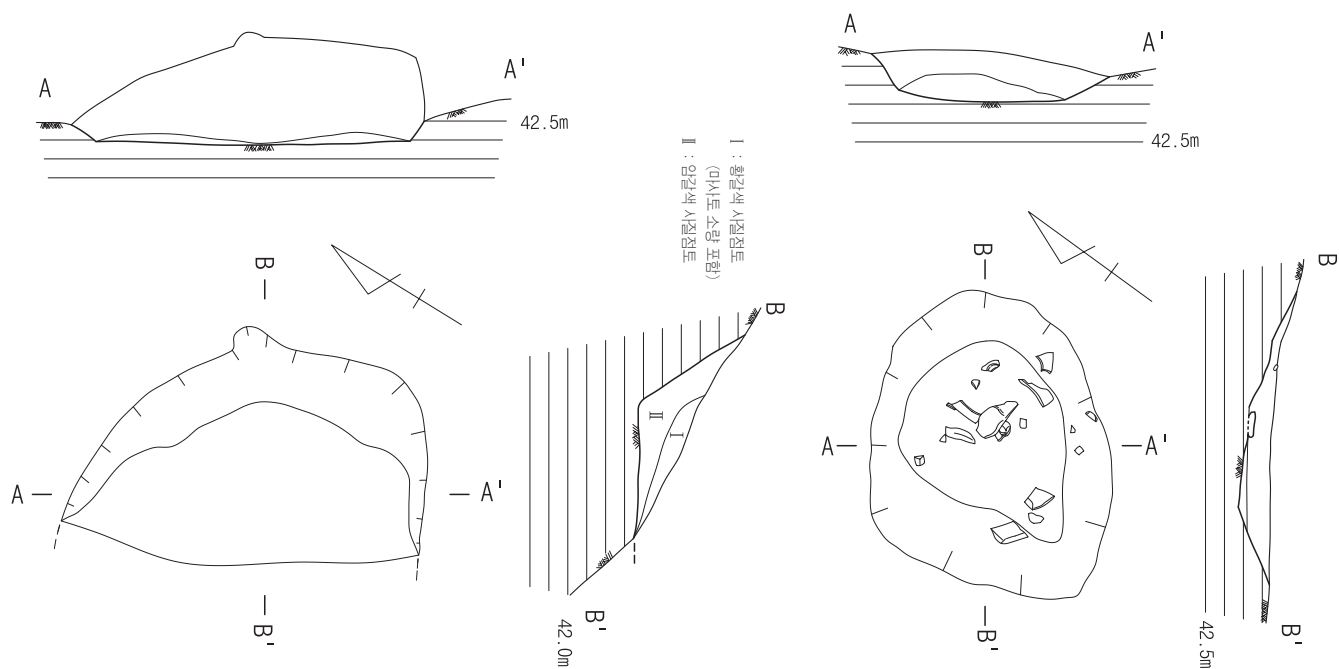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도면 58. 1호수혈 유구



도면 59. 2호수혈 유구



도면 60. 3호수혈 유구

도면 61. 4호수혈 유구

(3) 3號 豎穴

가. 遺構(도면 60, 사진 78-①·②)

조사구역의 구릉 서쪽 사면(해발 42m)에 위치하며 3호 주거지와 30cm 거리를 두고 인접해 있다. 생토층을 파고 조성되었으며 경사면 아래쪽인 서쪽이 거의 유실되고 동쪽 일부만 남아 있어 평면 형태는 파악하기 어렵다. 규모는 길이 198cm, 남아 있는 너비 108cm, 최대 깊이 54cm이다.

경사면의 위쪽인 동쪽은 깊게 남아 있는데 내부에서는 황갈색 사질점토와 암갈색 점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4) 4號 豎穴

가. 遺構(도면 61, 사진 78-③·④)

조사구역의 구릉 서쪽 사면(해발 42m)에 위치하며 5호 주거지와 70cm 거리를 두고 인접해 있다. 생토층을 파고 조성되었으며 평면 형태는 타원형이다. 규모는 길이 169cm, 너비 127cm, 최대 깊이 24cm이다.

내부에는 사질점토가 'U' 자상으로 퇴적되어 있었고 바닥면은 완만하게 경사진다.

유물은 내부에서 도기편과 백자편이 출토되었다.

나. 遺物

① 구연부편(도면 67-1, 사진 78-⑦)

일부만 남아 있는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세석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며 내외면 모두 회흑색이다. 연질이며 소성은 불량하다. 기면의 박리가 심하다. 현재 높이 5.9cm

② 구연부편(도면 67-2, 사진 78-⑥)

일부만 남아 있는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세석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며 내외면 모두 회흑색이고 속심은 회색이다. 연질이며 소성은 보통이다. 기면의 일부가 박리되었고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다. 현재 높이 6.65cm

③ 저부편(도면 67-3, 사진 78-⑧)

일부만 남아 있는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세석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며 내외면 모두 회흑색이고 속심은 회색이다. 연질이며 소성은 보통이다. 평저이며 바닥과 동체부의 접합후 내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고 외면은 깎기의 흔적이 관찰된다. 현재 높이 3.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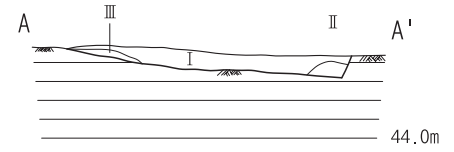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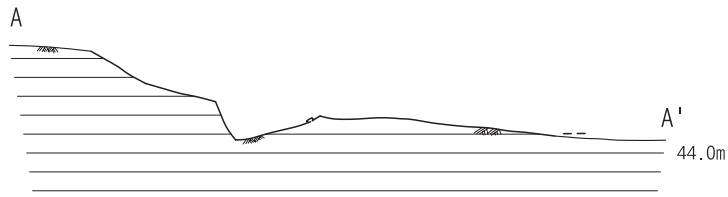
④ 백자 저부(도면 67-4, 사진 78-⑤)

굽과 바닥만 남아 있다. 태토는 백색이며 입자가 치밀하다. 내외면에는 연청색의 유약을 시유하였다. 내면의 바닥과 굽의 접지면에는 굵은 모래가 둥글게 부착되어 있다. 현재 높이 2.9cm, 굽경 6.45cm

(5) 5號 豎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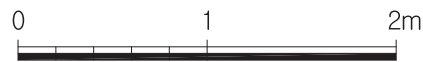
가. 遺構(도면 62, 사진 79-①·②)

- I : 암갈색 사질점토
- II : 붉은 암갈색 사질점토(마사토 소량 포함)
- III : 붉은 황갈색 사질점토(마사토 포함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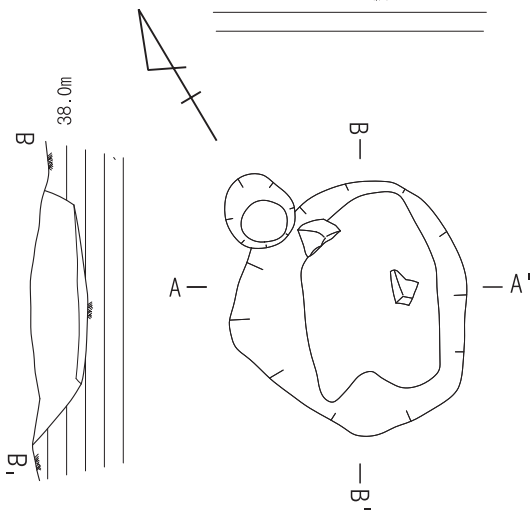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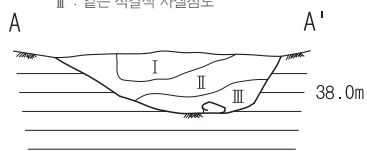


도면 62. 5호수혈 유구

도면 63. 6호수혈 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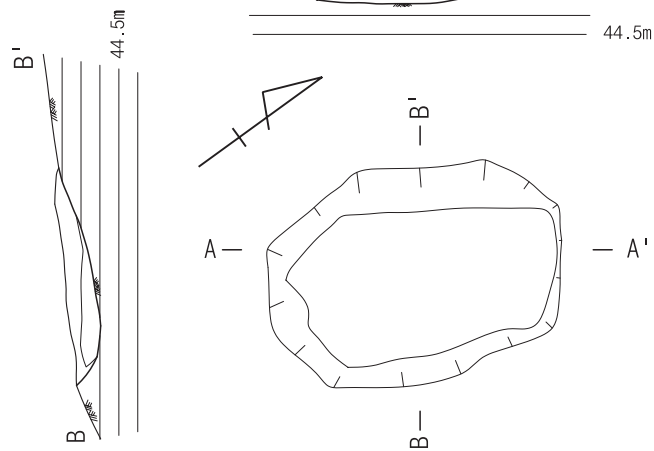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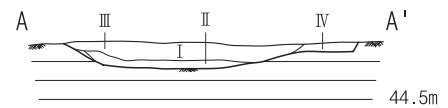


- I : 적갈색 사질점토(점성이 강함)
- II : 회갈색 사질점토(굵은 석립 포함)
- III : 붉은 적갈색 사질점토



도면 64. 7호수혈 유구

- I : 암적갈색 사질점토(소토, 굵은석립 포함)
- II : 암갈색 사질점토(목탄흔 소량 포함)
- III : 흑갈색 사질점토(목탄흔 집중 노출층)
- IV : 회황갈색 사질점토(마사토 소량 포함)



도면 65. 8호수혈 유구

조사구역의 구릉 남쪽 사면(해발 38m)에 위치하며 28호 주거지에서 남쪽으로 4.4m 떨어져 있다. 생토층을 파고 조성되었으며 평면 형태는 원형이다. 규모는 길이 128cm, 너비 104cm, 최대 깊이 33cm이다.

내부에는 적갈색 사질점토와 회갈색 사질점토로 채워져 있었고 바닥면은 완만하게 경사진다. 주변에 크고 작은 주혈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나 수혈과의 직접적인 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6) 6號 豎穴

가. 遺構(도면 63, 사진 79-③·④·⑥)

조사구역의 구릉 남쪽 사면(해발 44m)에 위치하며 33호 주거지에서 서쪽으로 3.5m 떨어져 있다. 생토층을 파고 조성되었으며 경사면의 아래쪽인 서쪽벽이 유실되었으나 평면 형태는 장방형이다. 주축 방향은 동서 방향으로 등고선에 직교한다. 규모는 남아 있는 길이 327cm, 너비 127cm, 최대 깊이 20cm이다.

내부에는 암갈색 사질점토로 채워져 있었고 벽과 바닥은 완만하게 경사진다. 동쪽에 길이 62cm, 너비 31cm, 깊이 20cm의 타원형 주혈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내부에서 파손된 백자 접시가 출토되었다.

나. 遺物

① 백자 접시(도면 67-5 사진 79-⑤)

절반 정도가 남아 있다. 태토는 황갈색이며 입자가 치밀하다. 굽을 제외한 전면에 회백색의 유약이 시유되었는데 외면에는 일부가 묻혀져 있다. 내면의 바닥에 받침흔이 2군데 남아 있고 굽의 접지면에는 한군데가 탈락되어 있다. 현재 높이 4.55cm

(7) 7號 豎穴

가. 遺構(도면 64, 사진 80-①·②)

조사구역의 구릉 동쪽 사면(해발 44m)에 위치하며 38호 주거지와 1m 거리를 두고 인접해 있다. 생토층을 파고 조성되었으며 평면 형태는 부정형이다. 규모는 길이 185cm, 너비 150cm, 최대 깊이 12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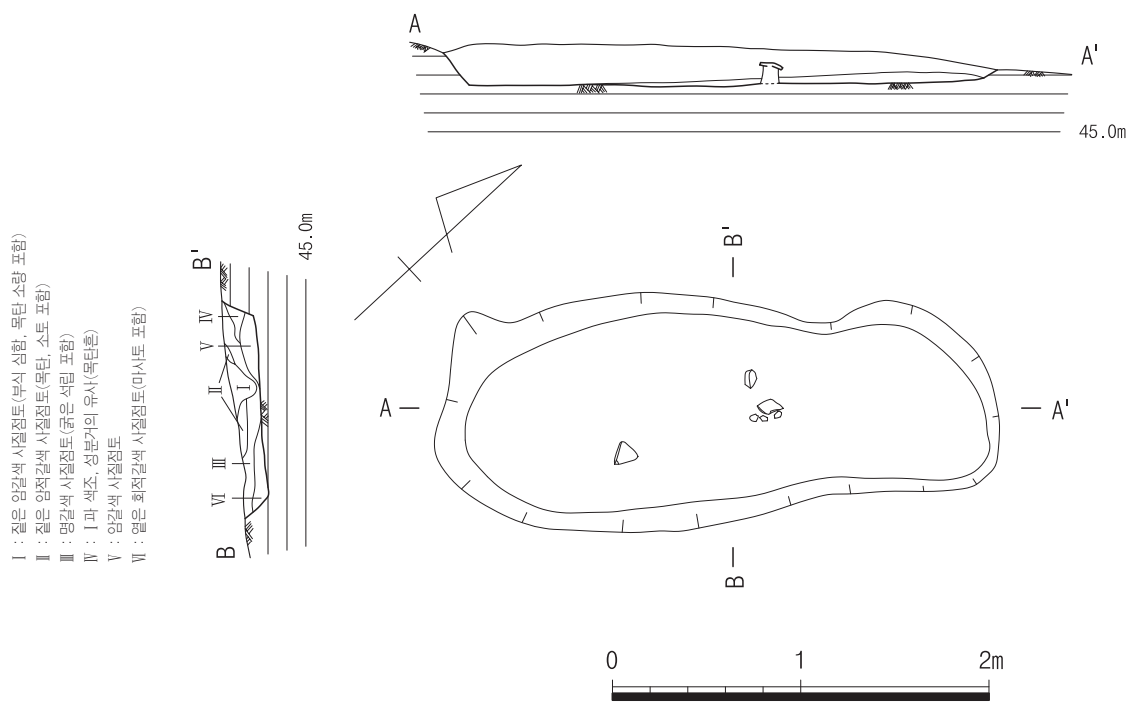
내부에는 암갈색 사질점토로 채워져 있었다. 삭평이 심하여 북동쪽 벽과 바닥만 남아 있다. 벽은 잘 다듬어져 있으며 바닥은 완만하게 경사진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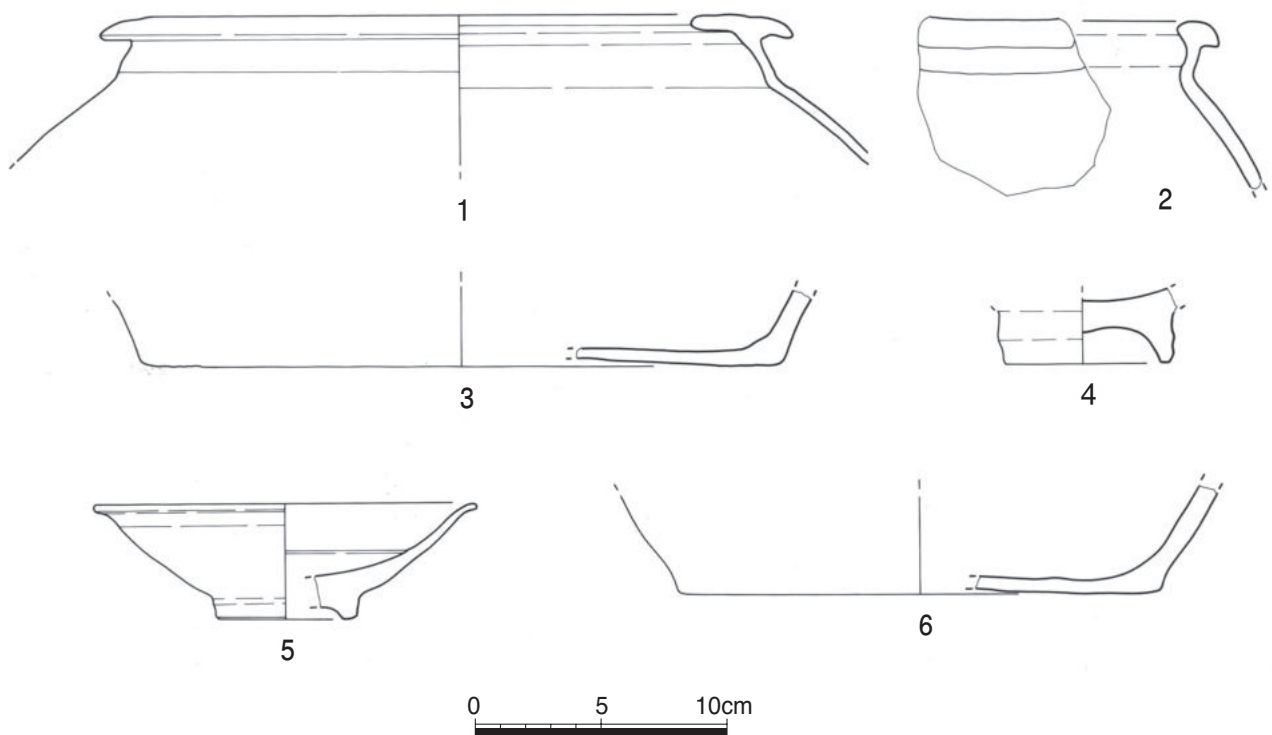
(8) 8號 豎穴

가. 遺構(도면 65, 사진 80-③·④)

조사구역의 구릉 동쪽 사면(해발 44m)에 위치하며 7호 수혈과 80cm 거리를 두고 인접해 있다. 생토층을 파고 조성되었으며 평면 형태는 타원형이다. 주축 방향은 북동-남서 방향으로 등고선에 평행한다. 규모는 길



도면 66. 9호수혈 유구



도면 67. 4호수혈(1~4), 6호수혈(5), 9호수혈(6) 출토유물

이 158cm, 너비 117cm, 최대 깊이 15cm이다.

내부에는 적갈색 사질점토와 암갈색 사질점토로 채워져 있었고 목탄이 집중된 부분도 있었다. 벽과 바닥은 완만하게 경사진다. 바닥면은 열에 의해 붉은 색으로 변색되었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9) 9號 豎穴

가. 遺構(도면 66, 사진 80-⑤·⑥)

조사구역의 구릉 동쪽 사면(해발 45m)에 위치하며 8호 수혈에서 5.2m 떨어져 있다. 생토층을 파고 조성되었으며 평면 형태는 장타원형이다. 주축 방향은 북동-남서 방향으로 등고선에 평행한다. 규모는 길이 300cm, 너비 117cm, 최대 깊이 20cm이다.

경사면의 위쪽인 남서쪽이 깊게 남아 있으며 내부에는 암갈색, 적갈색, 회갈색의 사질점토로 채워져 있었다. 벽면과 바닥면은 잘 다듬어져 있다.

유물은 내부에서 도기편이 수습되었다.

나. 遺物

① 저부편(도면 67-6, 사진 80-⑦)

일부만 남아 있는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세석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며 내외면 모두 회색이다. 연질이며 소성은 보통이다. 평저이며 바닥과 동체부의 접합부 내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고 외면은 시계방향으로 깎기의 흔적이 관찰된다. 현재 높이 4.20cm

3) 建物址

(1) 1號 建物址

가. 遺構(도면 68, 사진 81~84-①~④)

조사구역의 구릉 동쪽 사면에 위치한다. 14호 묘에서 동쪽으로 17m 떨어져 해발 45~46m에 걸쳐 있다. 유구가 확인되는 범위는 9×9.5m 범위로 중앙부에 주거지로 추정되는 건물과 그 동북쪽에 이 주거지와 별개의 건물로 추정되는 또다른 건물이 있고, 이들 건물 뒤쪽에 담장으로 추정되는 석열이 있다. 자연유실과 삭평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면모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중앙부의 주거지는 4줄의 고래 흔적과 배연부, 아궁이, 아궁이 앞의 수혈이 확인되며, 남아 있는 벽의 형태로 보아 평면은 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추정된다. 주축 방향은 북서-남동 방향으로 등고선에 직교한다. 고래는 4줄이 흔적만 남아 있고 주변에 구들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석재들이 널려 있다. 고래의 너비는 30cm 정도이고 고래와 고래사이의 간격은 일정하지 않다. 아궁이는 고래의 앞쪽에서 확인되는데 길이 2m, 너비 1.5m로 타원형에 가깝게 수혈을 파고 시설을 하였다. 수혈의 깊이는 50cm정도이며, 내부는 소토와 목탄으로 채워져 있었으며, 부뚜막으로 사용된 돌이 세워진 채로 남아 있고, 그 앞쪽에 지름 35cm인 원형 구덩이가

확인된다. 아궁이의 앞쪽에 아궁이와 20cm의 간격을 두고 확인된 수혈은 평면이 장방형으로 길이 2m, 너비 50cm, 깊이 50cm 정도이며 적갈색 사질점토와 암갈색 사질점토가 소토와 목탄과 함께 U자상으로 퇴적되어 있었다. 내부에서 연질의 파수부옹이 출토되었다. 배연부는 동북쪽 벽면에서 밖으로 돌출되게 길이 1.2m, 너비 20cm로 만들었다.

주거지 동북쪽의 또 다른 건물은 주거지보다 약간 낮은 위치에서 확인되며 북쪽 모서리 양쪽 가장자리에 석열이 노출되고 있는데 주거지에서 노출되는 석열과 연결될 가능성도 있으나 유실이 심하여 확인할 수는 없었다. 남동쪽 아궁이와 대칭되는 지점에 암갈색과 흑갈색 사질점토가 목탄과 소토와 함께 퇴적된 방향의 수혈이 확인된다. 수혈에는 소토가 부분적으로 집중되고 있고, 동쪽 모서리쪽에 치우쳐 지름 1m정도의 원형 수혈이 확인되며, 원형수혈의 내부에는 할석이 깔려져 있고 열에 의해 변색된 부분도 있었다.

담장은 주거지에서 3m 정도 떨어져서 주거지의 바닥면보다 50cm 높은 위치에 3m 정도의 석열이 확인된다.

유물은 백자와 경질과 연질의 도기, 기와 등이 비교적 많이 출토되었으나 안정적인 위치보다는 조사과정에서 수습된 것이 대부분이다.

나. 遺物

① 백자 잔(도면 70-1, 사진 85-①)

절반이 남아 있다. 태토는 회백색이며 입자가 매우 치밀하다. 전면에 회색의 유약이 고르게 시유되었다. 구연부는 외반하고 굽은 직립한다. 굽의 접지면에는 모래가 소량 부착되어 있고 받침에 의해 탈락된 곳도 2군데 있다. 높이 5.5cm

② 백자 잔(도면 70-2, 사진 85-②)

구연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회백색이며 입자가 매우 치밀하다. 동하부와 굽을 제외한 전면에 연청색의 유약이 시유되었는데 외면에는 문쳐지고 흘러내리기도 하였다. 빙열도 심하다. 외면에 시유되지 않은 부분에는 회전깍기흔이 확인된다. 굽의 접지면 3군데는 받침에 의해 탈락되었다. 높이 4.7cm, 구경 10.6cm, 굽경 4.8cm

③ 백자 잔(도면 70-3, 사진 85-③)

구연부와 동체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회백색이며 입자가 매우 치밀하다. 동하부와 굽을 제외한 전면에 회색의 유약이 시유되었는데 외면에는 문쳐지고 흘러내리기도 하였다. 외면에 시유되지 않은 부분에는 회전깍기흔이 확인된다. 굽의 접지면 3군데는 받침에 의해 탈락되었다. 높이 4.55cm

④ 백자 저부(도면 70-4, 사진 85-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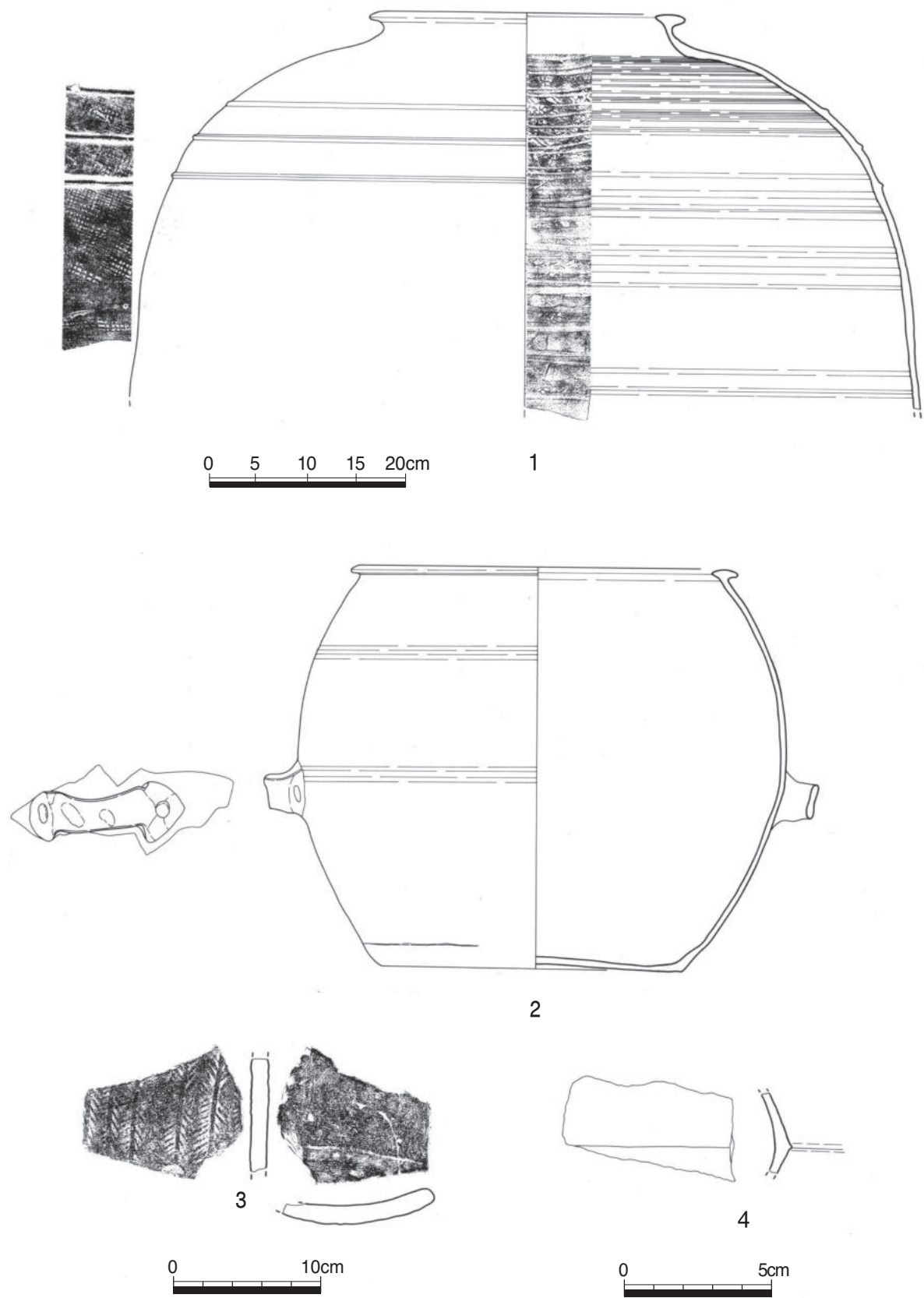
태토는 회색이며 입자가 매우 치밀하다. 굽을 제외한 전면에 유약이 시유되었는데 회황색이다. 내면에는 태토로 빚은 받침흔이 5군데 남아 있고 굽의 접지면에도 5군데 확인되는데 1군데는 떨어져 나갔다. 현재 높이 2.95cm

⑤ 백자 발(도면 70-5, 사진 85-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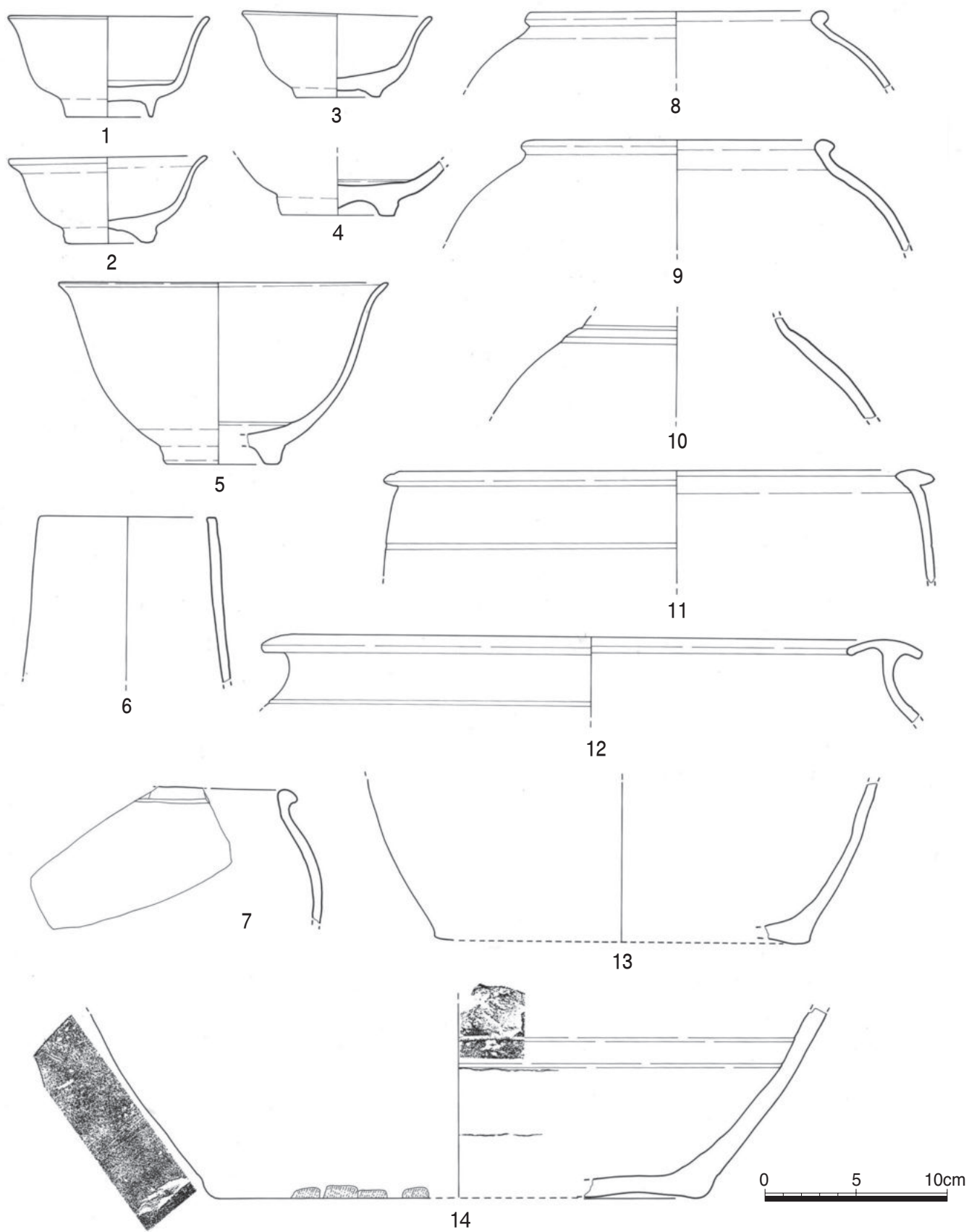
태토는 회색이며 입자가 매우 치밀하다. 굽을 제외한 전면에 회색의 유약이 시유되었다. 내면에는 태토로 빚은 받침흔이 2군데 확인되고 굽의 접지면에도 2군데 확인되는데 기면이 떨어져 나갔다. 높이 9.9cm

⑥ 옹편(도면 69-1, 사진 84-⑥)

구연부와 동체부가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세석립이 다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고 외면



도면 69. 1호건물지 출토유물



도면 70. 1호건물지 출토유물

은 회흑색, 내면은 회청색, 속심은 암자색이다. 경질이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외면에는 자연유가 부착 산화되어 기면이 거칠다. 동체부의 외면에는 사방향으로 격자타날을 한 다음 돌대를 만들어 붙였다. 돌대의 단면은 삼각형이다. 내면에는 점토피흔과 화문 내박자흔, 회전물레흔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구연부의 내외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다. ⑬의 저부편과 동일 개체일 가능성이 있다. 현재 높이 39.8cm

⑦ 파수부옹(도면 69-2, 사진 84-⑤)

구연부는 일부만 남아있고, 동체부는 1/2정도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백색 세사립과 운모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며, 내외면과 속심이 모두 회황색이다. 연질이며 소성상태는 보통이다. 구연단부는 넓은 면을 이루면서 동체부로 이어진다. 외면은 동상위에서 중위까지 3줄의 돌대를 만들었고, 돌대 사이에 2줄의 파상문을 돌렸다. 파수는 3번째 돌대 바로 아래에 붙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파수는 넓은 띠모양이며, 좌우 끝쪽에 점토를 둥글고 납작하게 만들어 붙여 장식하였다. 동하위 아래쪽으로는 손누름흔, 점토보강흔, 종방향의 물손질 정면흔적이 확인된다. 저부에는 소분흔적이 남아있다. 내면에는 동중위로부터 동하위에까지 횡방향 평행선문 내박자 흔적이 나타난다. 높이 40.7cm

⑧ 구연부편(도면 70-6, 사진 85-⑪)

일부만 남아 있는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며 내외면은 모두 황갈색이다. 연질이며 소성상태는 보통이다. 원통형으로 기형을 파악하기 어렵다. 현재 높이 9.0cm

⑨ 구연부편(도면 70-7, 사진 85-⑩)

일부만 남아 있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며 내외면은 모두 적갈색, 속심은 흑회색이다. 연질이며 소성상태는 보통이다. 기면의 마모가 심하다. 현재 높이 7.3cm

⑩ 구연부편(도면 70-8, 사진 85-⑦)

일부만 남아 있는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며 내외면은 모두 흑회색이다. 경질이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외면에는 자연유가 부착·산화되었다. 구연부는 밖으로 말아 붙였다.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현재 높이 4.2cm

⑪ 구연부편(도면 70-9, 사진 85-⑬)

일부만 남아 있는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며 내외면은 모두 적갈색, 속심은 흑회색이다. 연질이며 소성상태는 보통이다. 기면의 마모가 심하다. 현재 높이 6.0cm

⑫ 구연부편(도면 70-10, 사진 85-⑨)

일부만 남아 있는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며 내외면은 모두 황갈색이다. 연질이며 소성상태는 보통이다. 기면의 마모가 심하다. 내면에는 와문 내박자흔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현재 높이 5.45cm

⑬ 구연부편(도면 70-11, 사진 85-⑫)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며 내외면은 회흑색, 속심은 회색이다. 연질이며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구연부는 밖으로 꺾어서 붙였고 단부에凹면이 있다. 내외면 모두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다. 현재 높이 6.15cm

⑭ 구연부편(도면 70-12, 사진 85-⑧)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며 내외면은 흑회색, 속심은 암자색이다. 경질이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구연단부에는 자연유가 부착 산화되어 단면의 암자색이 노출되었

다. 내외면 모두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다. 현재 높이 4.5cm

⑮ 저부편(도면 70-13, 사진 85-⑭)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며 내외면은 흑회색, 속심은 암갈색이다. 경질이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외면에는 사방향의 평행타날흔이 희미하게 관찰되고 바닥과 접합후 정면한 흔적이 확인된다. 내면에는 바닥면에 자연유가 부착되어 있고 점토띠흔과 내박자흔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현재 높이 8.8cm

⑯ 저부편(도면 70-14, 사진 85-⑮)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며 외면과 속심은 흑회색, 내면은 회청색이다. 경질이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외면에는 격자타날흔이 희미하게 관찰되고 바닥과 접합후 정면한 흔적이 남아 있으며 경계부는 말각으로 처리하였다. 내면에는 점토띠흔과 화문 내박자흔, 물레흔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⑥의 옹편과 동일 개체일 가능성이 있다. 현재 높이 10.05cm

⑰ 암키와(도면 69-3, 사진 85-⑥)

어골문 황갈색 연질 암키와편이다. 태토는 석립이 다수 혼입된 사질점토질이며 등면은 마모되어 문양대가 뚜렷하지 않다. 배면역시 표면이 박리되어 포목흔은 관찰되지 않으며 분할면은 단면이 마모되어 와도흔이 뚜렷하지 않으나 내면에서 외면으로 분할되었으며 대체적인 윤곽으로 미루어 1~2mm가량 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길이 14cm, 현재 너비 15cm, 두께 1.4cm

⑱ 鐵釜片(도면 69-4, 사진 84-⑦)

일부만 남아 있는데 수화가 진행되었다. 鑄造製이며 횡방향으로 날카롭게 稜이 져 있다. 두께 0.3~0.5cm, 무게 89g

(2) 2號 建物址

가. 遺構(도면 71, 사진 86·87)

조사구역의 구릉 동쪽 사면(해발 43m) 36호 주거지와 37호 주거지 사이에 위치한다. 유구는 석열 일부와 적심으로 추정되는 원형수혈 3개만 확인되는데 전체적으로 자연유실이 심하고, 11호 묘와 12호 묘가 조성되면서 대부분이 파괴되어 전체적인 면모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석열은 등고선 방향과 나란하게 2m 정도만 남아 있다.

석열의 앞쪽에 50cm 거리를 두고 길이 90cm, 너비 63cm, 깊이 23cm의 적심 1이 확인된다. 적심 2는 적심 1에서 북동쪽으로 3m가 떨어져 있으며, 규모는 길이 110cm, 너비 90cm, 깊이 18cm이다. 적심 3은 적심 2에서 1.1m 떨어져 있으며 규모는 길이 55cm, 너비 50cm, 깊이 10cm이다. 적심간의 축은 2개씩만 본다면 일직선상에 배치되나 3개는 어긋나고 적심이 크기, 간격 등을 볼 때 적심 1과 적심 2만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적심과 석열과는 노출된 거리나 연결축으로 볼 때 관련성을 찾기는 어렵다.

유물은 상부에서 백자와 도기편, 기와 등이 수습되었다.

나. 遺物

① 백자 발(도면 72-1, 사진 88-①)

동체부 1/2정도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백색이며 입자가 매우 치밀하다. 굽을 제외한 전면에 명회색의 유약이 시유되었는데 일부는 뭉쳐지고 흘러내렸다. 동하부는 자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황갈색을 띤다. 내면에는 태토로 빚은 받침흔이 4군데 남아 있고 굽의 접지면에도 4군데 확인되는데 기면이 떨어져 나갔다. 높이 8.9cm

② 백자 발(도면 72-2, 사진 88-②)

동체부의 3/4정도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회백색이며 입자가 매우 치밀하다. 굽을 제외한 전면에 연청색의 유약이 시유되었는데 일부는 뭉쳐지고 흘러내렸다. 동하부는 자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황갈색을 띤다. 내면에는 태토로 빚은 받침흔이 4군데 남아 있고 굽의 접지면에도 4군데 확인되는데 기면이 모두 떨어져 나갔다. 높이 8.5cm

③ 백자 발(도면 72-4, 사진 88-④)

동체부 일부와 구연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적갈색이며 입자가 매우 치밀하다. 굽을 제외한 전면에 회색의 유약이 시유되었다. 내면 바닥에는 백색 석립이 부착되었고 굽과 동하부에는 석립과 잡물이 엉켜서 부착되었다. 현재 높이 3.7cm

④ 백자 접시(도면 72-3, 사진 88-③)

동체부의 2/3정도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회백색이며 입자가 매우 치밀하다. 굽을 제외한 전면에 회백색의 유약이 시유되었는데 일부는 뭉쳐지고 흘러내렸다. 내면에는 태토로 빚은 받침흔이 4군데 남아 있고 굽의 접지면에도 4군데 확인되는데 기면이 모두 떨어져 나갔다. 높이 5.9cm

⑤ 굽편(도면 72-5, 사진 88-⑤)

굽과 내면 바닥만 남아 있다. 태토는 회백색이며 입자가 치밀하다. 굽을 제외한 전면에 녹색의 유약이 시유되었다. 굽의 접지면에는 받침에 의해 기면이 떨어져 나간 곳이 2군데에 있다. 현재 높이 1.3cm, 굽경 4.5cm

⑥ 파수편(도면 72-6, 사진 89-③)

판상파수편으로 일부만 남아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이며 회백색이다. 연질이며 소성상태는 보통이다. 길이 5.2cm

⑦ 경부편(도면 72-7, 사진 89-①)

일부만 남아 있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며 내외면은 회청색, 속심은 암자색이다. 경질이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경부에 현문을 3줄 새겼다.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다. 현재 높이 8.1cm

⑧ 구연부편(도면 72-8, 사진 88-⑧)

일부만 남아 있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며 내외면은 모두 황갈색이다. 연질이며 소성상태는 보통이다. 단부에凹면이 있다. 내외면 모두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다. 현재 높이 3.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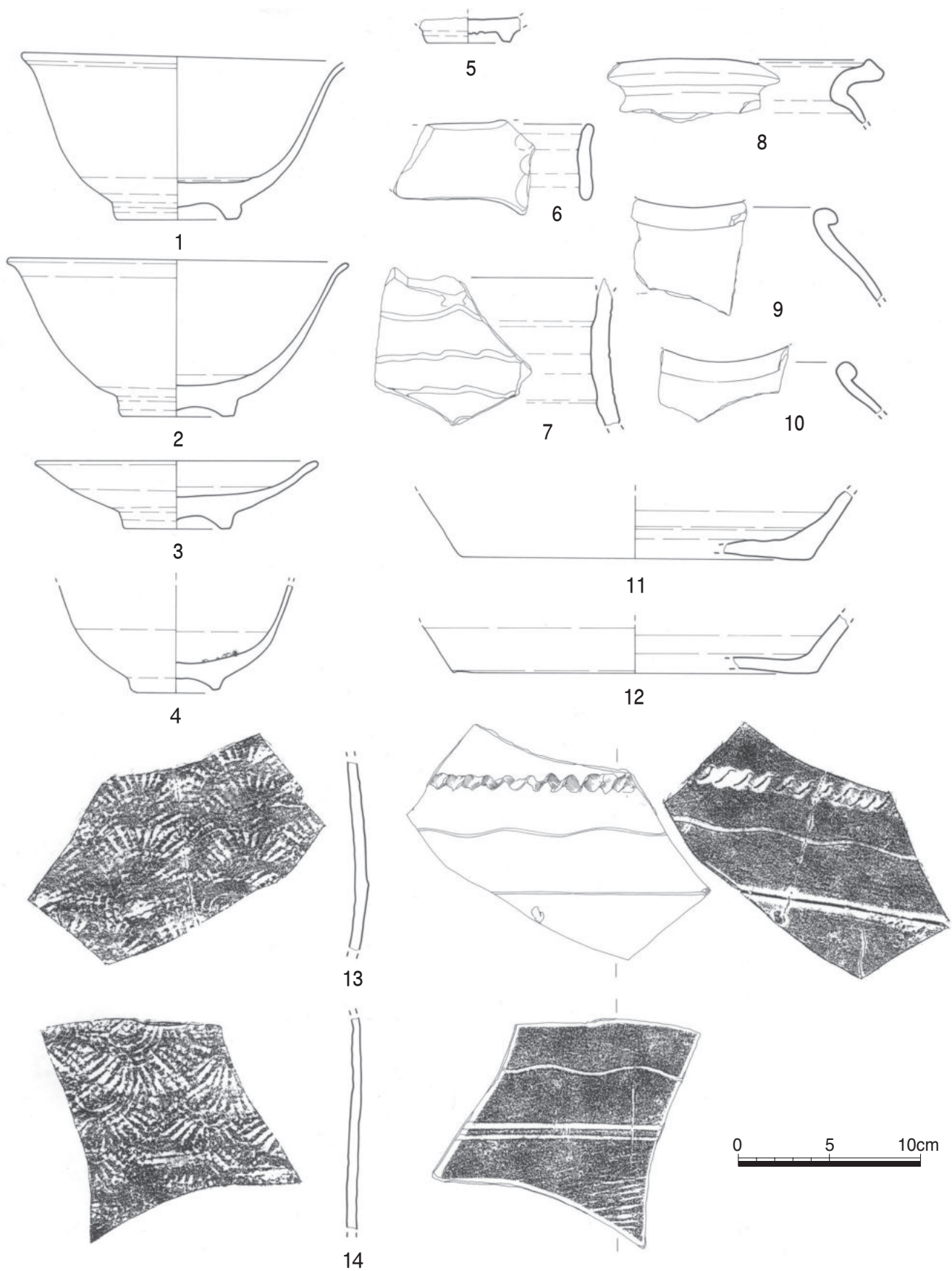
⑨ 구연부편(도면 72-9, 사진 88-⑨)

일부만 남아 있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며 내외면은 모두 회흑색이다. 경질이며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내외면 모두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다. 현재 높이 5.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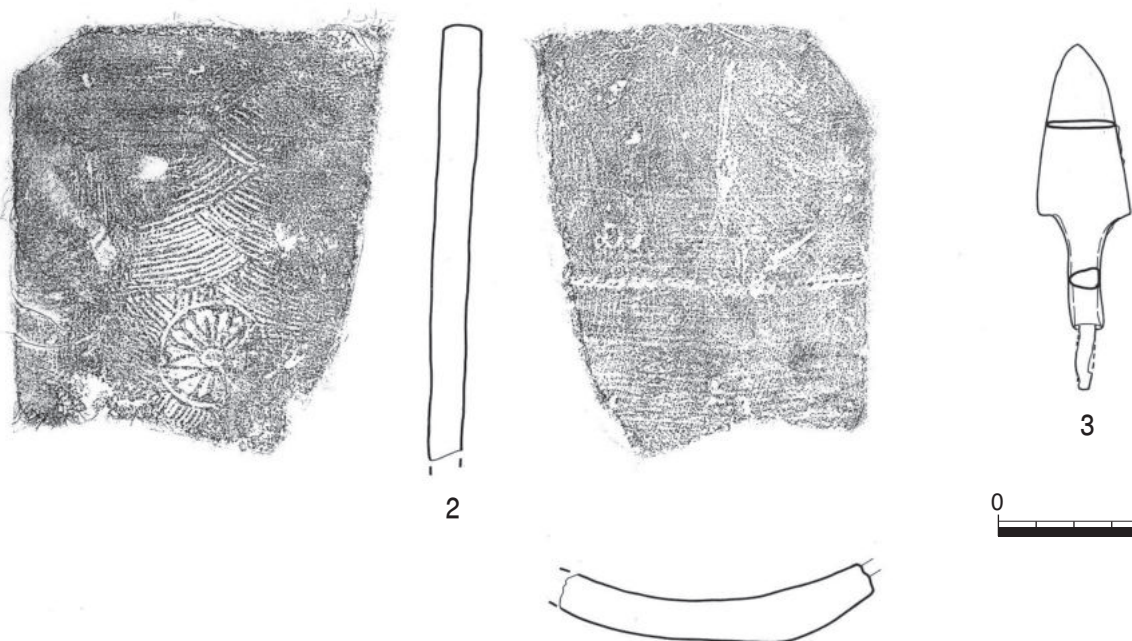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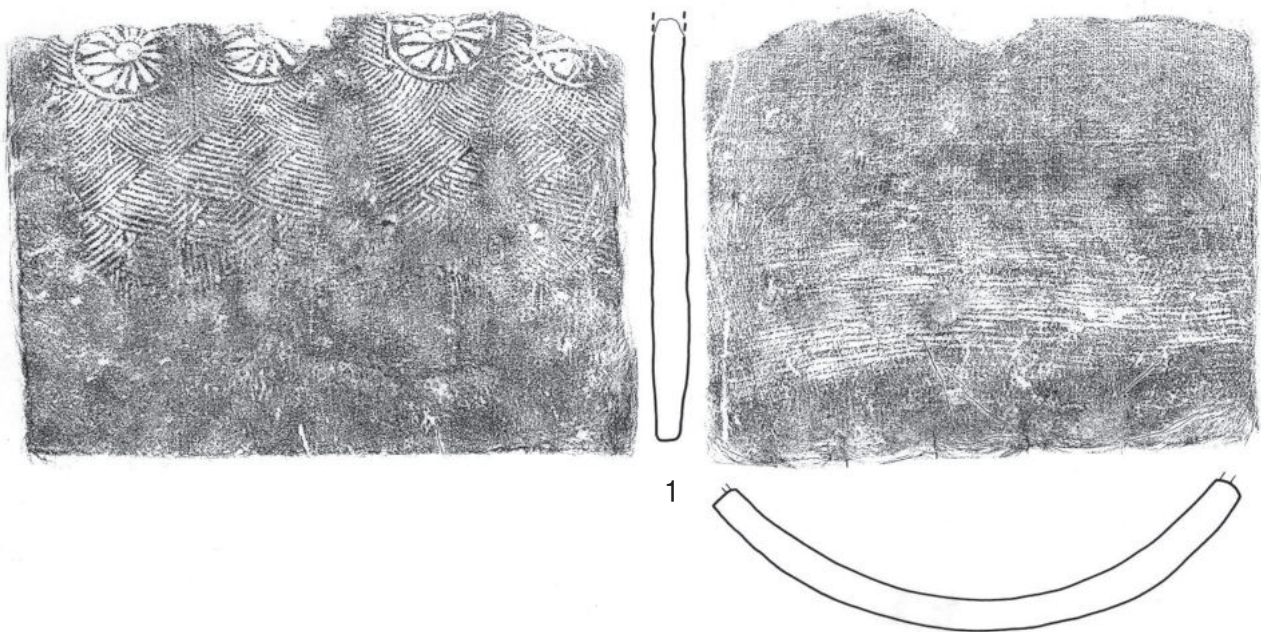
⑩ 구연부편(도면 72-10, 사진 88-⑩)

일부만 남아 있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며 내외면은 모두 회흑색, 속심은 암자색이다. 경질이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밖으로 말아서 붙였다. 내외면 모두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다. 현재 높이 3.3cm

⑪ 저부편(도면 72-11, 사진 88-⑥)



도면 72. 2호건물지 출토유물



도면 73. 2호건물지 출토유물

일부만 남아 있는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며 내외면은 모두 회백색, 속심은 적갈색이다. 연질이며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외면에는 격자타날흔이 뚜렷하게 남아 있고 바닥과의 접합부는 깎기로 정면한 흔적이 있다. 현재 높이 3.4cm

⑫ 저부편(도면 72-12, 사진 88-⑦)

일부만 남아 있는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며 내외면은 모두 회흑색이다. 연질이며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외면에는 바닥과 접합후 깎기로 정면한 흔적이 있다. 현재 높이 2.6cm

⑬ 동체부편(도면 72-13, 사진 89-④)

일부만 남아 있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며 내외면은 모두 흑회색, 속심은 암자색이다. 경질이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외면에는 한줄의 파상문과 점토띠를 눌러 붙여 돌출된 파상문을 만들었다. 내면에는 부채살 모양의 내박자흔이 뚜렷하다. 현재 높이 10.1cm

⑭ 동체부편(도면 72-14, 사진 89-⑤)

일부만 남아 있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며 내외면은 모두 흑회색, 속심은 암자색이다. 경질이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외면에는 한줄의 파상문과 평행타날이 남아 있고 내면에는 부채살 모양의 내박자흔이 뚜렷하다. 현재 높이 11.5cm

⑮ 암키와(도면 73-1, 사진 89-⑥)

화문복합문의 회청색 경질 암키와편이다. 태토는 정선된 사질점토질에 석립이 혼입된 태토이다. 등면 문양은 비교적 선명한 편이며, 배면은 조밀한 올의 포목흔이 관찰된다. 분할면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1/3가량의 와도흔이 확인된다. 현재 길이 23cm, 현재 너비 28cm, 두께 1.4cm

⑯ 암키와(도면 73-2, 사진 89-⑦)

화문복합문의 회청색 경질암키와편이다. 태토는 사립이 소량 혼입된 사질점토질이다. 등면 문양은 비교적 뚜렷한 편이며 원형 화문 주위로 사선문이 확인된다. 배면에는 연철흔이 확인되고 하단에는 비교적 성긴 올의 포목흔이 확인된다. 분할면의 와도흔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절단하였으며 절단면은 단면의 약1/2가량인 5mm가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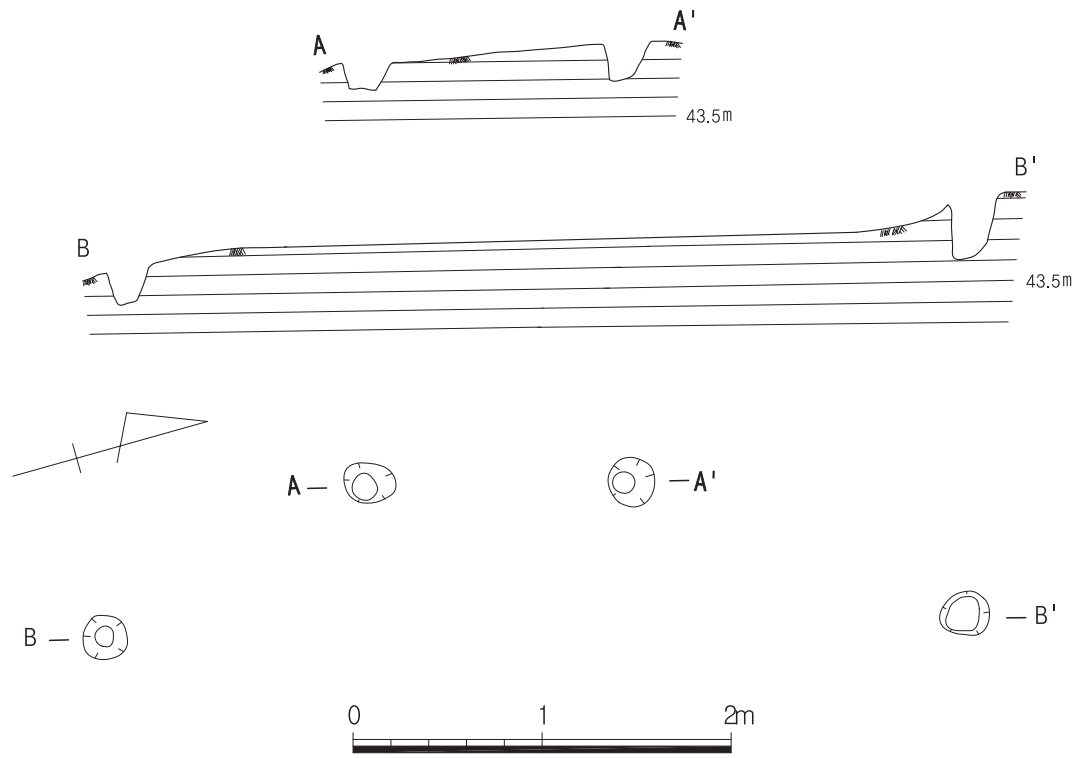
⑰ 철촉(도면 73-3, 사진 89-②)

鍛造製로 수화가 심해 일부가 박리되었다. 身部는 삼각형이며 莖部는 2단경식으로 단부로 갈수록 좁아진다. 신부의 단면은 볼록렌즈형이고 경부의 단면은 장방형이다. 길이 9.1cm, 무게 13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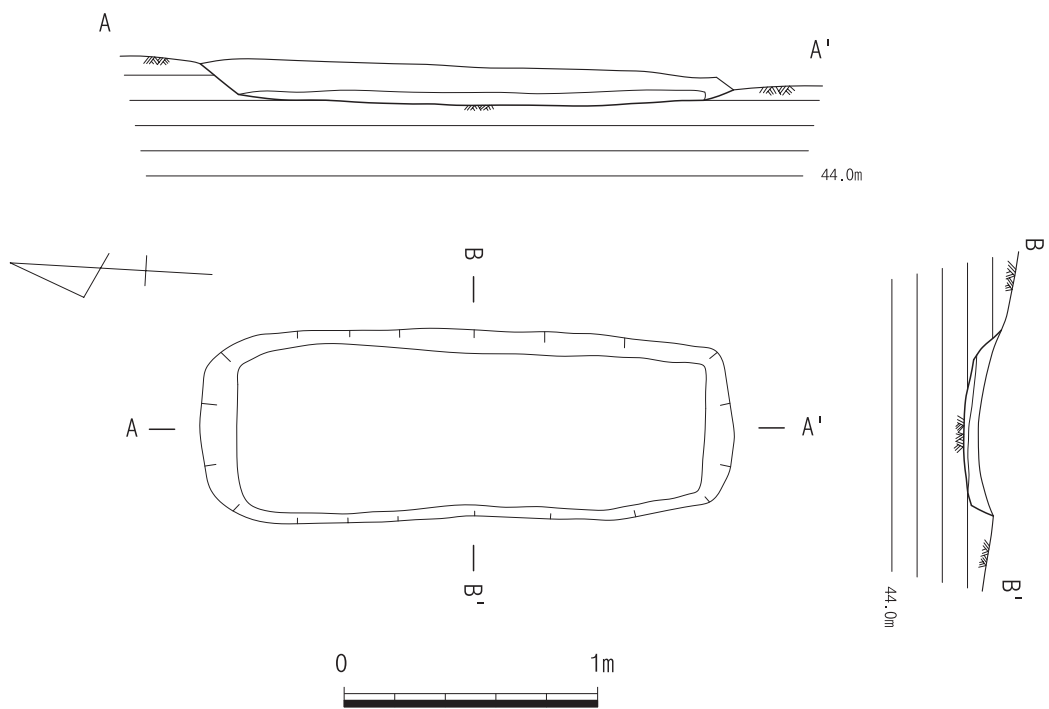
(3) 地床式建物址

가. 遺構(도면 71, 사진 89-⑧)

조사구역의 구릉 동쪽 사면(해발 44m) 37호 주거지와 38호 주거지 사이에 위치한다. 경사면의 아래쪽이 유실되어 전체적인 면모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주철은 남북방향을 주축으로 2개씩 2열이 확인되었다. 각 열의 주철간 간격은 110cm · 428cm로 각각 달라서 칸수를 구분하기가 어렵고 더불어 평면형태를 파악할 수가 없다. 주철의 규모는 지름이 25cm 내외이고, 깊이가 15~30cm 정도이다.



도면 74. 지상식 건물지 유구



도면 75. 1호묘 유구

4) 墳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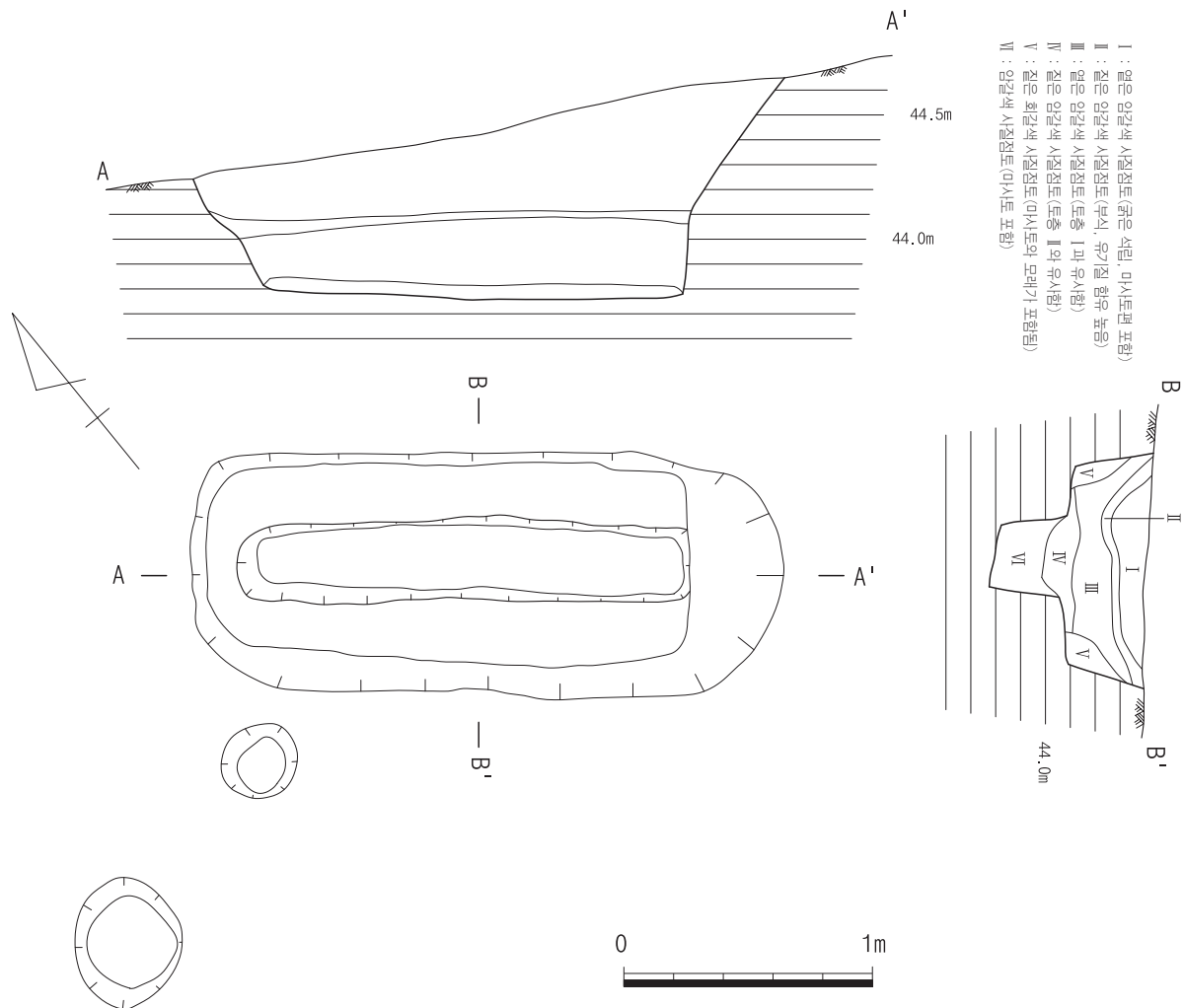
(1) 1號 墓

가. 遺構(도면 76, 사진 90-①~③)

조사구역의 구릉 서쪽 사면(해발 44m) 가장 북쪽에 위치하며 1호 주거지에서 북으로 8.5m 떨어져 있다. 생토층을 파고 조성되었으며 평면 형태는 세장방형이다. 주축 방향은 남-북 방향으로 등고선에 평행하다. 규모는 길이 211cm, 너비 76cm, 최대 깊이 18cm이다.

삭평이 심하여 바닥만 남아 있으며 바닥면은 평탄하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도면 76. 2호묘 유구

(2) 2號 墓

가. 遺構(도면 76, 사진 90-④~⑥)

구릉의 서쪽 사면(해발 43m)에 위치하며 1호 묘에서 남으로 38.2m 떨어져 있다. 생토층을 파고 조성되었으며 평면 형태는 세장방형이다. 주축 방향은 북서-남동 방향으로 등고선에 직교한다. 규모는 길이 238cm, 너비 98cm, 최대 깊이 89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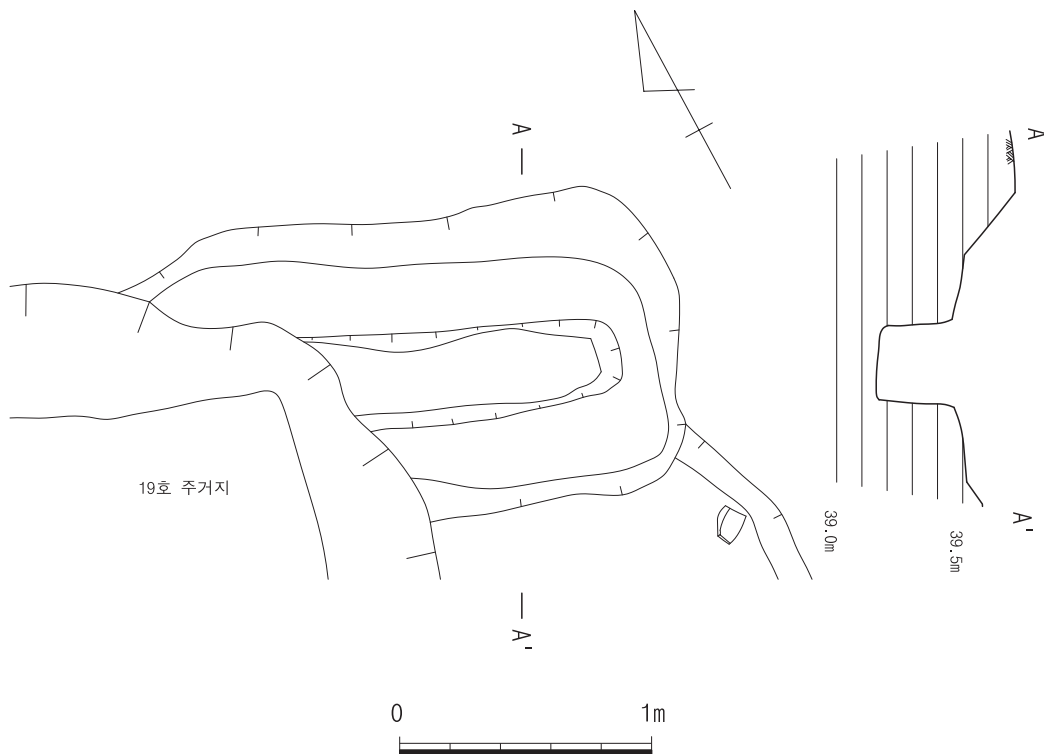
묘광은 2단으로 굴착되었으며 장축쪽 외광의 벽면은 완만하게 경사지나 단축쪽 외광과 내광의 벽면은 수직이다. 바닥면은 평탄하다.

내부함물토는 6개의 층으로 구분이 되었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묘의 외곽에 지름 50cm, 깊이 20cm 내외의 주혈이 2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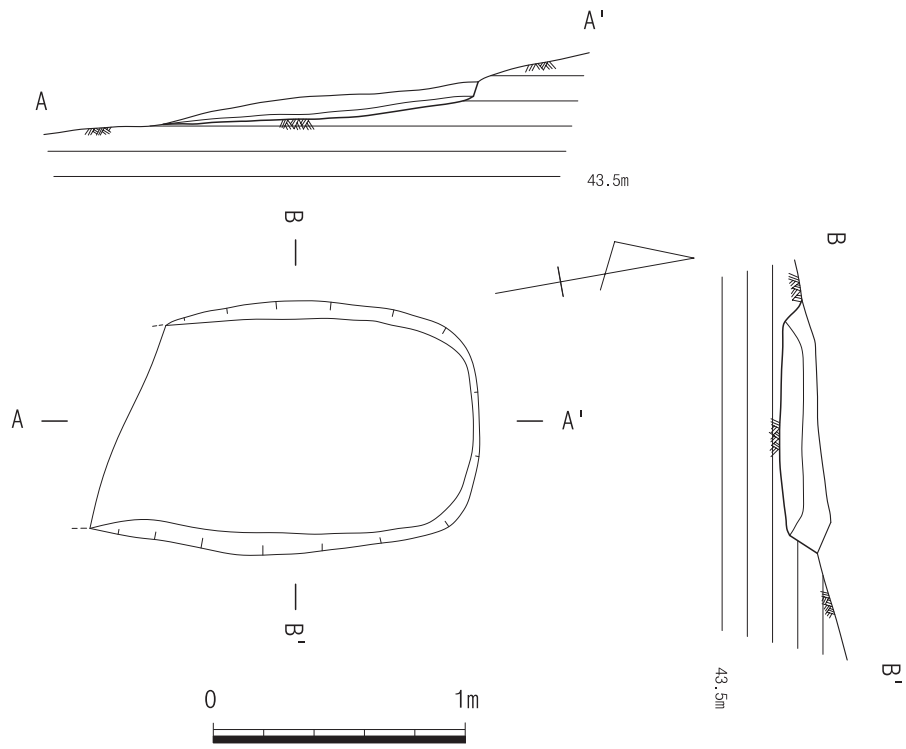
(3) 3號 墓

가. 遺構(도면 77, 사진 91-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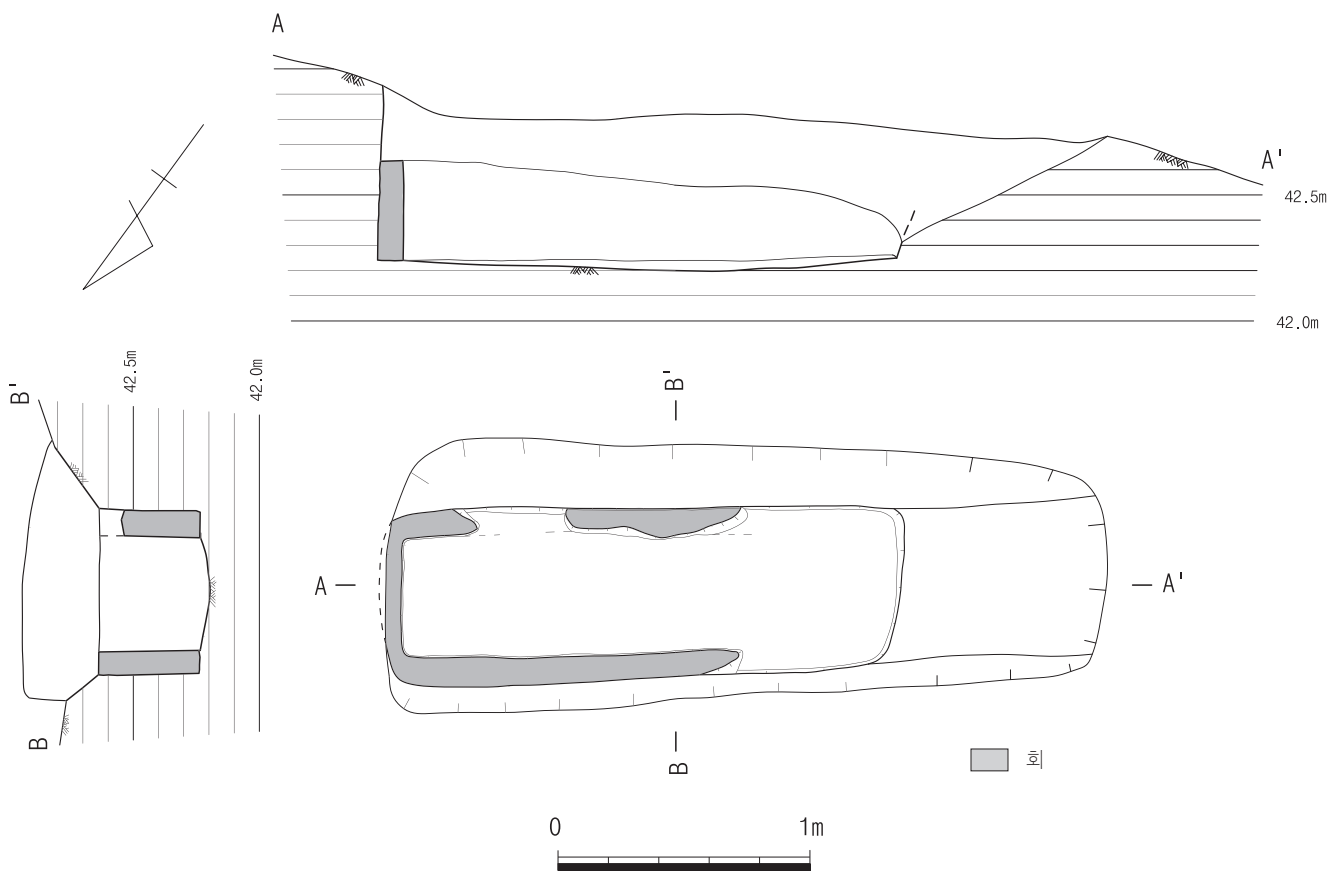
구릉의 서쪽 사면(해발 39m)에 위치하며, 18호 주거지와 19호 주거지와 중복되었다. 18호 주거지를 파괴하고 조성되었으며, 19호 주거지가 만들어지면서 서쪽의 대부분이 다시 파괴되었다. 평면 형태는 세장방형이다. 주축 방향은 동-서 방향으로 등고선에 직교한다. 남아 있는 외광의 규모는 길이 185cm, 너비 118cm, 최대 깊이 10cm, 내광의 규모는 길이 118cm, 너비 35cm, 최대 깊이 30cm다.



도면 77. 3호묘 유구



도면 78. 4호묘 유구



도면 79. 5호묘 유구

묘광은 2단으로 굴착되었으며 장축쪽 외광의 벽면은 완만하게 경사지나 단축쪽 외광과 내광의 벽면은 수직이다. 바닥면은 평탄하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4) 4號 墓

가. 遺構(도면 78, 사진 91-②)

구릉의 남쪽 사면(해발 42m)에 위치하며 30호 주거지와 1m 거리를 두고 인접해 있다. 생토층을 파고 조성되었으며, 경사면의 아래쪽인 남쪽이 유실되었으나 평면 형태는 세장방형이다. 주축 방향은 남-북 방향으로 등고선에 평행한다. 규모는 남아 있는 길이 152cm, 너비 100cm, 최대 깊이 15cm이다.

삭평이 심하여 바닥부분만 남아 있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5) 5號 墓

가. 遺構(도면 79, 사진 91-③·④)

구릉의 남쪽 사면(해발 41m)에 위치하며 30호 주거지에서 남으로 1.2m 거리를 두고 인접해 있다. 생토층을 파고 조성된 회곽묘이다. 평면 형태는 세장방형이다. 주축 방향은 북동-남서 방향으로 등고선에 직교한다. 이장된 묘로 조사당시 내부가 교란되어 있었고 남서쪽 단벽이 유실되었다. 규모는 남아 있는 길이 205cm, 너비 105cm, 최대 깊이 72cm이다.

회곽은 이장되면서 파괴되어 남아 있는 상태가 불량하다. 회곽의 두께는 10cm 내외이며 높이는 40cm 정도이다. 바닥은 별다른 시설이 확인되지 않았다. 출토유물은 없다.

(6) 6號 墓

가. 遺構(도면 80, 사진 91-⑤·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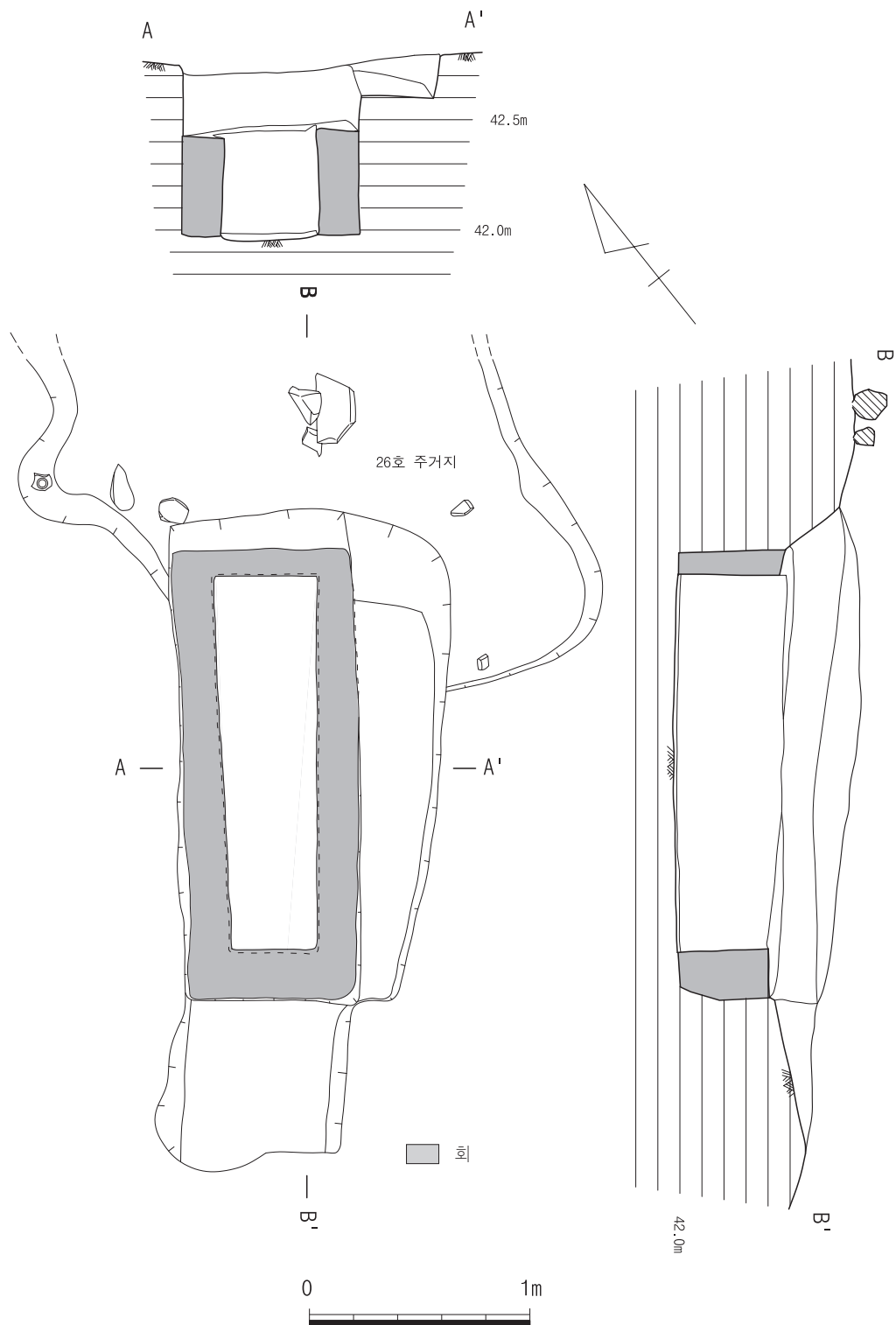
구릉의 남쪽 사면(해발 41m)에 위치하며 32호 주거지와 중복되었다. 생토층을 파고 만들어진 회곽묘로 5호 묘와 2m 거리를 두고 나란하게 조성되었다. 평면 형태는 세장방형이며, 주축 방향은 북동-남서 방향으로 등고선에 직교한다. 규모는 남아 있는 길이 215cm, 너비 82cm, 최대 깊이 80cm이다.

32호 주거지의 서남쪽을 파괴하고 조성하였는데 이장된 묘로 조사당시 내부가 교란되어 있었고 남서쪽 단벽이 유실되었다.

회곽은 토광을 파고 토광벽에 붙여서 곁을 만들었는데 이장과정에서 동장벽과 남장벽을 파괴한 것으로 보인다. 회곽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며 회곽의 두께는 북단벽은 10cm, 나머지 세벽은 20cm정도이다. 바닥은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7) 7號 墓

가. 遺構(도면 81, 사진 92-①~③)



도면 80. 6호묘 유구

구릉의 남쪽 사면(해발 43m)에 위치하며 32호 주거지에서 동쪽으로 10.4m 떨어져 있다. 생토층을 파고 조성되었으며, 평면 형태는 세장방형이다. 주축 방향은 남-북 방향으로 등고선에 직교한다. 규모는 길이 152cm, 너비 57cm, 최대 깊이 35cm이다.

내부는 암갈색과 적갈색, 명갈색의 사질점토로 채워져 있었으며, 보강토는 짙은 암갈색 사질점토로 바닥에서 20cm 높이까지 남아 있었다. 네 벽은 수직에 가까우며 바닥면은 평탄하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8) 8號 墓

가. 遺構(도면 82, 사진 92-④~⑥)

구릉의 남쪽 사면(해발 44m)에 위치하며 33호 주거지에서 남쪽으로 1.5m 떨어져 있다. 생토층을 파고 조성되었으며, 평면 형태는 세장방형이나 단벽은 정연하지 못하다. 주축 방향은 북동-남서 방향으로 등고선에 직교한다. 규모는 길이 260cm, 너비 78cm, 최대 깊이 22cm이다.

바닥은 경사면을 따라 굴착하여 1/2은 경사지고 절반은 평탄한데 레벨 차이는 50cm 정도이다. 경사면의 아래쪽은 삭평이 심하다. 경사면 바닥에서 할석이 2개 확인되었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9) 9號 墓

가. 遺構(도면 83, 사진 93-①·②)

구릉의 남쪽 사면(해발 43m)에 위치하며 34호 주거지와 1.2m 거리를 두고 인접해 있다. 생토층을 파고 만들어진 회곽묘이다. 평면 형태는 세장방형이며, 주축 방향은 북서-남동 방향으로 등고선에 직교한다. 규모는 남아 있는 길이 216cm, 너비 80cm, 최대 깊이 95cm이다.

곽은 토광을 파고 토광의 벽에 붙여서 서장벽과 북장벽에만 회를 사용하고 동장벽과 남단벽은 암반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회곽의 두께는 15cm정도이고 바닥에서 40cm정도 높이까지 만들었다. 바닥은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고 바닥에서 인골이 비교적 양호하게 남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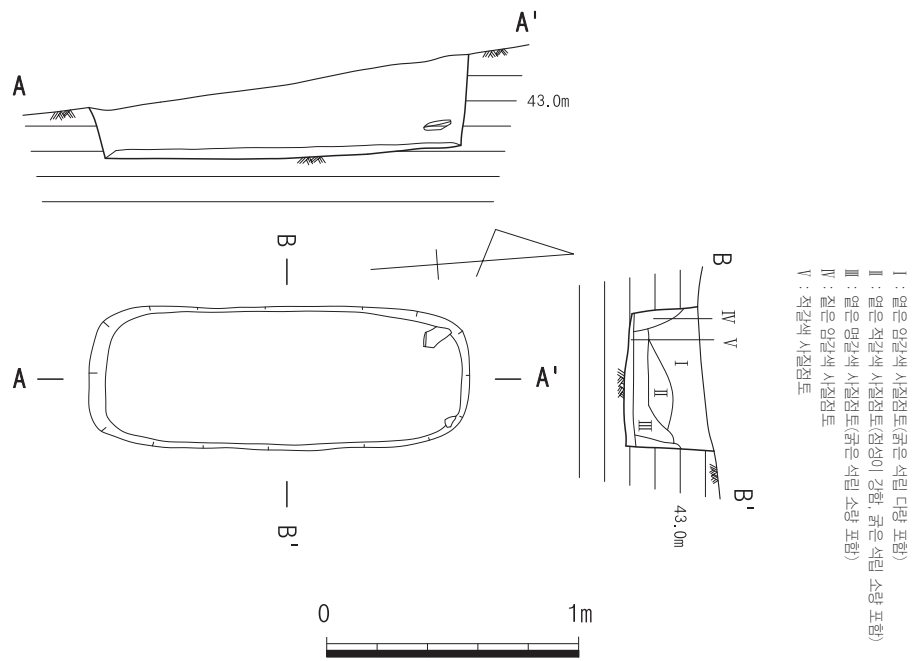
인골의 분석결과 피장자는 청년기(25~35세)에 사망한 신장 155~160cm 내외의 여성으로 추정되었다. 분석결과는 보고서에 부록2로 수록하였다.

(10) 10號 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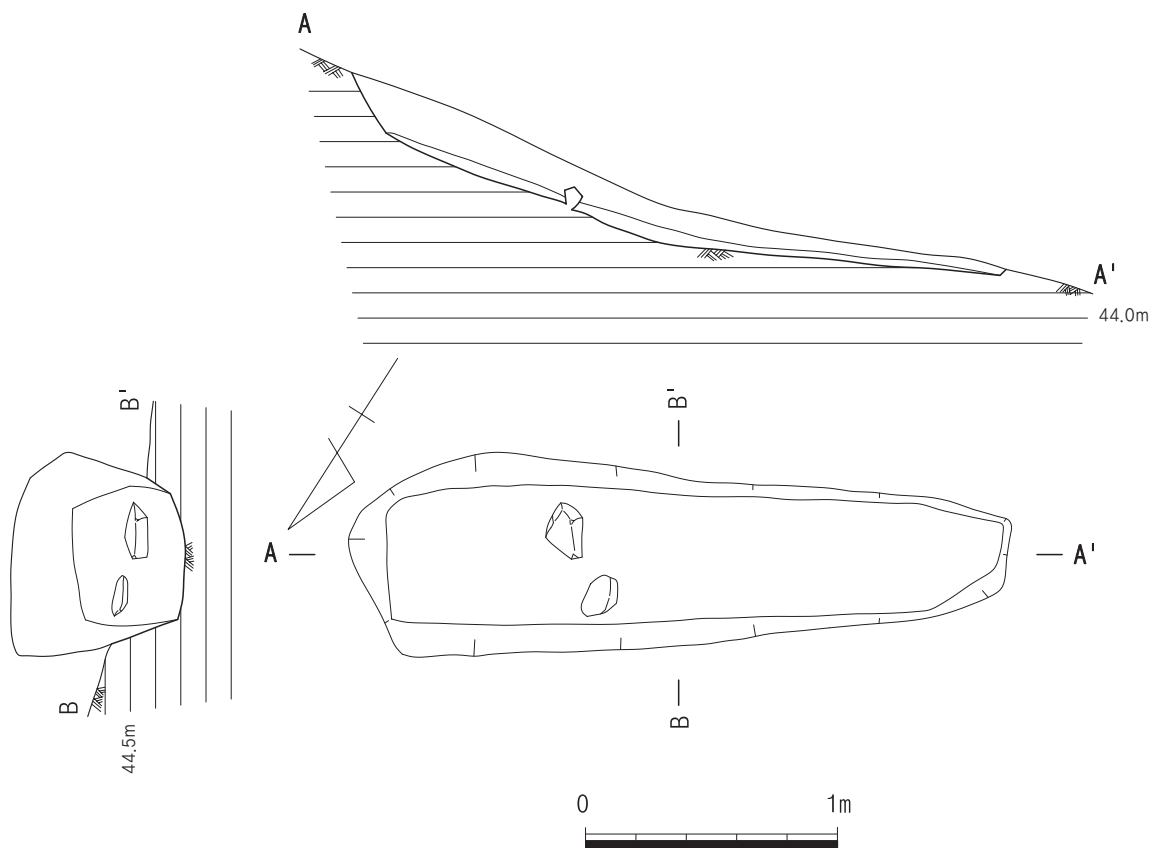
가. 遺構(도면 84, 사진 93-③)

구릉의 남쪽 사면(해발 42m)에 위치하며 36호 주거지와 중복되었다. 생토층을 파고 조성되었으며, 평면 형태는 세장방형이다. 주축 방향은 북서-남동 방향으로 등고선에 직교한다. 규모는 길이 201cm, 너비 70cm, 최대 깊이 71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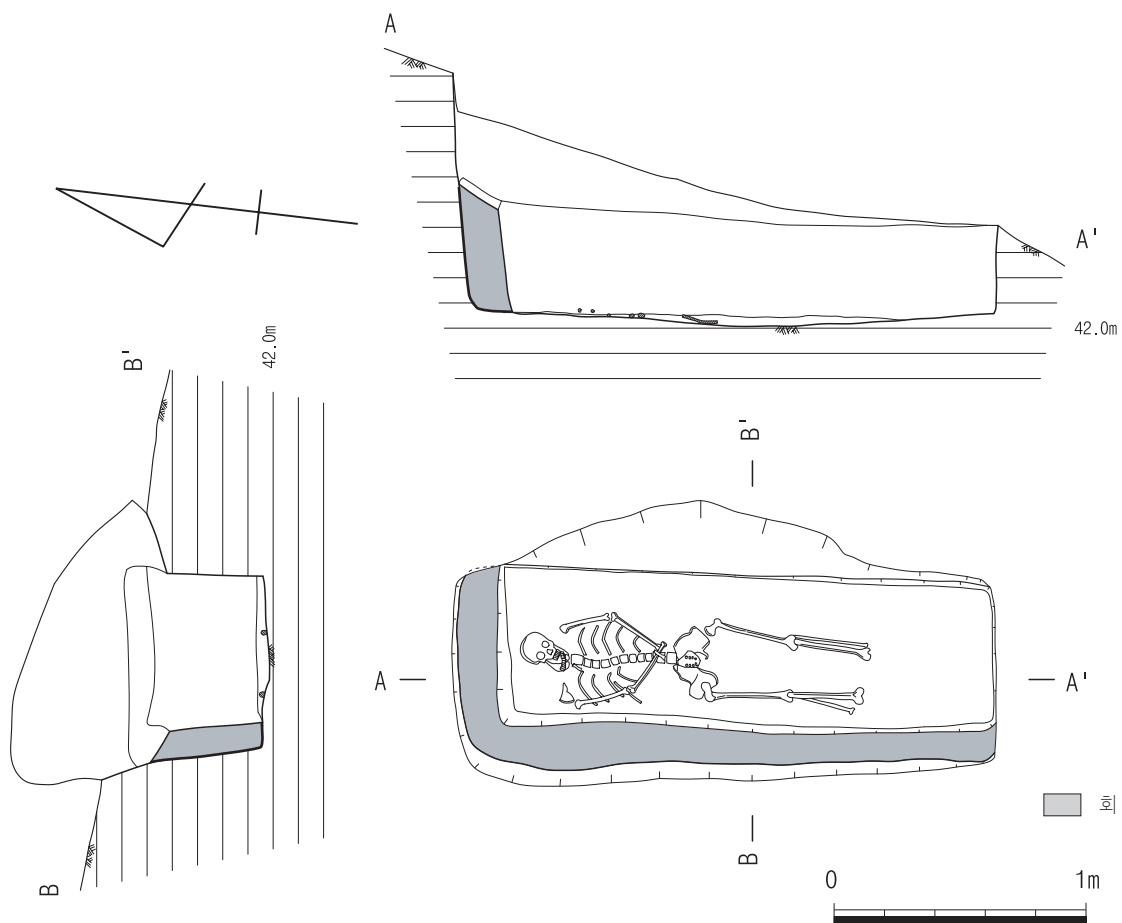
36호 주거지의 동쪽을 파괴하고 만들었으며 경사면의 위쪽인 북쪽이 깊게 남아 있다. 네 벽은 수직에 가까우며 바닥면은 평탄하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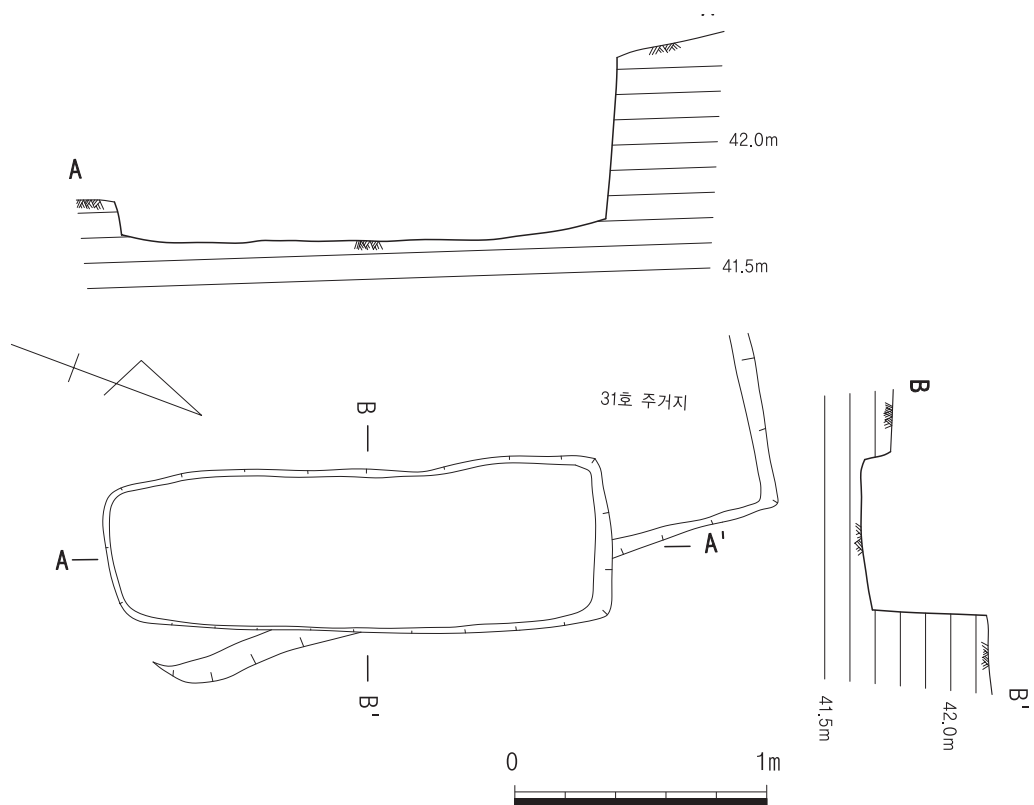
도면 81. 7호묘 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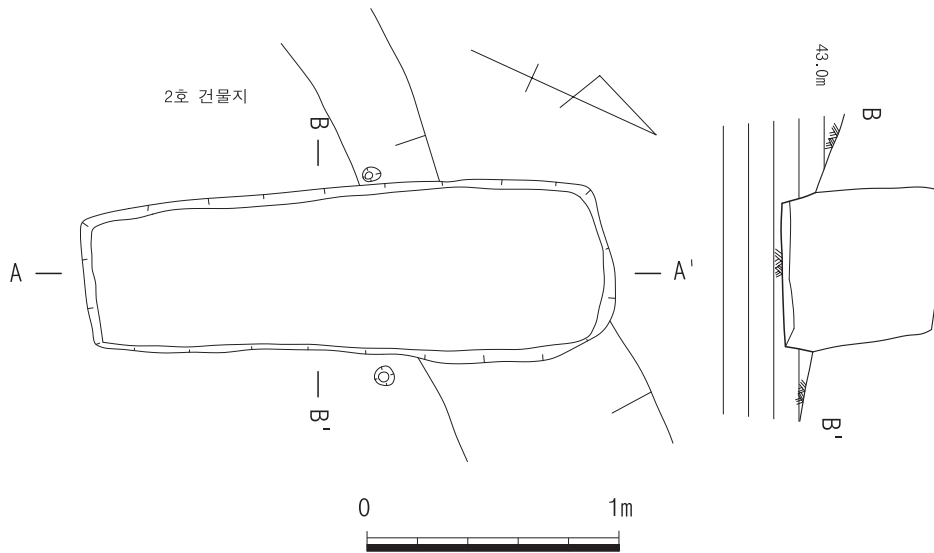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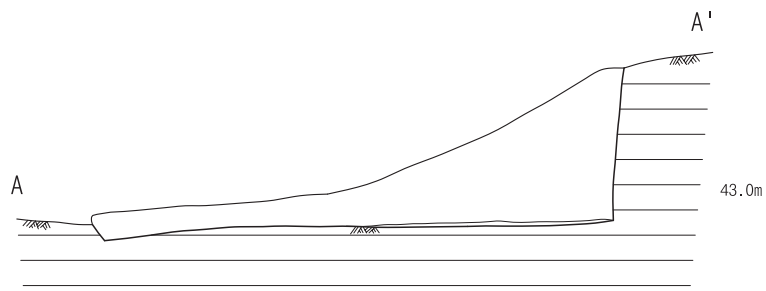
도면 82. 8호묘 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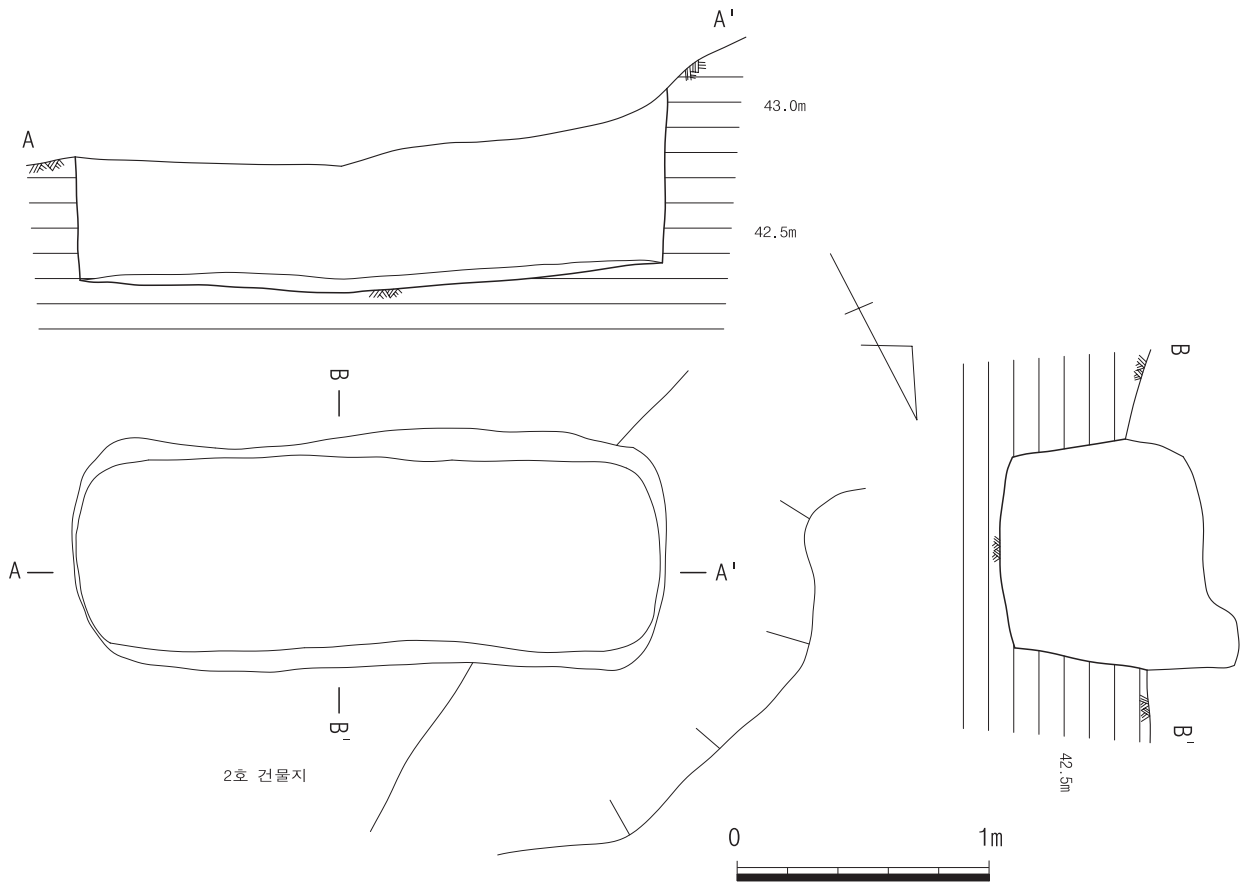
도면 83. 9호묘 유구



도면 84. 10호묘 유구



도면 85. 11호묘 유구



도면 86. 12호묘 유구

(11) 11號 墓

가. 遺構(도면 85, 사진 93-④)

구릉의 남쪽 사면(해발 43m)에 10호 묘에서 북으로 2m 떨어져 위치하며, 2호 건물지와 중복되었다. 생토층을 파고 조성되었으며, 평면 형태는 세장방형이다. 주축 방향은 북서-남동 방향으로 등고선에 직교한다. 규모는 길이 202cm, 너비 81cm, 최대 깊이 60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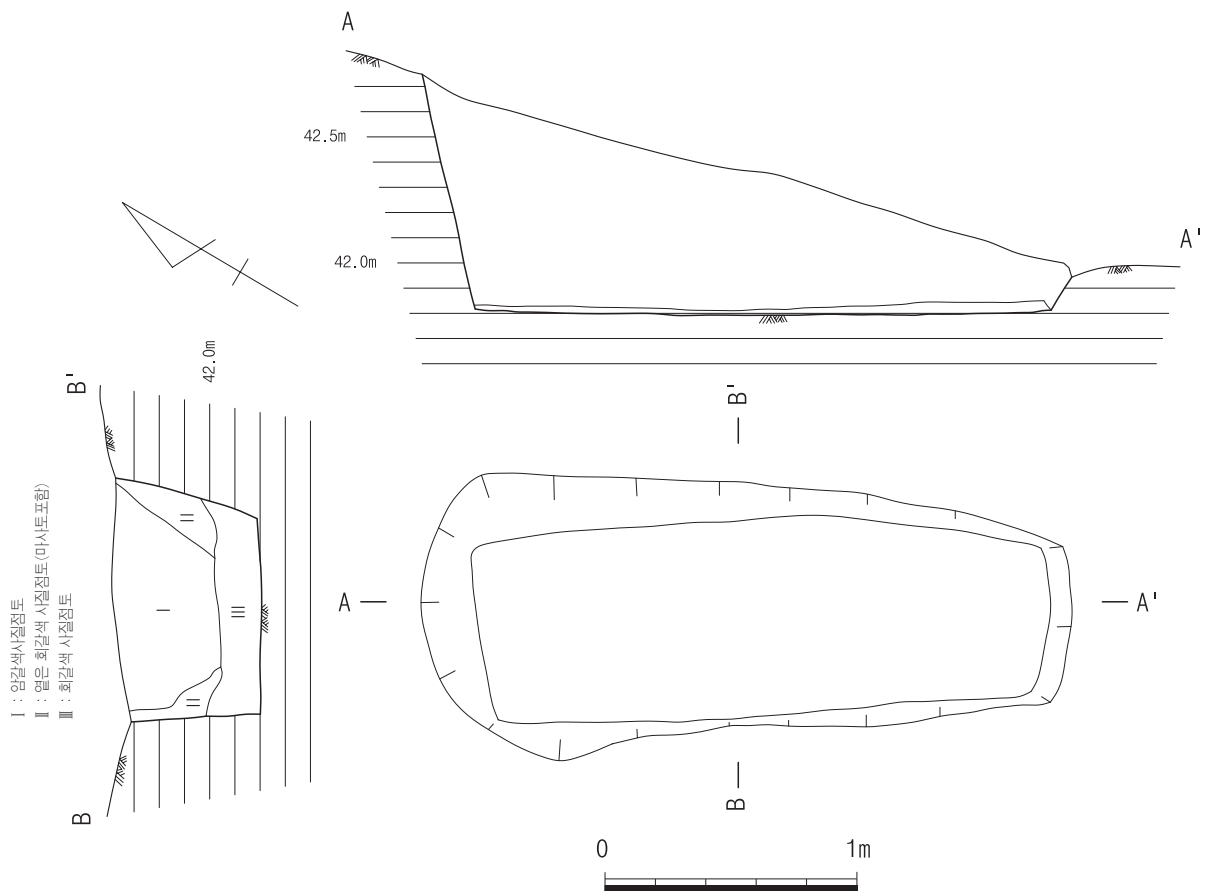
2호 건물지의 북쪽을 파괴하고 만들었으며 경사면의 위쪽인 북쪽이 깊게 남아 있고 남쪽은 삭평이 심하다. 네 벽은 수직에 가까우며 바닥면은 평탄하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12) 12號 墓

가. 遺構(도면 86, 사진 93-⑤)

구릉의 남쪽 사면(해발 43m)에 10호 묘에서 북으로 6.5m 떨어져 위치하며, 2호 건물지와 중복되었다. 생토층을 파고 조성되었으며, 평면 형태는 세장방형이다. 주축 방향은 동-서 방향으로 등고선에 직교한다. 규모는 길이 233cm, 너비 99cm, 최대 깊이 56cm이다.



2호 건물지의 북쪽을 파괴하고 만들었으며 길이에 비해 너비가 넓다. 네 벽은 수직에 가까우며 바닥면은 평탄하나 안쪽으로 경사진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13) 13號 墓

가. 遺構(도면 87, 사진 93-⑥)

구릉의 남쪽 사면(해발 43m)에 10호 묘에서 동으로 2.7m 떨어져 나란하게 위치한다. 생토층을 파고 조성되었으며, 평면 형태는 세장방형이다. 주축 방향은 북서-남동 방향으로 등고선에 직교한다. 규모는 길이 258cm, 너비 102cm, 최대 깊이 94cm이다.

경사면의 위쪽인 북쪽이 깊게 남아 있고 남쪽은 삭평이 심하다. 내부는 암갈색 사질점토와 회갈색 사질점토로 채워져 있었다. 네 벽은 수직에 가까우며 바닥면은 평탄하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14) 14號 墓

가. 遺構(도면 88, 사진 94·95)

조사구역의 능선 정상부(해발 47m)에 위치하며, 청동기시대 1호주거지에서 남쪽으로 1m 떨어져 있다. 묘광은 생토층을 파고 조성되었는데 25cm의 간격을 두고 2개의 광을 굴토하였다. 평면 형태는 세장방형이며, 주축 방향은 북동-남서 방향으로 등고선에 나란하다. 규모는 북쪽 묘광이 길이 274cm, 너비 113cm, 최대 깊이 182cm이고, 남쪽 묘광이 길이 270cm, 너비 93cm, 최대 깊이 157cm이다. 남쪽 묘광의 깊이가 시굴조사에서 삭평되어 북쪽 묘광보다 25cm 정도 얕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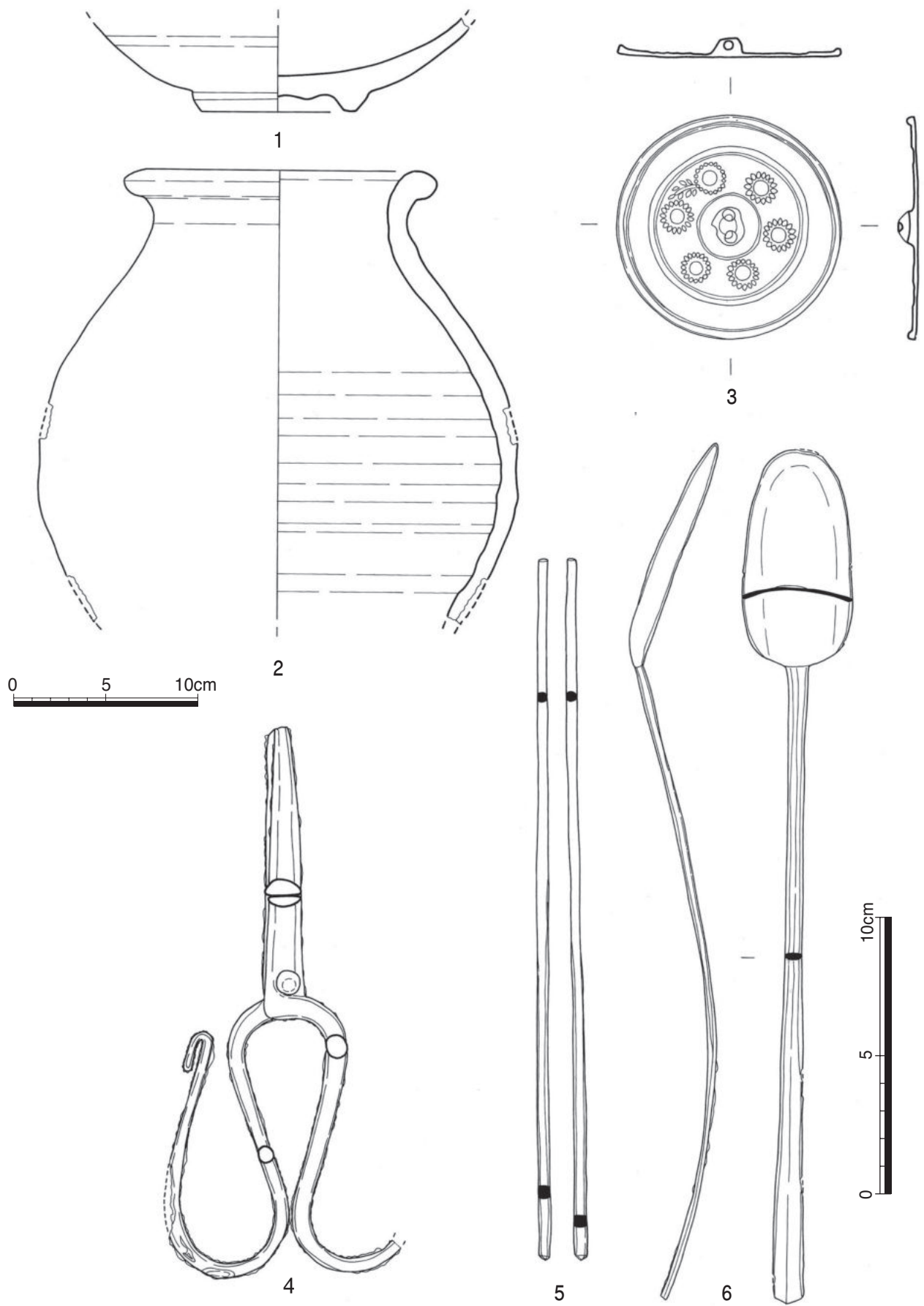
북쪽 묘광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 묘역시설로 추정되는 판석렬이 확인되었다. 판석은 30~70cm, 두께 20cm 정도로 장벽에서 각각 1.6m·1.2m의 거리를 두고 나란하게 3m가 배치되었다. 판석은 한단이 놓여져 있는데 북쪽 묘광에만 놓여지고 남쪽 묘광에는 놓여지지 않았다. 판석은 여러 단을 쌓은 것이 아니며 위치상으로 보아 축대를 쌓기 위한 것이 아닌 묘역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생각된다.

묘광은 상면에서 거의 수직으로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북쪽 묘광과 남쪽 묘광은 터널처럼 뚫려져 양쪽이 연결되어 있다. 너비 90cm, 높이 바닥에서 60~65cm까지이다. 북쪽 묘광에는 서장벽에 2개의 벽감을 만들었는데 유물은 한쪽에만 부장하였다. 남쪽 묘광에서는 별다른 시설이나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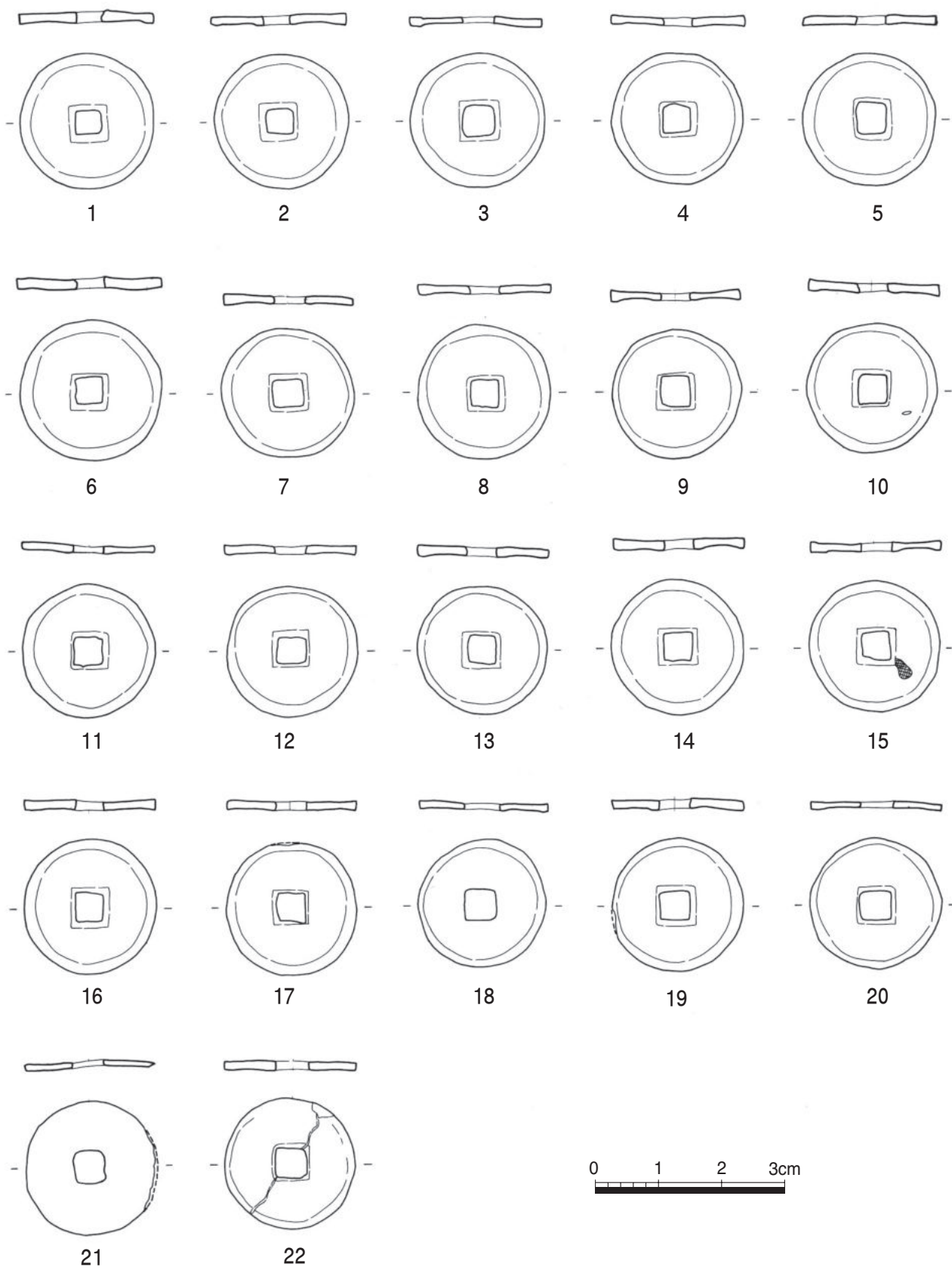
유물은 북쪽 묘광에서 출토되었는데 서장벽 벽감에서 청동제 손가락 1점과 젓가락 1모, 바닥에서 철제가위 1점, 조선통보 11점이 내부에서 자기편과 청동제거울과 조선통보 11점, 관정 20여점이 출토되었다.

나. 遺物(도면 88, 사진 96·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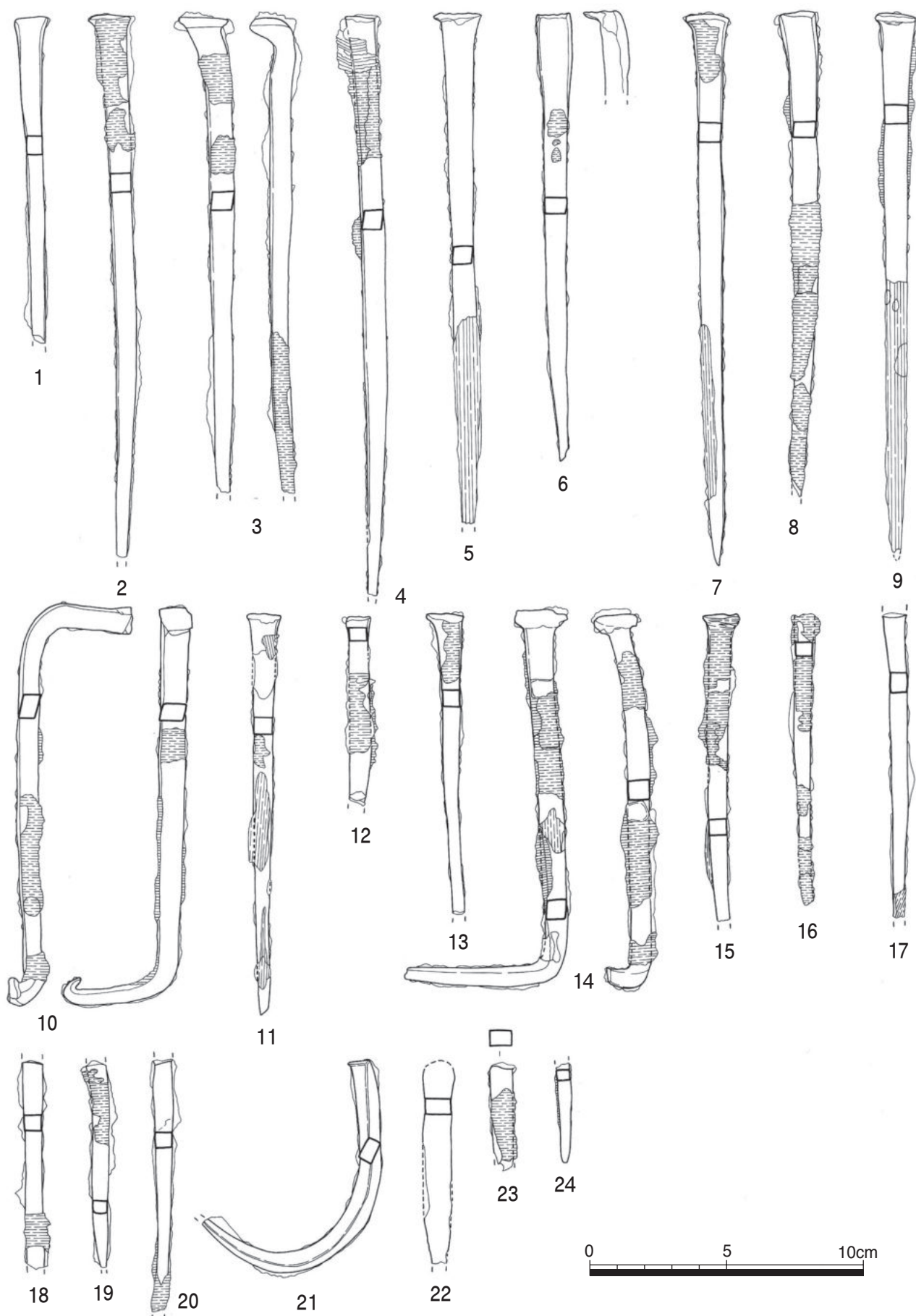
① 백자 저부(도면 89-1, 사진 96-①)



도면 89. 14호묘 출토유물



도면 90. 14호묘 출토유물



도면 91. 14호묘 출토유물

태토는 회색이며 입자가 치밀하다. 내외면에 회녹색이 도는 유약을 전면에 시유하였는데 일부는 뭉쳐지고 일부는 회백색으로 산화되었다. 내면에는 태토받침흔이 2군데 남아 있다. 굽의 접지면과 안쪽에 모래가 소량 부착되어 있다. 현재 높이 3.1cm

② 호편(도면 89-2, 사진 96-③)

구연부와 동체부가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회흑색이고 입자가 치밀하지 못하며 단면에 기공이 많다. 외면에는 기포가 많이 생겨나 있고 일부는 기면이 박락되었다. 외면은 전면을 귀얄로 무질서하게 분장하고 유약을 씌웠는데 동체부는 자화가 잘 되었으나 견부는 유약도 두텁고 자화가 잘 되지 않아 보라색을 띠고 있다. 내면에는 무문의 타날흔이 관찰된다. 현재 높이 16.2cm

③ 銅鏡(도면 89-3, 사진 97-①)

표면이 부식되어 있으며 앞면에는 이물질이 수착되어 있다. 뒷면에는 가장자리에 0.3cm너비로 테를 돌리고 안쪽을 2단으로 구분하여 중앙에 뉴를 만들었다. 1단은 면을 이루고 2단은 뉴를 중심으로 6개의 花文이 양각으로 주조되었다. 화문은 한가운데의 자방을 중심으로 16개의 작은 꽃잎을 돌리고 화문과 화문 사이에는 나뭇잎을 배치하였는데 부식이 심하여 전체의 형태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지름 8cm, 두께 0.2~0.75cm, 무게 65g

④ 銅錢(도면 90-1, 사진 97-②~②②)

모두 22점이며 5점은 심하게 부식이 되었으나 대부분 상태가 양호하다. 전면에 방형 구멍을 두고 상하좌우 면에 朝鮮通寶가 주조되어 있다. 겉둘레의 지름 2.25~2.4cm이고 테두리의 너비는 0.2cm내외이다. 무게 2~5g

⑤ 銅箸(도면 89-7, 사진 96-④)

완형이다. 손잡이의 끝이 각기 다르고 두께도 차이가 있어 다른 짝일 가능성이 있다. 棒部의 단면은 원형이고 把部의 단면은 방형이다. 길이 30.9cm, 무게 39g

⑥ 銅匙(도면 89-8, 사진 96-⑤)

가장자리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거의 완형이며 先端部和 柄部는 부식이 심하다. 匙部의 평면형태는 장타원형이며, 병부는 중앙에 약하게 능이 있고 기부에서 단부로 갈수록 점점 폭이 넓어지고 두께도 얇아진다. 중앙부의 단면은 장타원형이고 단부는 능을 경계로 각이 진다. 길이 25.3cm, 무게 27g · 24g

⑦ 鐵鋏(도면 89-4, 사진 96-②)

손잡이의 한쪽이 파손되어 결실되었다. 鍛造製이며 2줄의 철봉으로 각각 한쪽은 날부분을, 한쪽은 손잡이부분을 만든 다음 날의 基部에 머리가 큰 징을 박아 유동성이 있게 결합시켰다. 刃部는 가운데에 약하게 능을 세워 단면 삼각형으로 만들었다. 손잡이는 단면이 원형이며, 단부로 갈수록 좁아지고 逆 'S'자로 휘게 접어서 만들었다. 길이 19.7cm, 무게 107g

⑧ 棺釘 (도면 91, 사진 96-⑥~②⑨)

모두 24점이 출토되었다. 비교적 상태가 양호하며 길이가 긴 편이다. 개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물	도면	사진	규격(cm, g)				설 명
			길이	너비	두께	무게	
①	91-①	96-⑥	12	0.5	0.7	29	뿌리부분 결실, 단면 방형
②	91-②	96-⑦	20	0.7	0.7	64	뿌리부분 결실, 단면 방형, 머리부분 횡방향 목질
③	91-③	96-⑧	17.6	0.8	0.7	62	뿌리부분 결실, 단면 방형, 머리부분 휘어짐, 머리와 뿌리부분 횡방향 목질
④	91-④	96-⑨	21.3	0.75	0.8	65	뿌리부분 결실, 단면 방형, 머리부분 횡방향 목질
⑤	91-⑤	96-⑩	18.8	0.7	0.8	61	뿌리부분 결실, 단면 방형, 뿌리부분 종방향 목질
⑥	91-⑥	96-⑪	16.9	0.8	0.6	47	완형, 단면 장방형, 머리부분 횡방향 목질
⑦	91-⑦	96-⑫	23	0.9	0.7	68	완형, 단면 방형, 머리부분 횡방향 목질, 뿌리부분 종방향 목질
⑧	91-⑧	96-⑬	17.8	0.8	0.6	53	뿌리부분 결실, 머리 부분 약간 휘어짐, 단면 장방형, 뿌리부분 종방향 목질
⑨	91-⑩	96-⑭	14.8	0.8	0.6	59	완형, 단면 장방형, 머리부분 횡방향 목질, 뿌리 부분이 90도 각도로 꺾임, 단면 장방형, 횡방향 목질
⑩	91-⑨	96-⑮	19.8	0.9	0.7	61	완형, 단면 장방형, 머리부분 횡방향 목질, 뿌리부분 종방향 목질
⑪	91-⑪	96-⑯	14.7	0.7	0.6	31	완형, 단면 방형, 머리부분 횡방향 목질, 뿌리부분 종방향 목질
⑫	91-⑫	96-⑰	6.9	0.7	0.5	11	뿌리부분 결실, 단면 방형, 머리부분 횡방향 목질
⑬	91-⑬	96-⑱	11.1	0.6	0.6	25	뿌리부분 결실, 단면 방형, 머리부분 횡방향 목질
⑭	91-⑭	96-⑲	14	0.8	0.7	65	완형, 머리부분 약간 휘어짐, 뿌리부분 90도 각도로 꺾임, 단면 방형, 횡방향 목질
⑮	91-⑮	96-⑳	11.2	0.7	0.6	25	뿌리부분 결실, 단면 방형, 머리부분 횡방향 목질
⑯	91-⑯	96-㉑	10.7	0.6	0.5	14	머리와 뿌리부분 결실, 단면 방형, 머리부분 횡방향 목질
17	91-㉒	96-㉓	9.2	0.6	0.6	19	머리와 뿌리부분 결실, 단면 방형, 뿌리부분 횡방향 목질
18	91-⑰	96-㉔	11.1	0.65	0.7	22	머리와 뿌리부분 결실, 단면 방형, 뿌리부분 횡방향 목질
19	91-⑱	96-㉕	7.7	0.65	0.55	13	머리와 뿌리부분 결실, 단면 방형, 뿌리부분 횡방향 목질
20	91-⑲	96-㉖	7.65	0.55	0.45	12	머리와 뿌리부분 결실, 단면 방형, 머리부분 횡방향 목질
21	91-㉑	96-㉗	8.2	0.5	0.9	25	뿌리부분 결실, 뿌리부분 휘어짐, 단면 장방형
22	91-㉒	96-㉘	7.35	0.95	0.55	13	머리와 뿌리부분 결실, 단면 장방형
23	91-㉓	96-㉙	4	0.8	0.6	8	머리와 뿌리부분 결실, 단면 장방형, 횡방향 목질
24	91-㉔	96-㉚	3.6	0.5	0.4	2	머리부분 결실 단면 방형

5) 溝狀遺構

(1) 1號 溝狀遺構

가. 遺構(도면 92, 사진 98~99-①~④)

구릉의 서쪽 경사면 해발 43~41m에 걸쳐 있다. 주축방향은 동-서 방향이며 경사면을 따라 조성되었다. 경사면의 아래쪽으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다가 해발 41m에서 2호 구상유구에 의해 단절되었다. 바닥면은 완만한 U자를 이룬다. 규모는 남아 있는 길이 1030cm, 너비 129cm, 최대 깊이 50cm 가량이다.

내부는 암갈색 사질점토, 흑갈색 사질점토, 적갈색 사질점토, 명갈색 사질점토 등이 혼재하여 퇴적되어 있었다. 유물은 내부토에서 백제토기편과 도기편이 소량 출토되었다.

나. 遺物

① 구연부편(도면 95-1, 사진 100-①)

일부만 남아 있다. 태토는 세석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고 내외면은 모두 회색이다. 연질이며 소성상태는 보통이다. 구연부는 밖으로 꺾었다가 다시 안쪽으로 꺾어서 내면에 접합하였다.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다. 현재 높이 5.9cm

② 백제토기편(도면 95-2, 사진 100-②)

태토는 세석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고 내외면은 모두 회청색이다. 연질이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외면에는 중방향으로 평행타날이 되었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다. 현재 높이 3.8cm

③ 저부편(도면 95-3, 사진 100-④)

일부만 남아 있는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세석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고 내외면은 모두 흑회색이고 속심은 암자색이다. 경질이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외면의 동체부에는 평행타날이 남아 있고, 바닥 내면에는 자연유가 부착되었다. 동체부와 바닥을 접합한 후 내면은 회전물손질로 외면은 깎기로 정면을 하였다. 현재 높이 6.1cm

④ 저부편(도면 95-4, 사진 100-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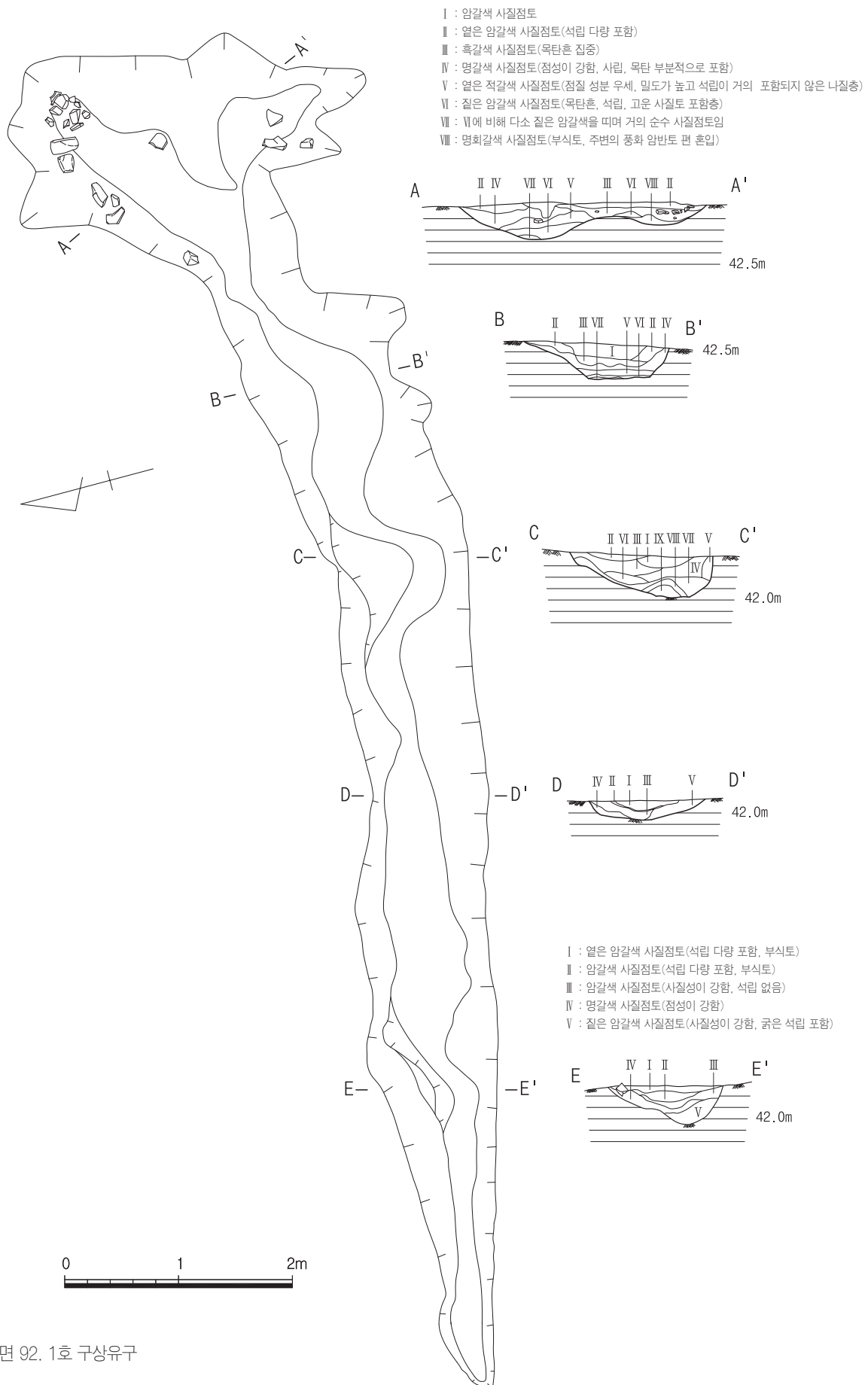
대각과 바닥의 일부만 남아 있다. 태토는 세석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고 내외면은 모두 회청색이고 속심은 암자색이다. 경질이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내면에는 덧댄 점토가 부착되어 있고 외면의 바닥에는 'X'자로 음각되어 있다. 현재 높이 1.3cm

⑤ 토기편(도면 95-5, 사진 100-⑥)

태토는 세석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고 내외면, 단면 모두 회청색이다. 경질이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내외면에 격자타날이 남아 있는데 내면의 격자가 눌러져 있으나 외면과는 다르다. 직선상으로 곡면이 저 있는데 부위를 판단하기 어렵다. 현재 높이 9.1cm

⑥ 암키와(도면 95-6, 사진 100-⑦)

기하문의 회청색 경질 암키와편이다. 태토는 석립이 소량 혼입된 사질점토질이다. 배면에는 빗질정면흔이 확인되며 포목흔은 관찰되지 않는다. 분할면이 멸실되어 와도흔은 확인할 수 없다. 현재 길이 10cm, 현재 너비 10cm, 두께 1.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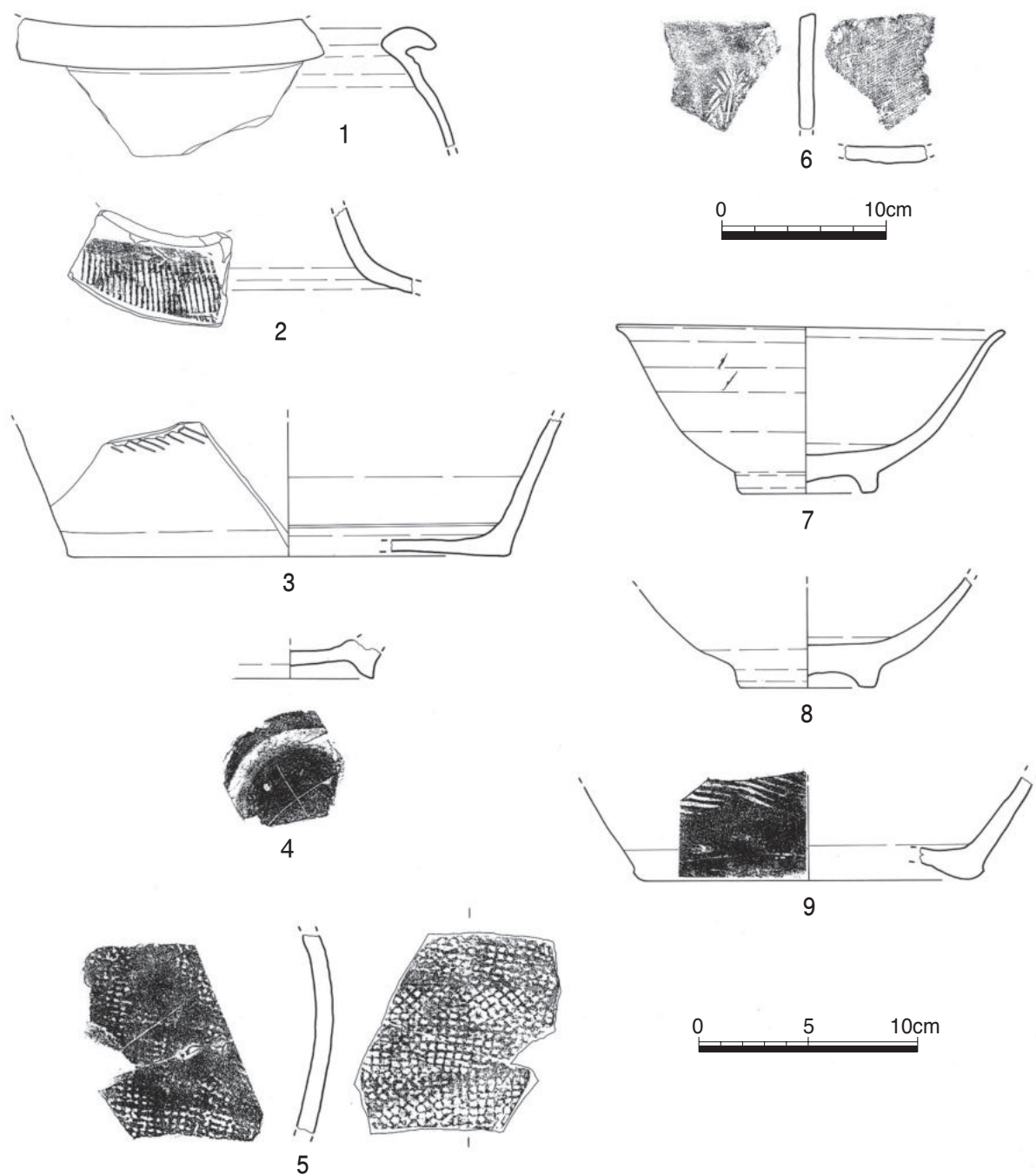


도면 92. 1호 구상유구

(2) 2號 溝狀遺構

가. 遺構(도면 93, 사진 98~99-①·⑤)

구릉의 서쪽 경사면 해발 42~40m에 걸쳐 있다. 주축방향은 동-서 방향이며 경사면을 따라 조성되었다. 1호 구상유구와 중복되는 부분과 경사면의 아래쪽으로 갈수록 폭이 좁아진다. 해발 42m인 위쪽에서 3호 구상유구에 의해 단절되었다. 바닥은 넓게 일정한 면을 이룬다. 규모는 남아 있는 길이 1,590cm, 너비 126cm,



도면 95. 1호 구상유구(1~6), 2호 구상유구(7~9) 출토유물

최대 깊이 40cm 가량이다.

내부는 암갈색 사질점토, 갈색 사질점토 퇴적되어 있었으며 바닥에 크고 작은 돌들이 널려 있었다.
유물은 내부토에서 백자편과 도기편이 소량 출토되었다.

나. 遺物

① 백자대접(도면 95-7, 사진 100-⑧)

1/4 정도가 남아 있다. 태토는 백색이며 입자가 매우 치밀하다. 굽과 동하부를 제외한 전면에 연청색의 유약을 시유하였다. 내면의 바닥과 굽의 접지면에는 태토로 빚은 받침흔이 4군데씩 남아 있는데 일부는 기면이 떨어져 나갔다. 현재 높이 7.6cm

② 백자저부(도면 95-8, 사진 100-⑨)

저부와 동체부 일부가 남아 있다. 태토는 회색이며 입자가 매우 치밀하다. 굽과 동하부를 제외한 전면에 청회색의 유약을 시유하였다. 내면의 바닥에는 받침흔이 2군데 남아 있고 잡물이 부착되었다. 현재 높이 4.6cm

③ 저부편(도면 95-9, 사진 100-⑤)

일부만 남아 있다. 태토는 세석립이 소량 포함된 정선된 점토이며 내면은 흑갈색 외면은 회흑색, 속심은 암자색이다. 경질이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내면의 바닥에는 자연유와 소성시의 이물질이 부착되어 있고, 외면의 바닥에는 소성시의 이물질이 부착되어 면이 거칠다. 동체부의 외면에는 평행타날이 되었다. 현재 높이 4.3cm

(3) 3號 溝狀遺構

가. 遺構(도면 94, 사진 98-① · 99-⑥ · 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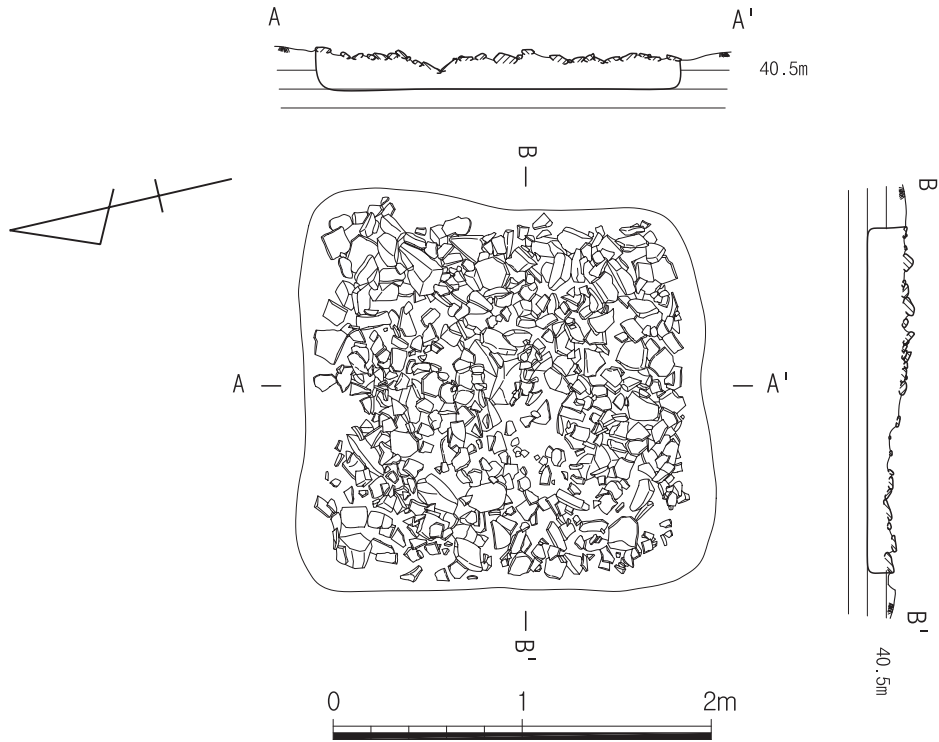
구릉의 서쪽 경사면 해발 41~47m에 걸쳐 있다. 주축방향은 동-서 방향이며 경사면을 따라 조성되어 아래로 이어진다. 상단부는 'Y'자로 시작되며 해발 43m 부분에서 폭이 한번 좁아져서 휘어지면서 다시 넓어지고, 해발 42m에서 또 휘어져서 경사면의 아래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며 연결된다. 2호 구상유구를 파괴하였다. 규모는 남아 있는 길이 4,010cm, 너비 236cm, 최대 깊이 78cm 가량이다.

내부는 암갈색 사질점토, 적갈색 사질점토, 회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었으며 바닥면은 고르지가 않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6) 未詳遺構

가. 遺構(도면 96, 사진 101)

10호 주거지에서 서쪽으로 7m 떨어져 위치하며, 구릉의 서쪽 사면(해발 39m)에 생토층을 굴착하여 조성되었다. 평면 형태는 방형으로 조사 당시 노출면은 굴광선 내에 잡석이 깔려 있었는데 40cm 정도 깊이로 채워진 상태였다. 잡석 사이에는 자기편과 기와편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아래로 갈수록 잡석만 노출되었다.



도면 96. 미상유구

잡석을 제거한 바닥은 평탄한 생토면이었다. 유구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으며 근래의 삼가마일 가능성도 있겠으나 열에 의한 흔적은 확인할 수 없었다. 규모는 길이 642cm, 218cm, 최대 깊이 12cm이다.

7) 地表收拾遺物

① 뚜껑(도면 97-1, 사진 102-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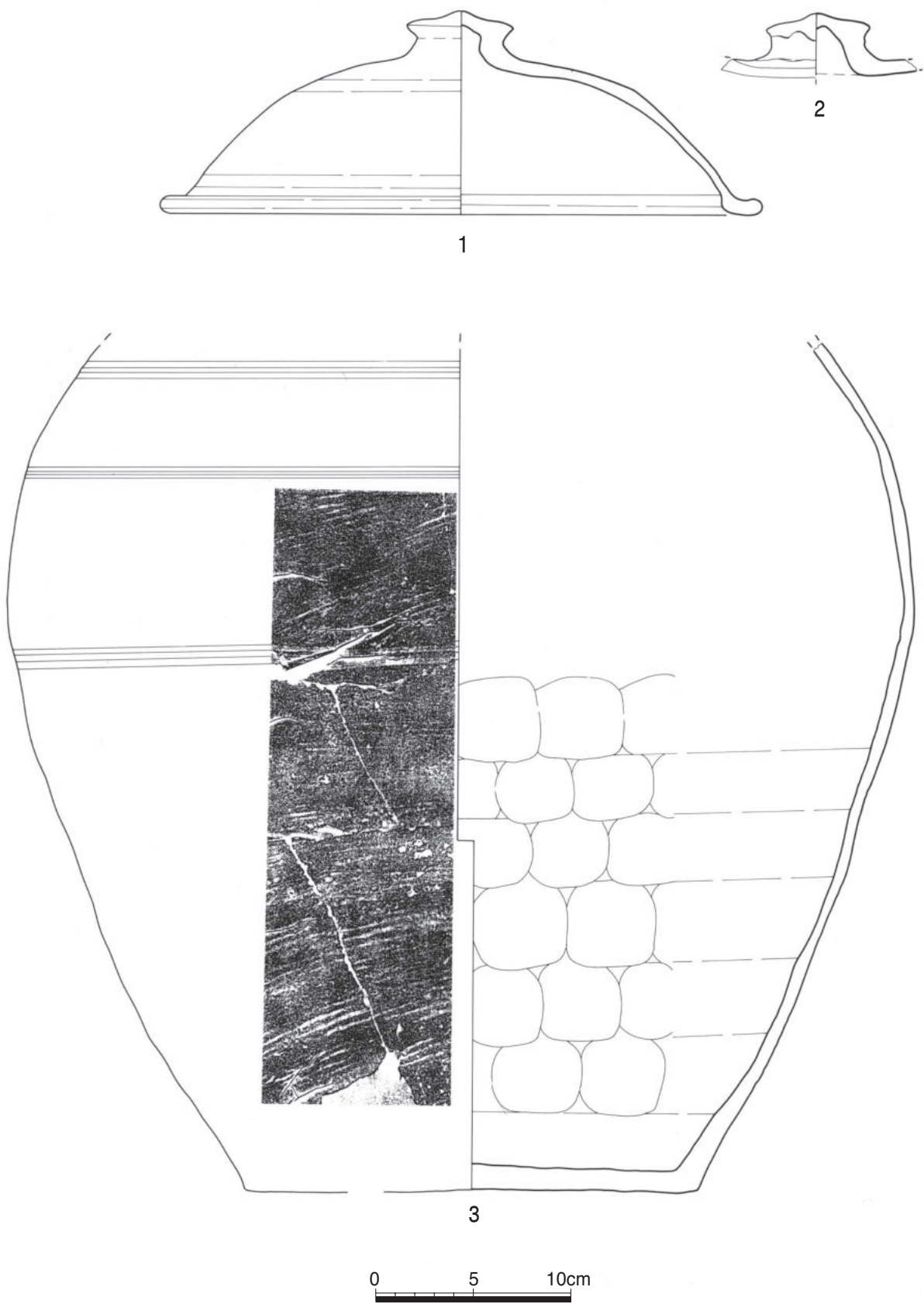
신부와 드림부 일부가 결실되었고, 일부를 도면복원하였다. 연질이나, 소성온도는 높은 편이다. 태토에는 백색세사립과 운모립이 섞여있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이 모두 회색이다. 꼭지는 단추형으로 신부상면으로 점토를 뽑아내어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꼭지 내면에서는 조르기 흔적이 확인된다. 신부 상면에는 점토 보강흔과 회전깎기 정면흔적이 남아있다. 드림단부는 넓고 평평한 편인데 밖에서 안으로 말아붙였다. 현재 높이 10.35cm, 드림 지름 29.7cm

② 뚜껑 꼭지(도면 97-2, 사진 102-②)

꼭지와 신부 일부만 남아있다. 연질이며, 태토에는 백색 세사립과 운모립이 섞여있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이 모두 회색이다. 꼭지는 단추형으로 신부상면으로 점토를 뽑아내어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꼭지 내면에서는 조르기 흔적이 확인된다. 꼭지외면 주변으로 점토보강흔이 관찰된다. 현재 높이 3.25cm

③ 대옹(도면 97-3, 사진 102-③)

동중·하위 저부 모두, 동상위 일부만 남아있다. 경질이며, 태토에는 백색 세사립과 굵은 석립이 섞여



도면 97. 지표수습유물(1)

있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이 회색인데, 속심의 일부는 암갈색을 띠기도 한다. 외면은 동중·상위에 걸쳐 돌대를 3줄 돌렸고, 최대경은 동상위쪽에 있다. 전면에 횡방향 평행선문 타날흔적이 확인되는데, 3번째 돌대 아래쪽으로 잘 남아있다. 동하위와 저부 접합부는 회전깎기로 정면되었고, 저부에서는 소분흔적이 확인된다. 외면 일부는 기면이 박리되었다. 내면에는 내박자흔적이 남아있는데, 동상위쪽으로는 동심원상으로 확인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물손질에 의해 지워져 희미하다. 현재 높이 43.15cm, 동최대경 31.5cm

④ 옹기 구연부편(도면 98-1, 사진 102-⑥)

구연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경질이며, 태토에는 세사립이 섞여있다. 외면과 구경부 내면에는 갈색 유약이 시유되었다. 속심은 암갈색을 띤다. 동체부 내면에는 내박자흔적이 남아있다. 기면에는 작은 기포가 발생하였다. 현재 높이 7.8cm

⑤ 구연부편(도면 98-2, 사진 102-④)

구연과 동체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연질이나 소성도는 높은 편이다. 태토에는 백색세사립과 운모립이 섞여있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이 회색이고, 속심 일부는 갈색을 띠기도 한다. 동체부 외면에서는 선문과 격자문이 조합된 형태의 타날흔적이 확인되며, 내면에서는 격자문과 호상의 내박자흔적이 관찰된다. 현재 높이 6.2cm

⑥ 구연부편(도면 98-3, 사진 102-⑤)

구연부와 동체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경질이며, 태토에는 백색 세사립이 섞여있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이 모두 암회색이다. 구연단부는 넓은 면을 이루는데 밖에서 안쪽으로 말아붙었고, 동체부까지 흔적이 잘 남아있다. 현재 높이 4.85cm

⑦ 구연부편(도면 98-4, 사진 102-⑧)

일부만 남아 있다. 태토는 세석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며 외면은 회청색, 내면은 황갈색 속심은 암자색이다. 구연부 아래 한줄의 돌대가 돌아가고 그 아래로 침선문이 돌려졌다. 외면에는 자연유가 산화되어 있고 내면에는 균열이 있다. 현재 높이 5.05cm

⑧ 구연부편(도면 98-4, 사진 102-⑨)

구연과 동체부 일부만 남아있다. 연질이며, 태토에는 백색 세사립과 운모립이 섞여있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색이고, 속심은 회갈색이다. 동체부 기벽 두께는 매우 얇은 편이고, 구연 단부는 넓은 면을 이루는데 안에서 밖으로 말아붙었다. 외면은 기면이 박리되었다. 현재 높이 7.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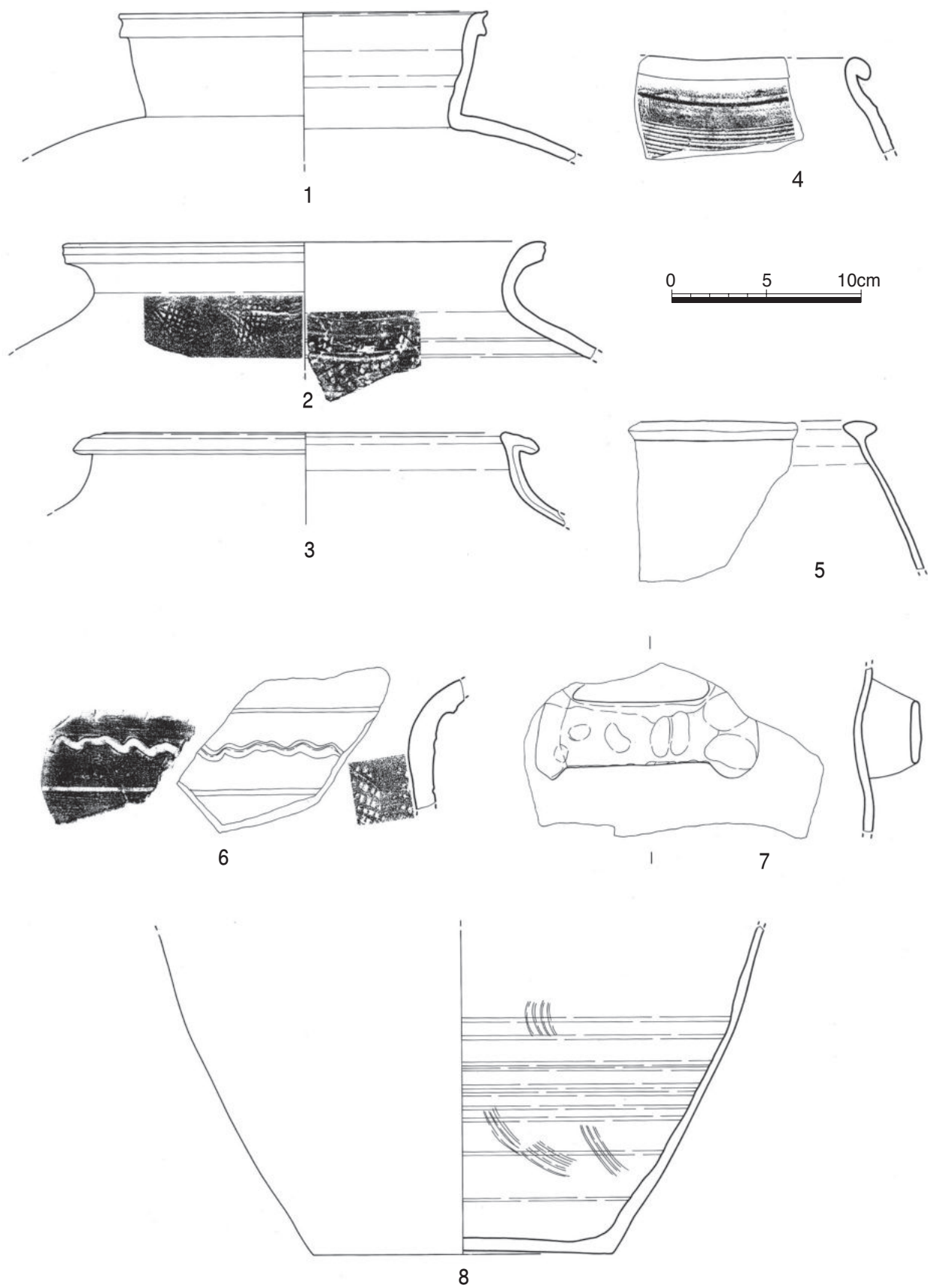
⑨ 대옹 구연부편(도면 98-5, 사진 102-⑦)

구연부 일부만 남아있다. 경질이며, 태토에는 백색 세사립과 운모립이 소량 섞여있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색이고, 속심은 회갈색이다. 외면에는 1줄의 파상문을 돌렸고, 내면에서는 격자문의 내박자흔이 관찰된다. 현재 높이 7.1cm

⑩ 파수편(도면 98-6, 사진 102-⑩)

동체부에 넓은 띠모양의 파수가 부착되었다. 연질이며, 태토에는 백색 세사립과 운모립이 섞여있다. 색조는 내외면이 암회색이고, 속심은 회백색이다. 동체부에서는 파수부착 부위를 표시하였던 침선이 2줄 확인된다. 길이 15.65cm

⑪ 옹기 저부편(도면 98-7, 사진 102-⑪)



도면 98. 지표수습유물(2)

동체부와 저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도질이며, 태토에는 사립이 섞여있다. 내외면에는 녹색 유약이 시유되었는데, 저부 외면에는 유약의 일부가 묻쳐 있기도 하다. 동체부 외면에서는 횡방향 평행선 문 타날흔적이, 내면에서는 호상의 내박자흔적이 확인된다. 현재 높이 17.2cm

⑫ 백자 접시(도면 99-1, 사진 103-①)

백자 접시로 구연부와 동체부는 부분적으로 결실되었다. 태토는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회색점토이다. 유약은 광택이 나는 회녹색이며, 굽을 제외한 전면에 시유되었다. 시유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외저면은 기포가 있고, 군데군데 묻쳐있어 다소 불량하다. 내저면과 접지면에는 각각 4곳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내저원각경은 굽경보다 크다. 높이 3.1cm, 구경 13.75cm, 굽경 5.2cm

⑬ 백자 접시(도면 99-2, 사진 103-②)

구연부와 동체부의 1/3 가량 결실된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소량의 사립이 섞인 정선된 백색점토이다. 유약은 약간 푸른 빛이 도는 명회색이며, 굽을 제외한 전면에 시유되었다. 전반적으로 시유상태는 보통이나 외저면에는 다소 불량하다. 소성상태도 다소 불량한 편으로 기형이 약간 일그러져 있다. 기면에는 기포가 몇군데 형성되었다. 내저면과 접지면에는 각각 4곳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했다. 내저원각경은 굽경보다 크다. 높이 3.35cm, 구경 15.6cm, 굽경 5.25cm

⑭ 백자 접시(도면 99-3, 사진 103-③)

구연부와 동체부는 2/3 가량 결실되어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백색점토이다. 유약은 약간 푸른 빛이 도는 명회색이며, 굽을 제외한 전면에 시유되었다. 시유상태는 양호하다. 기면에는 기포와 빙얼이 형성되었다. 내저면과 접지면에는 각각 4곳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내저원각경은 굽경보다 크다. 높이 3.8cm, 굽경 5.75cm

⑮ 백자 접시(도면 99-4, 사진 105-③)

백자 접시편으로 1/3 가량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명회색 점토이다. 유약은 약간 푸른 빛이 도는 회색이나 외저면 일부는 회황색을 띠는 등 발색이 고르지 못하다. 외면에는 빙얼이 있고, 내면에는 철반이 있다. 접지면에는 가는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굽은 도립삼각형굽이고, 내저원각경은 굽경보다 크다. 높이 3.55cm, 굽경 6.2cm

⑯ 분청사기 접시(도면 99-5, 사진 104-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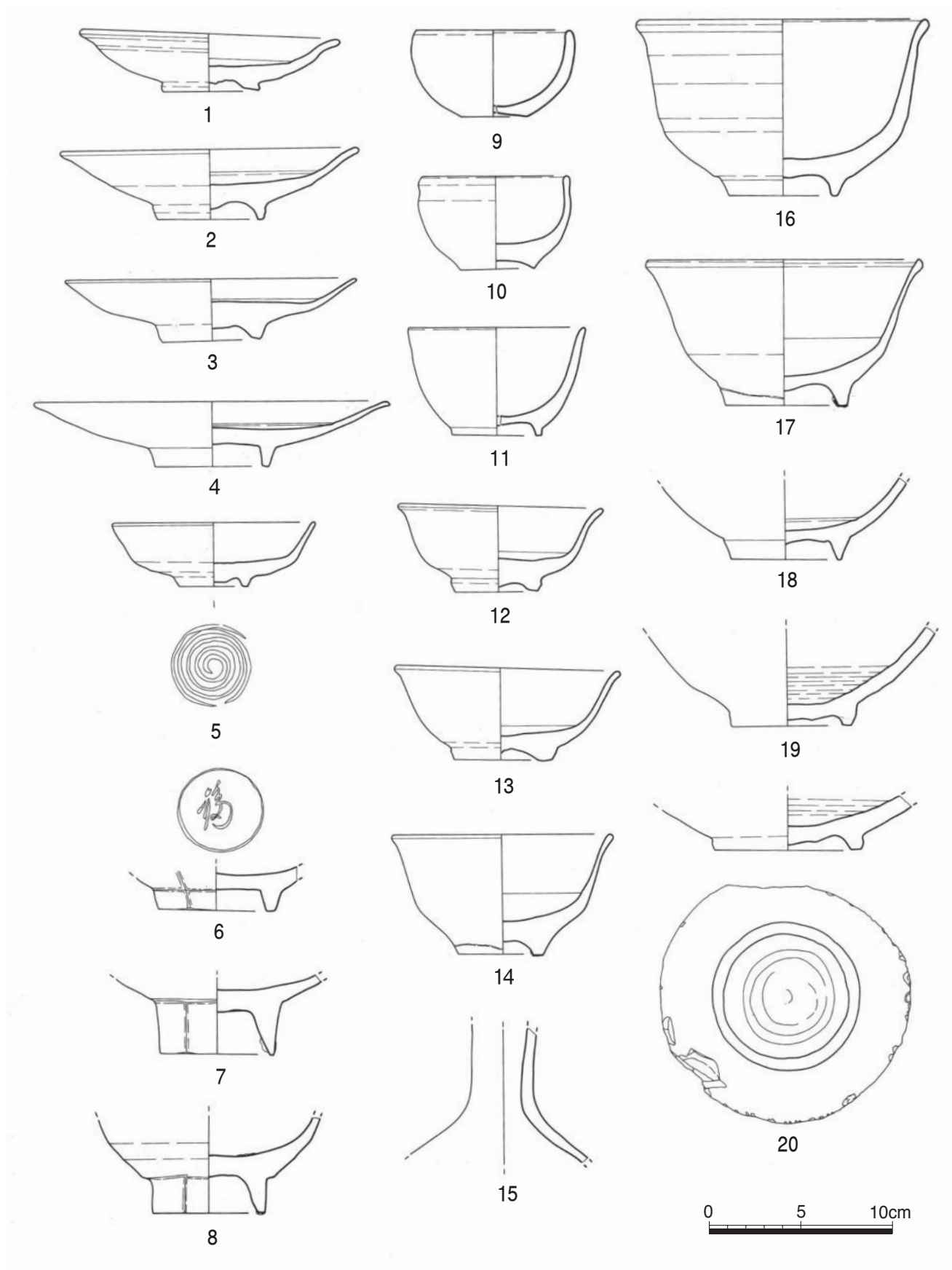
신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이고, 속심의 색조는 회갈색이다. 내저면에는 渦線紋을 돌리고 백토를 채워넣었다. 유약은 굽과 신부 외면 일부를 제외한 면에 시유되었고, 발색은 갈색에 가깝다. 굽은 죽절굽이지만, 조잡하게 제작되었다. 굽의 접지면에서는 태토빚음눈이 1개 확인된다. 내외면에 빙얼이 발생하였다. 현재 높이 3.5cm, 굽경 3.8cm

⑰ 청화백자 저부(도면 99-6, 사진 104-④)

청화백자 제기로 추정되며 저부만 남아있다. 태토는 정선된 백색점토이고, 유약은 약간 푸른 빛이 도는 회색이다. 전면에 시유되었으며, 굽에는 기포가 있다. 내저면에는 중앙에 壽(?)자를 청화로 그리고, 그 주위에 원을 돌렸다. 굽에는 가는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굽은 팔각형으로 깎았다. 현재 높이 2.4cm, 굽경 6.4cm

⑱ 백자 제기(도면 99-7, 사진 104-⑤)

백자 제기편으로 대각과 신부 일부만 남아있다. 태토는 회색점토이다. 유약은 명회색이고, 전면에 시유되었다. 시유상태는 보통이다. 대각은 외면만 8面으로 깎았다. 내저면에는 굽은 모래를, 접지면에는 흙물 섞인



도면 99. 지표수습유물(3)

굵은 모래를 받쳐 포개구이 하였다. 현재 높이 4.35cm

①⑨ 백자 제기(도면 99-8, 사진 104-⑥)

백자 제기편으로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명회색 점토이다. 유약은 푸른 빛이 도는 회색이고, 광택이 난다. 기 전면에 시유되었으며, 시유상태는 양호하다. 대각은 외면만 8面으로 깎여있다. 기면에는 빙열이 있다. 내저면과 접지면에는 굵은 모래를 받쳐 포개구이 하였다. 현재 높이 5.25cm

②⑩ 백자 잔(도면 99-9, 사진 105-⑦)

백자 잔편으로 1/4 가량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백색점토이다. 유약은 약간 푸른 빛이 도는 유백색이며, 광택이 난다. 시유상태는 양호하며, 전면에 시유되었다. 바닥은 굽내측을 살짝 파내어 평저에 가깝다. 바닥과 외저면에는 부분적으로 가는 모래가 부착되었다. 높이 3.9cm, 저경 3.05cm

②⑪ 백자 잔(도면 99-10, 사진 105-⑤)

1/3 가량 결실된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세사립이 섞인 회색점토이다. 유약은 갈회색이고, 전면에 시유되었다. 시유상태는 다소 불량하다. 기면에는 빙열과 소량의 철반이 있다. 굽과 외저면에는 굵은 모래가 다량 부착되었다. 높이 7.65 cm, 굽경 4.0cm

②⑫ 백자 잔(도면 99-11, 사진 105-④)

1/2 가량 결실된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명회색 점토이다. 유약은 광택이 나는 황회색이며, 전면에 시유되었다. 시유상태는 양호하다. 굽은 직립굽이고, 굽내측을 깊게 파냈다. 접지면에는 가는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높이 5.35cm, 굽경 4.9cm

②⑬ 백자 잔(도면 99-12, 사진 105-①)

구연부와 동체부는 1/3 가량 결실되었다. 태토는 정선된 명회색 점토이다. 유약은 회색이며, 굽과 외저면 일부를 제외한 전면에 시유되었다. 시유상태는 양호하다. 기면에는 기포와 철반이 몇 군데 형성되었다. 외저면에는 회전물레흔이 남아있고 굽은 죽절굽이다. 접지면에는 3곳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높이 4.7 cm, 구경 10.9cm, 굽경 4.45cm

②⑭ 백자 잔(도면 99-13, 사진 105-②)

구연부와 동체부는 1/3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세사립이 섞인 회색점토이다. 유약은 전반적으로 회색이나 내저면 일부는 담청색을 띠는 등 발색이 고르지 않고, 굽과 외저면 일부를 제외한 전면에 시유되었다. 시유상태는 보통이며, 외저면과 내저면에는 다소 불량하다. 기면에는 기포와 철반이 형성되었다. 접지면에는 4곳에 태토비짐을 받쳐 번조했다. 굽은 죽절굽이며, 굽 내측을 얇게 파냈다. 높이 5.0cm, 굽경 5.4cm

②⑮ 백자 대접(도면 99-14, 사진 104-②)

백자 대접으로 구연부는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명회색 점토이다. 유약은 광택이 나는 담청색이고, 전면에 시유되었다. 시유상태는 보통이다. 빙열이 있으며, 내저면에는 유약이 산화되었다. 접지면과 외저면에는 흙물 섞인 모래가 다량 부착되어 있다. 굽은 오목굽이다. 높이 5.05cm, 굽경 4.0cm

②⑯ 흑유병(도면 99-15, 사진 105-⑨)

경부와 동체부 일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세사립이 섞여있다. 내·외면에는 흑색유약이 시유되었는데, 내면은 유약의 일부가 산화되었다. 경부 내·외면에는 녹로회전흔이 남아있다. 내·외면에서는 빙열이 확인

된다. 현재 높이 7.3cm

㉗ 백자 대접(도면 99-16, 사진 103-④)

백자 대접으로 1/4 가량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회색점토이다. 유약은 약간 푸른 빛이 도는 회색이고, 전면에 시유되었다. 시유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 외면에는 물레흔이 뚜렷하게 남아있고, 기면에는 기포와 빙얼이 있다. 굽은 직립굽이고, 접지면에는 가는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높이 9.5cm, 굽경 5.9cm

㉘ 백자 대접(도면 99-17, 사진 103-⑤)

백자 대접으로 구연부와 동체부는 2/3 가량 결실되어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명회색 점토이다. 유약은 푸른 빛이 도는 회색으로 광택이 나고, 전면에 시유되었다. 기면에는 빙얼이 있다. 내저면에는 굽은 모래를, 접지면에는 흙물 섞인 굽은 모래를 받쳐 포개구이 하였다. 내저원각경은 굽경보다 크다. 높이 7.9cm, 굽경 6.55cm

㉙ 백자 접시(도면 99-18, 사진 103-⑥)

백자 접시의 저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백색점토이고, 유약은 황백색이다. 기 전면에 시유되었으며, 시유상태는 양호하다. 기면에는 빙얼이 있으며, 내저면에는 철반이 있다. 접지면에는 가는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굽은 도립삼각형굽이고, 내저원각경은 굽경보다 크다. 현재 높이 4.3cm, 굽경 6.1cm

㉚ 분청사기 저부편(도면 99-19, 사진 104-③)

굽과 신부 일부만 남아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이고, 속심의 색조는 회색이다. 신부 외면 일부와 내면은 백토분장후 유약이 시유되었으나, 용융상태가 불량하여 일부는 산화되었고, 발색은 녹황색에 가깝다. 굽과 신부 하위쪽 외면은 유약이 시유되지 않았고, 암갈색을 띤다. 굽은 죽절굽이지만 조잡하게 제작되었고, 굽의 접지면에서는 빗듬눈이 붙었던 흔적이 3군데에서 확인된다. 현재 높이 5.25cm, 굽경 6.45cm

㉛ 분청사기 저부편(도면 99-20, 사진 105-⑥)

굽과 신부 일부만이 원형으로 남아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이고, 속심의 색조는 암갈색이다. 유약은 내면과 신부 하위 외면 일부에만 시유되었는데 발색은 갈색에 가깝다. 굽과 신부 하위쪽 외면은 유약이 시유되지 않았고, 색조는 암갈색을 띤다. 굽은 죽절굽이지만 조잡하게 제작되었다. 내저면에서는 빗듬눈이 붙었던 흔적이 4곳에서 확인되지만, 굽의 접지면에서는 분명하게 관찰되지 않는다. 현재 높이 3.1cm, 굽경 6.0cm

㉜ 공이(도면 100-1, 사진 106-②)

공이로 추정되나 확실한 용도는 알 수 없다. 전체적인 형태는 제형이다. 선단부는 오목하게 가공되었고, 단이 지면서 몸통으로 이어진다. 선단부에는 사용흔이 관찰되고, 단과 몸통의 경계 부분에서는 마연흔적이 확인된다. 말단부는 편평하고 매끈하게 가공되었다. 길이 10.55cm, 너비 5.4cm, 두께 4.95cm, 무게 419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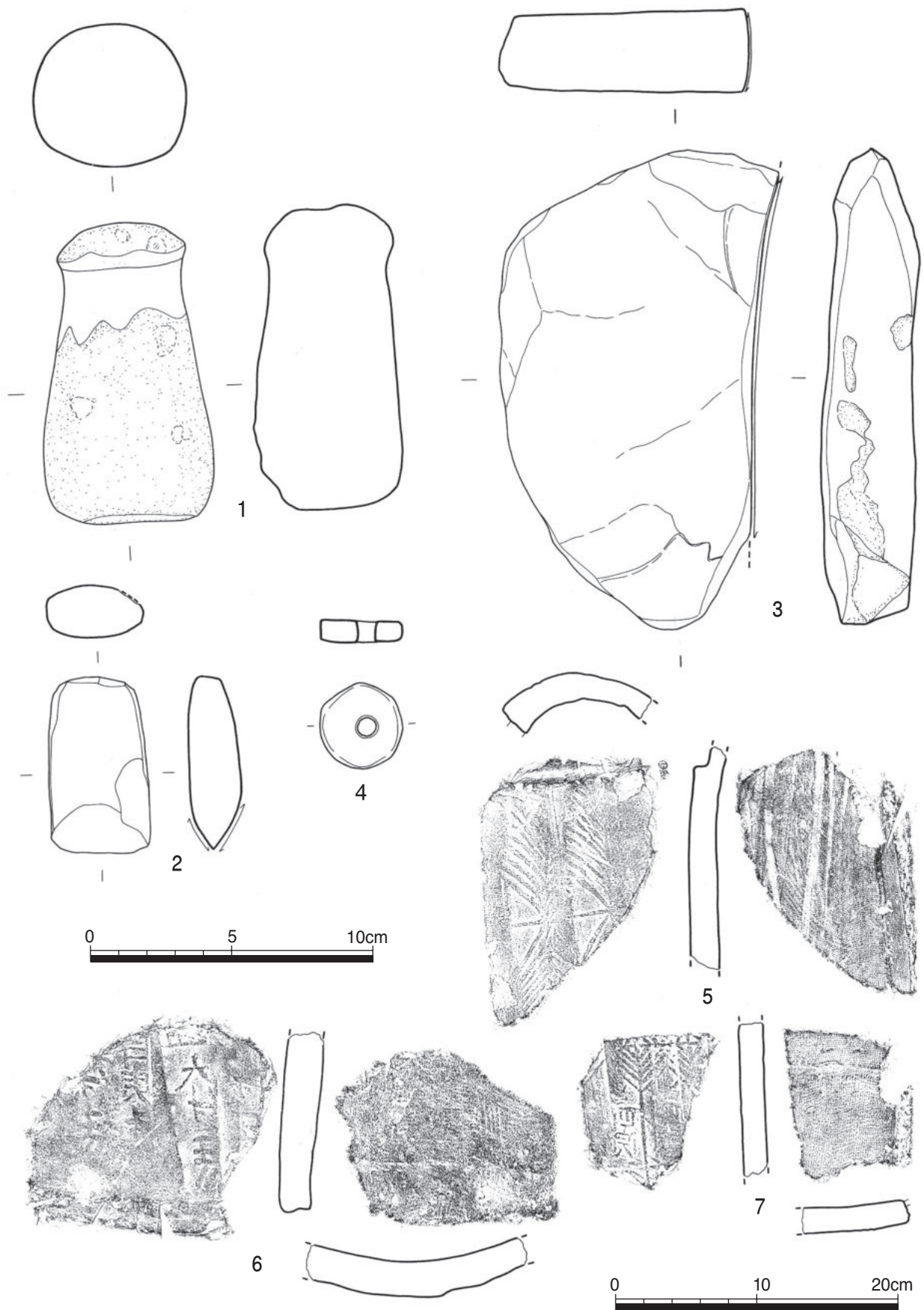
㉝ 석부(도면 100-2, 사진 106-①)

혼펠스제이며 일부가 결실되었다. 날을 양쪽에 만든 합인이며 마연은 정교하게 되었으나 날의 면은 양면이 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암석에 충리 현상이 뚜렷하게 보인다. 길이 6.7cm, 너비 3.5cm, 두께 1.85cm, 무게 72g

㉞ 지석(도면 100-3, 사진 106-③)

사암제이며 양단부가 결실되었다. 사용면은 윗면으로 오목하게 마연되었다. 단면은 세장방형이며 양측면은 반듯하게 다듬어 졌다. 현재 길이 16.85cm, 너비 8.85cm, 두께 3.1cm, 무게 695g

㉟ 원형토제품(도면 100-4, 사진 106-④)



도면 100. 지표수습유물(4)

연질토기편을 원형으로 가공하였다. 태토에는 세사립과 운모립이 섞여있다. 색조는 암회색인데, 외면은 박리되어 회색을 띤다. 측면은 마연하였고, 가운데 구멍을 뚫었다. 구멍의 지름은 0.8cm이다. 길이 3.0cm, 두께 0.8cm

③⑥ 수키와(도면100-5, 사진 107-①)

상하대칭 어골문의 회백색 경질의 수키와이다. 태토는 정선된 사질점토질이며 연강부분은 결실되어 일부만 남아 있다. 배면은 분할계선이 0.6cm폭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포목흔은 부분적으로만 확인된다. 분할면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와도흔이 확인되고 있으며 와도면은 1.3cm가량이다. 현재 길이 17.3cm, 현재 너비 11cm, 두께 2.4cm

③⑦ 암키와(도면100-6, 사진 106-⑥)

명문이 시문된 황갈색의 연질 암키와편이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사질점토질이며 등면에는 左書로 2열 ‘本 王(玉) / 事 主’ 銘 명문이 시문되었다.⁵¹⁾ 배면은 빗질정면되어 포목흔은 확인되지 않으며 와도 분할면도 멸실되었다. 현재 길이 12.5cm, 현재 너비 14.7cm, 두께 2cm

③⑧ 암키와(도면100-7, 사진 106-⑤)

유사어골명문의 회청색 경질의 암키와이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사질점토이며 등면 문양은 상하대칭의 어골문이 시문된 가운데 명문이 확인되고 있는데 명문은 左書로 ‘西 院’으로 보인다. 배면은 8×8올의 포목흔이 관찰된다. 분할면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3mm의 와도흔이 확인되고 있다. 현재 길이 10.5cm, 현재 너비 7cm, 두께 1.8cm

③⑨ 암키와(도면101-1, 사진 107-③)

사격자문 회청색 경질 암키와편이다. 태토는 석립이 혼입된 사질점토이며 등면 전체에 태사선문이 시문되었다. 배면에는 비교적 성긴 올의 포목흔이 관찰된다. 분할면은 3mm의 와도흔이 내면에서 외면으로 절단되었으며 단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약1/6가량이다. 현재 길이 16.5cm, 현재 너비 12.5cm, 두께 1.9cm

④⑩ 암키와(도면101-2, 사진 107-②)

유사어골문의 회청색 경질의 암키와이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사질점토이며, 등면문양은 유사어골문이 명확하게 시문되어 있으며 내면은 비교적 성긴 7×7올을 보여주고 있다. 분할면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절단하였으며 와도흔은 2mm가량으로 일정한 편이다. 현재 길이 10.5cm, 현재 너비 12cm, 두께 1.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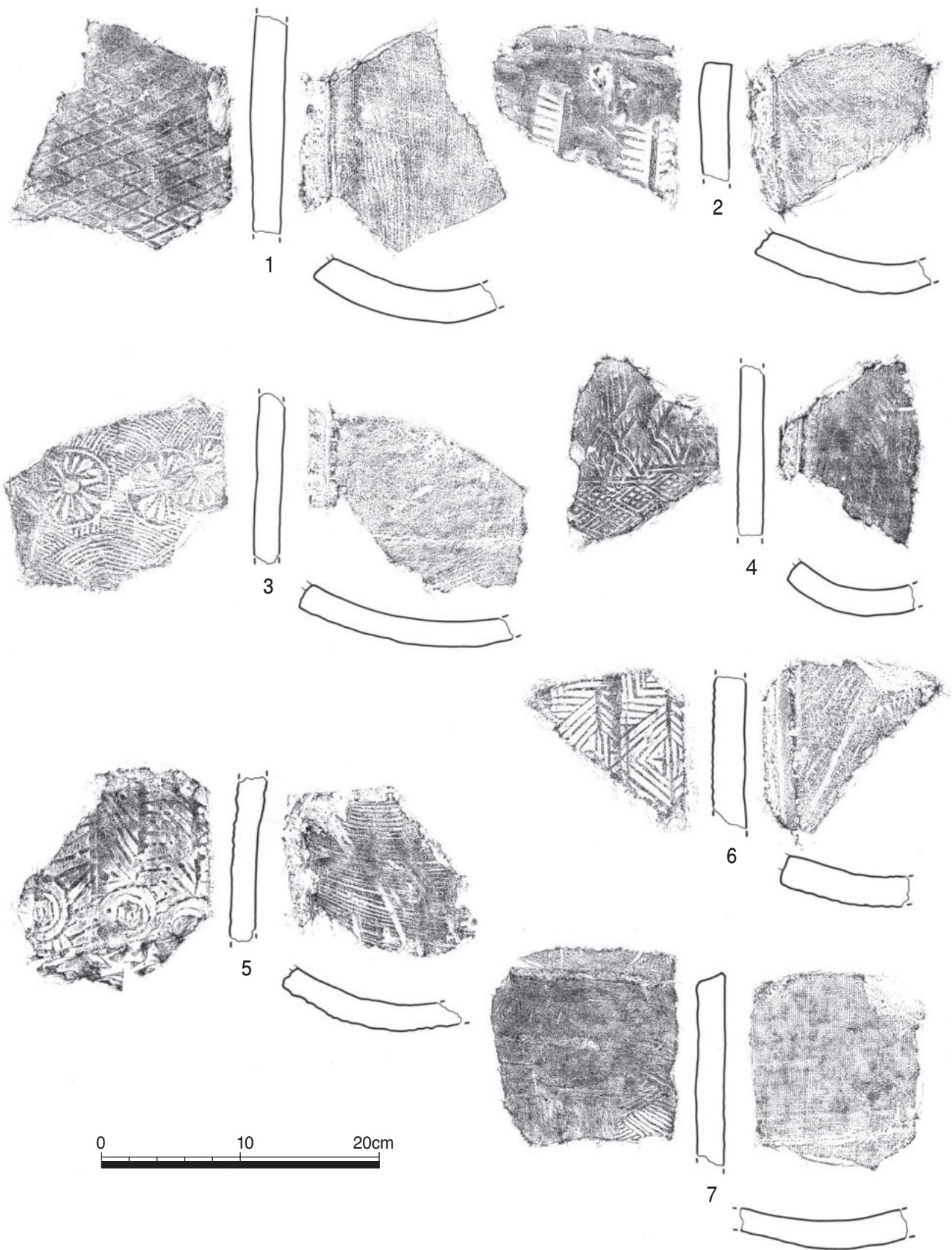
④⑪ 암키와(도면101-3, 사진 107-⑤)

화문복합문의 회청색 경질의 암키와이다. 태토는 세석립이 혼입된 사질점토이며 등면 문양은 화문과 주변의 선문이 복합된 문양배치를 보여주고 있다. 배면은 포목흔이 관찰되지 않으며 포목을 묶었던 윤철흔이 확인된다. 분할면은 와도의 폭이 6mm가량으로 내면에서 외면으로 분할하였다. 현재 길이 11.3cm, 현재 너비 14cm, 두께 1.9cm

④⑫ 수키와(도면101-4, 사진 107-④)

능형문 회청색 경질 수키와편이다.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사질점토이며 배면은 물손질을 통해 포목흔이 대부분 지워진 상태이나 단면쪽 일부에서 관찰된다. 포목흔은 비교적 성긴 편이며 1cm당 올수는 8×8이다. 분할면은 와도를 내면에서 외면으로 올려 그었으며 단면의 약1/5가량을 차지한다. 현재 길이 13.7

51)명문의 판독은 우리 연구원의 윤한택 전통문화실장님께서 도움을 주셨다.



도면 101. 지표수습유물(5)

cm, 현재 너비 9.5cm, 두께 1.7cm

④③ 암키와(도면101-5, 사진 107-⑦)

원권복합문의 회청색 경질 암키와편이다. 태토는 석립 다수 혼입된 사질점토이며, 등면은 원권문이 시문된 주변으로 기하학적 선문이 배치된 복합문이 명확하게 시문되어 있다. 배면은 빗질정면되어 포목흔이 드러나지 않으며 분할면은 멸실되어 와도흔이 관찰되지 않는다. 현재 길이 11.5cm, 현재 너비 13cm, 두께 1.8cm

④④ 암키와(도면101-6, 사진 107-⑥)

집선문 회흑색 경질 암키와편이다. 태토는 석립이 혼입된 사질점토이며 배면은 빗질정면으로 포목흔은 일부에서만 확인된다. 분할면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와도흔이 나타나고 있으며 단면의 1/2이상 차지하고 있다. 현재 길이 12.1cm, 현재 너비 10.5cm, 두께 2.1cm

④⑤ 암키와(도면101-7, 사진 107-⑧)

집선문 혹은 화문복합문의 일부로 보이는 회청색 경질의 암키와편이다. 태토는 석립이 다수 포함된 사질점토질이며 조밀한 10×10을 가지는 포목흔이 매우 뚜렷하게 관찰된다. 또한, 포목을 상하로 연결한 연결흔도 관찰되는 반면에 와도로 분할한 분할면은 멸실되어 확인하기 어렵다. 현재 길이 14cm, 현재 너비 12cm, 두께 2cm

④⑥ 銅匙(도면 102-1, 사진 108-①)

匙의 先端部가 결실되었고 부식이 심하다. 匙部の 평면형태는 유엽형이며, 柄部는 기부와 단부에 비해 중앙부가 가늘고, 단부쪽으로 갈수록 점점 폭이 넓어지고 두께도 얇아지다가 棒狀으로 구부려 蓮棒形의 장식을 달았다. 중앙부의 단면은 장방형이다. 길이 22.8cm, 무게 22g

④⑦ 銅匙(도면 102-2, 사진 108-②)

匙의 先端部가 결실되었고 부식이 심하다. 匙部の 평면형태는 유엽형이며, 柄部는 기부와 단부에 비해 중앙부가 가늘고, 단부쪽으로 갈수록 점점 폭이 넓어지고 두께도 얇아지다가 棒狀으로 구부려 蓮棒形의 장식을 달았다. 시부의 단면은 가장자리에서 중앙부로 갈수록 얇아지고, 병부 중앙부의 단면은 반원형이다. 길이 23.2cm, 무게 20g

④⑧ 銅匙(도면 102-3, 사진 108-③)

匙의 先端部가 결실되었고 부식이 심하다. 匙部の 평면형태는 유엽형이며, 柄部는 기부와 단부에 비해 중앙부가 가늘고, 단부쪽으로 갈수록 점점 폭이 넓어지고 두께도 얇아지다가 棒狀으로 구부려 蓮棒形의 장식을 달았다. 병부 중앙부의 단면은 반원형이다. 길이 20.7cm, 무게 17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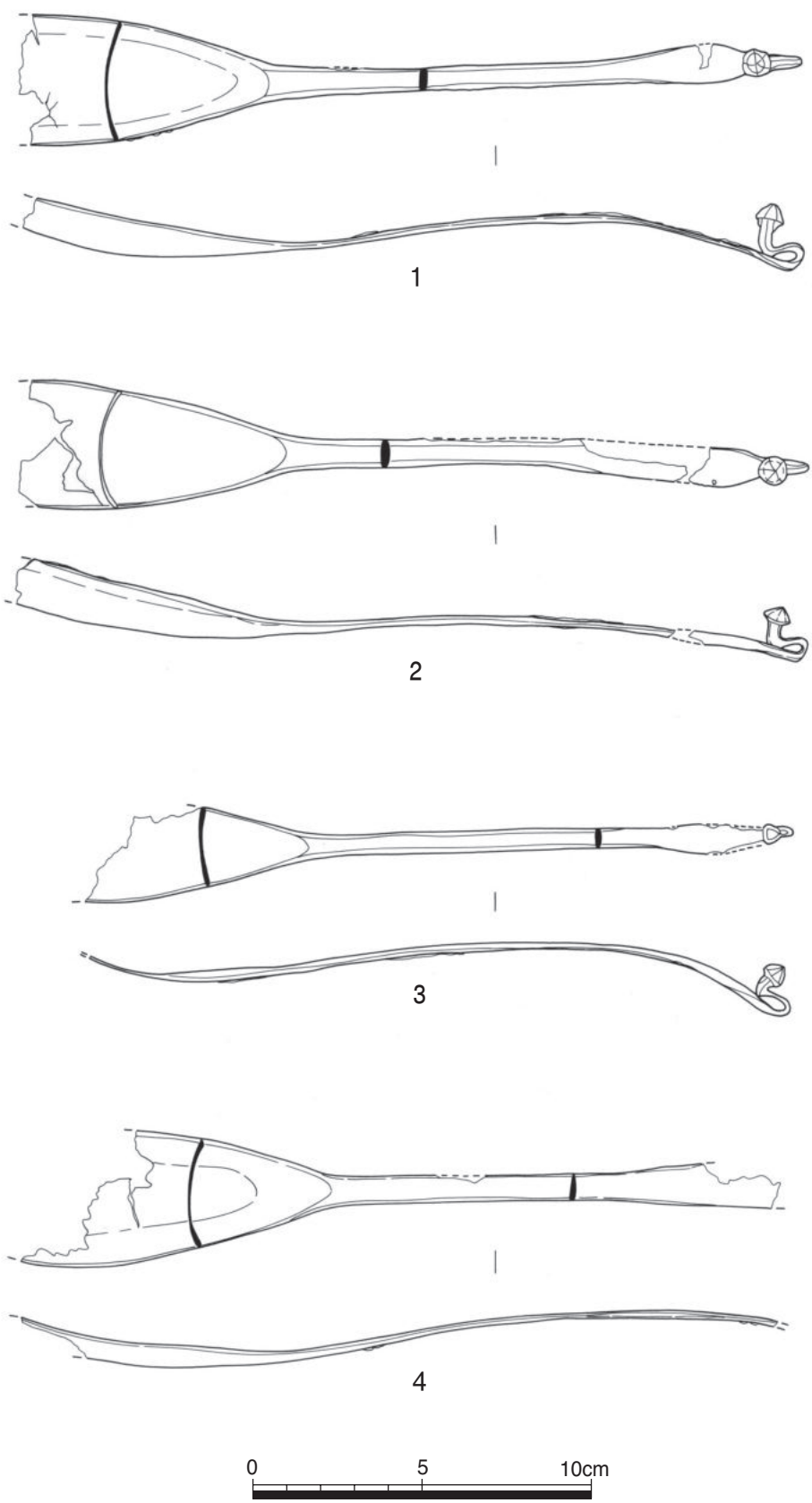
④⑨ 銅匙(도면 102-4, 사진 108-⑦)

匙와 柄의 先端部가 결실되었고 부식이 심하다. 匙部の 평면형태는 유엽형이며, 柄部는 기부와 단부에 비해 중앙부가 가늘고, 단부쪽으로 갈수록 점점 폭이 넓어지고 두께도 얇아지며 병부 중앙부의 단면은 반원형이다. 길이 23.0cm, 무게 17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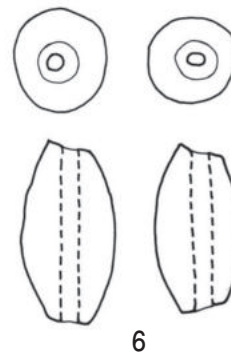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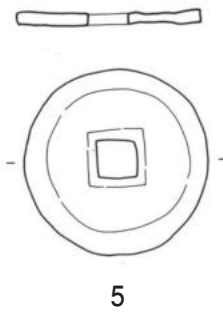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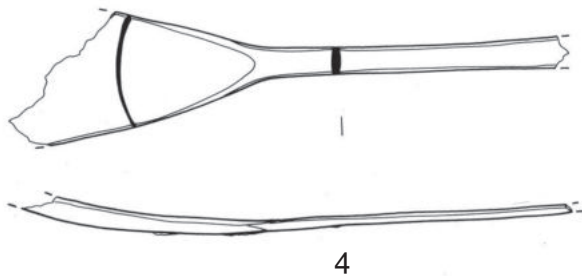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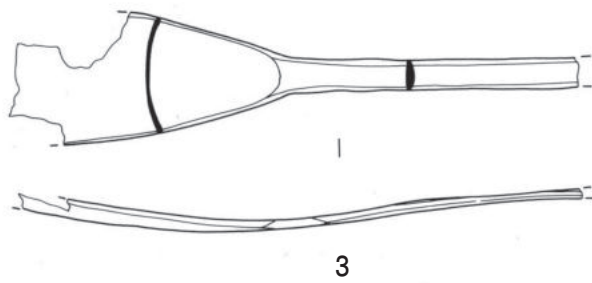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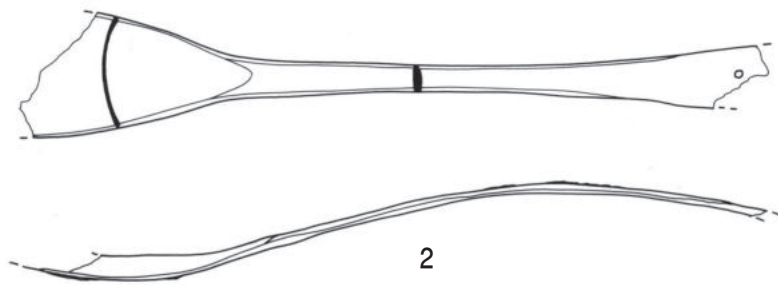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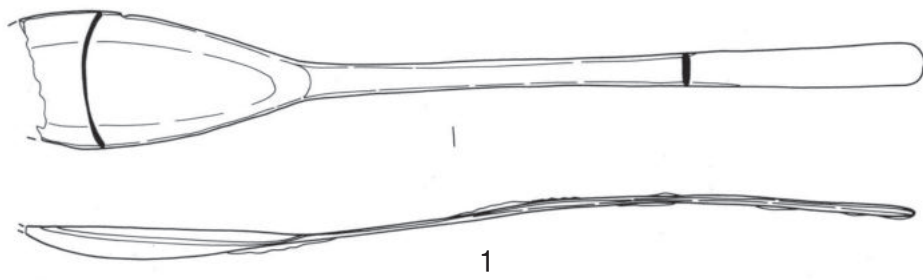
⑤⑩ 銅匙(도면 103-1, 사진 108-④)

匙의 先端部가 결실되었고 부식이 심하다. 匙部の 평면형태는 유엽형이며, 柄部는 기부와 단부에 비해 중앙부가 가늘고, 단부쪽으로 갈수록 점점 폭이 넓어지고 두께도 얇아지며 둥글게 마무리 되었다. 병부 중앙부의 단면은 반원형이다. 길이 23.8cm, 무게 22g

⑤⑪ 銅匙(도면 103-2, 사진 108-⑤)



도면 102. 지표수습유물(6)



도면 103. 지표수습유물(7)

匙와 柄의 先端部가 결실되었고 부식이 심하다. 匙部の 평면형태는 유엽형이며, 柄部는 기부와 단부에 비해 중앙부가 가늘고, 단부로 갈수록 점점 폭이 넓어지고 두께도 얇아지며 병부 중앙부의 단면은 반원형이다. 길이 19.7cm, 무게 17g

㉔ 銅匙(도면 103-3, 사진 108-⑥)

匙와 柄의 端部가 결실되었고 부식이 심하다. 匙部の 평면형태는 유엽형이며, 柄部는 기부와 단부에 비해 중앙부가 가늘다. 병부의 단면은 반원형이다. 길이 15.05cm, 무게 14g

㉕ 銅匙(도면 103-4, 사진 108-⑧)

匙와 柄의 端部가 결실되었고 부식이 심하다. 匙部の 평면형태는 유엽형이며, 柄部는 기부와 단부에 비해 중앙부가 가늘다. 병부의 단면은 반원형이다. 길이 14.8cm, 무게 9g

㉖ 銅錢(도면 103-5, 사진 108-⑨)

전면에 常平通寶가 방형 구멍의 상하좌우 면에 주조되어 있다.

겉둘레의 지름 2.4cm이고 테두리의 너비는 0.3cm이다. 무게 4g

㉗ 석제 장신구(도면 103-6·7, 사진 108-⑩)

22호주거지 주변에서 수습되었다. 석영제이며 중앙부에 지름 0.2cm 정도의 구멍이 관통되게 뚫려 있다. 결 방향으로 파손이 되었고 표면은 일부가 박리되었다. 길이 2.3cm·2.1cm, 폭 1.7cm·1.65cm, 무게 6g·4g

V. 고찰

1. 遺構

1) 住居址

총 40기가 조사되었으며, 그 중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2기이고, 조선시대의 주거지가 38기이다.

청동기시대의 주거지는 능선의 정상부에서 확인되며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으로 주축방향은 남-북향이 다. 구조적인 특징을 보면 바닥은 풍화암반토위에 불다짐 처리를 하였으며 1호 주거지에는 중앙에 수혈과 기둥구멍 2개가 있다. 2호 주거지는 일부만 남아 있는데 수혈만 남아있고 주혈의 유무는 확인할 수 없다. 이번 조사지점인 15지점에서는 2기만 확인이 되었지만 시굴조사에서 3기, 한신대박물관에서 조사한 인접한 18지점에서는 14기의 유사한 형태의 주거지 확인되고 있어 비교적 큰 규모의 취락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주거지의 편년은 청동기시대 전기의 장방형 또는 세장방형의 대형주거지에 비해 규모가 작고 내부에 2개의 기둥구멍과 수혈이 있는 송국리형 주거지의 구조와 형태면에서 유사하므로 청동기시대 후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 주거지는 대부분 구릉의 사면 중턱이나 하단부에서 위치하며 전반적으로 삭평이 심하여 남아 있는 상태가 불량하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方形 또는 抹角方形, 圓形, 橢圓形, 不定形 등 다양하다.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은 편이며 바닥은 대부분 풍화암반토면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가 많고, 점토나 점질의 단단한 흙을 일정한 두께로 깔아서 사용한 예도 일부 확인된다. 내부시설로는 아궁이시설, 온돌시설, 주혈, 수혈이 있다. 아궁이시설은 온돌시설의 고래와 연결된 것(1호, 2호, 4호)과 벽면 한쪽에 부뚜막처럼 만든 것(3호, 7호, 13호, 14호, 15호, 35호, 36호)이 있다. 이들 주거지에서는 배연부가 모두 확인되었다. 남아 있는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일부 주거지에서 배연부가 남아있으나 아궁이 시설이 확인되지 않은 것도 있다.

온돌시설이 있는 3기의 주거지 고래시설은 모두 생토면을 파서 4줄로 만들었다, 아궁이는 할석을 이용하여 만들었으며 1호와 2호에는 터널식 아궁이가 각각 2개씩 설치되어 있고, 4호에는 현재 1개의 아궁이가 확인되나 구조상 1호, 2호와 마찬가지로 2개일 가능성이 높다. 아궁이의 맞은 편 벽 중앙부에 배연부를 설치하였고 배연부 앞에 얇은 구덩이를 파서 개자리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한편, 온돌시설이 확인되지 않은 대부분의 주거지에서는 벽면 한 쪽에 부뚜막시설 또는 소토의흔적이 남아 있고 30cm내외 정도의 폭으로 굴토한 배연부가 확인된다. 이들 시설은 주로 동남쪽에 위치하나 동쪽 또는 남쪽에 위치하기도 한다. 33호 주거지의 경우 배연시설의 길이가 4m정도이고 북쪽에 위치하는 예도 있다.

대부분의 주거지에서 크고 작은 수혈과 불규칙한 수혈이 확인되었고 10호 주거지에는 밖으로 돌출한 출입구 시설이 확인되었다.

반송리 중세유적 주거지 속성표

시대	유구 번호	평면형태	규모(cm) 장축×단축×깊이	장축방향	내부시설	출토유물
청동기	1호	말각장방형	450×374×23	남-북	주혈, 원형수혈	무문토기저부1, 지석3, 유구석부편1, 미완성석기1
	2호	말각장방형 (추정)	500×156×20	남-북	원형수혈	무문토기(구연부편1·저부1), 지석2
조선	1호	장방형	433×215×55	동-서	구들, 고래, 아궁이, 배연부	도기(동이1·저부편1) 백자(잔1·접시1·저부1)
	2호	장방형	452×275×40	동-서	고래, 아궁이, 배연부	도기구연부편1
	3호	타원형	346×243×76	남-북	아궁이, 배연부	백자접시1, 도기저부편1
	4호	장방형(추정)	514×225×55	동-서	고래, 아궁이, 배연부,	.
	5호	말각장방형	394×274×38	북동-남서	수혈	백자저부1, 말화석편1
	6호	원형	276×210×43	.	원형수혈, 배연부	백자저부1, 도기구연부편1
	7호	타원형(추정)	385×181×33	남-북	수혈, 주혈, 아궁이	분청사기대접1, 철점1
	8호	방형 또는 장방형(추정)	288×160×12	.	주혈	.
	9호	말각방형	328×237×52	북서-남동	수혈, 주혈	분청사기대접1, 백자접시5, 도기(저부편1파수1), 지석1 수키와4, 암키와10
	10호	장방형	425×322×105	동-서	출입구, 주혈	분청사기저부편1, 도기(구연부편1·저부1), 수키와1, 암키와3
	11호	방형(추정)	342×334×49	동-서	주혈,	백자(제기2·저부1)
	12호	방형(추정)	297×280×34	동-서	수혈, 주혈	분청사기대접1, 도기구연부편1
	13호	타원형(추정)	190×198×30	동-서	배연부, 아궁이	도기동이1, 암키와1
	14호	원형	336×298×45	.	배연부, 아궁이, 주혈	분청사기저부2
	15호	장방형(추정)	325×258×52	남-북	배연부, 아궁이, 수혈	분청사기접시1, 지석1 백자(접시1·저부2)
	16호	원형	315×277×34	.	배연부, 수혈	도기구연부편1, 암키와1, 철촉1
	17호	방형	292×262×40	남-북	수혈, 주혈	백자(접시2·저부1), 지석1, 도기구연부편1, 수키와1
	18호	장방형(추정)	256×155×40	동-서	배연부	.
	19호	방형	345×343×73	.	주혈	백자잔1, 조선청자대접1, 도기(호편1·구연부편5)
	20호	장방형(추정)	233×192×49	남-북	주혈	백자(접시1·잔1·저부1), 도기저부편1, 수키와1, 암키와1

시대	유구 번호	평면형태	규모(cm) 장축×단축×깊이	장축방향	내부시설	출토유물
조선	21호	장방형(추정)	310×250×43	동-서	.	백자(접시2·대접1·저부1), 도기구연부편1, 수키와1, 암키와1
	22호	부정형	324×290×40	.	배연부, 주혈	백자(병1대접1·저부1), 도기(구연부편1·동체부편1)
	23호	방형 또는 장방형(추정)	240×220×35	.	배연부, 주혈	도기(동이1·구연부편1·파수1), 백자대접1
	24호	원형(추정)	230×265×28	.	주혈	.
	25호	방형 또는 원형(추정)	325×195×65	.	.	도기저부편1
	26호	장방형	320×306×38	.	주혈	분청사기저부1, 도기저부1, 암키와1
	27호	.	130×238×12	.	주혈	조선청자발2, 백자저부1, 도기(구연부1·저부1·동체부1)
	28호	방형(추정)	244×268×36	.	주혈	조선청자대접1, 도기(호편1·저부편1)
	29호	방형 또는 장방형(추정)	187×288×72	.	수혈, 주혈	도기(구연부편1·저부편1)
	30호	부정형	339×268×27	.	주혈	백자저부2, 암키와1
	31호	장방형(추정)	236×152×45	.	배연부	.
	32호	부정형	275×190×23	.	.	백자(잔1·저부2), 암키와2
	33호	부정형	642×218×12	북서-남동	배연부, 아궁이, 수혈, 주혈	백자(잔1·접시1·저부1), 도기호편1, 암키와2
	34호	장방형(추정)	262×217×77	북동-남서	주혈	백자(발2·저부1), 도기(동이1· 구연부편1·저부편1·파수1)
	35호	방형 또는 장방형(추정)	255×182×25	.	배연부, 아궁이, 수혈	백자(잔1·저부2), 도기(호편1· 구연부편1·저부편1·파수1), 암키와1
	36호	방형	281×230×62	.	배연부, 아궁이, 주혈	분청사기동체부편2, 암키와1
	37호	방형 또는 원형(추정)	292×214×57	.	수혈	도기(구연부편1·저부편1), 수키와4, 암키와5
	38호	방형 또는 장방형(추정)	264×170×28	.	수혈	도기호편1

2) 竪穴

수혈은 청동기시대 1기, 조선시대 9기 총 10기가 확인되었다. 대부분이 삭평 또는 유실되어 상태가 불량하다. 평면형태는 원형, 타원형, 부정형이며 1호를 제외하고 비교적 소형이고 남아 있는 깊이도 얇다.

반송리 중세유적 수혈 속성표

시대	유구 번호	평면형태	규모(cm) 장축×단축×깊이	장축방향	내부시설	출토유물
청동기	1호	원형	180×123×21	·	·	반월형석도1
조선	1호	부정형	625×362×20	동-서	·	·
	2호	부정형	490×104×20	동-서	·	·
	3호	·	198×108×54	·	·	·
	4호	타원형	169×127×24	·	·	도기(구연부편2·저부1), 백자저부1
	5호	원형	128×104×33	·	·	·
	6호	장방형	321×127×20	동-서	주혈	백자접시1
	7호	부정형	185×150×12	·	·	·
	8호	타원형	158×117×15	북동-남서	·	·
	9호	장타원형	300×117×20	북동-남서	·	도기저부편1

3) 建物址

건물지는 총 3기가 확인되었는데 상부 및 바닥면의 대부분이 결실되어 남아 있는 상태가 매우 불량하다. 1호 건물지는 아궁이시설, 고래시설, 배연부 등이, 2호 건물지는 적심으로 추정되는 원형수혈과 석렬 등 일부만 남아 있어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지상식 건물지 1기는 남북방향을 주축으로 주혈 2개가 2열로 확인되었다. 1열과 2열의 주혈간 간격이 다르고 경사면의 아래쪽에 유실되어 전체적인 면모를 파악할 수가 없다.

4) 溝狀遺構

구상유구는 구릉의 서쪽 경사면에서 3기가 확인되었다. 주축방향은 동서방향이고 단면은 완만한 'U'자상이다. 3기가 모두 중복된 상태로 확인되었는데 노출 상태로 보아 내부에서 석렬이 확인되는 2호가 가장 후대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모두 경사면을 따라 조성된 自然溝일 가능성이 많다. 1호에서는 백제토기편이, 2호에서는 자기와 도기편이 확인되었으나 3호에서는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다.

5) 墓

묘는 구릉의 동쪽과 남쪽 사면에서 주로 조성되었으나 14호묘는 구릉의 정상부에서 확인되었다. 모두 14기가 확인되었는데 내부에서 회곽이 설치된 것은 5호, 6호, 9호이다. 5호와 6호는 이장된 묘이며 9호묘에서는 인골이 남아있었다. 14호 묘는 좁은 간격을 두고 북쪽 토광과 남쪽 토광 2개의 토광을 길게 등고선과 나란히 조성한 특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두 묘광은 터널처럼 뚫려 양쪽이 연결되어 있다. 북쪽 토광의 양장벽 상면에서 일정거리를 두고 관석렬이 배치되어 있고, 벽감과 내부 바닥에서 조선통보, 청동거울, 청동수저, 철제 가위 등이 출토되었다. 남쪽 토광에서는 별다른 시설이나 유물이 확인되지 않았다. 14호 묘는 입지 면에서나 규모, 출토유물 등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송리 중세유적 묘 속성표

시대	유구 번호	평면형태	규모(cm) 장축×단축×깊이	장축방향	내부시설	출토유물	특기사항
조선	1호	세장방형	211×76×18	남-북	·	·	
	2호	세장방형	238×98×89	북서-남동	·	·	
	3호	세장방형	외광:185×118×10 내광:118×35×30	동-서	·	·	
	4호	세장방형	152×100×15	남-북	·	·	
	5호	세장방형	205×105×72	북동-남서	회곽	·	이장
	6호	세장방형	215×82×80	북동-남서	회곽	·	이장
	7호	세장방형	152×57×35	남-북	·	·	
	8호	세장방형	260×78×22	북동-남서	·	·	
	9호	세장방형	216×80×98	북서-남동	회곽	·	인골
	10호	세장방형	201×70×71	북서-남동	·	·	
	11호	세장방형	202×81×60	북서-남동	·	·	
	12호	세장방형	233×81×60	동-서	·	·	
	13호	세장방형	258×102×94	북서-남동	·	·	
	14호	세장방형	북:274×113×182 남:270×93×157	북동-남서	·	백자저부1, 도기호편1, 가위1, 조선통보22, 동경1, 관정20, 숟가락1, 젓가락1	

2. 遺物

청동기시대의 유구에서 출토된 유물은 무문토기 파편과 소량의 석기로 빈약한 편이다. 무문토기는 주로 저부와 동체부의 파편이고, 석기도 제작 과정상의 미완성품으로 속성을 추출하여 편년의 자료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조선시대 주거지, 건물지, 수혈, 묘에서 출토된 유물은 자기와 기와편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자기는 주로 백자편이 다수를 차지하며, 분청사기편은 소량이다. 자기는 조선백자로 15~16세기대, 18~19세기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5~16세기대 유물은 1호, 9호, 10호, 14호, 19호, 26호, 17호, 28호, 36호 주거지 출토품을 들고 있고, 18~19세기유물은 11호 건물지, 3호 수혈, 2호 건물지 출토품을 들 수 있다.

기와는 평기와가 대부분이나 완형보다는 파편인 상태로 출토되었으며, 수키와는 유단식과 무단식이 모두 확인되고 있다.

금속유물은 14호 묘에서 동경, 조선통보, 청동수저, 가위, 관정이 출토되었다. 조선통보는 1423년(세종5년) 조선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동전으로 1445년(세종27년)에 유통이 중단되었다.

Ⅵ. 맺음말

화성 반송리 중세유적은 화성 동탄 택지개발사업지구내 15지점 유적으로 발굴조사 결과 靑銅器時代 住居址 2基 및 豎穴 1基, 朝鮮時代 住居址 38基, 豎穴 9基, 建物址 3棟, 墓 14基, 溝狀遺構 3基, 未詳遺構 1基 등 71基의 遺構를 확인하였다. 유물은 청동기시대 유구에서 무문토기편과 지석, 반제품의 석기류가 출토되었고, 조선시대 유구에서 자기, 도기, 기와를 비롯하여 동경, 동전 등이 출토되었다.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수혈은 구릉의 정상부에서 확인되었으며 청동기시대 후기로 편년되는 송국리형 주거지의 특징적인 구조를 보여 주고 있으며, 인접한 18지점 조사에서도 유사한 주거지가 조사되어 반송리 지역의 청동기시대 지역적, 시기적인 특징을 파악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조선시대 주거지는 15지점에서 조사된 유구의 60%를 점유하고 있으나 삭평, 유실이 심하여 특징적인 양상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1호, 2호, 4호 주거지는 온돌시설을 파악할 수 있는 아궁이, 고래, 배연부 등이 잘 남아 있어 이 당시의 주거지의 내부 시설과 구조 등 생활상을 복원하는데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의 주거지에서 벽면의 한쪽에 아궁이시설이 확인되는 주거지도 있어 난방, 취사 등 실제 생활의 일면을 유추할 수 있겠다.

조선시대 주거지에서 출토된 유물은 대부분이 15~16세기로 편년되는 조선백자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수혈이나 건물지에서 출토된 유물은 18~19세기대로 편년되는 조선백자이다.

묘에서 유물이 출토된 유구는 14호 묘가 유일하다. 14호 묘에서는 조선통보, 청동수저, 청동거울, 가위, 관정 등 금속유물이 주로 출토되었다. 조선통보는 세종연간에 제작되어 사용된 동전으로 유구의 성격은 다르지만 주거지에서 출토된 백자의 편년과도 부합하고 있다.

반송리 중세유적의 유구에서는 특징적인 부분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출토된 유물로 보아 이 유적의 중심연대를 15~16세기로 볼 수 있다.

사 진



사진 1. 盤松里 中世遺蹟 (15지점) 발굴조사전 전경(①), 조사 전경(②)



사진 2. 반송리 중세 유적(15지점) 발굴조사 근경(①·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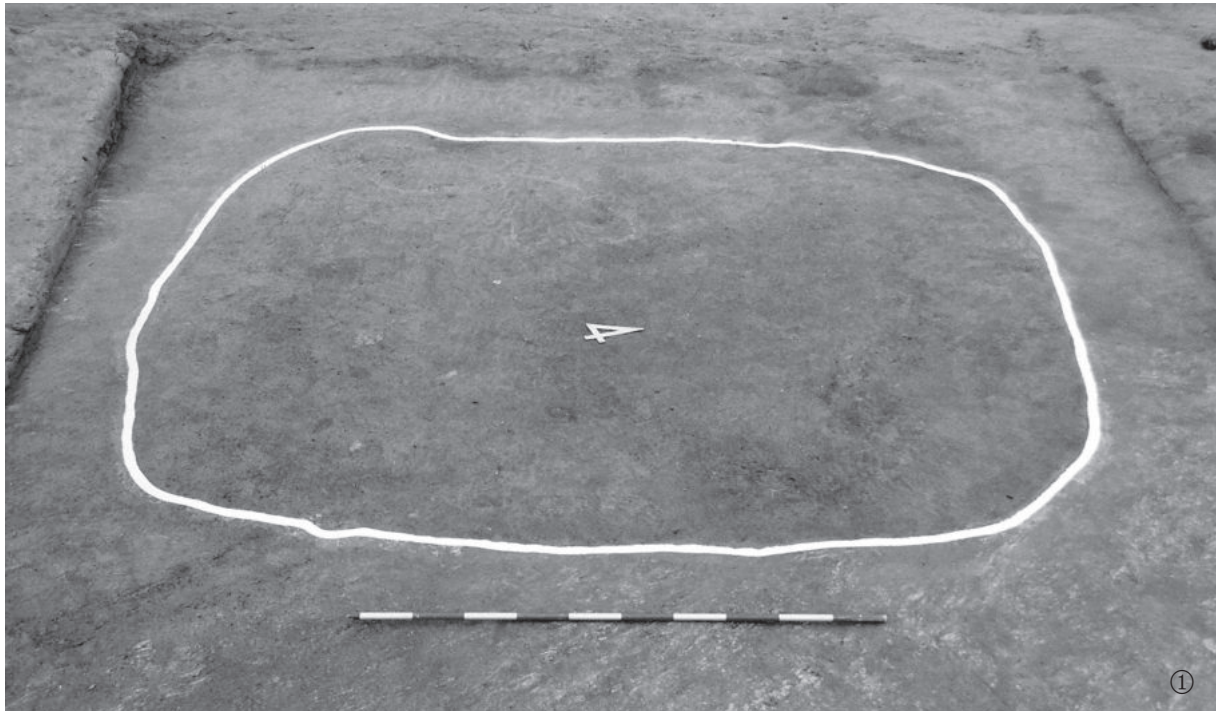


사진 3. 청동기시대 1호주거지 조사전 전경(①), 내부토층(②동-서, ③남-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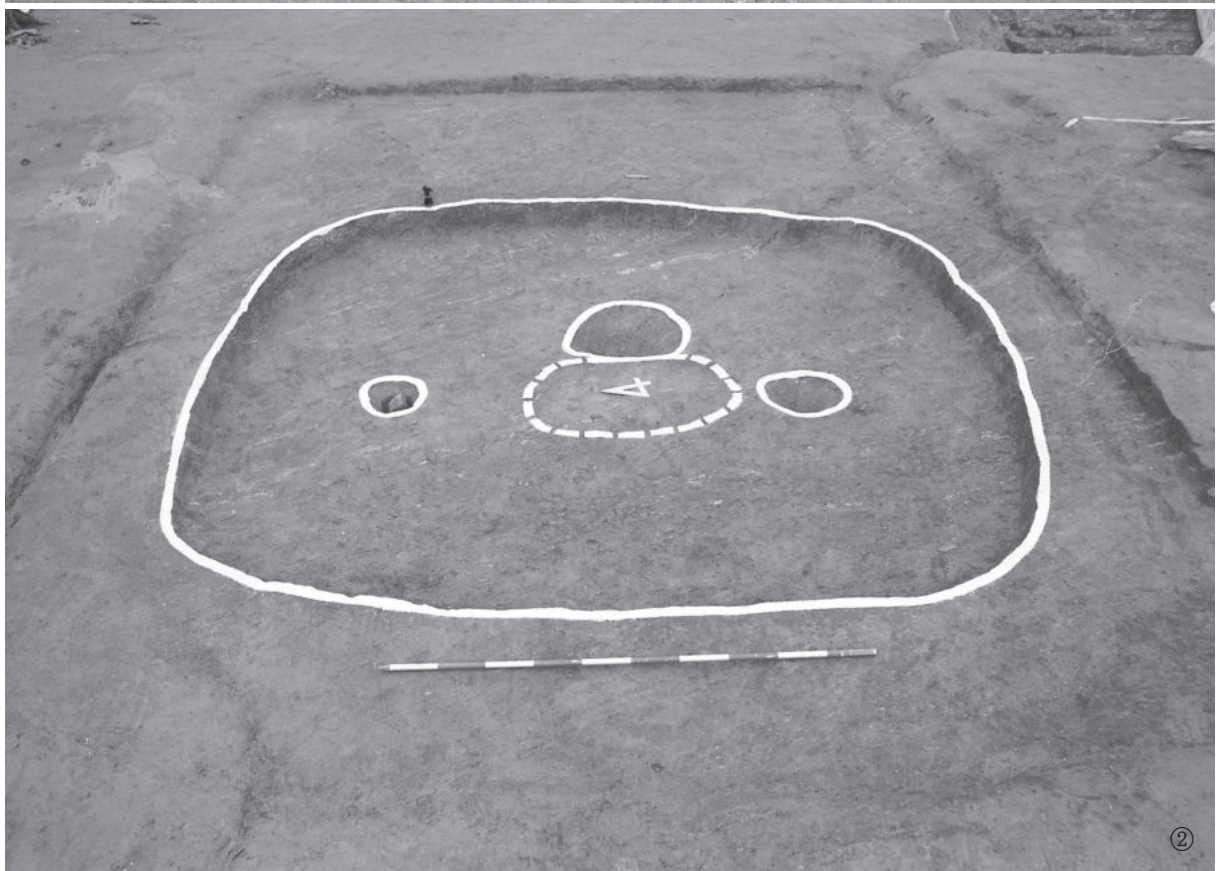


사진 4. 청동기시대 1호주거지 내부노출상태(①), 조사후 전경(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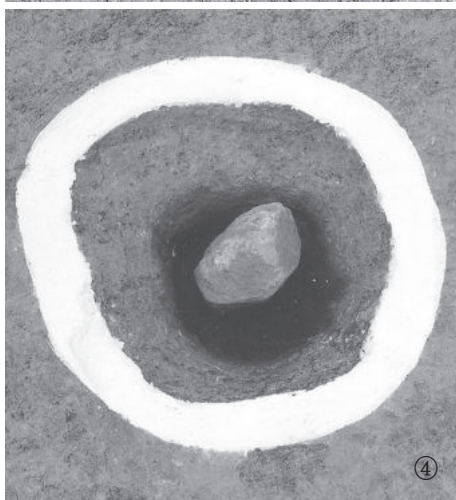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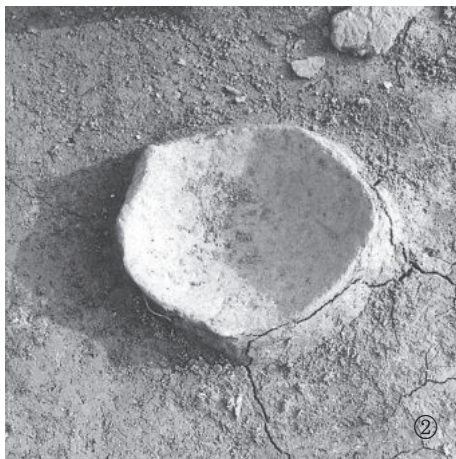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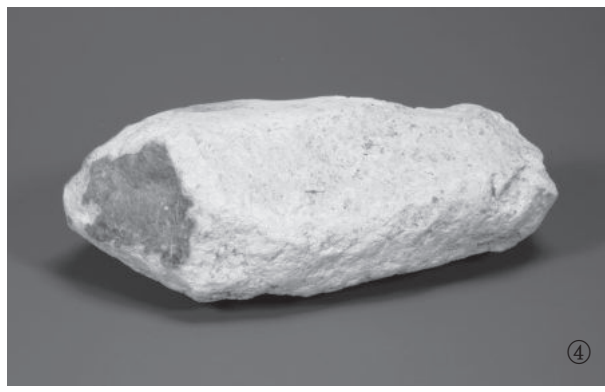
사진 5. 청동기시대 1호주거지 유물출토상태(①·②), 추정 노지(③), 주혈(④북쪽, ⑤남쪽)



①



②



④



③



⑤



⑥



⑦

사진 6. 청동기시대 1호주거지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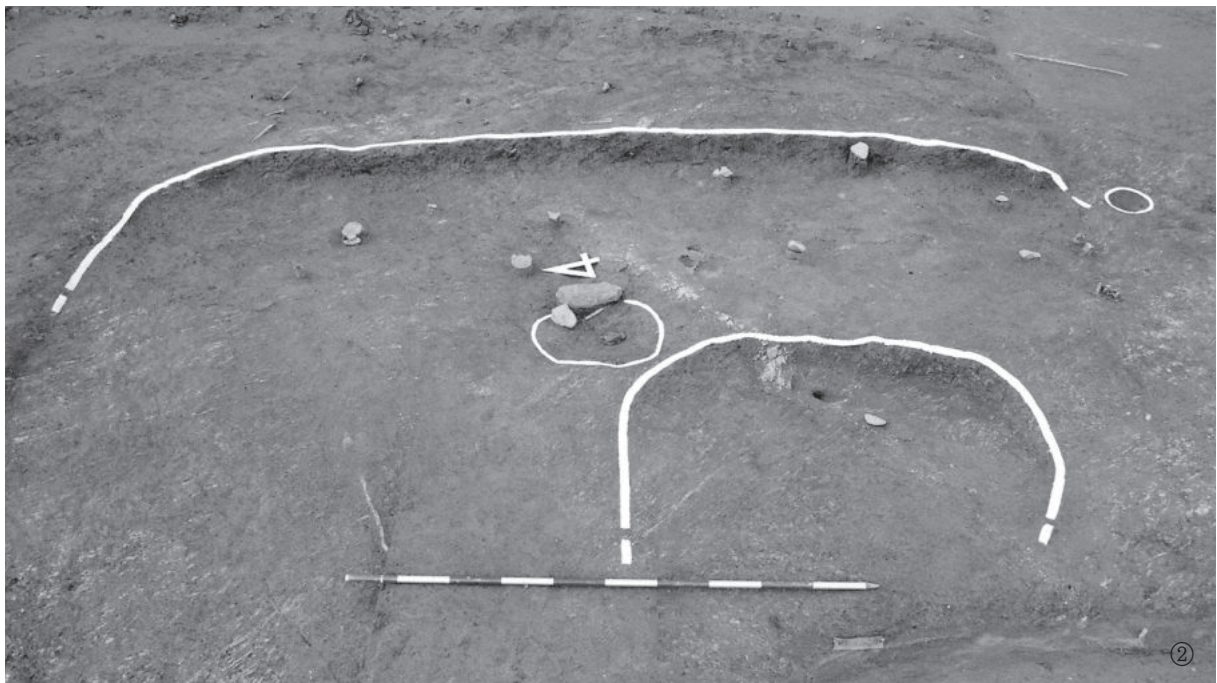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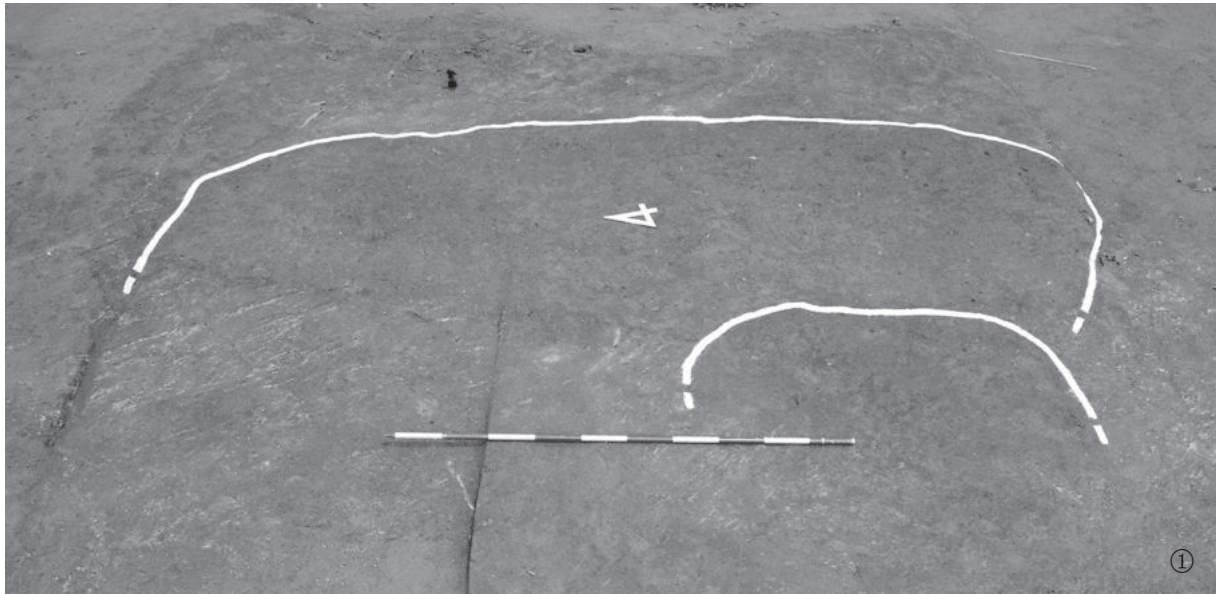


사진 7. 청동기시대 2호주거지 조사전 전경(①), 내부노출상태(②), 작업공(③), 유물출토상태(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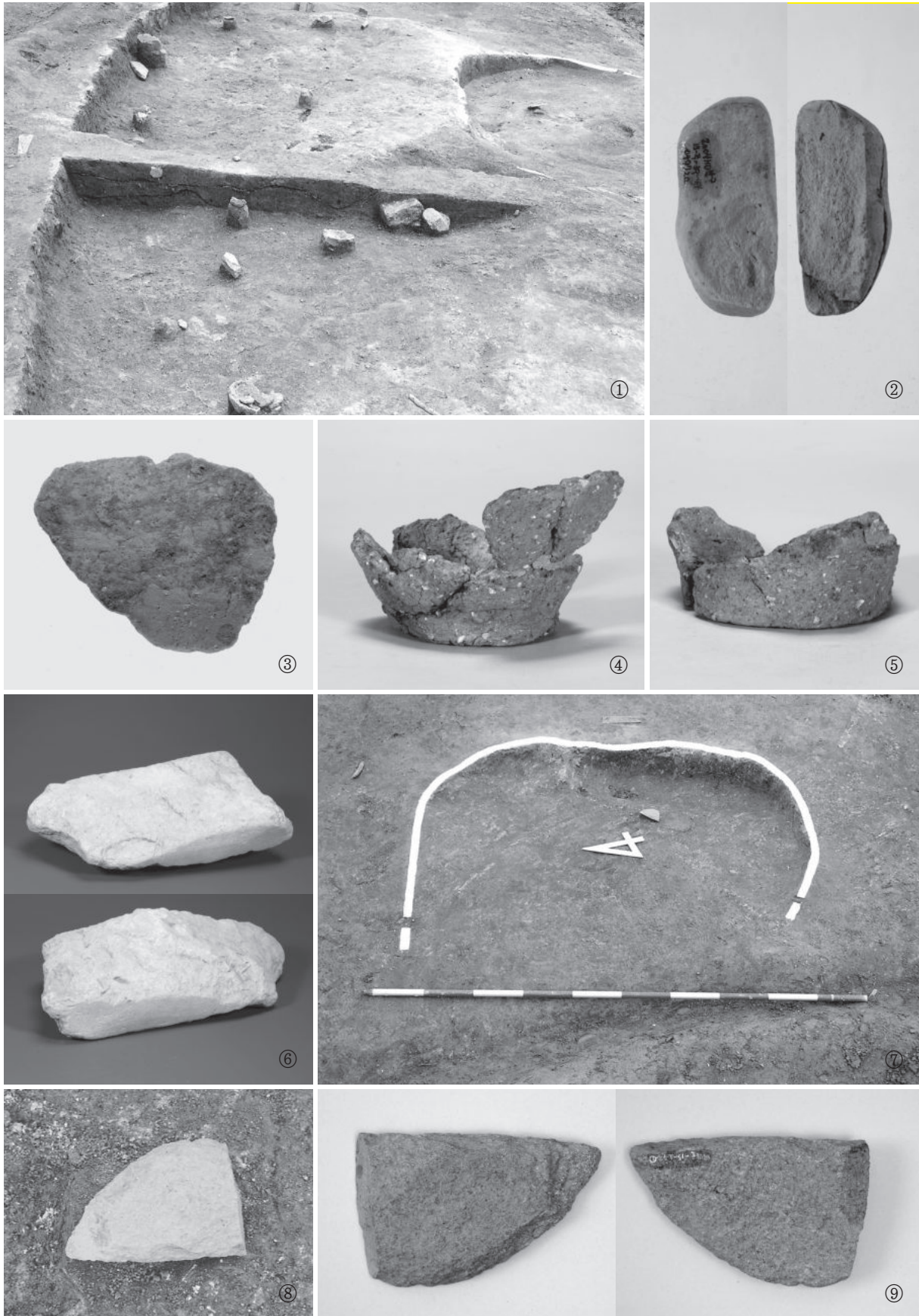


사진 8. 청동기시대 2호주거지 내부 토층(①), 출토유물(②~⑥), 1호수혈 전경(⑦), 유물출토상태(⑧), 출토유물(⑨)



사진 9. 朝鮮時代 1호주거지 조사전 전경(①), 내부토층(②·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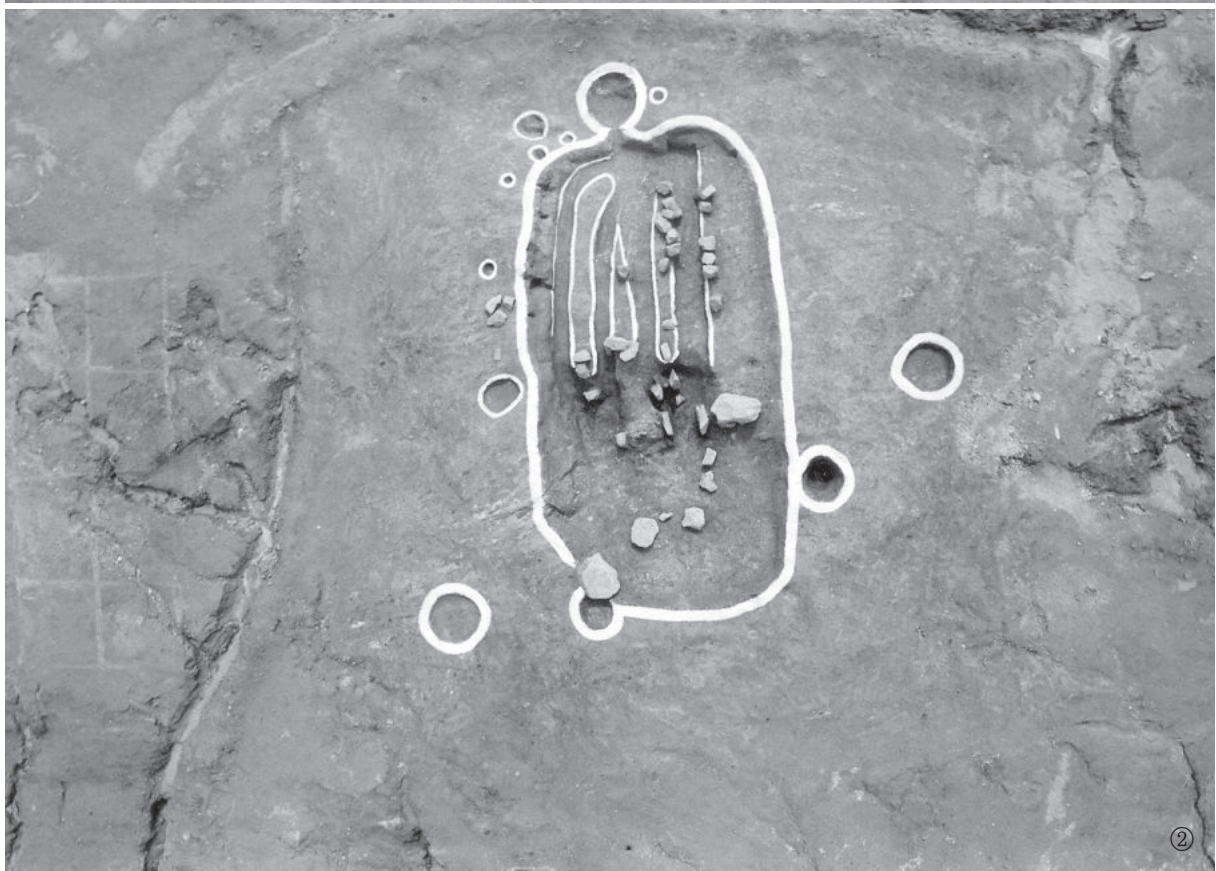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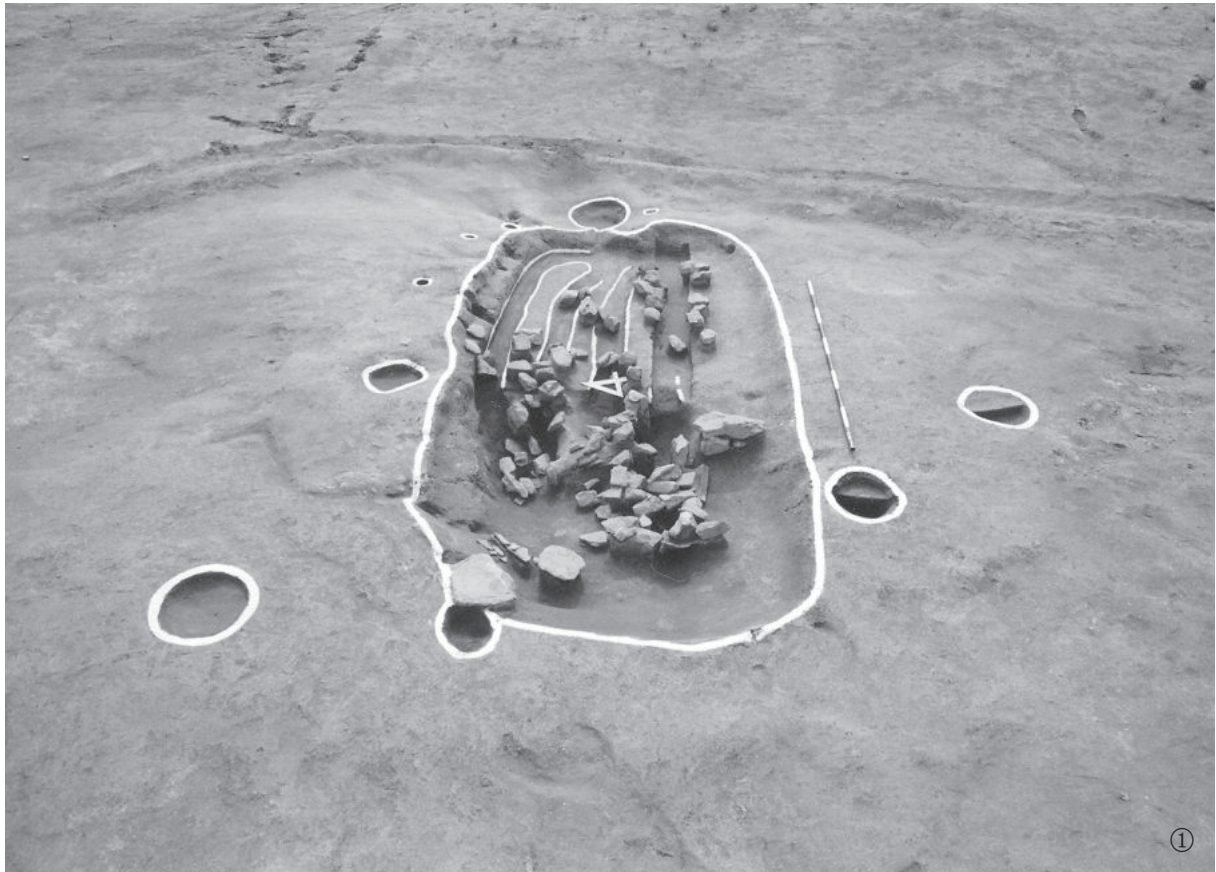


사진 10. 1호주거지 전경(①아궁이 제거전, ②아궁이 제거후)



사진 11. 1호주거지 세부(①고래, ②아궁이)



사진 12. 1호주거지 유물출토상태(①·②), 출토유물(③~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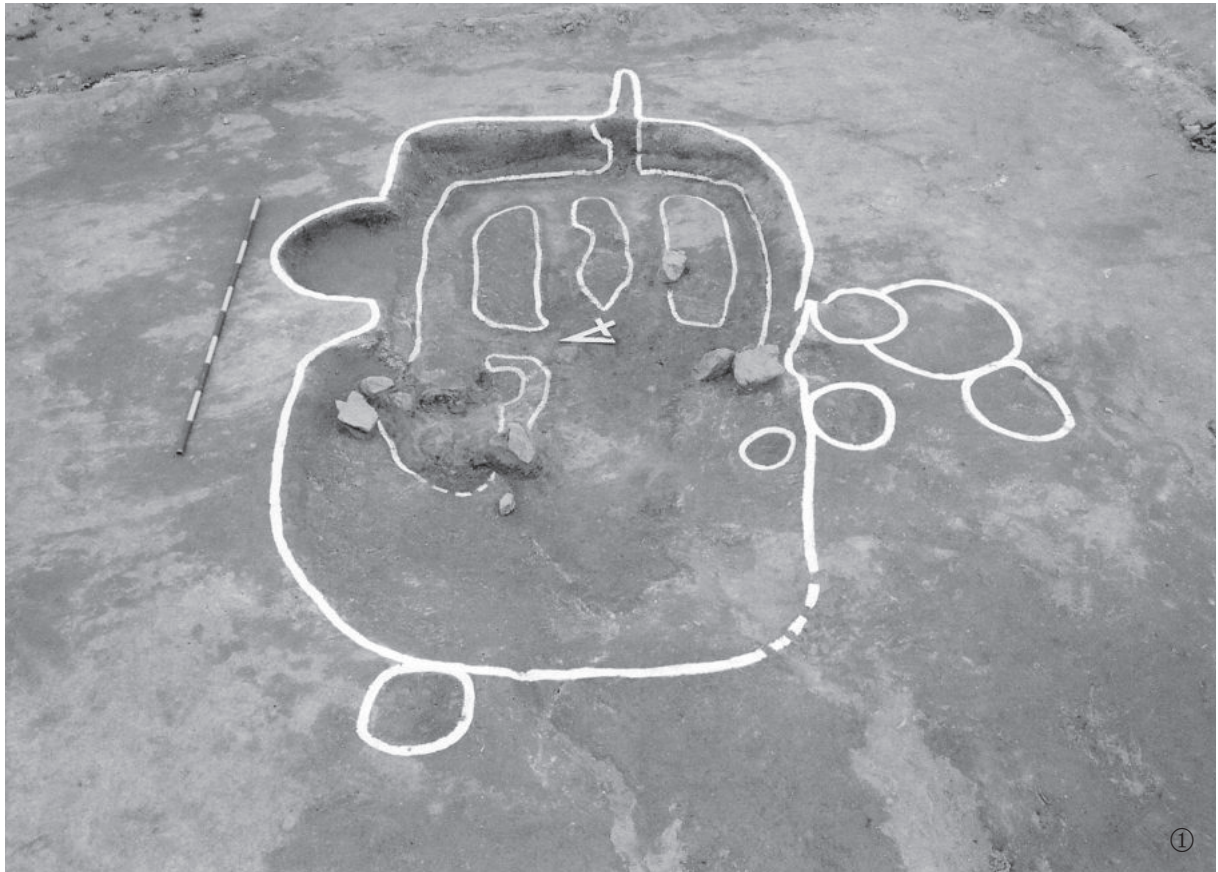


사진 13. 2호주거지 전경(①내부 조사전, ②내부 조사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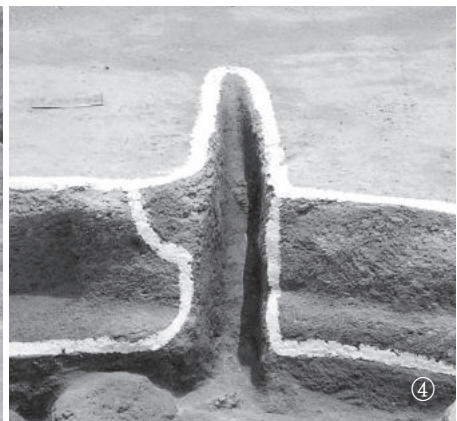


사진 14. 2호주거지 내부토층(①), 바닥 세부(②), 아궁이(③), 배연부(④), 출토유물(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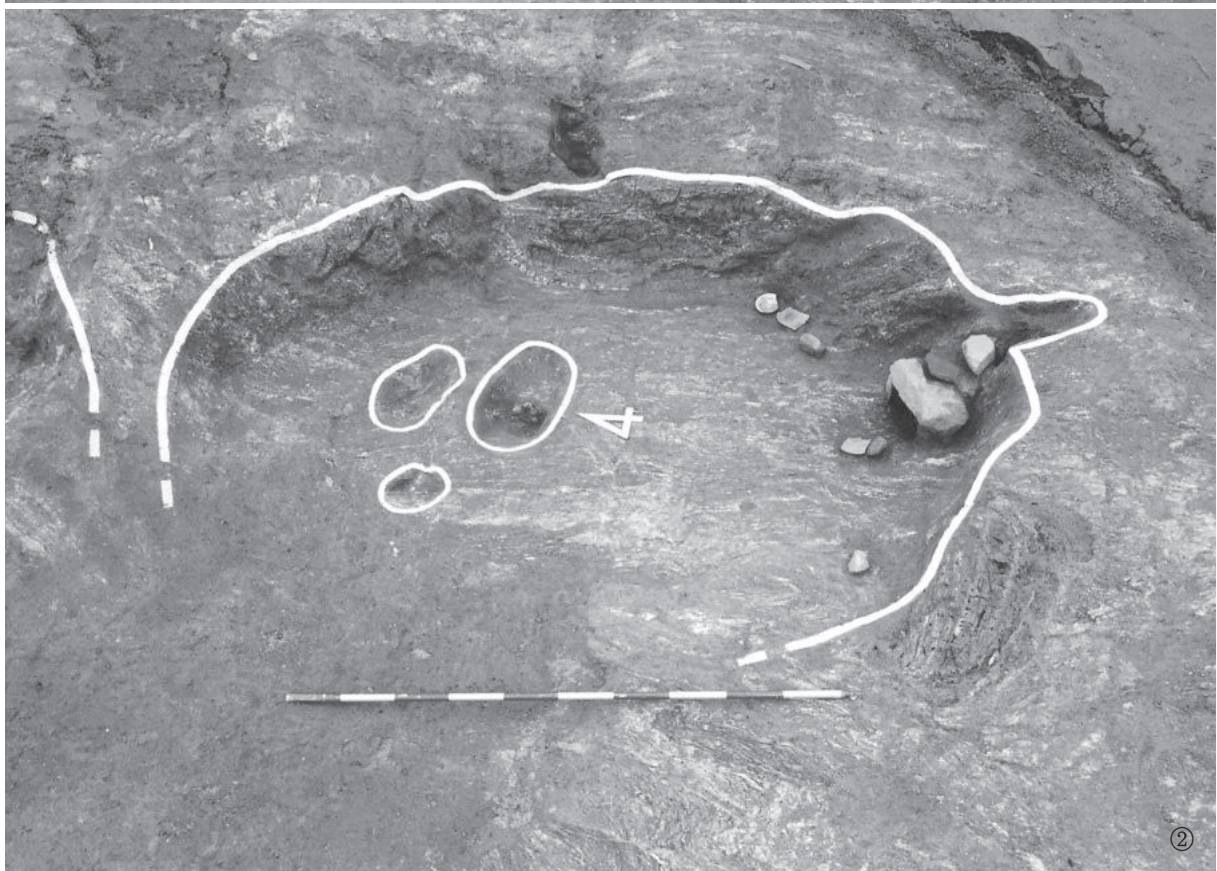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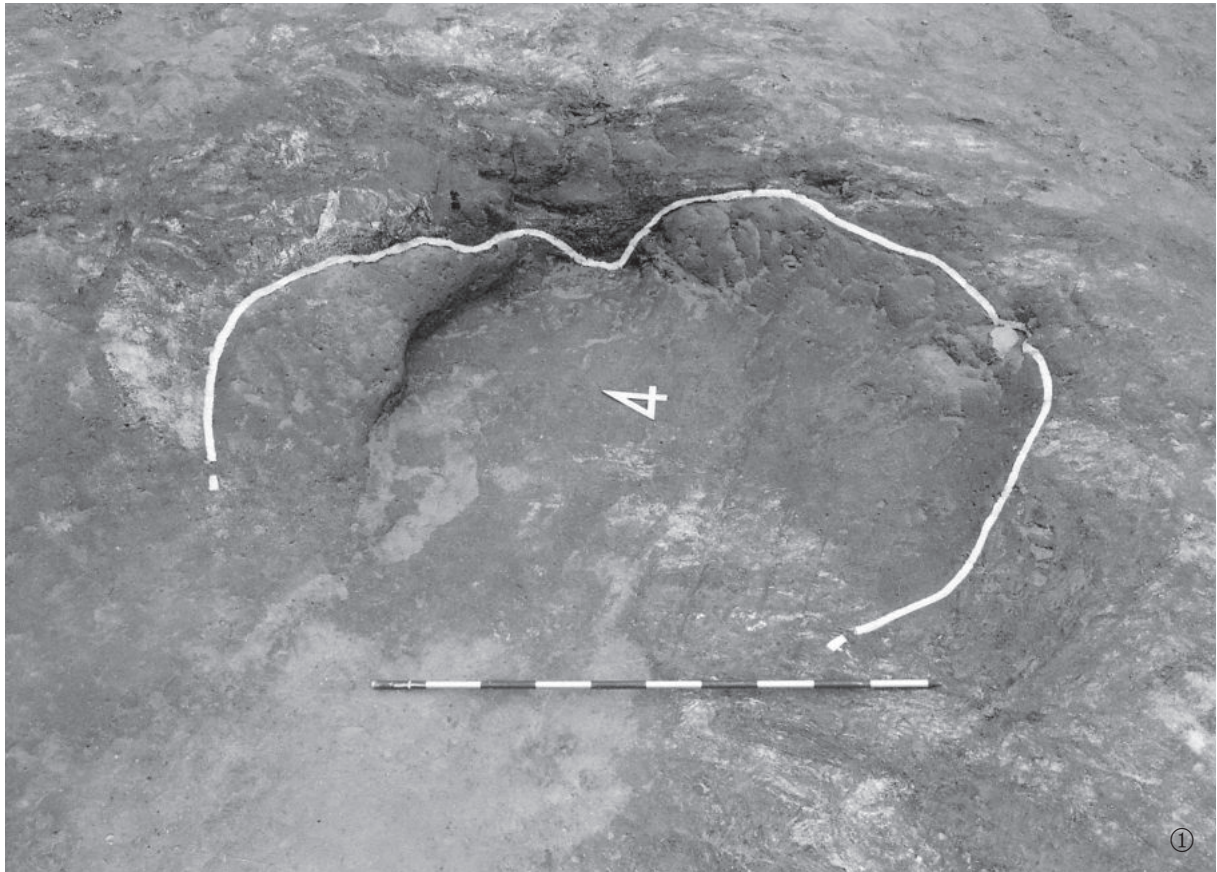


사진 15. 3호주거지 전경 (① 내부 조사전, ② 내부 조사후)



사진 16. 3호주거지 아궁이(①), 배연부(②), 유물출토상태(③), 출토유물(④·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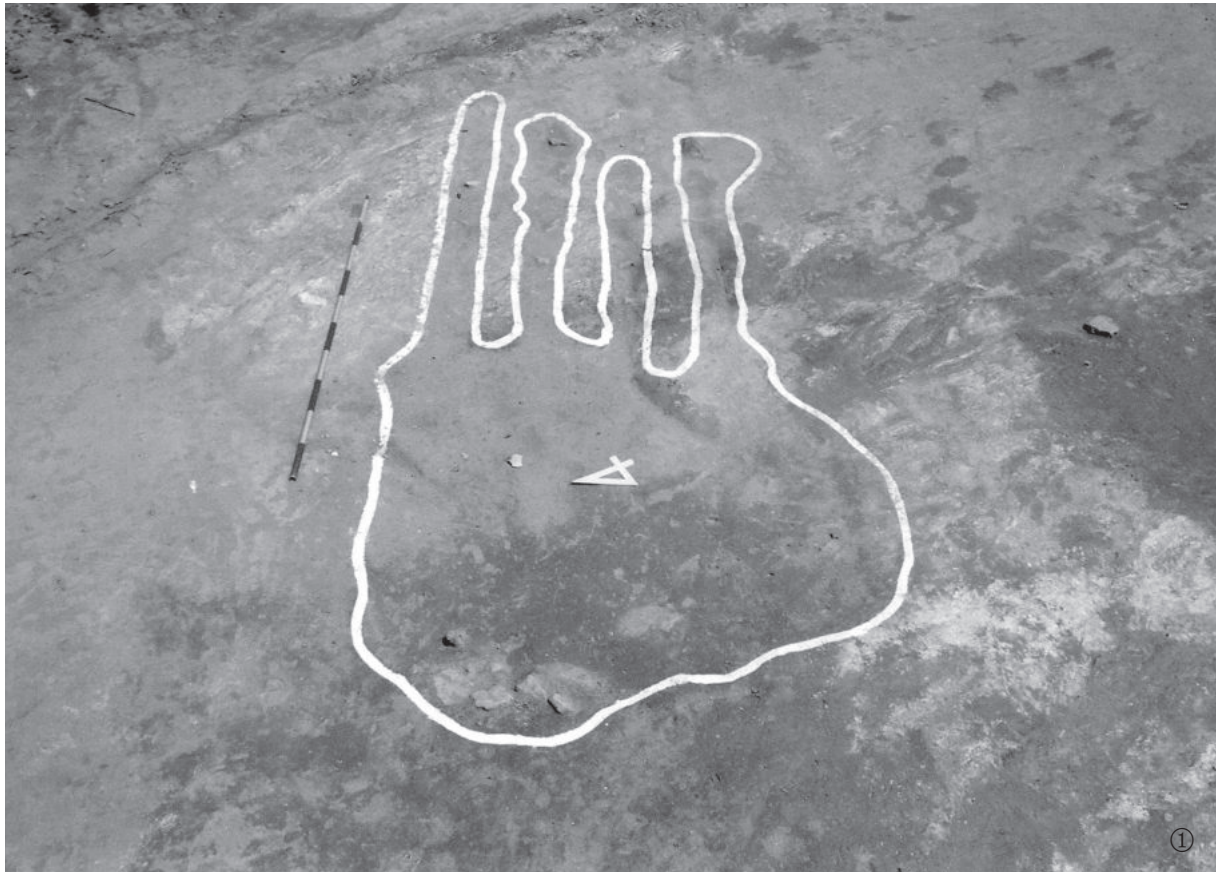


사진 17. 4호주거지 전경 (①내부 조사전, ②내부 조사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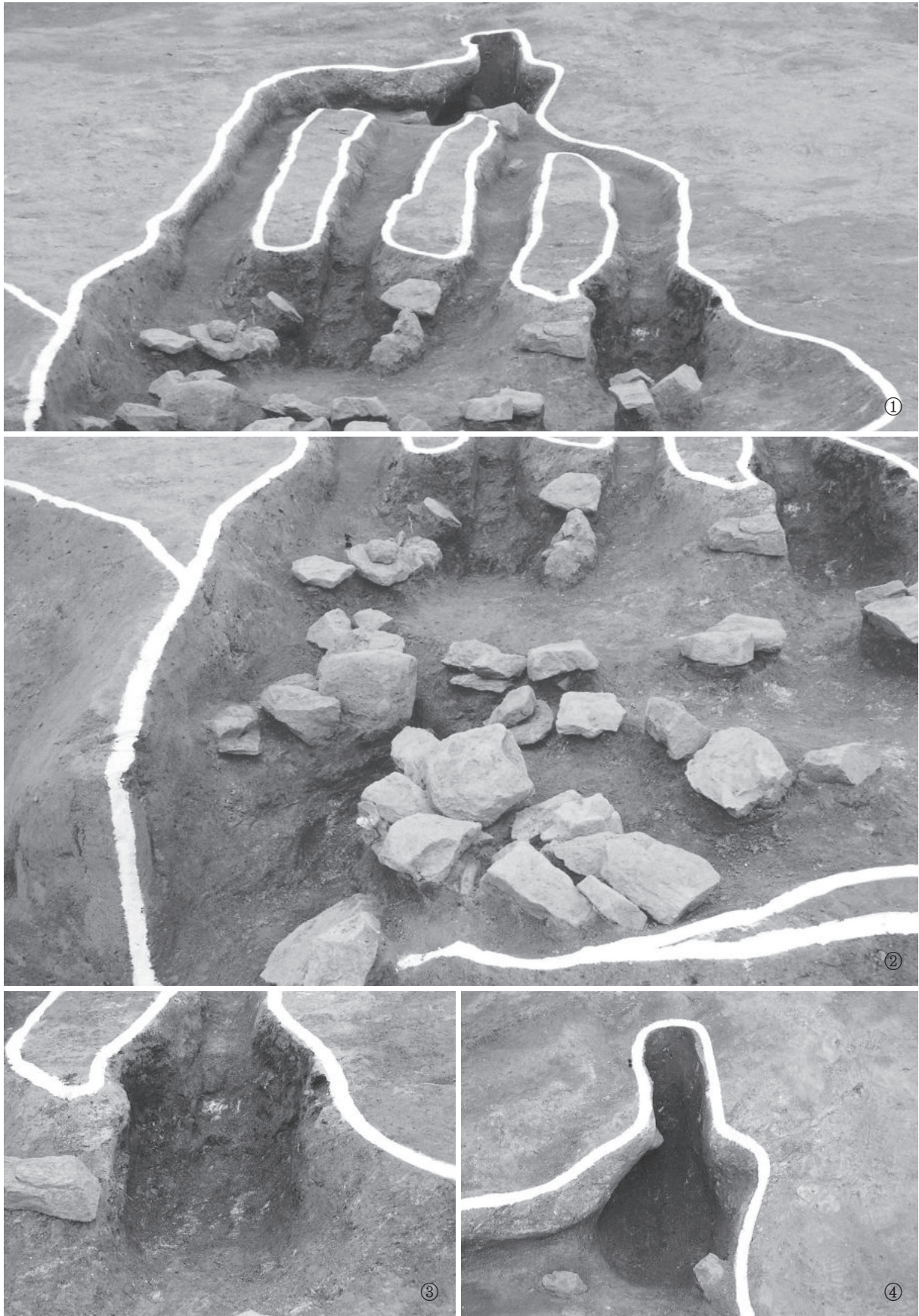


사진 18. 4호주거지 바닥 세부(①고래, ②3호구상유구와 중복상태), 아궁이(③), 배연부(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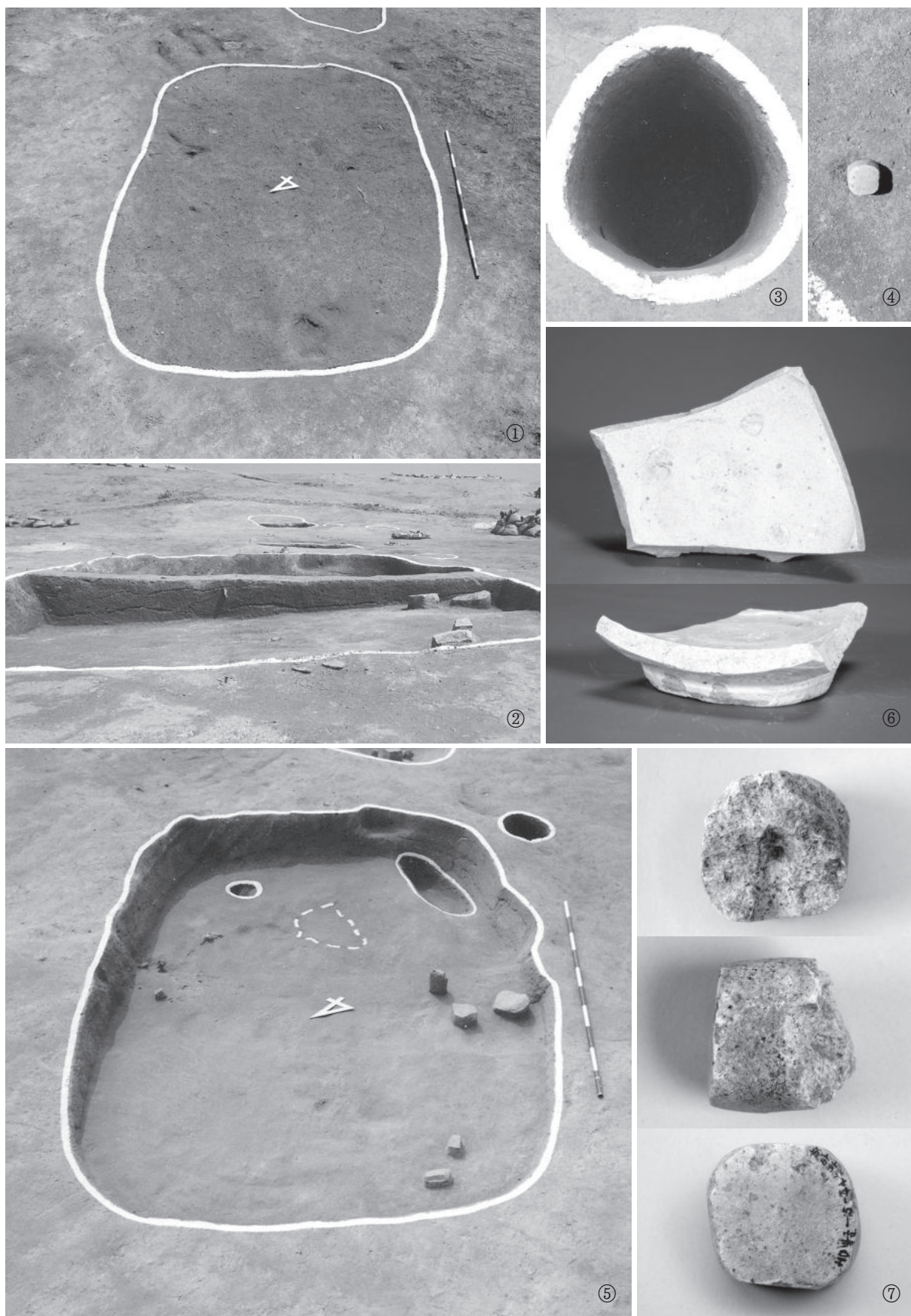


사진 19. 5호주거지 전경(①내부 조사전, ⑤내부 조사후), 내부토층(②), 유물출토상태(③·④), 출토유물(⑥·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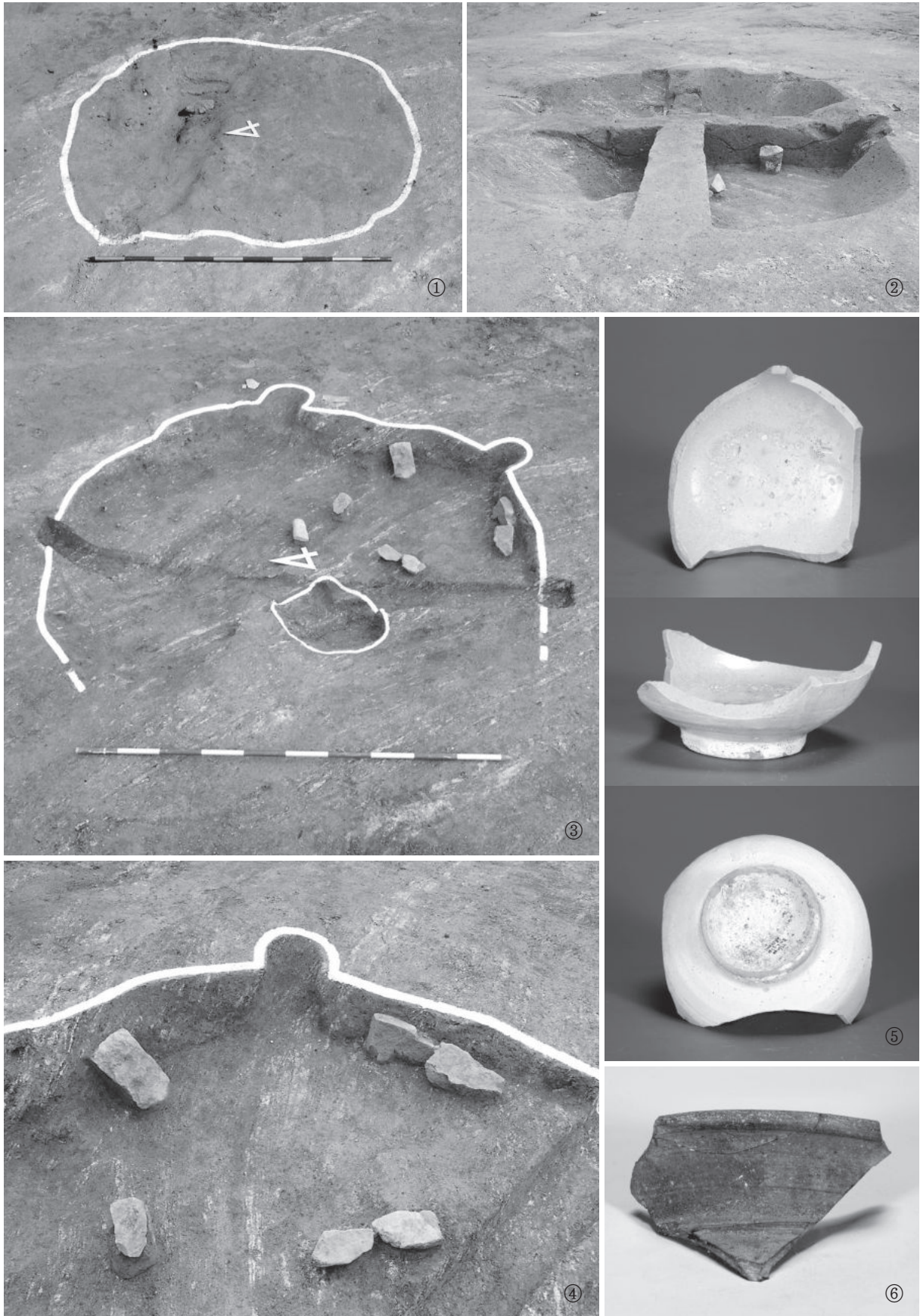


사진 20. 6호주거지 전경(①내부 조사전, ③내부 조사후), 내부토층(②), 추정 아궁이(④), 출토유물(⑤·⑥)



사진 21. 7호주거지 전경(①·②내부 조사전, ③내부 조사후)



사진 22. 7호주거지 아궁이 세부(①제거전, ②제거후), 주혈(③), 유물출토상태(④), 출토유물(⑤·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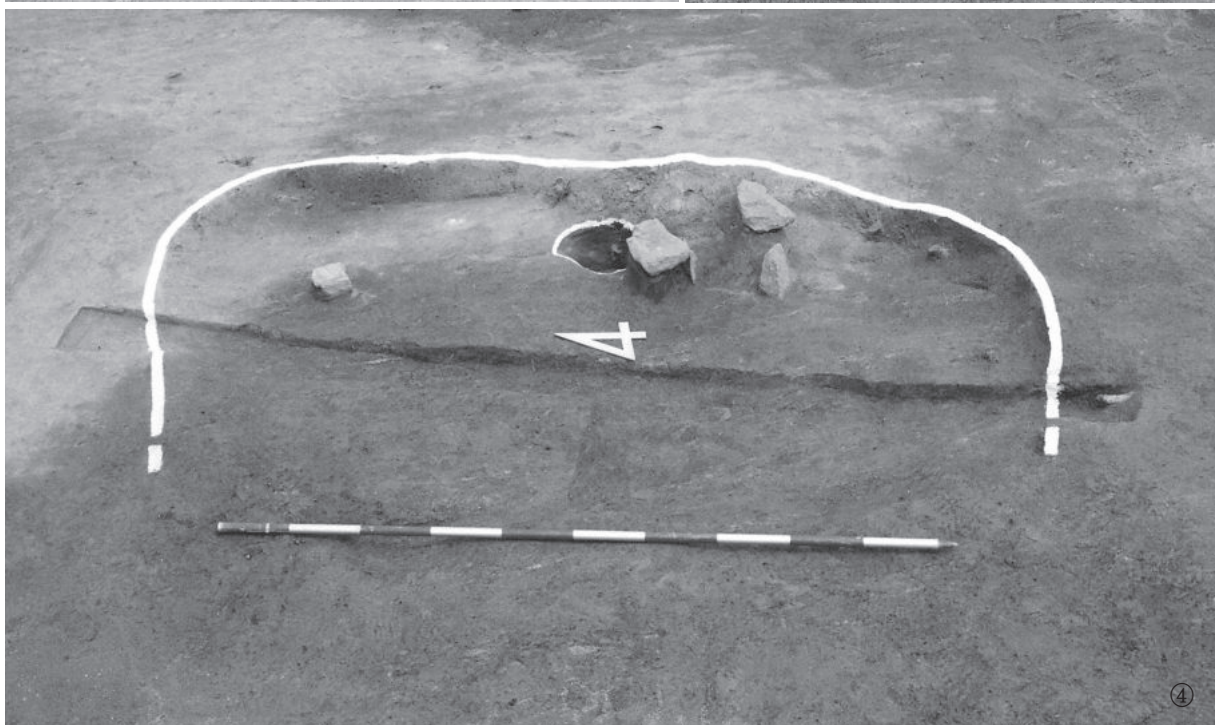


사진 23. 8호주거지 전경 (①내부 조사전, ③내부 조사후), 내부토층(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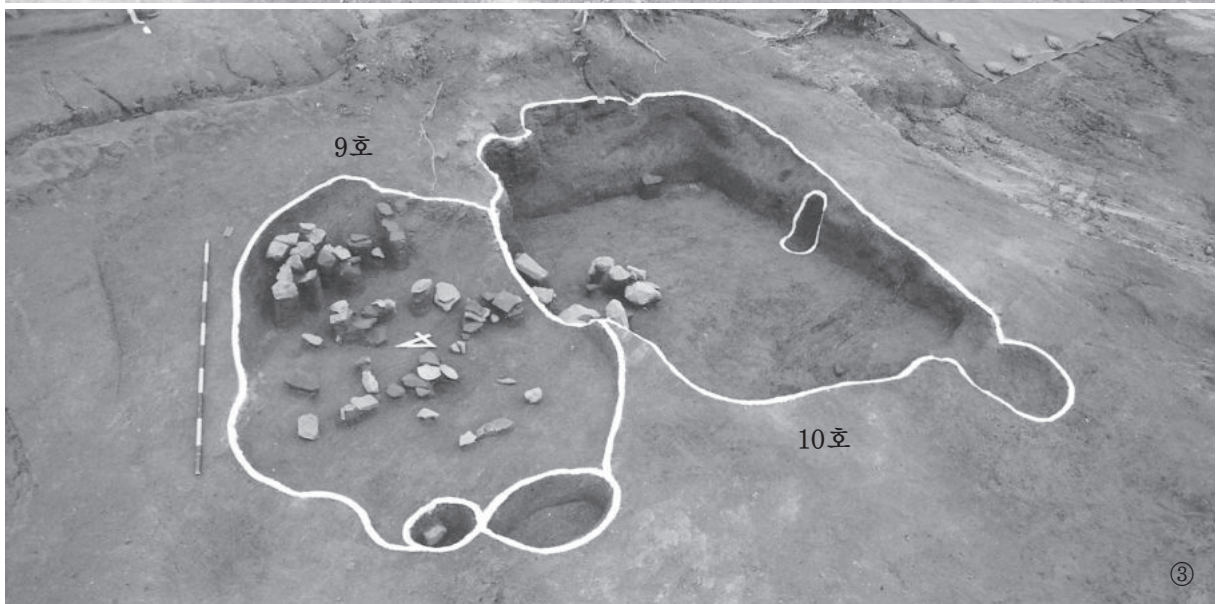


사진 24. 9호주거지 조사전 전경(①) 내부토종(②), 노출전경(③)



사진 25. 9호주거지 전경(①), 유물출토상태(②·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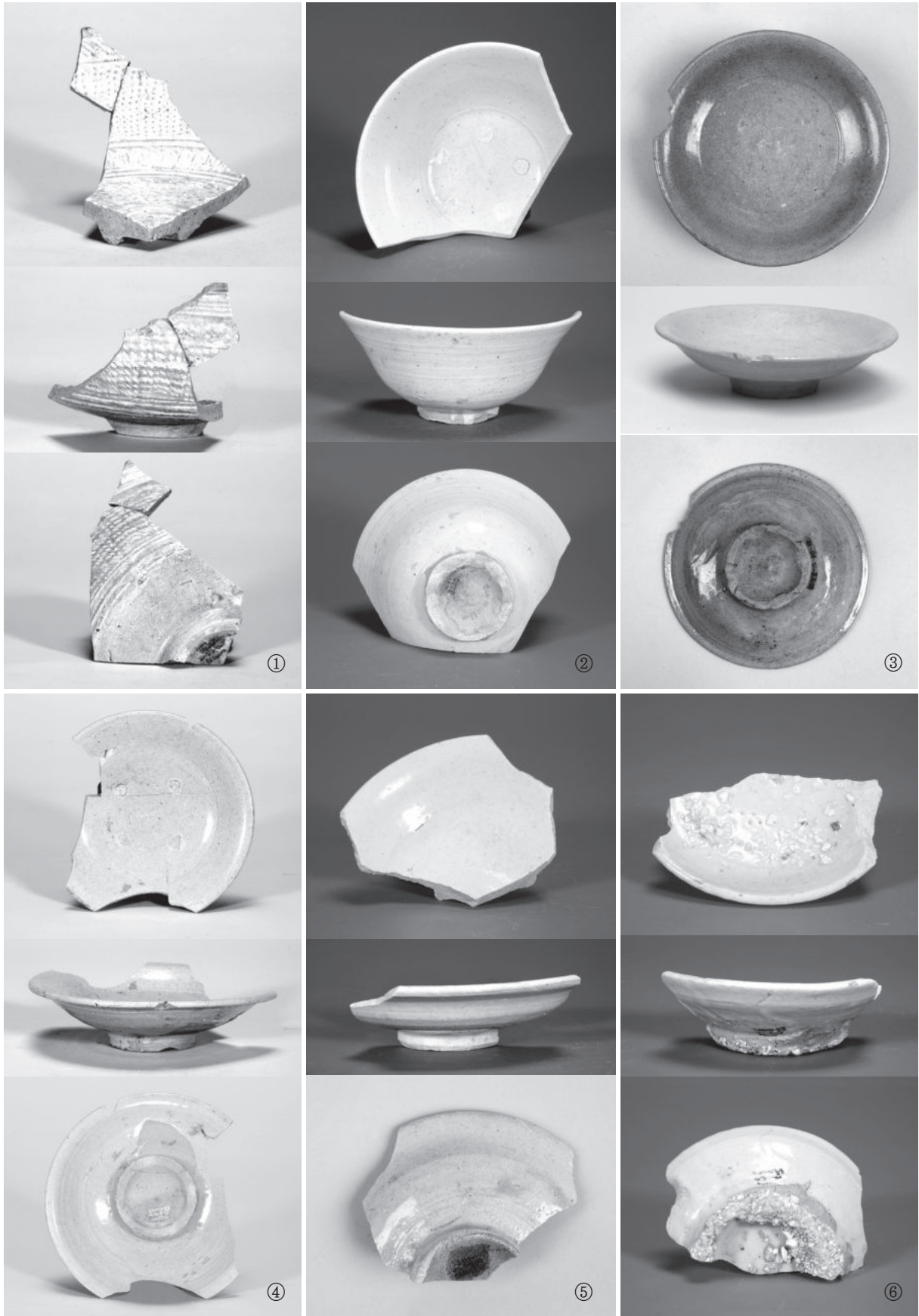


사진 26. 9호주거지 출토유물



사진 27. 9호주거지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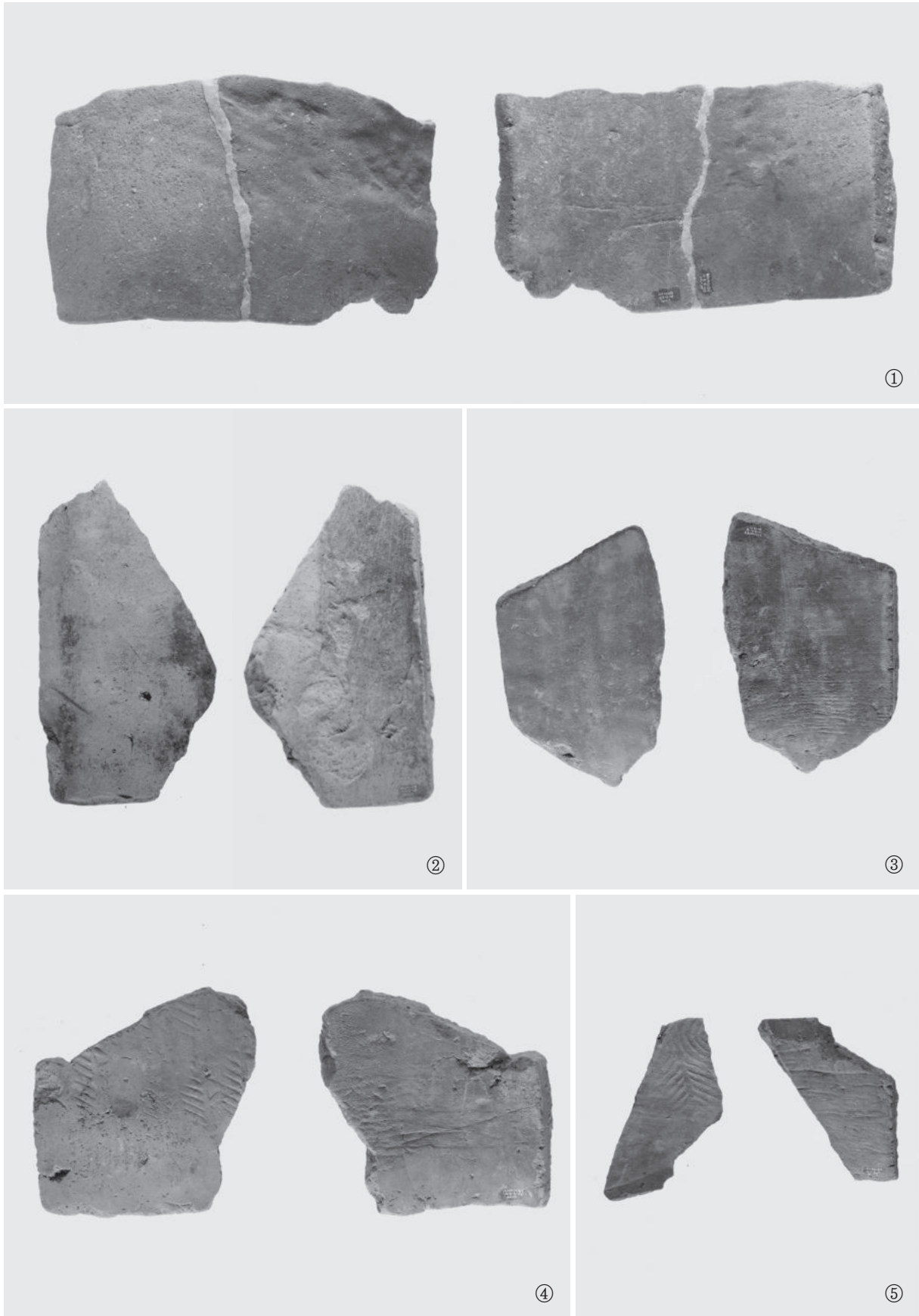


사진 28. 9호주거지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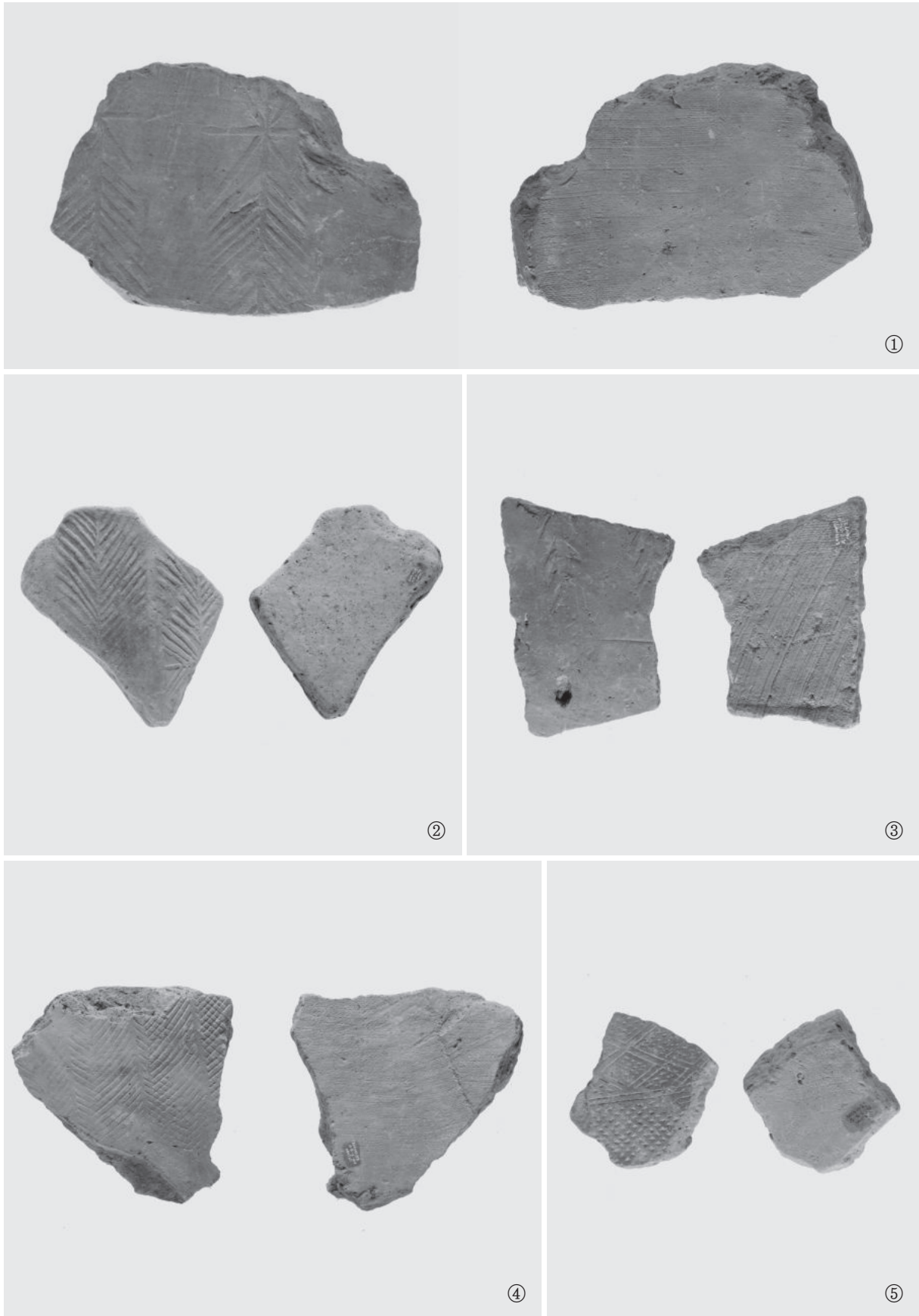


사진 29. 9호주거지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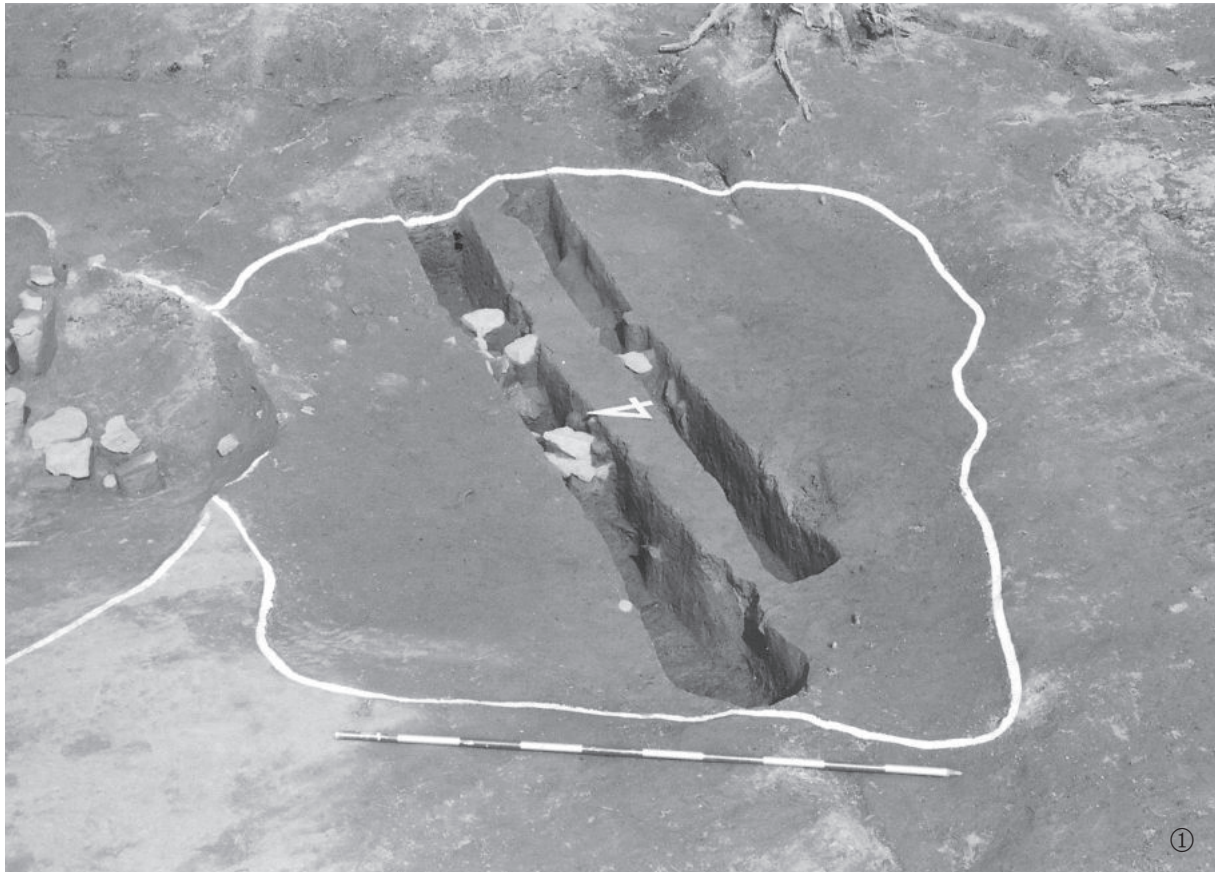


사진 30. 10호주거지 전경 (① 내부 조사전, ② 내부 조사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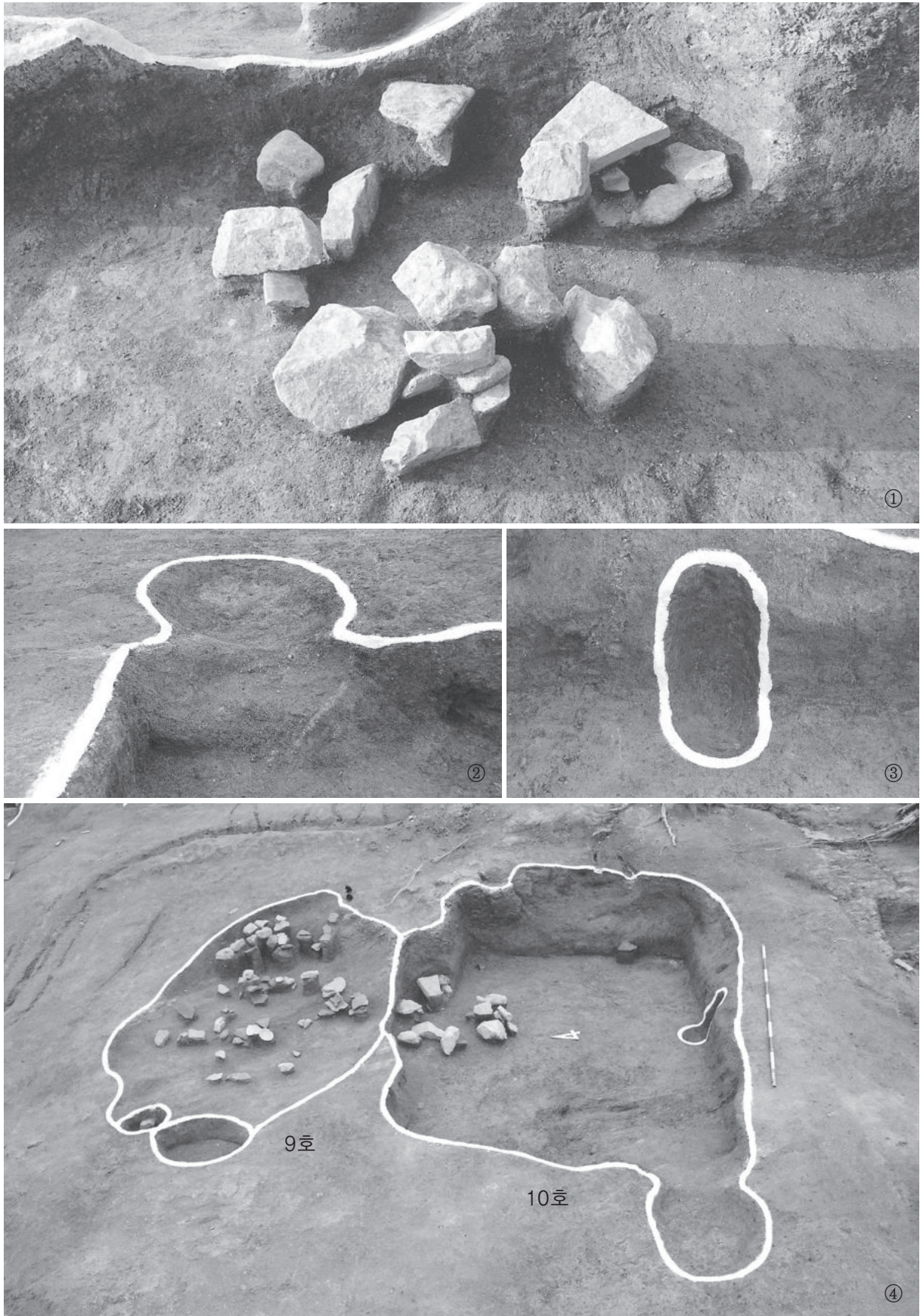


사진 31. 10호주거지 추정아궁이(①), 출입구(②), 주혈(③), 9호주거지와 중복상태(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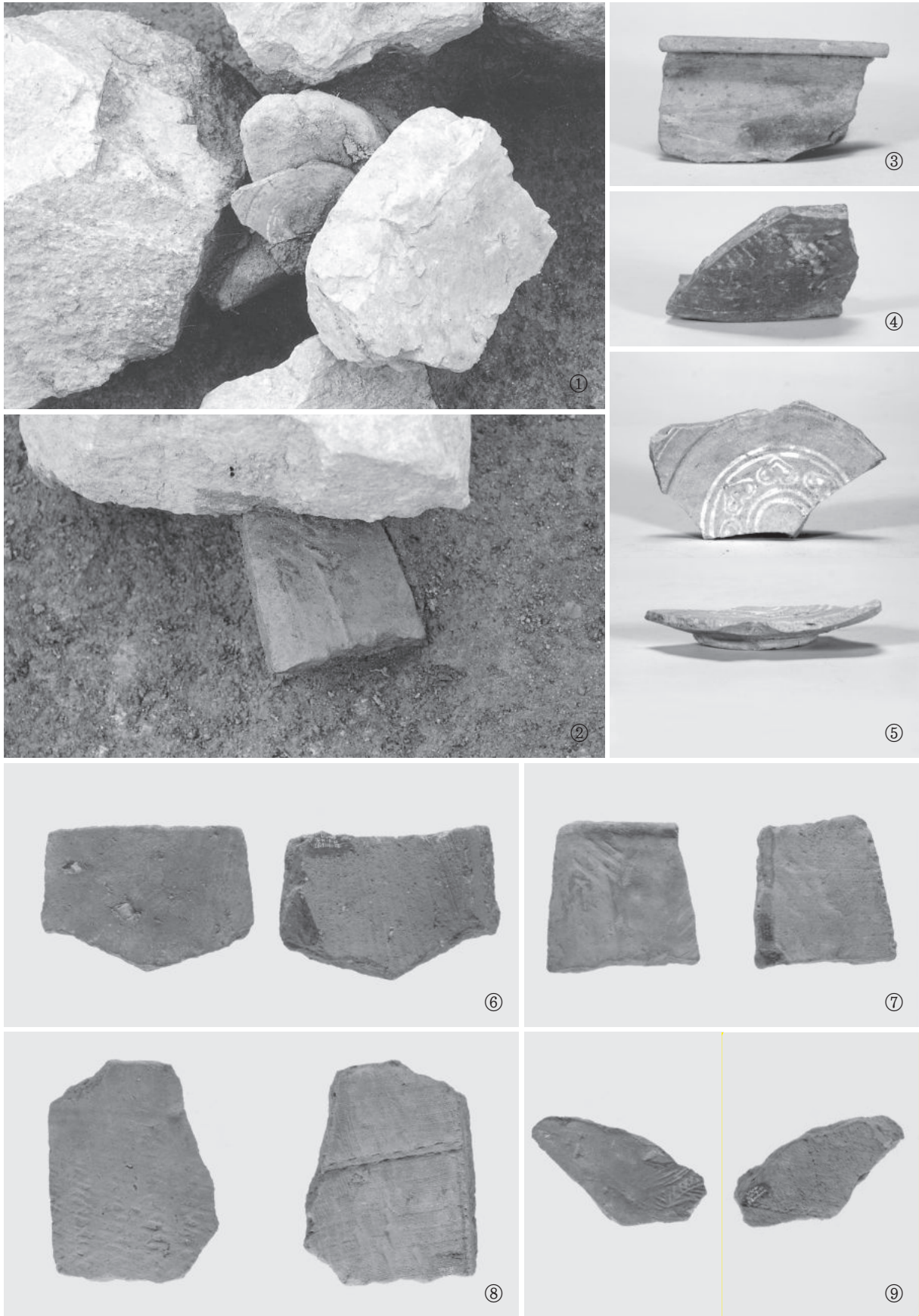


사진 32. 10호주거지 유물출토상태(①·②), 출토유물(③~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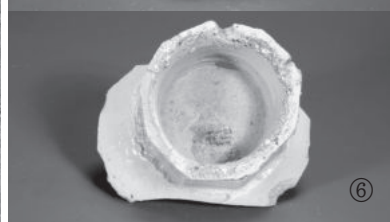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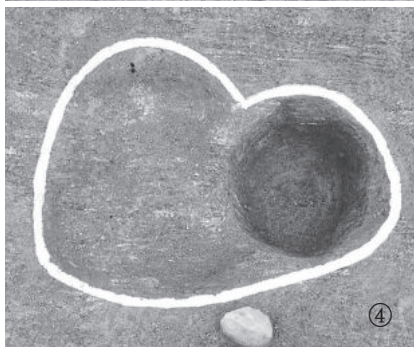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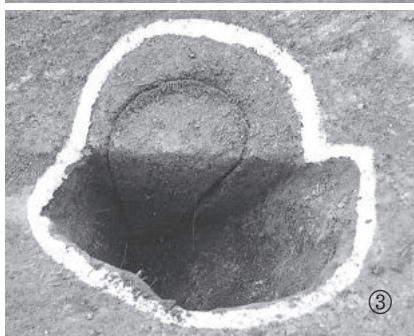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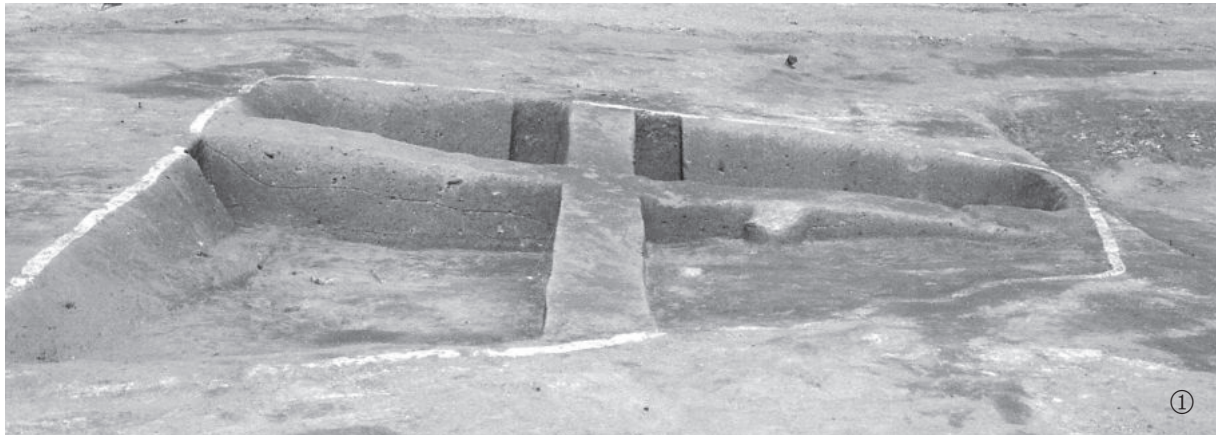


사진 33. 11호주거지 전경(①내부 조사전, ②내부 조사후), 주혈(③·④), 출토유물(⑤~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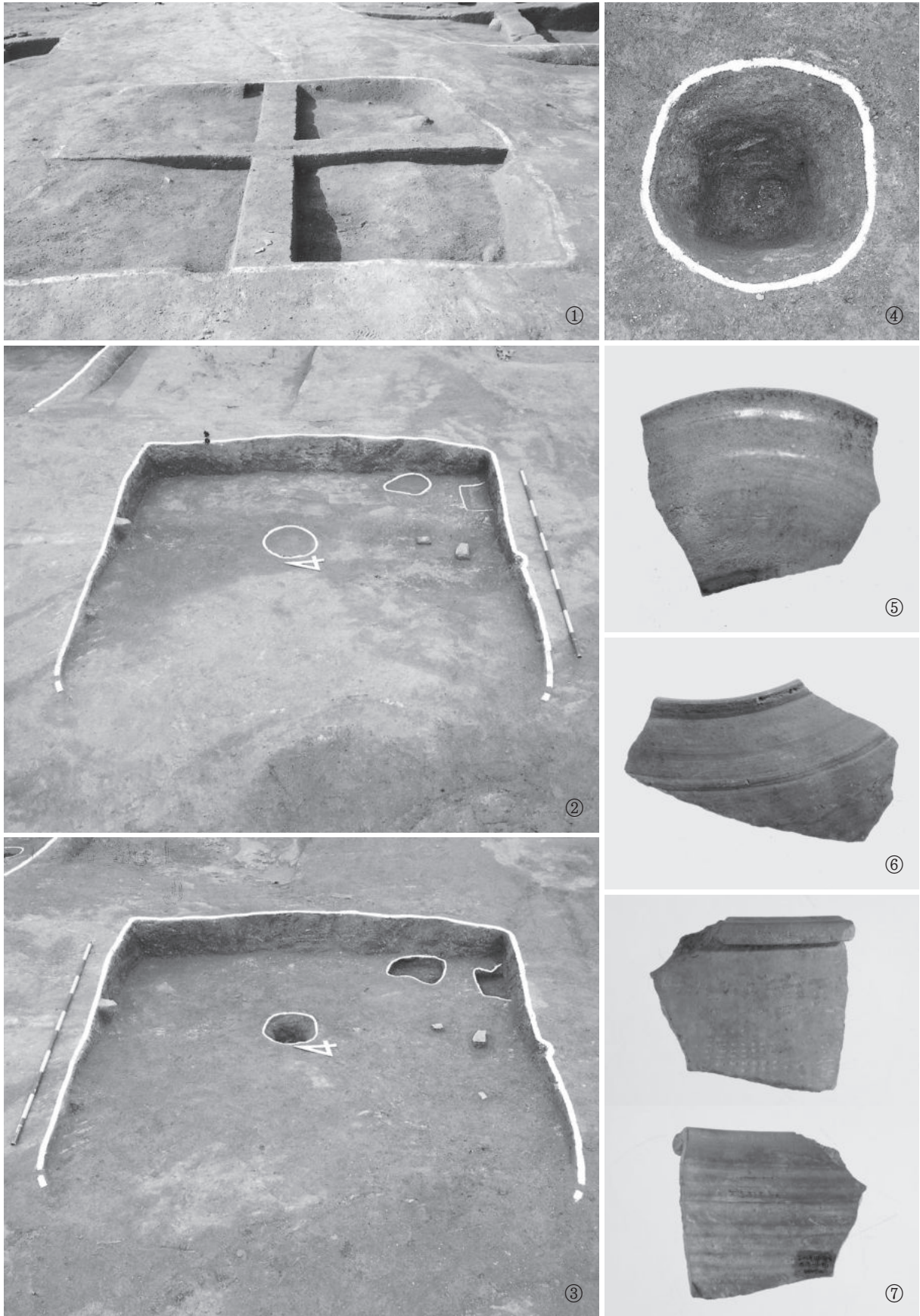


사진 34. 12호주거지 전경(①내부 조사전, ②·③내부 조사후), 주혈(④), 출토유물(⑤~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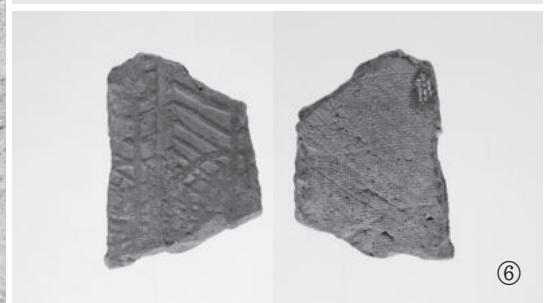


사진 35. 13호주거지 전경(①내부 조사전, ②내부 조사후), 아궁이(③), 아궁이 토층(④), 출토유물(⑤·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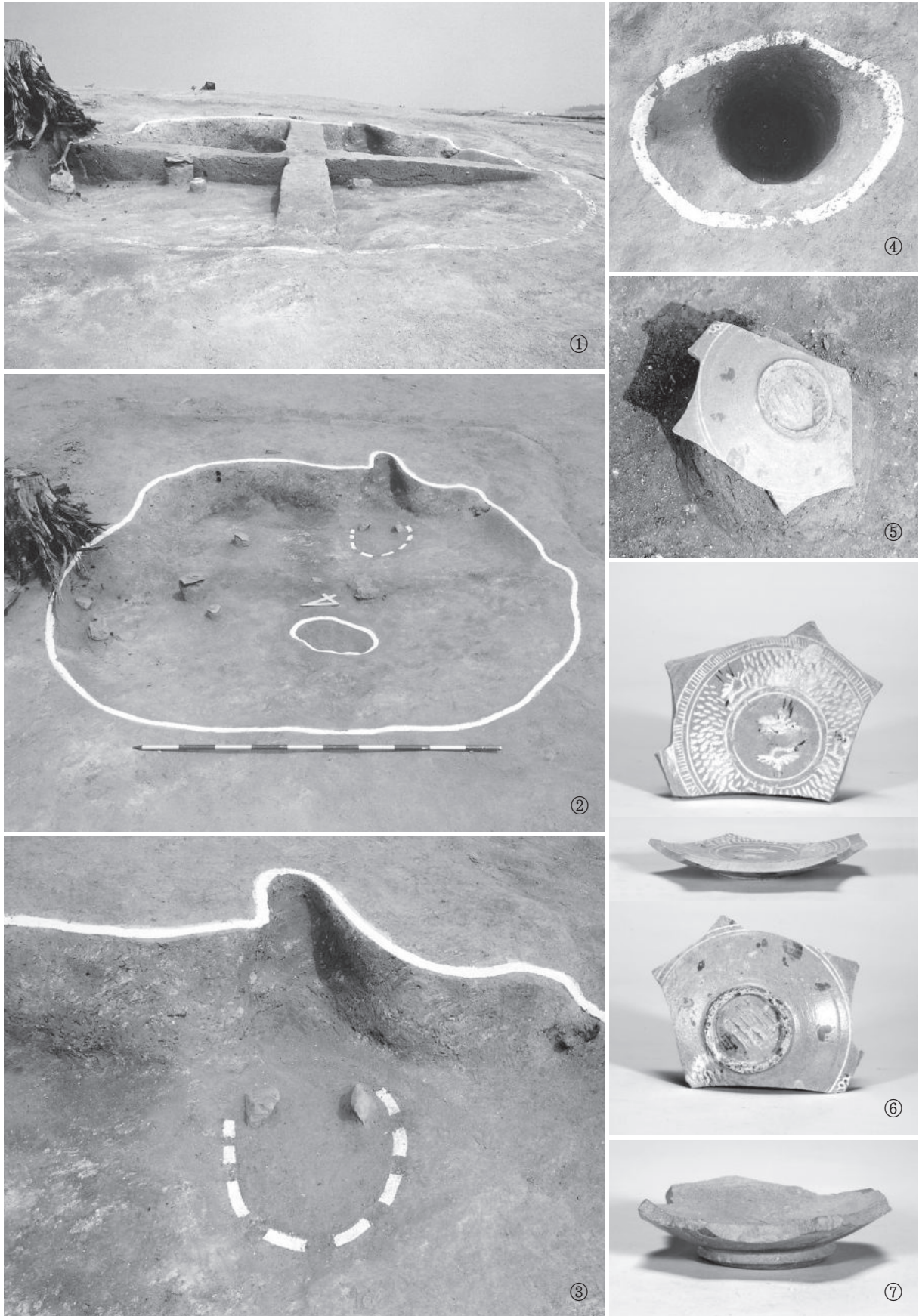


사진 36. 14호주거지 전경 (①내부 조사전, ②내부 조사후), 아궁이(③), 주혈(④), 유물출토상태(⑤), 출토유물(⑥·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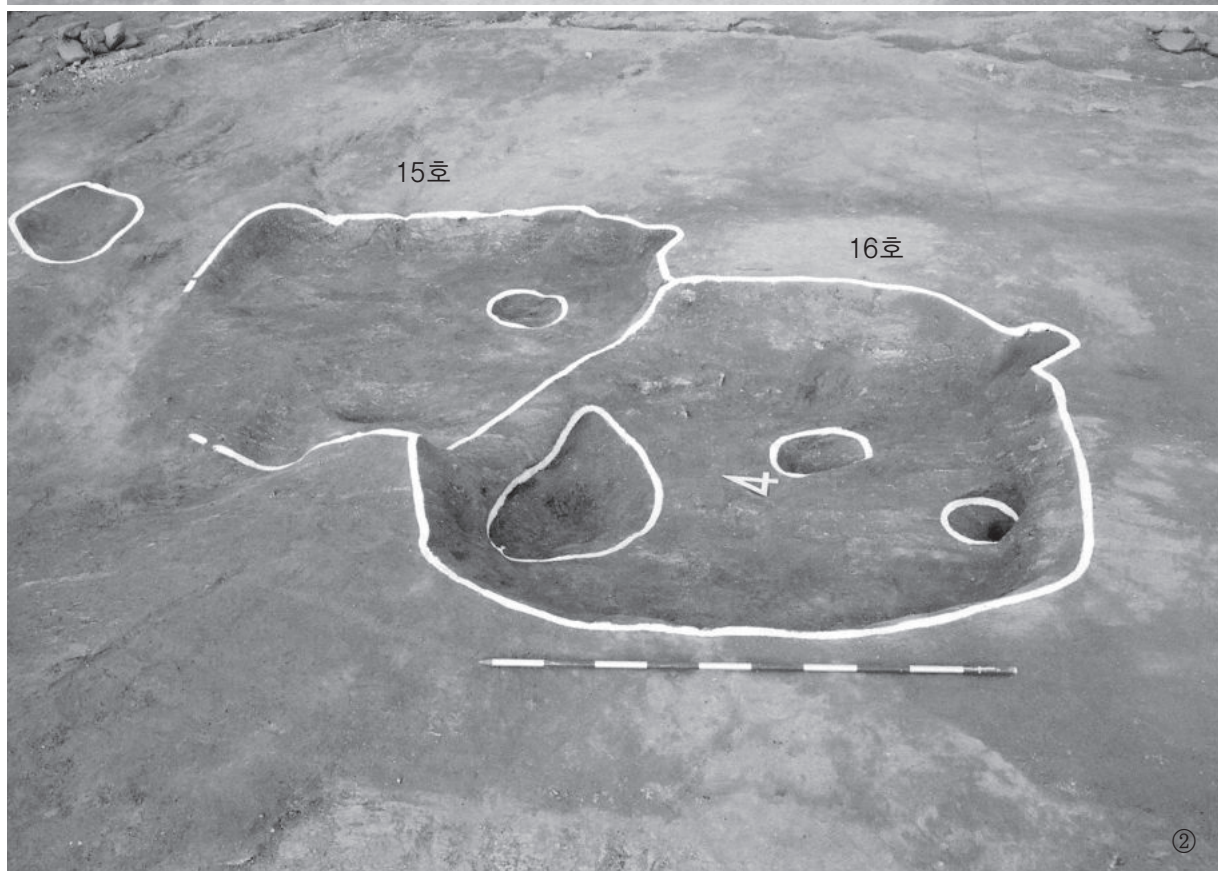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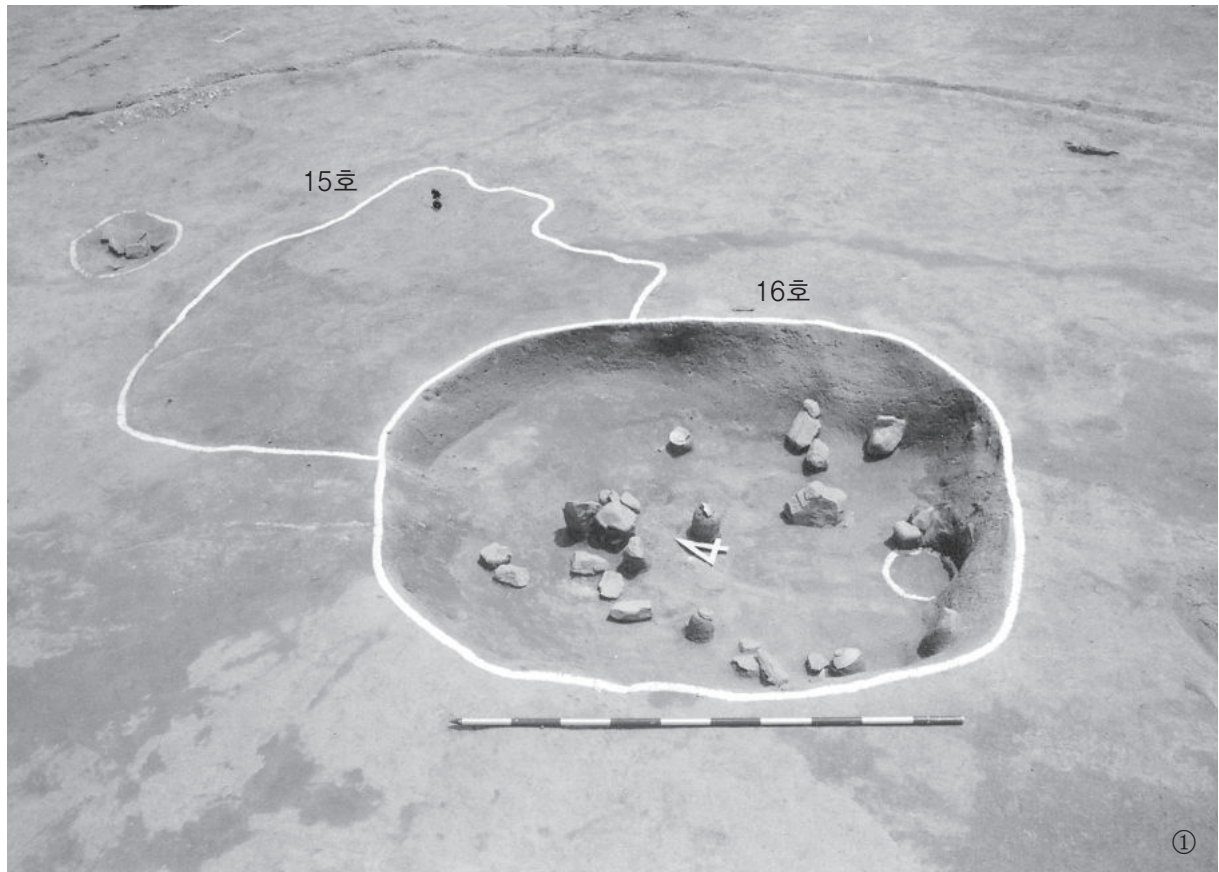


사진 37. 15호 · 16호 주거지 전경(①내부 조사전, ②내부 조사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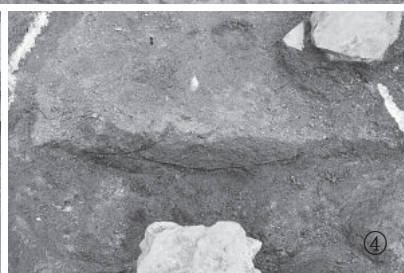


사진 38. 15호 · 16호 주거지 내부토층(①15호, ②16호), 15호주거지 내부수혈 토층(③·④), 유물출토상태(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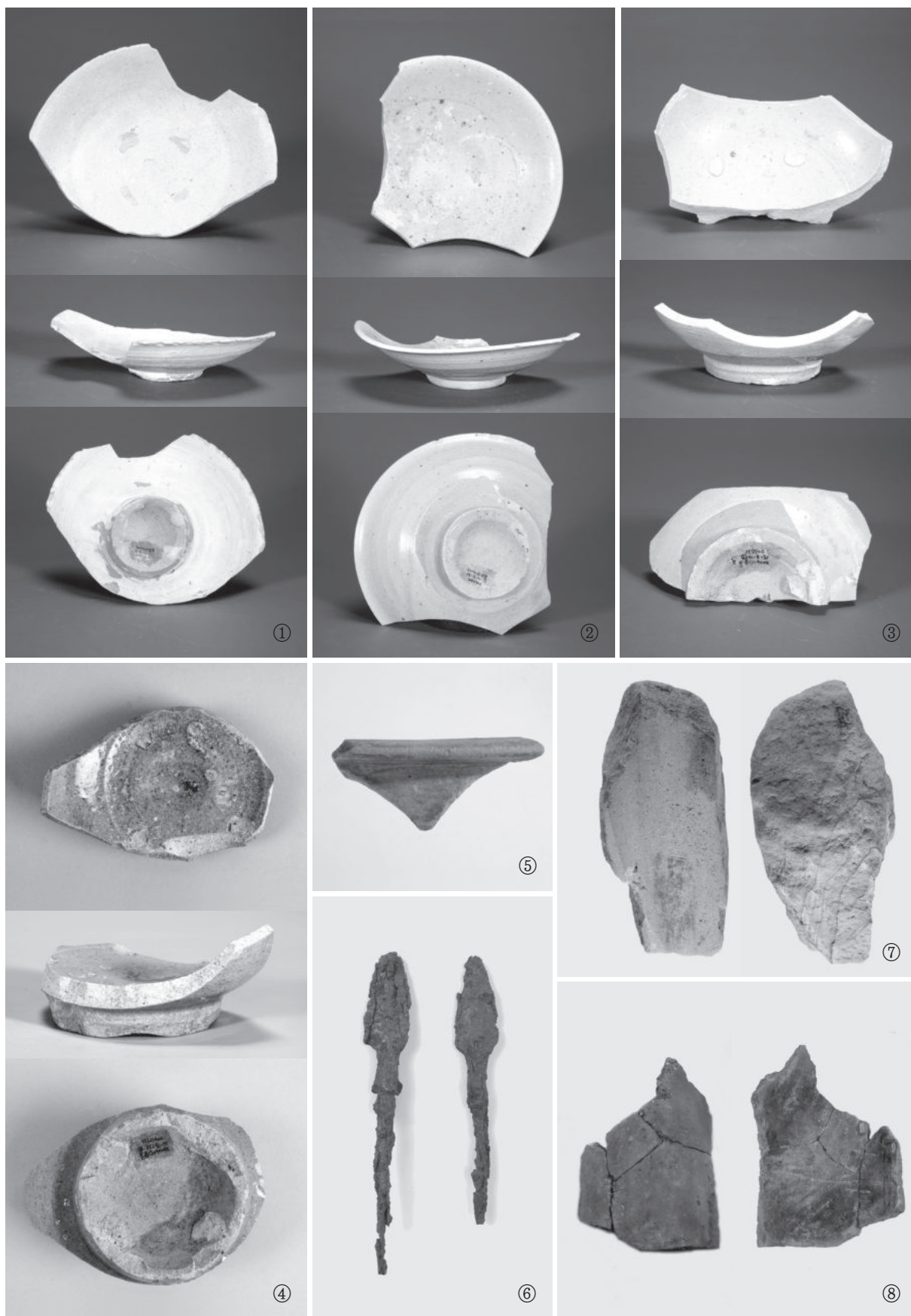


사진 39. 15호주거지(①~④·⑦), 16호주거지(⑤·⑥·⑧)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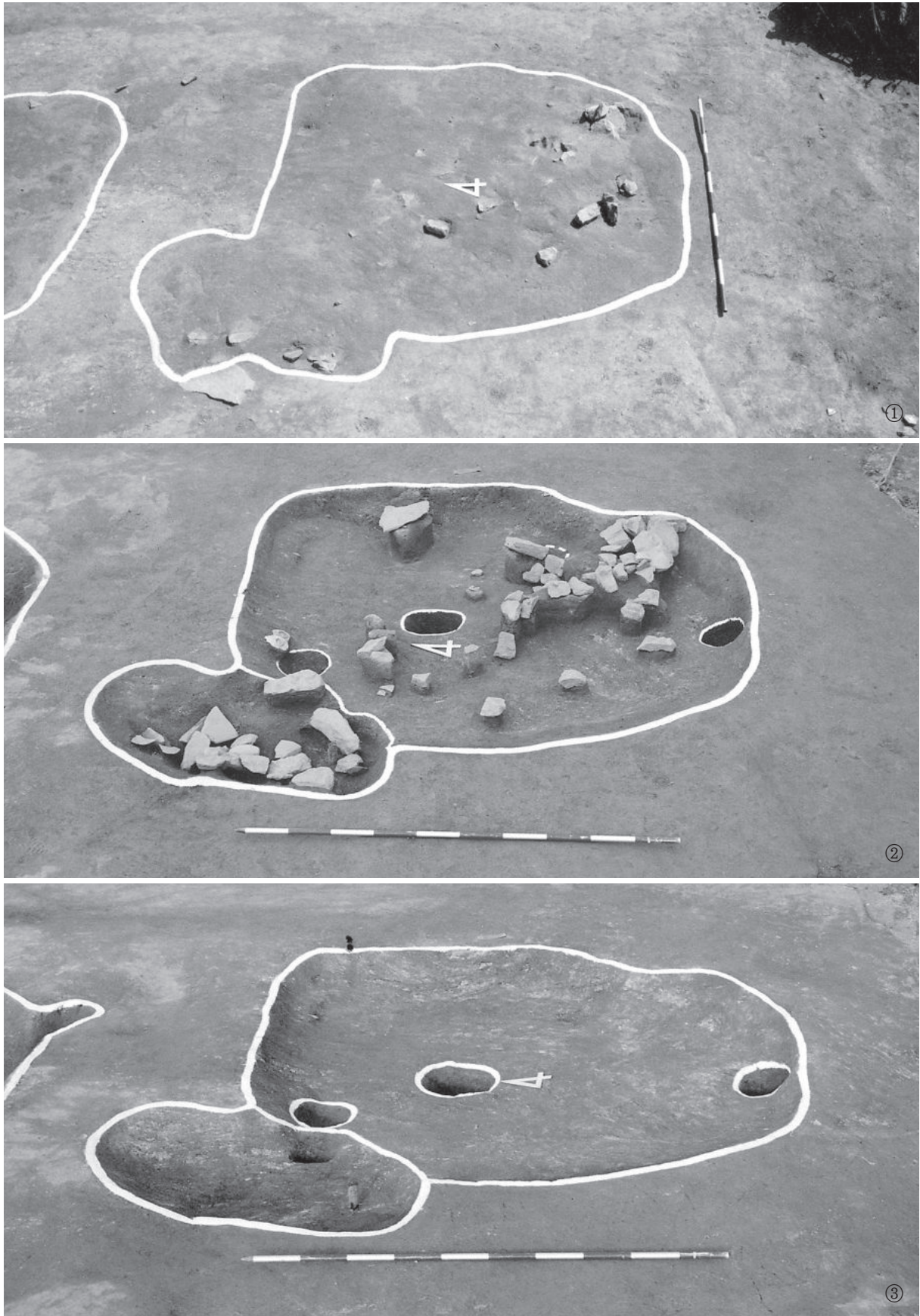


사진 40. 17호주거지 전경 (① 내부 조사전, ②·③ 내부 조사후)



사진 41. 17호주거지 내부토층(①), 바닥 세부(②), 북서 모서리 세부(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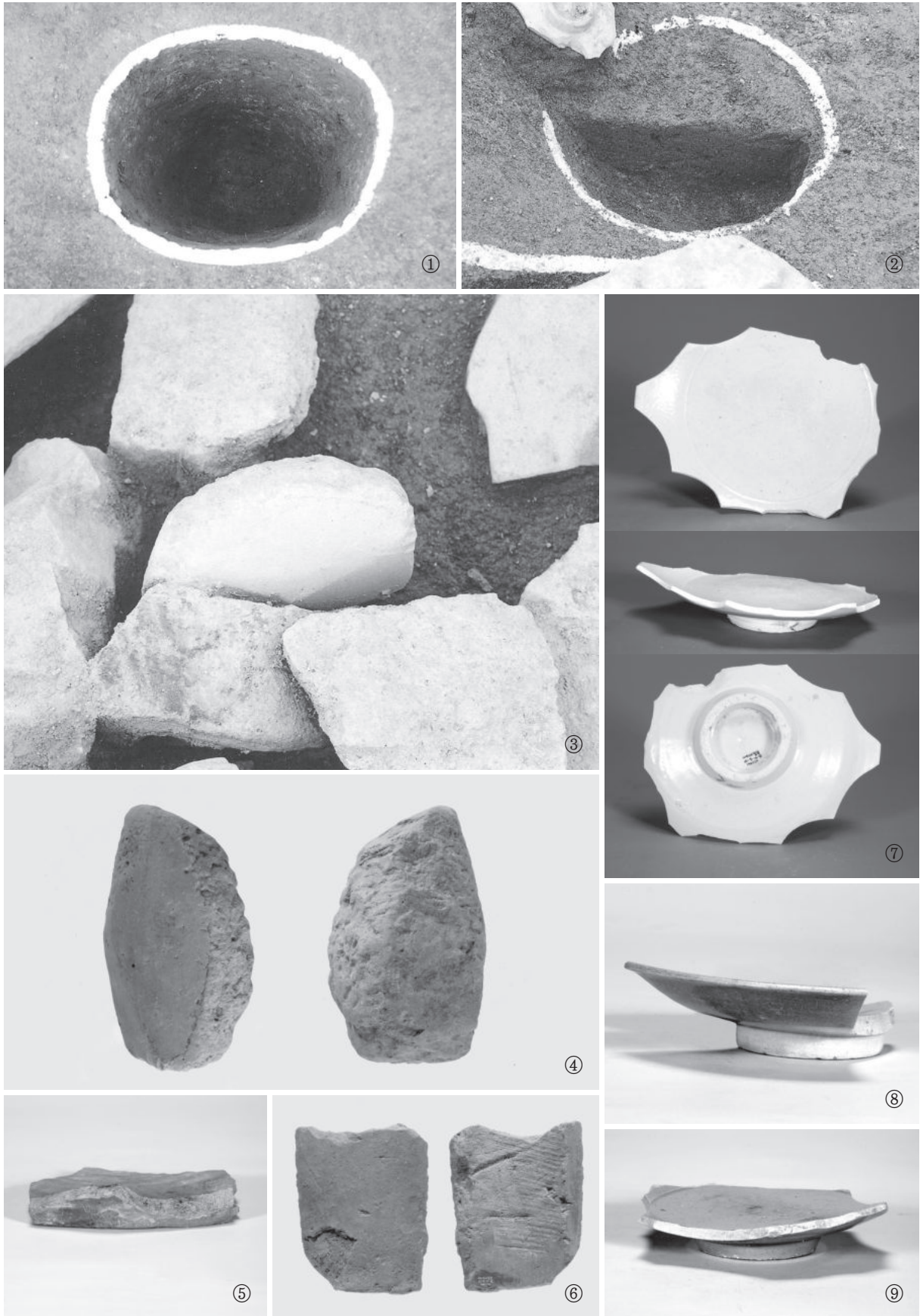


사진 42. 17호주거지 주혈(①·②), 유물출토상태(③), 출토유물(④~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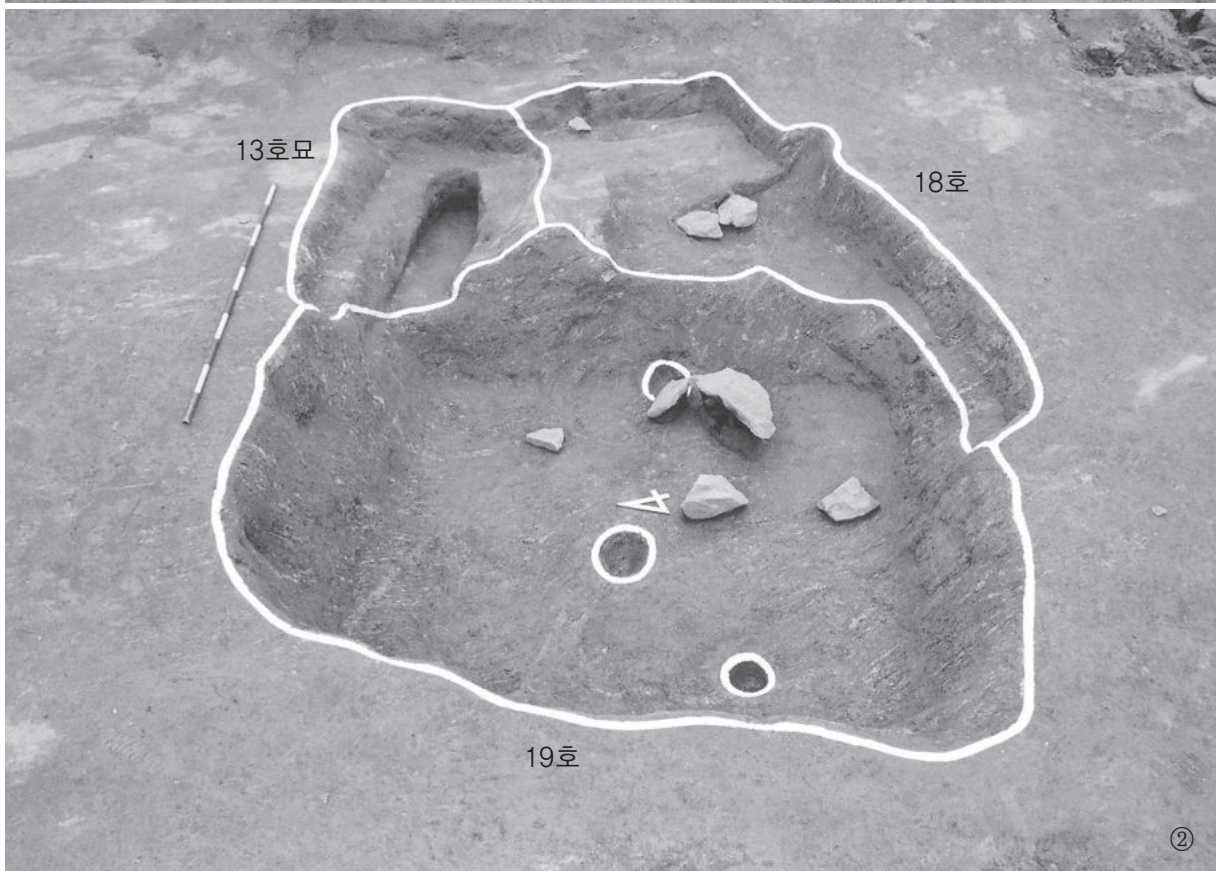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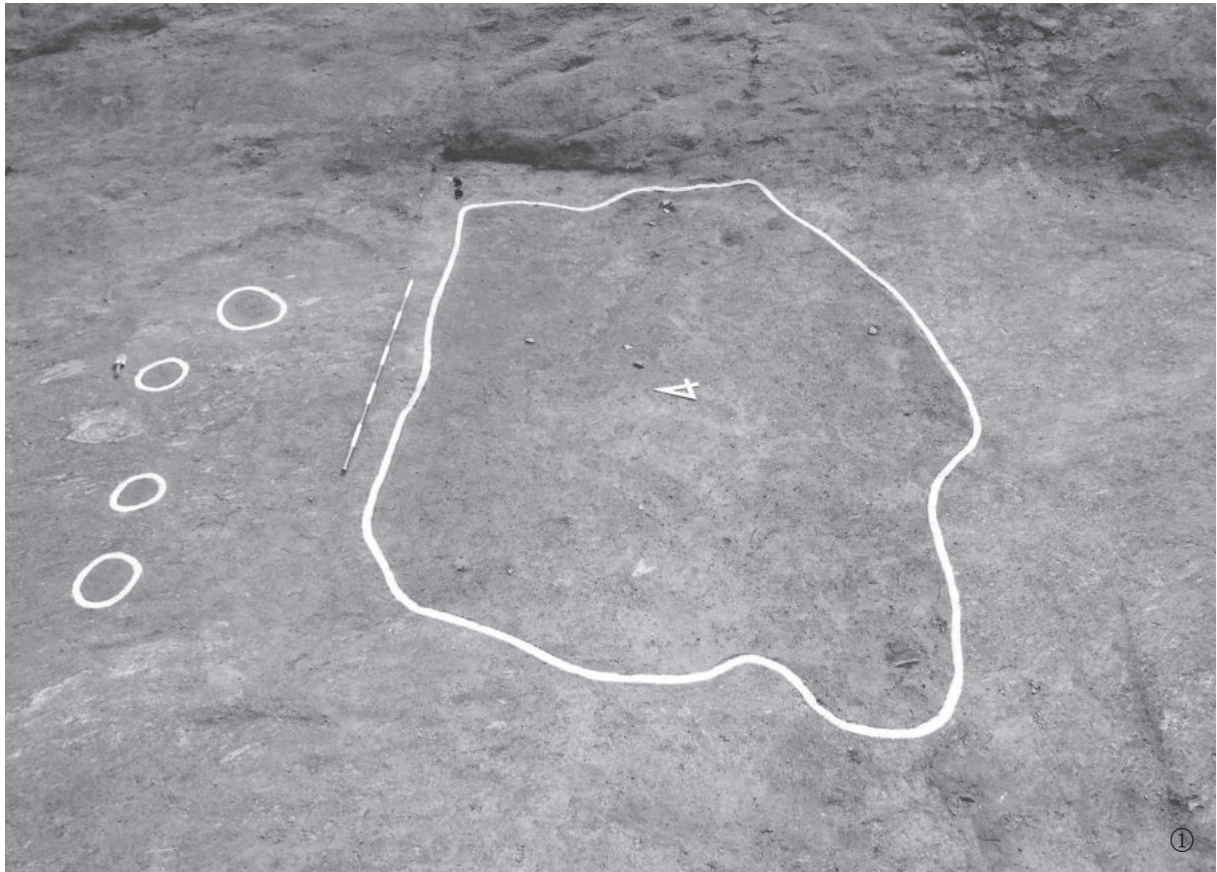


사진 43. 18호 · 19호 주거지 전경(①내부 조사전, ②내부 조사후)



사진 44. 18호주거지 배연부(①), 19호주거지 세부(②바닥, ③·④주혈), 18호 · 19호주거지 · 3호묘 중복상태(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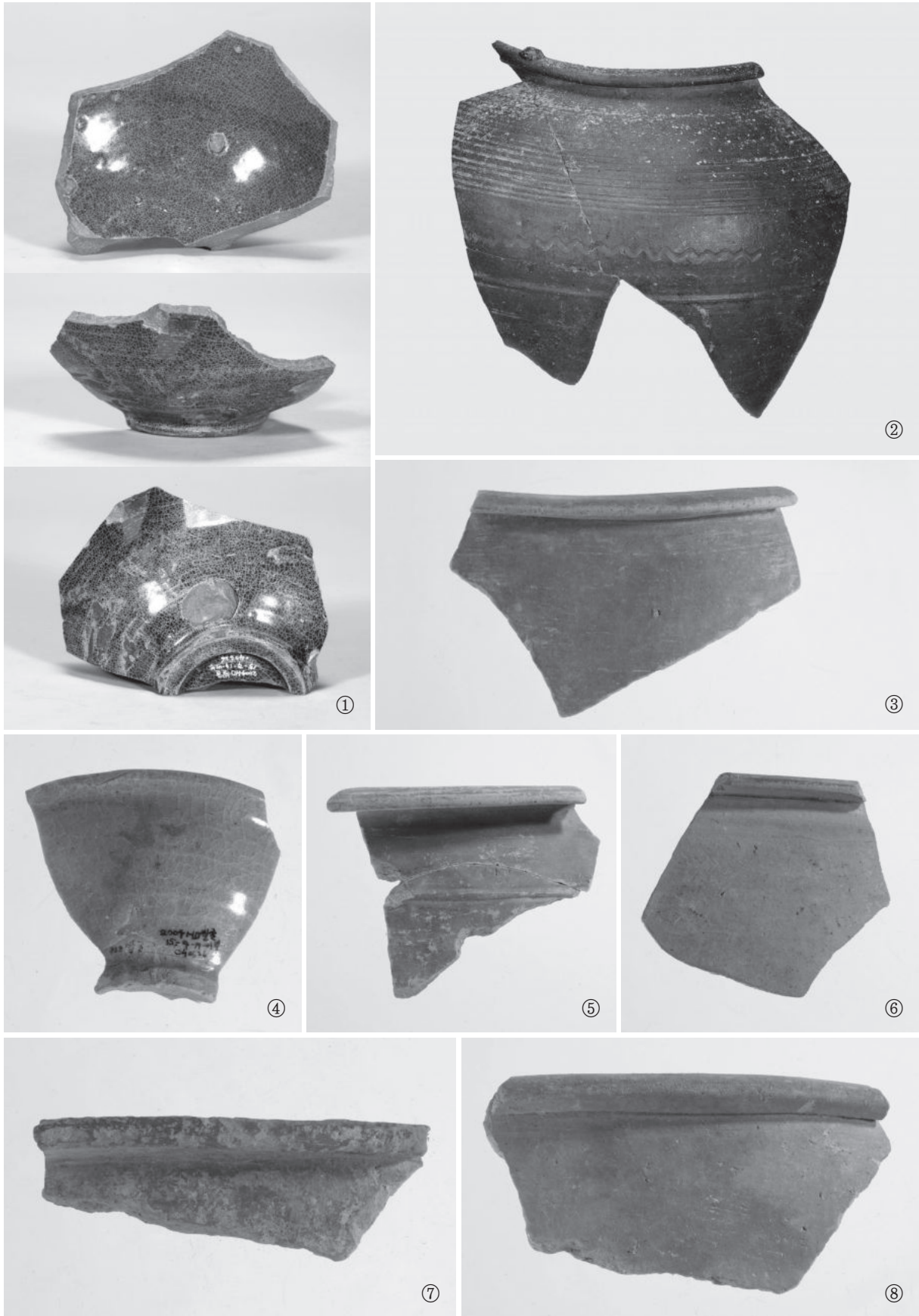


사진 45. 19호주거지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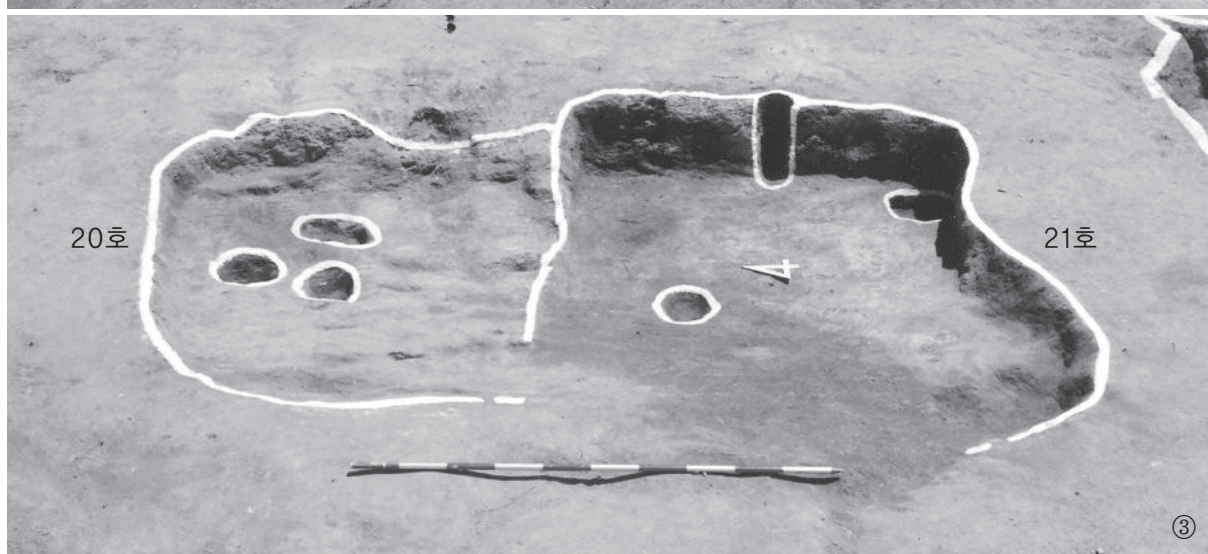


사진 46. 20호 · 21호 주거지 전경(①내부 조사전, ②내부 조사후, ③완료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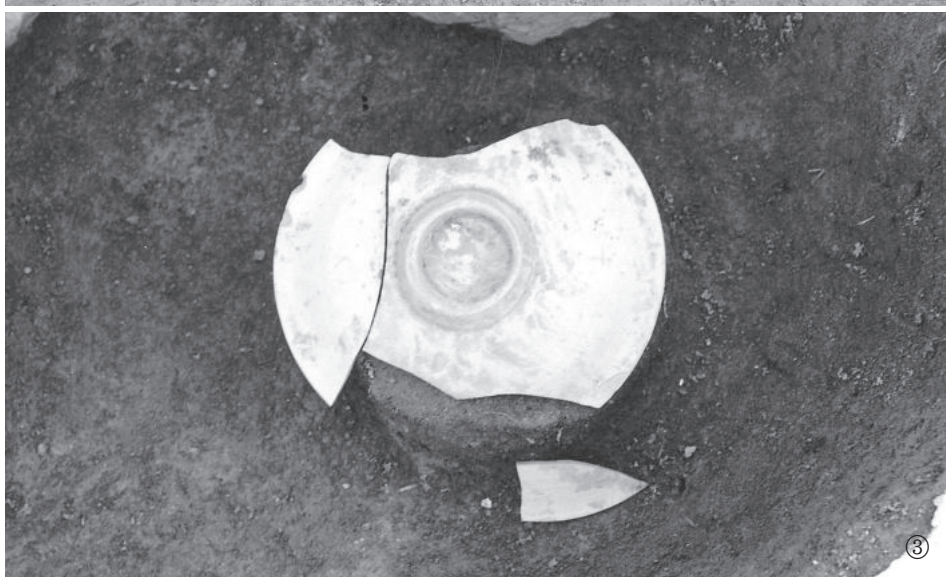


사진 47. 20호주거지 아궁이(②), 21호주거지(①)내부 조사전, ③유물출토상태)



사진 48. 20호주거지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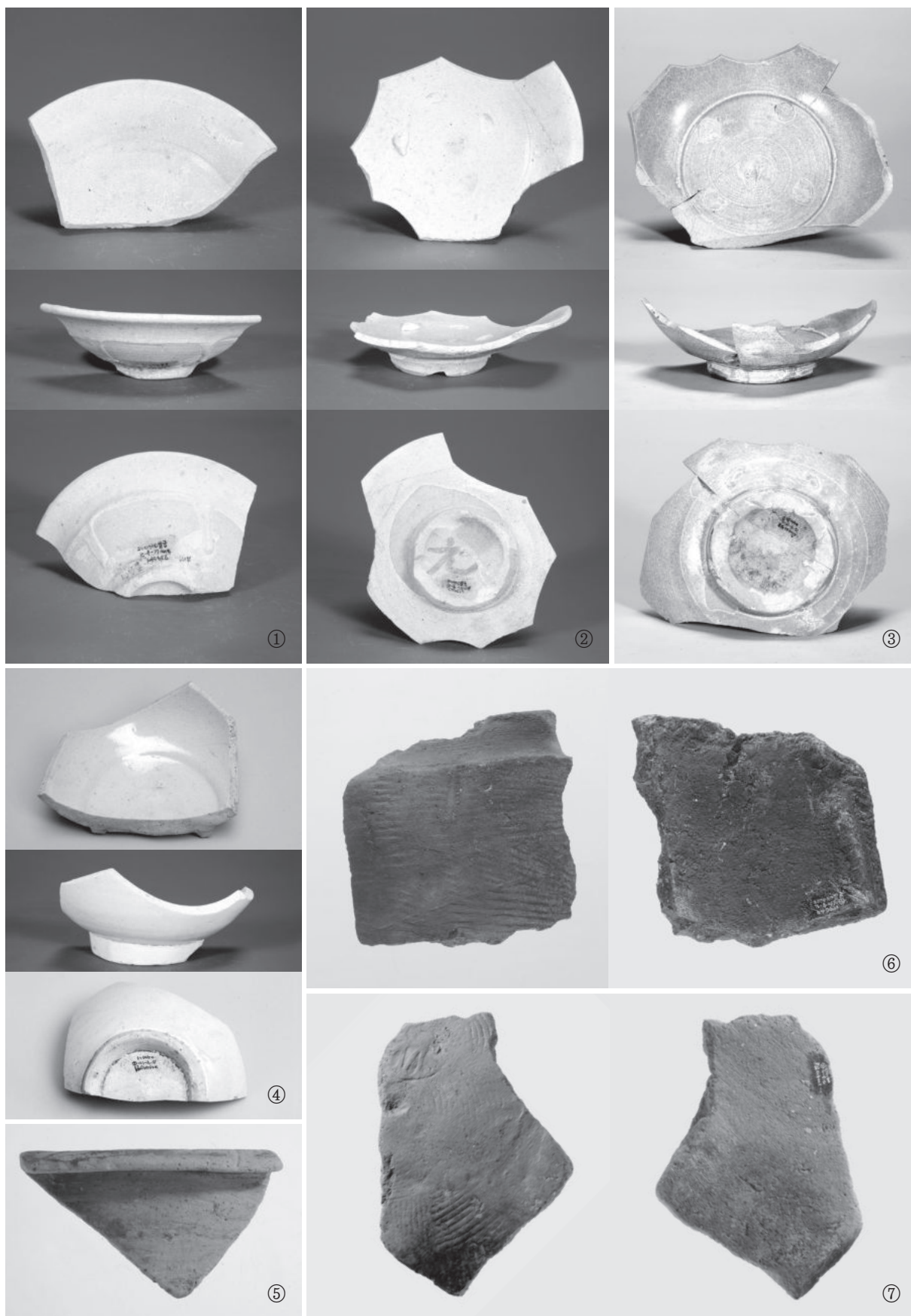


사진 49. 21호주거지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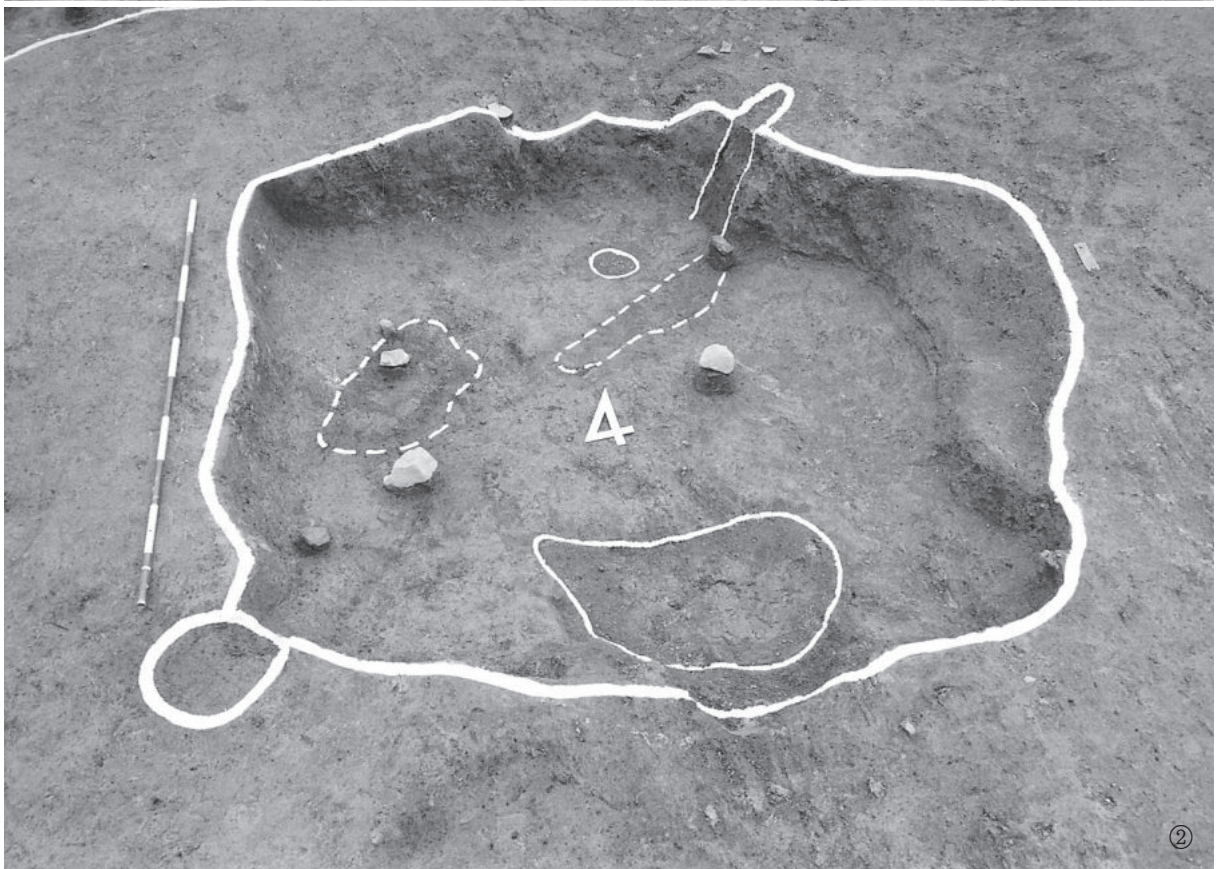


사진 50. 22호 주거지 전경(①내부 조사전, ②내부 조사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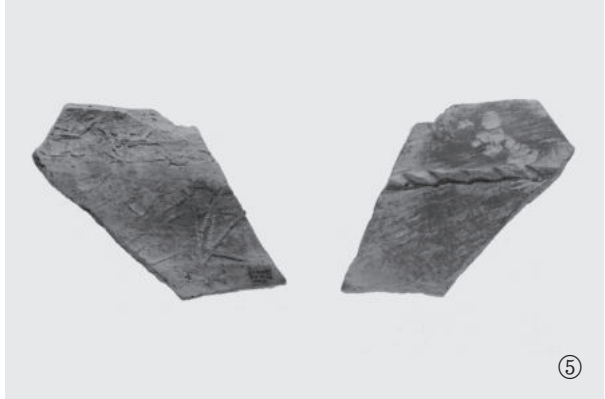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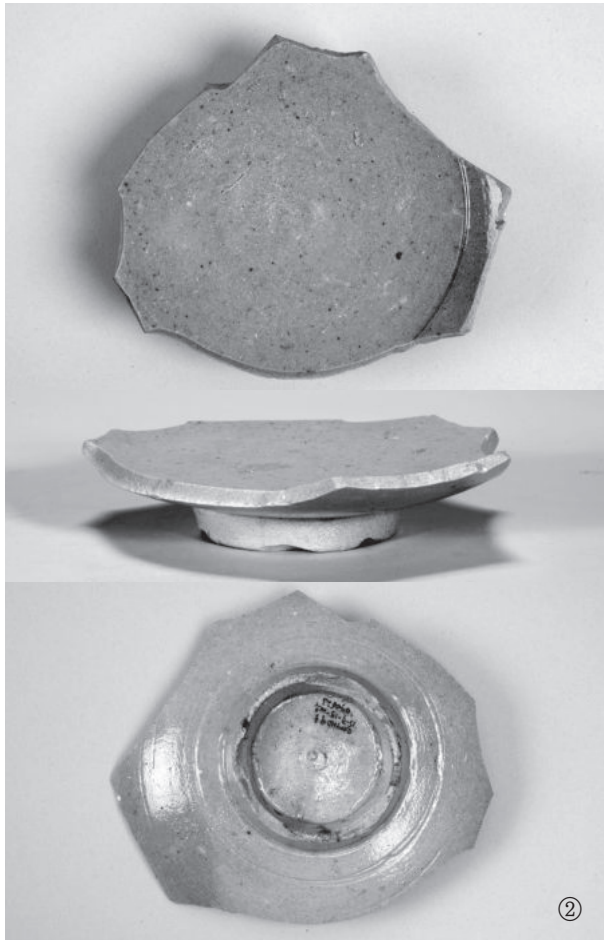


사진 51. 22호주거지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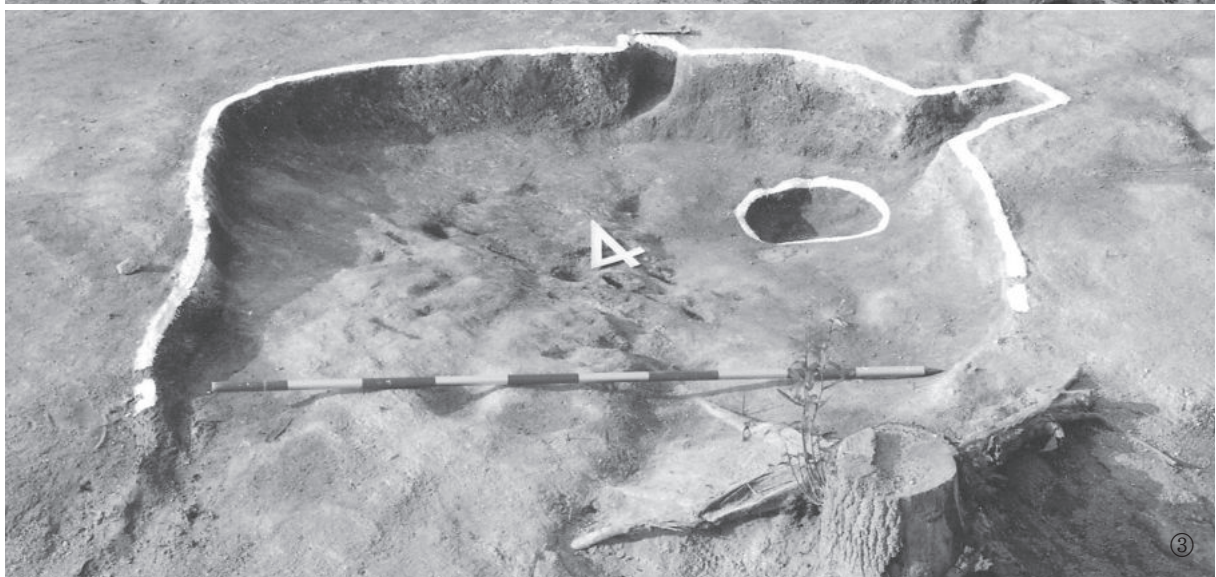


사진 52. 23호주거지 전경 (①내부 조사전, ②내부 조사후, ③완료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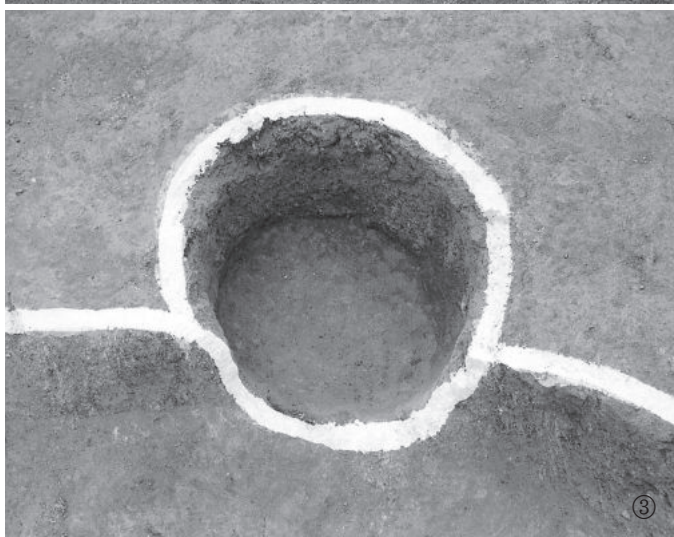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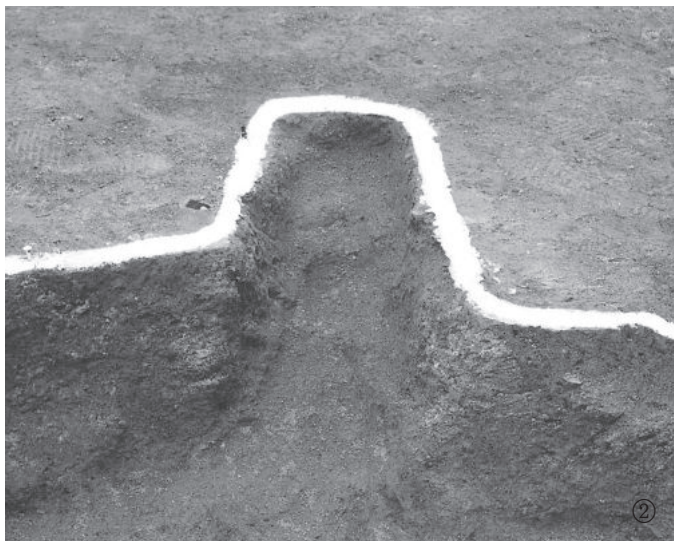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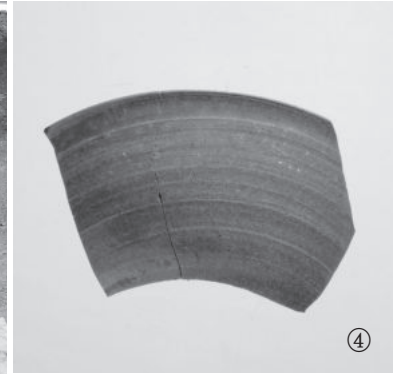


사진 53. 23호주거지 바닥 세부(①), 배연부(②), 주혈(③), 출토유물(④~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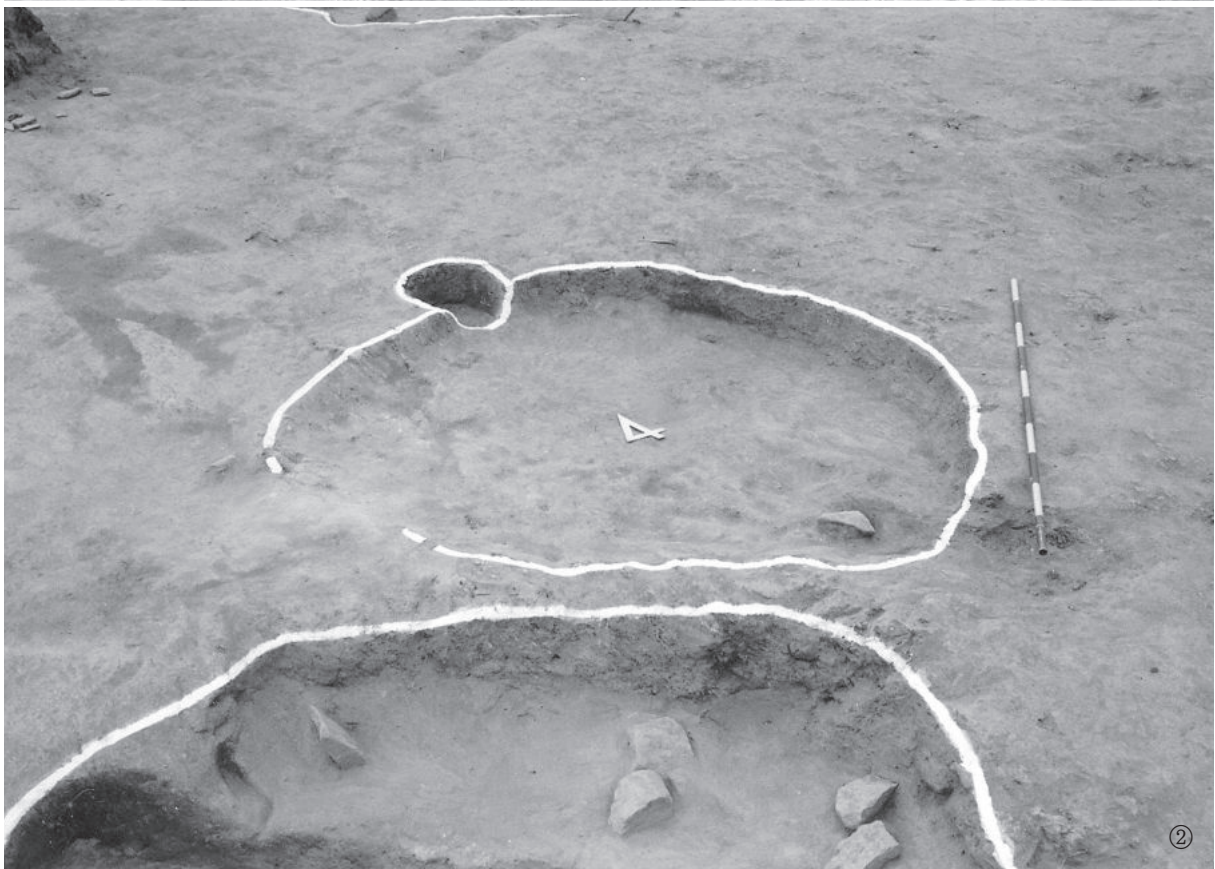


사진 54. 24호 주거지 전경(①내부 조사전, ②내부 조사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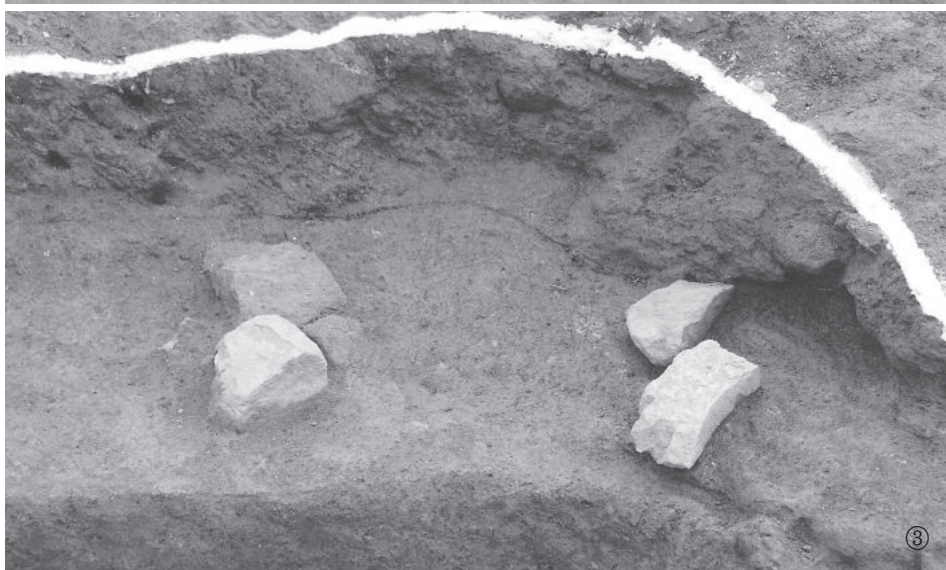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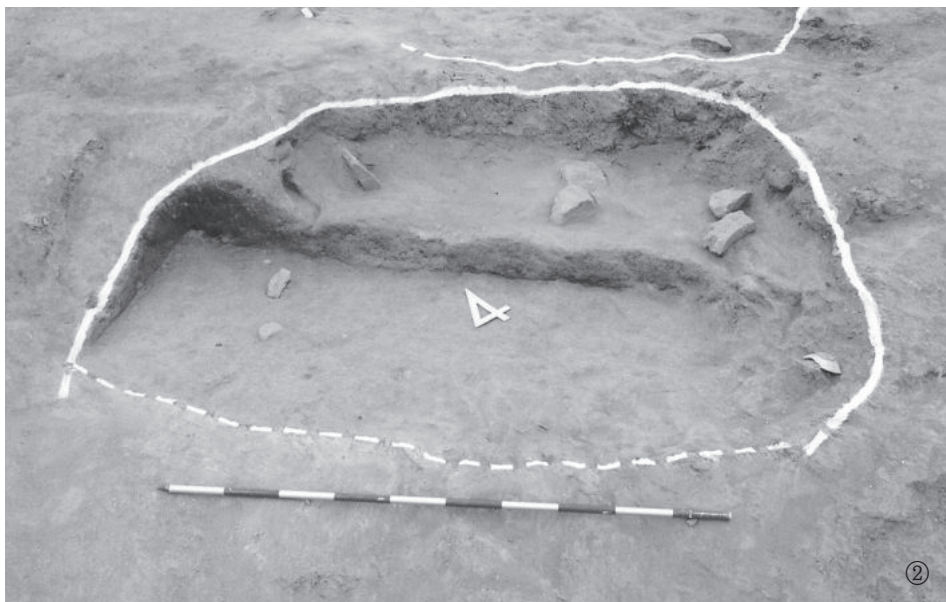


사진 55. 25호 주거지 전경(①내부 조사전, ②내부 조사후), 바닥 세부(③), 출토유물(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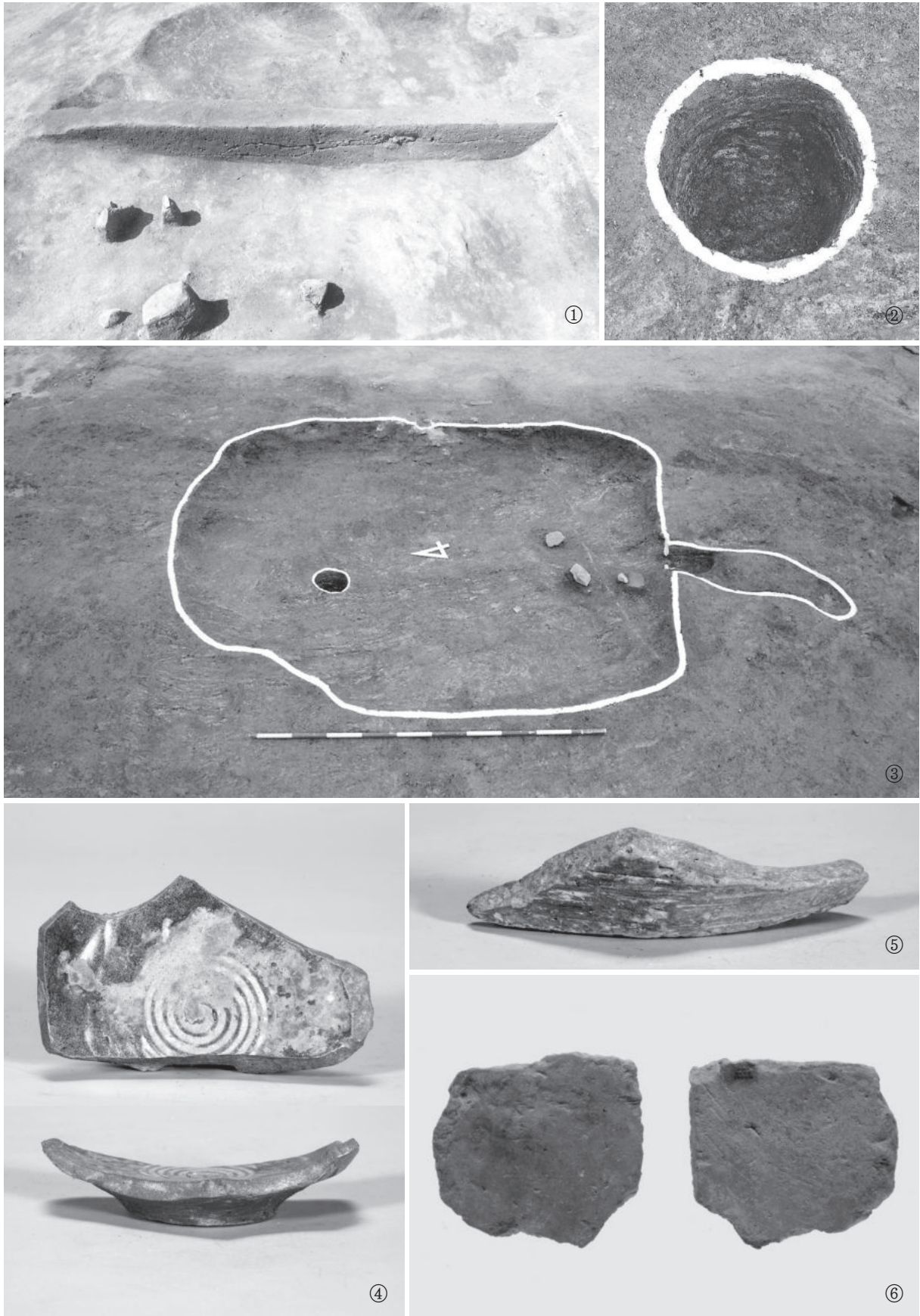


사진 56. 26호 주거지 전경(①내부 조사전, ③내부 조사후), 주혈(②), 출토유물(④~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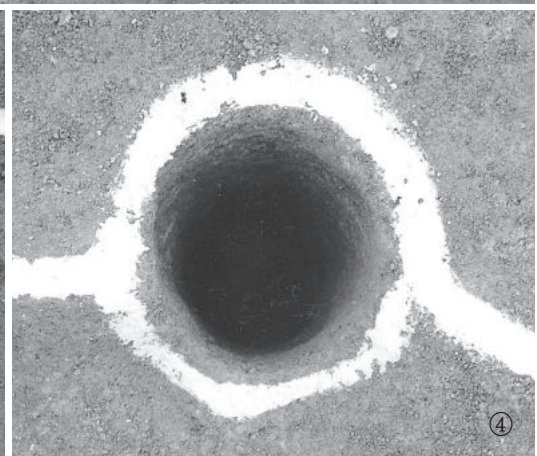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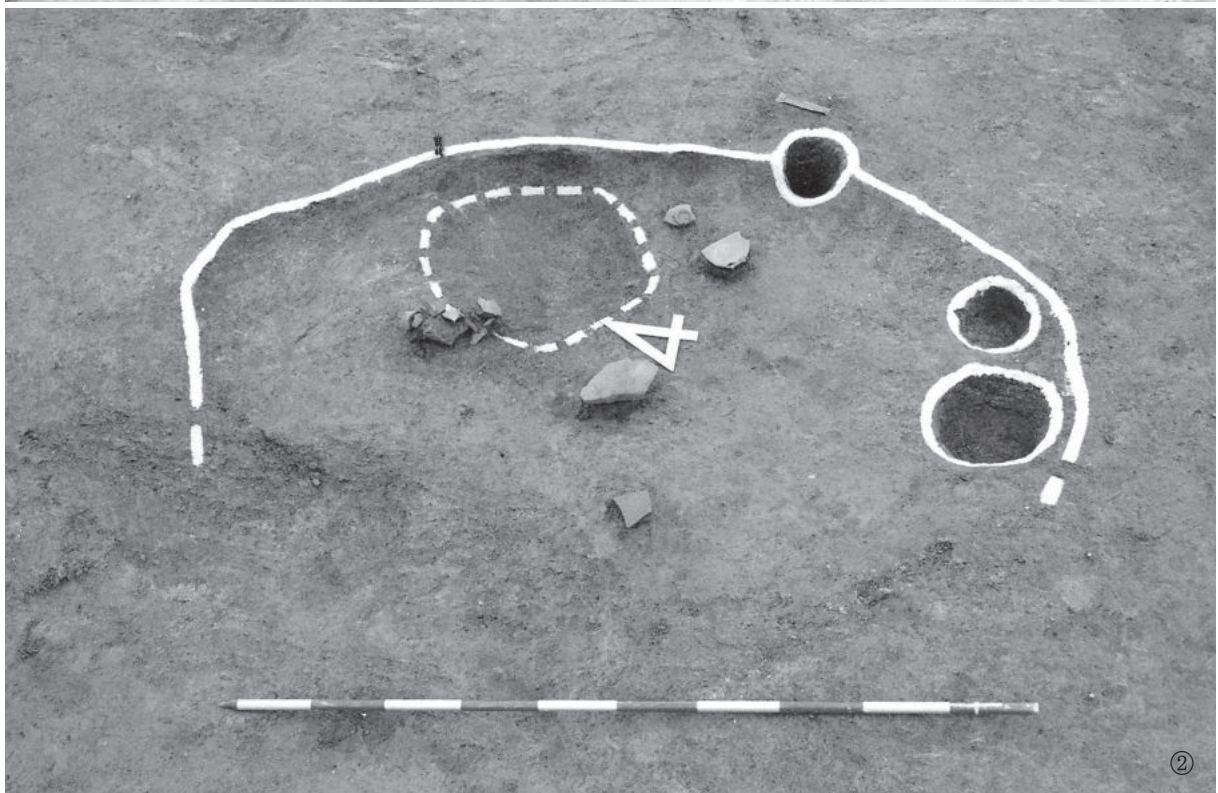


사진 57. 27호 주거지 전경(①내부 조사전, ②내부 조사후), 주혈(③·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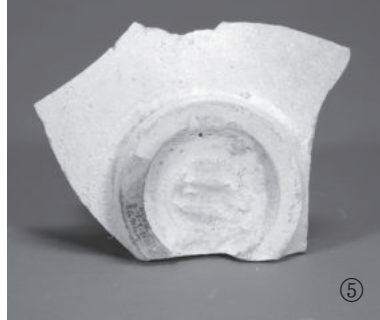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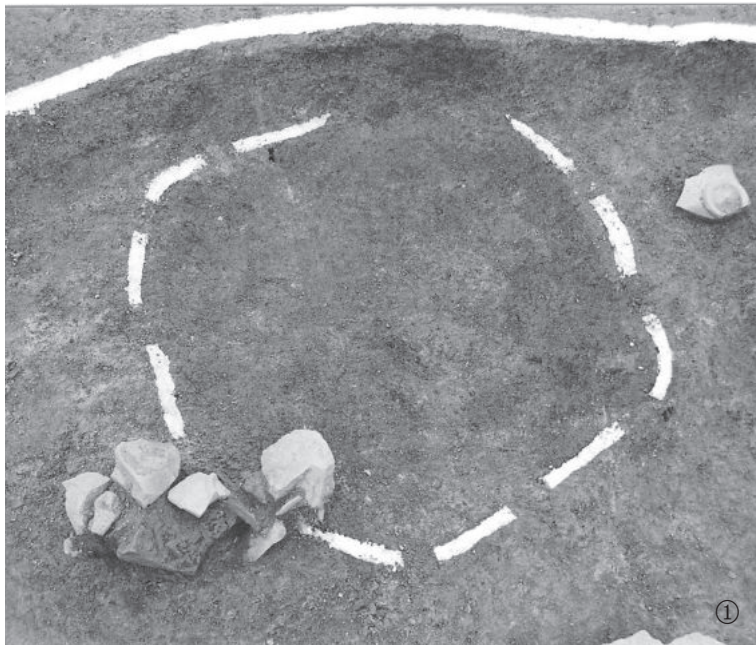


사진 58. 27호 주거지 바닥 세부(①), 유물출토상태(②), 출토유물(③~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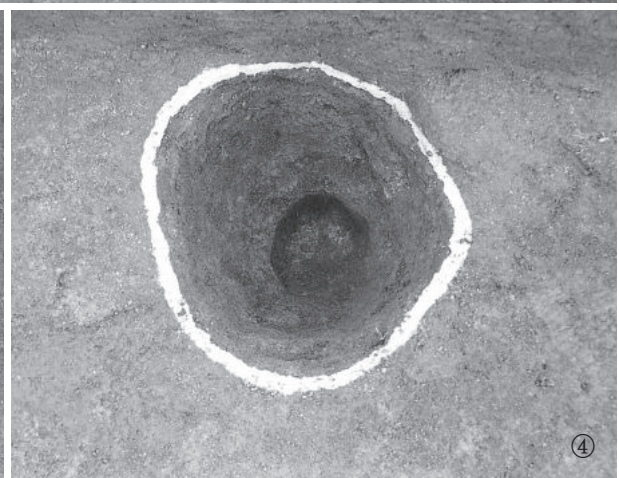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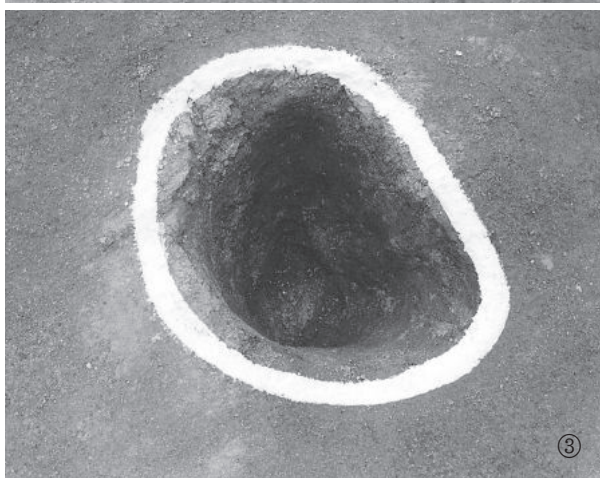


사진 59. 28호 주거지 전경(①내부 조사전, ②내부 조사후), 주혈(③·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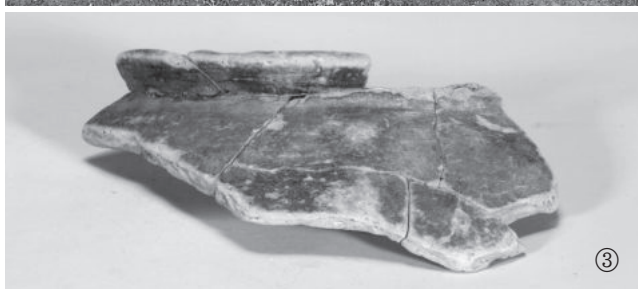


사진 60. 28호 주거지 유물출토상태(①·②), 출토유물(③~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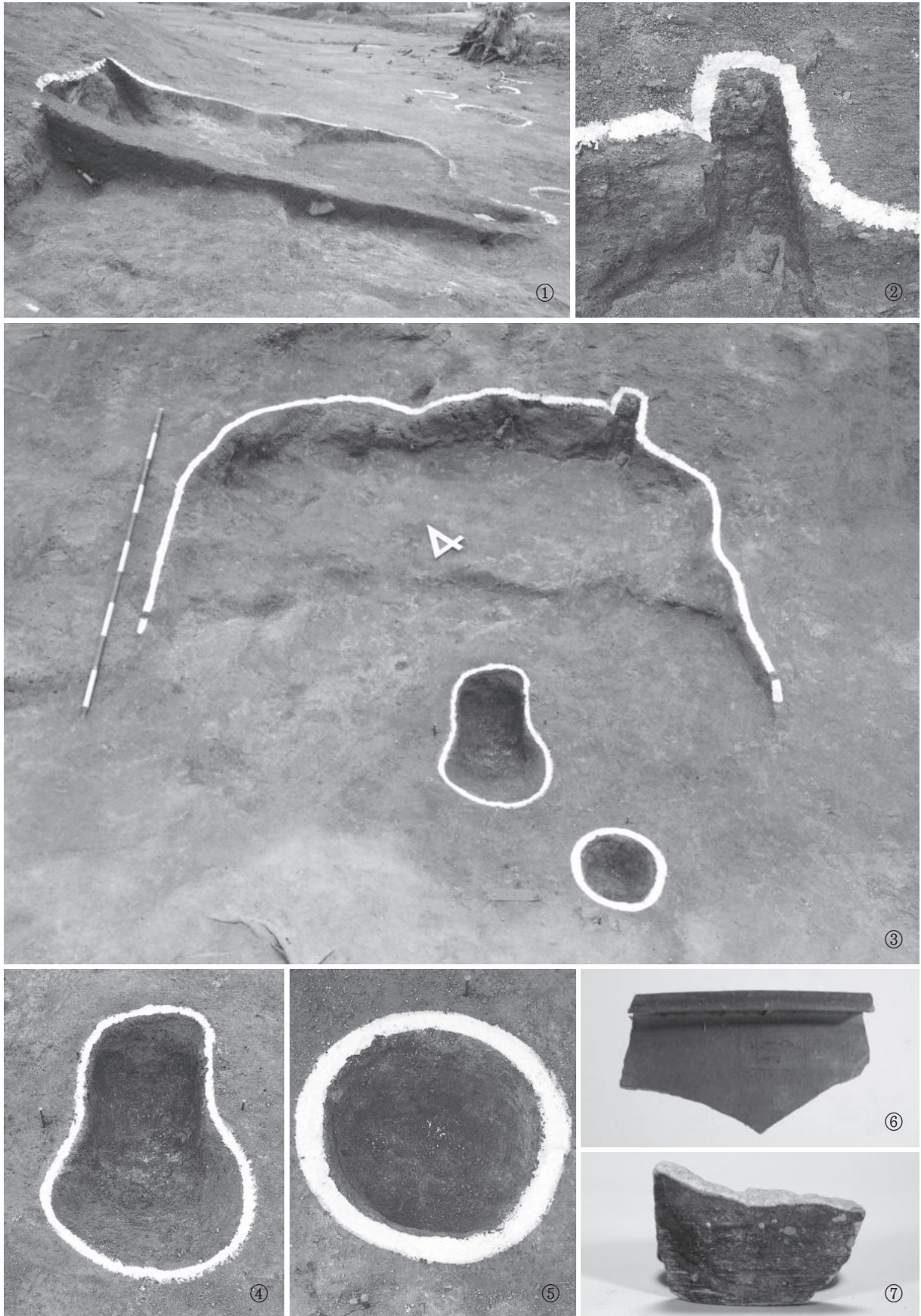


사진 61. 29호 주거지 전경(①내부 조사전, ③내부 조사후), 배연부(②), 바닥세부(④·⑤), 출토유물(⑥·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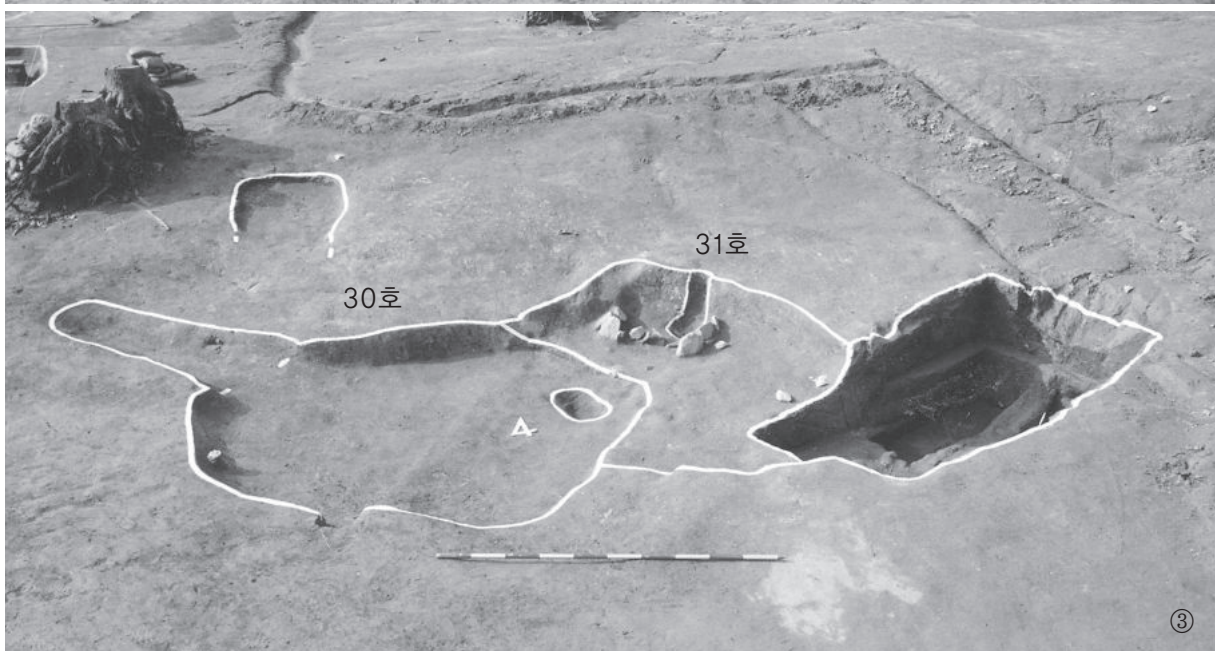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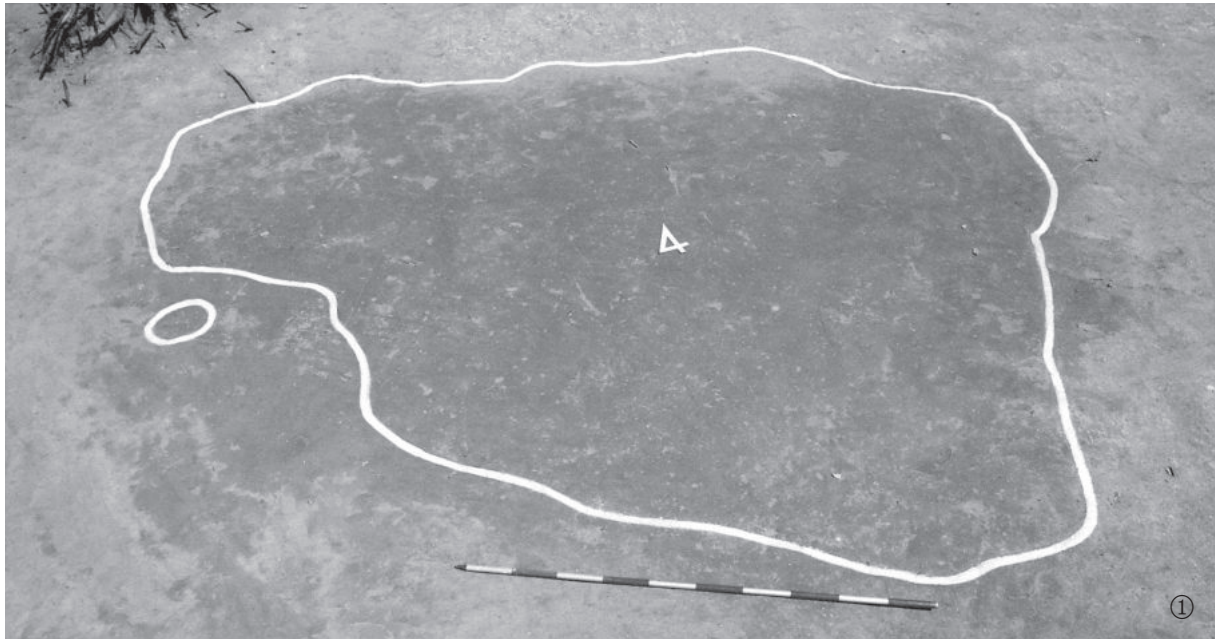


사진 62. 30호 · 31호 주거지 전경(①내부 조사전, ③내부 조사후), 내부토층(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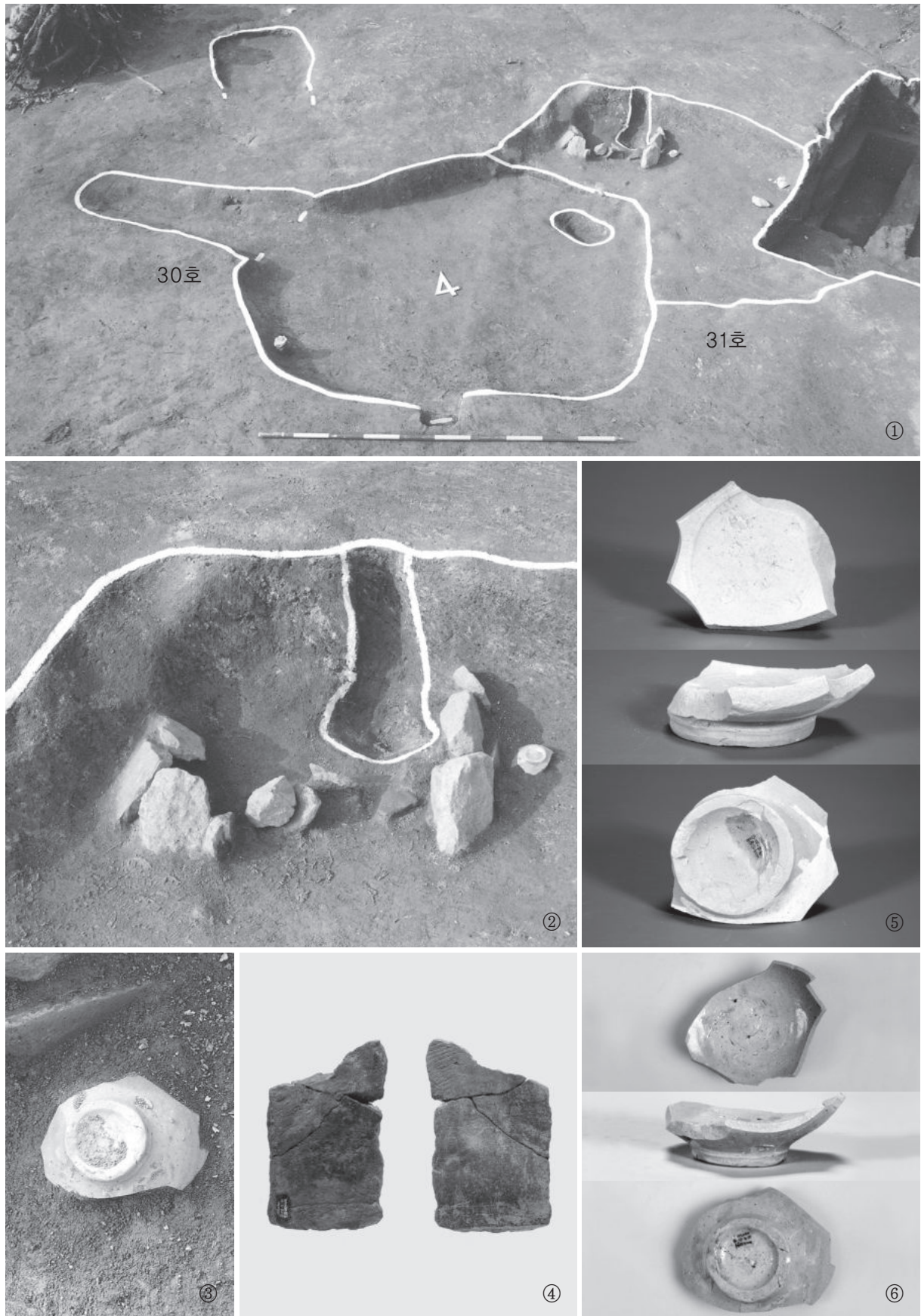


사진 63. 30호 · 31호 주거지 전경(①), 30호주거지 아궁이(②), 유물출토상태(③), 출토유물④~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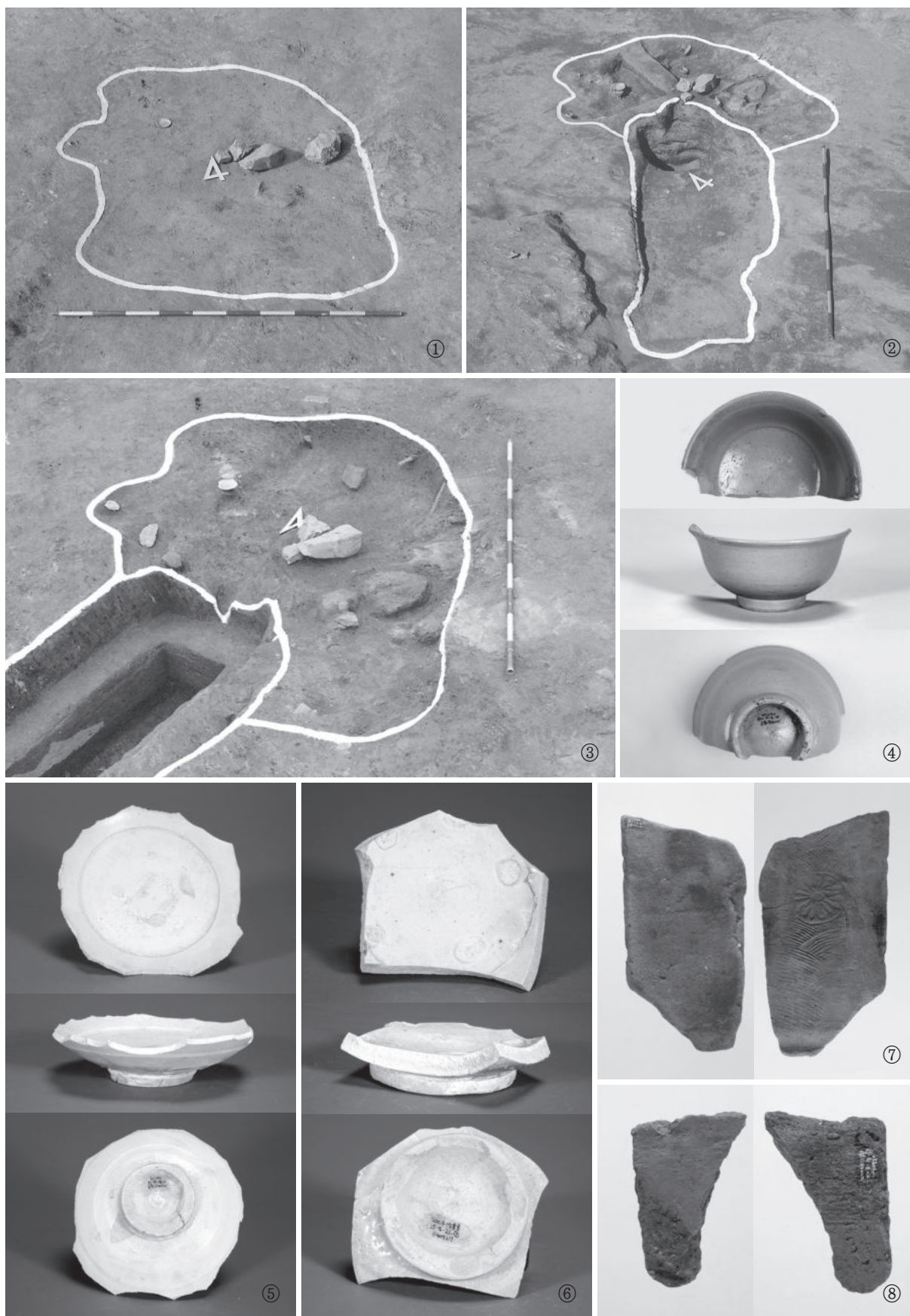


사진 64. 32호주거지 전경 (①·②내부 조사전, ③내부 조사후), 출토유물 (④~⑧)



사진 65. 33호주거지 전경(①내부 조사전, ②내부 조사후, ③완료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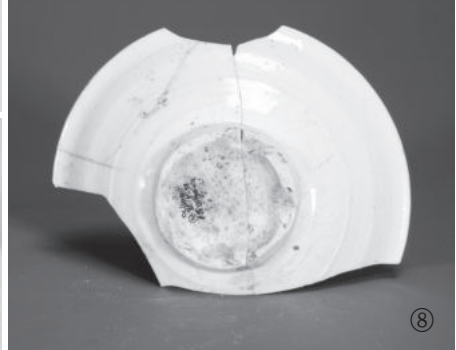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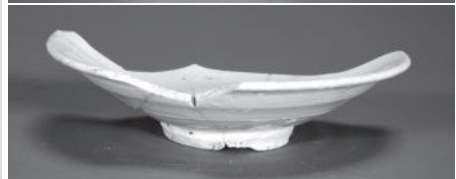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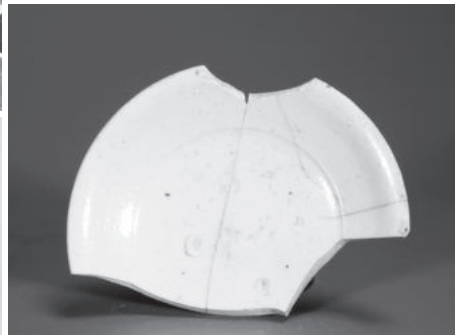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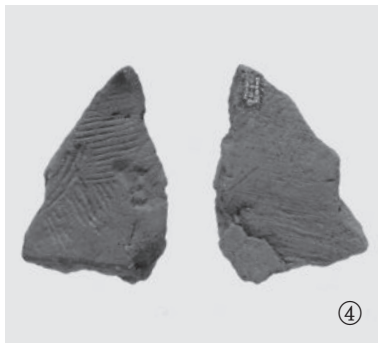


사진 66. 33호주거지 배연부 세부(①·②), 출토유물(③~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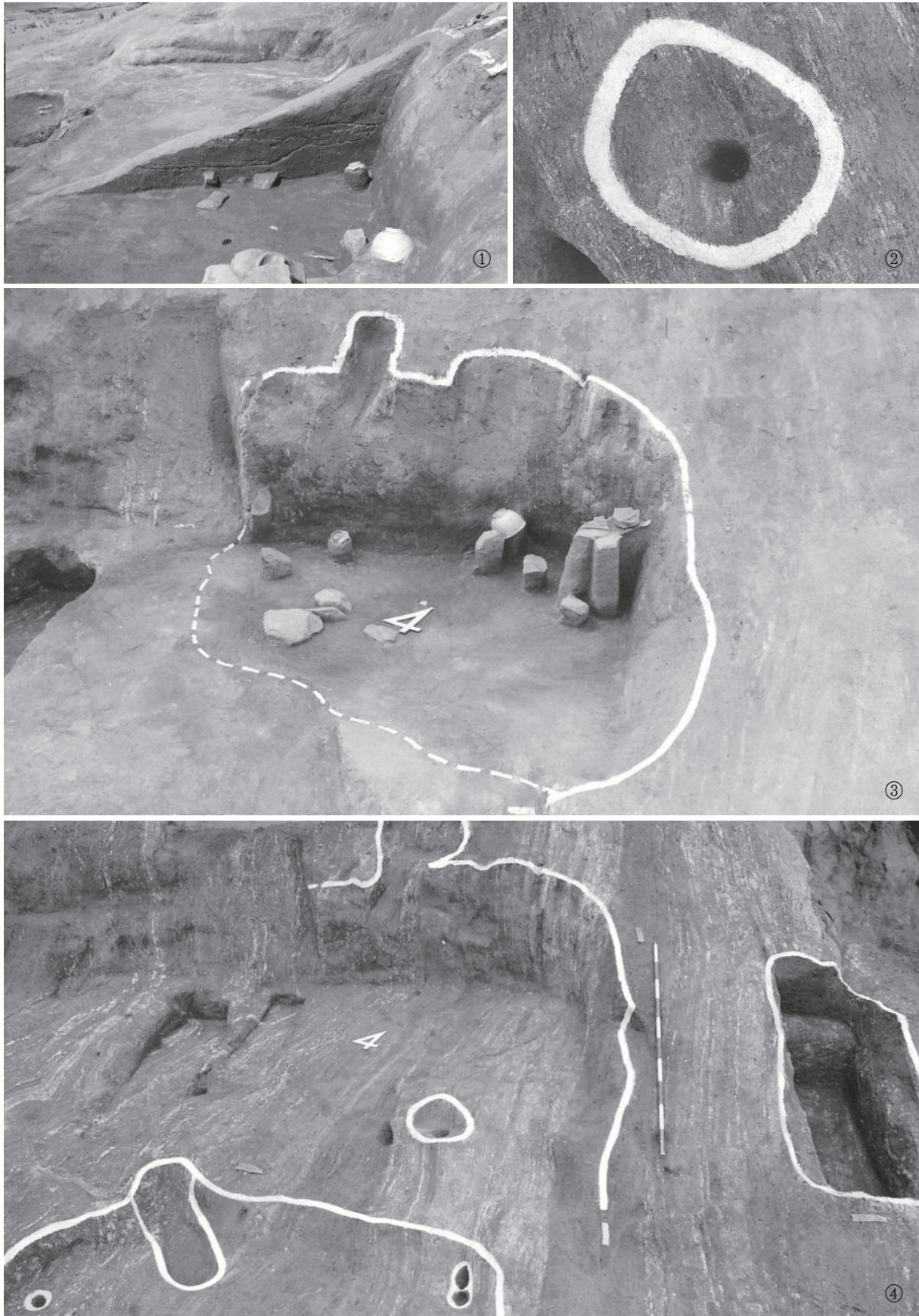


사진 67. 34호주거지 전경(①내부 조사전, ③내부 조사후, ④완료후), 바닥 세부(②)



사진 68. 34호주거지 유물출토상태(①·②), 출토유물(③~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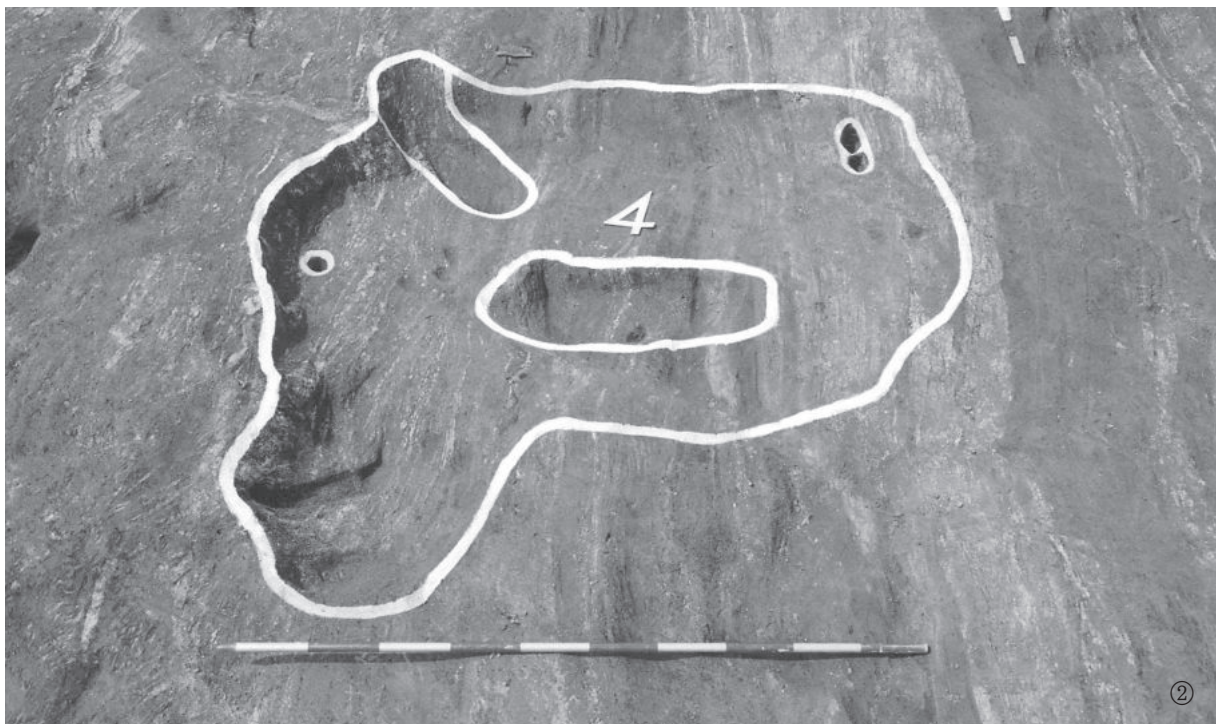


사진 69. 35호주거지 전경(①내부 조사전, ②내부 조사후), 아궁이 세부(③·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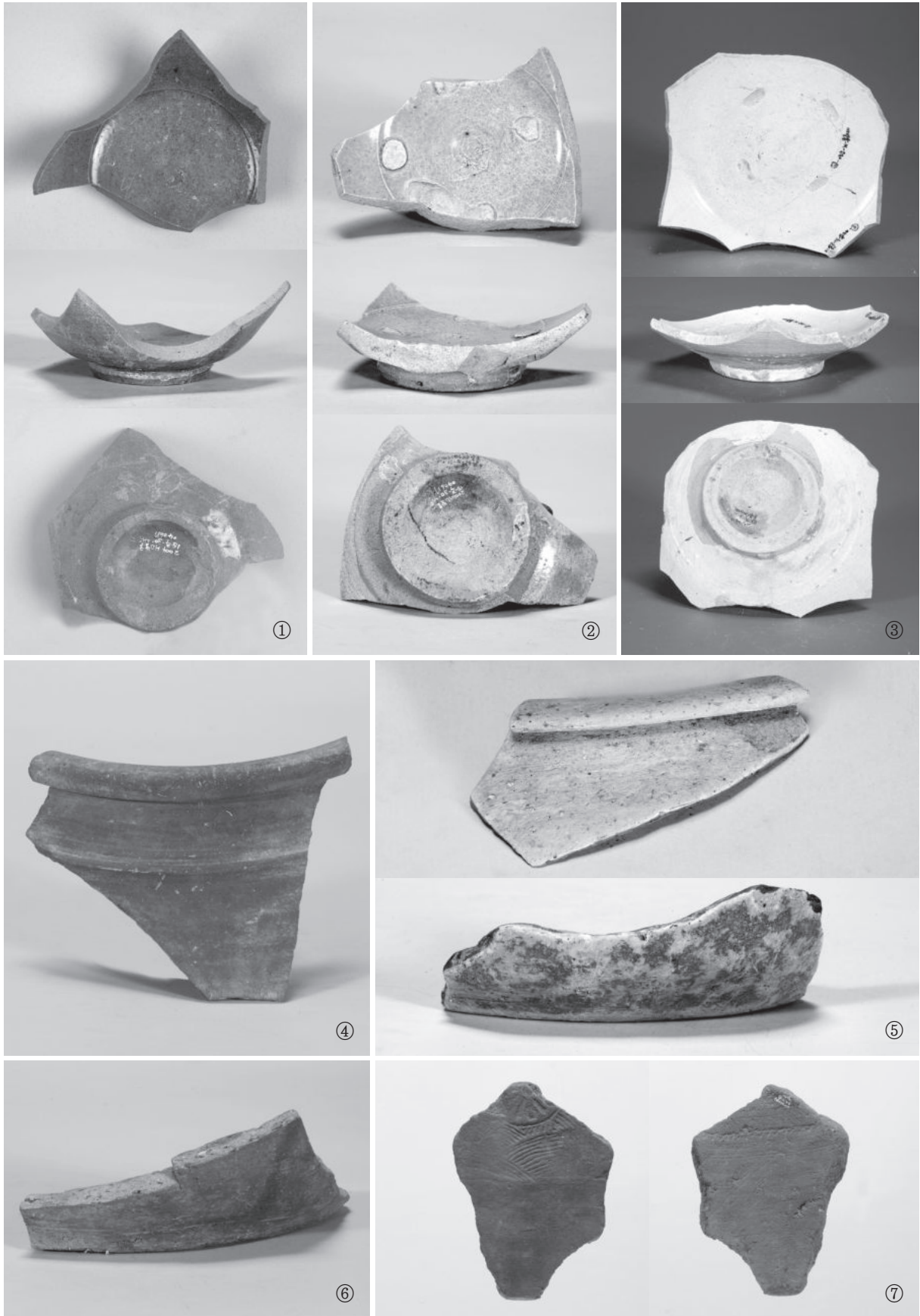


사진 70. 35호주거지 출토유물



사진 71. 36호주거지 전경(①내부 조사전, ④내부 조사후), 아궁이 세부(③·④), 출토유물(⑤~⑦)



사진 72. 37호주거지 전경(①내부 조사전, ②내부 조사후)



사진 73. 37호주거지 아궁이 세부(①·②), 유물출토상태(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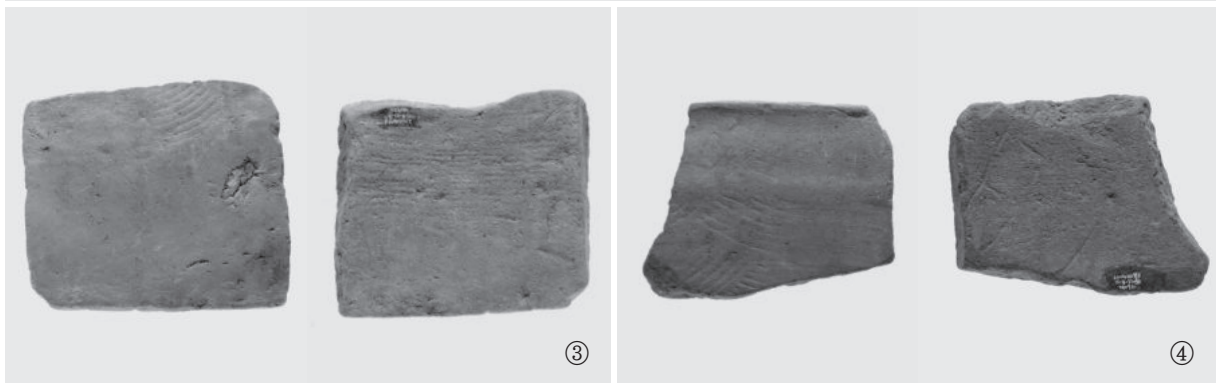
사진 74. 37호주거지 출토유물



①



②



③

④

사진 75. 37호주거지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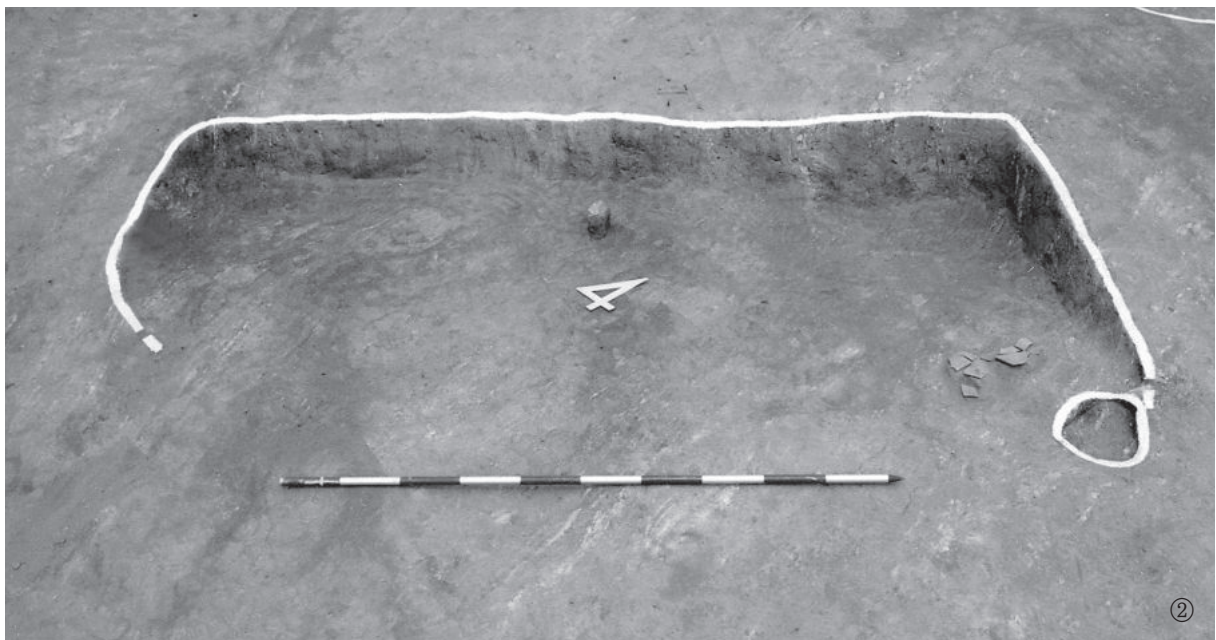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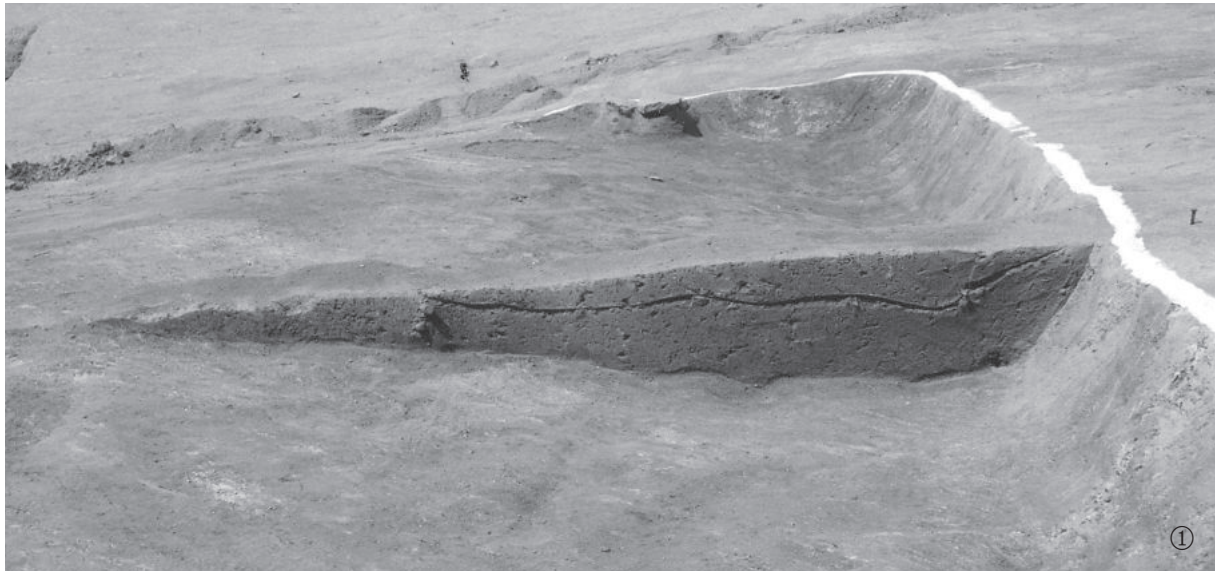


사진 76. 38호주거지 전경 (①내부 조사전, ②내부 조사후), 유물출토상태(③), 출토유물(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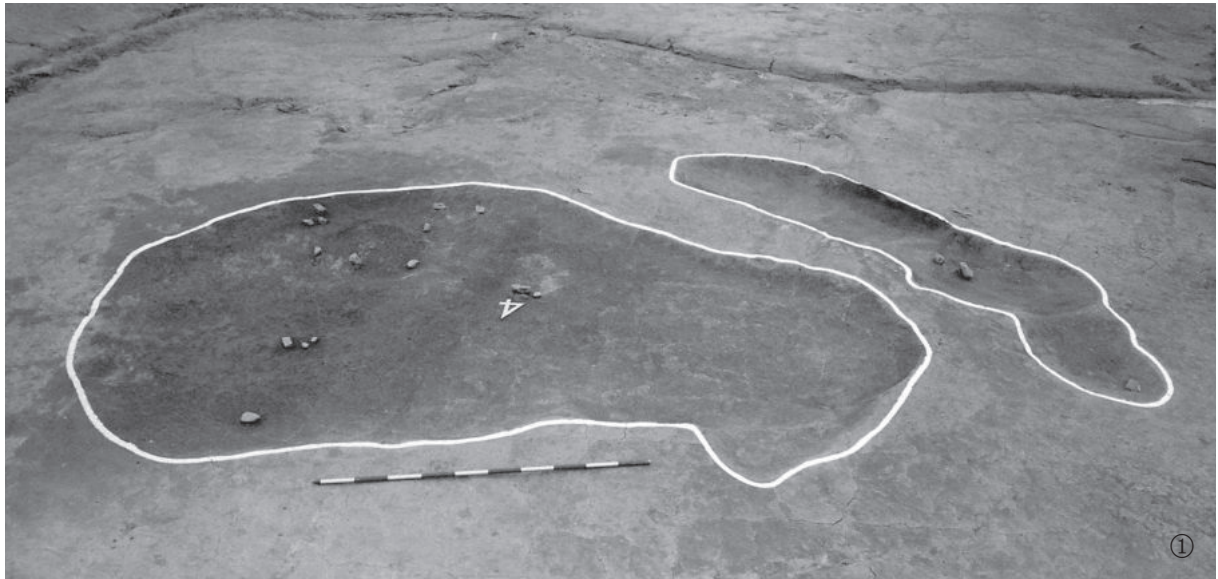


사진 77. 1호 · 2호 수혈 전경(①), 내부토층(②1호수혈, ③2호수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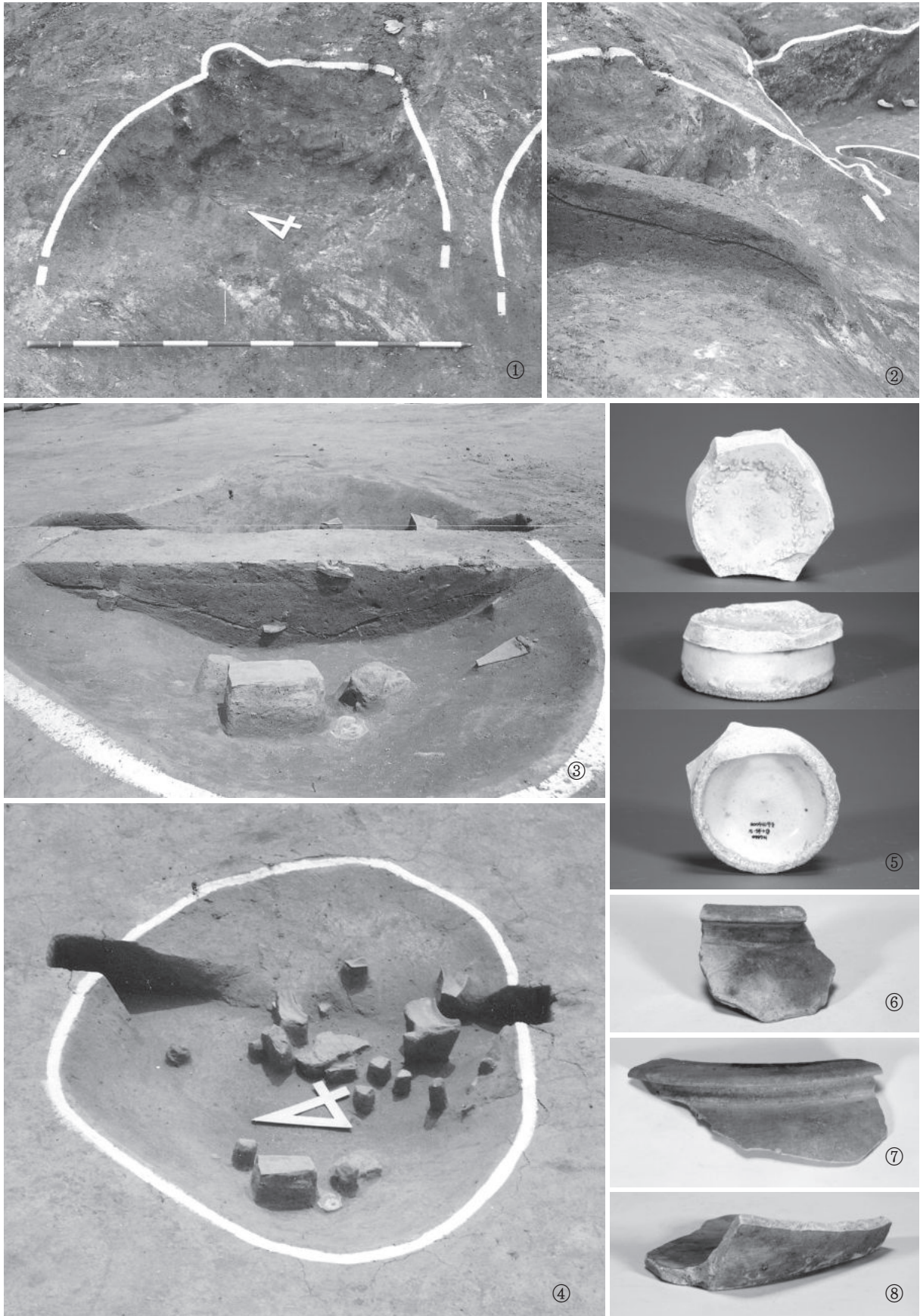


사진 78. 3호수혈 전경(①), 내부토층(②), 4호수혈 전경(④), 내부토층(③), 출토유물(⑤~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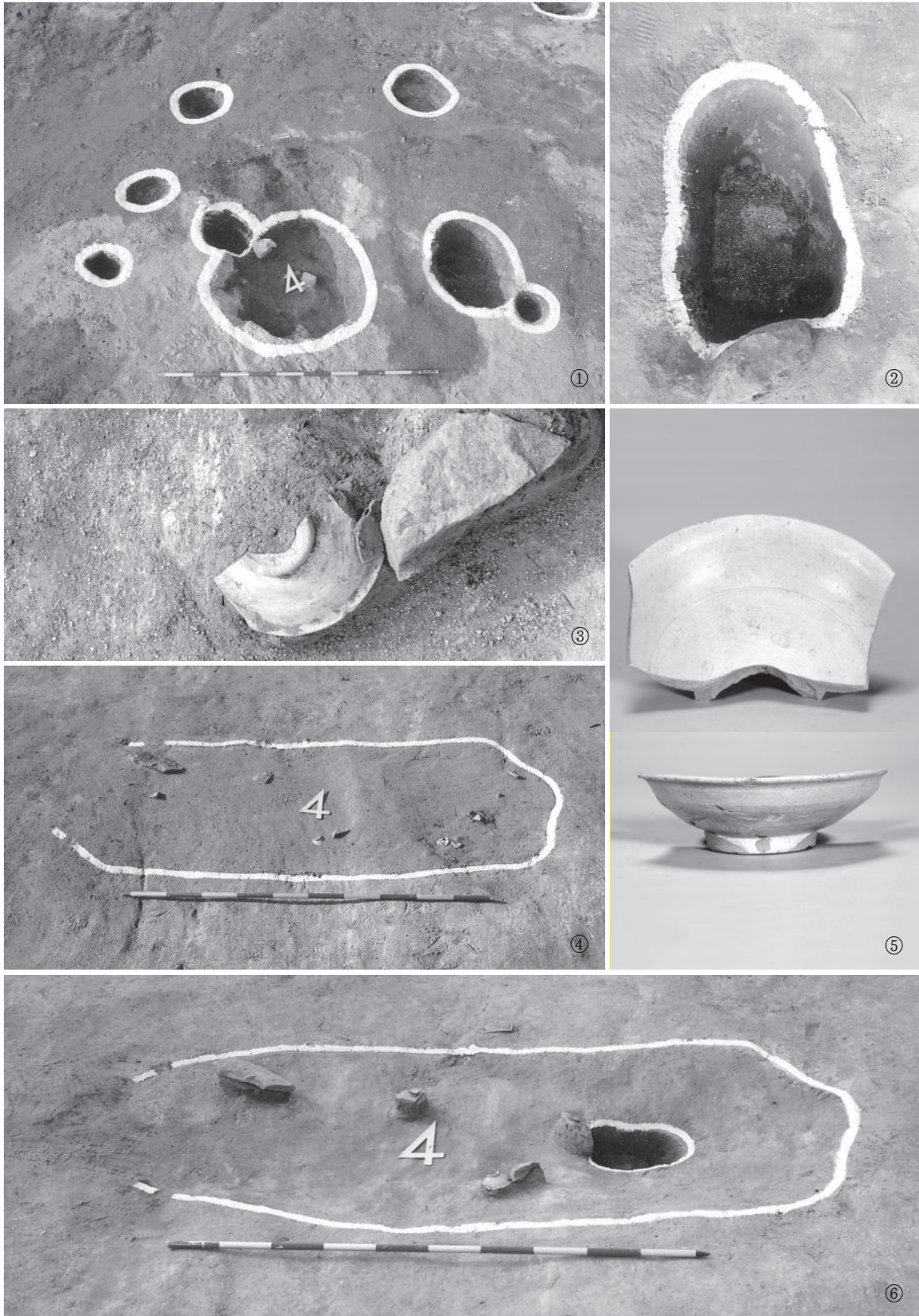


사진 79. 5호수혈 전경(①), 세부(②), 6호수혈 전경(④내부 조사전, ⑥내부 조사후), 유물출토상태(③), 출토유물(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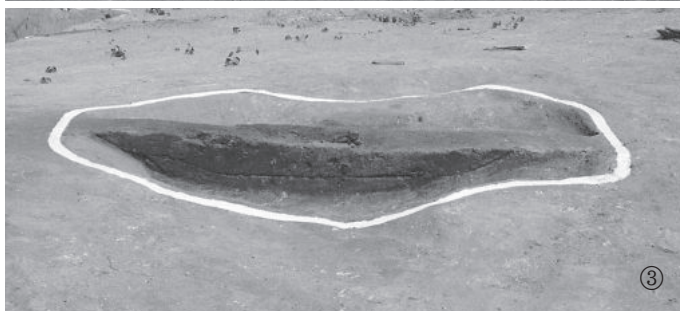


사진 80. 7호수혈 전경(①·②), 8호수혈 전경(④), 내부토층(③), 9호수혈 전경(⑥), 내부토층(⑤), 출토유물(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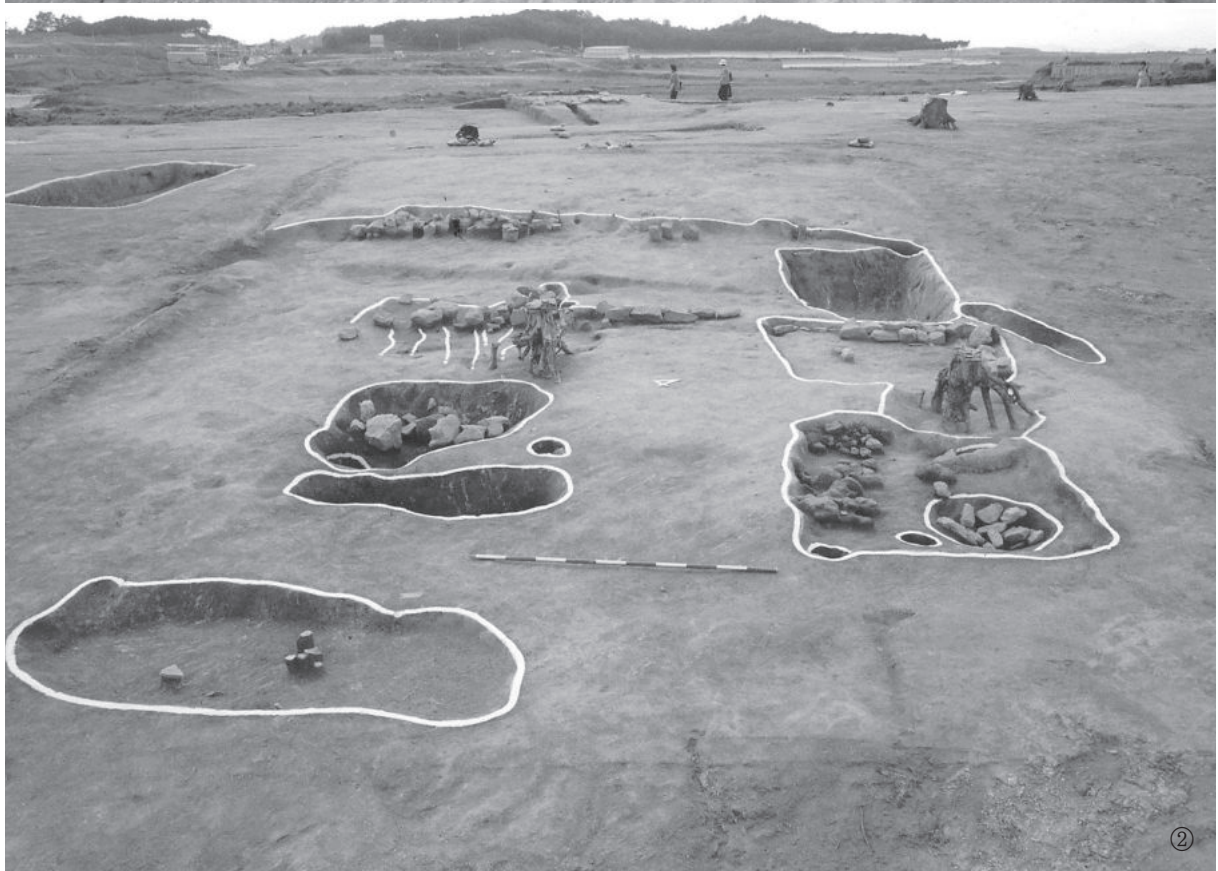


사진 81. 1호건물지 전경(①조사전, ②조사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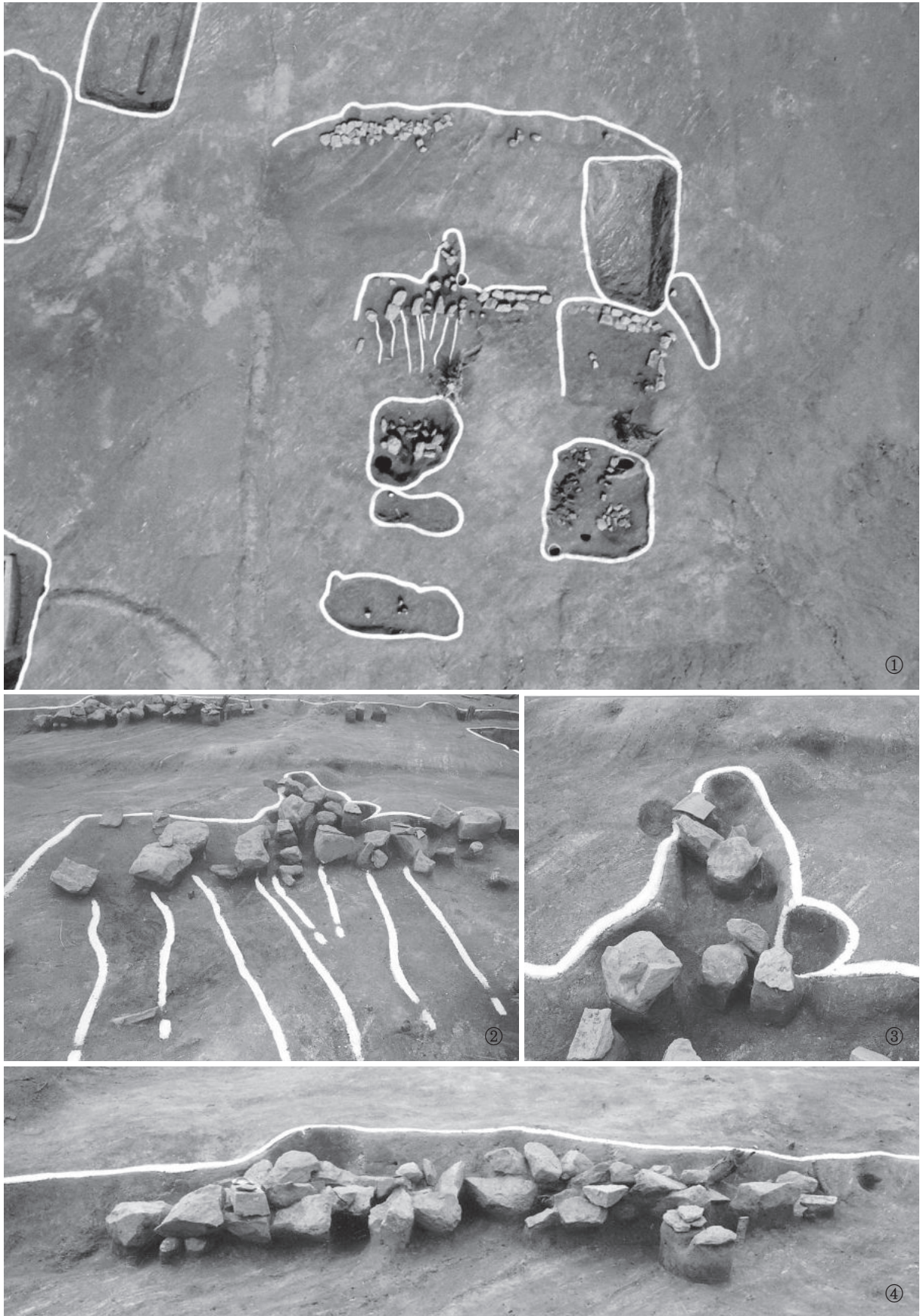


사진 82. 1호건물지 노출전경(①), 고래(②), 배연부(③), 추정 담장석렬(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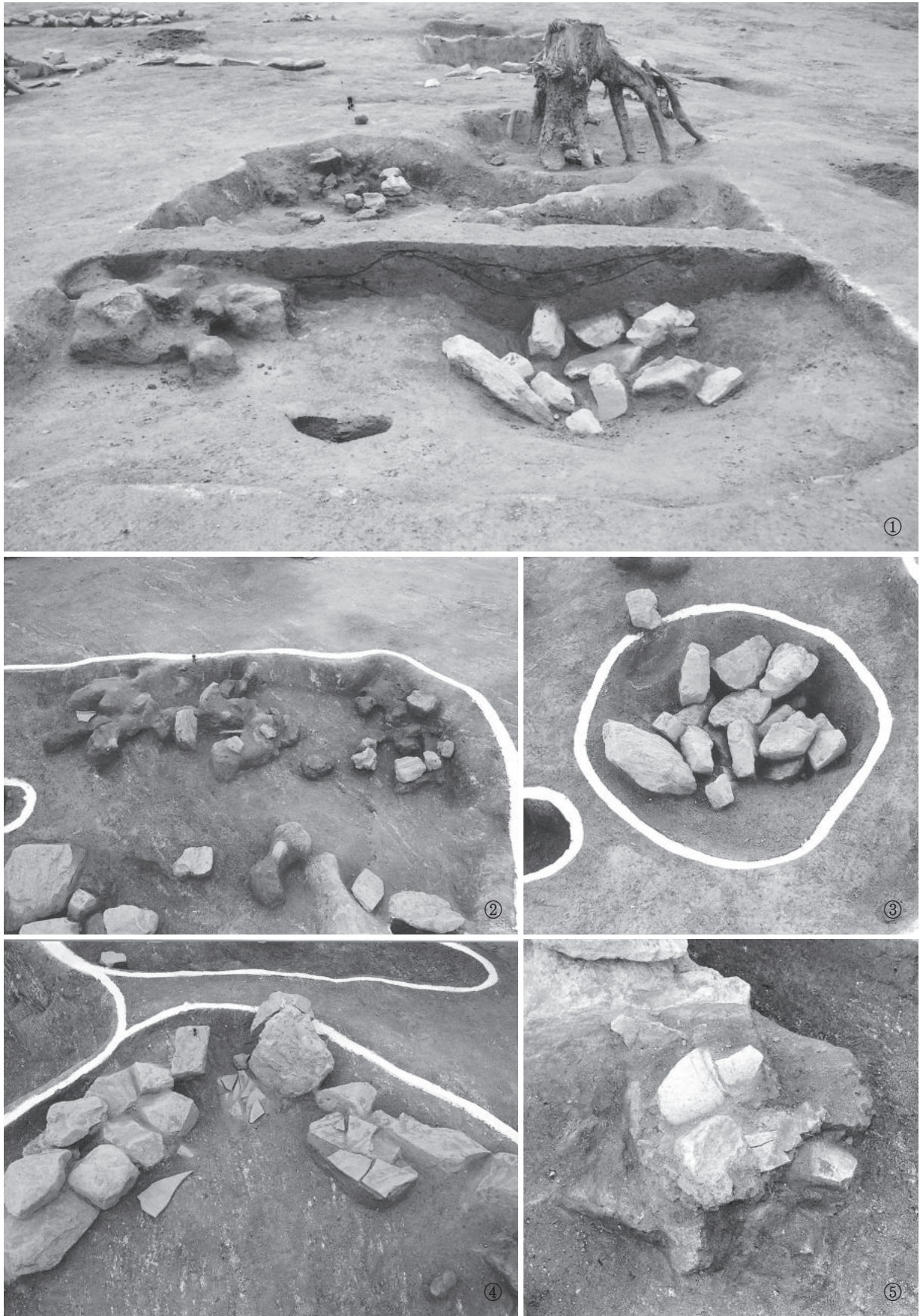


사진 83. 1호건물지 동남쪽 수혈(①내부 조사전, ②바닥 세부, ③내부 수혈), 동북쪽 수혈(④·⑤바닥 세부)



사진 84. 1호건물지 아궁이(①), 아궁이 남쪽 주혈(②), 아궁이 남쪽 수혈(③)유물출토상태, ④내부토층, 출토유물(⑤~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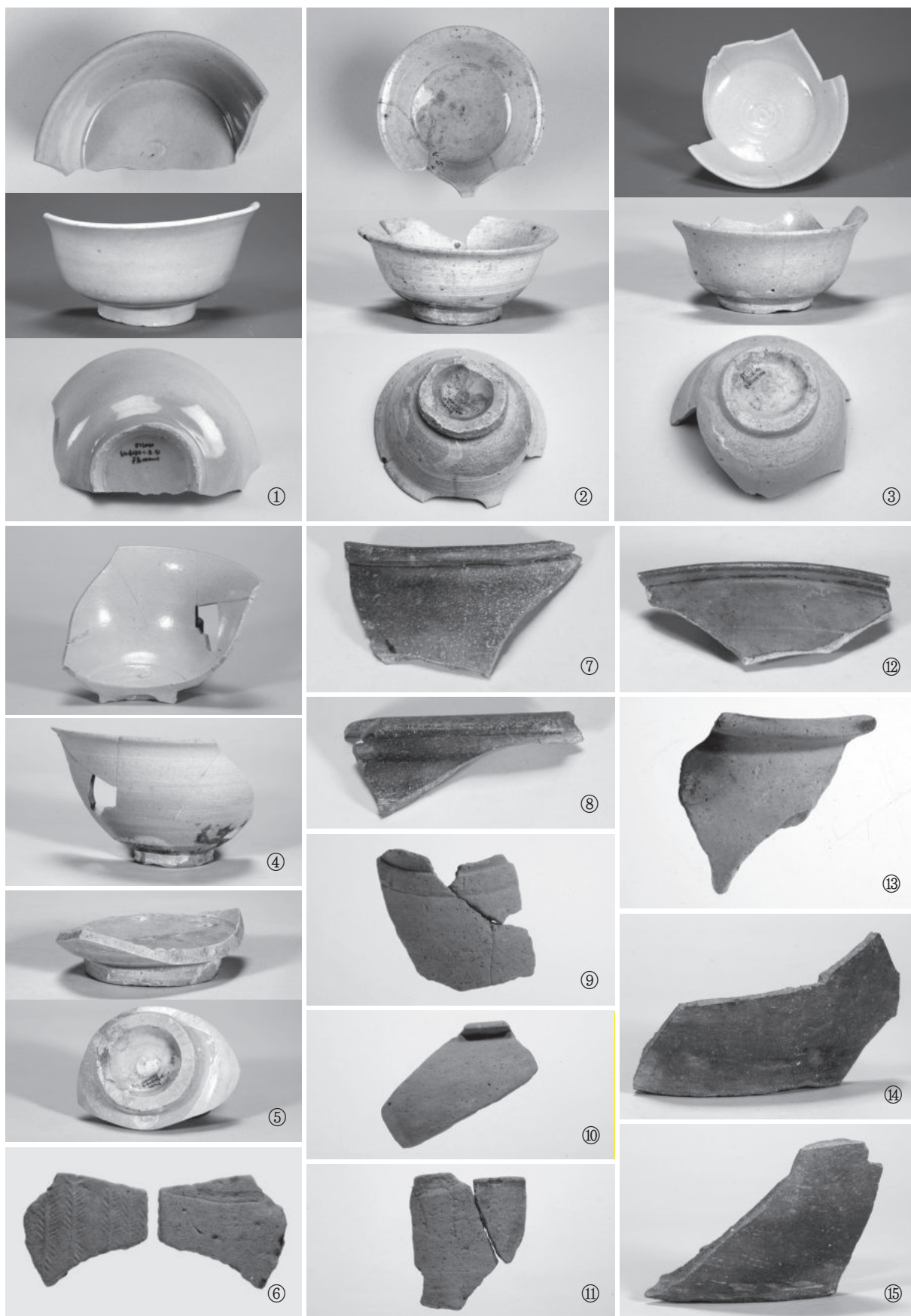


사진 85. 1호건물지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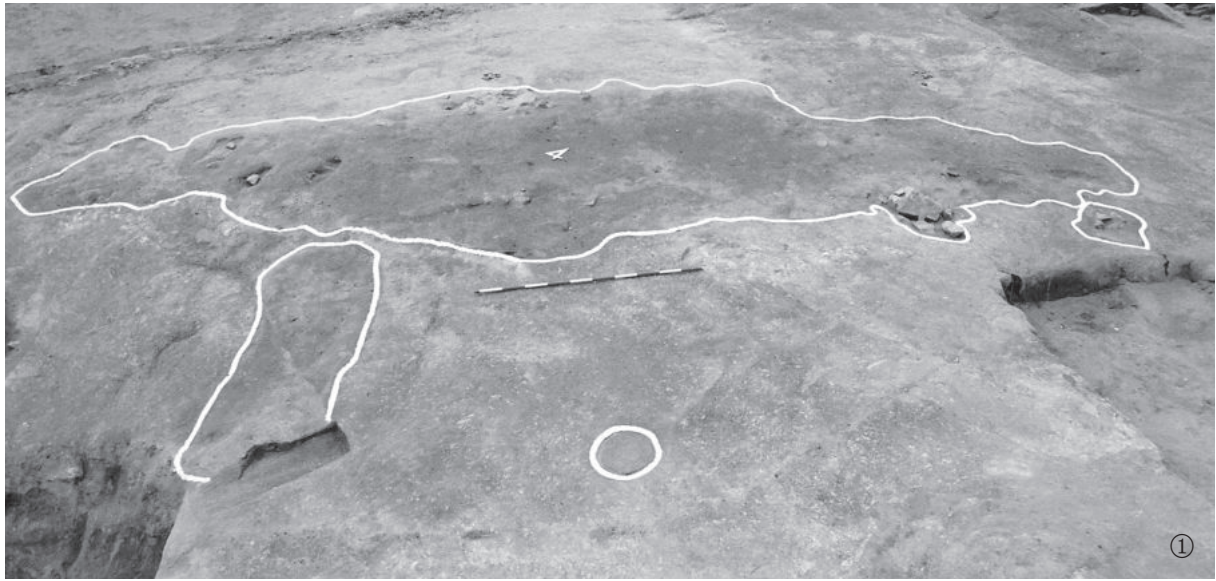


사진 86. 2호건물지 전경(①조사전, ②조사후, ③완료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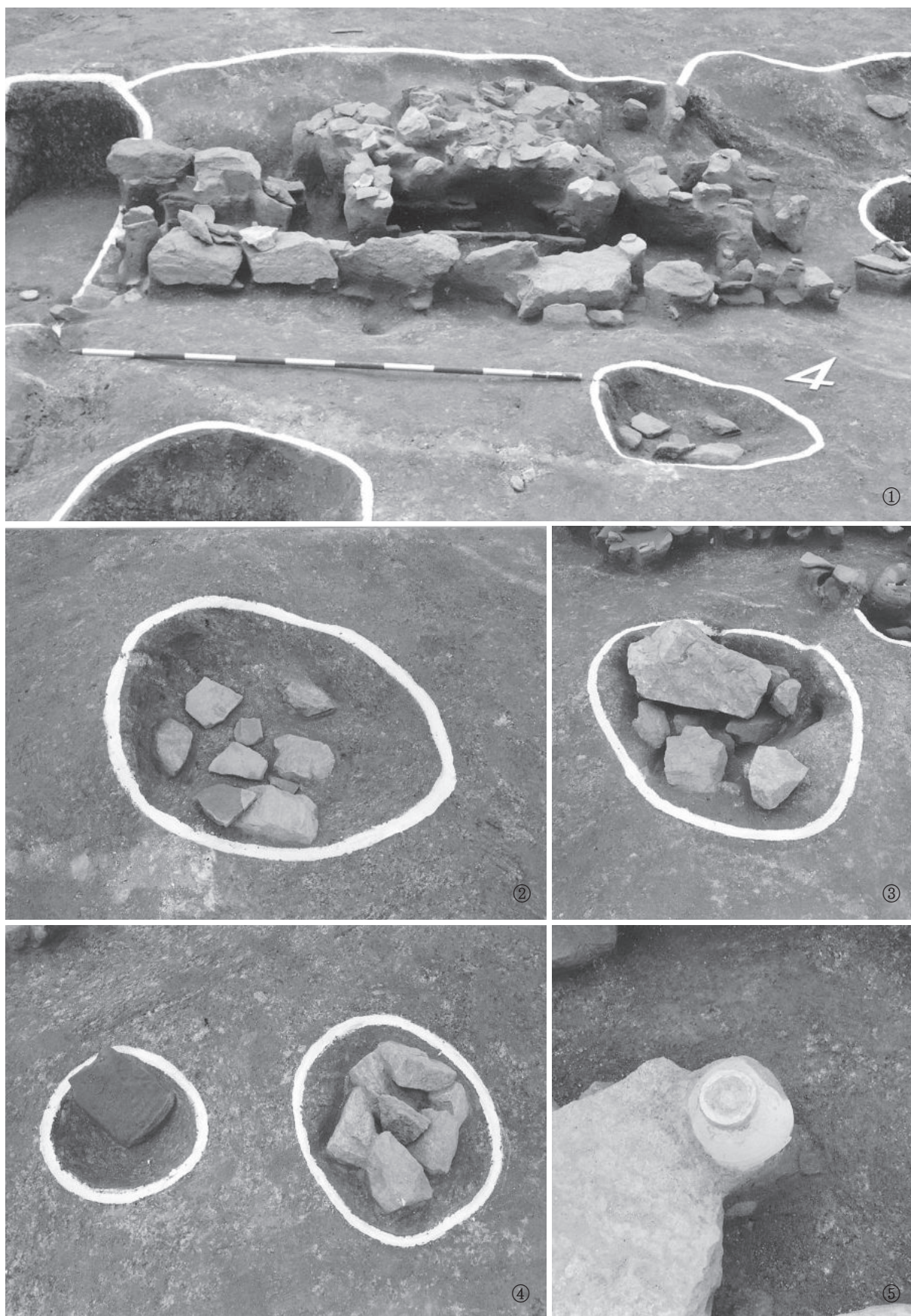


사진 87. 2호건물지 석렬(①), 적심(②~④), 유물출토상태(⑤)



사진 88. 2호건물지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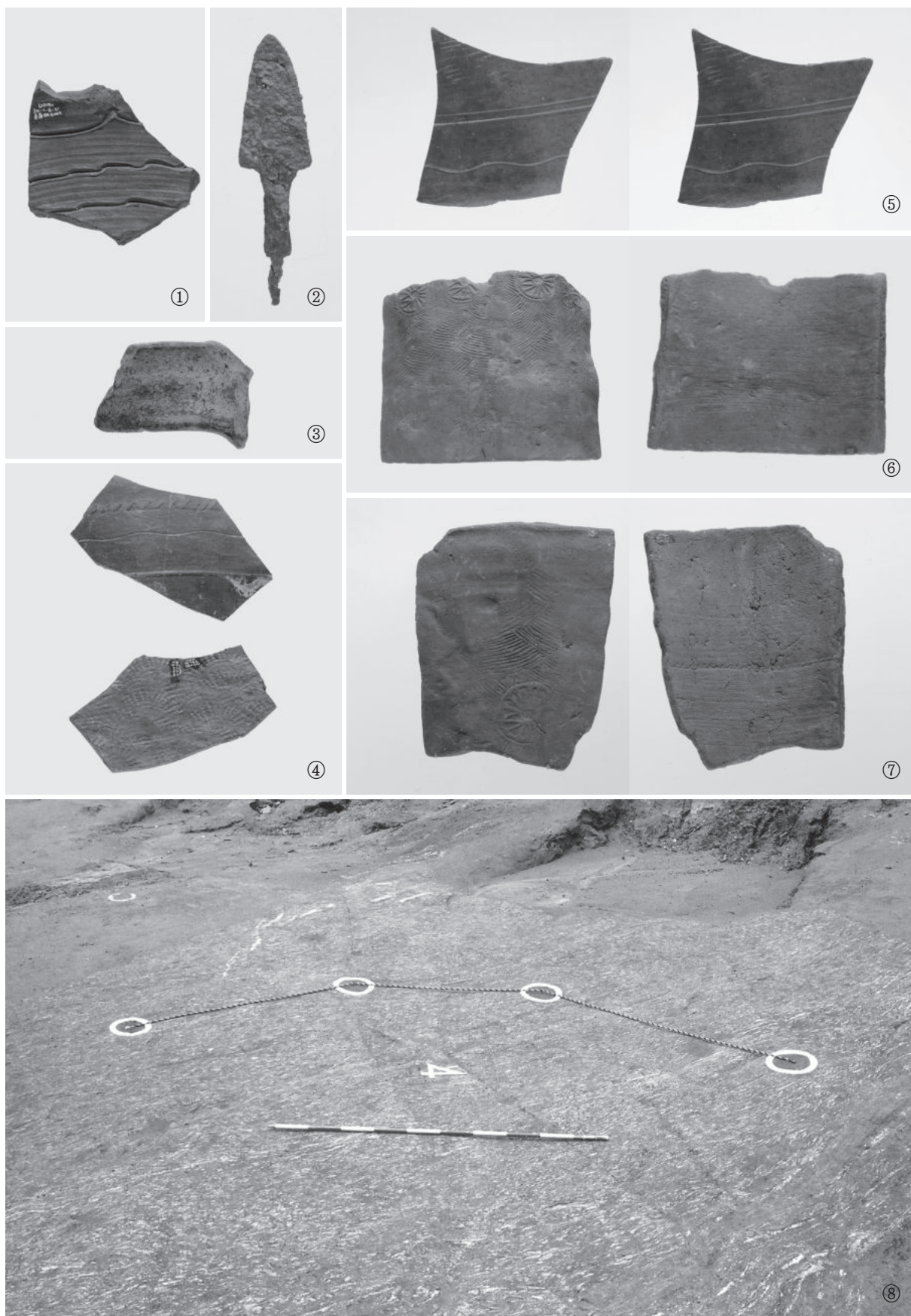


사진 89. 2호건물지 출토유물(①~⑦), 지상식건물지 전경(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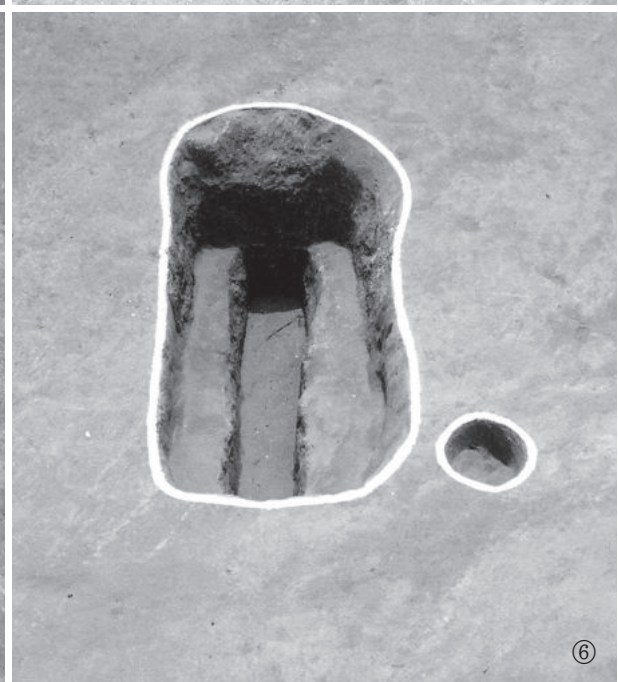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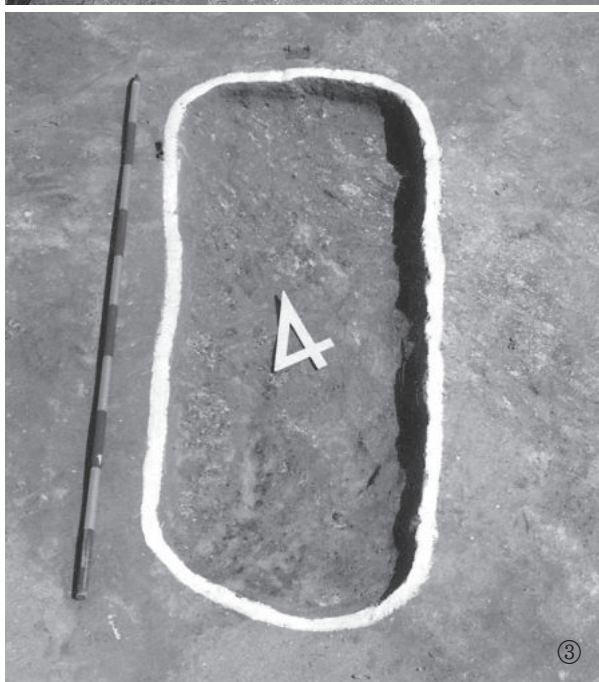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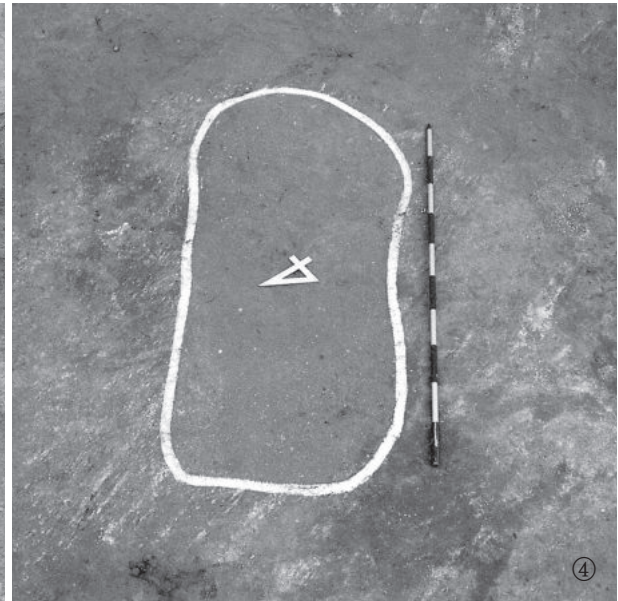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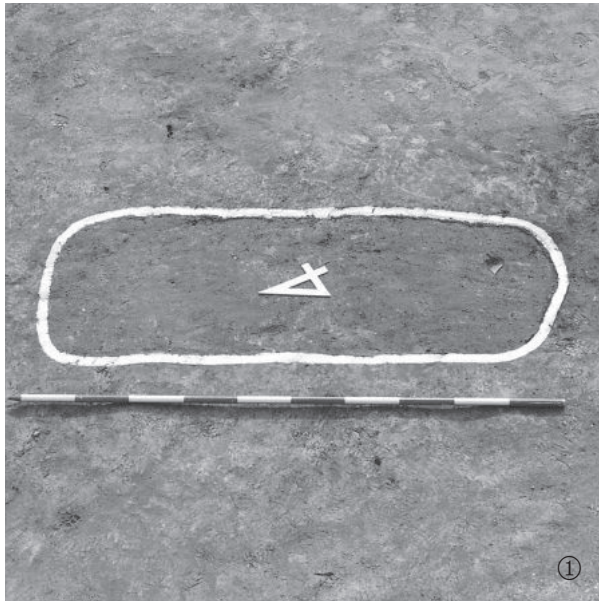


사진 90. 1호묘(①조사전, ②내부토층, ③조사후), 2호묘(④조사전, ⑤내부토층, ⑥조사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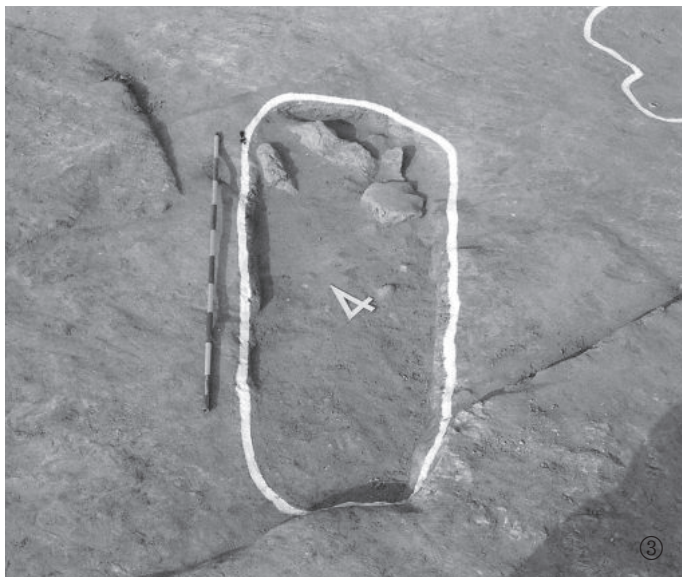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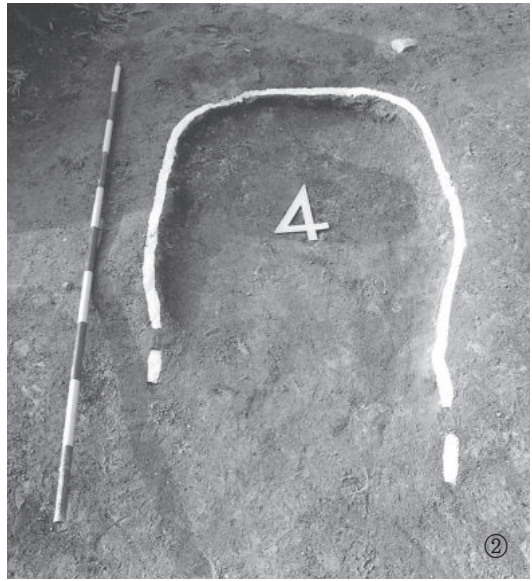


사진 91. 3호묘(①조사후), 4호묘(②조사후), 5호묘(③조사전, ④조사후), 6호묘(⑤조사전, ⑥조사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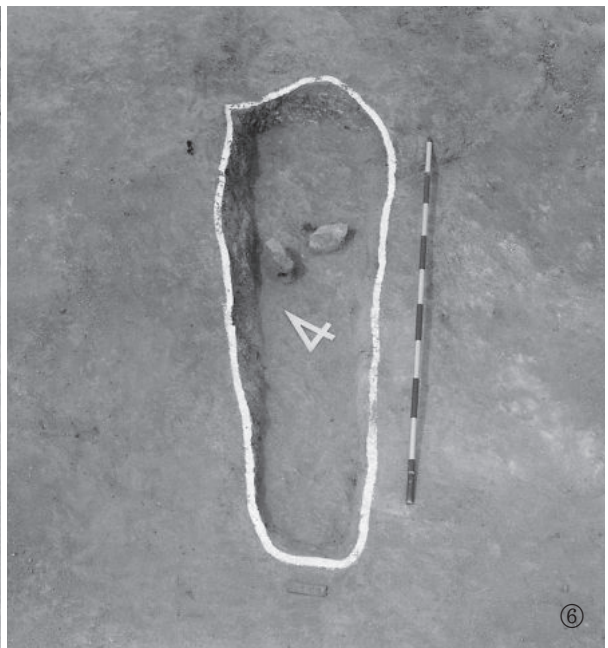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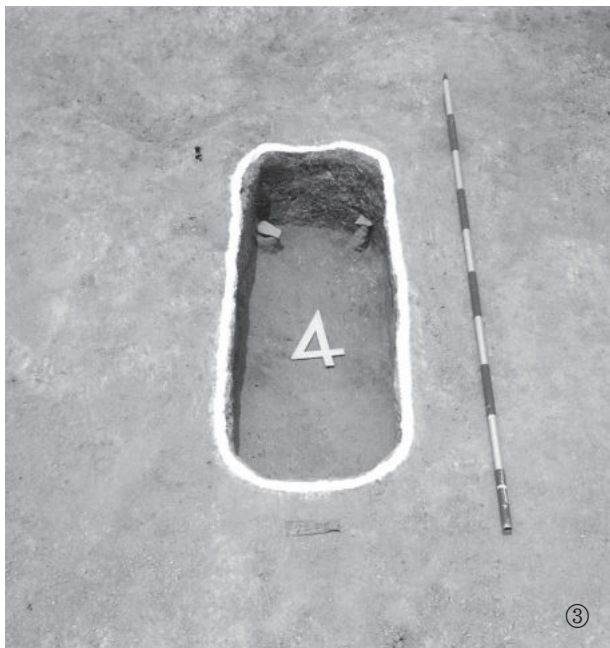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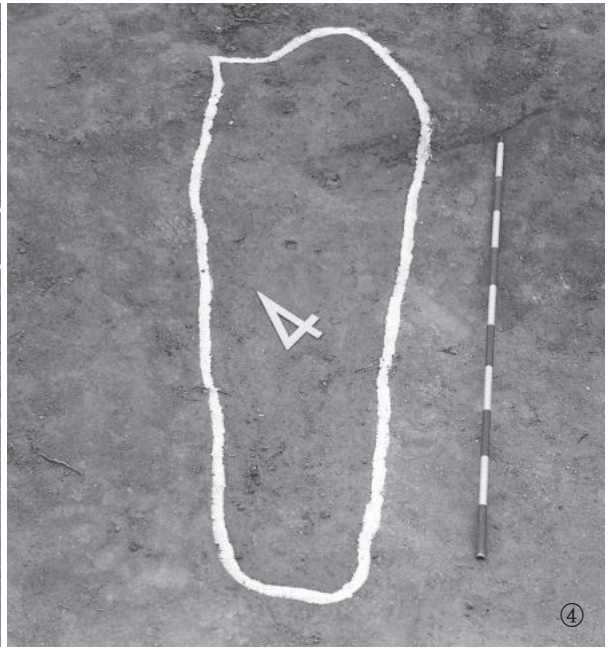


사진 92. 7호묘(①조사전, ②내부토층, ③조사후), 8호묘(④조사전, ⑤내부토층, ⑥조사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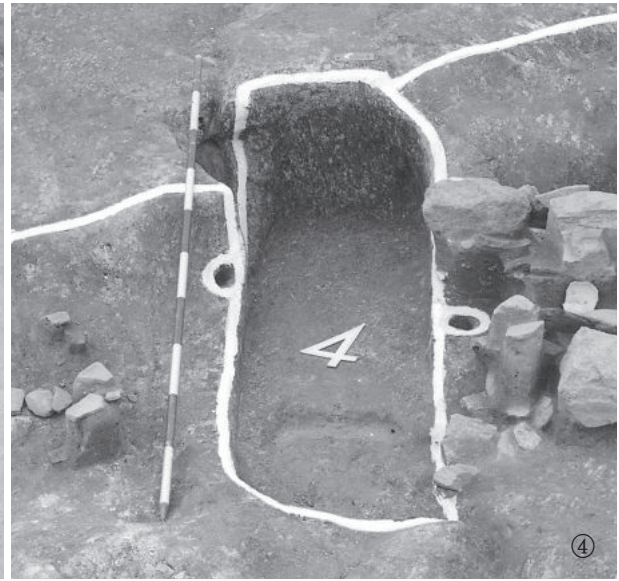


사진 93. 9호묘(①인골출토상태, ②조사후), 10호묘(③조사후), 11호묘(④조사후), 12호묘(⑤조사후), 13호묘(⑥조사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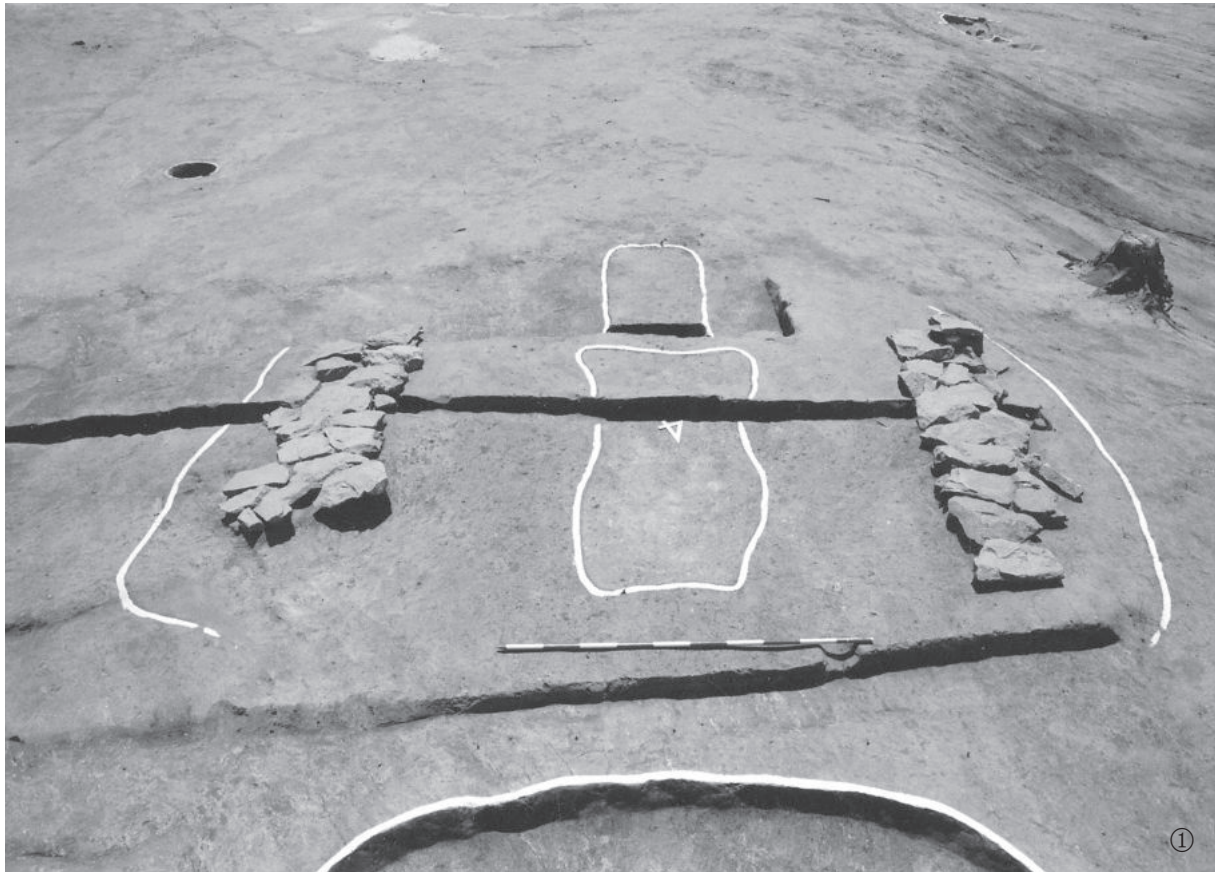


사진 94. 14호묘(①조사전, ②조사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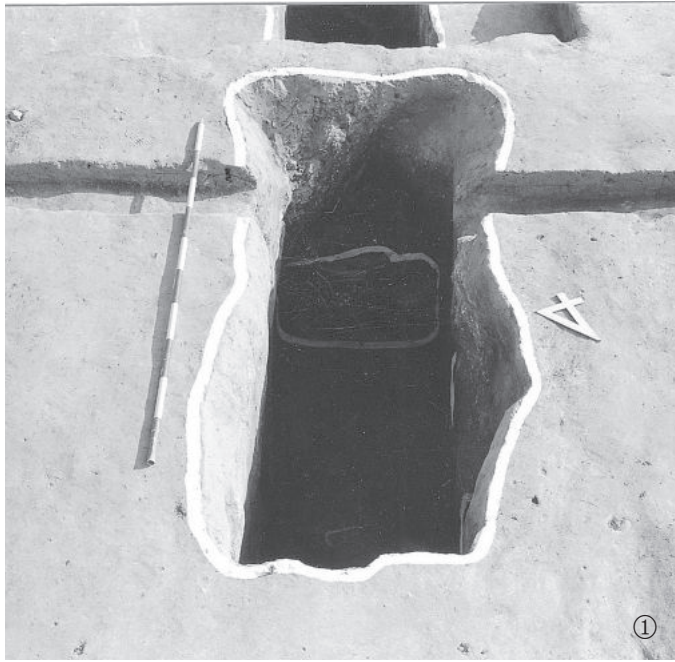


사진 95. 14호묘 남쪽 토광(①전경, ②벽감, ③유물출토상태, 북단벽 세부⑥), 북쪽 토광(④전경, ⑤남단벽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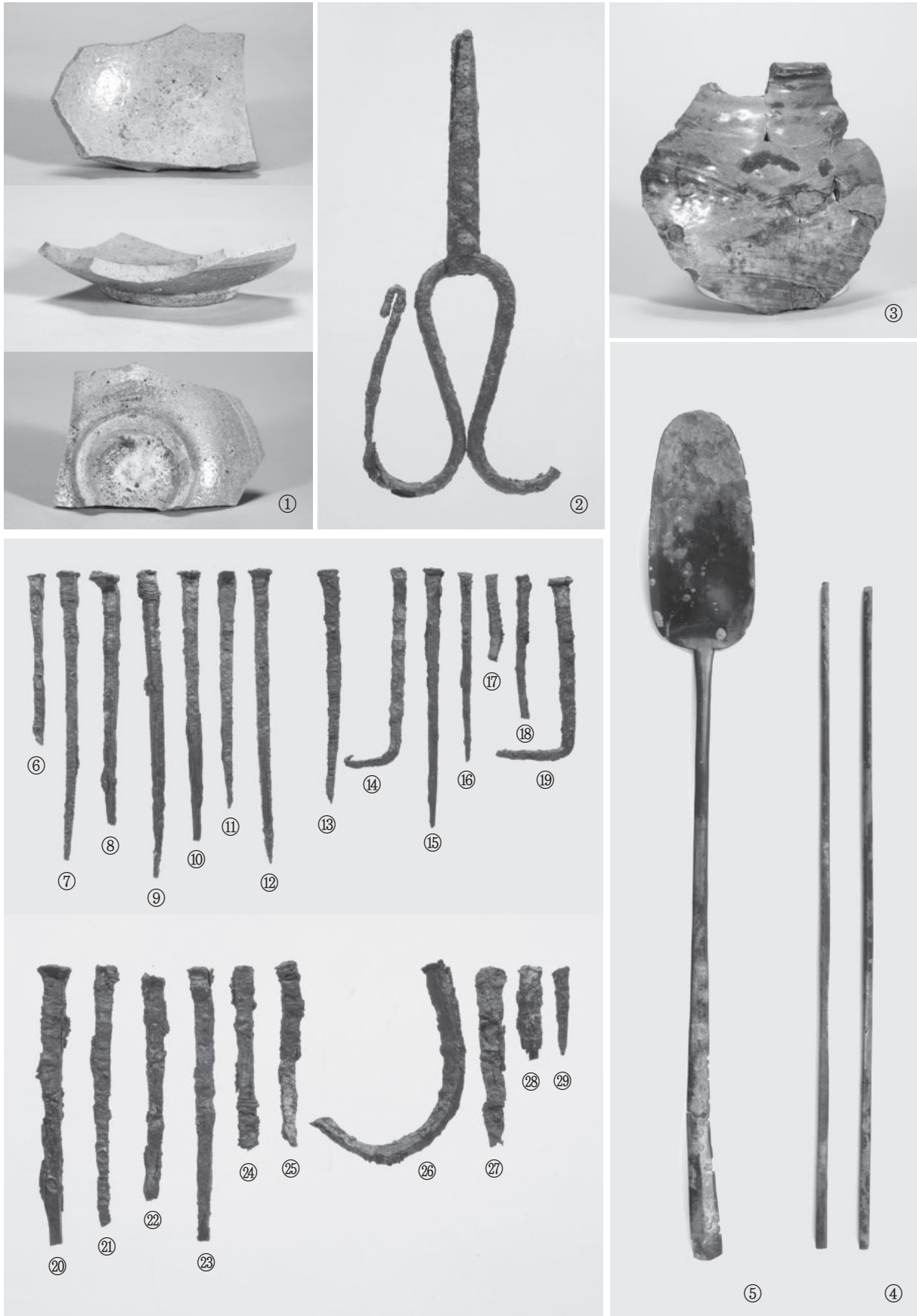


사진 96. 14호묘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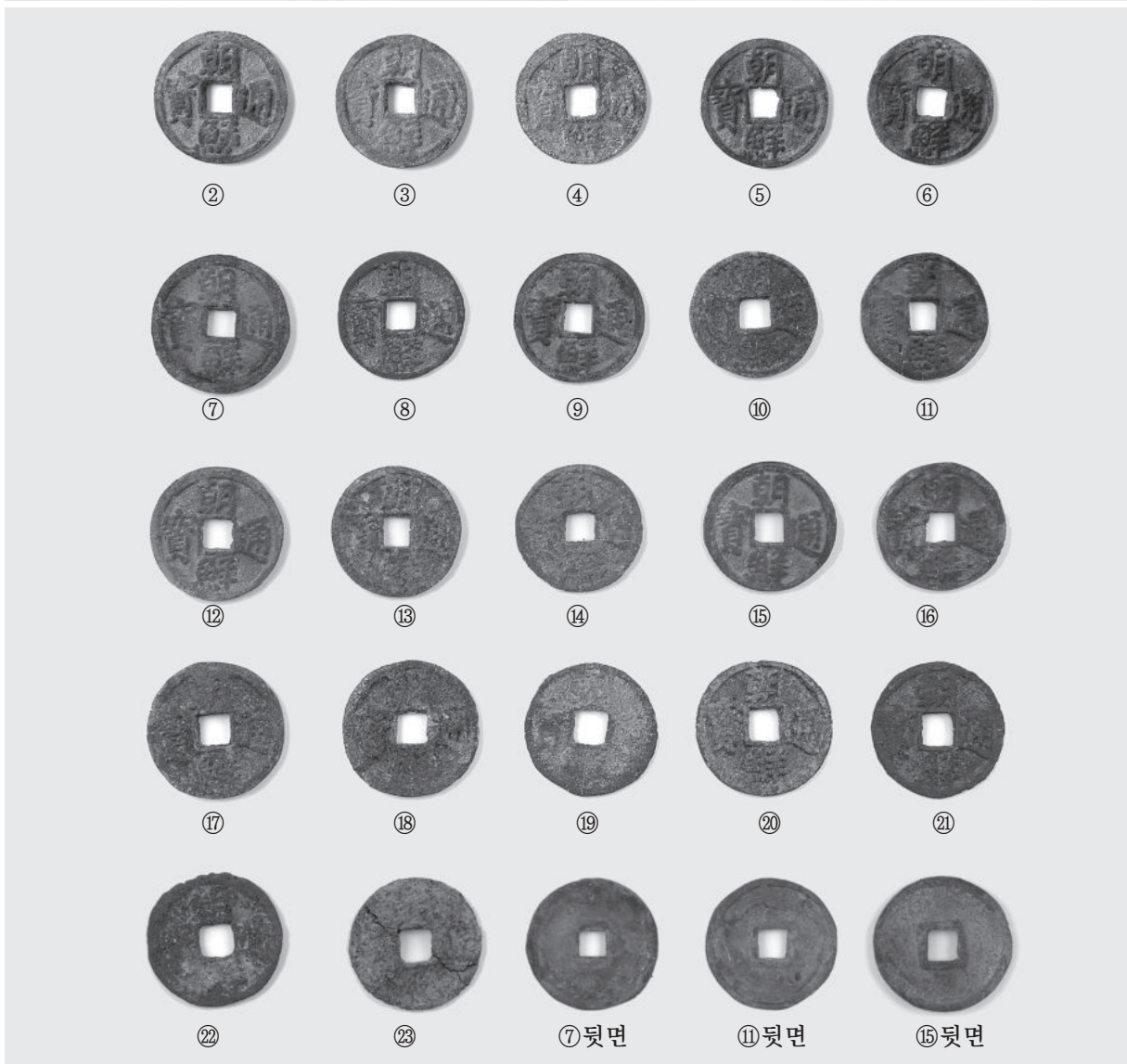


사진 97. 14호묘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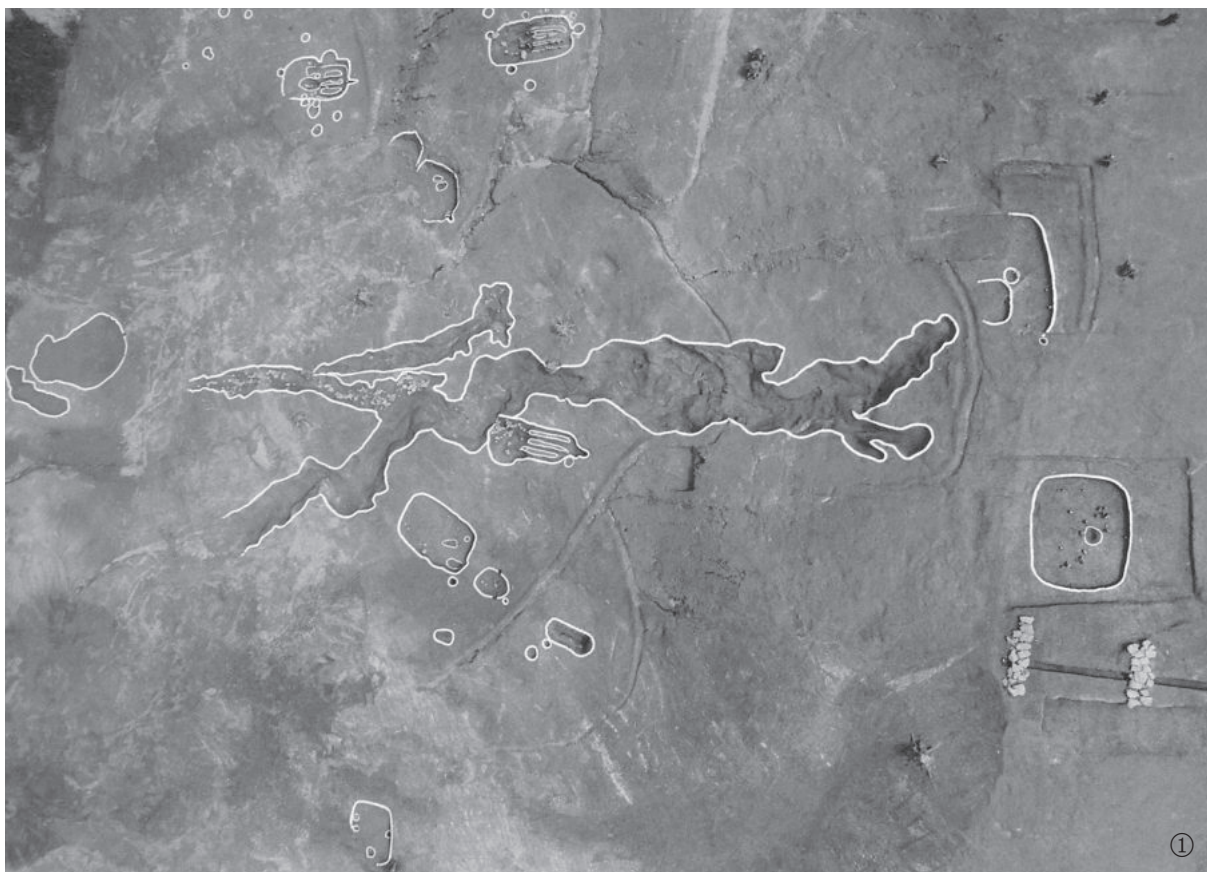


사진 98. 구상유구(①), 1호 · 2호 구상유구(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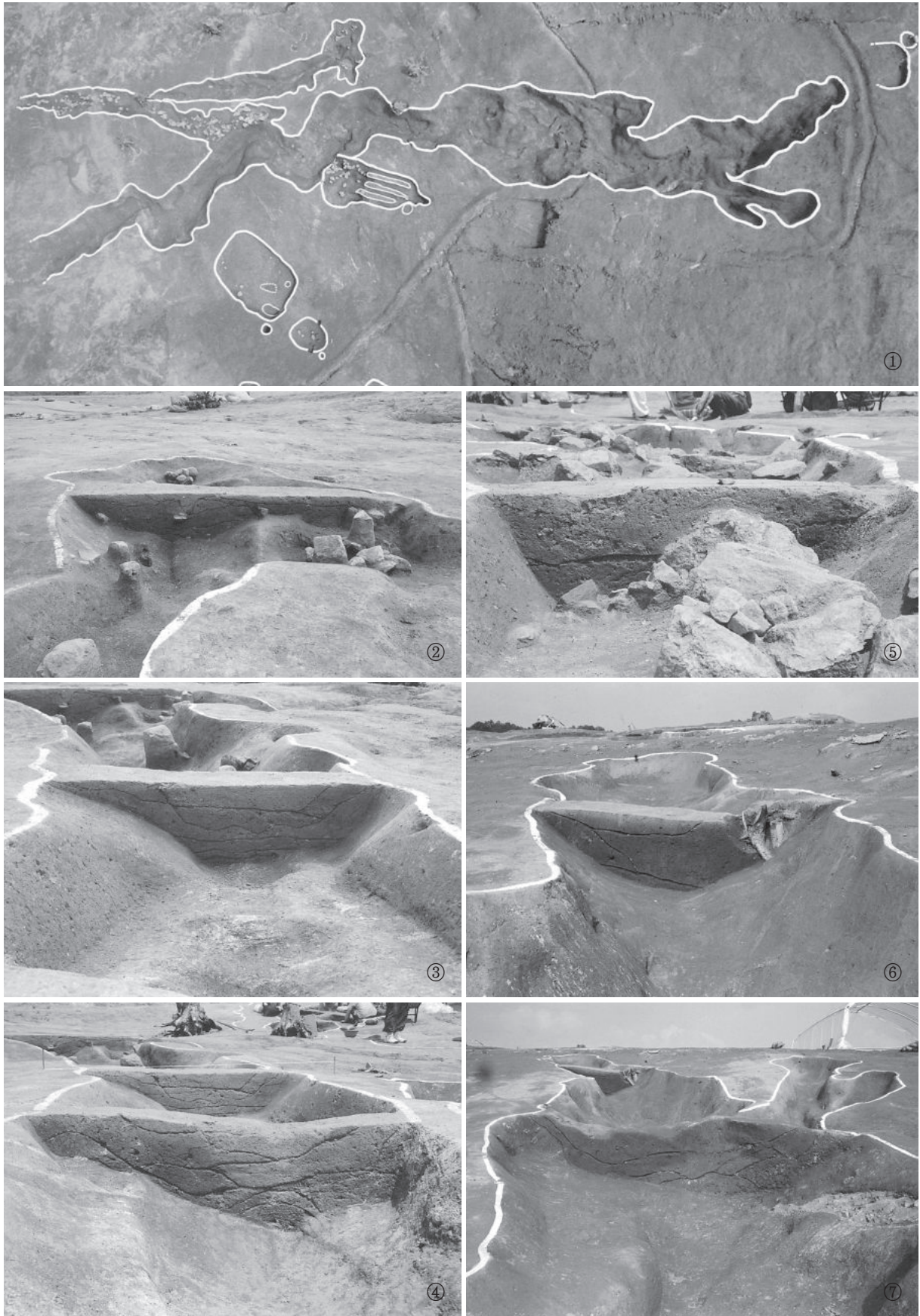


사진 99. 1호 · 2호 · 3호 구상유구 전경(①), 내부토층(②~④1호, ⑤2호, ⑥·⑦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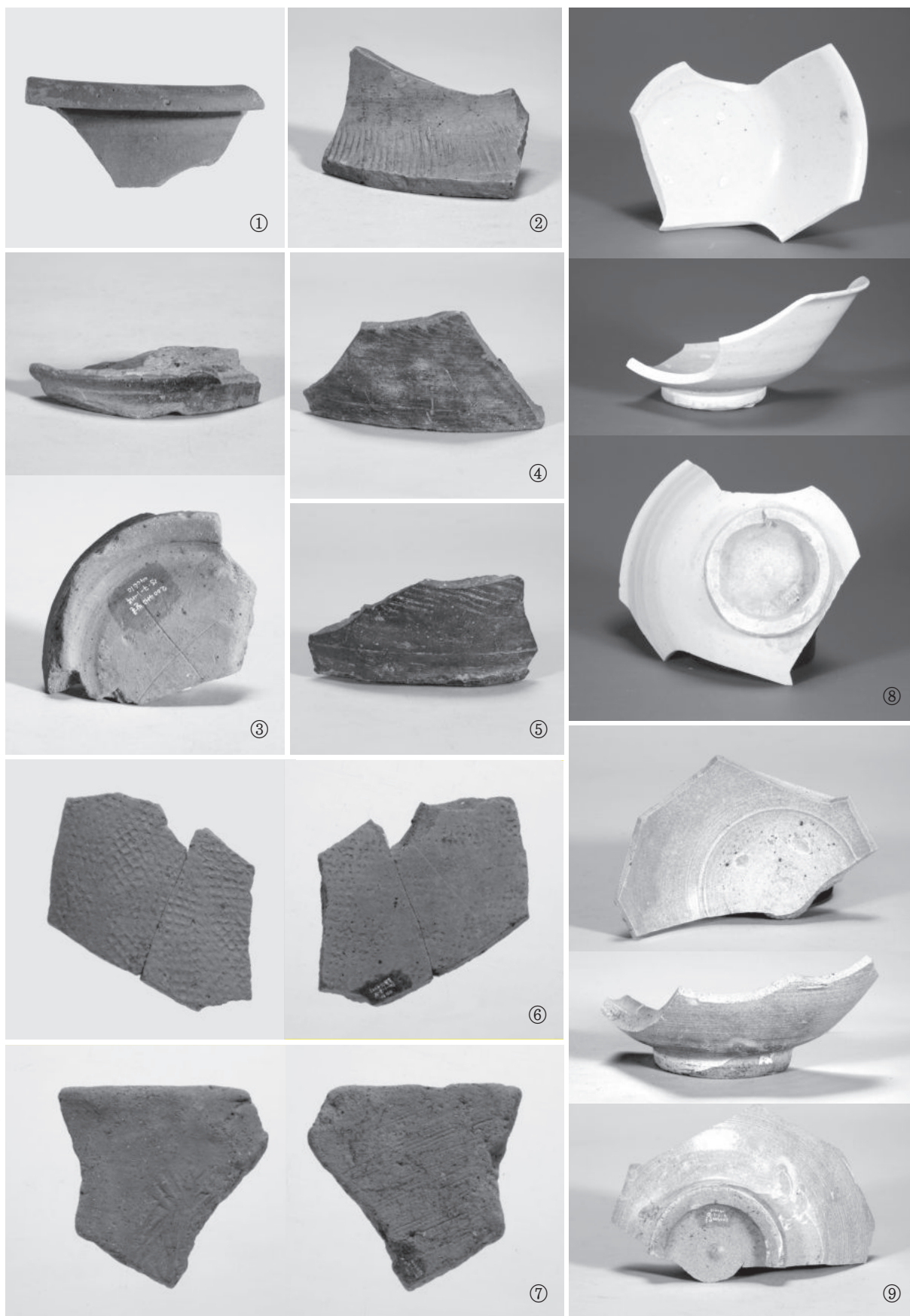


사진 100. 구상유구 출토유물(1호①~④ · ⑥·⑦, 2호⑤·⑧·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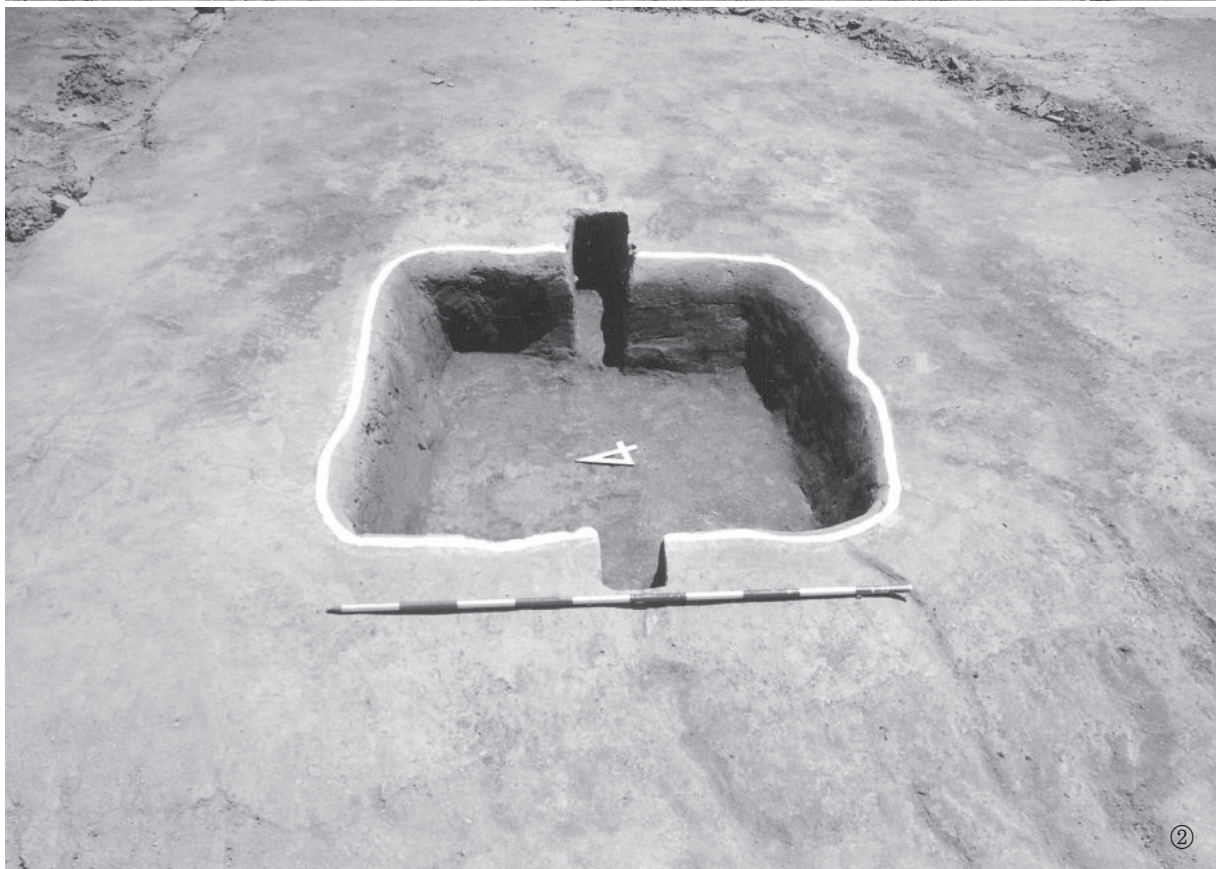


사진 101. 미상유구 전경 (① 내부조사전, ② 내부조사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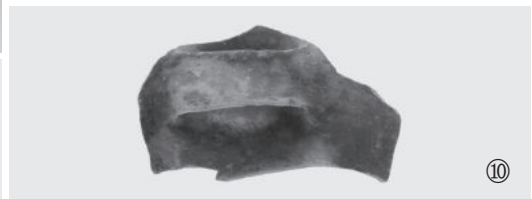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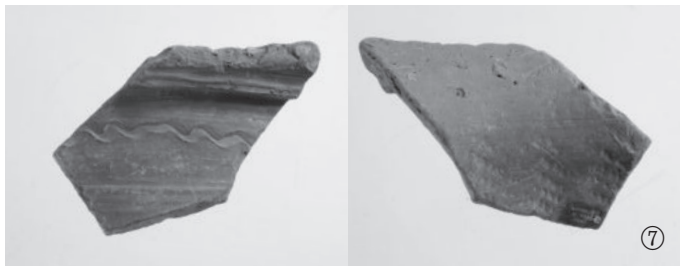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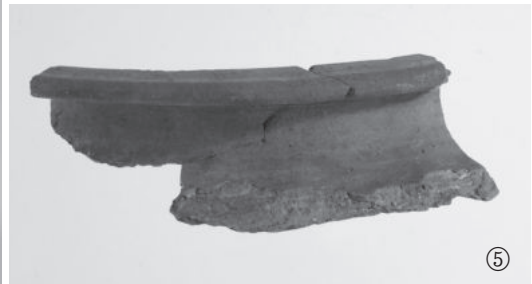


사진 102. 지표수습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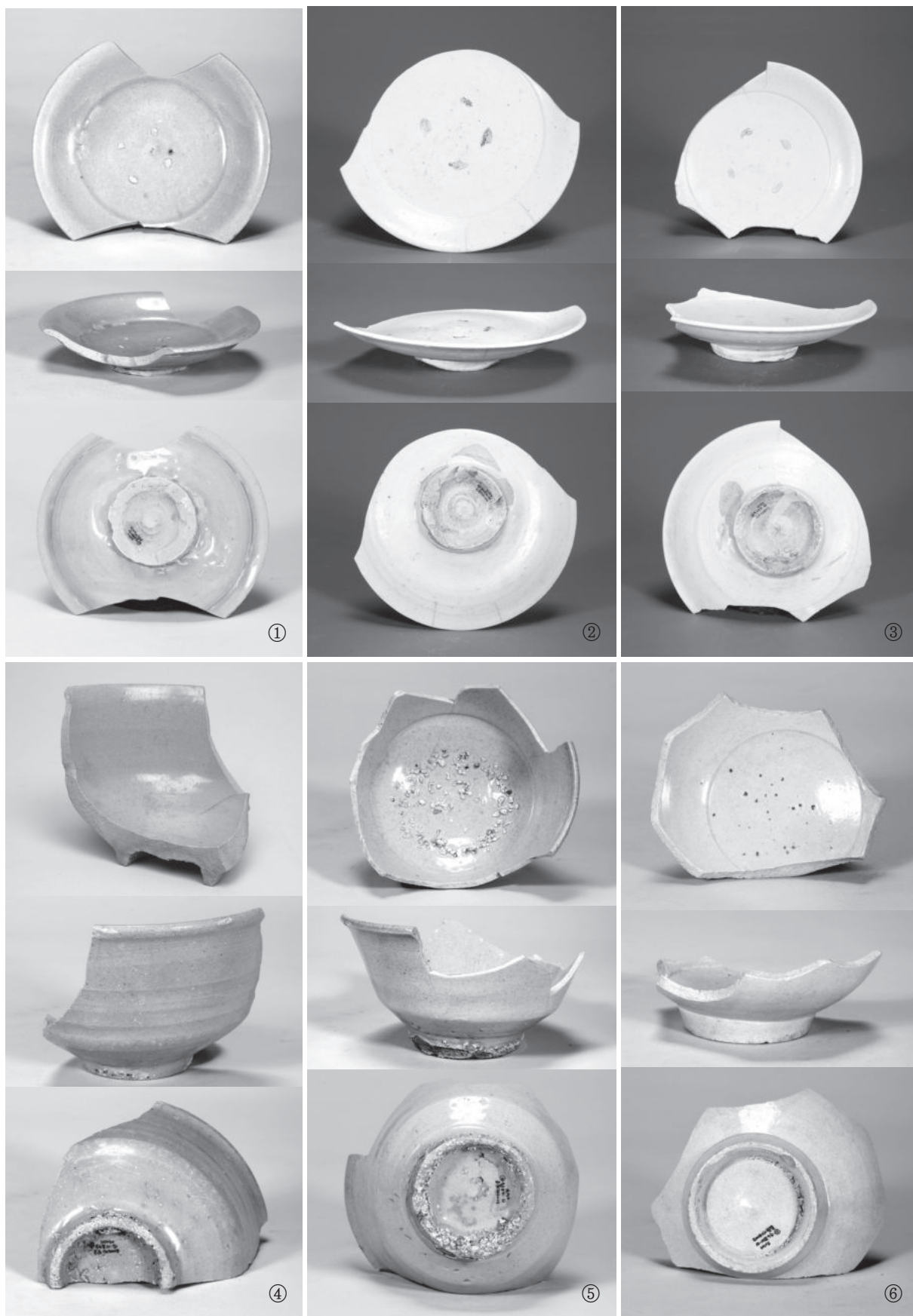


사진 103. 지표수습유물



사진 104. 지표수습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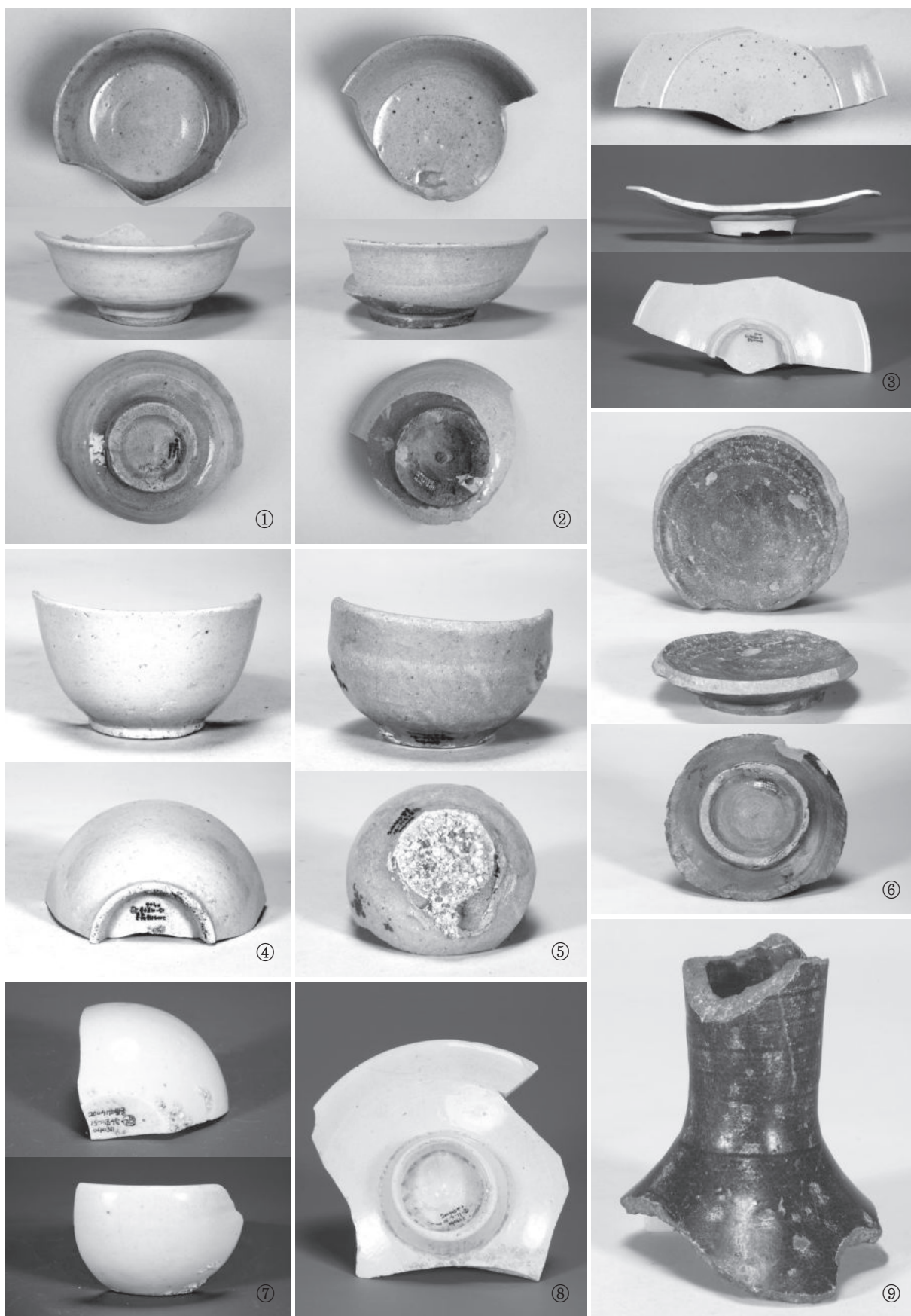


사진 105. 지표수습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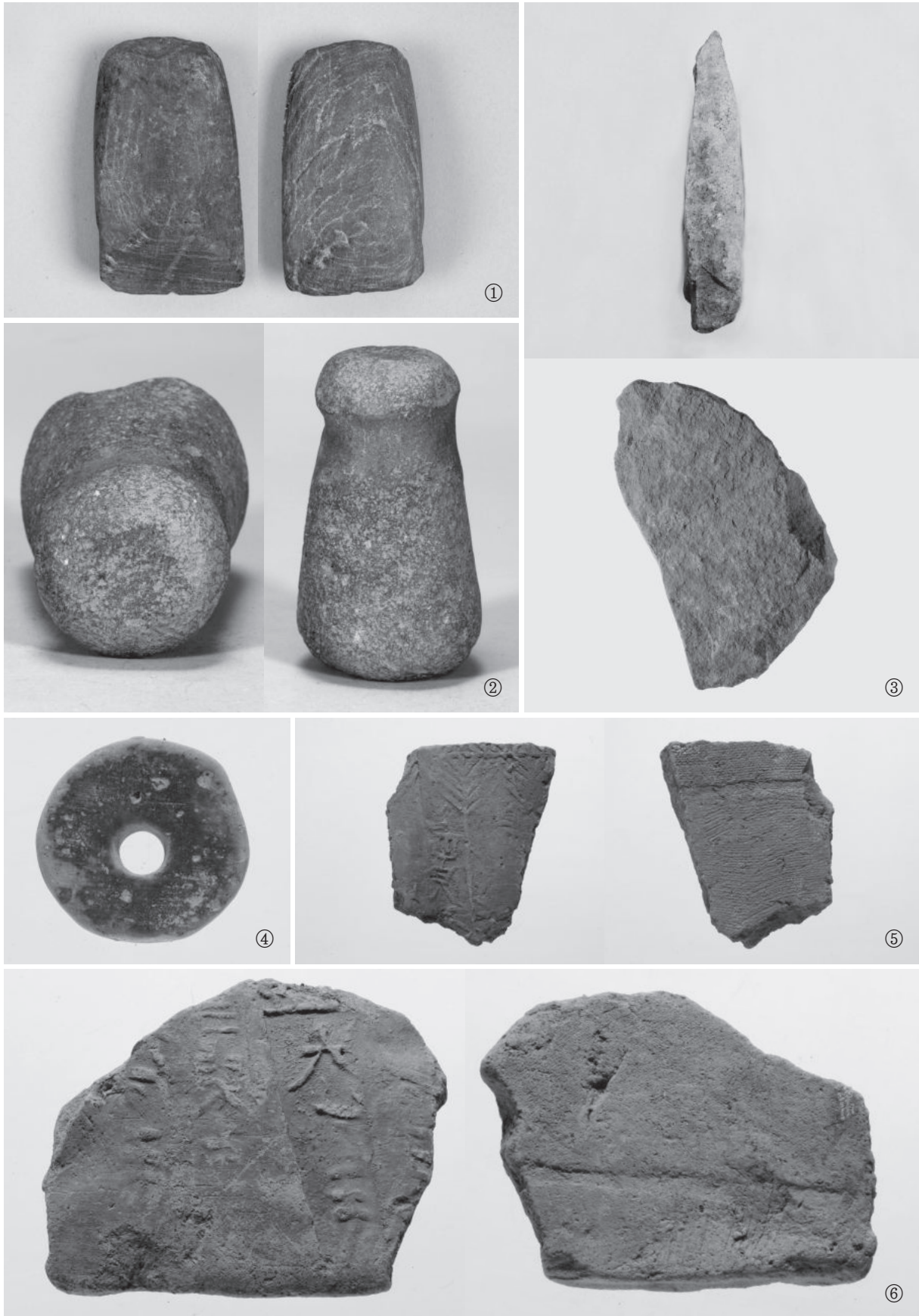


사진 106. 지표수습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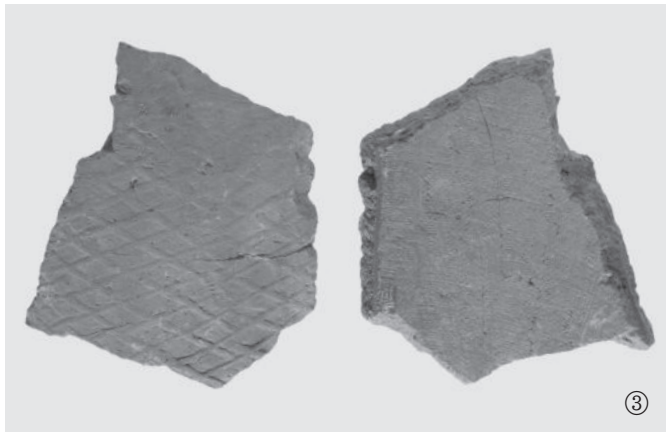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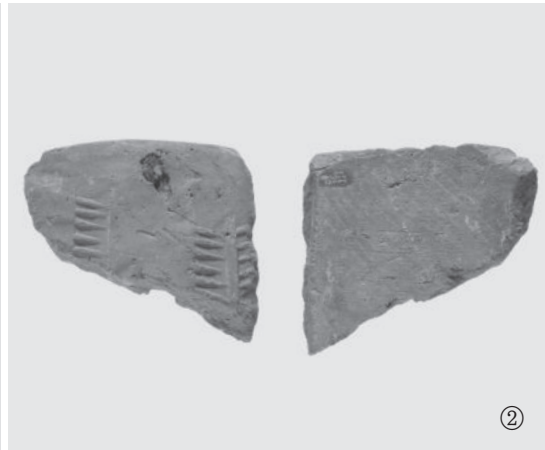


사진 107. 지표수습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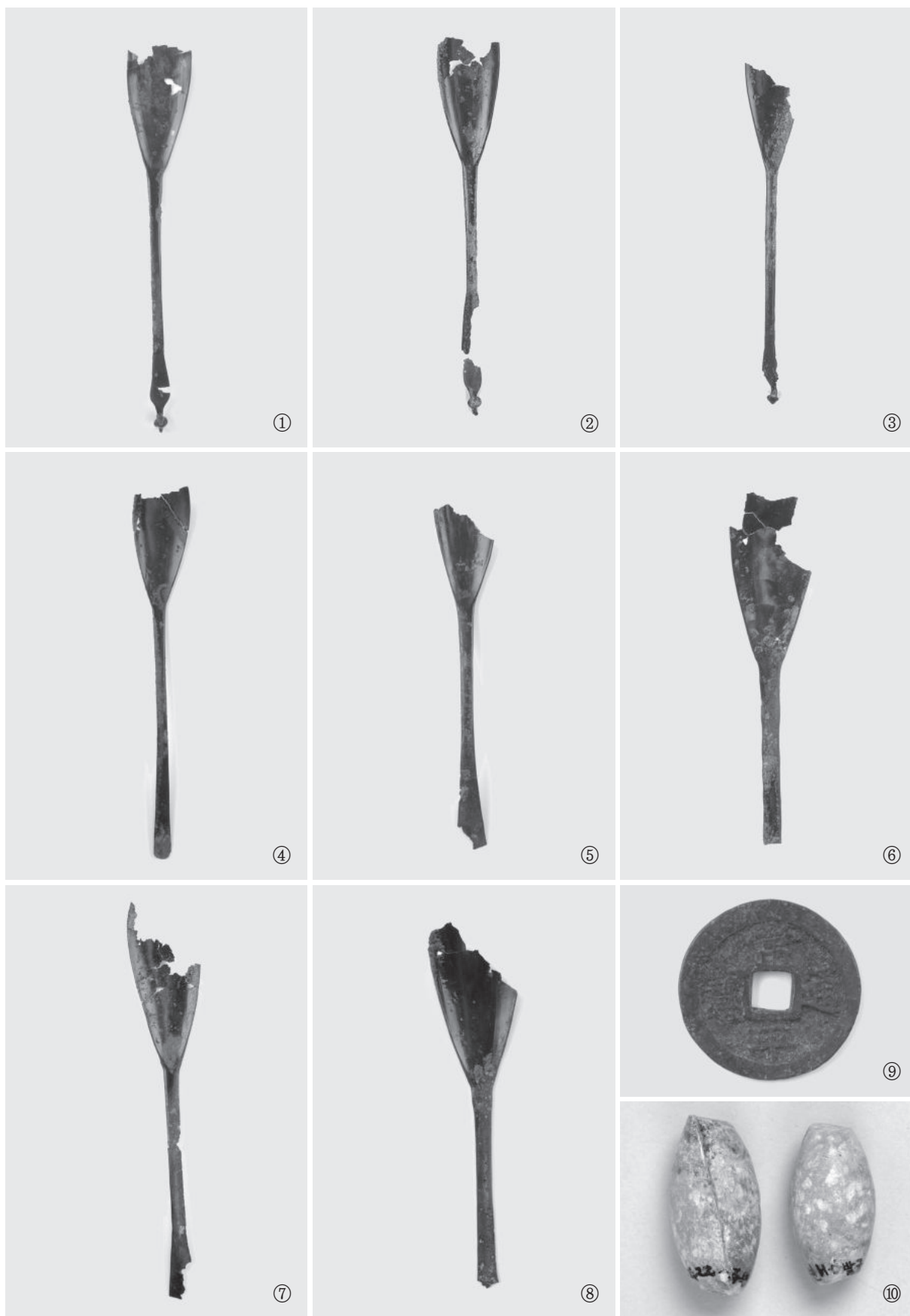


사진 108. 지표수습유물

부 록

1. 화성 동탄 반송리 중세유적(15지점)에 대한 고고지자기학적 연구
성형미 (동양대학교 문화재학과)
2. 화성 동탄 반송리 중세유적(15지점) 출토 인골 분석 보고서
박순영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김상인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이준정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화성 동탄 반송리 중세유적^(15지점)에 대한 고고지자기학적 연구

성 형 미*

1. 머리말

흙에는 磁鐵鑛(magnetite, Fe_3O_4)이나 赤鐵鑛(hematite, Fe_2O_3)등의 철산화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것들은 자석이 될 수 있는 磁性鑛物이다. 자기적인 성질에 따라 분류하면 자철광은 페리磁性(ferri magnetism), 적철광은 反强磁性(antiferro magnetism)을 가지는 물질이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자성 광물은 흙 안에 1~3%정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자성광물이 가열되어 퀴리점이라고 불리는 그 광물의 고유의 온도에 도달하면 常磁性(para magnetism)으로 변하여 자석이 되는 성질(磁性)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 반응은 可逆的으로 자성을 잃어버렸던 고온의 常磁性 상태에서 식혀져 온도가 퀴리점까지 내려가면, 그 순간 거듭 자성을 되찾아 磁化를 가진 자석으로 돌아온다. 이와 같은 「가열-냉각」의 과정이 지구전체에 작용하고 있는 地球磁場中에서 행하여지면, 가열된 자성광물은 냉각된 그 당시 그 장소의 지구자장(地磁氣) 방향으로 磁化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획득된 자화를 熱殘留磁化(thermoremanent magnetization, TRM)라고 한다.

열잔류자화는 常溫에서는 자기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것이 많으며 수백만 년이 지나도 잔류자화의 방향이나 세기는 변하지 않고 보존된다. 따라서 과거의 어느 시기에 구워진 소토는 그 당시, 그 장소의 지자기 방향이나 강도를 열잔류자화의 형태로서 기억하고 있는 것이 된다. 熱殘留磁化는 말하자면 과거의 지자기를 기록하고 있는 '地磁氣의 化石'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지구상의 장소(위도, 경도)가 다르면 지구자장의 방향과 세기도 달라진다. 또한 상당히 느릿한 변화이지만 시간적으로도 변화하고 있으며, 이것을 地磁氣 永年變化(geomagnetic secular variation)라고 부른다. 지자기는 3차원의 벡터 량이며 수평면에 투영한 水平分力の 방위와 지리학적인 북(眞北)이 이루는 각인 偏角(declination)과 수평면으로부터의 경사각인 伏角(inclination) 및,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는 全磁力(total force)의 3요소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지자기를 직접 관측하여 지구자장의 방향(편각 및 북각)을 알 수 있게 된 것은 영국 런던에서 16세기 후반에 시작된 연속적 관측이 가장 오래된 기록이며, 그것에서도 명확하게 지자기 영년변화가 보여진다. 그러나 그 이후 400년 이상의 관측결과를 가지고 볼 때는 그 변동은 그것이상의 긴 주기인 모양으로 변동주기는 알려져 있지 않다.

*동양대학교 문화재학과

고고학적인 유적에 남겨져 있는 노지나 요지 등의 소토유구에서 측정시료를 채취하여 그 TRM을 측정 한 후에, 고고학이 취급하는 시대의 지자기 변동을 밝히는 연구를 考古地磁氣學(archeomagnetism)이라고 한다. 일본에서는 北陸・東海지방에서 九州北部에 걸치는 서남일본의 각지에 분포하는 유적으로부터 채취 한 소토시료에 대해 고고지자기 측정이 행해진 결과, 과거 2000년간에 대해서는 상당히 상세한 고고지자기 영년변화(archeo-secular variation 또는, archeomagnetic secular variation)의 곡선이 구해져 있다 (Hirooka 1971; 廣岡 1977).

소성년대를 알 수 없는 소토의 잔류자기 방향을 측정하여 영년변화곡선과 照合하는 것에 의해, 고고지자기학적으로 연대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이 고고지자기 연대추정법이다.

지구자장의 방위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는 아직 고고지자기영년변화곡선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서남일본의 고고지자기영년변화곡선을 어쩔 수 없이 準用한다.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우리나라의 고고지자기 측정결과(도성재 1999; 成亨美・廣岡公夫 1998, 1999a, 1999b, 2000a, 2000b, 2000c, 2001b, 2001c, 2001d, 2001e, 2002a, 2002b, 2002c, 2003a, 2003b, 2003d, 2003e, 2003f, 2004a, 2004b; 成亨美의 2004; 成亨美 2003, 2004a, 2004b, 2004c, 2004d, 2004e; 伊藤晴明他 1995, 1998; 이윤수와 1996)에서 볼 때, 일부의 시대에서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대체적으로 서남일본의 지자기영년변화와 거의 같은 변화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 시료의 채취와 자화측정

시료의 채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우선 유구 바닥의 잘 구워진 부분을 골라 소토를 고고지자기 시료채취용 칼로 깎은 후, 18mm×18mm×25mm정도 크기의 기둥모양으로 잘라낸다. 이 때 기둥모양의 소토가 부러지거나 기울어지지 않고 소토의 뿌리 부분이 유구에 붙어있는 그대로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주의한다.

다음은 물에 갠 석고를 넣은 시료채취용의 24mm×24mm×24mm플라스틱 케이스 (plastic cube)를 위에서부터 기둥모양의 소토에 뒤집어 씌운다. 기둥모양 소토의 뿌리 부분에도 물에 갠 석고를 뿌려 보강해 둔다.

석고가 굳어지면 플라스틱 큐브 背面(상자의 底面)의 최대 경사선의 방위(pitch)와 그 경사각(dip)을 고고지자기용의 특제 클리노미터(Hirooka 1971)로 측정하여 야장에 기록한다. 큐브의 背面에는 그 면의 走向(strike)을 나타내는 선과 시료의 번호를 적은 후, 유구로부터 시료를 떼내어 비닐봉투에 넣어 밀봉한다.

보통 한기의 유구로부터 이와 같은 시료를 15개전후로 채취하여 연구실로 가지고 가서, 큐브의 開口部도 석고로 막아서 측정용 시료로 한다. 화성 동탄지구 반송리 유적에서는 3기의 유구로부터 38개(시료번호 HDI 01~38)의 시료를 채취하였다.

잔류자화의 측정에는 夏原技研製の ring core型 spinner 磁力計를 사용하여, 플라스틱 큐브의 여섯면을 한면씩 바꿔 놓아서 측정하는 방식으로 행하였다. 한번에 자력계의 회전축에 직교하는 평면내의 직교 2성분이 측정 가능하므로 여섯 번 바꿔 놓아 측정하면 합계 12성분 즉, X, Y, Z의 직교 3성분을 각각 4회씩 측

정하는 것이 된다. 4개 데이터의 평균치를 각각 X, Y, Z의 성분으로 한다. 이 X, Y, Z와 유적에서 측정한 pitch와 dip의 값을 이용하여 그 시료의 편각, 복각, 자화강도를 계산에 의해 구한다. 이렇게 구해진 시료 각각의 편각은 클리노미터로 측정한 자북을 기준으로 한 방위이므로, 진북을 기준으로 한 편각을 구하기 위해서는 유적이 위치한 장소의 현재 편각(Dp)의 값만큼 보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보정 값으로서 국토지리원 발행의 2만 5천분의 1 지형도 「水原」에 기재되어 있는 값(Dp=-7.46)을 이용하였다.

측정시료는 여러 가지 자기특성을 가지는 자성광물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중에는 자기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불안정한 자화성분에는, 최종소성이 행해져 열잔류자화를 획득한 이후부터 현재가 되기 까지 지구자장에 계속해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후세의 지구자장의 영향을 받아서 자화방향을 바꿔버린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자화성분은 소성당시의 지자기의 화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거하여 최종소성 당시의 지자기의 방향을 충실히 기록하고 있는 안정된 자화성분만을 골라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불안정한 자화성분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실험적인 수단으로 시료를 交番磁場中에 두어 자기적으로 흔든다고 하는 交流消磁실험이 고안되어 있다. 시료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잔류자화(自然殘留磁化, natural remanent magnetization, 간략하게 NRM)를 측정한 후에, 단계적으로 교번자장의 세기를 올려가는 단계교류소자가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수법이다.

동탄 반송리 유적의 시료에 대해서도 교류소자실험을 하였는데 교류소자에는 夏原技研製の 교류소자장치를 이용하였으며 각 단계마다 소자실험이 끝나면 잔류자화를 측정하여 자화방향의 분산 정도나 자화강도의 감소 정도를 검토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불안정한 잔류자화성분을 제거할 수 있었던 단계(최적소자단계)를 판정한다.

2. 잔류자화의 측정결과

평균자화방향을 구하는 통계처리에는 Fisher의 통계법(Fisher, 1953)을 이용하였다. 각 단계마다 평균 편각(D), 평균복각(I), Fisher의 신뢰각(α_{95}), Fisher의 精度係數(K), 평균자화강도를 계산한다.

α_{95} 는 측정데이터로부터 생각될 수 있는 진실의 자화방향이 95%의 확률로 존재하는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그 범위는 계산에 의해 얻어진 평균자화방향을 중심으로 그 주변 $\pm\alpha_{95}$ 의 각도내인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 각도는 작으면 작을수록 자화의 집중정도가 좋은 것을 의미하며, 소성상태가 좋아 자화방향의 집중도가 좋은 요지의 경우에는 α_{95} 의 값이 3° 보다 작아진다. K는 시료 하나하나의 자화의 분산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값이 크면 클수록 자화방향의 분산이 적은 것을 말하며, 요지의 경우는 보통 500이상의 값이 된다.

각 소자단계에서 자화강도, 자화방향 등을 고려하여 과거의 지자기기록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시료를 제외하고 D, I, α_{95} , K를 계산하여, α_{95} 가 가장 작고 K가 가장 큰 단계를 최적소자단계로 결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고고지자기 데이터로서 채용한다. 측정한 시료의 개수(N)와 그 소자단계에서 통계계산에 사용한 시료의 개수(n)를 덧붙여 그 결과는 표2에 정리되어 있다.

각 유구에 대한 자화측정결과는 도1~3에 제시하였다. 아쉽게도 반송리 유적 3기의 유구 모두 고고지자기 연대를 산출할만한 결과를 구할 수가 없었다. 표2 및 도 1~3에서 보면 자연잔류자화 단계에서 Fisher

의 신뢰각인 α_{95} (alpha95)의 값이 3기의 유구 각각 73.2° , 48.2° , 48.0° 로 아주 크고, Fisher의 精度係數를 알려주는 K의 값도 각각 1.2, 1.9, 1.8로 아주 작은 것으로 보아 시료 개개의 측정 데이터가 상당히 분산된 것을 의미하며, 5mT와 10mT의 교류소자실험 후에도 데이터의 분산 정도는 개선됨이 없이 더 심화되어 α_{95} 의 값은 더 커지고, K의 값은 더 작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도1~3은 각 유구의 시료 각각의 자화방향을 원형의Schmidt net에 plot한 것이며, 검은 동그라미와 흰 동그라미는 각 시료의 자화방향을 나타내는데 자화방향이 상당히 분산되었고 교류소자실험이후에도 자화방향의 집중 정도가 좋아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정결과를 가진 데이터로는 고고지자기 연대를 추정하기는 어려우며 그 원인으로 각 유구에서 채취한 소토시료가 어떠한 이유에 의해 충분히 안정된 잔류자화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동탄지구 반송리 1유적에 대한 고고지자기시료의 채취와 측정의 기회를 주신 기전문 화재연구원의 발굴조사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 참고문헌 》

- Fisher, R. A. (1953) Dispersion on a sphere, Proceedings of Royal Society of London, Series A, vol.217, 295-305.
- Hirooka, K. (1971) Archaeomagnetic study for the past 2,000 years in Southwest Japan, Mem. Fac. Sci., Kyoto Univ., ser. Geol. & Mineral., 38, 167-207.
- 広岡公夫(1977) 考古地磁氣および第四紀古地磁氣研究の最近の動向, 「第四紀研究」, vol.15, 200-203.
- 広岡公夫, 成亨美(2000) 日本と韓國の古代における地磁氣永年變化の比較, 「研究年報」, 富山大學環日本海地域研究センター, 第25号, 193-204.
- 成亨美(2000) 한국에 있어서 고고지자기변동의 측정과 고고학적 응용, 「고고학이 찾은 선사와 가야」, 국립김해박물관 · 부산광역시립박물관북천분관, 128-132.
- 成亨美, 広岡公夫(2000) 韓國の考古地磁氣變動に關する研究とその考古學的應用, 「考古學と自然科學」, 日本文化財科學會誌 第39号, 15-32.
- SUNG Hyong-Mi (2001) Archaeomagnetic Study in Korea and its Application to Archaeology, 日本富山大學 理工學研究科 博士學位論文.
- 성형미(2002) 한국에 있어서 지자기 영년변화의 측정, 「한국제사기학회지」 (한국제사기학회), Vol. 16, No. 2, 33 · 38.
- 성형미(2003) 고고학에서 이용 가능한 고고지자기 분석법, 「畿甸考古」, 제3호, 223-238.
- 성형미(2005) 韓國考古學 編年研究를 위한 考古地磁氣學의 基本原理 및 適用, 「韓國考古學報」 (韓國考古學會), 55輯, 5-34.
- 伊藤晴明 · 尹 銑 · 時枝克安 (1995) 檢丹里遺跡横口付窯址の考古地磁氣法による年代測定, 「蔚州檢丹里마을遺蹟」, 釜山大學校博物館研究-書 第17輯, 460-468.

- 伊藤晴明·時枝克安·尹 銑·金英道(1998) 千軍洞遺跡の横口付4號窯跡と用途不明7號遺構焼土の考古地磁氣測定結果,「慶州千軍洞避暑遺蹟」,國立慶州博物館·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411-420.
- 도성재(1999) 청원군 송대리 유적 숫가마터에 대한 고고지자기 연구,「清原 梧倉遺蹟(Ⅲ)」,韓國文化財保護財團·韓國土地公社 學術調查報告, 第23冊, 417-430.
- 이 윤수·이 동영·서 광수(1996) 충남 보령 용수리 천방 와요지의 가마터에 대한 시험적인 한국의 영년 변화 곡선의 적용성에 관한 고지자기 연구,「保寧댐 水沒地域 發掘調查報告① 千房遺蹟」,韓國水資源公社·公州大學校博物館, 255-276.
- 成亨美, 広岡公夫(1998) 新院里土器窯址の考古地磁氣?的研究,「清道新院里土器窯址」,中央僧伽大學校佛教史學研究所學術調查報告 6, 67-77.
- 成亨美, 広岡公夫(1999a) 勿川里遺蹟の考古地磁氣?的研究,「慶州競馬場予定敷地C-I 地區 發掘調查報告書(本文)」,韓國文化財保護財團學術調查報告 第25冊, 부록 1-15.
- 成亨美, 広岡公夫(1999b) 太平洞磁器窯址の考古地磁氣?的研究,「鎭海太平洞磁器窯址」,昌原大學校博物館學術調查報告書 第二十四冊, 附錄1-16.
- 成亨美, 広岡公夫(2000a) 良將里遺蹟の考古地磁氣?的研究,「무안 양장리유적Ⅱ」,木浦大學校博物館學術叢書 第63冊, 271-283(284-287).
- 成亨美, 広岡公夫(2000b) 達川遺蹟의 考古地磁氣學的 研究,「울산달천유적」,蔚山大學校博物館 學術研究叢書 第5輯, 67-87.
- 成亨美, 広岡公夫(2000c) 亭下洞 遺蹟의 考古地磁氣學的 研究,「안동 정하동 유적」,안동대학교박물관총서 17, 부록2, 533-552.
- 成亨美, 広岡公夫(2001a) 院北里遺蹟 燒成遺構의 考古地磁氣學的 研究,「論山 院北里遺蹟(本文)」,中央文化財研究院 發掘調查報告 第9冊, 附錄2, 394-409.
- 成亨美, 広岡公夫(2001b) 龍院里遺蹟의 考古地磁氣學的 研究,「龍院里遺蹟 C地區 發掘調查報告書」,서울대학교박물관·서울대학교인문학연구소·(주)고려개발, 附錄, 195-204.
- 成亨美, 広岡公夫(2001c) 餘美里遺蹟의 考古地磁氣學的 研究,「瑞山 餘美里遺蹟」,忠清埋藏文化財研究院文化遺蹟 調查報告 21輯, 附錄, 425-433(434-442).
- 成亨美, 広岡公夫(2001d) 斗井洞遺蹟의 考古地磁氣學的 研究,「天安 斗井洞遺蹟(C-D地區)」,忠清埋藏文化財研究院 文化遺蹟 調查報告 23輯, 附錄, 365-376.
- 成亨美, 広岡公夫(2001e) 군동 라유적의 고고지자기학적 연구,「영광 군동유적」,목포대학교박물관 학술총서 제 87책, 부록, 449-458.
- 成亨美, 広岡公夫(2002a) 高興 雲垞里 粉靑沙器 陶窯址에 대한 考古地磁氣學的 研究,「高興 雲垞里 粉靑沙器 陶窯址」,國立光州博物館 學術叢書 第44冊, 附錄, 165-175.
- 成亨美, 広岡公夫(2002b) 鶴岩里遺蹟의 考古地磁氣學的 研究,「鶴岩里遺蹟」,公州大學校博物館學術叢書 02-04, 附錄2, 311-322.
- 成亨美, 広岡公夫(2002c) 花枝山遺蹟內 燒土層에 대한 考古地磁氣學的 研究,「花枝山」,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學術研究叢書, 第37輯, 부록, 433-437.
- 成亨美, 広岡公夫(2003a) 함평 중량유적의 고고지자기학적 연구,「함평 중량유적Ⅱ」,목포대학교박물관 학

- 술총서 제99책, 189-195.
- 成亨美, 広岡公夫(2003b) 함평 소명유적에 대한 고고지자기학적 연구, 「咸平 昭明 住居址」, 전남대학교박물관 학술총서 82, 부록1, 395-602.
- 成亨美, 広岡公夫(2003c) 울산 신현동유적 흑탄요에 대한 고고지자기학적 연구, 「蔚山 新峴洞遺蹟」, 中央文化財研究院 發掘調査報告 第29冊, 附錄1, 131-135.
- 成亨美, 広岡公夫(2003d)蔚山 늑네遺蹟에 대한 考古地磁氣學的 研究, 「蔚山 泗淵里 늑네遺蹟」, 蔚山文化財研究院 學術調査報告 第6冊, 133-144.
- 成亨美, 広岡公夫(2003e) 숫가마터의 고고지자기학 연구, 「大田 老隱洞 遺蹟」, 韓南大學校 中央博物館 叢書 15, 429-442.
- 成亨美, 広岡公夫(2003f)浦項市 院洞遺蹟에 대한 考古地磁氣學的 研究, 「浦項 院洞 第3地區」, 韓國文化財保護財團學術調査報告 第144冊, 부록, 264-274.
- 成亨美, 井上裕美子, 広岡公夫(2003) 울산 신현동 황토전유적에 대한 고고지자기학적 연구, 「蔚山 新峴洞 黃土田遺蹟」, 蔚山文化財研究院 學術調査報告 第7冊, 附錄3, 277-293.
- 成亨美, 広岡公夫, 時枝克安(2004) 慶州 蓀谷洞遺蹟에 대한 考古地磁氣學的 研究, 「慶州蓀谷洞-勿川里遺蹟 (慶州競馬場予定敷地A地區)」,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學術研究叢書37, 附錄, 899-911.
- 成亨美, 広岡公夫(2004a) 장흥 하방촌 와요지에 대한 고고지자기학적 연구, 「長興 下芳村 古墳群·瓦窯址」, 湖南文化財研究院 學術調査報告 第26冊, 부록, 219-225.
- 成亨美, 広岡公夫(2004b) 강진 삼흥리요지 E, F지구 고고지자기학적 분석, 「康津 三興里窯址Ⅱ」, 國立光州博物館學術叢書 第51冊, 부록1, 251-260.
- 成亨美(2003) 경주 월산리유적에 대한 고고지자기학적 연구, 「慶州 月山里遺蹟 (本文Ⅱ)」,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學術研究叢書35, 부록, 1018-1026.
- 成亨美(2004a) 울산 대곡댐 2차 발굴 유적에 대한 고고지자기학적 연구, 「蔚山川前里·芳里·高旨坪遺蹟」, 韓國文化財保護財團學術調査報告 第146冊, 附錄3, 127-143.
- 成亨美(2004b) 장흥 오복동 유물산포지에 대한 고고지자기학적 연구, 「장흥 오복리 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학술총서 제114책, 부록, 143-152.
- 成亨美(2004c) 해남 백야리요지에 대한 고고지자기학적 연구, 「海南 白也里 窯址」, 湖南文化財研究院 學術調査報告 第33冊, 부록, 203-214.
- 成亨美(2004d) 해남 오시골요지에 대한 고고지자기학적 연구, 「海南 白也里 窯址」, 湖南文化財研究院 學術調査報告 第33冊, 부록, 217-226.
- 成亨美(2004e) 광주 향등유적에 대한 고고지자기학적 연구, 「光州 香燈遺蹟」, 湖南文化財研究院 學術調査報告 第35冊, 부록, 247-259.

표1) 화성 동탄 반송리 중세유적(15지점)의 고고지자기 시료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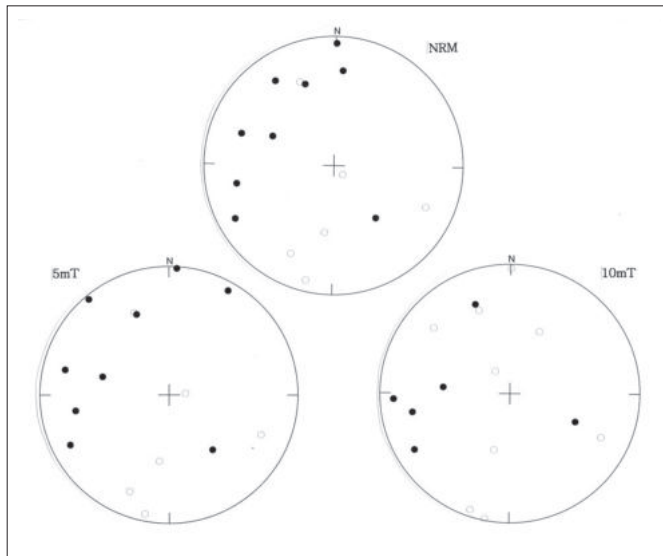
유구명	개수	시료번호
청동기시대주거지 1호	15	HDI 01" 15
조선시대건물지 1호	11	HDI 16" 26
조선시대수혈주거지 1호	12	HDI 27" 38

Dp = -7.46° (水原, 1/2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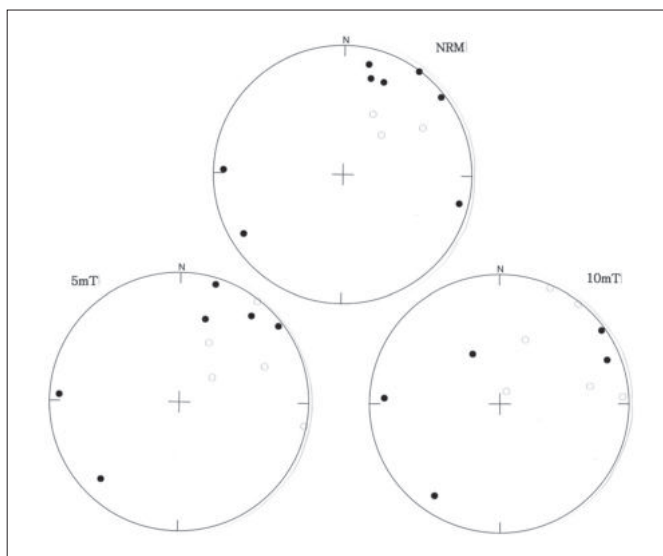
표2) 화성 동탄 반송리 중세유적(15지점)의 고고지자기 측정결과

유구명	소자단계	n/N	D (° E)	I (°)	α_{95} (°)	K
청동기시대	NRM	15/15	-79.4	12.8	73.2	1.2
주거지	5.0mT	15/15	-79.8	2.8	81.0	1.2
1호	10.0mT	15/15	-86.4	-17.9	70.9	1.3
조선시대	NRM	11/11	29.5	-4.5	48.2	1.9
건물지	5.0mT	11/11	37.2	-8.5	49.5	1.8
1호	10.0mT	11/11	42.1	-10.5	57.8	1.6
조선시대	NRM	12/12	-50.5	26.7	48.0	1.8
수혈주거지	5.0mT	12/12	-48.4	29.9	48.3	1.8
1호	10.0mT	12/12	-45.8	36.1	51.4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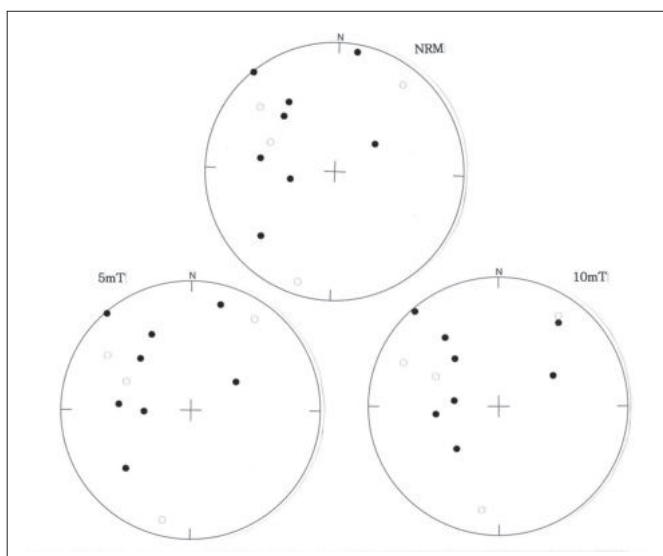
n/N : 採擇試料個數/採取試料個數, D : 平均偏角, I : 平均伏角, α_{95} : Fisher의 信賴角, K : Fisher의 精度係數.



도1. 청동기시대 주거지 1호의
고고지자기 측정결과.



도2. 조선시대 건물지 1호의
고고지자기 측정결과.



도3. 조선시대 수혈주거지 1호의
고고지자기 측정결과.

화성 동탄 반송리 중세유적^(15지점) 출토 인골 분석 보고서

박순영* 김상인** 이준정***

I. 개 요

기전문화재연구원에서 2004년 발굴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반송리 중세유적(15지점)에서는 조선시대 분묘가 다수 확인되었는데, 이 중 1기에서 인골이 출토되었다. 본 연구팀은 출토 인골에 대한 분석 의뢰를 받고 2004년 8월 현장에서 인골 자료를 수습한 뒤,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생물인류학 연구실과 고고미술사학과 인골고고학 연구실에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보고서는 출토 인골에 대한 체질인류학적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이 외 진행 중에 있는 골화학 분석 및 DNA 분석 결과는 분석 완료 후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다.

본 보고서에서 사용한 용어는 대한해부학회 용어집(<http://anatomy.or.kr/dic/search.html>)에 따랐으며 인골 신장의 추정에는 트로터와 글래스(Trotter and Glessner 1958)의 연구 중 몽골로이드 복원 공식을 이용하였다. 사용한 치열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 : 생전 탈락 치조 완전 폐쇄
- ◎ : 생전 탈락 치조 불완전 폐쇄
- : 사후 탈락 치조 개방
- × : 선천성 결여
- : 치조와 같이 결손
- c : 우식
- r : 치근 단부만 잔존

또한 치아 마모도의 판정 및 연령 추정의 기준은 <표 1>과 같으나 실제 연령 추정에서는 골격 상태에 비해 치아의 마모가 심한 점을 고려하였다(Brothwell 1981; White and Folkens 2000 등의 연구 참조).

*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표 1. 치아 마모도 판정 기준 및 연령 추정〉

마모도	관찰 사항		연령 추정
0	무교모		
1	범랑질 노출	점상 또는 선상	
2		면상	
3		전면에 걸침	
4	상아질 노출	점상 또는 선상	청년 (25~35세)
5		면상	중년 (35~50세)
6		전면에 걸침	노년 (50~65세)
7		치경부까지 파급	65세 이상

II. 분석

1. 보존 상태

두개골과 하악골, 골반, 사지골 외에도 늑골과 척추, 견갑골 등의 부위들이 보존되어 있으며, 골외막이 얇게 벗겨지고 있으나 뼈의 강도는 양호한 편이다. 전체적인 보존 부위 및 상태는 〈표 2〉와 같다.

〈표 2. 출토 인골의 보존 부위 및 상태〉

○: 완전, △: 전체의 1/2 이하 파손, ▼: 전체의 1/2 이상 파손, ×: 결실									
		L		R		L		R	
두개골	전두골	○	○			×	△		
	두정골	○	○			▼	▼		
	측두골	○	○				×		
	후두골	○	○			▼	▼		
	접합골	○	○			▼	▼		
	설골		×			▼	▼		
	안면안사골	○	○			×	▼		
	안면사골	○	○			×	×		
	안면비골	○	○			▼	▼		
	안면하비갑개관	▼	▼			×	×		
상악	구개골	○	○				△		
	구개골		×				△		
	구개골						△		
	구개골						×		
	구개골					×	×		
하악	턱몸체	△	△			×	×		
	Gonial	△	△			△	△		
	하악지	△	△			△	△		
	오혜돌기	×	×			×	×		
	하악과	△	×			×	×		
	턱몸체	△	△			△	△		
	Gonial	△	△			△	△		
	하악지	△	△			△	△		
	오혜돌기	×	×			×	×		
	하악과	△	×			×	×		

1) 치아

제3 대구치가 맹출된 것으로 보아 사망 연령은 18세 이상으로 보이며 제1, 2 대구치의 마모도가 2~3정도로 낮다. 전체적인 치아 보존 상태 및 마모 상태는 <표 3>과 같다.

<표 3. 출토 인골의 치아 보존 및 마모 상태>

	■	■	■	■	■	■	■	■	■	■	■	■	■	■	
M3	M2	M1	P4	P3	C	I2	I1	I1	I2	C	P3	P4	M1	M2	M3
○	2	3	2	○	○	○	○	○	○	○	○	○	3	2	1

2. 체질인류학적 분석

1) 두개골과 하악

골외막이 거칠게 벗겨졌으나 외형은 잘 보존되어 있으며, 상악골과 관골궁의 파손을 제외하고는 거의 완전하다. 전두골의 미간과 안와상연, 후두골의 외후두융기정점은 거의 두드러져 보이지 않으며 측두골의 유양돌기는 작다. 측두선과 상하향선도 뚜렷하지 않다. 하악은 턱끝이 부드러운 형태를 보인다. 두개골 각 부위의 계측치는 <표 4>와 같다.

<표 4. 출토 인골의 두개골 계측치>

(단위 mm)

두개최대길이 Glabella-opistocranion	166
두개최대넓이 Euryon-euryon	130
두개최대높이 Basion-bregma	133
윗얼굴깊이 Basion-nasion	96
아랫얼굴깊이 Basion-alveolare	84
윗얼굴높이 Nasion-alveolare	67
코높이 Nasion-nasospinale	48
코넓이 Alare-alare	21
안와넓이 Maxillofrontale-ectochoncion	좌:3 우:3
	6 5
구개길이 Staphylion-orale	35
구개넓이 Endomorale-endomorale	35

2) 골반

대좌골절흔의 각이 상당히 크다.

3) 사지골

좌우 하지골의 조선 및 좌우 상지골의 삼각근조면(deltoid tuberosity)이 약하게 발달하였으며 골간부의 굵기도 가늘다. 사지골 각 부위의 계측치는 <표 5>와 같다.

<표 5. 출토 인골의 사지골 계측치> (단위 mm)

대퇴골 Femur 최대 길이	L	R
	401	-

III. 결 론

이상으로 화성 동탄 반송리 중세유적(15지점)에서 출토한 조선시대 인골의 형질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치아의 마모도를 고려했을 때 사망 연령은 청년기(25~35세) 이전으로 추정된다. 두개골, 하악, 골반 및 사지골의 형태적 특징으로 보아 성별은 여성으로 추정된다. 좌측 대퇴골을 이용한 신장의 추정은 158.6cm (± 3.80 cm)이며, 이에 사용한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text{추정 신장(cm)} = 2.15 \times \text{대퇴골 길이} + 72.57 \pm 3.80$$

<표 6. 출토 인골의 연령 및 신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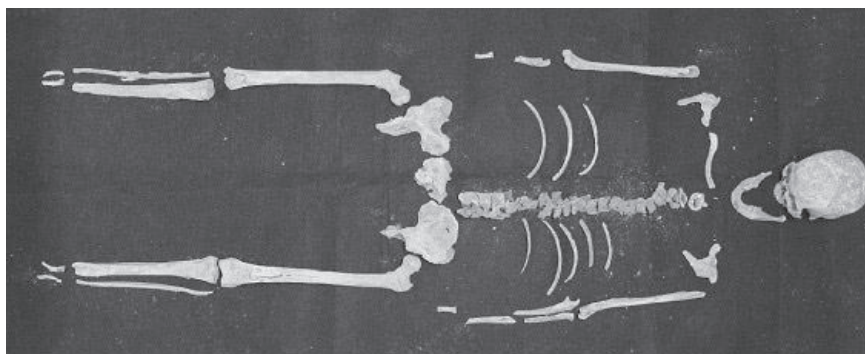
출토 지점	성 별	연 령	키
15지점 출토 인골	여	청년기(25~35세) 이전	158.6cm (± 3.80)

<< 참고문헌 >>

Brothwell, D. R., 1981, *Digging up Bones*, Oxford University Press.

Trotter, M., and G. C. Glesser, 1958, A re-evaluation of estimation of stature based on measurements of stature taken during life and long bones after death, *American Journal of Physical Anthropology* (n.s.) 16: 79-123.

White, T. D., and P. A. Folkens, 2000, *Human Osteology*, Academic P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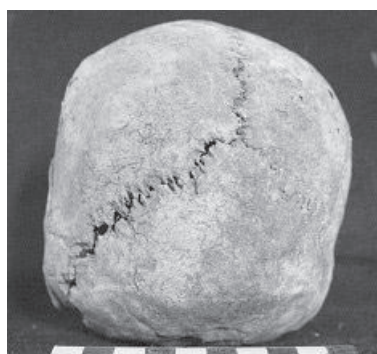
〈사진 1 : 전신〉



〈사진 2 : 두개골(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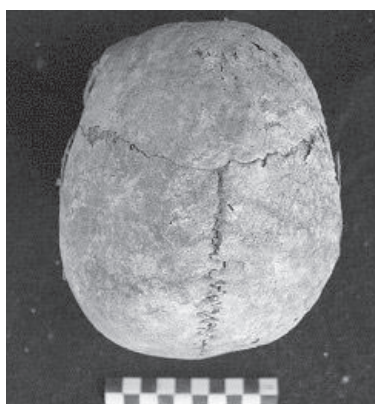
〈사진 3 : 두개골(좌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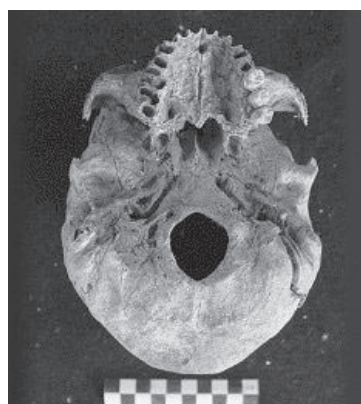
〈사진 4 : 두개골(뒷면)〉



〈사진 5 : 두개골(우측면)〉



〈사진 6 : 두개골(윗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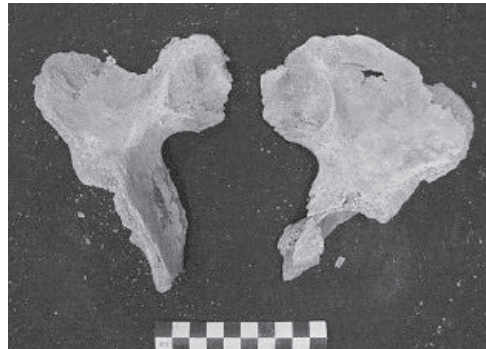
〈사진 7 : 두개골(아랫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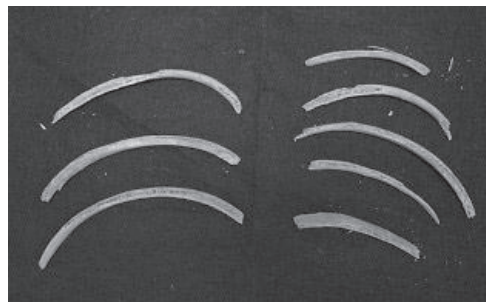
〈사진 8 : 상완골, 척골, 요골〉



〈사진 9 : 대퇴골, 경골, 비골〉



〈사진 10 : 골반〉



〈사진 11 : 늑골〉



〈사진 12 : 척추〉



〈사진 13. 하악(전면)〉



〈사진 14 : 하악(좌측면)〉



〈사진 15 : 하악(윗면)〉



〈사진 16 : 하악(치아 교모도)〉

調查報告書 抄錄

報 告 書 名	華城 盤松里 中世遺蹟 - 東灘 宅地開發事業地區內 15地點 發掘調查報告書 -			發行日	2006年 10月 27日
發 行 機 關	名 稱	京畿文化財團 附設 畿甸文化財研究院			
	住 所	京畿道 水原市 팔달구 인계동 1116-1			
	T E L	031) 898-7990	F A X	031) 898-7991	
執筆・編輯者	김영화, 고재용, 이경원				
調 査 緣 由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구제발굴				
調 査 擔 當 者	김무중, 이경원				
遺蹟所在地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반송리 380번지 일원				
調 査 面 積	12,584㎡				
調 査 種 別	時代 및 年代	類型 및 基數	重要遺物	特記事項	
주거지	청동기시대	2기	무문토기, 지석 등		
	조선시대	38기	자기, 도기, 기와 철검 등		
수혈	청동기시대	1기	반월형석도편 등		
	조선시대	9기	도기편, 자기편		
건물지	조선시대	3기	자기, 도기, 기와 등		
분묘	조선시대	14기	동경, 동전, 가위 등		
구상유구	조선시대	3기	도기, 자기편		
미상유구	미상	1기			

■ 현장조사

- 조 사 : 김무중, 이경원
- 유구실측 : 권지연, 정한나
- 유구측량 : 한빛토목설계공사
- 행 정 : 임재옥, 유영주, 채정민, 이종애
- 보존처리 : 김웅신, 남주연, 이윤정, 양석우

■ 보고서

- 원 고 : 김영화, 정상석, 고재용
- 편 집 : 김영화, 조지원
- 유물실측 : 김유진, 김영신, 백승실, 이필자
- 제 도 : 이현경, 조지원
- 교 열 : 김성태

學術調查報告 第72冊

華城 盤松里 中世遺蹟

- 東灘 宅地開發事業地區內 15地點 發掘調查報告書 -

2006年 10月 27日 印刷
2006年 10月 27日 發行

編 輯 京畿文化財團 附設 畿甸文化財研究院
發 行 京畿文化財團 附設 畿甸文化財研究院 · 韓國土地公社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031)898-7990 fax 031)898-7991

印刷處 경기정판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452-1
☎031)250-3362~4 fax 031)251-5852

(비매품)